

발 간 등 록 번 호
72-4190000-000221-01

원주지명총람(하)

김은철(金垠哲) 편저



원주시

책머리에

우리 원주에 먼 조상들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것은 수만 년 전, 구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과 강을 끼고 너른 들판이 있는 이곳은 인류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기름지고 축복받은 이 터에서 조상들은 농사를 지으며 자식을 낳아 기르고, 치악산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겨내며 대를 이어 뼈를 묻고 이 땅을 지켜왔다.

농경정착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산과 들과 강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들과 물이 필요하였고, 땔나무를 구하고 산나물을 뜯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산이 필요하였다. 사람의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구석기에 약 10km, 신석기에 약 5km였다고 하는데, 그 이동거리는 곧 우리의 먼 조상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 산과 들, 골짜기를 다닌 거리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니는 삶의 터전 산과 들, 골짜기에도 각각 다른 이름이 필요하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붙인 것이 땅의 이름, 곧 지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산, 골짜기, 들과 내, 고갯길 등 조상들의 발길이 닿은 모든 곳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지도에 나타나지 않거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만 잊혀졌기 때문이다.

지명에는 원래의 땅의 모습과 역사, 조상들의 세계관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어서 지명 그 자체가 곧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가령 태장동의 ‘거릿대’는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지금은 주택단지가 되었지만 그 이름에는 그곳이 옛날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고갯길의 이름과 위치를 보고 옛날 조상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고개를 넘었으며, 마을 위치와 규모가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 삶의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짐을 지고 그 고개를 넘었을 조상들의 땀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명을 종합인문과학이라 하고 지명이 역사의 정립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명은 강한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천 년에 이르는 그 지역의 지리와 역사·문화를 누적하여 간직하고, 고대 우리말의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고대국어 연구와 우리 문화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지명은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조상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 전통문화를 재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지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척되고 전통적인 농경문화가 점차 쇠퇴하면서 고유지명은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다.

산과 논밭이 있던 곳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농경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그 이름들도 점점 사라져 간다. 지명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붙인 것인데, 산과 들에 가는 사람이 없으니 지명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농촌사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옛 지명과 유래를 알던 어른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20년 이후가 되면 많은 지명들이 잊혀져 소멸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20년이란, 농경사회의 삶을 살아오며 현장의 고유지명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의 자연연령에서 추론되는 제한된 시간이다. 지명을 발굴하여 채록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의 지명을 소멸되기 전에 발굴해서 등재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조사·연구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로 설정되었으나 이미 그 필요성은 『원주의 지명유래』가 나온 이후인 2000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주의 지명유래』에 1910년대의 기록인 『조선지리지자료』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척된 원주시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현지지명을 재정리하여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번 작업은 지명조사가 어느 한 순간에 답사하여 채록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하는 작업임을 재인식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제반 사안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옛 지리지에 기록된 지명들을 모두 발굴하여 수록하고, 현 위치를 고증하여 반영하였다. 또 누락된 현지 고유지명을 최대한으로 채집하여 수록하고, 지명의 위치와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며, 지명의 유래와 풀이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애썼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옛 지리지에 등재된 지명, 특히 『조선지리지자료』와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에 등재된 지명을 동시에 수록하여 현재 지명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지명의 어원을 충실히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한국지명총람』은 1967년, 이 책이 2019년이므로 세 권의 책은 각각 약 50년간의 시차를 두고 현지 지명을 기록한 셈이어서, 원주지명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보여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기록에서 나타나는 100여 년에 걸친 변화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원래의 우리말로 된 고유지명이 한자로 기록되며 크게 훼손되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은 산과 들에는 원래의 고유지명이 남아있는 반면 거기에서 파생된 행정지명은 한자로 되면서 간결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무형문화유산인 지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독려해준 원주시역사박물관 김성찬 학예연구팀장에게 깊이 감사한다. 또한 원주의 지명에 관심을 가지고 고대국어의 전문지식으로 자문해주신 김양진·이철우 교수,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및 자료정리에 애쓴 동료 연구원들에게도 감사한다.

4 _ 원주지명총람(하)

무엇보다도 현지 지명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마을 어른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 분들이 산 역사이며 그 분들이 이 땅의 보물들이다. 길에서, 마을에서, 산에서, 들에서 만나는 어른들의 말씀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소중한 역사였으며 척박한 우리의 삶과 존재의 뿌리 그 자체였다. 그 한 분 한 분들의 숭고한 삶에 필자는 숙연해 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당신의 젊은 발걸음이 닿았던 치악산 구석구석을 잊지 않으려고, 골짜기 하나 봉우리 하나까지 손수 상세하게 그려 벽에 붙여 놓았던 그 어른의 ‘보물지도’를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먼 골짜기 외딴집, 땀과 눈물로 얼룩진 옛 이름들을 가물거리는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며 회한에 젖던 어른들의 눈시울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새댁 때 들었던 잊혀진 그 골짜기 이름을, 반세기가 지난 이제서 누군가 찾아와 들추어 묻고, 아련한 기억 속에서 당신의 옛 젊음을 떠올리던 먼 눈빛, 다시 산을 내려가는 내 등 뒤에 머물던 그 시선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명조사는 항상 미완이다. 사람이 떠나면 있던 지명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나타나 새 지명이 생기며, 세월이 흘러 말이 변하듯이 지명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다음 어느 시기 누가 이 작업을 다시 이어서 할지 나는 알 수 없다. 필자로서는 이것이 마지막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막다른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지만 이 미완의 작업을 후대에 누군가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여 바로잡을 것을 기대한다.

다만 『원주의 지명유래』에서 수정·보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한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필자는 만족하려고 한다.

2019년 12월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은철

일러두기

- 이 책은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원주 지역의 자연지명을 조사하여 등재한 것이다. 지명은 고유한 자연지명을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수록 대상은 원주시 전 지역의 지명으로, 옛 문헌에 등재되어 전하는 지명과 현지에서 채록된 지명을 모두 실었다.
- 등재 순서는 원주시 직할동·읍·면 순으로 하였고,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원주시 직할동의 경우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 원주시 직할동·면·리의 경우 앞부분에 상위 지명의 [위치]·[연혁]·[유래]·[내용]을 기술한 뒤 하위 지명을 서술하였다.
〔예〕 귀래면(貴來面) : [위치]·[연혁]·[유래]·[내용]
귀래리(貴來里) : [위치]·[연혁]·[유래]
- 지명의 표제어는 그 지역에서 현재 통용되는 것을 택하되 가급적 순수 고유지명을 우선적으로 취하였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상의 지명을 쓴 곳도 있으며, 한자가 전하는 지명에 대해서는 () 안에 한자를 기록하였다.
- 이름만 남아있고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지명도 보존의 차원에서 등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동일 지명에 대해 다른 이름이 있는 경우도 모두 표제어로 삼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 동일한 지명이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어 나올 때는 중복하여 서술하지 않고 ‘→’를 써서 찾아가도록 하였다.

- 각 지명에는 그 지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대표항목]을 달았다.

[예] 거무내 [마을]	거무내산 [산]
거무내골 [골]	거무내재 [고개]

- 각 지명의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건물] ; 건물, 집	[불상] ; 불상, 석불
[고개] ; 고개, 재, ~치, ~령	[비] ; 기념비, 비석
[골] ; 골, 골짜기, 계곡	[비각] ; 효자문, 열녀문 등 비각
[공원] ; 공원	[비행장] ; 비행장
[광산] ; 광산	[산] ; 산, 봉
[광장] ; 광장	[산업] ; 공장, 회사, 사업체
[교회] ; 교회	[샘] ; 샘, 우물, 약수터
[극장] ; 극장	[섬] ; 섬
[굴] ; 굴, 터널	[성] ; 성(城), 산성
[길] ; 길, 거리, 도로, 분기점, 인터체인지	[성당] ; 성당,公所
[나루] ; 나루, 나루터, 포(浦)	[소] ; 소(沼), 늪, 여울
[나무] ; 기념수, 보호수	[숲] ; 숲, 당숲, 보호림
[내] ; 개울, 내, 강, 천(川)	[시설] ; 시설물, 공공건물
[농원] ; 농원, 농장	[역] ; 역(驛)
[누정] ; 누각, 정자	[원] ; 원(院), 참(站)
[다리] ; 다리, 철교	[유원지] ; 유원지
[당] ; 성황당, 제당, 사당	[유물] ; 유물
[독] ; 독, 제방	[유적] ; 주거지, 유적
[들] ; 들, 논, 밭, 버덩	[장] ; 장, 시장, 상가
[마을] ; 마을, 동네	[장승] ; 장승
[모롱이] ; 모롱이, 모퉁이	[절] ; 절, 사찰, 암자
[못] ; 못, 연못, 저수지, 소류지, 양어장	[정문] ; 열녀문, 정문
[묘] ; 묘, 능, 공동묘지	[제단] ; 단, 제단
[바위] ; 바위	[주막] ; 주막
[보] ; 보(湫)	[탐] ; 탐, 부도

[터] ; 절터, 건물터 등 장소, 터

[학교] ; 초등, 중등, 대학, 기타 학교

[폭포] ; 폭포

- 각 지명마다 [위치]·[연혁]·[유래]·[유래담]·[내용]·[풀이]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각 지명에 대한 기술순서는 다음의 순으로 하였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이를 생략하였다.

[예] 지명[대표항목]·[위치]·[연혁]·[유래]·[유래담]·[내용]·[풀이]·[전설]·[유물]·[유적]

- 대표항목이 같은 동일 지명이 반복되어 나올 때는 지명(1), 지명(2) 등으로 하였다.

[예] 큰골(1) [골], 큰골(2) [골]

단, 이름이 같은 지명이라도 대표항목이 다를 때에는 번호를 달지 않았다.

[예] 큰골 [골], 큰골 [마을]

- [위치]에서는 ①그 지명의 위치를 동서남북을 위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②현전하는 다른 이름을 적은 후, ③1910년에 채록된 『조선지리지자료』의 지명, ④1966년에 채록된 『한국지명총람』의 지명의 모습을 순서대로 기술하여, 100년 전과 50년 전,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귀래리의 동쪽에 있는 고개로 현 19번 충원대로와 복원로가 지나는 고갯길이다. 귀래면과 흥업면과의 경계에 있는 큰 고개를 큰양아치, 귀래 쪽의 작은 고개를 작은양아치라고 부른다. ‘양어치(兩御峙)’, ‘양안치(兩鞍峙)’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양앗치(兩峨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아치’라 하였다.

- [유래]는 그 지명이 현재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적었다. 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고개가 두 개이므로 대치(大峙)와 소치(小峙), 또는 둘을 합쳐 양치(兩峙), 양대치(兩大峙)라고 불렀는데 ‘양+치>양치’에 매개모음 ‘ㅏ’가 개입하여 ‘양아치’가 되었다. 큰 고개 두 개가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또는 고개가 마치 말안장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양안치(兩鞍峙)’라 하였다고도 한다.

- [유래담]은 그 지명에 얹힌 전설, 설화, 민담에 전하는 내용을 기술하여 참고로 하도록 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유래답] 삼국시대에 고구려왕의 어거가 매지리에 머물고, 신라왕의 어거가 운계리에 머물러 대치하였으므로 그 경계인 이곳을 ‘양어치(兩御峙)’라 하였다고도 한다.

- [내용]은 그 지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어서 가급적 그 지명에 대한 기타 정보를 수록하였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유래답]

[내용] 《해동지도》(1750)와 《광여도》(1800)에서는 ‘대치(大峙)’와 ‘소치(小峙)’로 구분하였다. 《여지도서》(1765)에 ‘양대치(兩大峙)’라고 하였으며 《대동지지》(1866)에서는 ‘대치(大峙)’와 ‘소치(小峙)’로 구분하였다. 《조선지리지》(1911)에서는 ‘양앗치(兩峨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1967)에는 ‘양아치(兩峨峙)’라고 하였고 《원주원성향토지》(1976)에서는 ‘양아峙’라고 기록하였다.

1971년에 개교, 1983년에 폐교된 학교 이름이 ‘양아치분교’였으므로 현지에서는 최근까지도 별 거부감 없이 ‘양아치’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주민들이 ‘양아치’라는 이름을 꺼려 개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양아치’와 ‘양안치’ 두 이름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현 도로표지판과 등산지도 등에 ‘양안치’로 적고 있어서 ‘양안치’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 [풀이]는 국어학적인 차원에서 해당지명의 어원을 밝혔다. 그러나 그 어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예] 양아치(兩峨峙) [고개]

[위치]

[유래]

[유래답]

[내용]

[풀이] 18세기와 19세기의 모든 지리지에 ‘대치(大峙)’와 ‘소치(小峙)’, ‘양대치(兩大峙)’라 하였다. 이는 크고 작은 고개가 두 개이므로 붙여진 이름으로서 ‘양(兩)+치(峙)>양치’인데 매개

모음이 개입하여 ‘양(ㅕ)+치>양아치(兩峨峙)’가 되었다. 높은 고개가 두 개라는 뜻이다. 이를 한자로 적는 과정에서 두 고개가 말안장을 닮은 것으로 보아 ‘아’를 ‘안(鞍)’으로 적어 ‘양안치’라고도 하였고, ‘양어치(兩御峙)’라 하여 유래담도 생겼다.

● 해당 지명과 관련된 [전설]·[유물]·[유적] 등은 해당 지명의 항목 안에 넣었다.

● 수록사진은 지명과 관련된 기록의 가치가 있는 것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 본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책임자 : 김은철(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책임연구원 : 김종호(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 연 구 원 : 장향실(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 연 구 원 : 윤은애(문학석사,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외래교수)
- 자 문 위 원 : 김양진(문학박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자 문 위 원 : 이철우(문학박사, 상지대학교 특성화기초학부 조교수)

● 본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참여한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책 자 편 찬 : 김성찬(원주시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 사 진 촬 영 : 전제인(원주시 우산동 ‘사진만들기’ 대표)

● 참고문헌 : 본 연구에 참고한 자료 및 문헌은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1145)	【해동지도】(1750)
【고려사】(1451)	【여지도】(1765)
【세종실록지리지】(1454)	【여지도서】(1765)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지승】(1778)
【동국여지지】(1660)	【광여도】(1800)
【관동지】(1831)	【조선지지자료】(1911)
【대동지지】(1866)	【조선고적도보】(1935)
【원주읍지】(1871)	【조선환여승람】(1937)
【1872년지방지도】(1872)	【강원도지】(1941)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1967.

《전국유적목록》, 문화재관리국, 1970.

《원주원성향토지》, 원주문화원, 1976.

《춘천의 지명유래》, 춘천문화원, 1995.

《원주의 지명유래》, 원주시, 1999.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2001.

《문막읍지》, 문막읍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한국하천지명사전》, 국토해양부, 2011.

차 례

책머리에	3
일러두기	6
차 례	12

제8편 지정면(地正面) 지명(地名) 13

● 가곡리(佳谷里)	22
● 간현리(艮峴里)	36
● 보통리(普通里)	54
● 신평리(新坪里)	62
● 안창리(安昌里)	76
● 월송리(月松里)	94
● 판대리(判垞里)	116

제9편 판부면(板富面) 지명(地名) 129

● 금대리(金垞里)	140
● 서곡리(瑞谷里)	166
● 신촌리(新村里)	190

제10편 호저면(好楮面) 지명(地名) 199

● 고산리(高山里)	208
● 광격리(光格里)	222
● 대덕리(大德里)	234
● 만종리(萬鍾里)	242
● 매호리(梅湖里)	256
● 무장리(茂長里)	264
● 산현리(山峴里)	276

● 옥산리(玉山里)	286
● 용곡리(龍谷里)	294
● 주산리(珠山里)	304

제11편 흥업면(興業面) 지명(地名) 317

● 대안리(大安里)	326
● 매지리(梅芝里)	348
● 사제리(沙堤里)	374
● 흥업리(興業里)	390

제8편

지정면(地正面) 지명(地名)



지정면 소재지 ; 1973년

[위치]

지정면은 원주시 북서 방향에 있고 원주시청에서 약 14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호저면 만종리,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남쪽으로는 문막읍, 북쪽으로는 호저면 · 횡성군 서원면과 각각 접해 있다.

[연혁]

지정면(地正面)은 원 래 원주군(原州郡)의 지향곡면(地向谷面)과 정지안면(正之安面)의 지역이다. 1760년 대의 『여지도서』에는 지향곡면에 1~4리, 정지안면에 1~4리가 있어 각각 4개 리를 관할하였다. 1908년 에 지향곡면은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까지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이름을 상지곡면(上地谷面)으로 하고 면 사무소를 월송리 송호동에 두었다.

1912년에 상지곡면에는 1리(안창리) · 2리(간현리) · 3리(보통리) · 분3리(가곡리) · 4리(판대리)의 5개 리가 있었고, 정지안면에는 본1리(생장리) · 분1리(무장리) · 2리(차면리) · 3리(송호리) · 4리(월호리)의 5개 리가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두 면을 병합하면서 지정면(地正面)이라 하고 가곡 · 간현 · 무장 · 보통 · 신평 · 안창 · 월송 · 판대의 8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였다.

1915년 행정구역 재조정에 따라 서원면 옥계리를 횡성군에 이관하고 이름을 지향곡면으로 개칭하여 면 사무소를 간현2리 작동에 두었다.

1921년 면 이름을 다시 지정면으로 개칭하고, 1948년에 면사무소를 간현리로 옮겼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원성군(原城郡) 지정면이 되었다.

1973년 무장리를 호저면으로 이관하였다.

1989년 원성군을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지정면이 되었다.

1995년 시 · 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이 되었다.

[유래]

지향곡면(地向谷面)과 정지안면(正之安面)을 통합하면서 각 이름을 따서 지정면(地正面)이라 하였다.



지정면사무소 ; 1977년

지정면 복지회관 준공식 ; 1991년





간현리 시가지 ;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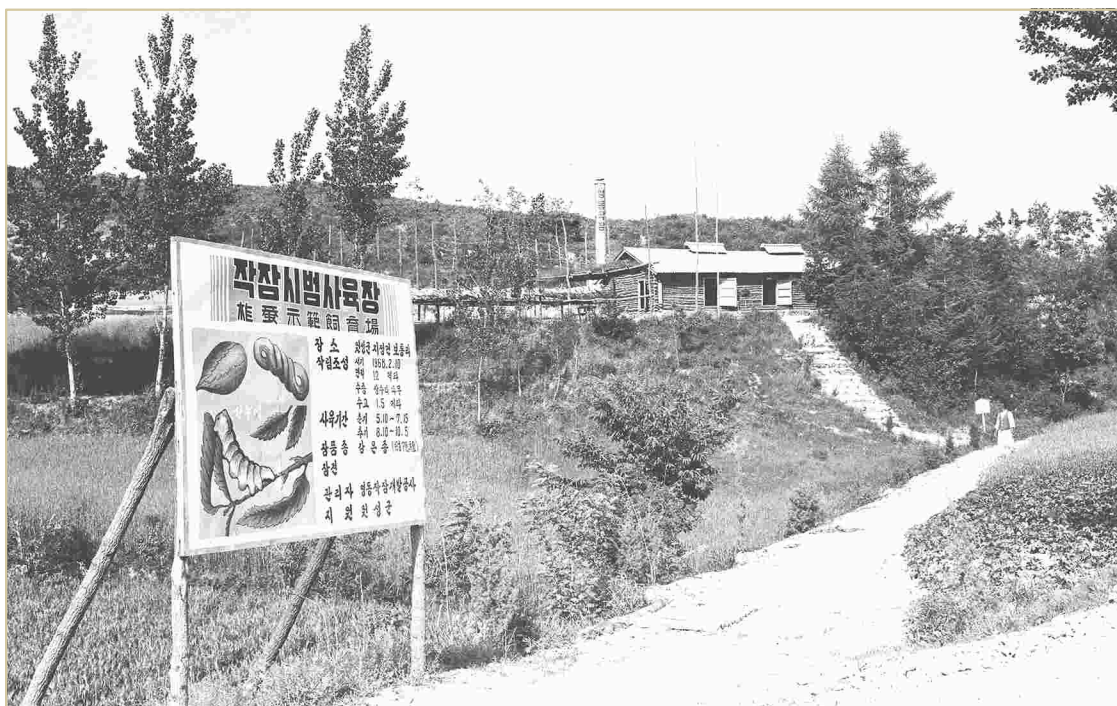
간현리 간현관광지 ; 198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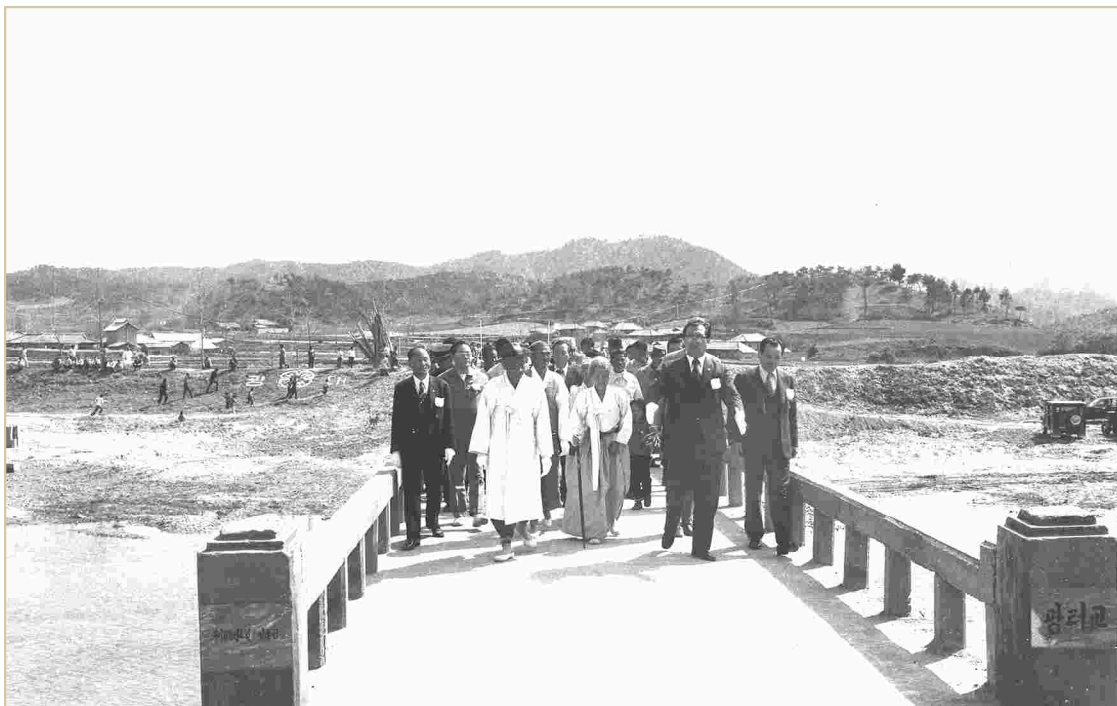




간현리 간현교 가설공사 기공식 ; 1997년

보통리 산누에 시범사육장 ; 1968년





보통리 광터교 준공식 ; 1974년

보통리 광터 마을 새마을복지회관 준공식 ; 1981년





신평리 새마을광역권사업 준공식 ; 1985년

안창리 지정대교 준공식 ; 1984년





월송리 다락논 개간 ; 1964년

월송리 월송교 준공식 ; 1986년





판대리 장지교 준공식 ; 1986년

지정면 소재지 ; 2015년



가곡리(佳谷里)

[위치]

가곡리는 지정면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신평리, 서쪽으로는 간현리, 남쪽으로는 보통리, 북쪽으로는 월송리와 접해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지향곡면(地向谷面)의 지역으로 분삼리(分三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오랑·당고개·도오개·자작촌·지촌·핏골·평장동을 병합하고 지정면에 편입하여 원주군 지정면 가곡리(佳谷里)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면서 원성군 지정면 가곡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지정면 가곡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가 되었다.

[유래]

‘갈울·갈우리’를 1914년 행정구역 정비 때 한자로 가곡리(佳谷里)라 하여 정착되었다. ‘갈울’은 가래울(分谷)에서 유래한 것으로 ‘골짜기가 갈라진 곳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풀이]

전국적으로 ‘갈울·가야골·가리실·가삿골·갯골·가재·가일’이란 이름을 가진 지명은 ‘가곡리’라는 행정 지명을 가지고 있다. 이곳 가곡리의 옛 지명인 ‘갈울·갈우리·가울은·가우른’ 등은 ‘갈울(<가래울>)’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갈·가루·가래·가리’는 산 또는 냇가 갈라져 나누어진 곳을 뜻하고, ‘울’은 골짜기 또는 마을을 뜻한다. 따라서 ‘갈울·가래울’은 ‘골짜기가 갈라진 곳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가곡리(佳谷里) [마을]

[위치] 보통리 북쪽, 월송리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새말담’, ‘오용골’, ‘자작촌’, ‘평장골’ 마을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가론, 가우른, 가울은, 갈우리, 갈울’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곡리(佳谷里, 갈울, 갈우리)’라고 하였다.

[유래] 골짜기가 갈라진 곳에 마을이 들어섰다는 뜻으로 ‘갈울, 갈우리’라 하였고 한자 지명 ‘가곡리(佳谷里)’로 정착되었다.

가곡천(佳谷川) [내]

[위치] 창대고개에서 시작하여 남서쪽으로 도오개와 당고개들을 지나 간현으로 흐르는 내를 말한다. 흙대울 남쪽부터는 ‘작동천’으로 부른다. ‘도오개 내’라고도 한다.

가론 [마을] → 가곡리

가론들 [들] → 가울은들

가시내 [내]

[위치] 지촌천의 다른 이름으로, 흙대울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가시내고개 [고개]

[위치] 흙대울에서 북쪽 평장동과 자작촌으로 넘어가던 낮은 고개를 말한다.

가시내들 [들]

[위치] 흙대울 앞, 가시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시니썰(荊川坪)’이라 하였다.

가시내보 [보]

[위치] 흙대울 앞 지촌천에 있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시니보(荊川湫)’라 하였다.

가우른 [마을] → 가곡리

가울은 [마을] → 가곡리

가울은들 [들]

[위치] 가곡리 앞의 들을 범칭하는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론썰(佳谷坪)’이라 하였다.

간지논골 [골]

[위치] 핏골저수지 남쪽, 아랫담 아래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원주기업도시 거울못공원 남쪽의 단독주택단지 지역이다.

갈우리 [마을] → 가곡리

갈울 [마을] → 가곡리

[풀이] ‘갈우리, 가울은, 가우른’ 등은 ‘갈울’에서 파생된 것이다. ‘갈’은 ‘가루, 가래’와 같은 뜻으로 산 또는 내가 갈라진 곳을 뜻하고 ‘울’은 ‘골>굴>울’로서 ‘골짜기’ 또는 ‘마을’을 뜻한다. 따라서 ‘갈울’은 ‘가래울(分谷)’에서 유래한 것으로 ‘골짜기가 갈라진 곳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전국적으로 ‘갈울, 가야골, 가리실, 가삿골, 갓골, 가재, 가일’이란 이름의 지명은 대부분 ‘가곡리(佳谷里)’라는 행정 지명을 가지고 있다.

강승재골 [골]

[위치] 핏골저수지 아래 조락골에서 핏골 작은내담으로 나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현 거울못 남서쪽 상가지역이다.

거울못 [못]

[위치] 옛 핏골저수지의 새 이름이다.

[유래] 핏골저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핏골’이란 이름 대신에 새로 지은 이름이다. 거울처럼 맑은 연못에 자신을 비추어 보자는 뜻, 그리고 먼 옛날의 이곳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자는 뜻에서 ‘거울못’이라 하였다.

거울못공원 [공원]

[위치] 옛 핏골저수지를 중심으로 조성한 원주기업도시의 공원을 말한다.

[유래] ‘핏골’이란 이름 대신 새로 지은 이름이다.

거치런이 [고개]

[위치] 평장동 평장들 서쪽, 오용골(1)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월송리 거치런아골과 숯돌고개가 있다. 고개 높이는 130m이다. ‘거치허리’, ‘거치런이고개’라고도 한다.

거치런이고개 [고개] → 거치런이

거치허리 [골] → 거치런이

괴연돌 [마을] → 관돌

관돌 [마을]

[위치] 관돌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동방 레미콘 안쪽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괴연돌’이라고 하였다.

[유래] 관돌골의 현 황매선원에 고인돌이 있으므로 ‘고인돌>관돌’이 되었다.

[내용] 관돌이라고 알려진 돌은 앞면이 편편한 바위로 고인돌로 보이지 않는다. 전하는 말로는 옛날 이 마을의 어느 바위 아래에서 청동검이 발견되었다고도 하므로 원래 다른 곳에 고인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매선원의 바위에는 산령각(山靈閣)을 설치하고 산신령을 그려놓았다.



「관돌」; 2018년

관돌골 [골]

[위치] 흙대울 북서쪽, 평장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동진레미콘이 있는 곳에서 북서쪽으로, 20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관돌 마을과 황매선원이 있고, 골짜기 위에 솟돌고개가 있다.

굴뚝고개 [고개]

[위치] 팻골에서 동쪽으로, 영산 북쪽, 여우박골산 남쪽 사이를 넘어 신평리 채미니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육판재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귀웅보(歸雄狀) [보]

[위치] 관돌 마을 앞에 있는 가곡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귀웅이보(歸雄狀)’라고 하였다.

[풀이] ‘귀웅(歸雄)’은 ‘관돌’, ‘괴연돌’의 ‘관’, ‘괴연’을 음차하여 소리를 적은 것이다.

긴고개 [고개]

[위치] 관돌에서 남동쪽으로, 간현리 작동과 경장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60m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긴고기(長峴)’라 하였다.

노인산(老人山) [산]

[위치] 큰골(2) 남쪽에 있는 높이 228.6m의 산을 말한다. 산 동쪽에 질마재가 있고 서쪽 바로 옆에는 능골고개가 있다. 가곡리, 간현리, 보통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노인산(老人山)’이라 하였다.

능골 [골]

[위치] 도오개 모태윗골 위에서 북서쪽으로, 높이 226.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원주기업도시 창대고개생태통로 남쪽, 능마루어린이공원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현 단독주택단지로 개발 중이다. 능골 북쪽 너머에는 서낭당고개가 있고 고개 위에 돼지문화원이 들어서 있다. ‘능마루어린이공원’과 ‘능마루길’에 이름을 남겼다. 『한국지명총람』에 ‘능골’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때 지평현감(砥平縣監)을 지낸 원기(元璣, 1478~1545)의 묘가 있으므로 능골이라 하였다.

다오개 [고개] → 되개

다오개 [마을] → 도오개

다오랑(多五郎) [마을] → 다오랭이

다오랭이 [마을]

[위치] 도오개 서쪽 위, 바람머리산 북동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재 호반베르디움 2차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다. ‘다오랑(多五郎)’, ‘다오랑이’, ‘다오랑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다오랑

이(多五朗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다오랭이(다오랑多五郎)’라 하였다.

[유래] 다오개(도오개, 되개) 서쪽 언덕의 밭에 마늘이 있었으므로 다오랭이라 하였다.

[풀이] ‘다오(<되>+랭이>다오랭이’가 되었다. ‘다오’는 ‘되개(<된>고개)>다오개>도오개’에서 나온 것이며 ‘랭이’는 높은 곳의 밭을 뜻하는 접미사이다.

다오랭이골 [골]

[위치] 가곡천 옆의 넓은 수살매기들에서 북서쪽 다오랭이 마을로 나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그곳에 현 호반베르디움2차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다오랑 [마을] → 다오랭이

당고개 [고개]

[위치] 원주기업도시에서 북서쪽 월송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높이는 120m이다. 현 당고개생태통로가 나 있다. ‘당현(堂峴)’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고개 정상에 서낭당과 산제당이 있었으므로 당고개라 하였다. 1970년대 도로를 내면서 모두 없어졌다.

[내용] 당고개는 바람머리산(193.5m) 산줄기의 남쪽에 있으며 도오개와 당고개, 핏골 등에서 삼강변 월송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 고개에 서낭당과 산제당이 있어서 당고개라 하였는데 지금은 도로가 넓게 나면서 경사가 완만해져 고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다. 고개 남서쪽에 죽림사(竹林寺)가 있다.

당고개 [마을]

[위치] 당고개 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약 30호가 살던 마을로 현재 반도유보라이비파크가 들어서 있다. ‘당현(堂峴)’, ‘당현동(堂峴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당고기(堂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당고개(당현동堂峴洞)’라 하였다.

당고개들 [들]

[위치] 당고개 마을 앞, 동쪽과 남쪽으로 펼쳐진 들

을 말한다. 현 유보라이비파크단지과 그 남쪽 연구단지 지역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당고개들’이라고 하였다.

[내용] 도오개에서 내려오는 가곡천을 따라 형성된 들로서 상류로는 다오랭이 앞 수살매기들과 만나고 동쪽으로는 가곡천 건너의 핏골, 여운터골, 탄동구리골과 마주보고 있다.

당현(堂峴) [고개] [마을] → 당고개

당현동(堂峴洞) [마을] → 당고개

도야지산 [산]

[위치] 능골 북쪽 끝에 있는 높이 226.6m의 산을 말한다. 서쪽 아래에 돼지문화원이 있고 북쪽 아래에는 서낭당고개가 있다. 월송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 이름이 없던 산에 돼지문화원에서 새로 지어 붙인 이름이다.

도오개 [고개] → 되개

도오개(道五介) [마을]

[위치] 가곡천의 상류에 있던 마을로 창대고개 남쪽, 도오개저수지를 가운데 두고 양 옆 산 쪽으로 있던 마을이다. 위치는 현재 롯데캐슬골드파크2차 지역과 호반베르디움 지역이다. ‘되개’, ‘다오개’라고도 한다. 한자로 ‘도오개(道五介)’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도오기(道五介)’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되개(도오개道五介)’라 하였다.

[유래] 되개(된고개) 동쪽 아래에 마을이 있으므로 ‘되개>다오개>도오개’라 하였다.

[내용] 이곳은 가곡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곳으로 기업도시로 개발되기 전에는 약 20호가 있었다. 마을은 도오개저수지 동쪽 매봉재 아래와, 서쪽 언덕에 있었는데, 마을 서쪽에는 바람머리산(193.5m) 줄기의 되개, 북쪽에는 155m 높이의 창대고개, 동쪽은 새말고개에서 이어지는 산줄기로 막혀 있었다. 마을을 중심으로, 북쪽 창대고개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모이는 도오개저수지의 위와 아래, 남서

쪽으로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도오개내 [내] → 가곡천

[위치] 가곡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도오개내(道五介川)’라 하였다.

[내용] 도오개 마을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마을 이름을 따라 도오개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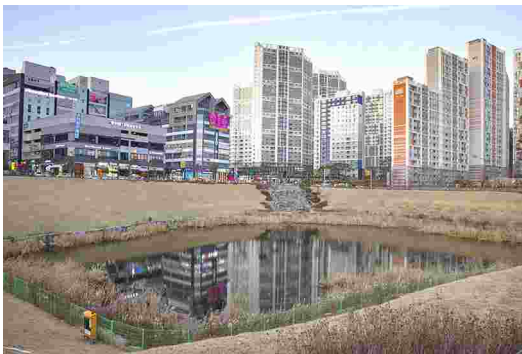
도오개들 [들]

[위치] 도오개 저수지 남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남쪽으로 다오랭이골의 수살매기들과 이어진다. 들 위쪽에 현재 섬강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도오개저수지 [못]

[위치] 도오개 마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재 도오개삼거리 남쪽, 섬강초등학교 북쪽 사이에 있다. 북쪽의 창대고개, 동쪽의 매봉재, 서쪽의 못윗골과 능골의 물을 모아 도오개들에 물을 댔다. 현 샘마루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되개저수지’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되개저수지’라 하였다.

[내용] 낚시꾼들이 많이 찾던 곳으로, 가곡리에서 핏골저수지와 함께 도오개들에 물을 대던 중요한 시설이었다. 현재는 규모가 축소되면서 택지 가운데 샘마루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도오개저수지 ; 2019년」

도오개주막 [주막]

[위치] 도오개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도오기주막(道五介酒幕)’이라 하였다.

도오재 [고개]

[위치] 도오개저수지에서 동쪽으로, 새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호반베르디움 동쪽에 있는 산길로, 매봉재(175.1m) 북쪽에 있다.

돌잔발 [들]

[위치] 지래울 인수터 옆에 있는 발을 말한다.

[유래] 잔돌이 많았으므로 돌잔발이라 하였다.

돌터고개 [고개]

[위치] 도오개에서 북서쪽으로, 월송리 송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모태윗골을 거쳐 고개 너머에 돌터골과 찬샘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155m이다. ‘돌툽고개’, ‘돌툽고개’, ‘돌터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돌툽고기(石鋸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돌터고개’라 하였다.

돌툽고개 [고개] → 돌터고개

돌툽고개 [고개] → 돌터고개

돼지골 [골]

[위치] 일곱들 남쪽 아래 간현교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지촌천과 흙대울이 있다.

되개 [고개]

[위치] 도오개에서 모태윗골을 지나 서쪽 월송리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돌터거리골을 지나 옷나무골이 있다. 높이는 150m이다. ‘된고개’, ‘다오개’, ‘도오개’라고도 한다.

[유래] 고개를 넘기가 힘이 들므로 ‘된고개>되개’라 하였다.

[내용] 이 고개 이름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도오개(<다오개<되개) 마을 이름이 나왔다.

되개 [마을] → 도오개

되개저수지 [못] → 도오개저수지

된고개 [고개] → 되개

돌터고개 [고개] → 돌터고개

탄동구리골 [골]

[위치] 당고개 마을 맞은 편 가곡천에서 동쪽으로, 판동구리산 남쪽을 향하여 나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이 골짜기를 따라 기업도시로가 나 있다.

판동구리들 [들]

[위치] 여운터골 남쪽, 판동구리산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져 있던 들을 말한다. 현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및 도로가 난 지역이다.

판동구리산 [산]

[위치] 당고개 마을에서 가곡천을 건너 따로 떨어져 있던 작은 동산을 말한다. 여운터골과 판동구리골 사이, 현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서쪽에 있던 산으로 높이는 120m였다. 산이 있던 자리에 판동구리소공원을 조성하여 판동구리란 이름을 남겼다.

[유래] 주변은 낮은 골짜기와 들인데 이 산만 따로 떨어져 혼자 솟아 있으므로 판동구리라 하였다.

매봉재 [산]

[위치] 도오개 동쪽, 새말고개 서쪽에 있는 175.1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위치는 현 롯데캐슬더퍼스트 2차 북쪽, 호반베르디움 동쪽으로, 산줄기만 남아 있다. 『조선지리지』에 ‘미봉지(鷹峰岬)’라고 하였다.

[내용] 매봉재의 북쪽은 창대고개, 동쪽은 새말고개가 있어서 산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산줄기가 동쪽에 있는 새말(신촌)과 서쪽에 있는 도오개, 핏골의 경계이다.

모래고개 [고개]

[위치] 여우박골산 북쪽 아래, 문고개 남쪽 위 능선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핏골에서 채미니로 가던 고개이다.

[풀이] 여기서 ‘모래’는 산을 뜻하는 옛말 ‘몰’에서 파생된 것이다. ‘몰(山)>고개>몰고개>몰(ㅏ, ㅓ)고개>모래고개’가 되었다. 같은 어원으로 단계동의 ‘모래내’, 귀래면의 ‘모래재’, 봉산동과 소초면의 ‘모래기’ 등이 있다.

모태윗골 [골]

[위치] 도오개저수지 위에서 북서쪽으로, 도오개 마을 뒤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못윗골이라고도 한다. 위치는 도오개저수지에서 현 이지더원1차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다.

[유래] 도오개저수지 못 위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못윗골>모태윗골’이라 하였다.

[풀이] ‘못’의 어원적 의미는 ‘모인 곳’으로, ‘못’은 ‘몰다(集)’의 어근이다. ‘몰+위+골>몰위골>몰(ㅓ)위(ㅓ)골>모대윗골>모태윗골’로 실현되었다. ‘ㅓ’는 매개모음, ‘ㅗ’는 사이시옷이다.

못윗골 [골] → 모태윗골

문고개 [고개]

[위치] 핏골저수지 위 언윗들에서 동쪽으로, 우채미니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구레골 남서쪽 위, 현 기업도시로의 문고개생태통로 동쪽 아래에 있었다. 고갯길에 현 문고개생태통로가 나 있다. ‘문드령’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문고기(門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문고개’라고 하였다.

[유래] 고갯마루에 바위가 문처럼 양쪽에 서있어서 문고개라 하였다. 고개를 넘으면서 ‘문 열려라’하고 소리쳤다고 한다.

[내용] 새말고개에서 여우박골산, 영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넘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핏골 뿐만 아니라 도오개, 당고개 등 가곡리의 주민들이 채미니, 만종, 모래내를 거쳐 원주를 오가던 중요한 고갯길이었다. 도로가 나면서 지형이 모두 변형되었고 문고개생태통로 동쪽에 큰 바위 흔적만 남아 있다. 문고개생태통로, 문고개사거리에 이름을 남겼다.

문드령 [고개] → 문고개

바람머리산 [산]

[위치] 당고개 북쪽 능선에 있는 높이 193.5m의 산을 말한다. 당고개에서 바람머리산, 창대고개로 이어지는 이 산줄기가 월송리와 경계를 이루며 기

업도시의 서쪽을 막고 있다. ‘배냇머리산’, ‘배댄머리산’, ‘배남별산’, ‘배남부리’라고도 한다.

[유래] 산 서쪽 아래의 월호나루터에서 배, 뗏목을 돌리던 곳을 ‘배냇머리’라 하였는데, 배냇머리의 남동쪽에 있으므로 ‘배냇머리산’, 예전에는 산 아래에 배를 대었으므로 ‘배댄머리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음운이 변하여 ‘배남별’, ‘배남부리’ ‘바람머리’ 등으로 실현되었다.

박석고개 [고개]

[위치] 조락골에서 북쪽으로, 신촌으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매봉재와 새말고개 사이에 있던 고갯길이다. 현 롯데캐슬더퍼스트2차아파트 북쪽에 고갯길 일부가 남아있다.

[풀이] ‘박석’은 ‘붉(赫)’과 ‘돌(高·山)’이 결합하여 ‘붉+돌>박달(돌)’이 된 것으로 이때 ‘달(돌)’을 ‘돌(石)’로 해석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박달재’와 ‘박석고개’는 같은 뜻의 지명으로 ‘크고 높은 산 고개’란 의미이다.

박순의 순덕각(朴純義 純德閣) [비각]

[위치] 당고개 서쪽 아래, 당고개 마을 앞에 있던 비와 비각을 말한다. 거울못공원에 옮겨져 있다.

[내용] 원주목사 박순의의 선정을 기념하는 비 및 비각이다. 마을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비와 비각을 거울못공원으로 옮겼다.



「박순의 순덕각 ; 2019년」

배남별산 [산] → 바람머리산

배남부리산 [산] → 바람머리산

배냇머리 [나루]

[위치] 월호나루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월호나루터 상류에서 배를 돌리던 곳으로 ‘배냇머리’라 하였다.

배냇머리산 [산] → 바람머리산

배댄머리산 [산] → 바람머리산

버덩들 [들]

[위치] 다오랭이 서쪽 아래 둔덕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호반베르디움2차 및 도로가 난 지역이다.

병풍바우골 [골]

[위치] 지촌 마을에서 동쪽으로, 진수고개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산 중턱에 병풍처럼 생긴 바위가 있으므로 병풍바우골이라 하였다.

부리개골 [골]

[위치] 평장동 마을 남서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부엉이재 [고개]

[위치] 다오랭이에서 서쪽으로, 용두버덩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승지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부흥지(復興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부영재’라 하였다.

[유래] 부엉이가 자주 찾아와 울므로 부엉이재라고 하였다.

부영재 [고개] → 부엉이재

부채바우 [바위]

[위치] 영산 부채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부채처럼 생겨서 부채바우라 한다.

부채바우골 [골]

[위치] 가곡리 지촌천 북쪽 끝에서 북동쪽으로, 영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절골(1) 남쪽에 있다.

부처당 [절] → 석불당

분삼리(分三里) [마을] → 가곡리

산막골 [골]

[위치] 당고개들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산신각(山神閣) [절] → 석불당

새말고개 [고개]

[위치] 새말(신촌) 남쪽, 핏골저수지 북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매봉재와 여우박골산, 영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있으며, 핏골에서 누산, 새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현 새말고개생태통로가 나 있다. '신평고개'라고도 한다.

[유래] 새말에 있는 고개이므로 '새말고개', 신평리로 넘어가므로 '신평고개'라고도 하였다.

새말골 [골]

[위치] 핏골저수지 아래 언땃들에서 북동쪽으로, 새말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매봉재의 남동쪽, 조락골 동쪽 옆에 있던 골짜기로 위치는 현 롯데캐슬더퍼스트 1008동, 1009동, 중학교 자리이다.

새말담(1) [마을]

[위치] 도오개 마을 중 동쪽 산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새말담(2) [마을]

[위치] 자작촌 남동쪽, 평장동 동쪽 도로건너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새말들 [들]

[위치] 새말담(2) 남서쪽, 평장동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차돌배기골 입구에 있는 넓은 들이다.

새말앞골 [골]

[위치] 자작촌에서 남서쪽으로, 새말담(2)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서쪽에 섬자리들이 붙어있다.

샘마루공원 [공원]

[위치] 옛 도오개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의 공원을 말한다.

[유래] '샘+마루>샘마루'로 새로 지은 이름이다.

샛골 [골]

[위치] 판동구리골에서 남동쪽으로, 큰고개가 있는 201.2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누가베스트가 들어서 있다.

석불당(石佛堂) [절] → 황매선원

[위치] 관돌골에 있던 옛 암자를 말한다. 현재 황매선원이 들어서 있다. '부처당', '산신각'이라고도 한다.

[유래] 석비형 마애삼존불이 있으므로 '석불당', '부처당'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황매선원'이라고 부른다. 불상은 세 부분으로 파손되었는데 위쪽 한 부분이 미수습된 채로 보존되어 있다.

선바위(仙--) [바위]

[위치] 영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신선이 내려와 앉는다고 해서 선바이라 하였다. 바위 밑에 물맛이 좋은 약수가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다. 지금도 무당들이 여기서 굿을 한다고 한다.

섬자리들 [들]

[위치] 새말담(2) 서쪽, 자작촌 남쪽 조엄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주변에 새말앞골, 새말들, 평장들 등이 있다.

소경터골 [골]

[위치] 지촌 안말들 남쪽 아래, 지래울로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산 너머에는 보통리 무수막골이 있다.

[유래] 옛날 이곳에 눈먼 소경이 살았으므로 소경터라 하였다.

솔경기고개 [고개]

[위치] 다오랭이에서 북서쪽으로, 월송리 송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바람머리산 북쪽 아래, 되개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옷나무골이 있고 옷나무골 북서쪽 아래에 송정이 있다. 높이는 175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솔경기고개'라 하였다.

[유래] 월송리 송정의 원래 이름이 솔경지이므로 솔경지고개라 하였다.

솔경지성황당 [당]

[위치] 솔경지고개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지금은 돌만 쌓여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솔경지서낭당’이라 하였다.

수살매기들 [들]

[위치] 다오랭이골에서 남쪽으로, 가곡천을 따라 펼쳐진 넓은 들을 말한다. 들 상류에 도오개들이 이어지고 하류에는 당고개들이 이어진다. 현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단지가 들어서 있다.

숯고개 [고개]

[위치] 지촌 남동쪽, 안말과 욱골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욱골에서 북쪽 안말로 가던 산길이다.

숯골 [마을]

[위치] 지촌 숯고개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옛날 이곳에서 숯을 구웠으므로 숯골, 숯고개라 하였다.

신나무고개 [고개]

[위치] 지촌 인수터들에서 서쪽으로, 새말담과 평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아래에 차돌배기골이 있다.

신촌(新村) [마을] → 새말담(1)

신평고개 [고개] → 새말고개

[위치] 새말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핏골에서 신평리로 넘어가므로 ‘신평고개’라고도 하였다.

아랫담 [마을]

[위치] 핏골 마을 중 남서쪽 아래, 핏골저수지 남쪽 가까이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거울못 바로 남쪽 지역이다.

[풀이] ‘담’은 마을 내에서 몇 집이 따로 떨어져 모여 있을 때 쓰는 이름이다. 핏골 마을에 ‘윗담’과 ‘아랫담’, ‘내담’이 있었다.

안말 [마을]

[위치] 지촌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욱골(요대) 북쪽에 붙어있다.

[내용] 신라 화랑들이 훈련하던 화랑터가 있었고 여기서 큰 가마솔도 나왔다고 한다.

안말들 [들]

[위치] 욱골과 안말 서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지촌천과 마을 사이에 있는 들이다.

안현(鞍峴) [고개] [마을] → 질마재

언밑들 [들]

[위치] 핏골저수지 아래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거울못 서쪽으로 공원 및 상가가 들어선 곳이다.

[유래] 못둑(언堰) 밑에 있는 들이므로 ‘언+밑+들>언밑들’이라 하였다.

언윗들 [들]

[위치] 핏골저수지 위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거울못 동쪽 지역으로, 들이 있던 곳에 공원 및 도로가 나 있다.

[유래] 못둑(언堰) 위에 있는 들이므로 ‘언+위+들>언위(스)들>언윗들’이라 하였다.

여우골 [골]

[위치] 지촌 안말에서 진수고개 북쪽 옆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여운대(如雲臺) [마을] → 여운터

여운사터(如雲寺-) [터] → 영산사터

여운터 [마을]

[위치] 핏골 남쪽, 판동구리산 동쪽, 영산 기슭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위치는 현 인성메디칼 부근이다. 마을과 판동구리산 사이에 여운터골이 있었다. ‘여운대’, ‘여운터’, ‘여운태’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여운터(雲臺)’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여운터(여운대如雲臺)’라 하였다.

[유래] 마을 남동쪽의 영산에 여운사(如雲寺)라는 절이 있었으므로 ‘여운터’라고 하였다.

여운터골 [골]

[위치] 당고개들 맞은편에서 가곡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탄동구리산과 여운터 마을 사이로 나 있던 골짜기이다. 위치는 현 원주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와 거울못 사이의 단독주택지역이다.

여운터 [마을] → 여운터

여운터 [마을] → 여운터

연산골 [골] → 영산골

영산(靈山) [산]

[위치] 핏골 남동쪽에 있는 높이 324m의 산을 말한다. 새말고개 남쪽 여우박골산을 지나 길게 이어지는 산줄기 중 가장 높은 산으로 가곡리, 신평리, 만종리, 보통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푼대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신령이 살고 있어서 영산이라고 하였다 한다. 정상에 측량 깃대를 세웠으므로 푼대봉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포수가 짐승을 쫓다가 이 산으로 들어가면 총을 쏘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였다고 한다. 영산 서쪽에는 호랑이가 자주 와서 앉으므로 ‘호랑이 옷방’이라 불리는 넓은 바위가 있으며, 그 골을 ‘호랑이 옷방골’이라 한다. 한국전쟁 때 미군과 중공군의 접전지였다. 영산사 절터가 남아있다.

영산골 [골]

[위치] 지촌천 북쪽 끝에서 북동쪽으로 영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영산사터가 있다. ‘절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연산골(靈山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산골’이라 하였다.

영산사터(靈山寺-) [터]

[위치] 지촌 동쪽, 영산 서쪽 아래 영산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여운사터’라고도 한다.

[내용] 절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절터로 보이는 터에 샘과 축대가 남아있다. 기와 및 도자기편이 발견된다.

오용골(1) [골]

[위치] 평장동에서 북서쪽으로 거치런이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거치런이고개로 가는 험한 골짜기이므로 오용골이라 하였다.

[풀이] 오양골, 오영골, 오용골은 ‘험한 길이 난 골짜기’를 뜻하는 영서방언이다.

오용골(2) [골]

[위치] 탄동구리골에서 남서쪽으로, 신나무고개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위치는 현 누가베스트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오용골고개 [고개]

[위치] 지촌에서 오용골(2)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큰고개 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요골 [마을] → 옥골

옥골 [골]

[위치] 지촌 남동쪽, 안말들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 너머에는 보통리의 무수막골이 있다.

옥골 [마을]

[위치] 지촌 남동쪽, 질마재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북쪽으로 숲고개와 안말이 있다. ‘요골’, ‘옷골’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요대(瑤臺)’라고 하였다.

[풀이] 옥골, 옷골은 요대(瑤臺:신선이 사는 옥으로 만든 집) 같은 곳이 있다고 하여 많이 붙는 이름이다.



「옥골 마을 ; 2020년」

웃골 [마을] → 옥골

윗담 [마을]

[위치] 핏골 마을 중 남동쪽 위, 영산 쪽 산기슭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거울못 남동쪽 연구단지가 들어선 곳이다.

인수터들 [들]

[위치] 지촌 남서쪽 산 아래, 둔덕에 있는 들을 말한다.

일곱들 [들]

[위치] 흙대울에서 작동 마을 앞까지 길게 이어진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일곱썰(七坪)’이라 하였다.

[내용] 흙대울 서쪽 가곡교에서 작동천과 조엄로를 따라 남쪽으로 길게 뻗은 들이다.

자강골 [마을]

[위치] 핏골저수지 북쪽 위, 새말고개 동쪽 옛 도로 옆에 있던 작은 마을을 말한다. 언뒀들 북쪽에 있던 마을로 ‘자금골’이라고도 한다. 위치는 현 롯데캐슬더퍼스트 남동쪽, 중학교가 있는 곳이다.

[유래] ‘작은 마을’의 뜻을 가진 ‘작은골>자근골>자금골, 자강골’로 음운 변화하였다.

자강골고개 [고개]

[위치] 자강골에서 북쪽으로, 새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새말고개 동쪽에 있던 고개로 현 롯데캐슬더퍼스트 남동쪽, 신지정로가 난 곳이다.

자금골 [마을] → 자강골

자작촌(自作村) [마을]

[위치] 당고개들 남쪽, 평장동 북쪽에 가곡천을 끼고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자작촌(自作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자작촌(自作村)’이라 하였다.

[유래] 큰 자작나무가 있었으므로 자작촌이라 하였다.

작은내담 [마을]

[위치] 여운터 마을 동쪽에 붙어있던 작은 마을을 말한다. 현 거울못 남서쪽 주택지역에 있던 마을이다.

장미골 [골]

[위치] 지촌 마을 동쪽 건너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장승거리골 [골]

[위치] 흙대울 서쪽 마을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저래골 [골] → 조락골

절골 [골] → 영산골

[유래] 영산 아래에 있으므로 ‘영산골’이라고 하고 영산사 절 아래에 있으므로 ‘절골’이라고도 한다.

조락골 [골]

[위치] 도오개들에서 북동쪽으로 매봉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로, 새말고개 서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저래골’, ‘조락골’이라고도 한다. 위치는 현 롯데캐슬더퍼스트 1007동, 1006동, 1004동 지역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조락골’이라 하였다.

[풀이] ‘조락골’의 ‘조락’은 ‘작~잘~줄~좁’과 동근어로 ‘작다(小)’를 뜻한다. ‘줄+골>줄골>줄(아)골>조라골>조락골, 초락골’로 음운 변천하였다. ‘작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조락골고개 [고개]

[위치] 조락골에서 북동쪽으로 매봉재 옆을 지나 신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롯데캐슬더퍼스트 뒤편 산에 고갯길의 일부가 남아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조락골고개’라 하였다.

죽림사(竹林寺) [절]

[위치] 당고개 정상 남쪽에 있는 조계종의 작은 절을 말한다.

지래울 [마을] → 지촌

지래울고개 [고개] → 큰고개

지르마재 [고개] → 질마재

지촌(芝村, 智村) [마을]

[위치] 영산 남서쪽 아래, 질마재 북쪽 지촌천 상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기업도시 남쪽, 큰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지래울'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지리울(芝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지래울(지촌)'이라 하였다.

[유래] 약 350년 전에 지(智)씨가 마을을 이루었다 하여 지래울이라 하였다고 한다.



「지촌 마을 : 2020년」

지촌천(芝村川) [내]

[위치] 지촌에서 지래울로를 따라 남쪽으로 흐르다가 질마재에서 서쪽으로 흘러 흙대울 앞 가곡교에서 작동천(作洞川)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직동(稷洞) [마을] → 핏골

진수고개 [고개]

[위치] 지촌에서 안말을 거쳐 동쪽으로, 보통리 샘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220m이다.

[내용] 지촌에서 남동쪽 안말 뒷산의 진수고개를 넘어 샘골을 지나고 생골(생양골) 마을 앞 감자골재를 넘어 만종역으로 가던 고갯길이다.

질마재 [고개]

[위치] 흙대울에서 지촌 앞을 지나 보통리 광터사거리로 이어지는 긴 고개를 말한다. 현재 흙대울에서 광터사거리까지 88번 질마재로가 나 있다. '지르마재', '안현(鞍峴)'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 '안현(鞍峴)'이라고 하고 '고을에서 서쪽으로 2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질마지(鞍

峴)'라고 하였다.

[유래] 고개가 길마(말안장)처럼 생겼다고 하여 '길마재>질마재'라 하였다.

[내용] 이 고개는 강원감영에서 만종>광터>질마재>안창>솔치를 거쳐 서울로 가는 주 교통로였으므로 옛 지리지에 등재된 원주의 대표적인 지명이다.



「질마재 : 2019년」

질마재 [마을]

[위치] 질마재고개 북서쪽, 지촌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질마재(안현鞍峴)'라고 하였다.

질마재골 [골]

[위치] 88번 조암로의 작동과 흙대울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보통리 자갈동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산 이씨 의정공 제당이 있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서 북쪽 건너편에 돼지골이 있다.

질마재들 [들]

[위치] 질마재 마을 북동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차돌배기골 [골]

[위치] 새말담(2)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새말들에서 동쪽으로, 신나무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동쪽 고개 너머 지촌 인수터들로 이어진다. 골 안에 논밭이 있다.

[유래] 골짜기에 차돌이 박혀 있으므로 차돌배기골이라 하였다.

차돌배기들 [들]

[위치] 차돌배기골에 있는 논과 밭을 말한다.

참새골 [골] → 참샘골

참샘골 [골]

[위치] 당고개 마을에서 서쪽 뒤편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가 들어서 있다. ‘참새골’이라고도 한다. ‘참새골어린이공원’에 이름을 남겼다.

[유래] 좋은 샘이 있었으므로 참샘골이라 하였다.

창당이재(蒼唐--) [고개] → 창대고개

창대고개 [고개]

[위치] 도오개에서 북쪽으로, 호저면 무장리 송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원주기업도시에 편입되어 현 창대고개생태통로가 나 있다. 고개 너머에 신평리 ‘무태골’, ‘창대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155m이다. 『조선지리지』에 ‘창당이지(蒼唐峴)’라고 하였다.

[풀이] 『조선지리지』에 신평리의 ‘창대골’을 ‘창터골(蒼垆谷)’이라 하였으므로 ‘창대(蒼垆)’는 ‘창터’를 한자로 옮겨서 생긴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이름 ‘창터’의 어원은 알 수 없으나, 한자로 ‘蒼’이라고 하였으므로 숲이 우거진 골짜기, 고개였던 것으로 보인다.

초락골 [골] → 조락골

큰고개 [고개]

[위치] 지촌에서 북쪽으로, 핏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갯길에 현재 지래울로가 나 있다. 고개 높이는 185m이다. ‘핏골고개’, ‘지래울고개’라고도 한다.

큰골(1) [골]

[위치] 지촌 큰고개 남쪽 아래에서 동쪽으로, 영산 남쪽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서 부채바우골이 영산을 향하여 북동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골짜기 너머에는 보통리 샘골이 있다.

큰골(2) [골]

[위치] 흙대울 동쪽, 질마재로에서 남쪽으로, 노인산을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질마재들 서쪽, 큰골앞골 남쪽에 있다.

큰골앞골 [골]

[위치] 흙대울 남서쪽, 큰골(2)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질마재들 서쪽 아래, 88번 질마재로 옆 지촌천에 붙어있는 골짜기이다.

큰절터 [터]

[위치] 지촌 남동쪽, 지래울로 동쪽 길옆 들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내용] 주민들은 가곡리의 세 절터 중 이곳을 큰절터라고 부른다. 지금은 도로 옆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기와 및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절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평장골 [마을] → 평장동

평장동(平章洞) [마을]

[위치] 자작촌 남서쪽, 새말담(2)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거치런이 고개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로, ‘평장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평장골(平章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평장골(평장동平章洞)’이라 하였다.

[유래] 원주 원씨 중 옛날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사람이 살았으므로 평장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평장들 [들]

[위치] 평장동 동쪽 아래 가곡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피골 [마을] → 핏골

핏골 [마을]

[위치] 새말고개 남쪽, 핏골저수지(현 거울못)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직동(稷洞)’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피골(稷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핏골(직동稷洞)’이라 하였다.

[유래] 이 골짜기에 처음 정착한 경주 김씨가 피

(稷) 농사를 지었으므로 ‘핏골’, 이를 한자로 적어서 ‘직동(稷洞)’이라 하였다.

[내용] 현 거울못에서 남쪽으로 기업도시로까지, 주택 및 연구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으로서 ‘당고개’, ‘도오개’와 함께 이 지역의 중심 되는 마을이었다. 동쪽과 남쪽은 200m를 넘는 여우박골 산줄기가 남쪽의 영산줄기로 이어지며 막혀 있다. 마을 북쪽 바로 위에는 핏골저수지가 있어서 들에 물을 대었다. 원주기업도시로 개발되기 전 핏골에는 약 25호 정도가 살고 있었다.

핏골고개 [고개] → 큰고개

핏골저수지 [못] → 거울못

[위치] 핏골 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언땀들과 간지논골, 강승재골에 물을 대었다. 현재의 거울못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핏골저수지’라 하였다.

[내용] 핏골의 어감이 부정적이므로 이름을 ‘거울못’으로 새로 지었다.



「핏골저수지 ; 2019년」

호랑이웃방 [바위]

[위치] 영산 서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호랑이가 자주 와 앉는 넓은 바위이므로 ‘호랑이웃방’이라 하였다.

호랑이웃방골 [골]

[위치] 영산 서쪽, 호랑이웃방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훈대울 [마을] → 흙대울

훈대울 [마을]

[위치] 질마재 서쪽, 평장동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가곡교, 동방레미콘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훈대울’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흙대울’이라 하였다.

[유래] 지형이 흙처럼 생긴 골짜기에 마을이 있으므로 흙대울이라고 하였다.

[풀이] ‘흙+대(垓)+울(골,마을)>흙대울’이 되었다.



「훈대울 마을 ; 2019년」

화랑터 [터] → 안말

[위치] 지촌 안말에 있는 밭을 말한다.

[유래담] 화랑들이 훈련을 하던 곳이라고 전한다. 큰 가마솥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항매선원 [절]

[위치] 권돌골에 있는 암자를 말한다. ‘석불당(石佛堂)’, ‘부처당’, ‘산신각’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 절터에 2003년에 창건한 절로 석비형 마애삼존불상이 있다. 현 산령각이 있는 곳의 고인돌에서 이 골짜기 이름과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

간현리(艮峴里)

[위치]

간현리는 지정면의 남쪽 중앙에 있다.

동쪽으로는 가곡리, 서쪽으로는 안창리와 판대리, 남쪽으로는 문막읍 동화리, 북쪽으로는 월송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지향곡면(地向谷面)의 지역으로서 이리(二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간현동·정지말·진방골·작동·경장동을 합하여 간현리(艮峴里)라 하고 지정면에 편입하여 원주군 지정면 간현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면서 원성군 지정면 간현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지정면 간현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가 되었다.

[유래]

마을 동쪽에 있는 숫돌고개를 간재라 하고, 이를 한자로 간현(艮峴)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마을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풀이]

‘간재’를 한자로 ‘간현(艮峴)’이라 하였다. ‘숫돌고개’를 ‘간현’, ‘간현치’라고 하였으므로 ‘간’은 ‘갈다’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또 ‘간골’을 ‘대곡(大谷)’이라 한 예가 있으므로 ‘간’을 ‘큰’으로 보면 이때 ‘간’은 ‘한(큰, 으뜸, 높은)’의 뜻이다.

『원주읍지』에서는 ‘간성촌(艮城村)’이라 하였는데 이때 ‘성(城)’은 ‘재’를 표기한 것으로서 ‘간재’를 달리 적은 것이다.

이곳에서 여생을 보낸 조선 중기 문신 예조판서 이희(李璡, 1522~1600)가 마을 이름을 따서 호를 ‘간옹(艮翁)’이라 하였다.

가는골 [골]

[위치] 오형제바위 서쪽 너머에 붙어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삼산천교에서 북서쪽으로, 소금산과 괴골산 사이로 난 긴 골짜기이다.

[유래] 좁은 골짜기가 가늘고 길게 나 있으므로 ‘가는골’이라고 하였다.

가는골 [마을]

[위치] 가는골 입구 서쪽, 삼산천교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간현관광지 야영장이 있는 마을이다.

가루개 [골]

[위치] 안골(1) 위에서 가루개고개 아래까지의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루개’라고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서 백토가루가 나오므로 ‘가루개’라 하였다.

가루개고개 [고개]

[위치] 가루개 위에서 북쪽으로, 배나무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배나무골고개’라고도 한다.

간성촌(良城村) [마을] → 간현리

간재 [고개] → 숫돌고개

간재 [마을] → 간현

간젯나루 [나루] → 간현나루

간현(良峴) [고개] → 숫돌고개

간현(良峴) [마을]

[위치] 간현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학교와 옛 간현역 등이 있는 곳을 말한다. 『원주읍지』에 ‘간성촌(良城村)’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간지(良峴)’라 하였고 『한국지명총람』에는 ‘간현리(良峴里, 간재, 간현, 이리)’라 하였다.

[유래] 마을 동쪽에 있는 ‘숫돌고개’를 ‘간재’라 하고, 이를 한자로 ‘간현(良峴)’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간현 마을 ; 2019년」

간현공소 [성당]

[위치] 지정면행정복지센터 남쪽에 있는 천주교회를 말한다.

[내용] 1958년에 설립되었다. 학성동교회 소속이다.

간현관광지 [유원지]

[위치] 간현리 중심지, 섬강에 있는 유원지를 말한다. 1987년 국민관광유원지가 되었다.

[내용]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평구역(平邱驛) 물을 7라 흑슈(黑水)를 도라드니 섬강(蟾江)은 어딴메오 티악(雉岳)은 여기로다.’라고 예찬한 곳이다. 삼산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곳으로 풍부한 수량과 백사장, 암벽이 많아 경관이 수려하다. 소금산과 연계되어 있고 2018년에 완공된 소금산출렁다리가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주변에 흥법사지, 김제남 신도비, 원충갑 장군 묘소, 조엄 묘소 등의 문화유적이 있다.



「간현관광지 ; 2019년」

간현나루 [나루]

[위치] 간현 서쪽 정지말에 있던 나루를 말한다. 현 간현유원지에서 서쪽으로 섬강을 건너던 나루로 지금은 간현교가 놓여있다. ‘간잣나루’, ‘문연나루’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문연나루(汶淵津)’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간잣나루’라 하였다.

간현동(良峴洞) [마을] → 간현

간현산(良峴山) [산]

[위치] 벼넬미고개 남쪽, 두명폭포 북서쪽에 있는 높이 220m의 산을 말한다. 안창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간현서낭 [당]

[위치] 솟돌고개 고갯마루에 있는 서낭을 말한다. 고개를 넘으며 돌을 쌓아 치성을 드리던 곳이다.

간현서낭당 [당] → 당골성낭당

간현암(良峴岩) [산]

[위치] 소금산 남동쪽에 있는 바위절벽으로 된 산을 말한다.

[내용] 폭 70m, 높이 70m로 암벽 등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간현암 주위에는 ‘숨은벽’, ‘좌벽’, ‘간현암’, ‘하늘벽’, ‘우벽’, ‘여심바위’ 등의 암벽등반코스가 있다.



「간현암 ; 2018년」

간현역(良峴驛) [역]

[위치] 간현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정거장을 말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간현역(良峴驛)’이라 하였다.

[내용] 1940년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1958년에 역사를 준공하였으며 2011년에 폐역되었다. 현재 레일바이크역으로 활용되고 있다.



「간현역 ; 2011년」

간현정(良峴亭) [누정]

[위치] 간현교 서쪽 끝부분, 삼산천 입구 남쪽 산 중턱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섬현정(蟪峴亭)’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옛날 정자가 있던 곳에 축대와 와편, 주춧돌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주춧돌은 시멘트로 세운 것이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간현정터 ; 2018년」

간현천(良峴川) [내]

[위치] 솟돌고개 남쪽에서 벼들골을 거쳐 이덕골

(1) 앞 긴사래들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작은 내를 말한다.

간현치(艮峴峙) [고개] → 숫돌고개

간현터널 [굴]

[위치] 노루고개에 있는 옛 중앙선 철도의 터널을 말한다.

개건너모퉁이물 [샘]

[위치] 옷말(2)에 있는 샘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개건너모퉁이물’이라 하였다.

개나리모퉁이 [마을] → 장터

[유래] 개나루의 모퉁이에 있으므로 ‘개나루모퉁이>개나리모퉁이’라 하였다.

개미등지골 [골]

[위치] 간현암 암벽장 동쪽, 개미등지터 북서쪽 사이의 계곡을 말한다. ‘솔개미등지골’이라고도 한다.

개미등지터 [바위]

[위치] 현 소금산출렁다리 동쪽 지점 아래 암벽에 있는 굴을 말한다. ‘솔개미등지터’라고도 한다.

[유래] 암벽 정상에 솔개 한 쌍이 등지를 틀고 살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개미등지터 ; 2018년」

경장동(敬庄洞) [마을]

[위치] 지정초등학교 남쪽, 오야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서원주역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경장이’, ‘경쟁이’, ‘정쟁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경징이(敬庄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경쟁이(경장동敬庄洞)’라 하였다.

경장들 [들]

[위치] 경장동 마을 북서쪽, 현 지정초등학교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경장이들(敬庄坪)’이라 하였다.

경장이 [마을] → 경장동

경쟁이 [마을] → 경장동

골안골 [골]

[위치] 작동 마을에서 북쪽으로, 작동저수지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짜기 안에 조엄 묘소, 조엄기념관이 있고 골 위에 작동저수지가 있다.

골안천 [내]

[위치] 작동저수지 북쪽 위에서 남쪽으로, 골안골을 따라 난 내를 말한다. 작동 마을 앞에서 작동천에 합류한다.

관사터(館舍-) [마을]

[위치] 옛 간현역 앞, 철도청 관사 주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철도청 관사가 들어서면서 생긴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관사터(館舍-)’라고 하였다.

괴골 [골]

[위치] 점말 자작골 중간에서 남쪽 괴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괴골(猫谷)’이라 하였다.

괴골산 [산]

[위치] 소금산 북동쪽, 자작골 남쪽에 있는 330m의 산을 말한다. 점말 마을 서쪽에 있는 산이다.

구룡산(九龍山) [산]

[위치] 구수골 북서쪽 끝에 있는 높이 478.3m의 산을 말한다. 간현리와 판대리, 월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내용] 400m급의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산줄기가 남쪽 소금산까지 이어져 삼산천 간현유원지에 닿는다. 봉우리 능선 남쪽에 문바위가 있고, 산 정상 아래에 중앙고속도로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구멍바우 [바위]

[위치] 소군산 등산로에서 솔개미등지터 북쪽, 보리고개발두령 남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간현암 동쪽에 있는 바위로, 똥구멍바우, 남매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똥구멍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 모양이 마치 항문처럼 생겼으므로 구멍바우, 똥구멍바우라 하였다. 또는 서로 사랑하는 남매가 이곳에 와서 자살하였으므로 남매바우라고도 하였다.

구수골 [골]

[위치] 자작골 북쪽, 섬강에서 북서쪽 구룡산과 문바위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진방골과 강 건너 마주보고 있는 골짜기이다.

기동골 [골] → 지동골

긴고개 [고개]

[위치] 경장동에서 북쪽으로, 노루골을 지나 간현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노루고개와 겹치는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긴고기(長峴)’라 하였다.

긴사래들 [들] → 진사래들

나무꾼탕 [소]

[위치] 점말 서쪽 자작골 개울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낚은터들 [들]

[위치] 작동 마을 앞 일곱들에서 작동천 건너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남쪽에 옛 중앙선 철로와 지정로가 지나가고 있다.

남매바우 [바위] → 구멍바우

노루고개 [고개]

[위치] 간현동에서 남동쪽으로, 지정초등학교와 만남포로 넘어가는 고개로 ‘긴고개’와 겹친다. 고갯길로 현 지정로가 지나가고 있다. ‘노리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노리고개’라 하였다.

[유래] 고개가 길게 늘어서 있으므로 노루고개라 하였다. 또는 지형이 노루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노루고개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이 고개가 ‘긴고개’와 겹치는 것으로 보아 ‘늘어나다’의 뜻인 ‘늘~늘~노루’에서 나온 것으로 ‘늘어진, 긴 고개’란 뜻이다.

노루골 [골]

[위치] 현 지정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노루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88번 지정로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노릿골’이라 하였다.

노루골들 [들]

[위치] 간현동 이터골에서 남쪽으로, 노루고개를 향하여 난 들을 말한다. 옛 중앙선 철로와 간현로, 88번 지정로 사이에 있는 들이다. 『조선지리지』에 ‘노리썰(老里坪)’이라 하였다.

노리고개 [고개] → 노루고개

노릿골 [골] → 노루골

노릿들 [들] → 노루골들

노인산(老人山) [산]

[위치] 질마재골 동쪽 끝, 능골고개 동쪽에 있는 높이 228.6m의 산을 말한다. 산 동쪽에 질마재가 있다. 간현리, 가곡리, 보통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노인산(老人山)’이라 하였다.

능골 [골]

[위치] 현 지정중학교에서 북동쪽으로, 안골천을 따라 숫돌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콩밭골이 북쪽으로 갈라진다. 현재 능골을 따라 숫돌고개를 넘는 도로가 나 있다. 무척

찬 샘물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능골(陵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능골’이라 하였다.

[유래] 능골 위 콩밭골에 조선 선조 때 예조, 이조 판서를 지낸 이희(李璡, 1522~1600)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으므로 능골이라 하였다.

능골고개 [고개]

[위치] 능골에서 동쪽으로, 숫돌고개로 가는 고갯길을 말한다. 노인산 서쪽 옆에 있다.

능골들 [들]

[위치] 현 지정중학교에서 북동쪽으로, 능골을 따라 난 긴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능골들’이라 하였다.

능골약수 [샘]

[위치] 능골 중간, 숫돌고개 아래 도로변의 약수를 말한다. 마을 쉼터로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달강 [내] → 섬강

달래강 [내] → 섬강

당골 [골]

[위치] 간현동 지정중학교에서 북쪽으로 193.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능골과 이텃골(2) 사이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당골’이라 하였다.

[유래] 성황당이 있었으므로 당골이라고 하였다.

당골들 [들]

[위치] 현 지정중학교 북쪽, 당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당골들’이라 하였다.

당골샘 [샘]

[위치] 당골성황당 맞은편에 있는 샘을 말한다. 바위 사이에서 나오는 물로, 차고 물맛이 좋아 이 물을 받아 당 고사를 지냈다. 『한국지명총람』에 ‘당골우물’이라 하였다.

당골성황당 [당]

[위치] 지정중학교 뒤 당골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간현서낭당’이라 하였다.

[내용] 매년 정월 초3일에 당 제사를 지내왔다가 2000년대 들어와 폐지되었다.

댓골 [마을]

[위치] 간현 마을을 지칭하던 이름으로, 좁게는 현 간현교회가 있는 곳을 특정하여 부르기도 한다. ‘댓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댓골(댓골)’이라 하였다.

[풀이] 숫돌고개를 ‘대곡(大谷)’이라고도 하였고 간현을 ‘간성촌(艮城村)’이라고도 하였는데, 대곡을 ‘댓골’, ‘간성(艮城)’의 성(城)을 훈에 따라 ‘재’로 읽어 ‘댓골’이라고도 하였다.

두꺼비바위 [바위] → 섬암(1), 섬암(2)

독너메들 [들]

[위치] 간현 남쪽 기차길 독 너머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독너메들’이라 하였다.

통구멍바위 [바위] → 구멍바위

문바위 [바위]

[위치] 구수골 북서쪽 끝, 높이 430m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구룡산 능선 남쪽에 있는 큰 바위이다.

문연골 [골]

[위치] 섬강 오형제 바위 중 1형제봉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문연골’이라고 하였다.

문연나루 [나루] → 간현나루

문연동천(汶淵洞天) [바위]

[위치] 간현 오형제봉 중 1형제봉 남쪽 아래, 섬강 철교 바로 밑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여기바위’, ‘여기암’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문연동천(汶淵洞天)’이라 하였다.

[내용] 병암(屏岩)과 함께 바위 위의 절경으로 옛날 시인 묵객들이 기생들과 놀았던 곳이라 한다. 오형제봉의 첫째 봉우리 남쪽 바위에 ‘汶淵洞天’이라 새겨져 있는데 쓴 사람은 토정(土亭)과 간옹(艮翁)의 유작이라고도 하고 덕수 이씨 중시조 택

당(澤堂)의 유작이라고도 한다.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 원래 글씨는 물에 잠기고 지금의 글씨는 현대에 쓴 것이라고도 한다.



「문연동천 ; 2019년」



「문연동천 각자 ; 2019년」

문연소(汶淵沼) [소]

[위치] 섬강의 문연동천 바위 아래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문연소’라 하였다.

문전골 [골]

[위치] 간현암 앞 삼산천이 흐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현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식당 및 펜션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문정골’이라고도 한다.

문정골 [골] → 문전골

바른고개골 [골]

[위치] 노루고개 북쪽 아래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이탯골(1) 남쪽에 붙어있는 골짜기이다. 골 안쪽 깊숙이 현재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바무피들 [들]

[위치] 이탯골(1) 남쪽, 철길 건너 셋강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바무피들’이라고 하였다.

바위오름터 [산]

[위치] 간현암 북동쪽, 보리고개발두령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능선을 말한다.

반송(盤松) [마을]

[위치] 간현역 앞, 반송나무가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지정119지역대 자리에 있던 마을이다. ‘밴송’, ‘수용소’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반송(盤松)’이라 하였다.

[유래] 큰 잣나무가 있었으므로 ‘반송>밴송’이라 하였다. 한국전쟁 때 수용소가 있었으므로 ‘수용소’라고도 한다.

배나무골 [골]

[위치] 점말에서 동쪽 섬강 건너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 끝에 자운사가 있다.

배나무골 [마을]

[위치] 점말 마을 동쪽 강 건너 배나무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남쪽으로 안골(2)가 나 있고 마을 동쪽 산에 원충갑 묘역이 있다.

배나무골고개 [고개] → 가루개고개

[위치] 가루개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배나뭇골고개’라고 하였다.

배터 [마을] → 배터말

배터골 [골] → 점말골

[위치] 점말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점말골’이라고도 한다.

배터말 [마을] → 점말

[위치] 점말의 다른 이름이다. ‘배터’, ‘정자말’, ‘정지말’, ‘점말’, ‘사기전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정자말(배터)’이라 하였다.

[유래] 점말과 동쪽 강 건너 안골을 연결하는 나

루가 있었으므로 ‘배터’, ‘배터말’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고려시대 원주 이씨 문중에 초상이 나서 시신을 배에 싣고 강을 거슬러 오던 중 점말에 배가 닿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묘를 이곳 점말에 썼는데 이때부터 이 마을을 배터말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배터말 마을 : 2020년」

밴송 [마을] → 반송

버들골(1) [골]

[위치] 현 지정면무소에서 동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지동골 남쪽, 이터골 북쪽 사이에 있다. ‘유곡(柳谷)’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들골(유곡柳谷)’이라 하였다.

[유래] 버드나무가 많았으므로 버들골이라 하였다.

버들골(2) [골]

[위치] 작동 골안골 위, 작동저수지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번목 [들]

[위치] 능골 안, 횡가마골 남쪽 도로 건너에 있는 작은 들을 말한다.

범너미재 [고개] → 범네미고개

범네미고개 [고개]

[위치] 간현산 북쪽, 현 간현청소년수련원 남서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간현에서 판대리로 넘어가던 고개로, 고개 밑으로 옛 중앙선 안창터널이 나 있다. 『조선지리지』에 ‘범너미지(虎踰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범내미고개’라고

하였다.

[유래] 범이 넘어 다녔다 해서 ‘범+넘+이>범넘이>범너미>범네미’가 되었다.

범네미골 [골]

[위치] 범바우와 범네미고개 사이의 골짜기를 말한다.

범바우 [바위]

[위치] 범네미고개 서쪽, 자라바위 북쪽 아래, 소금산 능선 남쪽 끝에 삼산천으로 돌출되어 나간 바위를 말한다. 바위 아래로 옛 중앙선 철로의 원대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범바우’라 하였다.

[유래] 옛날 이 바위에서 범이 새끼를 치고 울부짖었다고 하여 범바우라 한다.

범바우골 [골]

[위치] 범바우와 범네미고개 사이의 골짜기를 말한다.

벼룩콧등바우 [바위]

[위치] 오형제바우 뒤 가는골 위, 해빙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벼룩콧등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가 가파르고 위험하여 벼룩 콧등과 같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병암(屏岩) [바위]

[위치] 병암둔치 북쪽에 있는 섬강 가의 바위벼랑을 말한다. 오형제바우에서 강 건너 북동쪽, 현 간현유격장 북쪽에 있다. ‘병풍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병암(屏岩, 병풍바우)’이라 하였다.

[유래] 바위 모양이 마치 병풍을 친 것처럼 펼쳐져 있으므로 병풍바위, 병암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판서를 지낸 간옹 이희(李璽)가 관직을 물러나 이곳에 와서 살자 많은 선비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중 토정 이지함도 자주 찾아와 간옹과 이곳에서 시회를 열었다고 한다. ‘屏岩’이라는 글씨는 이지함(1517~1578)이 쓴 것이라고 전한다.



「병암 각자 ; 1993년」

병암둔치 [마을]

[위치] 간현나루 북쪽, 현 유격장 부대가 있는 곳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내용] 병암 남쪽 아래 언덕에 마을이 섰으므로 병암둔치라 하였다.

병풍바우 [바위] → 병암

보리고개밭두렁 [터]

[위치] 간현암 북서쪽, 바위오름터 동쪽에 있는 등산로 능선의 밭 터를 말한다.

[내용] 1970년대 정부에서 밀가루를 주고 이곳에 밭을 일구도록 하여 잎담배와 보리를 재배하였다고 한다. 밭다랭이 흔적이 남아있다.

복도(福島) [섬]

[위치] 옛 간현역 남쪽 긴사래들 건너편, 섬강 가운데 있는 큰 섬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복도(福島)’라고 하였다.

[내용] 이곳에 농장과 강화야스콘(주) 등 공장들이 들어섰다. 섬 남쪽으로 새 중앙선 철로가 지나고 섬 남동쪽 건너편에 서원주역이 건설 중이다.

불통재고개 [고개]

[위치] 작동에서 남동쪽으로, 불통재골을 거쳐 보통리 구미들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구미들과 동화역이 있다. 높이는 120m이다.

불통재골 [골]

[위치] 작동에서 작동천 건너 남동쪽 불통재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넘어 남쪽에 굴새와 구미들이 있다.

뽕나무밭 [들]

[위치] 노루고개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사기전말 [마을] → 점말

사닥다리바우 [바위]

[위치] 오형제봉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사닥다리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 모양이 사다리처럼 층계가 저 있으므로 사닥다리바우라 하였다.

산류들 [들]

[위치] 어랭이들, 경장들 서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서곡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지점의 북쪽에 붙어있던 들이다. 들 전체가 서원주역에 편입되었다.

삼산천(三山川) [내]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산, 삼각산에서 발원하여 판대리와 간현리를 거쳐 섬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을 말한다. 『관동지』에 ‘판교천(板橋川)’이라고 하였다.

선녀탕 [소]

[위치] 점말 서쪽 자작골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사방댐 바로 위에 있다.



「선녀탕 ; 2019년」

섬강(蟾江) [내]

[위치] 횡성군 청일면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지정

면의 월송, 간현, 안창리를 거쳐 부론면 흥원창에서 남한강에 합류하는 강을 말한다. 금계천(錦溪川), 횡성천(橫城川), 원주천(原州川) 등의 지류가 합류하여 수량이 풍부하면서 심하게 곡류하므로 협곡에 경승지가 많다.

이 강을 ‘섬수(蟾水)·섬암강(蟾巖江)·월천(月川)·월퇴탄(月瀨灘)·달강·달래강’이라고도 하였고 안창 앞을 지나므로 ‘안창수(安昌水)·안창계(安昌溪)’라고도 하였다. 한편 주산리에서는 ‘피내·피내울’이라고도 하고 횡성에서는 ‘뒃내·북천(北川)’ 또는 ‘주천(株川)’이라고도 한다.

[유래] 원래 이름은 ‘달내·달(卨)강’이다. 옛날 양갈이 취병산을 넘으며 달빛이 비친 강을 보고 ‘월천(月川)’이라 하였다 한다. 이때 ‘월천(月川)’은 ‘달내’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월천(月川)·월퇴탄(月瀨灘)·달강·달래강’은 모두 같은 이름이며, ‘섬강(蟾江)·섬수(蟾水)’의 ‘섬(蟾)’도 같은 뜻인데 후에 두꺼비로 해석되었다. 여기에서의 ‘달’은 하늘의 ‘달(月)’이 아니라 ‘高·山’을 뜻하는 옛말이다. 즉 ‘달내·달래·달래강’은 ‘높은 산 계곡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다. 이 지역에 ‘달’과 관련된 지명이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이를 뒷받침한다.

[유래담] 토정 이지함(1517~1578)이 ‘병암(屏岩)’이라고 쓴 병풍바위에 마치 두꺼비가 기어오르는 모양의 바위가 있으므로 ‘섬강(蟾江)’이라 하였고도 한다.

[내용] 섬강에 대한 기록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1454) 원주목 편에 ‘대천(大川)은 섬강(蟾江)이다. 고을 서남쪽에 있는데 흥원창(興原倉)이 있는 곳이다.’고 하여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원주목 편에 ‘동쪽에는 치악산이 서리고, 서쪽에는 섬강이 달린다.’고 하고 ‘고을 서남쪽 50리에 있다. 곧 충주 금탄(金灘)의 하류이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지』(1656)에 ‘섬수(蟾水)’라고 하고 고을 서쪽 29리에 있으며 ‘안창수(安昌水)’로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여지도서』(1765)에 ‘관문 서남쪽

60리에 있다. 충주 금탄(金灘)의 하류이다.’라고 하였다. 『대동지지』(1866)에 ‘안창계(安昌溪)’라고 하였다.

『1872년지방지도』에 상류에 있는 바위인 ‘섬암(蟾岩)’을 동시에 표시하고 있고 『해동지도』에 ‘섬암’만을 표시하고 있다. 『여지도』 『광여도』 『해동지도』에 ‘섬암강(蟾岩江)’으로 표시하고 있고 『조선지리지』에 따르면 ‘노림(魯林)’에 있다고 하였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시에서 ‘치악산은 푸른 봉우리를 모아서 조령에 이었고, 섬강은 흰빛을 끌어서 여성(驪城)에 닿았네.’라고 하였다. 정철의 『관동별곡』에 ‘평구역(平邱驛) 물을 7라 흑수(黑水)를 도라드니 섬강(蟾江)은 어디메오 티악(雉岳)이 여기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풀이] ‘섬강(蟾江)’이란 이름은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서거정(1420~1488)의 시에도 등장하고 있으므로 토정 이지함(李之菡, 1517~1578)과 섬강의 어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이지함의 생존 시기보다도 백 수 십년 전, 늦어도 1400년대 초반, 조선조 초에 이미 섬강이란 이름이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강의 유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토정 이지함이 글씨를 새긴 병암(屏岩)의 바위가 두꺼비 모양이어서 섬강(蟾江)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와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강에 대한 내용으로는 서기 900년 이전, 양갈이 원주지역을 지배했던 후삼국시대에 이 강을 ‘월천(月川)’이라 하였다는 데에 처음 나타난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보다 500~600년 앞선 것인데, 이때 ‘월천(月川)’은 뜻을 기록한 것이므로 원래 소리는 ‘달내·달(卨)강~달래강’이었을 것이다.

양갈이 ‘달빛이 비친 강’을 보고 ‘월천(月川)’이라 했다는 것은 이 강이 두꺼비가 아니라 ‘달’과 연관되어 있음을 명확히 나타낸 것이다. ‘달’은 ‘高·山’을 뜻하는 옛말로 현대국어에도 그 흔적이 ‘다락·매달다·다랑이논·달동네’ 등에 남아있다. 전국에 많은 ‘월(月)자 지명들, ‘월악산·월출산·월

암·월봉’ 등은 모두 ‘산’을 뜻하는 ‘달’을 하늘의 ‘달(月)’로 본 결과들이다. 지정면 월송리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달’과 관련된 지명들, ‘다둔·달둔·다래·달래·다래실·뒗다래·넘은다래·넘달골’ 등은 모두 ‘달’과 관련된 것들로 고어 ‘달(高·山)’이 이 지역에서 ‘달~다래·달내~달래’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섬(蟾)’은 두꺼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달·달빛’의 뜻도 가지고 있는데 달 속에 두꺼비가 있다고 보아 ‘달(月)’을 ‘섬백(蟾魄)·노섬(老蟾)’이라 부르는 것에서 ‘섬(蟾)’이 곧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月’과 ‘蟾’은 각각 ‘달’을 표기한 같은 의미의 다른 이름들이므로 ‘섬수·섬강·월천·월뢰·달강·달래강’의 ‘섬(蟾)·월(月)·달·달래’는 모두 같은 의미의 다른 표기들인 것이다.

따라서 섬강은 산을 뜻하는 고대 국어 ‘달’과 ‘내(강)’가 결합된 이름으로서 높은 산 계곡에 강이 흐르므로 ‘달내>달(래)강’ 등으로 불렸고 이것을 한자로 ‘월천(月川)·월뢰탄(月瀨灘)·섬강(蟾江)’ 등으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름의 대표적인 것으로 충주의 ‘달래강(달내·달강達江·달천達川)’이 있다.



「섬강 ; 2015년」

섬강철교 [다리]

[위치] 간현유원지 위 오형제봉 아래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다리이다. 길이는 200m이다.

섬수(蟾水) [내] → 섬강

섬암(蟾岩) [바위] → 월송리 섬암

섬암(蟾岩)(1) [바위]

[위치] 호암산 아래 섬강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두꺼비바위’라고도 한다.

[유래] 강 한가운데 있는 바위가 마치 두꺼비처럼 보이므로 ‘섬암’, ‘두꺼비바위’라고 부른다. 이 바위에서 섬강이란 이름이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섬암(蟾岩)(2) [바위]

[위치] 오형제바위 중 제일 남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두꺼비바위’라고도 한다.

[유래] 삼산천 방향에서 보면 이 바위의 봉우리가 마치 두꺼비가 기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므로 ‘두꺼비바위’, ‘섬암’이라고 부른다. 이 바위에서 섬강이란 이름이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섬암강(蟾巖江) [내] → 섬강

섬현정(蟾峴亭) [누정] → 간현정

소금산(小金山) [산]

[위치] 간현 유원지 북서쪽, 판대리와 경계를 이루는 높이 343m의 산을 말한다.

[유래] 규모는 작지만 산세가 빼어나 작은 금강산이란 의미로 소금산이라 하였다. 원래는 판대리 원대동(원터) 뒤에 있으므로 ‘원터뒷산’이라 하였는데 등산로를 개발하면서 이름을 새로 지었다.



「소금산 ; 2015년」

소금산출렁다리 [다리]

[위치] 솔개미동지 위에서 간현암 위 바위오름터까지 놓인 길이 200m, 높이 100m의 현수교를 말

한다. 2018년 1월에 개통하였다.



「소금산출렁다리 ; 2018년」

술개미등지골 [골] → 개미등지골

술개미등지터 [바위] → 개미등지터

수옹소 [마을] → 반송

숨은벽 [바위]

[위치] 간현암 서쪽, 바위오름터 남쪽 아래에 있는 암벽등반코스를 말한다. 좌벽 위에 있다.

숫돌고개 [고개]

[위치] 간현 마을에서 동쪽으로 능골을 거쳐 북동쪽 월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간재’, ‘간현’, ‘간현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숫돌고개(간현치良峴峙)’라 하였다.

[내용] 간현과 가곡, 간현과 월송리를 연결하는 이 지역의 중요한 고갯길로 ‘간현’, ‘간재’의 지명이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고개 너머에 거치런이골이 있고 골 아래에 섬강이 있다. 현재 능골과 숫돌고개, 거치런이골로 도로가 나 있다.



「숫돌고개 ; 2020년」

아래작동 [마을] → 아랫말

아래작두 [마을] → 아랫말

아랫말 [마을]

[위치] 작동 마을 중 아래쪽 도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래작동’, ‘아래작두’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래작두’라 하였다.

아막골 [골]

[위치] 가루개고개 아래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아맛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맛골’이라 하였다.

[유래] 어린이를 묻었던 곳이므로 아막골이라 하였다.

아맛골 [골] → 아막골

아홉마지기 [들]

[위치] 능골 안, 번목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콩밭골 입구에 있는 들이다.

안골(1) [골]

[위치] 간현동 정지말 동쪽, 현 간현교회 서쪽에서 북쪽으로, 배나무골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북쪽 안골(2)로 넘어가는 도로가 나 있다.

안골(2) [골]

[위치] 배나무골 마을에서 남쪽으로, 배나무골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에 원충갑묘역이 있고 고개 너머에 간현동의 안골(1)과 이터골이 있다.

안골 [마을]

[위치] 안골(1)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골’이라 하였다.

안골광산 [광산]

[위치] 안골 마을 뒤에 있던 금광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골광산’이라 하였다.

안골들 [들]

[위치] 안골(1)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골들’이라 하였다.

안골천 [내]

[위치] 간현 북동쪽 월림산과 동쪽 숫돌고개에서 콩밭골과 능골을 따라 남서쪽으로 흐르는 내를 말한다.

안말 [마을]

[위치] 문전골 서쪽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말’이라 하였다.

안창계(安昌溪) [내] → 섬강

안창수(安昌水) [내] → 섬강

어랑이 [마을] → 어랭이

어랑이들 [들] → 어랭이들

어랭이 [마을]

[위치] 현 지정초등학교 북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학교모퉁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어랭이(학교모퉁이)’라고 하였다.

어랭이들 [들]

[위치] 현 서원주역 동쪽, 지정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어랑이뜰(魚浪坪)’이라 하였다.

어랭이보 [보]

[위치] 옛 중앙선 철도 아래에 있는 작동천의 보(湫)를 말한다. 어랭이들에 물을 댈다. 『조선지리지』에 ‘어랑이보(魚浪里湫)’라고 하였다.

여기바우(女妓--) [바위] → 문연동천

[위치] 문연동천(汶淵洞天)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문연동천(여기바우, 여기암)’이라고 하였다.

[유래] 강원감영의 감사가 기생들과 유희하던 놀이터였으므로 ‘여기바우’라 하였다.

여기암(女妓岩) [바위] → 문연동천

여십바우 [바위]

[위치] 간현암 서쪽, 범바우에 있는 암벽 등반코스를 말한다.

오야골 [마을]

[위치] 경장동 남동쪽, 만낭포 서쪽 서곡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무당이 오야당이라는 당집을 짓고 마람산 아래 마당바위에서 굿을 올리고 점을 쳤다고 하여 ‘오야골’이라 하였다.

오야골들 [들]

[위치] 오야골 마을 앞을 반도처럼 휘돌아 나가는 서곡천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오야골약수 [샘]

[위치] 마람산 동쪽 벼랑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내용] 만낭포에 살던 노침지 전설과 관련, 이 약수는 산삼이 썩어서 솟아나오는 것이라 한다.

오형제바우 [바위]

[위치] 간현교 북서쪽 섬강 철교 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철교에 바로 붙어 있는 바위산으로, 철교 북쪽으로 차례로 1~5형제 바위라 부른다. 『한국지명총람』에 ‘오형제바우(오형제암五兄弟岩)’라고 하였다.

[유래] 다섯 봉우리가 솟아 형제처럼 나란히 있으므로 오형제바우라 부른다. 바위 아래에 은주암의 전설이 있다.



「오형제바우 : 2019년」

오형제암(五兄弟岩) [바위] → 오형제바우

옥골 [골]

[위치] 작동 마을 북쪽 골안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작동 마을과 작동저수지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위쪽 능선에 조엄 묘소가 있다.

우벽(右壁) [바위]

[위치] 솔개마등지터 남서쪽의 암벽 등반코스를 말한다.

[유래] 간현암 오른쪽에 있으므로 우벽이라고 하였다.

울순골 [골]

[위치] 옛 간현역 북동쪽에서 능골과 갈라져 동쪽으로, 18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 북쪽에 능골과 안골천이 붙어있다.

웃말(1) [마을] → 웃작동

웃말(2) [마을]

[위치] 문전골 위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말’이라 하였다.

웃작동 [마을]

[위치] 작동 마을 위쪽, 작동저수지와 버들골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말’, ‘웃작두’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작두’라 하였다.

웃작두 [마을] → 웃작동

원충갑 묘소(元冲甲 墓所) [묘]

[위치] 안골(2) 배나무골 마을 남쪽에 있는 원충갑의 묘를 말한다. 묘역에는 묘비와 망주석 2기, 상석이 있다.

[내용] 원충갑(元冲甲, 1250~1321)은 고려의 무신이다. 향공진사(鄉貢進士)로 원주 별초(別抄)에 있다가 1291년(충렬왕 17년) 합단적이 침입하여 원주성을 포위하자, 전후 10여 차례에 걸쳐 적을 크게 물리쳤다. 1303년에는 간신 오기(吳祈)를 잡아 원나라에 압송하였다. 1319년 추성분용정란광국(推誠奮勇定亂匡國) 공신이 되었다. 치악산 영원산성 안에 원충갑사(元冲甲祠)가 세워져 제사를 모시다가 1669년 사당을 세워 원충갑을 주향(主享)하고 김제갑과 원호를 배향하였으며, 1670년 윤2월 7일에 충열사(忠烈祠)로 사액되었다. 1871년 철거되었다.



‘원충갑 묘소 : 2016년’

월뢰(月瀨) [내] → 섬강, 월송리 월뢰탄

월뢰탄(月瀨灘) [내] → 섬강, 월송리 월뢰탄

[위치] 옛 지리지에 나오는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월뢰탄(月瀨灘)’이라 하고 관문 서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이 이름은 넓게는 섬강을 뜻하고 좁게는 호암산 아래의 여울을 뜻한다. 이곳 섬강의 호암산 아래에서 월송교 아래까지는 강바닥이 모두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기암괴석이 많고 소(沼)가 많아서 바위 이름과 소의 이름이 많다.

[풀이] 탄(灘)은 여울을 뜻하는데, 여울은 강바닥이 얇고 물살이 빠른 곳에 붙는 이름이다. 물살이 빨라 모래는 떠내려가고 바닥은 바위나 자갈로 되어 있으며 물살이 화살처럼 빠르므로 ‘살여울’, ‘살대울’ 등으로 불린다.

이 지역은 산을 뜻하는 고어 ‘달(高, 山)’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래’, ‘달래’, ‘넙달골’, ‘다리골’, ‘다둔’ 등이 대표적이다. ‘달’과 관련된 지명들은 월악산, 월암산 등과 같이 한자로 표기할 때 ‘월(月)’자로 나타난다. 따라서 ‘월뢰(月瀨)’는 산을 뜻하는 고어 ‘달’에서 파생된 ‘다래, 달래’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월(月)’은 뜻을 나타냈고 ‘뢰(瀨)’는 ‘달래’의 소리 ‘래’와 ‘탄(灘, 여울)’의 뜻을 동시에 나타냈다. 이는 소리와 의미를 일치시키려고 한 결과이다. 따라서 ‘월뢰(月瀨)’는 원래의 이름인 ‘달래강’의 ‘달래’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즉 ‘월뢰(月瀨)’는 ‘달래’, ‘월뢰탄(月瀨灘)’은

‘달래강’을 나타낸 것이다.

월림산(月林山) [산]

[위치] 배나무골 동쪽, 콩밭골 북쪽 끝 섬강 변에 있는 높이 219m의 산을 말한다. 산의 남동쪽 능선에 솟돌고개가 있다.

월천(月川) [내] → 섬강, 월송리 월리탄

[유래] 옛날 양길이가 군사들과 취병산을 넘을 때 달빛이 비친 강을 보고 이름을 ‘월천(月川)’이라 하였다고 한다.

유곡(柳谷) [골] → 버들골

은조암(隱趙岩) [바위] → 은주암

은주암(隱舟岩) [바위]

[위치] 간현 오형제봉 중 2형제봉 절벽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큰 구멍이 있다. ‘은조암(隱趙岩)’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은주암(隱舟岩)’이라 하였다.

[유래] 지나가는 배들이 소나기와 풍랑을 피했다고 해서 배가 숨는다는 뜻으로 은주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옛날 어느 공주가 피란을 가다가 이곳에서 쉬었다고도 하고, 이괄의 장모 조씨 부인이 이곳으로 피해 은조암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유래담] 조선 인조 이괄의 난 때 이괄이 패하여 3대 멸족의 영이 내리자 그의 장모인 횡성 조씨 부인이 관군에게 쫓겨 원주로 도피하면서 배를 타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쫓기던 조씨 부인 일행은 이 바위굴로 숨었고, 뒤쫓던 관원들은 배가 갑자기 없어졌으므로 파선된 것으로 알고 돌아가 조씨 부인은 무사히 화를 면하게 되었다. 그 후 부인은 이곳에서 살게 되어 원주 한산 이씨의 10대 조모가 된다고 한다. 조씨가 숨었다는 뜻에서 은조암으로 부른다고도 한다.

이리(二里) [마을] → 간현리

이텃골(1) [골]

[위치] 간현동 버들골과 바른고개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이텃골(2) [골]

[위치] 현 지정중학교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당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텃골(1) [마을]

[위치] 이텃골(1)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버들골 입구, 간현천 옆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이텃골’이라 하였다.

이텃골(2) [마을]

[위치] 안터골 북동쪽, 이텃골(2)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일곱들 [들]

[위치] 가곡리 흙대울 서쪽 가곡교에서 작동 마을 앞까지 길게 이어진 들을 말한다. 작동천과 88번 조엄로를 따라 남쪽으로 길게 뻗은 들이다.

자라소 [소]

[위치] 바무피들 아래, 샛강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자래소’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자래소’라 하였다.

[유래] 자라가 많이 살았으므로 ‘자라소>자래소’라 하였다.

자래소 [소] → 자라소

자작골 [골]

[위치] 점말에서 북서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판대리 구룡골 구룡동의 동배나무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자작골(自作谷)’이라 하였다.

작동(爵洞, 作洞) [마을]

[위치] 간현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정조 때 이조판서를 지낸 조엄의 묘역과 조엄기념관이 있다. 마을에 ‘웃말’과 ‘아랫말’, ‘안말’이 있다. ‘작뚝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작두솔(作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작뚝골(작동爵洞, 作洞)’이라 하였다.

[유래] 조엄과 그 후손들이 7대를 내려오면서 판서를 지냈으므로 작동(爵洞)이라 하였다고 한다.



「작동 마을 ; 2020년」

작동저수지 [못]

[위치] 웃작동 마을 북쪽 골안골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저수지 남쪽 아래에 조엄기념관이 있고, 남동쪽 산에 조엄 묘소가 있다.

작동천(作洞川) [내]

[위치] 가곡천과 지촌천이 합류하여 서원주역 앞에서 서곡천과 함께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유래] 작동 앞을 지나므로 흙대울 앞에서부터 작동천이라 부른다.

작뚝골 [마을] → 작동

작은인삼바우골 [골]

[위치] 범바우 북쪽, 소금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장터 [마을]

[위치] 현 간현동 중심 상가를 말한다. ‘개나리모퉁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터(개나리모퉁이)’라 하였다.

[유래] 광복 후 이곳에 장이 섰으므로 장터라고 하였다.

재피골 [골]

[위치] 간현동 능골에서 갈라져 나간 콩밭골 중간에서 북서쪽으로 다시 갈라져 나간 골을 말한다.

갯골 [골] → 댕골

전나무배기샘 [샘]

[위치] 웃말(1), 웃작동에 있는 우물을 말한다. 『한

국지명총람』에 ‘전나무배기우물’이라 하였다.

점말 [마을] → 배터말

[위치] 괴골산 동쪽, 자작골 입구 강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간현 북쪽 상류, 안골 서쪽 강 건너에 있다. 현 점말펜션, 산내들펜션이 있는 마을이다. ‘배터말’, ‘사기전말’, ‘정자말’, ‘정지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정자말(배터)’이라 하였다.

[유래] 느티나무 정자가 있어 ‘정자말’, 앞에 나무가 있어서 ‘정지말’, ‘배터’라 하였다. 또는 조선시대에 사기그릇을 굽던 곳이라 ‘점말’, ‘사기전말’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마을에 다리가 없어 섬강 건너 안말까지 배로 건너거나 갈수기에는 사륜구동차로 건너기도 한다. 육지 속의 섬마을이라 불린다.

점말골 [골]

[위치] 점말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배터골’이라고도 한다.

정자말 [마을] → 배터말, 점말

정쟁이 [마을] → 경장동

정지말 [마을] → 배터말, 점말

조엄기념관 [건물]

[위치] 작동 마을 북쪽, 작동저수지 아래에 있는 기념관을 말한다.

[내용] 조선에 고구마를 들여온 조엄의 애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4년 11월 개관하였다. 200㎡ 규모이다.



「조엄기념관 ; 2019년」



「문익새(조엄 사당) ; 2019년」

조엄 묘소(趙曦 墓所) [묘]

[위치] 작동 마을 북쪽, 조엄기념관 북동쪽에 있는 조엄(趙曦, 1719~1777)의 묘가 있는 곳을 말한다.

[내용] 강원도 기념물 제76호로 지정되었다.



「조엄 묘소 ; 1989년」



「조엄 묘소 ; 2019년」

좌벽(左壁) [바위]

[위치] 간현암 서쪽, 숨은벽 남쪽 아래에 있는 암벽등반코스를 말한다.

[유래] 간현암 왼쪽에 있으므로 좌벽이라 하였다.

주곡(柱谷) [골] → 지동골

중방골 [마을]

[위치] 진방골 북서쪽, 섬강 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지동골 [골]

[위치] 현 지정면사무소에서 북동쪽으로, 18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이텃골(1)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기동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지동골(柱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기동골(주곡柱谷)’이라 하였다.

[유래] 골이 마치 기둥처럼 곧고 깊으므로 ‘기동골’> ‘지동골’이라 하였다.

지동골 약수 [샘]

[위치] 지동골 입구에 있는 약수를 말한다.

진방골 [골]

[위치] 간현에서 북쪽으로, 안골과 원충갑 묘역을 지나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섬강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로, 서쪽으로 섬강 건너 구수골과 마주보고 있다.

[유래] 마을을 감싸고도는 섬강이 심하게 꺾여 흐르므로 진방이라 하였다. 또는 골짜기가 장군이 진을 치는 모습이므로 진방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진방골 ; 2020년」

진방골 [마을]

[위치] 진방골 입구 섬강 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방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진방골고개 [고개]

[위치] 배나무골에서 북쪽으로, 진방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진방골고개’라 하였다.

진사래들 [들]

[위치] 옛 간현역 남쪽에서 남동쪽 바른고개골 앞까지 이어진 넓고 긴 들을 말한다. ‘진사래들’이라고도 한다.

[유래] 들이 길어서 ‘긴사래>진사래’라 하였다.

질마재골 [골]

[위치] 88번 조엄로의 작동과 흙대울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보통리 자갈동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산 이씨 의정공 제당이 있는 골짜기이다. 골 북쪽 위에 가곡리 돼지골이 붙어있다.



「질마재골 : 2020년」

청금사터(淸琴寺-) [터]

[위치] 월림산에 있던 옛 절터를 말한다. 축대가 남아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청금사터(淸琴寺-)’라 하였다.

콩밭골 [골]

[위치] 능골 중간에서 북쪽으로, 월림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재피골이 북서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내용] 조선 선조 때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지낸 이희(李璡, 1522~1600)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다.

큰인삼바우골 [골]

[위치] 당골 위, 월림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

한다.

[유래] 인삼이 나던 골짜기이므로 큰인삼바우골이라 하였다. 옛날 강이 마을 한가운데로 흐를 때, 빨간 인삼 꽃이 강물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작은인삼바우골은 범바우 뒤에 있다.

판교천(板橋川) [내] → 삼산천

[위치] 삼산천의 다른 이름이다. 삼산천이 판교 앞을 흐르므로 판교에서는 판교천이라 하였다.

하늘벽 [바위]

[위치] 삼산천에서 솔개미동지터에 이르는 암벽 등반코스를 말한다.

학교모퉁이 [마을] → 어랭이

해빙골 [골]

[위치] 가는골 끝에서 왼쪽으로 소금산 산줄기에 있는 벼랑 골짜기를 말한다. ‘희반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벼랑이 너무 좁고 가팔라 겁이 나서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라고 한다.

[풀이] ‘빈·빙’은 ‘비탈·벼랑’의 방언이다. ‘해·희’의 어원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지명으로 귀래면 용암리의 ‘빈재’, 호저면 주산리의 ‘빙모탱이’, ‘빙밀방천(砵下沔)’, 춘천 천전리와 지리산의 ‘빙소’가 있다.

황동골 [골]

[위치] 벼들골 위, 상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군부대 사육이 들어선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황동골’이라 하였다.

횃가마골 [골]

[위치] 능골 입구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당골과 재피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횃가마골’이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서 횃를 구웠는데 지금도 그 가마자리가 남아있다고 한다.

희빈골 [골] → 해빙골

보통리(普通里)

[위치]

보통리는 지정면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흥업면 사제리와 호저면 만종리, 서쪽으로는 간현리, 남쪽으로는 흥업면 사제리와 문막읍 동화리, 북쪽으로는 간현리·가곡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지향곡면(地向谷面)의 지역으로 삼리(三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북금동·구리들·자갑동·광터를 병합하여 보통리(普通里)라 하고 지정면에 편입하여 원주군 지정면 보통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면서 원성군 지정면 보통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지정면 보통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가 되었다.

[유래]

길모퉁이에 마을이 있으므로 ‘모퉁이>보퉁이>보통리’가 되었다.

만종과 광터를 지나오는 서곡천이 이곳에 이르러 심하게 곡류하며 곳처럼 반도를 이루어 모퉁이를 휘돌아가므로 ‘모퉁이>보퉁이’로 불렸다. 이를 한자로 음차하여 보통리(普通里)라 하여 정착되었다.

곶집골 [골]

[위치] 자갑동 남동쪽, 절골(2)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서곡천에서 북동쪽으로, 267.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골 북쪽에 질마재고개가 있다.

[유래] 곶집이 있었으므로 곶집골이라 하였다.

광대(光垔) [마을] → 광터

광터 [마을]

[위치] 만종리 남오동 서쪽, 질마재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만종천과 서곡천이 합류하는 배암나루(현 사제교)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서곡천을 경계로 하여 웃광터와 아랫광터가 있다. ‘광대’, ‘평장골’이라고도 한다. 예부터 한자로는 ‘광대(光垔)’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광터(光垔)’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광터(광대光垔)’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군사들이 먹을 군량미를 쌓아둔 광이 있었으므로 광터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약 350년 전에 광산 김씨가 마을을 이루었으므로 광터라 불렀다고도 한다.

[내용] 남오동 서쪽으로 흐르는 서곡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마을이다. 서곡천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마을이 들어서고 이를 통칭하여 ‘광터’라고 부른다. 북쪽 마을은 질마재 남동쪽 아래 산 밑에 있고 남쪽은 넓은 들 가운데 있다.

옛날 강원감영에서 한양으로 갈 때 감영에서 만종, 질마재를 거쳤으므로 질마재 입구인 웃광터가 먼저 생겨 교통로 역할을 하였는데 후에 들판을 중심으로 한 아랫광터가 중심 마을이 되었다. 북쪽 웃광터에는 ‘웃거리’, ‘평장골’, ‘새담’ 마을이 있고 남쪽 아랫광터에는 ‘큰담’과 ‘작은담’이 있다. 웃광터 북쪽 뒤로는 옛 중앙선 철로와 현 강릉선 철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아랫광터 남쪽으로는 42번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현재 웃광터는 지정면 보통리에 소속되어 있고 아랫광터는 흥업면 사제리에 소속되어 있다.

[풀이] 대개 ‘광대(光垔)’라는 지명의 원래 이름은 ‘너분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한자로 ‘광대(廣垔)’, 또는 너분터와 같은 뜻을 가진 ‘한터(큰터)’로 보아 호저면 대곡리처럼 ‘일대(一垔)’, ‘대대(大垔)’로 쓰거나 반곡동처럼 ‘한가터’ 등으로 썼다. 이곳도 서곡천 옆의 넓은 들을 끼고 발달한 마을이므로 ‘너분터’, 즉 광대(廣垔)로 보이나 ‘광대(光垔)’라고 한 점이 특이하다. 유래에 따라 광이 있었다고 치면 ‘광(光)’은 소리를 음차한 결과이다.

광터고개 [고개]

[위치] 새담에서 북쪽으로, 광터고개골로 들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질마재고개의 초입 부분이다. 『조선지리지』에 ‘광터고기(光垔峴)’라고 하였다.

광터고개골 [골]

[위치] 새담에서 북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옛 질마재 고갯길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이다. 골짜기 입구는 도장골이며 입구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골 뒤로는 샘골이 길게 이어져 영산에 닿는다.

광터주막 [주막]

[위치] 광터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광터주막(光垔酒幕)’이라고 하였다.

구리평(九里坪) [들] [마을] → 구미들

구미들 [들]

[위치] 동화역 북쪽, 서곡천 건너편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구미썰(九尾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밋들’이라 하였다.

구미들 [마을]

[위치] 자갑동 남서쪽, 불통재고개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동화역 북쪽 건너 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구리평’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리들(구리평九里坪)’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앞 서곡천이 깊게 휘어져 흐르므로 구미, 구미들이라 하였다.

[풀이] ‘구미’는 물길이 휘어진 곳에 붙는 지명이다. ‘굽(曲)+미(水)>굽미>굼마>구미’이다. ‘굽’은 휘어져 굽었다는 뜻이고 ‘미’는 ‘물’을 뜻하는 고대국어 ‘믈’, 또는 ‘매’에서 나온 말이다. 경북 구미시, 월송리 구미동 등, ‘구미’ 지명을 가진 곳들은 모두 강물이 휘어진 곳에 있고, 한자로 구미(龜尾)로 기록하여 지형이 거북의 꼬리와 같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다.

구밋들 [들] → 구미들

군량골(軍糧-) [골]

[위치] 웃광터 웃거리 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는 옛 중앙선 철로와 새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고, 골 중간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군장골’이라고도 한다.

[유래담] 후삼국시대 왕건과 견훤이 싸울 때 군량미를 쌓아 둔 골짜기라고 한다.

군장골(軍裝-) [골] → 군량골

굴새 [마을]

[위치] 구미들 마을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불통재고개 남쪽 아래에 있다.

노인산(老人山) [산]

[위치] 자갑촌 북동쪽 뒤에 있는 높이 228.6m의 산을 말한다. 산 동쪽에 질마재가 있고 서쪽 바로 아래에는 능골고개가 있다. 보통리와 간현리, 가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노인산(老人山)’이라 하였다.



「노인산 ; 2019년」

능골 [골]

[위치] 자갑동 새담에서 북쪽 너머 질마재골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고개 너머에 한산 이씨 의정공 제당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능골고개 [고개]

[위치] 자갑동 북쪽에 있는 능골의 고개를 말한다.

도장골 [골]

[위치] 질마재 고개 중턱, 광터고개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횡성고향한우식당이 있는 곳이다.

동산너머골 [골]

[위치] 복금동 마을 앞의 복금이들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마을 느티나무 서쪽의 골짜기이다. 현 동양환경 업체가 있다.

매봉재 [산]

[위치] 광터고개골 북동쪽, 호저면 만종리 굴미실 서쪽에 있는 높이 237.5m의 산을 말한다. 산 북서쪽 아래에 샘골이 있다.

[내용] 영산에서 남쪽으로 곧게 뻗어 내려온 산줄기의 남쪽 마지막 봉우리이다. 산줄기 서쪽에는 샘골이 길게 이어져 있고 동쪽에는 만종리 생양골이 길게 이어져 있다.

모퉁이 [마을] → 보통동, 보통리

무수막골 [골]

[위치] 광터고개골에서 갈라져 북서쪽으로, 187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가곡리 지촌 웃골이 있다.

보탱이 [마을] → 보통동

보탱이고개 [고개] → 보통이고개

보통동(普通洞) [마을]

[위치] 소막골산 남서쪽 줄기 끝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국도인 보통로 남쪽에 있는 마을로, 42번 원문로가 마을 앞을 지난다. ‘모퉁이’, ‘보통이’,

‘보통이’, ‘보탕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보통이(普通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보통리(普通里, 보통이)’라 하였다.

[유래] 곳 모퉁이에 마을이 있으므로 ‘모퉁이>보통이’로 변천하였다.

[내용] 서곡천이 휘돌아나가며 반도를 이룬 곳에 있는 보통리의 중심 마을이다. 마을이 산줄기의 기슭에 있고 반도를 이루며 돌아나간 서곡천을 따라서 들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남쪽에는 원주중고차 매매단지가 크게 들어서 있다.



「보통동 마을 ; 2020년」

보통들 [들]

[위치] 광터 웃거리 마을 앞 서곡천 옆으로 난 좁고 긴 들을 말한다. 도로 및 주택이 들어서서 들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보통리선사유적 [유적]

[위치] 서곡천 옆의 보통들에서 발견된 유적을 말한다. 망치돌, 몸돌, 찢개 등 구석기시대 유물이 수습되었다.

보통이(普通-) [마을] → 보통동, 보통리

보통이 [마을] → 보통동, 보통리

보통이개울 [내]

[위치] 서곡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보통이지울(普通川)’이라고 하였다.

[유래] 보통리를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보통이개울이라 부른다.

보통이고개 [고개]

[위치] 보통동에서 북동쪽으로, 북금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보탕이고개’라고도 한다.

보통이다리 [다리]

[위치] 석바탕이 서쪽에 있는 서곡천의 옛 다리를 말한다. 문막읍 동화리 동화역으로 가는 길로, 현 보통교라는 이름의 두 다리 중 남쪽에 있는 구도로의 다리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보통이다리’라 하였다.



「보통이다리 ; 2020년」

보통이들 [들]

[위치] 보통동 마을 주변을 곳처럼 곡류하는 서곡천을 따라 발달한 들을 말한다. 마을 남쪽과 서쪽으로 넓게 발달한 들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보통이뜰(普通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보통이들’이라 하였다.

[내용] 들 가운데로 42번 원문로, 새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보통이주막 [주막]

[위치] 보통이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옛길을 따라 보통이고개 아래, 현 마을 입구인 보통로 도로에 있었으리라고 추정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보통이주막(普通酒幕)’이라고 하였다.

북금동(卜今洞) [마을]

[위치] 소막골산 남쪽, 보통이고개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보통삼거리 북쪽에 있다. ‘북금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북금이(卜今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복금이(卜今-)’라고 하였다.

[내용] 마을 앞으로 옛 중앙선 철로와 옛 국도인 보통로, 88번 원문로가 지나고 있다.



「복금동 마을 : 2019년」

복금동서낭 [당]

[위치] 복금동 마을 뒤 산자락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630년, 높이 35m의 마을 당산목이다. 시국이 불안하고 어지러우면 나무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가지가 부러진다는 전설이 있다.



「복금동서낭 : 2019년」

복금이(卜今-) [마을] → 복금동

복금이뒷고개 [고개]

[위치] 복금에서 북서쪽 소막골을 지나 자갑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140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복금이 뒷고개’라 하였다.

복금이들 [들]

[위치] 복금동 마을 남쪽 아래, 마을과 서곡천 사

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복금이들(卜今里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복금이들’이라 하였다.

[내용] 철로와 도로, 휴게소, 머내 쪽의 철강공장 등이 들어서서 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부채바우골 [골]

[위치] 가곡리 지촌천 북쪽 끝에서 북동쪽으로, 영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절골(1) 남쪽에 있다.

부처골 [골] → 절골(2)

불통재고개 [고개]

[위치] 구리들에서 북서쪽으로, 간현리 작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작동의 불통재골이 있다. 높이는 120m이다.

삼리(三里) → 보통리

상광터동 [마을] → 웃광터

새담 [마을]

[위치] 웃광터 마을 중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질마재 입구, 현 광터사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샘골 [골]

[위치] 광터고개골 위에서 북쪽으로, 영산을 향해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석바통이 [마을]

[위치] 보통동 마을 서쪽 아래, 옛 도로의 보통고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내용] 소여인숙이라 불리던 곳이 있는 마을이다.

소막골 [골]

[위치] 복금동에서 북쪽으로, 소막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소터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소씨가 살았으므로 소터골, 소막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소막골산 [산]

[위치] 복금동 북쪽에 있는 높이 207m의 산을 말한다. 산 북쪽 아래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

고 산 정상 밑으로는 새 중앙선 철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소막골산 : 2020년」

소여인숙 [마을]

[위치] 석바통이에 있던 옛 마굿간을 말한다.

[유래] 여주와 원주를 오가던 소장수들이 이곳에서 소를 재워 이동하던 곳이다.

소터골 [골] → 소막골

아랫광터 [마을]

[위치] 광터 마을 중 서곡천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하광터동’이라고도 한다. 서곡천 북쪽 웃광터는 보통리 소속이고 서곡천 남쪽 아랫광터는 흥업면 사제리 소속이다.



「아랫광터 마을 : 2020년」

여운사터 [터] → 가곡리 영산사터

영산(靈山) [산] → 가곡리 영산

[위치] 샘골 북서쪽에 있는 높이 324m의 산을 말한다. 이 부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보통리와 신

평리, 호저면 만종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영산골 [골] → 절골(1)

영산사터(靈山寺-) [터] → 가곡리 영산사터

용고개 [고개]

[위치] 자갑동 뒤의 작은 고개를 말한다.

[유래] 고개가 꼬불꼬불하여 용처럼 생겼으므로 용고개라 하였다.

웃거리 [마을]

[위치] 웃광터 마을 중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요골 북쪽, 평장골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웃거리 마을 : 2020년」

웃광터 [마을]

[위치] 광터 마을 중 서곡천 북쪽에 있는 ‘웃거리’, ‘평장골’, ‘새담’을 말한다. 또는 그 마을 중 ‘웃거리’만 가리키기도 한다. ‘웃거리’, ‘상광터동’이라고도 한다.



「웃광터 마을 : 2020년」

자갑내 [내] → 자갑천

자갑동(自甲洞) [마을]

[위치] 동화역 북동쪽, 서곡천 건너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작압부리’, ‘작압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작갑부리(自甲洞)’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자갑촌(자갑동自甲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원래 이 동네는 약 400년 전 ‘작압부리’라 하였는데, 이는 앞이 조금 트인 곳이어서 밖은 잘 보이지만 밖에서 안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압부리>자갑동’이 되었다고 한다. ‘작압(爵押)’은 ‘잘 보이지 않는’ 곳을 뜻한다고 한다. 또는 한산 이씨가 갑자년부터 살기 시작하여 자갑동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조선 인조 때 난을 일으켰던 이괄의 장모인 횡성 조씨가 은조암으로 가기 전 잠시 봇짐을 풀고 이 마을에서 은신하였다고 한다. 마을이 서곡천 건너 산속에 있어 은밀하므로 한국전쟁 때 집이 한 채도 파괴되지 않았고 미군도 일시 머물렀다고 전한다.



「자갑동 마을 ; 2020년」

자갑동성황당 [당]

[위치] 자갑동 북동쪽 골짜기 위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지금은 없어졌다.

자갑들 [들]

[위치] 자갑동 마을 남쪽 앞에 있는 서곡천 옆의 들을 말한다.

자갑천(自甲川) [내]

[위치] 서곡천의 다른 이름이다. 자갑동 마을 앞을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자갑내’, ‘자갑천’이라고 부른다.

자갑천보 [보]

[위치] 자갑들에 있는 서곡천의 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작갑니보(自甲川湫)’라 하였다.

자갑촌(自甲村) [마을] → 자갑동

작압부리 [마을] → 자갑동

절골(1) [골]

[위치] 지촌천에서 동쪽으로, 영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영산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영산사가 있었으므로 절골이라고도 하고 영산 아래에 있으므로 영산골이라고도 한다.

절골(2) [골]

[위치] 소막골산 북쪽 아래, 곳집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북쪽으로 질마재골이 이어진다. 절골 위에는 질마재골, 질마재고개가 있고 고개 너머에는 가곡리 질마재 마을이 있다. ‘부처골’이라고도 한다.

질마재 [고개]

[위치] 절골(2) 위 질마재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는 가곡리 질마재 마을이 있고 고개 서쪽에 노인산이 있다.



「질마재 ; 2019년」

질마재골 [골]

[위치] 소막골산 북쪽 아래 절골(2)에서 북쪽 질마재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질마재고개 너머에는 가곡리 질마재 마을이 있다.

치마벼루 [바위]

[위치] 광터 서쪽 서곡천 옆에 있는 벼랑을 말한다.

치마벼루들 [들]

[위치] 치마벼루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치마베루썰(裳峴坪)’이라고 하였다.

평장개 [골] → 평장골

평장골 [골]

[위치] 광터 웃거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서곡천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로 요골들 북쪽, 웃거리 마을 동쪽에 있다. 현 광터골프연습장이 있는 곳이다. 『조선지리지』에 ‘평장골(平章谷)’, ‘평장기(坪庄谷)’라고 하였다.

평장골 [마을]

[위치] 웃광터 웃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군량골과 평장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평장골 마을 : 2020년」

하광터동 [마을] → 아랫광터

신평리(新坪里)

[위치]

신평리는 지정면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우산동과 호저면 만종리, 서쪽으로는 가곡리, 남쪽으로는 보통리와 호저면 만종리, 북쪽으로는 호저면 무장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 정지안면(正地安面)의 본1리(생장리)·2리(차면리)·3리(송호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들 중 신촌·누산·향평·상무곡·차면리를 병합하여 신평리라 하고 지정면에 편입하여 원주군 지정면 신평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면서 원성군 지정면 신평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지정면 신평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로 되었다.

[유래]

신촌(新村)과 향평(杏坪)의 이름을 따서 신평리(新坪里)라 하였다.

신촌(新村)은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이고 향평(향평杏坪)은 웃물지울 북쪽에 있는 마을로, 큰 살구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래골 [골] → 가래울

가래울 [골]

[위치] 웃물지울 웃말에서 차돌배기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25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서마지기골이 갈라져 나간다. 고개 너머 남동쪽에 만종리 안골이 있다. ‘가래골’, ‘가래울골’, ‘가래울골짜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리골(楸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래울골짜기’라고 하였다.

[풀이] ‘가래(갈래)+울(골, 마을)>가래울’이 되었다. 갈라진 골짜기라는 뜻이다.

가래울골 [골] → 가래울

가래울골짜기 [골] → 가래울

가마터골 [골]

[위치] 웃물지울에서 남동쪽으로, 25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물지울사거리에서 상북천을 가운데 두고 구래골과 마주보고 있다. 현 네오폐름 맞은편, 인봉사가 있는 골짜기이다.

격고무지고개(擊鼓舞地--) [고개] → 저고무지고개

격고무지도랑 [내] → 저고무지도랑

격고무지산 [산] → 장구봉

고래대연못 [못] → 신평저수지

골방치고개 [고개] → 방축고개

구래골 [골]

[위치] 상무곡 가마터골 서쪽 맞은편에서 남서쪽으로, 문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이 골짜기를 따라 현 물지울사거리에서 서쪽으로 기업도시로가 나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귀니골(歸內谷)’이라고 하였다.

[풀이] ‘구라, 구래’는 ‘굴’에서 파생된 것이다. ‘굴+골>굴골>굴(ㅈ)골>구라골>구래골’이 되었다. 우묵한 골짜기란 뜻이다.

구래골 [들]

[위치] 구래골 골짜기에 있던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랫골’이라 하였다.

구랫골 [골] [들] → 구래골

군두봉(群頭峰) [산]

[위치] 저고무지고개 북쪽에 있는 높이 333m의 산을 말한다. 지정면 신평리, 호저면 주산리, 호저면 무장리, 원주시 가현동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군두산(群頭山)’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군두산(群頭山)’이라 하였다.

[내용] 저고무지고개를 비롯한 이 산줄기에서 한국전쟁 때 전투가 치열하였는데 이 산 위에 시체와 철모가 수없이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군두산(群頭山) [산] → 군두봉

굴뚝고개 [고개]

[위치] 채미니 숲가마골에서 서쪽으로, 영산 북쪽, 옥판재 남쪽 사이를 넘어 가곡리 핏골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굴앞 [산] → 굴앞산

굴앞산 [산]

[위치] 수무재골 북쪽, 명마바우골 북쪽 끝에 있는 246.2m의 산을 말한다. 산 서쪽 너머에 셋물지울 음달말이 있다. ‘굴앞’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신제를 지내는 바위에 굴이 있으므로 ‘굴앞’, ‘굴앞산’이라 하였다.

귀내골 [골] → 구래골

깃대봉 [산]

[위치] 상봉 북쪽, 방축고개 동쪽에 있는 253.2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예전에 측량을 위해 표준깃대를 세웠으므로 깃대봉이라 하였다.

나랑버덩 [들]

[위치] 누산 마을 남쪽에서 가마터골 앞까지 넓고 길게 뻗은 들을 말한다. 들의 동쪽 일부가 중안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나랑버덩’, ‘느라우뜰’이라

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나랑버덩’이라고 하였다.

[내용] 들 서쪽의 나랑버덩삼거리에 이름을 남겼다.

[풀이] 이 들을 ‘느라우뜰’이라고도 하므로 어원은 ‘넙다’의 뜻인 ‘눌·노루, 널·너러, 늘·느르’인 것으로 보인다. ‘느라우뜰’은 ‘늘+밭+뜰>늘밭뜰>늘밭뜰>늘앗뜰>늘앗뜰>느랏뜰>느랏(우)뜰>느라수뜰>느라수뜰>느라우뜰’로 변천한 것이다. ‘늘어진, 넓은 밭’이라는 뜻이다. ‘나랑버덩’은 ‘너른+버덩>너른버덩>너릉버덩>나랑버덩>나랑버덩’으로 변천하였다.

나랑버덩 [들] → 나랑버덩

너나무들 [들]

[위치] 상북천에서 동쪽으로, 웃물지울 웃말을 향하여 난 들을 말한다. 살구죽들 남쪽, 가마터골의 북서쪽에 있다. 들 서쪽이 광주원주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누산(樓山) [마을]

[위치] 신평저수지 남동쪽, 향평 동쪽, 현 신평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다락무(樓山)’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누산동(樓山洞)’이라 하였다.

[유래] 예전 산모퉁이에 누각이 있었으므로 누산이라 하였다.

[내용] 마을 동쪽은 중앙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나 있고 마을 북쪽은 광주원주고속도로가 나 있으며 서쪽은 신평석화리가 나 있어서 도로로 포위된 형국이다. 마을 앞에 누산사거리가 있다.

누산(樓山) [산]

[위치] 향평 북쪽, 누산 마을 동쪽에 있는 155.1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누산동(樓山洞) [마을] → 누산

느라우뜰 [들] → 나랑버덩

[위치] 신평초등학교 앞 현 누산사거리에 있는 들

을 말한다. ‘나랑버덩’, ‘나랑버덩’이라고도 한다.

다락무 [마을] → 누산

닷마지기골 [골]

[위치] 저고무지구령골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도동막 [마을]

[위치] 도동막재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도동막재 [고개]

[위치] 향평에서 남쪽으로, 채미니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지금은 개발되어 없어졌다. 『조선지리지』에 ‘도동막재(道同幕峴)’라 하였다.

도장골 [골]

[위치] 저고무지구령골에서 막마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장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풀이] ‘도장’은 부녀자가 거처하던 안방이나 집안에 있는 공간을 이르던 옛말이다. ‘도장골’은 깊고 아늑하게 감싸인 골짜기를 말한다.

동막 [마을]

[위치] 동막골 입구, 방축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차면사거리 북서쪽, 신무로 길옆에 붙어있는 작은 마을이다.

동막골 [골]

[위치] 웃채미니에서 북서쪽으로, 여우박골산 북동쪽 아래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쪽이 원주기업도시에 편입되었다.

[내용] 채미니에서 팻골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북서쪽에 문바위가 있다.

동촌(東村) [마을]

[위치] 새말 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재 원주기업도시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동촌(東村)’이라 하였다.

둔전골 [들]

[위치] 웃채미니 앞들 동쪽, 쉬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동쪽에 만종JC가 있다.

막마골 [골]

[위치] 저고무지도랑골의 도장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저고무지고개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매봉산 [산]

[위치] 쉬고개 북쪽, 깃대봉 남쪽 능선에 있는 높이 251m의 산을 말한다. 상봉 북동쪽에 바로 붙어있는 봉우리이다. 남쪽 쉬고개로 이어지는 능선이 지정면 신평리와 호저면 만종리의 경계이다.

매봉재(1) [산]

[위치] 신촌 남서쪽, 새말고개 북서쪽에 있는 높이 175.1m의 산을 말한다. 현 롯데캐슬더퍼스트2차 북쪽에 있다. 주변이 기업도시에 편입되고 산줄기만 남아있다. 『조선지리지』에 ‘미봉지(鷹峰岵)’라고 하였다.

[내용] 매봉재 북쪽은 창대고개, 동쪽은 새말고개가 있어서 산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산줄기는 남쪽으로 문고개, 여우박골산, 영산까지 이어져 이 지역의 큰 산줄기를 이루고 있다.

매봉재(2) [산]

[위치] 옷채미니 서쪽, 현 상수도가 있는 산을 말한다.

명마바우골 [골]

[위치] 저고무지 장터버덩골 동쪽 수무재골의 동쪽 위에서 북쪽으로, 굴앞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모래고개 [고개]

[위치] 여우박골산 북쪽 아래, 문고개 남쪽 위 능선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채미니에서 핏골로 가던 고개이다.

무곡(茂谷) [골] → 물지울

무대장등 [산]

[위치] 방축고개 서쪽에 있는 높이 177m의 산을 말한다.

무지곡(茂芝谷) [골] → 물지울

무지곡촌(茂芝谷村) [마을] → 물지울

묵뱅이 [들]

[위치] 향평 나랑버덩들 남서쪽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나랑버덩삼거리 남서쪽 지역으로 원주기업도시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묵뱅이’라 하였다.

묵뱅이골 [골]

[위치] 나랑버덩에서 상복천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묵뱅이골’과 ‘작은묵뱅이골’이 있다. 현 나랑버덩삼거리 남서쪽 지역으로 기업도시에 모두 편입되었다.

문고개 [고개]

[위치] 채미니에서 핏골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채미니 동막골 북서쪽, 구래골 남서쪽에 있던 고개로 현 기업도시로의 문고개생태통로 동쪽 아래에 있던 고개이다. ‘문드령’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문고기(門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문고개’라 하였다.

[유래] 새말고개에서 여우박골산, 영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넘는 고개이다. 길 양쪽에 바위가 문처럼 서 있어서 문고개라 하였다. 고개를 넘으면서 ‘문 열려라’하고 소리쳤다고 한다.

[내용] 이 고개는 핏골 뿐만 아니라 도오개, 당고개 등 가곡리의 주민들이 채미니, 만종, 모래내를 거쳐 원주를 오가던 주 고갯길이었다.

문드령 [고개] → 문고개

물지울 [골] [마을]

[위치] 신평리와 무장리에 걸쳐 있는 골짜기, 마을을 말한다. ‘아래물지울’, ‘웃물지울’, ‘셋물지울’이 있다. ‘뭇지울’, ‘뭇지울’이라고도 하고 이를 한자로 적어 ‘무곡(茂谷)’, ‘무지곡(茂芝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웃물지울(上茂谷), 아리뭇지울(下茂谷), 신탄지울(間茂谷)’이라고 하였다. 『한

국지명총람』에 ‘물지울(무곡茂谷)’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물이 많으므로 ‘물지울’이라 하였다. 이를 한자로 적어 ‘무곡(茂谷)’이라 하였다. ‘무곡(茂谷)’의 ‘무(茂)’는 음을 따서 소리를 적은 것이고 ‘곡(谷)’은 뜻을 적은 것이다. 소리에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 ‘무지곡(茂芝谷)’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물지울은 신평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남쪽 위와 북쪽 아래에 걸쳐 있는 골짜기를 지칭하였다. 신평저수지의 동쪽은 군두봉(333m), 저고무지고개, 장구봉(346.3m) 등이 있어 깊은 골짜기를 이루었다. 이 산줄기의 물들이 모여 흐르는 골짜기들이 물지울이다. 물지울의 물들을 모으기 위해 신평저수지를 막았다. 신평저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동쪽 상류의 마을을 웃물지울, 저수지의 동쪽 마을을 셋물지울, 하류의 마을을 아랫물지울이라 부른다. 이를 한자로 적어서 ‘상무곡(上茂谷)’, ‘간무곡(間茂谷)’, ‘하무곡(下茂谷)’이라 하였다.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의 묘소가 ‘원주 정안면(正安面) 무지곡촌(茂芝谷村) 후(後) 경좌(庚座)’에 있다고 하여 물지울을 ‘무지곡(茂芝谷)’이라고 하였다.

[풀이] ‘물지울’은 ‘못지울’, ‘못지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물의 옛말 ‘문(문)>못(못)’과 ‘골, 굴’을 뜻하는 ‘울’이 결합한 것이다. ‘문(문)+울>문울>문(이)울>무디울>무지울>못지울’로 풀이된다. ‘물이 많이 나오는 골짜기’란 뜻이다. 한자로는 ‘무곡(茂谷)’ 또는 ‘무지곡(茂芝谷)’이라 하였는데, ‘무지(茂芝)’는 원래 이름 ‘물지울’과 더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 ‘무곡(茂谷)’에서 부족한 ‘지’의 소리를 ‘지(芝)’로 추가한 것이다.

밀골 [골]

[위치] 웃채미니에서 서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 북쪽에 붙어있다.

밤말 [마을]

[위치] 서낭머리 서쪽, 진등재 동쪽 아래에 있던 마

을을 말한다. 현 누산사거리 서쪽 폐수처리장이 들어선 곳이다. ‘발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발말’이라 하였다.

[유래] 발만 있는 마을이므로 ‘발말’이라 하였는데 ‘발말>반말>밤말’이 되었다.

방축고개 [고개]

[위치] 채미니에서 북쪽, 향평과 누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현 물지울사거리에서 신평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을 말한다. 원래 고개가 높지도 않았지만 구 도로에 이어 신무로, 중앙고속도로가 나면서 고개 모습은 사라졌다. ‘골방치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방축고기(方築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방축고개’라 하였다.

방축골 [골]

[위치] 채미니에서 북쪽으로, 방축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옛 도로가 나 있던 곳으로, 지금은 골짜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방축구렁이들 [들]

[위치] 방축고개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물지울사거리 지역으로 대부분 도로에 편입되었다.

발말 [마을] → 밤말

산막골 [골]

[위치] 향평 장터버덩골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산막골(山幕洞)’이라 하였다.

산자골 [골]

[위치] 웃채미니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원주기업도시에 편입되었다.

살구독 [독]

[위치] 향평 앞에 있는 독을 말한다. 저고무지도랑의 물을 막기 위한 독이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살구독’이라 하였다.

살구죽들 [들]

[위치] 향평 마을 서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의 서쪽 일부가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상무곡(上茂谷) [마을] → 웃물지울

상무곡도랑 [내] → 저고무지도랑

상복천 [내]

[위치] 가래울골과 큰어둔이골, 방축고개의 물이 합쳐져 북쪽 신평저수지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옛 도로인 신무로를 따라 흐르던 작은 내이다.

상봉(上峰) [산]

[위치] 웃채미니 동쪽, 쉬고개 북쪽에 있는 250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매봉산 남서쪽에 바로 붙어 있는 봉우리로, 호저면 만종리와 경계를 이룬다.

상차면(上叉勉, 上且勉) [마을]

[위치] 채미니 마을 중 가장 위에 있는 마을로, 채미니에서 중심 되는 마을이다. 영산, 여우박골산의 동쪽 아래, 현 차면사거리 남서쪽에 있다. ‘웃채미니’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차면이(상차면上且勉)’라 하였다.

새말 [마을] → 신촌

새말고개 [고개]

[위치] 새말(신촌) 남쪽, 찢골저수지 북쪽에 있는 고개로 매봉재와 여우박골산, 영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있다. 새말에서 찢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현 새말고개생태통로가 나 있다.

[유래] 새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므로 새말고개라 하였다.



「새말고개 ; 2019년」

셋물지울 [골] [마을] → 물지울, 호저면 무장리 셋물지울

서낭머리 [마을]

[위치] 누산 북쪽, 밤말 동쪽, 신평저수지 남쪽 입구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광주원주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유래] 옛 서낭당이 있던 모퉁이에 있던 마을이므로 ‘서낭모루>서낭머루>서낭머리’라 하였다.

서들골 [골]

[위치] 중채미니에서 서쪽으로, 278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마지기골 [골]

[위치] 웃물지울 웃말 남동쪽, 가래울골과 갈라저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가래울골 북쪽에 붙어있는 골짜기이다. 동쪽 산 너머에 만종리 금송골이 있다.

속담 [마을]

[위치] 신촌 마을 본동에서 남동쪽 안, 신촌골에 있던 작은 마을을 말한다. 현 기업도시 내 단독주택지로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속담’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안(속)에 있다 하여 속담이라고 한다.

[풀이] ‘담·땀·똥’은 마을에서 따로 몇 집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쓰는 이름이다.

수무재골 [골]

[위치] 장터버덩골에서 동쪽으로, 저고무지구령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전체를 광주원주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숯가마골 [골]

[위치] 웃채미니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쉬개 [고개] → 쉬고개

쉬개고개 [고개] → 쉬고개

쉬개골 [골]

[위치] 채미니저수지에서 동쪽으로, 쉬고개를 향하

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차면사거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쉬고개 [고개]

[위치] 채미니저수지 동쪽 쉬개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호저면 만종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차면사거리 동쪽에 있는 고개로 만종리와 신평리의 경계가 된다. ‘쉬개’, ‘쉬개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슈유고기(茱萸峴)’라 하였다.

[내용] 옛날 채미니에서 만종을 거쳐 원주로 오가던 주 고갯길로, 간현유격장으로 가는 군사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풀이] ‘쉬고개’의 ‘쉬’는 ‘수레너미, 수리봉’처럼 ‘옴, 높은’의 뜻을 가진 ‘술, 수리’가 ‘술>수리>수이>쉬’로 음운 변천한 것이다. ‘쉬개’는 ‘쉬+개>쉬개’로, ‘쉬고개’의 준말이다. ‘쉬개고개’는 ‘쉬+개(고개)+고개’의 형태로 ‘고개’가 중복된 것이다. 따라서 쉬고개는 ‘높은 산을 넘어가는 고개’란 뜻이다. ‘쉬’는 제주도의 ‘다랑쉬오름’에도 남아있다.

승지골 [골]

[위치] 용강이재 북쪽 아래, 신평석화로에서 동쪽으로, 큰안산을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승지골(承旨洞)’이라 하였다.

신무중학교(新茂中學校) [학교]

[위치] 안터 마을 마을회관 서쪽에 있던 옛 중학교를 말한다. 터가 남아있다.



「신무중학교터 : 2018년」

신촌(新村) [마을]

[위치] 누산 서쪽, 매봉재 북동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문고개사거리 북쪽, 단독주택단지 개발된 지역으로 마을 전체가 원주기업도시에 편입되었다. 마을 안에 ‘속담’, ‘재우론’, ‘아랫말’이 있었다. ‘새말’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신촌(新村)’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시말(新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촌동’이라 하였다.

[유래] 새로 생긴 마을이었으므로 새말, 이를 한자로 적어 신촌(新村)이라 하였다.

신촌골 [골]

[위치] 신촌 마을 앞구렁골에서 남서쪽으로, 신촌 마을 속담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현 기업도시 단독주택단지로 들어가는 길이 나 있다.

신촌동(新村洞) [마을] → 신촌

신평저수지 [못]

[위치] 신평리와 무장리에 걸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무장저수지’, ‘신평무장저수지’, ‘고래대연못’이라고도 한다.



「신평저수지 : 2019년」

아래물지을 [골] [마을] → 호저면 무장리 아래물지을

아래차면이 [마을] → 하차면

아래채미니 [마을] → 하차면

아랫말(1) [마을]

[위치] 신평석화로에서 신촌으로 들어가는 앞구령 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신촌마을 중 북동쪽 아래에 있던 마을이다. 원주기업도시 단독주택단지 에 편입되었다.

아랫말(2) [마을]

[위치] 웃물지울 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가마터골과 너나무들 사이에 있던 마을로 지금은 들로 변하였다. 마을 서쪽 앞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안터 [마을]

[위치] 신평저수지 서쪽 창대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큰안산 남쪽, 신촌 앞구령골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안터’라 하였다.

[유래] 산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마을이므로 안터라고 하였다.

[내용] 원래는 2~3호의 작은 마을이었으나 새로 주택단지가 개발되어 10여 호의 집이 들어서 마을이 커졌다.

앞구령골 [골]

[위치] 현 신평석화로에서 남서쪽으로, 신촌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골짜기를 말한다. 원주기업도시 단독주택지구 에 편입되었다.

[유래] 마을 앞에 있는 낮은 구령이므로 앞구령골 이라고 하였다.

[내용] 골짜기 입구에 신평석화로와 광주원주고속 도로가 겹쳐서 지나가고 있다.

앞들 [들]

[위치] 웃채미니 남동쪽 앞, 채미니저수지 남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남북을 가로질러 신무로가 나면서 대부분 도로에 편입되었다.

어둔이 [마을]

[위치] 어둔이골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어둔이골 [골]

[위치] 방축고개 북동쪽 아래, 방축구렁이들에서 동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어둔이골’과 ‘작은 어둔이골’이 있다. 현재 골 서쪽 입구에 중앙고속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유래] 골이 깊고 어두우므로 ‘어둔이’라 하였다.

어둔이들 [들]

[위치] 방축고개 밑, 어둔이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어둔이들’이라 하였다.

언고개 [고개] → 엄고개

엄고개 [고개]

[위치] 누산에서 북쪽으로, 샛물지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호저면 무장리와 경계가 되는 고개로 신무로가 지나가고 있다. ‘엄나무고개’라고도 하고, 발음에 따라 ‘언고개’, ‘원고개’, ‘음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음고기(欒岾)’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원고개’라 하였다.

[유래] 엄나무가 있고 서낭당이 있었으므로 엄고개라 하였다. 또는 옛날 원님이 지나갔으므로 원고개라 하였다고도 한다.



「엄고개」; 2020년

엄고개골 [골]

[위치] 신평저수지에서 동쪽 엄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엄나무고개 [고개] → 엄고개

여우박골산 [산]

[위치] 채미니 서쪽, 영산 북쪽 아래에 있는 높이 256.8m의 산을 말한다. 영산에서 북쪽 문고개로

이어지는 산줄기 중간에 있다. 신평리와 가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연산골 [골] → 영산골

영산(靈山) [산] → 가곡리 영산

[위치] 채미니 서쪽, 여우박골산 남쪽에 있는 높이 324m의 산을 말한다. 가곡리, 신평리, 보통리, 호저면 만종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영산골 [골]

[위치] 방축골 북쪽 아래, 방축구렁이들에서 남서쪽으로, 여우박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쪽 도로 건너편에 어둔이골이 있다. 현 물지울 사거리 남서쪽, 네오플램과 진양제약이 들어선 지역이다. ‘연산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연산골(靈山谷)’이라고 하였다.

영산들 [들]

[위치] 어둔이들 아래, 영산골에 있던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산골’이라 하였다.

옛둔지들 [들]

[위치] 웃채미니와 중간말 사이, 신무로 서쪽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용강이들 [들]

[위치] 신평저수지 상류에서 서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골짜기 윗부분이 광주원주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용강이재 [고개]

[위치] 용강이들에서 서쪽으로, 신촌 아랫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갯길에 현 신평석화호가 나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용강이지(龍崗峴)’라고 하였다.

웃담 [마을] → 웃말(1)

웃말(1) [마을]

[위치] 웃물지울 마을 중 너나무들 동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담’이라 하였다.

웃말(2) [마을]

[위치] 웃물지울 마을 중 동쪽 차돌배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물지울 [마을]

[위치] 물지울 중 남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향평 남쪽, 현 물지울사거리에서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웃말’과 ‘아랫말’이 있다. ‘상무곡(上茂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웃물지울(上茂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물지울(상무곡上茂谷)’이라 하였다.



「웃물지울 마을 ; 2020년」

웃물지울도랑 [내] → 저고무지도랑

웃채미니 [마을] → 상차면

원고개 [고개] → 엄고개

육판재 [고개]

[위치] 채미니 밑골에서 서쪽으로 난 고개를 말한다. 핏골 웃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넓은 터로 되어 있다.

은배미 [들]

[위치] 채미니저수지 북쪽 위에 붙어있는 논을 말한다.

은배미골 [골]

[위치] 채미니저수지 북쪽 위에서 서쪽으로, 웃채미니 마을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차면 사거리가 있는 곳이다. ‘큰은배미’와 ‘작은은배미’가 있다.

음고개 [고개] → 엄고개

이리(二里) [마을] → 채미니

일리(一里) [마을] → 신평리

작은골 [골]

[위치] 웃채미니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 남쪽에 보통 리 생양골이 있다. 현재 택지로 조성 중이다.

작은목뱅이골 [골]

[위치] 큰목뱅이골 남쪽, 구래골 북쪽에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물지을 사거리와 나낭버덩삼거리 사이에 있던 골짜기이다. 현 나낭버덩삼거리 남서쪽 지역으로 원주기업도시에 편입되었다.

작은어둔이골 [골]

[위치] 방축구랭이들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어둔이골 북쪽에 있다. 현 차면사거리와 물지을사거리의 중간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골짜기 입구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작은은배미골 [골]

[위치] 은배미골 중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장구봉 [산]

[위치] 저고무지 고개 남쪽에 있는 높이 346.3m의 산을 말한다. 가현동과 지정면 신평리, 호저면 만종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저고무지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저고무지산(擊鼓舞地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구봉(격고무지산擊鼓舞地山)’이라 하였다.

[유래담] 산 모양이 장구처럼 생겼다 하여 장구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장터버덩골 [골]

[위치] 향평 지통골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서 수무재골이 이어진다. 골 전체를 광주원주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재넘머리 [고개]

[위치] 향평 삼막골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를 말한다. 고개 너머 셋물지을 음달말 덩바우골이 있다. 높이는 175m이다.

재론 [마을] → 재우론

재론 [마을] → 재우론

재우론 [마을] → 재우론

재우론 [마을]

[위치] 신촌 마을 중 북쪽 위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창대고개 남동쪽 아래에 있던 마을로 현 원주기업도시 단독주택지구로 편입되었다. ‘재론’, ‘재론’, ‘재우론’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재론’이라 하였다.

[유래] 고개 위에 논이 있었으므로 ‘재논’, ‘재우론’이라 하였다.

[풀이] ‘재+논>재논>재론>재(우)론>재우론>재우론’으로 음운 변천하였다. 고개에 논이 있었으므로 논이 있는 지형의 특성이 반영된 이름이다.

저고무지 [마을]

[위치] 향평 동쪽 저고무지 고개 서쪽 아래, 군두봉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물지을 마을 중 하나이다. ‘저금어지’라고도 하고 이를 한자로 적어 ‘격고무지(擊鼓舞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격고무지(擊鼓舞地)’라 하였다.

[내용] 저고무지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로 신평리에서 가장 먼 동쪽 골짜기 마을이다. 마을 앞을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마을 남동쪽 저고무지고개 밑으로 매봉터널이 뚫려 있다.

저고무지고개 [고개]

[위치] 신평리 향평·누산에서 동쪽으로, 가현동 웃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아래로 광주원주고속도로의 매봉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저금어지’라고도 하고 이를 한자로 적어 ‘격고무지(擊鼓舞地)’라고도 한다. 주민들은 ‘저고무지’ 또는 ‘저금어지’라고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저고무지(擊鼓舞地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격

고무지고개(擊鼓舞地--)'라 하였다.

[유래담] 이곳 산의 형국이 북을 두드리고 춤을 추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한국전쟁 때 중공군과 유엔군이 싸우면서 중공군들이 이 고개에서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어서 '격고무지(擊鼓舞地)'라 하였고 그것이 '저고무지', '저금어지'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원래 이름과는 상관없이 한자로 쓴 지명 '격고무지'를 다시 풀어 쓴 것이다.

[풀이] 이 고개를 한국전쟁 훨씬 이전인 『조선지리지』에서 '저고무지'라고 하고 한자로 '격고무지(擊鼓舞地)'라 하였다. '격고무지'는 원래 이름 '저금어지', '저고무지'의 소리를 적은 것이다. 후에 이 한자 지명의 뜻을 풀이하여 중공군이 북치고 춤추는 내용이 나왔다. 따라서 이미 먼 옛날부터 이 고개를 '저금어지', '저고무지'로 불려왔고 일제강점기에 그것을 한자로 쓰면서 '격고무지(擊鼓舞地)'란 어려운 이름으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이름 '저금어지', '저고무지'의 어원은 알 수 없다.

저고무지구령골 [골]

[위치] 수무재골에서 동쪽으로, 저고무지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전체를 광주원주고 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저고무지도랑 [내]

[위치] 저고무지고개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저고무지구령골, 수무재골, 장터버덩골, 향평을 거쳐 누산에서 신평저수지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상무곡도랑', '웃물지을도랑', '지렁골도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격고무지도랑(지렁골도랑)', '상무곡도랑'이라 하였다.

저고무지산 [산] → 장구봉

저금어지 [마을] → 저고무지

절골 [골]

[위치] 웃채미니 동쪽, 상봉 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절터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절골(寺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 절이 있었으므로 절골, 절터골이라 하였다.

절터골 [골] → 절골

제룬 [마을] → 재우룬

조락골 [골]

[위치] 누산에서 남서쪽으로, 새말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누산사거리에서 서쪽 기업도시로 들어가는 도로가 나 있다. 『조선지리지』에 '조락동(鳥落洞)'이라고 하였다.

[풀이] '조락골'의 '조락, 조약'은 '작, 잘, 졸, 좀'과 동근어로 '작다(小)'를 뜻한다. '졸+골>졸골>졸(아)골>조라골>조락골>조락골'로 변천하였다. '작은, 좁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조락골고개 [고개]

[위치] 누산에서 조락골을 거쳐 조락골 중간에서 북쪽, 신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조락골고개'라 하였다.

조락골들 [들]

[위치] 누산사거리 서쪽, 조락골에 있던 들을 말한다. 도로 및 원주기업도시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조락골들'이라 하였다.

주막거리 [마을]

[위치] 신평초등학교 앞 현 누산사거리 지역을 말한다.

[유래] 옛날 누산이 이 지역의 변화가여서 주막이 세 집이나 있었으므로 주막거리라고 하였다.

주막골 [마을] → 물지을

중간말 [마을] → 중차면

중차면(中叉勉, 中且勉) [마을]

[위치] 채미니 마을 중 가운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신평사거리 북서쪽에 붙어 있는 마을로

지정지구 문화마을이 구성되어 있다. ‘중간말’, ‘중채미니’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중차면(中且勉)’이라 하였다.

중채들 [들]

[위치] 중채미니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의 대부분이 만종C에 편입되었다.

중채미니 [마을] → 중차면

지령골도랑 [내] → 저고무지도랑

지정문화마을 [마을]

[위치] 중차면에 새로 생긴 마을을 말한다. 현재 채미니의 중심 마을이다.



「지정문화마을 : 2020년」

지통골 [골]

[위치] 신평저수지 최상류, 신평초등학교 북쪽에서 남서쪽 향평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광주원주고속도로에 모두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지통골’이라 하였다.

지통골도랑 [내]

[위치] 지통골에 있는 작은 내를 말한다.

진등재 [고개]

[위치] 누산에서 서쪽 밤말을 지나 북쪽 송정을 향하여 난 고개를 말한다. 고갯길에 현 폐수처리장 서쪽 도로가 나 있다.

집너머골 [골]

[위치] 신촌 아랫말 앞 앞구령골에서 재우룬 서쪽

의 166.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재우룬과 신촌 사이로 난 큰 골짜기이다. 원주기업도시 단독주택지구에 편입되었다.

차돌배기골 [골]

[위치] 웃물지울에서 동쪽으로, 27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에 웃말이 있다.

차면리(叉勉里, 且勉里) [마을] → 채미니

차면이 [마을] → 채미니

차면천(叉勉川, 且勉川) [내]

[위치] 방축고개에서 채미니를 거쳐 남쪽으로 흘러 만종리 석밭앞의 학거리들에서 만종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참물 [샘]

[위치] 웃채미니 마을 앞에 있는 샘을 말한다. ‘채미니샘물’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의 근원이 된 샘으로, 이 샘 이름에서 차면리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

[내용] 이 마을에는 개울이 없지만, 수량이 풍부한 우물이 있어 마을이 형성되었다. 평지에서 솟는 샘이 수압이 세고 수량이 많아 마을 빨래터로 이용하던 곳으로, 여름에는 얼음같이 차고 겨울에는 따뜻하였다고 한다. 이 샘물로 채미니저수지를 채우고 2만5천여 평의 마을 논농사를 지었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수압이 약해지고 수량이 줄었다고 한다. 길이 나면서 폐쇄되어 빨래터슈퍼 동쪽, 길 아래에 흔적만 남아있다.

창당이재(蒼唐峴) [고개] → 창대고개

창대고개 [고개]

[위치] 매봉재 북쪽 아래, 재우룬 북서쪽에 있는 높이 155m의 고개를 말한다. 무장리의 창대골과 송정저수지를 지나 무태골 위에 있는 고개로 호저면 무장리 송정과 지정면 신평리 가곡의 도오개 사이에 있다. 원주기업도시에 편입되었고, 고갯마루에 창대고개생태통로가 나 있다. 『조선지리지』에 ‘창

당이지(蒼唐嶺)’라고 하였다.

[풀이] 『조선지지자료』에 ‘창터골(蒼塗谷)’이라 하였으므로 창대(蒼岱)는 창터를 한자로 옮겨서 생긴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이름 ‘창터’의 어원은 알 수 없으나, 한자로 ‘蒼’이라고 하였으므로 숲이 우거진 골짜기, 고개였던 것으로 보인다.

창대골 [골]

[위치] 무장저수지 중간 부분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안산 북쪽 아래, 용강이들 북쪽에 붙어있는 골짜기이다. 골 안에 ‘안터’가 있고, 안터에 새 마을이 크게 들어섰다. 『조선지지자료』에 ‘창터골(蒼塗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숲이 우거진 골짜기이므로 ‘창터골(蒼--)’이라고 하다가 이를 한자로 적어 ‘창대골(蒼岱谷)’이라 하였다. ‘창(蒼)’은 숲이 울창하다는 뜻이다.

창터골 [골] → 창대골

채미니 [마을]

[위치] 영산 동쪽 아래, 방축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채미니’, ‘중간말’, ‘아래채미니’가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차면이(且勉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차면리(且勉里, 차면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이 형성된 근원인 ‘참물’이 음운 변화를 거쳐 ‘차미니, 채미니’가 되었고 이를 한자로 적어 ‘차면리(且勉里)’라 하였다. 또는 일제강점기 때 처음음으로 이곳에 웃나무를 심으면서 ‘힘쓰고 또 힘써야 한다.’는 뜻에서 ‘또 차(叉)자에 힘쓸 면(勉)자’로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차면리(叉勉里, 且勉里)는 ‘차면이, 채미니’를 한자로 음차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는 ‘참물’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없는 이곳에 ‘참물’이 있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참물>참무리>차무리’가 ‘차무니, 차미니, 채미니’로 음운 변화하였고 일제강점기에 이를 음차하여 ‘차면이(叉勉里, 且勉里)’라 하였다.



「채미니 마을 : 2019년」

채미니골 [마을] → 채미니

채미니샘물 [샘] → 참물

채미니서낭 [나무]

[위치] 채미니에 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를 말한다. 지정문화마을 앞에 있다.

[내용] 원래 당집은 없이 나무에 치성을 드리던 곳이다. 수령은 약 200년이다.

채미니저수지 [못]

[위치] 웃채미니 마을 동쪽 앞, 은배미골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차면사거리 남동쪽 아래에 붙어있다.

채미니주막 [주막]

[위치] 채미니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차면이주막(且勉里酒幕)’이라 하였다.

큰골(1) [골]

[위치] 웃채미니에서 서쪽으로, 영산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2) [골]

[위치] 저고무지 수무재골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31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만종리 금송골이 있다.

큰목뱅이골 [골]

[위치] 나랑버덩 서쪽 상복천 건너에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현 나랑버덩삼거리 남서쪽 지역으로, 원주공업도시에 편입되었다.

큰안산 [산]

[위치] 신평저수지 독 서쪽에 있는 높이 185.7m의 산을 말한다. 산 남쪽에 창대골의 안터 마을이 있고 북서쪽 아래에는 호저면 무장리의 송정 마을이 있다. 지정면 신평리와 호저면 무장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큰어둔이골 [골]

[위치] 방축구렁이들 동쪽, 작은어둔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 차면사거리와 물지울사거리의 중간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골짜기 입구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큰은배미골 [골]

[위치] 은배미골 중 큰 골짜기를 말한다.

하차면(下叉勉, 下且勉) [마을]

[위치] 채미니 마을 중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영산 줄기의 남동쪽 아래, 현 신평사거리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동쪽 앞으로 옛 신무로와 409번 새 신무로, 영동고속도로가 비껴 지나가고 있다. ‘아래차면’, ‘아래채미니’, ‘하채민’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하차면(下且勉)’이라 하였다.



「하차면 마을 ; 2020년」

하채들 [들]

[위치] 하차면 마을 남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할미바우 [바위]

[위치] 저고무지고개 북쪽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

한다.

[유래] 바위 모양이 할미가 서 있는 것 같으므로 할미바우라 하였다.

할미바우산 [산]

[위치] 저고무지고개 북쪽, 군두봉 남쪽에 있는 높이 284m의 산을 말한다.

[유래] 할미바우가 있으므로 할미바우산이라고 하였다.

행평(杏坪) [마을] → 향평

향촌 [마을] → 향평

향촌주막 [주막]

[위치] 향평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향촌주막(杏村酒幕)’이라고 하였다.

향평 [마을]

[위치] 누산 마을 남동쪽, 웃물지울의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서쪽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행평’, ‘향촌’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행평(杏坪)’이라 하였다.

[유래] 큰 살구나무가 있었으므로 ‘행평(杏坪)’이라 하였다. 지금은 ‘향평’이라 부른다.



「향평 마을 ; 2020년」

안창리(安昌里)

[위치]

안창리는 지정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간현리, 서쪽으로는 경기도 여주시 도전리, 남서쪽으로는 문막읍 동화리와 취병리, 북쪽으로는 판대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 지향곡면(地尙谷面)의 지역으로 일리(一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월운·능동·창촌·송원·이운동·수정동·흥법을 병합하여 안창리(安昌里)라 하고 지정면(地正面)에 편입하여 원주군 지정면 안창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면서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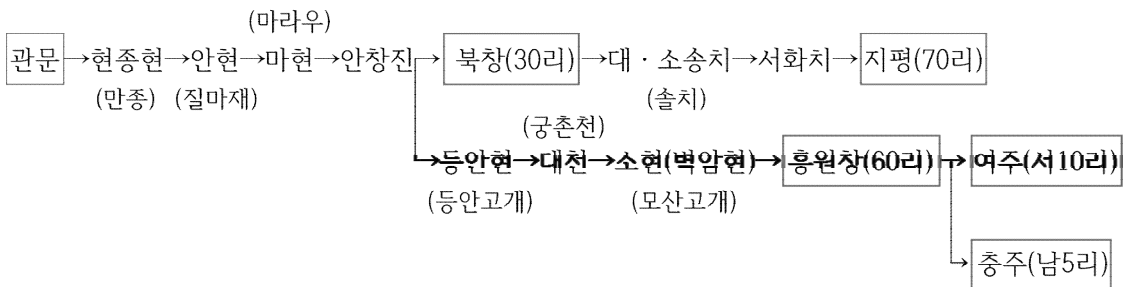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지정면 안창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로 되었다.

[유래]

원래의 이름은 안양(安壤)이었는데 마을에 북창(北倉)이 생기면서 마을 이름을 창말·안창(安壤+北倉)이라 하였다. 이 마을이 강원감영에서 한양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으므로 북창(北倉)·안창진(安昌津)·안창참(安昌站)·안창역(安昌驛)이 있었다. 당시 강원감영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은 '감영>만종>질마재(가곡리)>마라우(동화리)>안창>솔치(안창리)'였으므로 안창리는 교통요지로서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700년대 강원감영에서 서쪽·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간현바우 [바위]

[위치] 판대리 원대동 남쪽 내 건너 간현골 남동쪽 위에 있는 높이 310m의 바위 봉우리를 말한다. 간현봉 북동쪽, 자라바우 남서쪽 능선에 있는 봉우리이다. 판대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간현봉(艮峴峰) [산]

[위치] 두명소골 서쪽, 장지고개 동쪽 능선에 있는 높이 384.8m의 산을 말한다. 판대리 원대동 남쪽 내 건너의 간현골 남쪽 끝에 있는 봉우리로, 판대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간현산(艮峴山) [산]

[위치] 두명폭포 북서쪽 위, 간현수련원 남쪽에 있는 높이 220m의 산을 말한다. 간현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갈매울 [마을]

[위치] 월운과 정감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갈매울’이라 하였다.

갈매울골 [골]

[위치] 버덩이들에서 북서쪽으로, 갈매울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갈매울산 [산]

[위치] 갈매울골 남서쪽에 있는 높이 123m의 산을 말한다.

갈발골 [골]

[위치] 수청동 팽나무재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갈발골’과 ‘작은갈발골’이 있다.

강계 [들]

[위치] 능촌 앞에 있는 섬강 변의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강계’라 하였다.

[유래] 강 옆에 있으므로 강계라 하였다.

건너말 [마을]

[위치] 수청동 웃말에서 동쪽 도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검생이고개 [고개] → 검송이고개

검생이골 [골] → 검송이골

검송이고개 [고개]

[위치] 솔안에서 남쪽 문막읍 취병리 작달막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취병리 검송이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189m이다. ‘검생이고개’라고도 한다.

[유래] 고개 너머에 취병리 검송이고개로 연결되므로 ‘검송이고개’라고 하였다.

[풀이] ‘검성(劍星)’은 ‘칼벼랑(깎아지른 듯이 험한 벼랑)’을 나타낸 말로 ‘검송이’는 한자지명 ‘검성’의 다른 발음이다. ‘검성(劍星)’의 ‘성(星)’은 ‘벼랑’을 나타낸 것으로, 원래 하늘의 ‘별(星)’과 ‘벼랑<별+양>’은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다. 칼벼랑을 뜻하는 ‘검성(劍星)’이 ‘검생이’, ‘검송이’ 등으로 실현되었다. 고개 너머 취병리에 ‘별고개’, ‘검성현로(劍星峴路)’, ‘검송이고개’ 등의 동일지명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병산을 중심으로 벼랑 관련 지명이 널리 분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송이골 [골]

[위치] 솔안 마을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검송이고개가 있고 고개 너머 문막읍 취병리 검송이골을 거쳐 작달막골로 이어진다. ‘검생이골’이라고도 한다.



「검송이골 : 2020년」

검송이골 [들]

[위치] 장지골 남쪽 안창천 건너 산 쪽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솔안 동쪽 아래에 있다.

고래들 [들]

[위치] 수청동에서 북쪽으로, 대송치 아래까지 이어지는 넓은 들을 말한다.

고방굴 [들]

[위치] 월은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골말 [마을]

[위치] 흥법 남서쪽, 버덩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골짜기가 아닌 들판인데 이름이 ‘골말’이라고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용] 옛날 고관대작을 지내고 천석의 쌀을 수확하는 집이 세 집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이들 집터에서 기왓장이 나온다고 한다.

골안 [골] → 취병골

굴바우 [바위]

[위치] 옥바우 남쪽, 안창천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현재 A&J오토캠핑 앞개울에 있는 바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굴바우’라 하였다.

[유래] 큰 굴이 있으므로 굴바우라 하였다.



「굴바우 : 2018년」

금강(錦江) [내] → 섬강

[위치]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안창리 앞에서는 이를 금강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금강이(錦江)’라고 하였다.

금강소(錦江沼) [소]

[위치] 흥법 마을 앞에 있는 섬강의 소(沼)를 말한

다. 『한국지명총람』에 ‘금강소’라 하였다.

[유래] 이곳에서는 섬강을 금강이라고 하였으므로 강의 소를 금강소라고 하였다.

김제남 묘소(金悌男 墓所) [묘]

[위치] 능촌 서쪽에 있는 김제남의 묘를 말한다.

[내용] 조선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의 아버지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1562~1613)의 묘이다.



「김제남 묘소 : 2016년」

김제남 사당(金悌男 祠堂) [당]

[위치] 능촌 김제남 묘 아래에 있는 사당을 말한다.

[내용] 조선 선조의 장인 연흥부원군 김제남을 모신 곳이다. 강원감사들이 지날 때는 반드시 예를 올리고 지나갔다고 한다.



「김제남 사당 : 2019년」

나무골 [골] → 목동

넘말 [마을]

[위치] 능촌 북쪽, 잔등 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월촌(越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월촌(越村, 넘말)’이라 하였다.

[유래] 잔등 너머에 있으므로 ‘너머말>넘말’이라 하였다.

노구소보 [보]

[위치] 솔안 앞 안창천에 있는 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노고쇼보(老姑沼沱)’라 하였다.

높은덕골 [골]

[위치] 이운동에서 북서쪽으로, 안창천을 따라 난 골짜기를 말한다.

능말 [마을] → 능촌

능촌(陵村) [마을]

[위치] 창촌 북서쪽 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연흥부원군 김제남을 봉안한 의민공사우(懿愍公祠宇)가 있다. ‘능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능말(陵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능촌(陵村)’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 선조의 장인 연흥부원군 김제남의 묘소가 있으므로 능말, 능촌이라 하였다.



「능촌 마을 ; 2020년」

능촌우물 [샘]

[위치] 능촌에 있는 샘을 말한다. 의민공사우 입구에 있다.

능촌저수지 [못]

[위치] 능촌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김제남 신도비 동쪽 아래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능촌저수지’라 하였다.



「능촌저수지 ; 2020년」

다랑골 [골]

[위치] 정감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절넘어골까지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다랑골들 [들]

[위치] 다랑골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랑골들’이라 하였다.

당고개 [고개]

[위치] 이운동에서 서쪽으로, 당고개골을 지나 문막읍 취병리 진밭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315m이다. 『조선지리지』에 ‘당고기(唐峴)’라 하였다.

당고개골 [골]

[위치] 이운동에서 내건너 남서쪽으로, 38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당고개가 있다.

당고개골 [마을]

[위치] 이운동 당고개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당산(塘山) [산]

[위치] 수청동 서쪽에 있는 높이 545m의 산을 말한다. 당산 동쪽 능선에 대송치가 있다. ‘일당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일당산’이라고 하였다.

[내용] 북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과 경계가 되고 서쪽으로는 여주시 강천면과 경계가 되는 산이다.

대송치(大松峙) [고개]

[위치] 당산 동쪽, 수리봉 북서쪽 능선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수청동 북서쪽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솔치(松峙)’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솔치고개(송치)’라 하였다.

[내용] 예전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가는 주 교통로였다.

대송치성황당 [당]

[위치] 대송치 고갯마루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덕가산(德加山, 德迦山) [산]

[위치] 능촌 북서쪽에 있는 높이 321.7m의 산을 말한다. 간현봉 남동쪽, 두명소골 남서쪽 끝에 있다. 산 남서쪽 아래에 옥바위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덕가산(德迦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가산(德加山)’이라고 하였다.

도천서원터(陶川書院-) [터]

[위치] 흥법사지에 있던 옛 서원 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도촌서원(陶村書院)’이라 하였다.

[유래] 숙종 19년(1639)에 세워져 고종 8년(1871)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관설(觀雪) 허후(許厚)를 모셨던 곳이다.

[내용] 서원터 표지석이 흥법사지 북동쪽 산기슭에 세워져 있다.



「도천서원터 ; 2019년」

동막골(1) [골]

[위치] 월운동 고방골에서 북서쪽으로, 망태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막골(2) [골]

[위치] 이운동 앞들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는 취병리 진밭골이 있다.

동막골 [마을]

[위치] 이운동 남서쪽 건너편 동막골(2)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두명골 [골] → 두명소골

두명소 [소]

[위치] 두명폭포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두명쇼(杜明沼)’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두명소’라 하였다.

[유래] 폭포 아래에 두명처럼 소가 생겼으므로 두명소라 하였다.

[풀이] 폭포 아래의 소가 마치 ‘두명’처럼 넓고 우묵하게 생겼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두명’은 물을 길어 붓고 쓰는 큰 가마 또는 독을 말한다.

두명소골 [골]

[위치] 지정대교 서쪽에서 간현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두명골’, ‘두무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두무골(杜舞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두명소골’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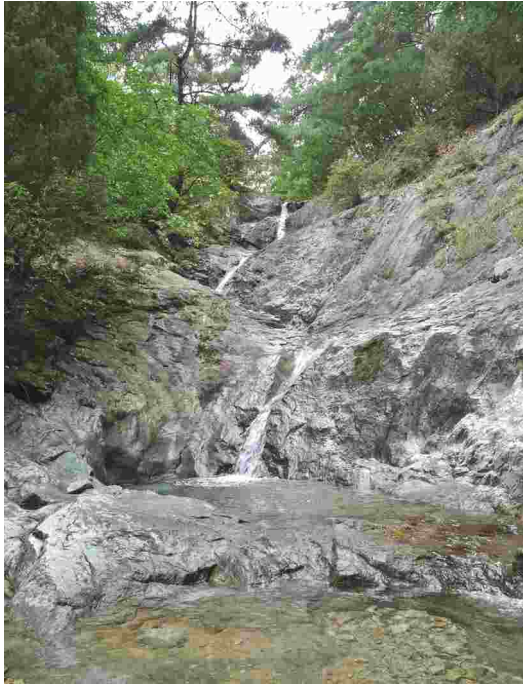
두명소폭포 [폭포] → 두명폭포

두명폭포 [폭포]

[위치] 두명골에 있는 3단의 폭포를 말한다. ‘두명소폭포’, ‘두명폭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두명소폭포’라 하였다.

[유래] 폭포 아래의 소(沼)가 마치 두명처럼 생겼으므로 두명폭포라 하였다.

[내용] 옛날에는 이 폭포의 두명소가 깊어 명주꾸러미 하나가 다 들어갔다고 한다.



「두명폭포 : 2018년」

두명폭포 [폭포] → 두명폭포

두무골 [골] → 두명소골

등너머들 [들]

[위치] 월운 남쪽 갈매울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망재봉 [산] → 망태봉

망태봉 [산]

[위치] 두명폭포 남서쪽, 월운 북서쪽에 있는 높이 231.4m 봉우리를 말한다. ‘망재봉’이라고도 한다.

매상골 [골] → 매산골

매상골들 [들] → 매상골들

매상골산 [산] → 매산골산

매산골 [골]

[위치] 능촌에서 북서쪽으로, 안창천을 따라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88번 지정로가 나 있다. ‘매상골’이라고도 한다.

매산골들 [들]

[위치] 흥법과 능골 사이, 매산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매상골들’이라 하였다. ‘매상골들’이라고도 한다.

매산골산 [산]

[위치] 매산골 서쪽 위에 있는 높이 163.2m의 산을 말한다. 영봉산 북동쪽 아래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미산솔(鷹峰)’이라 하였다.

명동들(明洞-) [들] → 뭉대이들

목동(木洞) [마을]

[위치] 월운동 남서쪽, 나무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목동(木洞)’은 ‘나무골’을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이다. ‘나무골’, ‘명동’이라고도 한다.

[풀이] 이 지역에 나타나는 동일 지명으로 ‘나무골, 목동, 뭉둥이, 뭉대이, 뭉등이, 명둥이’ 있다. ‘뭉대이네’, ‘뭉대이들’, ‘뭉대이보’ 등에 나타나는 ‘뭉대이’, ‘뭉등이’, ‘뭉등이’는 ‘목동’에서 나온 말이다. 원래의 순 우리말 지명 ‘나무골’을 한자로 써서 ‘목동(木洞)’이라 하였고 ‘목동’이 다시 ‘뭉둥이·뭉대이·뭉등이’ 등으로 실현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자로 옮기면서 ‘명동(明洞)’이라 한 것이다. 즉 ‘나무골>목동>뭉둥이·뭉대이·뭉등이>명둥’으로 음운 변천하였다.

문앞들 [들]

[위치] 능촌 남쪽, 창촌 남서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김제남 신도비 남쪽에 있는 들이다.

뭉대이내 [내]

[위치] 나무골에서 목동 마을과 고방골들을 거쳐 남쪽으로, 현 지정로를 따라 흐르다가 창촌 앞에서 섬강에 합류하던 내를 말한다. 지금은 경지 정리가 되고 도로가 나서 개울의 흔적은 없다. 『조선지리지』에 ‘뭉등이지울(明洞溪)’이라 하였다.

뭉대이들 [들]

[위치] 나무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뭉둥이뜰(明洞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

총람]에 ‘몽대이들(명동들)’이라 하였다.

몽대이보 [보]

[위치] 몽대이내에 있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몽대이보(明洞洑)’라고 하였다.

밀미봉 [산]

[위치] 흥법 북쪽, 역말 서쪽에 있는 122.8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밤나무골 [골]

[위치] 골말에서 북쪽으로, 높이 269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방아울고개 [고개]

[위치] 이운동 새질내기들 남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작달막고개 동쪽, 검승이고개 북서쪽 능선에 있는 고개로, 이운동에서 남쪽 문막읍 취병리 작달매기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275m이다.
[유래] 고개 너머에 방아울골이 있으므로 방아울고개라 하였다.

배나무골 [들]

[위치] 이운동 마을 앞 남동쪽에 안창천을 따라 나 있는 들을 말한다. 동쪽 아래에 새질내기들이 이어진다.

버덩골 [골]

[위치] 흥법사터에서 북서쪽으로, 일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버덩들 [들]

[위치] 흥법 버덩골 남서쪽 섬강 변에 길게 나 있는 들을 말한다.

버덩이들 [들]

[위치] 갈매울 동쪽에 섬강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나 있는 들을 말한다.

버선바우 [바위]

[위치] 일산봉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상투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모양이 버선처럼 생겨 버선바우라 하였다.

법흥사터(法興寺-) [터] → 흥법사터

[위치] 흥법사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법흥사터(法興寺-)’라 하였다.

베틀바우 [바위]

[위치] 두명소골 남서쪽 위, 덕가산 정상 북동쪽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예전 굴 안에서 베를 찼다고 하여 베틀바우라 하였다.



「베틀바우 ; 2018년」

북창터(北倉-) [터]

[위치] 창말 앞에 있던 옛 창고의 터를 말한다. 지금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곳에서 주춧돌과 기와조각 등이 발견되었다. 『여지도서』에 ‘48칸으로 고을 북쪽 안창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조선시대 원주의 주요 관창은 읍내에 사창(司倉, 44칸)과 별창(別倉, 35칸)이 있었고, 주천에 동창(東倉, 39칸), 흥원에 서창(西倉, 32칸), 안창에 북창(北倉, 48칸)이 있었다. 그 중 이곳에 있던 북창이 규모가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육상 교통이 발달하면서 수로의 이용이 줄어들게 되어 1910년경에 폐지되었다.

비름들골 [골]

[위치] 솔안 남동쪽, 현 HIBROW카페에서 남서쪽으로, 치마바위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순대골’이라고도 한다.

뽕나무밭 [들]

[위치] 월운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삼산골 [골]

[위치] 팽나무쟁이에서 동쪽으로, 시마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삼산골 [들]

[위치] 삼산골 입구, 팽나무쟁이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삼산들 [들]

[위치] 솔안 서쪽, 이운동 새질내기들 동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상투바우 [바위] → 버선바우

새질내기들 [들]

[위치] 이운동 남동쪽, 88번 도로와 안창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동쪽 아래에 삼산들이 이어진다.

새터말 [마을]

[위치] 수청동 아랫말에서 북동쪽 도로 건너 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낭골 [골]

[위치] 월운동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석재골 [골] → 식재골

선녀바우 [바위]

[위치] 옥바우 남쪽 굴바우 옆의 바위를 말한다. 중다라니바우 옆에 있다. '여계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녀바우(여계바우)'라 하였다.

[유래] 선녀들이 바위에 내려와 놓고 가므로 선녀바우라 하였다.

선녀탕 [소]

[위치] 옥바우 남쪽 굴바우 아래에 있는 소를 말한다. 선녀바우, 중다라니바우 아래에 있다.

[유래] 선녀바우, 중다라니바우와 연관된 전설로 선녀탕이라 하였다.

섬말들 [들]

[위치] 창촌 동쪽, 정감마을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소송치(小松峙) [고개] → 솔치

솔안 [마을]

[위치] 안창 북서쪽, 장지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지정로와 원양2로를 따라 창촌에서 이운동, 수청동, 솔치를 거쳐 경기도 양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이름은 '송원(松院)', '송현원(松峴院)', '송안', '송내', '송래', '솔원', '솔안', '설안', '슬안' 등으로 다양하게 실현된다. 『여지도서』에 '고을 서쪽 40리, 안창에서 5리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솔안동(松院)'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솔원(솔안동·송내동·송원동)'이라 하였다.

[유래] 강원감영에서 서울로 가는 주 교통로인 솔치 아래에 소나무와 정자가 있고 원(院)집이 있었으므로 '솔원', '송원'이라 하였다.

[풀이] 소나무와 정자가 있는 곳에 원(院)이 있었으므로 '솔원', 이를 한자로 적어 '송원'이라 하였는데, 음운 변화에 따라 '솔원>솔안>설안, 슬안', '안'을 내(內)로 보아 '송원>송안>송내>송래'로 변화하였다. 마을 앞 표지석에는 '송래부락'으로, 버스정류장에는 '슬안'으로 되어있다. 주민들은 '송원, 솔안, 설안, 슬안'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으나 발음이 편리한 '슬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솔안 마을 ; 2019년」

솔원 [마을] → 솔안

솔치 [고개]

[위치] 수청골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수청골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솔치고개’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송치(松峙)’라고 하였다. ‘대송치(大松峙)’와 ‘소송치(小松峙)’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솔치(松峙)’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솔치고개(송치)’라 하였다.

[유래] 소나무가 많은 고갯길이었으므로 솔치, 솔치고개라 하였다.

[내용] 솔치는 원주에서 경기도로 가는 큰 길이었다. 『여지도서』에 ‘안치(현 가곡리 질마재), 소송치, 대송치, 서화치(현 경기도 양평군 서화고개) 등은 경기도로 향하는 큰 길이다.’, ‘소송치(小松峙)는 관문에서 서쪽으로 50리, 대송치(大松峙)는 관문에서 55리에 있다.’고 하였다.

솔치고개 [고개] → 솔치

송내(松內) [마을] → 솔안

송내개천(松內--) [내] → 안창천

송래 [마을] → 솔안

송안 [마을] → 솔안

송원(松院) [마을] → 솔안

송원동(松院洞) [마을] → 솔안

송정들(松亭-) [들]

[위치] 솔안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송정뜰(松亭坪)’이라 하였다.

송치(松峙) [고개] → 솔치

송현원(松峴院) [원]

[위치] 솔안 마을에 있던 옛 원(院)을 말한다.

쇠목여울 [내]

[위치] 월은 동쪽 섬강에 있는 여울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쇠목여울(牛項灘)’이라 하였다.

쇠밀 [골]

[위치] 흥법 버덩들 끝, 골말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섬강 버덩들에서 북쪽 일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은선사라는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수리바우 [바위]

[위치] 수리봉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수리와 같다고 하여 수리바우라 하였다.

수리봉 [산]

[위치] 장지고개 북서쪽, 대송치 남동쪽에 있는 높이 427.1m의 산을 말한다. 안창리와 판대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수정골 [골] → 수청골

수정동 [마을] → 수청동

수천골(水泉-) [골] → 수청골

수천동(水泉洞) [마을] → 수청동

수청골 [골]

[위치] 수청동에서 서쪽 당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수정골’, ‘수천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원래 좋은 샘이 있었으므로 수천(水泉)이라 하였는데 ‘수천>수청’이 되었다고 한다. 또는 이 골짜기에서 수정이 많이 났다고 하여 ‘수정골>수청골’이 되었다고도 한다.

수청동(水淸洞) [마을]

[위치] 당산 동쪽, 수리봉 서쪽 아래의 수정골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대송치 남쪽 아래에 있다. ‘웃말’, ‘아랫말’, ‘새터말’, ‘건너말’이 있다. ‘수천동’, ‘수정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수청골(水淸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수청동(水淸洞, 수정골)’이라 하였다.

순대골 [골]

[위치] 옥바우 남쪽, 현 평심원요양원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일산봉과 치마바우가 있는 높이 409.8m 봉우리 사이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옆

에 있는 ‘비름들굴(작은순대굴)’과 구분하기 위하여 ‘큰순대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순대굴짜기’라고 하였다.

순대굴짜기 [굴] → 순대굴

숫가마굴 [굴]

[위치] 수청동 아랫말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숫을 굶던 가마가 있었으므로 숫가마라고 하였다.

승천(僧泉) [샘] → 중샘

시마산 [산]

[위치] 이운동 북쪽, 수리봉 남쪽 능선에 있는 높이 336.5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임금의 스승이었던 최시마의 묘소가 있으므로 시마산이라 하였다.

식재굴 [굴]

[위치] 두명소굴과 월운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88번 지정로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석재굴’이라고도 한다.

아가바우 [바위] → 아갈바우

아가봉 [산] → 아갈봉

아갈바우 [바위]

[위치] 일산봉 동쪽 아갈봉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아가바우’라고도 한다.

[풀이] 아가바우는 ‘작다’는 뜻의 ‘아.앗’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섬’, ‘아이고개>애고개>애오개’, ‘아차산’ 등은 모두 ‘아, 앓’에서 유래한 것으로 ‘작다’는 뜻이 들어있다.

아갈봉 [산]

[위치] 영봉산 동쪽에 있는 높이 306.9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아가봉’, ‘아강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아갈바우’가 있으므로 아갈봉이라 하였다.

아강봉 [산] → 아갈봉

아랫말(1) [마을]

[위치] 흥법 마을 중 아래 쪽, 섬강 가까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랫말(2) [마을]

[위치] 수청동 마을 중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안양(安壤) [마을] → 안창리

[내용] 안창리의 옛 이름이다. 마을에 북창(北倉)이 생기면서 마을 이름을 ‘창말’, 또는 ‘안창(安倉)’이라 하였다.

안쟁이굴 [굴]

[위치] 솔안 장지고개 남쪽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굴 동쪽 맞은편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창(安昌) [마을] → 안창리

[유래] 안양과 북창의 이름을 따서 ‘안창(安倉)’이라 하였다.

안창광산 [광산]

[위치] 순대굴에 있던 옛 광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창광산’이라 하였다.

안창나루 [나루]

[위치] 창말 앞에 있던 섬강의 나루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안창나루(安昌津)’라 하였다. 안창과 문막을 연결하던 나루였다.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겨울에는 다리를 놓고 여름에는 배를 둔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고을 서쪽에 있는 북창 앞에 있다.’고 하였다.

안창리선사유적 [유적]

[위치] 월운에서 갈매울, 정감에 이르는 섬강 변의 넓은 지역을 말한다.

[내용] 외날짜개 등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

안창분교 [학교] → 지정초등학교 안창분교

안창역(安昌驛) [역]

[위치] 역말에 있던 역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에 ‘안창역(安昌驛)’이라 하였다.

[내용] 조선시대 강원감영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으로, 역마를 쉬어가거나 갈아타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에서 서쪽 45리에 있다.’고 하였고 『동국여지』에는 ‘35리에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고을 서쪽 35리에 있고 역리 1명이 주재하며 큰말 1필, 복마(卜馬) 2필, 노비 21명이 있다.’고 하였다. 원주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주된 도로의 역이었다.

안창진(安昌津) [나루] → 안창나루

안창참(安昌站) [원]

[위치] 안창에 있던 참(站)을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참(站)은 역과 역 사이에, 역로를 거쳐 가다가 쉬는 곳을 말한다.

안창창지(安昌倉址) [터] → 북창터

안창천(安昌川) [내]

[위치] 당산, 대송치에서 남동쪽으로 이운동을 거치고 삼산들과 매산골을 거친 다음 창촌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안창리의 중앙을 관통하는 내이다. 솔안을 거쳐 내려오므로 ‘송내개천’이라고도 한다.

안창터널 [굴]

[위치] 간현 터널과 원재 터널 사이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터널을 말한다.

앞들(1) [들]

[위치] 솔안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앞들(2) [들]

[위치] 이운동 마을 서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어루니 [마을] → 월운

어루니들 [들]

[위치] 월운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어룬 [마을] → 월운

언론 [마을] → 월운

얼론 [마을] → 월운

얼른 [마을] → 월운

여계바우 [바위] → 선녀바우

여계바우골 [골]

[위치] 여계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여계바위굴(女桂巖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여계바우골’이라 하였다.

역말 [마을]

[위치] 창촌 남서쪽, 안창천 남쪽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흥법 동쪽에 있다. ‘역촌’, ‘영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역말(역촌)’이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안창역(安昌驛)이 있었으므로 역말이라 한다.

역말들 [들]

[위치] 역말 남쪽으로 섬강 옆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역촌(驛村) [마을] → 역말

영경산 [산] → 일산봉

영말 [마을] → 역말

영봉산(靈鳳山) [산] → 일산봉

영산(靈山, 甕山) [산] → 일산봉

영월봉(嶺越峰) [산]

[위치] 흥법 북서쪽, 일산봉 능선 동쪽 아래에 있는 높이 169.2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월봉’이라 하였다.

옛터골 [골] → 이터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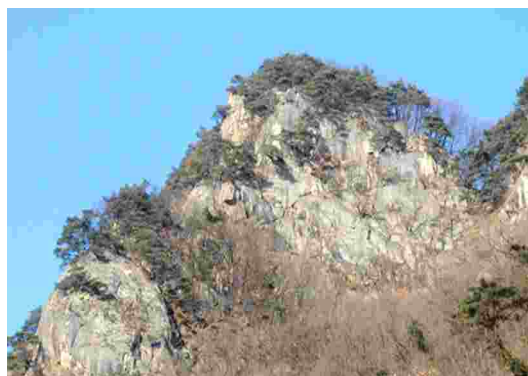
옥대산(玉帶山) [산]

[위치] 간현봉 남쪽, 두멍소골 남서쪽 끝에 있는 높이 332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옥대산(玉帶山)’이라고 하였다.

욕바우 [바위]

[위치] 능촌과 솔안 중간 지점, 덕가산 남쪽 도로 옆에 있는 높이 275m의 바위봉우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욕바우’라 하였다.

[유래] 강원도관찰사가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때 주민들이 이 바위 위에서 그간의 악행을 근거로 욕을 하였으므로 욕바우라 하였다. 관찰사는 산 위로 따라 올라갈 수도 없어 욕을 고스란히 들으며 지나갔다고 한다.



「욕바우 ; 2018년」

욕바우골 [골]

[위치] 덕가산 아래 욕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욕바위골(浴巖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욕바우골’이라 하였다.

우묵골 [골]

[위치] 흥법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가 우묵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묵골이라 하였다. 옛날 최명길 자손들이 묘소를 팔 때 금까마귀가 날아간 길지라고 전한다.

웃말(1) [마을]

[위치] 흥법 마을 중 북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말(2) [마을]

[위치] 수청동 마을 중에서 북서쪽 위, 대송치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월운(月雲) [마을]

[위치] 능촌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어룬’, ‘어루니’, ‘얼룬’, ‘얼른’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얼룬(言論)’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월운(月雲, 어루니, 언론리)’이라 하였다.

[유래] ‘룬, 룬, 른’은 논(畝)을 뜻하므로 논과 관련된 지명이다. 앞의 ‘어, 얼, 어룬’의 뜻은 알 수 없다. 지정면 중에서 가장 먼저 달이 보인다고 해서 월운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조선지리지』에 ‘얼룬(言論)’, 『1917년지적도』에 ‘언론리(言論里)’라 하였는데 이는 ‘어룬, 얼룬, 어루니’를 음차한 것이다. 후에 ‘어룬’과 음이 비슷한 ‘월운(月雲)’으로 하여 운치를 살렸다. 룬(論)은 ‘불논(<별논), 부론, 거론, 일론, 귀론’처럼 논과 관련된 지명이다. 앞의 ‘어, 얼, 어룬’의 뜻은 알 수 없다.



「월운 마을 ; 2020년」

월운들 [들]

[위치] 월운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월운이들’이라 하였다.

월운이들 [들] → 월운들

월촌(越村) [마을] → 넘말

의민공사우(懿愍公祠宇) [당]

[위치] 능촌에 있는 김제남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말한다.

[내용] 김제남 묘소 아래에 있으며 신도비는 70m

남쪽에 있다. 1965년에 사우를 건립하였고 1997년에 신축하였다.



「익민공사우 ; 1968년」

이운동(伊雲洞) [마을]

[위치] 술안 서쪽, 수청동 남쪽 도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운리’, ‘이운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이운니(伊雲)’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이운동(伊雲洞)’이라 하였다.



「이운동 마을 ; 2020년」

이운리(伊雲里) [마을] → 이운동

이운성향당 [당]

[위치] 이운동 마을 앞 길옆에 있던 서낭당을 말한다.

[내용] 한국전쟁 때 미군이 도로를 내면서 없었다.

이운이 [마을] → 이운동

이운이주막 [주막]

[위치] 이운동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이운이주막(伊雲酒幕)’이라 하였다.

이터골 [골]

[위치] 이운동 배나무골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옛터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이곳에 마을 터를 잡았으므로 ‘옛터골’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이터골’이라 한다.

일당산(一堂山) [산] → 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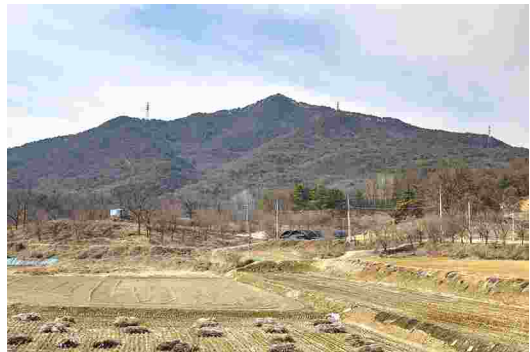
일리(一里) [마을] → 안창리

일봉산 [산] → 일산봉

일산봉(日山峰) [산]

[위치] 흥법 마을 북서쪽 뒤에 있는 높이 401.8m의 산을 말한다. ‘영산(靈山, 甕山)’, ‘영봉산(靈峰山)’, ‘영경산’, ‘일봉산’이라고도 한다. 안창리와 문막읍 취병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내용] 유서 깊은 흥법사를 품고 있는 신령스런 산이라 해서 영산(靈山, 甕山)이라고도 한다. 주 봉우리 세 개가 양산을 펴 놓은 모양인데 여기에 치마바우, 아갈바우, 버선바우 등이 있다. 주민들은 모두 ‘일산봉’이라 부른다.



「일산봉 ; 2020년」

자라바우 [바위]

[위치] 간현봉과 범네미고개 능선의 215m 봉우리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간현바우 동쪽 아래, 범네미고개 남서쪽 위에 있다.

자주봉(紫朱峰) [산] → 자지봉

자지동(紫芝洞) [마을]

[위치] 자지봉의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자지봉’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자지봉

(자지동紫芝洞)'이라 하였다.

자지봉(紫芝峰) [마을] → 자지동

자지봉(紫芝峰) [산]

[위치] 두멍소골과 식재골 사이에 있는 104.4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즈쥬봉(紫朱峰)', '자지봉(紫芝峰)'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자지봉(紫芝峰)'이라 하였다.

[유래] 지초가 많으므로 자지봉이라 하였다.

작달막고개 [고개]

[위치] 이운동 작달막골 남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184m이다. '작달매기'라고도 한다. 고개 너머에 문막읍 취병리 작달매기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작달미기(作塽谷)'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작달매기'라 하였다.

작달막골 [골]

[위치] 이운동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남쪽 너머 문막읍 취병리 방아울골로 연결된다. 『조선지리지』에 '작달미기(作塽谷)'라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작달막(作達幕)'이라 하였다.



「작달막골 ; 2020년」

작달매기 [고개]→ 작달막고개

작은갈밭골 [골]

[위치] 안창천 갈밭골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팽나무쟁이 마을 서쪽 삼산골에서 안창천 건너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작은순대골 [골] → 비름들골

장승골 [골]

[위치] 수청동 대송치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경기도와의 경계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이 골짜기 앞 대송치에 장승이 있었으므로 장승골이라 하였다.

장지고개(長芝--) [고개]

[위치] 솔안에서 북쪽 장지골을 따라 판대리 장지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50m이다. 『조선지리지』에 '장지고개(長芝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지고개'라 하였다.

[유래] 고개가 길므로 장지고개라 하였다.



「장지고개 ; 2019년」

장지골 [골]

[위치] 솔안 마을에서 북쪽 장지고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재골 [골]

[위치] 월운 마을 동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절너머골 [골]

[위치] 능촌 다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북쪽으로 나무골을 지나 월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정감 [마을]

[위치] 능촌 동쪽, 갈매울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지정초등학교 안창분교가 있던 마을이다. '정잠'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정감'이라 하였다.



「정감 마을 ; 2020년」

정감들 [들]

[위치] 정감 마을 앞 섬강 밖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헌지자료】에 ‘정감뜰(丁甘坪)’이라 하였다.

정잡 [마을] → 정감

중다라니 [바위] → 중다래미

중다란골 [들]

[위치] 능촌과 솔안 사이, 옥바우 밑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안창천을 따라 난 좁은 들이다. 현재 평심원요양원이 들어서 있다.

중다래미바우 [바위]

[위치] 옥바우 남쪽 내 건너, 선녀바우 옆 암벽 중간에 매달려 있는 바위를 말한다. ‘중다라니’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다라니’라 하였다.
[유래] 중을 달아맨 바위라 하여 ‘중다래미’라 하였다. 실제 형상이 마치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중다래미바우 ; 2019년」

중방바우골 [골]

[위치] 일산봉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중샘 [샘]

[위치] 흥법사지 서쪽, 일산봉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승천(僧泉)’이라고도 한다.

[내용] 흥법사에서 스님들이 쓰던 세 개의 샘 중 한 개는 인삼밭으로 변했고 산에 있는 나머지 두 개는 보존되어 있다.

쥐바우 [바위]

[위치] 비름들골 입구, 개울가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에 마치 쥐 모양의 화석이 새겨져 있으므로 쥐바우라 하였다.

지정초등학교 안창분교 [학교]

[위치] 안창리 84번지 정감 마을에 있는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48년 9월 1일 개교, 1993년에 폐교되었다.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살구나 무예술촌으로 사용 중이다.



「지정초등학교 안창분교터 ; 2019년」

진밭재 [고개]

[위치] 수청동에서 남서쪽 취병리 진밭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절골과 진밭골, 석지골을 거쳐 취병저수지에 닿는다. 고개 북서 능선에 당산이 있다. 고개 높이는 320m이다.

[유래] 고개 너머 취병리 진밭으로 넘어가므로 ‘진

발재'라 하였다.

창말 [마을] → 창촌

창말주막 [주막]

[위치] 창촌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창말주막(倉村酒幕)’이라 하였다.

창밭골 [골]

[위치] 갈매울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창촌(倉村) [마을]

[위치] 간현 남서쪽, 건등산 북쪽 섬강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창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창말(倉村)’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창촌(倉村)’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 시대 북창(北倉)이 있던 마을이어서 ‘창말·창촌·안창’이라고 하였다. 안창이란 마을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다.



「창촌 마을 ; 2018년」

청금사(淸金寺) [절]

[위치] 간현봉 아래에 있던 작은 암자를 말한다.

청금산(淸金山) [산] → 간현봉

[위치] 간현봉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옛날 청금사라는 암자에 거문고 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거문고 소리를 듣는 산이라 하여 청금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취병골 [골]

[위치] 골말 남서쪽, 섬강에서 북서쪽으로 치마바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창리와 취병

리의 경계되는 골짜기이다. ‘골안’이라고도 한다.

치마바우 [바위]

[위치] 솔안 남쪽, 검송이고개 동쪽 산 정상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크고 둥근 바위가 마치 치마를 두른 것 같으므로 치마바우라 하였다.

큰갈밭골 [골]

[위치] 삼산골에서 서쪽 내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갈밭골 북쪽 위에 있다.

큰골(1) [골]

[위치] 솔안 장지고개 남쪽 아래에서 동쪽으로, 간현봉 줄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2) [골]

[위치] 흥법에서 북서쪽으로, 일산봉을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큰순대골 [골] → 순대골

팽나무쟁이 [마을]

[위치] 이운동과 수청동 사이 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수리봉 남서쪽에 있다.



「팽나무쟁이 마을 ; 2020년」

팽나무쟁이보 [보]

[위치] 팽나무쟁이에 있는 안창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팽나무덩이보(彭木亭洑)’라 하였다.

퍼넌터골 [골]

[위치] 솔안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수리봉 동쪽의 38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포토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에서 무엇을 퍼내서 퍼넨터골이라 하였는데, 무엇을 퍼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포토골 [골] → 퍼넨터골

흥법(興法) [마을]

[위치] 창촌 남서쪽, 일산봉 남동쪽, 흥법사가 있던 마을을 말한다. ‘웃말’과 ‘아랫말’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흥법(興法)’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흥법(興法)’이라 하였다.

[유래] 흥법사(興法寺)가 있었으므로 마을 이름도 흥법이라 하였다.



「흥법 마을 ; 2020년」

흥법버덩 [들]

[위치] 흥법 마을에서 섬강 쪽으로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흥법버덩’이라 하였다.

흥법사지(興法寺址) [터]

[위치] 일산봉 남동쪽 아래, 흥법 마을에 있는 절터를 말한다. 절터가 온전하고 삼층석탑과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가 남아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흥법사터(법흥사터)’라 하였다.

[연혁] 신라 말 진공대사(眞空大師)가 창건하였다. 남아있는 비석 받침에 ‘眞空大師’ 낙자가 새겨져 있다.

[내용] 삼층석탑 외에 진공대사탑비(眞空大師塔碑)

귀부(龜趺) 및 이수(螭首) 등이 있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로 지정되었다.



「흥법사지 ; 1929년」



「흥법사지 ; 1929년」



「흥법사지 ; 2019년」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 1912년」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 2010년」

흥법사지 삼층석탑 [탑]

[위치] 지정면 안창리 흥법 마을 흥법사 절터에 있는 삼층석탑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흥법사탑(법흥사탑)’이라 하였다.

[내용] 높이 369cm, 폭 215cm, 화강암으로 된 삼층석탑으로 보물 제464호이다. 이중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양식의 탑이다. 하층 기단의 각 면에는 3구씩의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 기단에 비하여 탑신이 아주 작아졌으며, 지붕돌의 물매가 급하다. 상륜부 위쪽의 장식물은 모두 없어지고 아래쪽 노반만 남아있다. 탑의 크기와 비례 등으로 볼 때 고려시대 전반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흥법사지 삼층석탑 ; 1912년」



「흥법사지 삼층석탑 ; 2019년」

흥법사터 [터] → 흥법사지

월송리(月松里)

[위치]

월송리는 지정면의 북쪽에 있다.

동쪽으로는 가곡리와 호저면 무장리·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서쪽으로는 판대리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남쪽으로는 가곡리와 간현리, 북쪽으로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정지안면(正之安面)의 3리(송호리)·4리(월호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월호동·다둔·송호동·구미동을 병합하여 월송리(月松里)라 하고 지정면에 편입하여 원주군 지정면 월송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면서 원성군 지정면 월송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지정면 월송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로 되었다.

[유래]

월호(月湖)와 송호(松湖) 두 마을의 이름을 따서 월송리(月松里)라 하였다.

가마골(1) [골]

[위치] 하다둔 마을에서 동쪽으로, 408.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의 큰대산(399.9m)이 있다.

가마골(2) [골]

[위치] 송호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마골 마을에서 동쪽으로 송호동 중심 마을을 지나는 길이 나 있다.

가마골 [마을]

[위치] 송호 마을 서쪽, 섬강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가마골저수지 남동쪽, 송호저수지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로 서원주IC 남서쪽 도로 옆에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마골(釜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맛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 기와와 옹기를 굽던 가마가 있던 곳이므로 가마골이라 하였다.



「가마골 마을 ; 2019년」

가마골저수지 [못]

[위치] 가마골 마을 북서쪽, 분토골 위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호암산 남쪽 밑, 현 서원주IC 남서쪽 도로 옆에 있다. ‘분터골저수지’, ‘분토골저수지’, ‘분툫골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분툫골저수지’라고 하였다. 1949년에 준공하였다.

가맛골 [마을] → 가마골

간현치 [고개] → 숫돌고개

갈구재골 [골]

[위치] 상다둔 서돌골 남쪽 아래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호랑이 새끼인 갈가지(개호주)가 살던 골짜기이므로 ‘갈가지골>갈구재골’이라 하였다.

개터골 [골]

[위치] 구미동 개터들에서 아랫담을 거쳐 남서쪽 서낭당고개를 향하여 길게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현재 송정로가 나 있다.

개터들 [들]

[위치] 구미동 북쪽, 세집담 서쪽 섬강 변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마을을 휘돌아가는 섬강 변에 있는 들이다. 현재 동서울레스피아 골프장 7번 코스 북쪽에 있다.

[유래] 강 옆에 있는 들이므로 개터들이라 하였다.

[풀이] ‘개+터+들>개터들’이다. ‘개’는 ‘물가(浦)’라는 뜻이며 ‘터’는 ‘곳, 장소’이다. 물가의 터에 있는 들이란 뜻이다.

갱지들 [들]

[위치] 다래 남쪽 강변에 있는 들로 도루새들의 남서쪽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강 건너 남쪽에 거치런이골이 있고 남서쪽에 월림산이 있다.

[유래] 강 옆에 있으므로 갱지들이라 하였다.

[풀이] ‘개(浦)+지(只·地)+들>갱지들>갱지들’이 되었다. ‘개(浦)’는 ‘물, 물가’를 뜻하는 지명소이고, ‘지(只·地)’는 ‘곳, 장소’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강 옆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거치런이 [고개]

[위치] 거치런이골에서 남동쪽 가곡리 평장동을 잇는 고개를 말한다. 자작촌에서 북서쪽 섬강 변 거치런이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숫돌고개 동쪽에 있다. 높이는 130m이다. ‘거치허리’, ‘거치런이고개’라고도 한다.

거치런이고개 [고개] → 거치런이

거치런이골 [골]

[위치] 갯지들에서 강 건너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서 남서쪽으로 ‘숫돌고개’가 있고 남동쪽으로는 ‘거치런이’가 있다. 현재 거치런이골에서 숫돌고개를 넘어 간현리 능골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 있다.



「거치런이골 ; 2020년」

거치허리 [골] → 거치런이

건넌골 [골]

[위치] 하다둔 남쪽, 다둔교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건넌골’, ‘건녕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하다둔 마을에서 내 건너에 있으므로 ‘건넌골’이라고 하였다.

건넌골 [골] → 건넌골

건녕골 [골] → 건넌골

고개너미들 [들]

[위치] 당고개 서쪽, 현 죽림사 북쪽 아래에 붙어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당고개 마을에서 보아 고개 너머에 있으므로 고개너미들이라고 하였다.

[풀이] ‘고개+넘+이>고개넘이>고개너미’가 되었다. ‘이’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고양산(高陽山) [산]

[위치] 석문안들 북쪽, 버덩들(2) 남동쪽에 있는 높

이 379.5m의 산을 말한다.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와 경계되는 산이다. ‘고향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고양산(高陽山)’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양산(高陽山)’이라 하였다.

[유래]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의 절골에 ‘고향사(高鄉寺)’라는 절이 있으므로 ‘고향산, 고양산’이라고 하였다.

[내용] 산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이어진 높이 370~435m의 봉우리들이 횡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고양산 ; 2020년」

고향산 [산] → 고양산

골가마골 [골]

[위치] 송호 마을 북쪽, 송호저수지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가마골 [마을]

[위치] 골가마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예전 골씨들이 살던 골짜기이므로 골가마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골씨의 산소들이 있다.

구대골 [골] → 구재골(2)

구미고개 [고개] → 서낭당고개

[위치] 현 돼지문화원이 있는 고개로, 서낭당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구미고지(九尾峴)’라고 하였다.

[유래] 송호에서 북쪽 구미동으로 넘어가므로 구미고개라 하였다.

구미동(龜尾洞, 九尾洞) [마을]

[위치] 월송리의 북쪽 끝, 매호리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강 건너 북쪽은 매호리이고 강 건너 서쪽은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이다. 마을 대부분의 지역에 동서울레스피아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마을에 ‘양지담’, ‘아랫담’, ‘세집담’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구미(九尾)’라고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龜尾洞’, 『한국지명총람』에 ‘구미동(九尾洞, 龜尾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섬강이 마을을 크게 휘돌아 흐르므로 구미, 구미동이라 하였다. 또는 지형이 거북의 꼬리처럼 생겼으므로 구미동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구미’는 물길이 휘어진 곳에 붙는 지명이다. ‘굽(曲)+미(水)>굽미>구미>구미’이다. ‘굽’은 휘어져 굽었다는 뜻이고 ‘미’는 ‘물’을 뜻하는 고대국어 ‘믈’, 또는 ‘매’에서 나온 말이다. 경북 구미시, 보통리 구미들 등, ‘구미’ 지명을 가진 곳들은 모두 강물이 휘어진 곳에 있고, 한자로 대개 구미(龜尾)로 기록하여 지형이 거북의 꼬리 같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다.



「구미동 마을 ; 2019년」

구미동서낭 [나무]

[위치] 구미동 마을 앞 도로 변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750년, 나무 높이 30m의 마을 당산목이다. 주민들이 명절 때 풍악놀이를 즐기던 곳

이며 송강 정철이 지나던 길에 이 나무를 보고 시를 읊었다고 전한다.



「구미동서낭 ; 2019년」

구미동선사유적 [유적]

[위치] 구미동 북쪽 섬강 유역의 유적터를 말한다.

[내용] 화승레스피아 골프장 주변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구미들 [들]

[위치] 구미동 북쪽과 동쪽, 섬강 변에 있는 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구미썰(九尾坪)’이라고 하였다.

구자골 [골] → 구재골(2)

구재고개 [고개]

[위치] 하다둔에서 서쪽으로 구재골을 넘어 판대리 중구현 다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웃구지(上九峴)’, ‘아리구지(下九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구재고개’라고 하였다.

[유래] 재를 아홉 개나 넘으므로 구재라고 하였다.

[내용] 하다둔에서 넘는 고갯길은 현 ‘하구현 마을 → 체리코스 1번 그린 → 퍼블릭코스 3번 그린 → 구재고개 생태통로’를 지나는 지름길이었다. 상다둔에서 중구현으로 넘어가는 길은 상구현에서 남쪽으로, 저수지가 있는 패나리골 앞까지 내려와서 남쪽으로 현 퍼블릭코스 3번 도로를 따라서 구재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있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구

재고개를 넘게 되어 있었다. 구재고개 정상은 현 밸리코스(上九峴)로 넘어가는 생태통로가 나 있다. 고개 너머 다리골에는 골짜기 이름을 따서 오크힐스 브릿지코스(bridge course)가 나 있다.

[풀이] 월송리와 판대리의 경계인 이곳에는 구재, 구현이란 지명이 산재한다. 판대리 쪽의 ‘웃구재(上九峴)·중구재·아랫구재(下九峴)’를 위시해서 ‘구재골·구재고개’ 등이 그것이다. 즉 이곳의 ‘구재·구현’은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모든 골짜기, 고개를 범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는 백운산이란 이름이 판부면 서곡리와 신촌, 귀래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산에 적용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곳의 아홉이라는 숫자는 ‘많다’ 외에 그만큼 ‘길고 험하다’는 뜻을 내포하여 크고 험한 산악지대임을 나타낸다. 판부면 금대리의 ‘아흔아홉골’은 골짜기가 ‘많다’는 뜻으로 쓰인 대표적인 예이다.

구재골(1) [골]

[위치] 섬강 변 노루목골에서 석문을 지나 북서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골짜기 전체가 대규모 공사 중이다. 석문안 마을터와 다래질골 입구에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구쟁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쟁골’이라 하였다.

[내용] 골짜기 안에 석문안 마을이 있고 석문안 마을 앞에서 북쪽으로는 다래질골이 갈라진다. 구재골 끝에서 넘은달골이 이어지고 넘은달골 앞에서 북동쪽으로 구재고개를 넘으면 구재골(2)에 연결된다. 넘은달골 끝에는 오크밸리 퍼블릭코스 1번 그린에 있다.

구재골(2) [골]

[위치] 하다둔 마을 북쪽 위에서 남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오크밸리 체리코스 1번이 난 골짜기이다. 골 서쪽 위에 구재고개가 있다. ‘구대골’, ‘구자골’, ‘구쟁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

총람》에 ‘구쟁골’이라 하였다.

[내용] 구재고개를 넘어 남쪽의 구재골(1)로 이어진다.

구재골(3) [골]

[위치] 상다둔 웃말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사는골 아래, 대추나무골 맞은편에 있다.

굴바퀴 [소]

[위치] 한솔교 남쪽 섬강에 있는 소를 말한다.

[유래] 물살이 무척 세어서 큰 돌도 바퀴처럼 굴러간다고 하여 굴바퀴라 하였다.

금공골 [골]

[위치] 상다둔 서낭고개 남쪽 아래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오크밸리 노스콘도에서 서쪽 길 건너로 난 골짜기이다.

기정도원(奇淨濤院) [누정]

[위치] 《조선환여승람》에 나오는 누각의 이름이다. ‘앞쪽은 송호동이고 뒤쪽은 섬강이며 벼랑과 기이한 바위가 있다.’는 진술로 보아 현 한솔교 동쪽, 울암사가 있던 호암산 북서쪽 아래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유래] 고을 관리인 이병천(李柄千)이 이곳에 와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긴골 [골] [마을] → 정골(1)

길곡(吉谷) [골] [마을] → 정골(1)

길골 [골] [마을] → 정골(1)

깊은골 [골] → 사탄골

나루터앞들 [들]

[위치] 다래마을 동쪽, 월호나루(현 월호교)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북쪽으로 서당들이 이어진다.

나매기 [골]

[위치] 노루목골 고개 정상 부근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려장터가 있다.

[유래담] 옛날에 학이 여기에서 남쪽으로 날아갔

으므로 ‘남학이>남악이>나마기>나마기’라 부른다
고 한다.

넬아우골 [골]

[위치] 하다둔 버덩들(2)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높
이 329.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마골 남쪽, 왕댕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넬달고개 [고개]

[위치] 다래 마을에서 서쪽으로, 넬달골로 넘어가
는 고개를 말한다.

[풀이] ‘넬+달+고개>넬달고개’이다. ‘넬’은 ‘넬다’,
‘달’은 산의 옛말이다. 즉 ‘산을 넘어가는 고개’란
뜻이다.

넬달골 [골]

[위치] 섬강에서 북동쪽으로, 넬달고개에 이르는 골
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에 넬은다래 마을이 있고 동
쪽 고개 너머에 다래마을(월호동)이 있다.

넬은다래 [마을]

[위치] 다래 마을 서쪽 너머, 넬달골에 있는 마을
을 말한다. ‘뒷다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에 ‘넬은다래(뒷다래)’라고 하였다.

[유래] 다래 마을에서 보아 뒷산 너머에 있으므로
‘뒷다래’, ‘넬은다래’라고 하였다.

[풀이] ‘다래’는 산을 뜻하는 옛말 ‘달’에서 파생된
것이다. ‘넬달골’, ‘넬달고개’에 ‘달’이 원형으로 남
아있다.

넬은달골 [골]

[위치] 구재골(1) 석문안 마을을 지나 북서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은 오크밸
리 퍼블릭코스 1번 그린으로 연결된다.

노루목골 [골]

[위치] 석문 남쪽 석문안들(1)에서 산 너머 북동쪽
으로 섬강까지 나 있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즈대
산 북쪽 계곡의 골짜기이다. 산 너머에 섬강 변 노
루목앞들이 있다.

노루목앞들 [들]

[위치] 노루목골 동쪽 너머, 즈대산 북동쪽에 섬강
을 따라 난 들을 말한다. 남쪽으로 서당들이 이어
진다.

능골 [골]

[위치] 다둔리 무태골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
한다.

다둔(多屯) [골] [마을] → 다둔리

다둔동(多屯洞) [마을] → 다둔리

다둔리(多屯里) [마을]

[위치] 송호 북서쪽 섬강 건너 긴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오크밸리골프장이 들어선 골짜
기이다. ‘상다둔’과 ‘하다둔’이 있다. ‘다둔’이라고
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웃다둔이(上多屯里)’,
‘아뤼다둔니(下多屯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에 ‘다둔리(다둔동, 多屯洞)’라 하였다.

[유래] 산의 둔덕에 마을이 있으므로 ‘달둔>다둔’
이라 하였다 또는 병자호란 때 군사들이 주둔했던
곳이어서 ‘다둔’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풀이] 다둔은 ‘달+둔>달둔>다둔’으로 변하였다. ‘달’
은 산을 뜻하는 옛말이고 ‘둔’은 둔덕을 뜻한다. 따
라서 ‘산의 둔덕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다둔분교 [학교] → 지정초등학교 다둔분교

다둔지골 [골]

[위치] 고양산 서쪽, 석문안들(2)의 북쪽 끝에서 서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서 북
서쪽으로 질고리골이 갈라져 나가고 남서쪽으로는
다래실골이 이어진다.

다둔천(多屯川) [내]

[위치] 상다둔에서 남동쪽 하다둔으로 흘러 석문
안들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현 한
솔 오크밸리 골짜기를 지나 한솔교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이다.

다래 [마을]

[위치] 송호 남서쪽 섬강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달래’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월호(月湖)’, ‘월호동(月湖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달리(月湖)’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다래(월호, 월호동)’라고 하였다.

[유래] 높은 산 가운데에 강이 흐르므로 산을 뜻하는 옛말 ‘달(山, 高)’과 ‘내(川)’가 결합하여 ‘달내>달래, 다래’가 되었고 이를 한자로 적어 ‘월호(月湖)’라고 하였다.

[풀이] ‘다래’는 ‘달(山, 高)’과 ‘내(川)’가 결합하여 ‘달+내>달내>달래>다래’가 된 것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월호(月湖)’라 하였다.

‘달’은 ‘산(山) 또는 높은 곳(高)’을 뜻하는 옛말로 ‘다락·매달다·다랑이논’ 등에 남아있다. 이곳 지명 중 ‘넘달고개’, ‘달래’에 ‘산’을 뜻하는 ‘달’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제주의 ‘다랑쉬(일랑봉)’, 행구동의 ‘싣다랭이(신월랑)’도 같은 이치이다.

‘내’는 들(土, 壤), 또는 내(川)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곳은 강 옆이므로 ‘내(川)’를 뜻한다. 한자지명 ‘월호(月湖)’는 ‘달(山, 高)’을 하늘의 ‘달(月)’로 보고 ‘내’를 ‘호수(湖)’로 표기한 결과이다. 섬강의 다른 이름인 ‘월천(月川)’, 월뢰탄(月瀨灘)의 ‘월뢰(月瀨)’는 이 ‘달내, 다래’를 훈과 음을 따라 한자로 기록한 것이다. 이때 ‘달’을 ‘섬(蟾)’으로 적어 ‘섬강(蟾江)’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다래 마을 : 2020년」

다래나루(月湖津) [나루] → 월호나루

다래성황당 [당]

[위치] 다래 북서쪽 증대산 정상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다래 마을 성황당 신위는 여신으로 500여 년 동안 마을에서 숭상해 왔다고 한다. 현재 음력 정월 대보름에 제를 올리며 제물로는 통돼지 한 마리와 백설기 대시루, 제주는 감주(甘酒)를 쓴다.



「다래성황당 : 2018년」

다래질골 [골]

[위치] 구재골(1) 석문안 마을 앞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광주원주고속도로의 지정2터널과 지정3터널 사이 북쪽 아래에 골짜기의 입구가 있다. 골짜기 넘어 다둔지골과 이어진다.

[내용] 현재 다래질골에서 다둔지골을 연결하는 도로공사 중이다.

[풀이] ‘달+(ㅈ)+실+골>다래실골>다래질골’로 되었다. ‘다래’는 고어 ‘달(山·高)+ㅈ’, ‘실’은 골짜기(谷), ‘골’은 골짜기이다. ‘ㅈ’는 매개모음, ‘실’과 ‘골’은 의미가 중첩되었다. 높은 산의 골짜기라는 뜻이다.

달래 [마을] → 다래

달래나루(月湖津) [나루] → 월호나루

다둔 [마을] → 다둔리

당고개 [고개]

[위치] 월송리에서 동쪽 가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옛날 고개 정상에 서낭당과 산제당이 있었으므로 당고개라 하였다. 1970년대 길을 닦으면서 당은 모두 폐지되었다.

[내용] 당고개는 바람머리산(193.5m) 산줄기의 남쪽 130~140m의 높이에 있으며 섬강 변 월송에서 도오개, 당고개, 팻골로 넘어가는 중요 교통로였다. 이 고개에 서낭당과 산제당이 있었으므로 당고개라 하였는데 지금은 원주기업도시 기업로가 넓게 나면서 경사가 완만해졌다. 고개 서쪽에 죽림사(竹林寺)가 있다.



「당고개 ; 2020년」

대산고개(大山--)(고개)

[위치] 하다둔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대산골을 지나 횡성군 서원면으로 넘어가는 크고 높은 고개로, 고양산 북쪽 능선에 있다. 고개 너머로 서원면 옥계리 큰뫓골을 지나 대산리(大山里)가 있다. 고개 높이는 340m이다.

[유래] 고개 너머 대산 마을이 있으므로 대산고개라고 하였다.

대산골 [골]

[위치] 하다둔 마을 가마골 북쪽 위에서 동쪽, 대산고개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대산고개 너머 대산 마을이 있으므로 대산골이라고 하였다.

대추나무골 [골]

[위치] 상다둔 웃말과 아랫말 사이에서 북동쪽으로

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구재골 맞은편에 있다. 오크밸리CC 오크코스 2번이 나 있는 골짜기이다.

도루새들 [들]

[위치] 다래 마을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나루터 앞들 남쪽, 갯지들 북쪽 사이에 있는 들이다.

[유래] 도루소 옆에 있으므로 도루소들이라 하였는데 ‘도루소들>도루새들’이 되었다.

도루소 [소]

[위치] 도루새들 동쪽 섬강에 있던 소를 말한다.

[유래] 소(沼)의 둘레가 명주실 한 타래를 둘러 풀만큼 컸으므로 ‘돌소>도루소’라 하였다.

도야지산 [산]

[위치] 서낭당고개 남쪽, 현 돼지문화원 동쪽에 있는 높이 226.6m의 산을 말한다. 산 남쪽에 가곡리 능골이 있다. 가곡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 원래 이름이 없던 산이었는데 돼지문화원에서 이름을 지어 붙였다.

돌터거리골 [골]

[위치] 불갱이골 남쪽 위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되개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동쪽 산 너머에 가곡리 도오개 마을이 있다.

[유래] 골짜기에 돌이 많으므로 ‘돌터골’, ‘돌터거리골’이라 하였다.

돌터고개 [고개]

[위치] 송호에서 남동쪽으로, 불갱이골에서 돌터거리골을 지나 가곡리 도오개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는 가곡리 모태위골이 있다. ‘돌툽고개’, ‘돌툽고개’, ‘돌터고개’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155m이다. 『조선지리지』에 ‘돌툽고지(石鋤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돌터고개’라 하였다.

[유래] 고개 아래 골짜기에 돌이 많으므로 ‘돌터고개’, 돌 사이에 틈이 많으므로 ‘돌툽고개’, ‘돌툽고개’라고도 하였다.

돌터골 [골]

[위치] 불갱이골 남쪽 위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돌터고개 북쪽 아래에 있다.

돌툽고개 [고개] → 돌터고개

돌툽고개 [고개] → 돌터고개

뒗돈 [마을] → 뒗돈

두꺼비바우 [바위] → 섬암

돌터고개 [고개] → 돌터고개

둥구마리 [들] → 둥구비

둥구비 [들]

[위치] 송호저수지 위, 둥구비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둥구비’, ‘둥구마리’, ‘등굽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등구비’라고 하였다.

[유래] 골짜기의 논이 척박한 천수답이라 도지를 갈을 때 가마니로 세지 못하고 둥구미로 겨우 셀 정도였으므로 ‘둥구미>둥구비’라 하였다고 한다.

둥구비골 [골]

[위치] 송호저수지에서 북동쪽으로, 서낭당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수반골이 남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둥구비 [들] → 둥구비

뒗골 [골]

[위치] 상다둔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는 높이 509m의 지르마재가 있다. 현 한솔오크밸리리조트 아래 삼거리에서 길을 따라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로 오크밸리의 오크코스가 나 있다. 『조선지리지』에 ‘뒤골(後谷)’이라고 하였다.

뒗다래 [마을] → 넘은다래

뒗돈 [마을] → 뒗돈

뒗돈 [마을]

[위치] 송호 북쪽 고개 너머 섬강 남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호암산 동쪽, 비령산 남서쪽에 있다.

‘뒗돈’, ‘뒗돈’, ‘후둔(後屯)’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뒗돈(후둔)’이라 하였다.

[유래] 송호 마을에서 보아 뒗돈고개 너머에 있으므로 ‘뒗돈(뒗돈), 뒗돈(뒗돈)’이라 하였다. ‘후둔(後屯)’은 이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풀이] ‘뒤(後)ㅅ+둔(屯)>뒗돈’이 되었다. ‘ㅅ’은 사이시옷이다. ‘돈·둔’은 언덕, 둔덕을 나타내는 지명소이다. 마을 뒤 둔덕에 고개가 있으므로 ‘뒗돈고개’라 하였고 그 고개 아래에 마을과 들을 ‘뒗돈’, ‘뒗돈들’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뒤’라는 방향은 송호에서 본 결과이므로 이 지역의 중심지가 송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뒗돈고개 [고개]

[위치] 송호 마을에서 북쪽으로 송호저수지를 지나 뒗돈, 구미동에 이르는 긴 고갯길을 말한다. 고개 높이는 140m이다. 현 광주원주고속도로가 고개를 가로질러 지나고 있다.

뒗돈들 [들]

[위치] 뒗돈고개 북쪽, 비령산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등굽이 [들] → 둥구비

마당바우 [바위]

[위치] 호암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당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가 마당처럼 평평하므로 마당바우라고 하였다.

매물샘 [샘]

[위치] 다래 마을 북서쪽, 즈대산 남동쪽 서당들 옆에 있는 샘을 말한다. 물이 차고 맛이 좋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아 현재도 사용 중이다.

[내용] 옛날 흥회장이란 사람의 소실이 죽어서 여기에 묘를 쓰고 난 뒤 샘물이 솟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선 7대 왕 세조가 월정사로 가면서 들렀다고 전한다.



「매물샘 ; 2018년」

메너미골 [골]

[위치] 하다둔 남쪽 버덩들(2)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35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건넌골 남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골 서쪽 너머에 넘은달골이 있다.

[유래] 하다둔에서 건넌골 산너머에 있다 하여 ‘메넘이>메너미골’이라 하였다.

메누리소 [소] → 호암소

무당소 [소]

[위치] 한솔교 남쪽 섬강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무태골 [골]

[위치] 다둔리 채성지골 동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오크밸리 골프장 체리 2번코스 연못에서 도로건너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풀이] 물의 옛말 ‘뭇(뭇)’과 ‘터’가 결합하여 ‘뭇(뭇)+터>뭇터>무터, 무태’가 되었다. 물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다.

문디골 [골]

[위치] 대산골 북쪽, 삼발골 남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문안골 [골]

[위치] 구미동 아랫담에서 남동쪽, 부길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쪽으로 화승레스피아골프장 5번, 6번, 8번, 9번 코스가 나 있다.

바람머리산 [산]

[위치] 송호사거리 남동쪽, 승지골 동쪽에 있는 높

이 193.5m의 산을 말한다. 당고개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있는 산으로 가곡리와 경계를 이룬다. 동쪽 너머에 가곡리 다오랭이 마을이 있었다. ‘배냇머리산’, ‘배댄머리산’, ‘배남별산’, ‘배남부리’라고도 한다.

[유래] 산 서쪽 아래의 월호나루터에서 배, 뗏목을 돌리던 곳을 ‘배냇머리’라 하였는데, 배냇머리의 남동쪽에 있으므로 ‘배냇머리산’, 예전에는 산 아래에 배를 대었으므로 ‘배댄머리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음운이 변하여 ‘배남별’, ‘배남부리’, ‘바람머리’ 등으로 실현되었다.



「바람머리산 ; 2020년」

반찬바우 [바위]

[위치] 다래 앞 한솔교 남쪽 섬강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반찬바우’라 하였다.

[유래] 이곳에 가면 쏘가리, 메기 등 반찬거리를 잡아오므로 반찬바우라 하였다.

밤골 [마을]

[위치] 상다둔 아랫말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남쪽 능선 너머에 패나리골이 있다. ‘방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방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밤나무가 많았으므로 밤골, 또는 ‘밤골>방골’이라 하였다.

방골 [마을] → 밤골

배남별산 [산] → 바람머리산

배남부리산 [산] → 바람머리산

배냇머리 [나루]

[위치] 월호나루터 위, 배를 돌리던 곳을 말한다.
‘배댄머리’라고도 한다.

배냇머리산 [산] → 바람머리산

배댄머리 [나루] → 배냇머리

버덩들(1) [들]

[위치] 현 송호사거리에서 남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기업도시로의 서쪽 섬강에 붙어있는 들로 용두버덩 서쪽 강가에 있는 들이다.

버덩들(2) [들]

[위치] 하다둔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다둔천을 따라 나 있는 들을 말한다. 현재 식당을 비롯한 상가가 들어서 있다. ‘봉동들’이라고도 한다.

벼랑산 [산] → 비령산

봉동들 [들] → 버덩들(2)

부길 [골]

[위치] 구미동에서 남동쪽으로, 부길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부길산 [산]

[위치] 구미동 남동쪽에 있는 높이 165.8m의 산을 말한다. 호저면 무장리와 경계되는 산이다.

부억바우 [바위]

[위치] 한솔교 북쪽, 섬강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부억바우’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부억 아궁이처럼 생겼으므로 부억바우라 하였다.

부억소 [소]

[위치] 부억바위 밑에 있는 섬강의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부억소’라 하였다.

분터골 [골] → 분토골

분터골저수지 [못] → 가마골저수지

분토골 [골]

[위치] 송호 가마골 서쪽에서 북쪽 호암산을 향하

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분터골’, ‘분툫골’이라고도 한다. 골짜기에 가마골저수지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분토동(紛土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분툫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분토가 많이 나므로 분토골이라 하였다.

분토골저수지 [못] → 가마골저수지

분토동(紛土洞) [골] → 분토골

분툫골 [골] → 분토골

불갱이골 [골]

[위치] 송호에서 남동쪽으로, 돌터고개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불경이골’이라고도 한다.

불갱이들 [들]

[위치] 불갱이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불경이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불경이들’이라고 하였다.

불경이골 [골] → 불갱이골

불경이들 [들] → 불갱이들

불문대기골 [골]

[위치] 송호에서 북동쪽으로 서낭당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오강터골의 북쪽으로 붙어있는 골짜기이다.

붓당골 [골]

[위치] 구미동 아랫담 남쪽 위 개터골에서 남동쪽으로, 186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으로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비령산 [산]

[위치] 구미동 남동쪽, 섬강 벼랑에 있는 136m 높이의 산을 말한다. 현 동서울레스피아 골프장 7번 코스의 서쪽에 붙어있는 산이다. 산 남쪽에 뒳들 있다. ‘벼랑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이 벼랑으로 되어 있으므로 ‘벼랑산·비령산’이라고 하였다. ‘비령·비령’은 ‘벼랑’의 방언이다.

사리(四里) [마을] → 다래, 월호리

사탄골 [골]

[위치] 거치런이골 입구 서쪽 강변에서 서쪽으로, 월림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깊은골’이라고도 한다.

삼골 [골] → 삼밭골

삼리(三里) [마을] → 월송리, 송호

삼밭골 [골]

[위치] 하다둔 질골 안에서 동쪽으로, 대산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새피미골 남쪽, 대산골 북쪽 사이에 있다. ‘삼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삼골(麻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짜기의 밭에서 삼농사를 지었으므로 삼밭골이라 하였다.

삼봉(三峰) [산]

[위치] 다래 북서쪽, 송호동에서 서쪽 강 건너에 있는 높이 317m의 산을 말한다. 현 한솔교 서쪽, 제2영동고속국도 섬강교 서쪽에 있는 산으로, 산 아래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지정3터널이 지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삼봉(三峰)’이라 하였다.

[유래] 300m급의 봉우리 세 개가 있으므로 삼봉이라고 하였다.



‘삼봉’ ; 2020년

삼살배미골 [골]

[위치] 하다둔 마을의 서쪽, 구재골(2) 남쪽에 붙어있는 작은 골짜기로 구재골과 건넌골 사이에 있

다. 현 오크밸리 체리 9번 코스가 나 있다.

상구현봉(上九峴峰) [산]

[위치] 채상지골 서쪽 끝, 조둔고개 북서쪽에 있는 높이 481m의 산을 말한다. 상구현 마을 북쪽 끝에 있는 산으로 월송리와 판대리,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과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상다둔(上多屯) [마을]

[위치] 다둔리 중 북서쪽 위, 서낭고개 아래, 뒷골 입구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한솔오크밸리리조트 서쪽 아래 삼거리에서 있던 마을이다. ‘아랫말’과 ‘웃말’이 있었다. ‘웃다둔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웃다둔이(上多屯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다둔(上多屯)’이라고 하였다.

새피미골 [골]

[위치] 질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대산고개 북쪽 능선 35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삼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생골 [골]

[위치] 구미동 양지담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낭고개 [고개]

[위치] 상다둔에서 북쪽으로, 횡성군 서원면 스무나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오크밸리 골프장에서 북쪽 횡성군 서원면 스무나리로 넘어가는 월송석화호가 나 있다. 높이는 295m이다.

[유래]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으므로 서낭고개라 하였다.

서낭당고개 [고개]

[위치] 송호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구미동으로 넘어가는 긴 고개를 말한다. 현재 돼지문화원을 넘어가는 송정로가 나 있고, 고개 북쪽 아래에는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구미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구미고기(九尾峴)’라고 하였다.

[유래] 고갯마루에 서낭당이 있었으므로 서낭당고

개, 구미동으로 넘어가므로 구미고개라 하였다.

서당들 [들]

[위치] 다래 마을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즈대 산 동쪽, 섬강 서쪽의 좁은 들이다. 북쪽 노루목 앞들과 남쪽 나루터앞들 사이에 있다. 들 서쪽 길 옆에 매물샘이 있다.

서돌골 [골]

[위치] 상다둔 패나리골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오크밸리골프장 체리 4번 코스 그린에서 길 건너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돌이 많은 골짜기이므로 서돌골이라 하였다.

[풀이] 돌이 많은 곳을 ‘서덜’, ‘서덕’이라고 한다. ‘서덜+골>서덜골>서돌골’이 되었다.

석문(石門)(1) [바위]

[위치] 구재골(1) 입구에 있는 암벽을 말한다. ‘성문(城門)’이라고도 한다.

[유래] 길 양 옆에 암벽이 있어 마치 문처럼 보이므로 ‘석문’이라 하고, 그 안쪽을 ‘석문안’이라 하였다.

[풀이] 길 양 옆에 바위가 서 있어 마치 문처럼 보이므로 ‘석문(石門)>성문(城門)’이라 하였다.



「석문(1) ; 2020년」

석문(石門)(2) [바위]

[위치] 한솔교 서쪽, 다둔으로 들어가는 길 양 옆의 바위 암벽을 말한다. ‘성문(城門)’이라고도 한다.

[유래] 한솔교 다리가 놓여지기 전, 길 양 옆에 암

벽이 서 있어 마치 문처럼 보이므로 ‘석문>성문’이라 하고, 그 안쪽을 ‘석문안>성문안’이라 하였다.

석문안 [마을]

[위치] 구재골(1) 북서쪽, 석문(1)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다래질골 입구 서쪽에 있다. ‘성문안’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성문안’이라고 하였다.

[유래] 길 양쪽에 바위가 서 있어 문처럼 보이므로 ‘석문>성문’이라 하였고 그 안에 마을이 있으므로 ‘석문안>성문안’이라 하였다.

[내용] 옛날 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구재골(1)과 다래질골, 구재골(1) 위 넘달골까지 골짜기 전체가 대규모 공사 중이다.

석문안들(1) [들]

[위치] 석문(1) 남동쪽 아래로 넘달골까지 섬강을 따라 난 넓은 버덩을 말한다.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노루목골이 갈라진다.

석문안들(2) [들]

[위치] 현 한솔교 북서쪽, 오크밸리 계곡 입구의 석문(2) 안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삼봉 북쪽, 고양산 남쪽에 다둔천 옆으로 붙어있는 좁은 들이다.

석수방골 [골]

[위치] 채성지골 남쪽, 외판내무골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석장골 [골]

[위치] 송호저수지에서 북쪽으로, 뒷둔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섬강(蟾江) [내] → 간현리 섬강

섬암(蟾岩) [바위]

[위치] 호암산(虎岩山) 아래 섬강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두꺼비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강 한가운데 있는 바위가 마치 두꺼비처럼 생겼으므로 ‘섬암’, ‘두꺼비바우’라고 부른다. 이 바

위에서 섬강이란 이름이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섬강 ; 2018년」

성문(城門) [바위] → 석문(石門)

성문안 [마을] → 석문안

세집담 [마을]

[위치] 구미동 마을 중 남쪽에 떨어져 있는 마을을 말한다. 비령산 동쪽 아래, 현 동서울레스피아 골프장 7번 코스 북동쪽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소리개 [마을] → 송호

소림사(小林寺) [절]

[위치] 고양산에 있던 옛 절을 말한다. 고양사 터에 지었던 절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림사(小林寺)’라 하였다.

솔개 [마을] → 송호

솔경지 [마을] → 송정

송암국민학교 [학교] → 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

송암분교 [학교] → 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

송정(松亭) [마을]

[위치] 송호 마을 남쪽, 옛 송암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솔경지’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솔경지(松亭)’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송정(松亭)’이라 하였다.

[유래] 소나무 숲이 있었으므로 솔경지, 소나무숲

에 정자가 있었으므로 송정(松亭)이라 하였다.

송정들 [들]

[위치] 옛 송암초등학교 서쪽, 현 송호사거리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송호(松湖) [마을]

[위치] 서원주인터체인지 남쪽, 현 송호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월송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솔개’, ‘소리개’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송호(松湖)’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솔리기(松湖)’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리개(송호松湖)’라 하였다.

[유래] 섬강 가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였으므로 ‘솔개>소리개’, 이를 한자로 적어 ‘송호(松湖)’라고 하였다.

[풀이] ‘개’는 ‘물가, 포구(浦)’를 뜻하며 ‘강변에 발달한 넓은 들’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나무 숲이 있는 강가, 강변들’을 뜻하는 ‘솔개’가 ‘솔개>솔(이)개>솔이개>소리개’가 되었고 이를 한자로 ‘송호(松湖)’라 하였다. ‘송(松)’은 소나무, ‘호(湖)’는 개(浦)를 뜻하였다.



「송호 마을 ; 2020년」

송호서낭 [나무]

[위치] 송호 마을 입구, 송정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250년, 나무 높이는 20m이다. 마을 당산목이다.



「송호서낭 ; 2019년」

송호장승 [장승]

[위치] 월호교차로에서 옛 송암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있는 장승을 말한다.

[내용] 송호에서는 매년 정월 초닷새에 당고사를 지낸다. 제사는 마을 앞 서낭에서 먼저 지낸 후 장승제를 지낸다. 목장승을 2018년에 석장승으로 새로 만들어 세웠다.



「송호장승 ; 2019년」

송호저수지 [못]

[위치] 송호 마을 북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뒷둔고개와 석장골의 물을 모아 지둔지들에 댈다. 현 서원주인터체인지 남쪽에 있다. 1947년에 준공하였다. '언안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언안저수지'라고 하였다.



「송호저수지 ; 2019년」

송호천(松湖川) [내]

[위치] 뒷둔고개에서 송호저수지를 지나 남쪽으로 흘러, 송호사거리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수반골 [골]

[위치] 송호저수지 북동쪽, 동구비골의 끝에서 남쪽으로 붙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숲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숲+안+골> 숲안골>송안골>수반골'이라 하였다.

수석정(漱石亭) [누정]

[위치] 송호 한솔교 부근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옛 정자를 말한다. 『관동지』에 고을 서쪽 25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하였고 『원주원성향토지』에 월송리에 있다고 하였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월뢰탄이 서쪽 25리라고 하였으므로 거리상으로는 월뢰탄에 있다는 뜻이다. '수석(漱石)'은 물이 바위에 부딪치며 흐른다는 뜻이므로 호암산 아래에서 한솔교에 이르는 섬강 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숫돌고개 [고개]

[위치] 송호에서 남서쪽 간현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월호교차로에서 남서쪽으로 거치런이골을 지나 고개 정상에 닿는다. 현재 거치런이골과 숫돌고개, 능골을 잇는 도로가 나 있다. 고개 높이는 160m이다. '간현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숫돌고개'라 하였다.

승지골 [골]

[위치] 섬강 변 버덩들에서 동쪽으로 바람머리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승지골(承旨洞)’이라 하였다.

신봉 [마을]

[위치] 패나리골 입구, 신봉모퉁이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신봉’이라 하였다.

신봉모퉁이 [모퉁이]

[위치] 패날골 입구에 있던 길 모퉁이를 말한다.

썩는들 [들]

[위치] 구미동 양지담 서쪽의 들을 말한다. 터골들 동쪽, 앞들 북쪽에 붙어있다.

아래다둔이 [마을] → 하다둔

아래섬강 [강]

[위치] 월호에서 부르던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호 저면 무장리 장개나루쪽을 ‘웃섬강’이라 부르고 이곳은 ‘아래섬강’이라 불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아리섬강(下蟾江)’이라 하였다.

아랫담 [마을]

[위치] 구미동 마을 중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남쪽에 화승레스피아골프장 1번, 5번, 6번, 8번, 9번 코스가 나 있다.

아랫말 [마을]

[위치] 상다둔 마을 중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뒷골 입구 남쪽에 붙어있던 마을로 현 한솔오크밸리리조트 사우스콘도 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안모로기 [마을]

[위치] 송정 마을 모퉁이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모로기’라 하였다.

[풀이] ‘모로기’는 모퉁이를 뜻하는 ‘모루’가 변한 말이다. ‘안+모로+기>안모로기’가 되었다. ‘기·지’는 ‘모래기’, ‘가둔지’처럼 땅의 터, 장소에 붙는 지명소이다. ‘안쪽 모퉁이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안장바우 [바위]

[위치] 울암사터 앞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장바우’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말안장처럼 생겼으므로 안장바우라 하였다.

앞들 [들]

[위치] 구미동 마을 남쪽 앞의 들을 말한다.

양지담 [마을]

[위치] 구미동 마을 중 생골길을 중심으로 서쪽에 붙어있는 마을을 말한다.

언밀들 [들]

[위치] 송호저수지 아래에서 가마골 마을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유래] 언안저수지(송호저수지) 아래에 있으므로 언밀들이라 하였다.

[풀이] ‘언(堰)’은 독을 말하므로 ‘독 밑에 있는 들’이란 뜻이다.

언안저수지 [못] → 송호저수지

염소내미골 [골]

[위치] 채성지골과 패날골 사이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갈구재골 서쪽 맞은편에 있다.

오강터골 [골]

[위치] 송호 마을 남동쪽, 불갱이골 입구에서 북동쪽 서낭당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돼지문화원이 있다.

[유래] 오씨들이 많이 살았으므로 오강터라 하었다고 한다.

옥지기나루 [나루]

[위치] 구미동 서쪽 섬강에 있는 나루터를 말한다.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옥지기 마을로 가는 나루이다. 현재 옥계대교가 세워져 있다.

울나무골 [골]

[위치] 탑골에서 남동쪽으로, 솔경지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남동쪽 너머에 가곡리 다오랭이 마을이 있다.

웃샘물 [샘]

[위치] 돌터거리골 서쪽에 있는 샘을 말한다.

왕당이골 [골]

[위치] 다둔리 버덩들(2) 남쪽에서 다둔천 건너 북 동쪽으로, 340.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널아우골 남쪽, 현 들꽃가든에서 다둔천 건너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외딴내무골 [골]

[위치] 하다둔 구재골(2)와 채성지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오크밸리 골프장 체리 1번 그 린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용노버덩 [들] → 용두벌

용노벌들 [들] → 용두벌

용노평 [들] → 용두벌

용누들 [들] → 용두벌

용두들 [들] → 용두벌

용두버덩 [들] → 용두벌

용두벌 [들]

[위치] 옛 송암초등학교 남쪽, 현 월호교 남동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송정들 남쪽, 기업도시로 동쪽에 붙어있는 들이다. 한자로 ‘용두평(龍頭坪)’ 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용누평(龍樓坪)’ 이라고 하였고 『한국지명총람』에는 ‘용노버덩(용 노평)’이라고 하였다.

[내용] 이 들에 대한 이름은 ‘용노, 용누, 용두’에 ‘벌, 들, 벌들, 버덩, 평’ 등이 결합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용두벌’이라 한다.

용두평(龍頭坪) [들] → 용두벌

용소(龍沼) [소]

[위치] 섬강 용암 아래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용암(龍岩) [바위]

[위치] 호암산 아래 섬강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바 위 아래에 용소(龍沼)라는 글씨가 있다고 한다.

울암사지(鬱巖寺址) [터] → 울암사터

울암사터(鬱巖寺-) [터]

[위치] 현 한솔교 동쪽, 호암산 입구 동쪽 위에 있 는 옛 절터를 말한다. 축대와 기와편 등이 있었으 나 지금은 부근이 개발되고 지형이 변형되어 정확 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 ‘절터’, ‘유람사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절터(울암사터)’라고 하 였다.

[유래] 조선 선조 40년(1607)에 강원도관찰사로 부 임한 정축이 이곳에 정자를 지은 것이 훗날 절이 되었다가 빈대가 많아 절을 불태웠다고 한다.

[내용] 이곳 주민들은 유람하던 곳이라 하여 유람 사라고 부른다.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 이 쓴 시와 기문이 전한다. 『강원도지』(1941)에 이 미 없어졌다고 하였다.

웃다둔이 [마을] → 상다둔

웃말 [마을]

[위치] 상다둔 마을 중 위쪽에 있던 마을로 구재 골(3)과 중사는골 사이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웃 말에서 북쪽으로 큰나골, 북서쪽으로는 중사는골 이 갈라진다. 현재 월송석화호가 나 있다.

월뢰(月瀨) [내] → 월뢰탄

월뢰탄(月瀨灘) [내]

[위치] 옛 지리지에 나오는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월뢰탄(月瀨灘)’이라 하고 관문 서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이 이름은 넓게는 섬강을 뜻하고 좁게는 호 암산 아래의 여울을 뜻한다. 이곳 섬강의 호암산 아래에서 월송교 아래까지는 강바닥이 모두 암석 으로 되어 있어서 기암괴석이 많고 소(沼)가 많아 서 바위 이름과 소의 이름이 많다.

[풀이] 월뢰(月瀨)·월뢰탄(月瀨灘)은 섬강의 원래 이름 ‘달내·달래·달래강’을 한자로 적은 것이다. 탄(灘)은 여울을 뜻하는데, 여울은 강바닥이 얇고 물살이 빠른 곳에 붙는 이름이다. 물살이 빨라 모

래는 떠내려가고 바닥은 바위나 자갈로 되어 있으며 물살이 화살처럼 빠르므로 ‘살여울’, ‘살대울’ 등으로 불린다.

이 지역은 산을 뜻하는 고어 ‘달(高·山)’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래’, ‘달래’, ‘넘골’, ‘다리골’, ‘다둔’ 등이 대표적이다. ‘달’과 관련된 지명들은 월악산·월출산 등과 같이 한자로 표기할 때 ‘월(月)’자로 나타난다. 따라서 ‘월퇴(月瀨)’는 산을 뜻하는 고어 ‘달’과 ‘내(川)’가 결합된 ‘달+내>달내>달래’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월(月)’은 뜻을 나타냈고 ‘퇴(瀨)’는 ‘달래’의 소리 ‘래’와 ‘여울’의 뜻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이는 소리와 의미를 일치시키려고 한 결과이다. 즉 ‘월퇴(月瀨)’는 ‘달내>달래’를, ‘월퇴탄(月瀨灘)’은 ‘달래강’을 나타낸 것이다.



「월퇴탄 ; 2018년」

월림여울 [내]

[위치] 월림산 북쪽 아래, 다래 마을 갯지들 남쪽의 섬강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월림여울’이라고 하였다.

월송공소 [성당]

[위치] 다래 마을 남쪽에 있는 천주교 공소(公所)를 말한다.

월송국민학교 [학교] → 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

월천(月川) [내]

[위치]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옛날 양갈이 군사들과 취병산을 넘을 때 달

빛이 비친 강을 보고 이름을 ‘월천(月川)’이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월천(月川)’은 섬강의 원래 이름인 ‘달내’를 한자로 뜻을 적은 것이다. ‘월천(月川)·월퇴(月瀨)·월퇴탄(月瀨灘)·달강·달래강’은 모두 같은 이름이며, ‘섬강(蟾江)·섬수(蟾水)’의 ‘섬(蟾)’ 또한 같은 뜻인데 뒤에 두꺼비로 해석되었다. ‘달내’의 ‘달’은 하늘의 ‘달(月)’이 아니라 ‘高·山’을 뜻하는 옛말이다. 즉 ‘달내·달래·달래강’은 ‘높은 산 계곡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다.

월호(月湖) [마을] → 다래

월호나루(月湖津) [나루]

[위치] 다래와 송정 사이에 있던 섬강의 나루를 말한다. 현 월호교의 남쪽에 있던 나루이다. ‘다래나루’, ‘달래나루’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달리나루(月湖津)’라고 하였다.

월호동(月湖洞) [마을] → 다래

월호리(月湖里) [마을] → 다래

유암사 [절] → 울암사터

자라바우(1) [바위]

[위치] 한솔교 남쪽 섬강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마치 자라가 일광욕을 하기 위해 올라간 모습이므로 자라바우라 하였다.

자라바우(2) [바위]

[위치] 다래 남쪽, 월림산 북동쪽 아래, 섬강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작은백이골 [골]

[위치] 구미동 아랫담 남쪽에서 개터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북동쪽에 부길산이 있고 남쪽에는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적벽골 [골]

[위치] 현 화승레스피아 유스호스텔과 동서울레스

피아GC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절모랭이 [모롱이]

[위치] 한솔교 남쪽 입구, 옛 울암사터로 들어가는 길모퉁이를 말한다.

절터 [티] → 울암사터

정골(1) [골]

[위치] 하다둔 마을에서 북쪽으로,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의 수래봉 줄기인 432.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산 북쪽 너머에 옥계리의 '질마재골'이 있다. '긴골', '진골', '길골(吉谷)', '질골', '증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길골(吉谷)'이라 하였다.

[유래] 골이 길다고 '긴골>진골', '길골>질골', '증골', 한자로 '길곡(吉谷)'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정골'로 통용되고 있다.

정골(2) [골]

[위치] 상다둔 뒷골 입구에서 북서쪽, 도로 건너 맞은편 521.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오크밸리 메이플 7번, 8번 코스 가 나 있다.

정골 [마을]

[위치] 정골(1)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긴골', '길골', '진골', '질골', '증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길골(길곡, 질골)'이라 하였다.

조대미골 [골]

[위치] 다둔 패날 서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오크밸리 저수지에서 남쪽으로 퍼블릭코스과 뮤지엄산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난 골짜기이다. 골 끝에 구재고개가 있다.

죽림사(竹林寺) [절]

[위치] 당고개 서쪽에 있는 조계종의 절을 말한다.

중사는골 [골]

[위치] 상다둔 웃말에서 서낭고개로 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횡성군 서원면 스무나리로 넘어가는 월송석화호가 나 있다.

증대 [들]

[위치] 삼봉 남쪽, 증대산 북쪽, 노루목골 입구에 있는 강변의 들을 말한다.

증대산 [산]

[위치] 다래 북쪽 서당들 서쪽에 있는 161.3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청백산'이라고도 한다.

[내용] 산의 동쪽 밑에 매물샘이 있고 산 정상에 선황당(仙皇堂)이 있다. 현대에 와서 산 이름을 청백산으로 고쳐 부른다.

증골 [골] [마을] → 정골(1)

지둔지들 [들]

[위치] 가마골 마을 남쪽, 송정 마을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언뫼들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지둔지들'이라고 하였다.

[유래] 땅 밑에 진흙이 많이 나오므로 지둔지라 하였다.

지둔지들 [들] → 지둔지들

지르마재 [고개]

[위치] 상다둔에서 뒷골을 지나 북동쪽으로,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절골로 넘어가는 긴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490m이다.

지정초등학교 다둔분교 [학교]

[위치] 월송리 1017번지, 하다둔 북쪽에 있던 학교를 말한다. 패날골 남쪽, 무태골 북쪽에 있었다. 현 오크밸리 골프장 체리 3번과 5번 코스 그린에 있는 자리이다.

[내용] 1966년 송암국민학교 다둔분교로 개교하였다. 1989년에 지정국민학교 다둔분교로 재편되고 1996년에 폐교되었다. 지금은 골프장에 편입되어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 [학교]

[위치] 월송리 451번지, 송호 마을 남쪽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46년에 지정국민학교 송암분교로 설립되었다. 1974년 월송국민학교로 승격하여 송암국민

학교로 개명하였고 1989년 지정국민학교 송암분교로 격하되었다. 2003년 9월에 지정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현재 오크캠핑이 들어서 있다.



「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터 ; 2019년」

진골 [골] [마을] → 정골(1)

질골 [골] [마을] → 정골(1)

질고리골 [골]

[위치] 하다둔 석문안들(2) 위, 다둔지골에서 북서쪽으로, 35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봉우리 동쪽에 메너미골이 있고 서쪽에는 넘은달골이 있다.

질골 [골]

[위치] 하다둔 마을에서 북쪽으로,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의 수래봉 줄기인 432.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긴골’, ‘진골’, ‘길골’, ‘정골’, ‘증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길골(吉谷)’이라 하였다.

[유래] 골이 길다고 ‘긴골>진골’, ‘길골>질골’이라 하였다.

질골 [마을]

[위치] 질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길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길골(길곡, 질골)’이라 하였다.

찬샘골 [골]

[위치] 송호 마을 불갱이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갈

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가곡리 도오개의 능골이 있다.

[유래] 골짜기에 물이 찬 샘이 있으므로 찬샘골이라 하였다.

채산지골 [골] → 채성지골

채상지골 [골]

[위치] 상다둔 뒷골 남동쪽, 정골(2) 남쪽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오크밸리 메이플 코스 8번 출발점이 있다.

채성지골 [골]

[위치] 외판내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다둔천 건너 무태골과 마주보고 있다. 현 오크밸리 체리 1번 그린에서 남서쪽 퍼블릭 2번 코스로 이어진 골짜기이다. ‘채산지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채성지골’이라 하였다.

청백산(靑白山) [산] → 즈대산

청백산성황당(靑白山城隍堂) [당] → 다래성황당

치마바우 [바위]

[위치] 한솔교 남쪽 섬강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모양이 치마를 닮았으므로 치마바우라고 하였다.

큰낭골 [골]

[위치] 상다둔 웃말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사는골 동쪽에 있다.

탐골 [골]

[위치] 송호 남쪽, 불경이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탐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고려시대의 탐이 있었으므로 탐골이라 하였다.

탐골절터 [터]

[위치] 송호 탐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지금은 밭으로 경작 중이다.

[내용] 마을 남동쪽 야산에 있는 절터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절터에서 발굴된 석재로 절터 앞 하천 독을 쌓았다고 한다. 기와와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고 있다.

태산바우 [바위]

[위치] 다둔교 위 섬강 상류 강 한가운데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태산바우’라고 하였다.

[유래] 바위의 모양이 태산처럼 생겼으므로 태산바우라고 하였다.

터골 [골]

[위치] 구미동 마을 앞에 동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섬강 변에서 동쪽으로 마을 앞을 가로질러 난 넓은 골짜기이다. 신평석화교가 나 있고 도로 남쪽 앞에 들이 발달하였다. ‘텃골’이라고도 한다.

터골 [마을]

[위치] 터골에 있던 섬강 변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터골(垆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텃골’이라고 하였다.

터골들 [들]

[위치] 구미동 터골 서쪽 강변에 있는 들을 말한다. 옥지기나루 동쪽, 개터들 북쪽에 붙어있는 들이다.

텃골 [골] [마을] → 터골

패나리골 [골] → 패날골

패날 [마을]

[위치] 다둔 밤골 남쪽 아래, 패나리골 입구 서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오크밸리 퍼블릭코스로 갈라지는 삼거리 부근에 있던 마을이다. ‘퍼내일’, ‘패나리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퍼내일’이라고 하였다.

[유래] ‘내가 펼쳐지는 골짜기의 마을’이란 뜻에서 나온 이름이다. ‘퍼내’는 호저면의 ‘퍼내’처럼 내가 펼쳐지는 곳을 뜻하고 ‘퍼내일’은 내가 펼쳐지

는 골짜기란 뜻이다.

[풀이] ‘퍼내일’의 ‘일’은 골짜기를 뜻하는 ‘실’이 ‘실>실>일’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퍼내일’은 내가 펼쳐지는 골짜기란 뜻인데 이때 ‘내’는 ‘내(川)’일 수도 있고 ‘들(壤)’일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험한 골짜기에서 밖으로 나와 그나마 좁은 들이 펼쳐진 곳이므로 ‘들(壤)’의 뜻으로 보인다.

패날골 [골]

[위치] 다둔 신봉모퉁이에서 북쪽으로, 512.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오크밸리 저수지 독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골프장 체리 4번 코스 길 건너 북쪽에 있다. ‘패날’이라고도 한다.

[내용] 험한 골짜기이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퍼내일 [마을] → 패날

하다둔(下多屯) [마을]

[위치] 다둔리 중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오크밸리 정문 입구, 다둔교가 있는 마을로 식당 및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북쪽으로 질골이 나 있다. ‘아래다둔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아뤼다둔니(下多屯里)’라고 하였다.



「하다둔 마을 : 2020년」

한솔오크밸리 [시설]

[위치] 상다둔과 하다둔에 걸쳐 있는 종합 휴양시설을 말한다. 한솔교를 건너 월송석화교가 지나가

고 있다.

[내용] 골프장, 조각공원, 콘도, 빌리지센터, 스키장, 뮤지엄 등을 갖춘 대규모 휴양시설이다.

헌터골 [골]

[위치] 다래 마을 남서쪽 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넘달골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호랑이아랫방골 [골]

[위치] 상다둔 호랑이 웃방골 입구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오크밸리골프장 퍼블릭 6번 코스 연못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호랑이웃방골 [골]

[위치] 상다둔 조대미골에서 남서쪽 판대리 숲가마골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오크밸리골프장 퍼블릭 6번 코스가 난 골짜기이다.

호암(虎岩) [바위]

[위치] 호암산 울암사터 아래, 섬강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유래] 큰 바위가 호랑이처럼 생겼으므로 호암이라고 하였다. 옛 기록에 바위에 ‘虎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



「호암 ; 2018년」

호암골 [골]

[위치] 호암 바위가 있는 곳에서 남동쪽 호암산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호암산(虎岩山) [산]

[위치] 송호동 북쪽 섬강 가에 있는 높이 161.3m

의 산을 말한다. 현 서원주IC 북서쪽에 있다.

[내용] 산 서쪽에 울암사(鬱巖寺)터가 있고 산 북쪽 아래 섬강에 호암이 있다.



「호암산 ; 2020년」

호암소(虎岩沼) [소]

[위치] 섬강 호암 아래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메누리소’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호암소(메누리소)’라고 하였다.

화승레스피아 [시설]

[위치] 지정면 월송 4리 구미동 동쪽에 있는 종합휴양시설을 말한다.

[내용] 골프장, 수영장, 눈썰매장, 회의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후둔(後屯) [마을] → 뒷둔

판대리(判垞里)

[위치]

판대리는 지정면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월송리,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남쪽으로는 안창리, 북쪽으로는 월송리 및 경기도 양평군 계정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지향곡면(地向谷面) 지역으로서 사리(四里)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재·구룡동·구암동·장지동·원대동을 병합하여 판대리(判垞里)라 하고 지정면에 편입하여 원주군 지정면 판대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면서 원성군 지정면 판대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지정면 판대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로 되었다.

[유래]

넓은 들에 마을이 있으므로 판교(板橋)라 하였다. 이후 판대(判垞)로 바꾸면서 판관이 난 마을이므로 판관터·반판터, 판대리(判垞里)라 하였다고 한다.

『여지도서』『관동지』『원주읍지』 등 옛 지리지에 ‘판교(板橋)’라는 지명이 나오므로 원래는 ‘넓은 터(들)’란 뜻으로 판교(板橋)라 하였는데, 1910년대 이후 한자를 ‘판대(判垞)’로 적으면서 판관이 났다는 유래가 생겼다.

[풀이]

『여지도서』『관동지』『원주읍지』 등 옛 지리지에 ‘판교(板橋)’라 하였다. ‘판(板)’은 ‘넓다’는 뜻을 가진 지명소이다. 널판(板)은 넓게 켜 나무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너르다·넓다·널빤지·(빨래를)널다’의 공통어근 ‘넙-’은 ‘면적이 큰’의 뜻으로 ‘널다리·널뛰기·널무덤’ 등으로 쓰인다. ‘교(橋)’는 ‘들’을 뜻하는 ‘들>달~덜>다리~더리’를 다리로 보아 ‘교(橋)’라고 한 것이다.

‘넓은 들’을 뜻하는 ‘너더리’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지명인데 한자로는 ‘판교(板橋)’라 하였다. 귀래면 운남리의 ‘너더리’는 ‘판교(板橋)·판터(板垞)’라 하였고 단구동의 ‘너더리(너다리)’는 ‘더리(다리)’를 사다리로 보아 ‘판제(板梯)’라 하였다.

이곳의 비교적 넓은 지역에 마을이 섰으므로 넓은터, 너더리의 뜻으로 ‘판교(板橋)’라 하였는데, 1910년대 ‘判垞’로 기록하면서 판관이 났다는 유래가 결부되었다. 현재는 ‘判垞’로 정착되었다.

간현골 [골]

[위치] 원대동 남쪽 삼산천 건너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쪽에 간현봉이 있고 남동쪽에 간현바우가 있다.

간현바우 [바위]

[위치] 간현골 남동쪽 위에 있는 310m 바위 봉우리를 말한다. 간현봉 북동쪽, 간현산 남서쪽 능선에 있다. 안창리와 경계를 이룬다.

간현봉(艮峴峰) [산]

[위치] 원대동 남쪽 삼산천 건너, 간현골 남쪽 끝에 있는 높이 384.8m의 산을 말한다. 안창리와 경계를 이룬다.

갯바우 [마을]

[위치] 하구현 달랑고개 서쪽, 헛가마골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관암(冠岩)’이라고도 한다.

갯바우들 [들]

[위치] 하구현 갯바우 마을 앞 헛가마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갯바위썰(冠岩坪)’이라 하였다.

갯바우보 [보]

[위치] 옛 판대역 남쪽, 갯바우 마을 남서쪽에 있는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관암보(冠岩湫)’라고 하였다.

관암(冠岩) [마을] → 갯바우

구노골 [골] → 구룡골

구라우 [마을] → 구암동

구라우들 [들]

[위치] 삼태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구라우썰(九岩坪)’이라 하였다.

구룡골 [골]

[위치] 판대동에서 삼산천 건너 구룡천이 흐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사기막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의 끝에서 북서쪽으로는 큰고개골, 북동쪽으로는 큰골(2)가 갈라진다. ‘구노골’, ‘군옹골’,

‘궁골’, ‘군충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군옹골(九龍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군충골’이라 하였다.

[유래] 골이 깊은 구룡에 있으므로 한자로 정착되는 과정에 ‘구룡>구룡’으로 되었다.

[풀이] 구룡골의 다른 이름인 ‘궁골’, ‘군옹골’, ‘구노골’ 등은 ‘구룡’의 어원이 ‘궁’, ‘구령’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궁·궁·구무·구령·구명’은 ‘우묵한, 깊숙한’의 뜻을 가진 같은 뿌리의 말이다.

구룡동(九龍洞) [마을]

[위치] 구룡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궁골’이라 하였다.

[유래] 골이 깊은 구룡에 마을이 있으므로 한자로 정착되는 과정에 ‘구룡>구룡’으로 되었다. 이와 함께 용과 관련된 유래담이 결부되었다. 태장동의 구룡골도 같은 이치이다.

[유래담] 아홉 마리 용이 여의주를 서로 물려고 다투었다고도 하고, 마을의 형상이 선인(仙人)이 용을 타고 나오는 모양이므로 구룡동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구룡동 마을 : 2019년」

구룡산(九龍山) [산]

[위치] 하구현 남동쪽, 오크밸리 스키리조트 스노우파크 정상휴게소에서 남쪽 능선으로 있는 높이 478.3m의 산을 말한다. 판대리와 월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내용] 스노우파크에서 남쪽으로 곧게 뻗은 산줄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400m급의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산줄기는 남쪽 소금산까지 이어

저 삼산천 간현유원지에 닿는다. 봉우리 능선 남쪽에 문바우가 있고, 산 정상 아래에는 중앙고속도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구룡천(九龍川) [내]

[위치] 큰골(2)와 큰고개골, 물탕골에서 시작하여 구룡골의 구룡동을 거쳐 남서쪽 판대동 앞에서 삼산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구암동(九岩洞) [마을]

[위치] 장지동에서 북쪽으로 삼산천 건너 삼태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구라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라우(구암동)’라 하였다.

[유래] 마을 앞산에 굴바위가 있어서 ‘굴바우>구라우’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적어 ‘구암동(九岩洞)’이라 하였다.

[풀이] ‘굴바우>굴박우>굴와우>굴아우>구라우’로 변천하였다. 이는 ‘말바우>말박우>말와우>말아우>마라우’와 같은 이치이다.

구재 [마을]

[위치] 옛 판교역 남동쪽 아래 하구현교에서 북동쪽으로 구현천(九峴川)을 따라 길게 난 구재골에 있는 마을들을 말한다. 구재골을 따라 구재로가 나 있으며 마을은 위치에 따라 각각 ‘상구현’, ‘중구현’, ‘하구현’으로 나뉜다. 이를 한자로 적어 ‘구현(九峴)’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구지(九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구재(구현)’라고 하였다.

[유래] 고개가 아홉 개나 될 만큼 골이 깊고 많으므로 구재라고 하였다.

구재고개 [고개]

[위치] 중구현에서 다리골을 지나 동쪽 다둔리로 넘어가는 길고 험한 고개를 말한다. 고개 동쪽 너머에 다둔리 구재골이 있다. ‘구현고개’, ‘다리골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구현고개(九峴--)’라 하였다.

[유래] 고개가 아홉 개나 되므로 구재, 구재고개라

고 하였다.

[내용] 다리골은 현재 오크힐스CC 브릿지코스가 나 있고 구재고개 정상에는 다둔리로 넘어가는 도로의 생태통로가 나 있다.

[풀이] 판대리와 월송리의 경계인 이곳 산악에는 ‘구재·구현’이란 지명이 산재하여서 ‘웃구재(상구현)·중구재·아랫구재(하구현)’, ‘구재골·구재고개’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구재·구현’은 이 지역의 산의 골짜기, 또는 고개를 범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백운산’이란 이름이 판부면과 귀래면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면서 특정 산 이름이면서 산줄기 전체를 뜻하는 것과 같다. 골짜기가 많고 고개가 높고 험하므로 ‘ 많다’는 뜻으로 ‘아홉’이란 숫자를 써서 ‘구재·구현’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골짜기가 많다는 예로 판부면 금대리의 ‘아흔아홉골’이 있다.

구재골 [골]

[위치] 옛 판대역 남쪽에서 삼산천에 합류하는 구현천을 따라 북서쪽으로 난 크고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상구현(상구재)’, ‘중구현(중구재)’, ‘하구현(하구재)’ 등의 큰 마을들이 있고 다리골 쪽으로는 오크힐스CC와 오크밸리리조트 스노우파크가 조성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구재골’이라 하였다.

구현(九峴) [마을] → 구재

구현고개(九峴--) [고개] → 구재고개

구현천(九峴川) [내]

[위치] 상구현의 조둔고개, 녹동골, 다리골에서 중구현, 하구현을 거치며 남서로 흘러 하구현교 앞 사기막들에서 삼산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군웅골 [골] → 구룡골

군충골 [골] → 구룡골

궁골 [마을] → 구룡골

기차굴 [굴] → 장지터널

[위치] 구암동 남쪽에 있는 옛 중앙선의 장지터널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기차굴’이라 하였다.

너머골천 [내]

[위치] 장지동 너머골에 있는 내를 말한다. 수리봉과 장지뒷산에서 시작하여 동쪽에 있는 삼산천으로 들어간다.

너머골 [골]

[위치] 장지들에서 서쪽으로, 장지동 뒤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원터들 서쪽 강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위에 새순수련원이 있다.

너머들 [들]

[위치] 하구현 마을 동쪽 아래, 구현천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내 건너에 ‘덕둔지들’이 있다.

녹동골 [골]

[위치] 중구현 마을 앞에서 북쪽으로, 388.9m의 녹동봉을 향하여 길게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녹동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골짜기 서쪽 능선과 골짜기 끝 봉우리가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이다.

녹동골 [마을]

[위치] 녹동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산림항공본부가 들어서 있다.

녹동봉 [산]

[위치] 녹동골 북쪽 끝에 있는 높이 388.9m의 산을 말한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북쪽 능선에 상구현봉이 있다.

녹동골 [골] → 녹동골

능만이고개 [고개]

[위치] 하구현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경기도 양동면 삼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180m이다.

능만이사냥 [당]

[위치] 능만이고개 고갯마루에 있는 서당을 말한다. 당집은 없이 돌무더기가 있다.

다리골 [골]

[위치] 중구현에서 동쪽으로, 구재조개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전체가 현 오크힐스 CC로 개발되었고 산 중턱에 다둔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나 있다. 『조선지리지』에 ‘다리골(橋谷)’이라고 하였다.

다리골고개 [고개] → 구재고개

[위치] 구재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다리골 끝에 있는 고개이므로 다리골고개라고도 하였다.

달랑고개 [고개]

[위치] 하구현 솔농에서 남서쪽 헛가마골을 거쳐 삼산천에 이르는 고개를 말한다. 옛 판대역으로 가던 고갯길이다.

[유래] 지계를 저도 달랑거리며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작은 고개이므로 달랑고개라 하였다.

대금산 [산]

[위치] 구룡산 문바우 남쪽 능선에 있는 436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덕둔지들 [들]

[위치] 하구현 너머들 동쪽 구현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소구룡골과 선돌배기골이 만나는 곳에 있는 들이다.

도둑바우 [바위]

[위치] 중구현 뒷골 마을 입구, 옛 중구현교 동쪽 맞은편 산기슭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현 캐나다강습센터 뒤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도둑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곤 하였으므로 도둑바우라고 하였다.

도랑소 [소]

[위치] 부처동 부처덕들 서쪽 삼산천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도토리봉 [산]

[위치] 녹동골 마을 서쪽에 있는 높이 317.5m의 산을 말한다. 산 서쪽 너머에 경기도 양평군 양동

면 삼산리의 도토동굴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도토리봉(橡峰)’이라 하였다.

동배나무골 [골]

[위치] 구룡골 구룡동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문바우를 향해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되랭기들 [들]

[위치] 원터 남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원터들 동쪽으로 이어져 있다.

뒷골(1) [골]

[위치] 하구현 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골(2) [골]

[위치] 중구현에서 북쪽 뒷골마을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구재로 서쪽, 상가가 들어선 지역이다.

뒷골 [마을]

[위치] 중구현 마을 북쪽 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이 있던 자리에 현 오크밸리 컨벤션홀이 들어서 있다.

모래자리들 [들]

[위치] 솔농 북쪽, 하구현 남쪽 사이에 구현천과 구재로를 따라 난 들을 말한다.

문바우(1) [바위]

[위치] 구룡산 능선 남쪽, 높이 430m의 산봉우리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문바우(2) [바위]

[위치] 상구현 서쪽, 녹동골 동쪽 산줄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물탕골 [골]

[위치] 큰골(2) 중간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밀밭골 [골]

[위치] 상구현 마을에서 뽕나무골과 갈라져 북쪽으로, 상구현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박달골 [골]

[위치] 상구현 밀밭골 위로, 박달봉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박달봉 [산]

[위치] 상구현 밀밭골 끝에 있는 높이 461.5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상구현봉 남서쪽에 붙어있다. 『조선지리지』에 ‘박달봉(檀峰)’이라 하였다.

반관터 [마을] → 판대동

반관터들 [들] → 판관터들

배나무골 [골]

[위치] 중구현 다리골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463.9m 봉우리인 정상휴게소를 향하여 갈라져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오크밸리리조트 스노우파크 정상에서 북서쪽으로, 상급자 B, C코스로 내려가는 골짜기이다.

배내개울 [내] → 삼산천

[위치] 삼산천의 다른 이름이다. 옛 판대역이 있던 곳이 배내 마을이므로 이곳에서는 배내개울이라고 부른다.

배내봉 [산]

[위치] 옛 판대역이 있는 아랫배내 남서쪽, 삼목골 산 북서쪽에 있는 높이 234.8m의 산을 말한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범바우 [바위]

[위치] 원대동 범네미고개 서쪽, 소금산 능선 남쪽 끝에서 삼산천으로 돌출되어 나간 바위를 말한다. 자라바위 북쪽 아래에 있다. 바위 위쪽 능선으로 옛 중앙선 철로의 원대터널이 있다.

[유래] 옛날 이 바위에서 범이 새끼를 치고 울부짖었다고 하여 범바우라 한다.

범바우골 [골]

[위치] 범바우와 범네미고개 사이의 골짜기를 말한다.

부처골 [마을] → 부처동

부처덕들 [들]

[위치] 판대동 큰고래들에서 서쪽으로, 옛 중앙선 철로와 지정로를 넘어 삼산천 변에 있는 들을 말한다.

부처동 [마을]

[위치] 판대동 남동쪽 삼산천 건너 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에 ‘큰고래들’, ‘작은고래들’이 있고 옛 철길 건너 삼산천 옆에 ‘부처덕들’이 있다. ‘부처골’, ‘부처뚝’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부처뚝’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작은 절에 부처가 있었으므로 부처동이라 하였다.



「부처동 마을 : 2020년」

부처동보 [보]

[위치] 부처동 앞에 있는 삼산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부처등이보(佛原湫)’라 하였다.

부처등이보 [보] → 부처동보

부처뚝 [마을] → 부처동

불탕골 [골]

[위치] 구암동 삼태골 상류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351.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뽕나무골 [골]

[위치] 상구현에서 북동쪽으로, 조둔고개를 향해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북쪽 너머에 상다들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안진뽕나무골(坐桑谷)’이라고 하였다.

뽕나무밭 [들]

[위치] 판대동 남쪽 산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사기막골 [골]

[위치] 사기막들에서 북동쪽으로, 사기막산 능선의 26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사기막들 [들]

[위치] 사기막산 서쪽 아래, 구현천 입구 구현천교에서 남동쪽으로 삼산천을 따라 난 들을 말한다. 사기막골 서쪽 입구에 있는 들이다.

사기막산 [산]

[위치] 솔농 큰골 남동쪽, 구룡동 서쪽에 있는 높이 300.4m의 산을 말한다.

사기막터 [터]

[위치] 사기막골 앞 사기막들에 있는 옛 도요지를 말한다. 삼막골에서 북쪽 강 건너편에 있다.

[내용] 폐가 주변으로 백자편과 ‘도짐’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백자는 17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사리(四里) [마을] → 판대리

산내터골 [골]

[위치] 판대동 윗골 중간에서 남서쪽으로, 322.4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이다.

산막골 [골]

[위치] 장지동 서쪽 강건너에서 북쪽으로 부처동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터울 [골] → 삼태골

삼막골 [골]

[위치] 사기막들에서 서쪽 삼산천 건너 서쪽으로, 256.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삼막골산 북쪽 아래에 있다.

[유래] 옛날 이 골짜기에서 삼이 났으므로 삼막골이라고 하였다.

삼막골산 [산]

[위치] 판대동 북서쪽, 삼막골 남쪽으로 있는 높이

256.8m의 산을 말한다.

삼산천(三山川) [내]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산, 삼각산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흐르며 판대리를 거쳐 간현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강을 말한다. 『관동지』에 ‘판교천(板橋川)’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비니기울(梨川)’이라 하였다.

[유래] 삼산천이라는 이름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三山里)’에서 유래하였다. 마을 뒷산에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 삼산리라 하였고 이것이 강 이름이 되었다.

[내용] 물이 맑고 깨끗하며 수리봉과 어우러져 층암절벽을 이룬다. 경관이 뛰어나 유원지로 인기가 높다.



「삼산천 ; 2019년」

삼태골(三台谷) [골] → 삼태골

삼태곡천(三台谷川) [내]

[위치] 불당골과 삼태골에서 남쪽으로 흘러 삼산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장지동 북쪽 삼산천 건너에 있다.

삼태골 [골]

[위치] 장지동 북쪽 삼산천 건너편에서 북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삼태봉 아래에 있다. 골짜기 끝에서 북동쪽으로 불당골이 갈라져 나간다. ‘산터울’, ‘삼태울’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삼터울’이라 하였다.

삼태봉(三台峰) [산]

[위치] 삼태골 북쪽에 있는 높이 229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삼터봉(三台峰)’이라 하였다.

[유래] 태가 세 개 나왔다 해서 삼태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삼태봉 ; 2019년」

삼태울 [골] → 삼태골

상구재 [마을] → 상구현

상구현(上九峴) [마을]

[위치] 구재골의 맨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북쪽으로 밀밭골과 뽕나무골이 있다. 북동쪽으로 조둔고개를 넘어 상다둔에 닿는다. ‘상구재’, ‘웃구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웃구지(上九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구재(상구현)’라 하였다.



「상구현 마을 ; 2019년」

상구현봉(上九峴峰) [산]

[위치] 상구현 북쪽, 조둔고개 북서쪽에 있는 높이 481m의 산을 말한다.

[내용] 판대리와 월송리,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과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새들 [들]

[위치] 판대역 남쪽 삼산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구현천 입구에서 서쪽 강 건너의 들이다.

서낭 [당]

[위치] 상구현 중방골 입구 길옆에 있던 서낭을 말한다.

서낭밭 [들]

[위치] 상구현 중방골 입구 서쪽 냇가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서낭이 있는 바깥이므로 서낭밭이라고 하였다.

선돌배기골 [골]

[위치] 하구현 앞 넘은들에서 북쪽으로, 구현천을 따라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선돌배기골 위에서 중구현의 다리골과 녹동골이 갈라진다. 현재 이 골짜기에 광주원주고속도로의 판대2교가 있다.

소구룡골 [골]

[위치] 하구현 앞 덕둔지들에서 동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북쪽으로 선돌배기골이 갈라져 나가고 골 동쪽으로는 다시 지리내미골이 이어져 나간다. 현재 소구룡골과 지리내미골 전체로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소돌골 [골]

[위치] 상구현 뽕나무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높이 384.9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속골산 [산]

[위치] 옛 판대역 북쪽, 헛가마골 북서쪽에 있는 높이 228.6m의 산을 말한다.

[내용] 녹동봉에서 남북으로 이어진 산줄기의 봉우리로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솔농 [마을]

[위치] 달랑고개 동쪽 내 건너, 큰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외누리골과 솔농골 사이에 있다.

[유래] 소나무가 있는 곳에 논이 있었으므로 ‘솔+논>솔논>솔농’이라 하였다.

솔농골 [골]

[위치] 솔농 마을 앞 큰골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수리바우 [바위]

[위치] 수리봉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리바우’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수리와 같다하여 수리바우라 한다.

수리봉(1) [산]

[위치] 장지동 남서쪽, 장지고개 북서쪽에 있는 높이 427m의 산을 말한다. 안창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리봉’이라 하였다.

수리봉(2) [산]

[위치] 부처동 남쪽, 장지동 서쪽 삼산천 옆에 있는 높이 210m의 바위산을 말한다. 수직으로 선 높은 바위로 겨울에 빙벽등반을 하는 곳이다. 서쪽 바로 옆에 쏘다지기바우가 있다.

숯가마골 [골]

[위치] 상구현 마을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295.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쏘다지기바우 [산]

[위치] 수리봉(2) 서쪽 바로 옆에 솟은 높이 304m의 바위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쏘다지기(瀉峰)’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쏘다지기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가 깎아지른 듯이 생기어 금방 쏟아질 것 같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구재 [마을] → 하구현

아야니원(阿也尼院) [원] → 원터

[위치] 원터(원대동)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조선시대의 원(院)을 말한다.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에 고을 서쪽 38리에 있다고 하였고 『여지도서』에 ‘고을에서 38리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안창리 송원을 ‘고을 서쪽 40리, 안창에서 5리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으므로 방위나 거리상으로 아야니원은 원터에 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야니원은 간현에서 나루를 건너 원터>판대를 지나 삼산리에서 안창>솔치를 지나오는 길과 합류한다. 안창>송원>솔치를 넘는 것이 주 교통로였으므로 아야니원은 송원보다 더 일찍 폐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은뽕나무골 [골] → 뽕나무골

앞들 [들]

[위치] 판대동 동쪽 앞, 삼산천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앞들에 출렁다리가 있었다.

양철소 [소]

[위치] 부처동 서쪽 삼산천에 있는 소를 말한다.

옥녀봉(玉女峰) [산]

[위치] 도둑바우 서쪽 내 건너 맞은편에 있는 높이 214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옥녀봉(玉女峰)’이라 하였다.

외누리골 [골]

[위치] 하구현 솔농 마을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서 터골이 갈라진다.

용암터널(龍岩--) [굴]

[위치] 구암철교와 장지터널 사이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터널을 말한다. 장지동 북동쪽, 삼산천 건너에 있다.

웃구재 [마을] → 상구현

원대동(院垌洞) [마을] → 원터

원대터널 [굴]

[위치] 원대동 동쪽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터

널을 말한다. 범바우 아래를 지난다.

원터 [마을]

[위치] 소금산 남서쪽, 장지동 동쪽 삼산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원대동’이라고도 한다. 마을 뒤에 중앙선 철로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원터(원대동院垌洞)’라 하였다.

[유래] 옛날 원(院)이 있었으므로 원터라 하였다. 옛 지리지에 나오는 ‘아야니원(阿也尼院)’이 있던 곳이 이 마을이라고 추정된다.

[내용] 기록에 전하는 이 지역의 원(院)은 두 군데이다. 하나는 ‘감영에서 서쪽으로 38리에 있다.’는 ‘아야니원(阿也尼院)’이고 다른 하나는 ‘고을 서쪽 40리(또는 50리), 안창에서 5리에 있다.’는 ‘송원(松院)’이다. 송원(松院)은 지명이 ‘송원·송안·솔안·솔치’ 등으로 나타나는 ‘솔안’을 말하는 것으로서 솔치 동쪽 아래의 마을이다.

아야니원과 송원이 둘 다 서쪽으로 같은 방향에 있다고 하였고, 거리가 38리, 40리(또는 50리)라고 하여 서로 가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원은 남북 사이에 그리 크지 않은 장지고개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감영에서의 방향은 같고 거리로 보면 원터가 송원보다 조금 더 가깝다. 방향이 일치하는 점, 강원감영에서의 거리가 서로 일치하는 점, 이 부근에 다른 원터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옛 아야니원이 원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감영에서 한양으로 가는 옛길은 안창진을 건너 ‘창말>송원>솔치’로 가는 고갯길과 간현의 간재나루를 건너 삼산천을 따라 ‘원터>판타>배내개울(梨川, 현 판대역)로 가는 길이 있었다. 두 길은 양동면 삼산리에서 만나는데 거리는 원터 길이 조금 더 가깝고 길은 안창, 솔치 길이 더 좋았다. 안창>송원>솔치를 넘는 것이 주 교통로였으므로 아야니원은 송원보다 더 일찍 폐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터뒷산 [산] → 간현리 소금산

[위치] 원터 마을 북동쪽 뒤에 있는 높이 343m의

산을 말한다. 간현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등산로를 내면서 작은 금강산이란 뜻으로 소금산(小金山)이라 하였다.

원터들 [들]

[위치] 원터 마을 남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윗골 [골]

[위치] 판대동에서 서쪽으로 길게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남동쪽으로 산내터골이 갈라져 나간다. 북쪽에 삼막골산이 있다. 골짜기 안에 피라미트휴양림과 문막힐링레저파크가 있다.

자리바우 [바위]

[위치] 원대동 범바우 남쪽 내 건너, 간현봉과 범네미고개 능선의 높이 215m 봉우리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작은고래들 [들]

[위치] 부처동 북서쪽, 구 중앙선 철로와 지정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큰고래들의 북쪽에 붙어있는 들이다.

작은인삼바우골 [골]

[위치] 소금산 남쪽, 범바우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장지고개(長芝--) [고개]

[위치] 장지동에서 남쪽 넘어 장지골을 지나 안창리 솔안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150m이다. 『조선지리지』에 ‘장지고기(長芝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지고개’라고 하였다.

장지고개서낭당 [당]

[위치] 장지고개에 있던 옛 서낭당을 말한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장지동(長芝洞) [마을]

[위치] 소금산 남서쪽 아래, 장지고개 북쪽 아래에 있는 큰 마을을 말한다. 현 판대보건진료소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장지(長芝)’라 하였다. 『한

국지명총람』에 ‘장지동(長芝洞)’이라 하였다.

[유래] 지초가 많았다고 하여 ‘장지(長芝)’라고 했다고 한다. 일설에는 ‘長址洞’의 표기가 옳다고도 한다.



「장지동 마을 : 2020년」

장지뿔산 [산]

[위치] 장지동 남서쪽, 장지고개 북서쪽에 있는 높이가 233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지뿔산’이라 하였다.

장지들 [들]

[위치] 장지동 앞 북쪽과 동쪽으로 발달한 삼산천 옆의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장지들’이라 하였다.

장지보(長芝湫) [보]

[위치] 장지 마을 앞에 있는 삼산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장지보(長芝湫)’라고 하였다.

장지터널 [굴]

[위치] 장지동 동쪽 강 건너, 원대동 서쪽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터널을 말한다. 용암터널 동쪽, 원대터널 서쪽에 있다. ‘기차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기차굴’이라 하였다.

조골 [골]

[위치] 녹동골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31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산림항공본부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둔고개 [고개]

[위치] 상구현에서 다둔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상구현 북동쪽 뽕나무골 끝에 있다. 현 한솔오크밸리 리조트 남서쪽, 메이플 8번 코스가 있는 채상지골을 지나 상다둔 마을에 닿는다. 고개 높이는 330m이다.

중구재 [마을] → 중구현

중구현(中九峴) [마을]

[위치] 구재골 중앙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구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중구재(중구현)’라고 하였다.

[내용] 현재 다리골고개 서쪽 아래에서 마을의 동쪽 전체가 오크힐스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개발되었다. 중구현이 있던 마을에는 스키샵과 식당들이 들어서 있다.



「중구현 마을 ; 2019년」

중방골 [골]

[위치] 상구현 뽕나무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높이 445.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지르네미골 [골]

[위치] 소구룡골 중간에서 지르네미골과 갈라져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남쪽 너머 큰고개골의 상류로 이어진다.

[유래] 소구룡골에서 구룡골 마을로 중간을 질러 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지르네미골 [골]

[위치] 소구룡골에서 지르네미골과 갈라져 동쪽으로 곧게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 끝 왼쪽에 오크밸리스노우리조트 정상 휴게소 등 460m급의 봉우리들이 있다. 골 동쪽 너머에는 월송리 ‘석문안’이 있고, 골짜기 아래로 광주원주고속도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지정초등학교 판대분교 [학교]

[위치] 판대리 427번지, 판대동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47년에 지정국민학교 판대분교로 개교, 1953년에 판대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 1983년 지정국민학교 판대분교로 격하, 1994년에 지정초등학교로 통합되어 폐교되었다. 현재 마루노리캠핑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정초등학교 판대분교터 ; 2019년」

출렁다리 [다리]

[위치] 판대동 앞들과 사기막들 남쪽 끝을 있던 옛 현수교를 말한다. 지금은 철거되었다.

큰고개골 [골]

[위치] 구룡동 구룡골 끝에서 큰골(2)와 갈라져 서쪽으로 난 골을 말한다. 큰골(2)와 마주보고 있다.

큰고래들 [들]

[위치] 부처동 남서쪽, 옛 중앙선 철길에 있는 들을 말한다. 작은고래들의 남쪽에 붙어있는 들이다.

큰골(1) [골]

[위치] 솔농 마을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사기막산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2) [골]

[위치] 구룡골 끝에서 큰고개골과 갈라져 동쪽으로 구룡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북쪽으로 물탕골이 갈라져 나간다.

터골 [골]

[위치] 하구현 외누리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204.2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판관터 [마을] → 판대동

판관터들 [들]

[위치] 판대동 마을 남서쪽 삼산천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반관터들’이라고 하였다.

판교천(板橋川) [내] → 삼산천

[내용] 삼산천의 다른 이름이다. 『여지도서』 『관동지』에 ‘판교천(板橋川)’이라고 하였다.

[유래] 삼산천이 판대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판교천이라 하였다.



「판교천 ; 2020년」

판대국민학교 [학교] → 지정초등학교 판대분교

판대동(板垌洞, 判垌洞) [마을]

[위치] 판대리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옛 판대초등학교가 있던 마을이다. 이판관이 났다는 전설이 있다. ‘반관터’, ‘판관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판관터(判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판대리(반관터)’라 하였다.

[유래] ‘넓은 터’에 마을이 섰으므로 판대(板垌)라 하였다. 1910년대 이후 한자를 ‘판대(判垌)’로 적으면서 판관이 났다는 유래가 생겼다. 지금은 판대(判垌)로 정착되었다.

[풀이] ‘판(板)’은 넓은 들, 또는 넓은 터에 붙는 지명소이다. ‘판대(板垌)’는 넓은 터라는 뜻이다. 판교(板橋)는 넓은 들의 뜻인 ‘너다리·너더리’를 나타낸 것이다. ‘넓+달>널달>너더리·너다리’이다. ‘널다’는 뜻의 ‘널’을 ‘널(판자)’로 보아 ‘판(板)’을 취하고, ‘다리·더리’를 ‘다리’로 보아 ‘교(橋)’를 취하여 판교(板橋)라 하였다.



「판대동 마을 ; 2020년」

판대동천(板垌洞川) [내]

[위치] 판대동 윗골을 따라 난 개울을 말한다. 산내터골에서 북동쪽으로 흘러내려와 앞들에서 삼산천에 합류한다.

판대뒷고개 [고개]

[위치] 판대동에서 남서쪽으로, 윗골을 거쳐 대송치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판대뒷고개’라 하였다.

판대리(板垌里) [마을] → 판대동

[내용] 좁게는 판관터(판대동)를 의미하고 넓게는 판대리 전체를 말한다.

판대리 도요지 [터] → 사기막터

판대리 빙벽 [산]

[위치] 장지교 삼봉쉼터 남서쪽, 수리봉 북동쪽 아

래, 삼산천 옆에 있는 인공 빙벽을 말한다. 겨울에 인공 빙벽을 만들어 빙벽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판대분교 [학교] → 지정초등학교 판대분교

판대역(判垞驛) [역]

[위치] 하구현교 북쪽, 속골산 남쪽, 삼산천 옆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역을 말한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소속으로 아랫배내 동쪽 강 건너에 있다.

[유래] 1965년 개업할 때 경기도 삼산리(三山里) 지역이었으나 장항선 삼산역과의 명칭 중복을 피해 인근 지명 판대리를 따와 판대역(判垞驛)이라 하였다. 1965년 12월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1년에 신호장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에 역사를 남쪽 강 건너 아랫배내로 옮기고 삼산역(三山驛)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판대역에서 간현역까지 옛 중앙선 철로를 따라 원주레일바이크가 운용되고 있다.



「판대역 ; 2019년」

판대역 출렁다리 [다리]

[위치] 옛 판대역 앞에 있던 삼산천의 다리를 말한다.

[내용] 판대역에서 서쪽 아랫배내로 놓여 있던 현수교였다. 오래 전에 철거되었다. 다리를 세웠던 시멘트 기단이 남아있다.

판대유원지 [유원지]

[위치] 판대리 일대 장지동에서 판관터에 이르는 삼산천의 강변을 말한다. 비지정 관광지이다.

판대터널 [굴]

[위치] 판대리 부처동과 판대동 사이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기차 굴을 말한다.

하구재 [마을] → 하구현

하구현(下九峴) [마을]

[위치] 구재 마을 중 중구현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앙선 철로가 지나는 구재골 입구에서 솔농과 모래자리들을 지나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현 광주원주고속도로가 마을 뒤로 지나가고 있고 마을 뒤에 판대1터널과 판대1교가 있다. ‘하구재’, ‘아래구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아리구지(下九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하구재(하구현)’라 하였다.



「하구현 마을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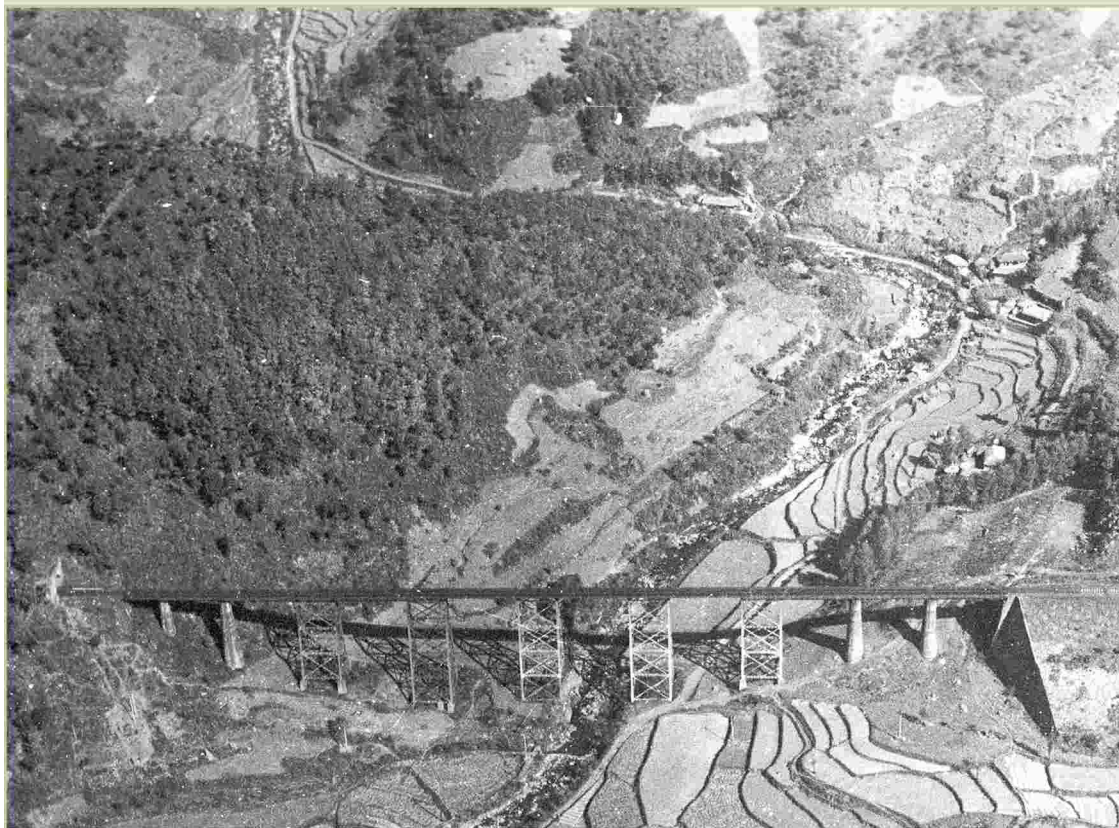
헛가마골 [골]

[위치] 옛 판대역 남쪽 아래 삼산천에서 하구현 달랑고개 서쪽, 갯바우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수교(懸垂橋) [다리] → 출렁다리

제9편

판부면(板富面) 지명(地名)



판부면 금대리 백척철교 ; 1971년

[위치]

판부면은 원주시 중앙에서 남쪽에 있으며 원주시청에서 약 6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향로봉과 남대봉 및 가리파를 잇는 산줄기를 경계로 하여 신림면 성남리와 횡성군 강림면, 서쪽으로는 흥업면 흥업리·매지리, 남쪽으로는 신림면 금창리와 충북 제천시 백운면, 북쪽으로는 무실동·명륜동·관설동·단구동과 각각 접하고 있다.

[연혁]

판부면(板富面)은 원주군(原州郡)의 판제면(板梯面)과 부흥사면(富興寺面)을 통합하여 생긴 이름이다.

1910년도를 기준으로 판제면은 상1리·하1리·본2리·분2리·본3리·분3리를 관할하였다. 그 지역은 현재의 단구동·관설동·금대리·서곡리·무실동 지역으로 원주천의 서쪽 지역이었다. 부흥사면은 1리~5리를 관할하였는데 그 지역은 현재의 흥양리·행구동·반곡동·관설동으로, 가리파재에 이르는 원주천의 동쪽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두 면을 통합하면서 원주군 판부면이 되어 관설·금대·단구·반곡·서곡·행구의 6개 리를 관할하였다.

1937년 원주면이 원주읍(原州邑)으로 승격할 때 단구리 일부를 원주읍 개운동으로 이관하였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단구리와 행구리를 원주시에 이관하고 원성군(原城郡) 판부면이 되었다.

1973년 관설리와 반곡리를 원주시에 이관하였다.

1982년 관설동의 신촌이 판부면으로 다시 편입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다시 원주군으로 됨에 따라 원주군 판부면이 되었다.

1995년 원주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원주시 판부면이 되었다.

[유래]

부흥사면(富興寺面)과 판제면(板梯面)을 통합하면서 각각 머리글자를 따서 판부면(板富面)이라 하였다. 부흥사면은 소초면 흥양리의 옛 부흥사(富興寺)에서 연유한 이름이고, 판제면은 단구동의 ‘너더리’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판부면사무소 ; 196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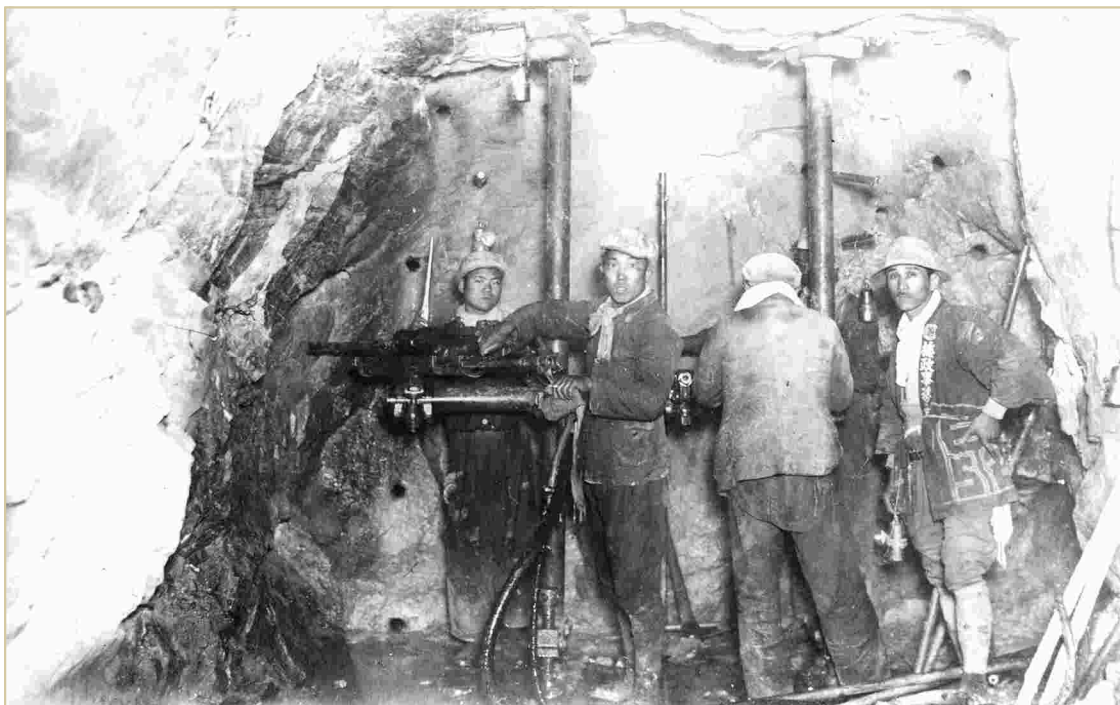
판부면사무소 ;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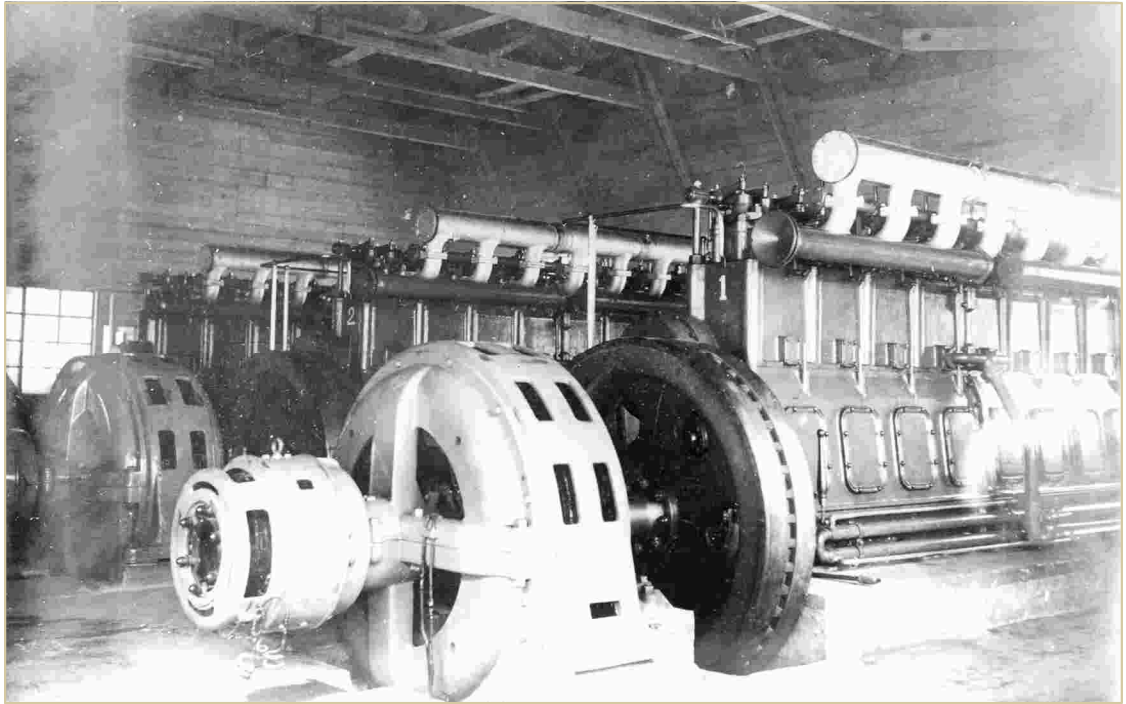




금대리 치악터널 굴착공사(1) ; 193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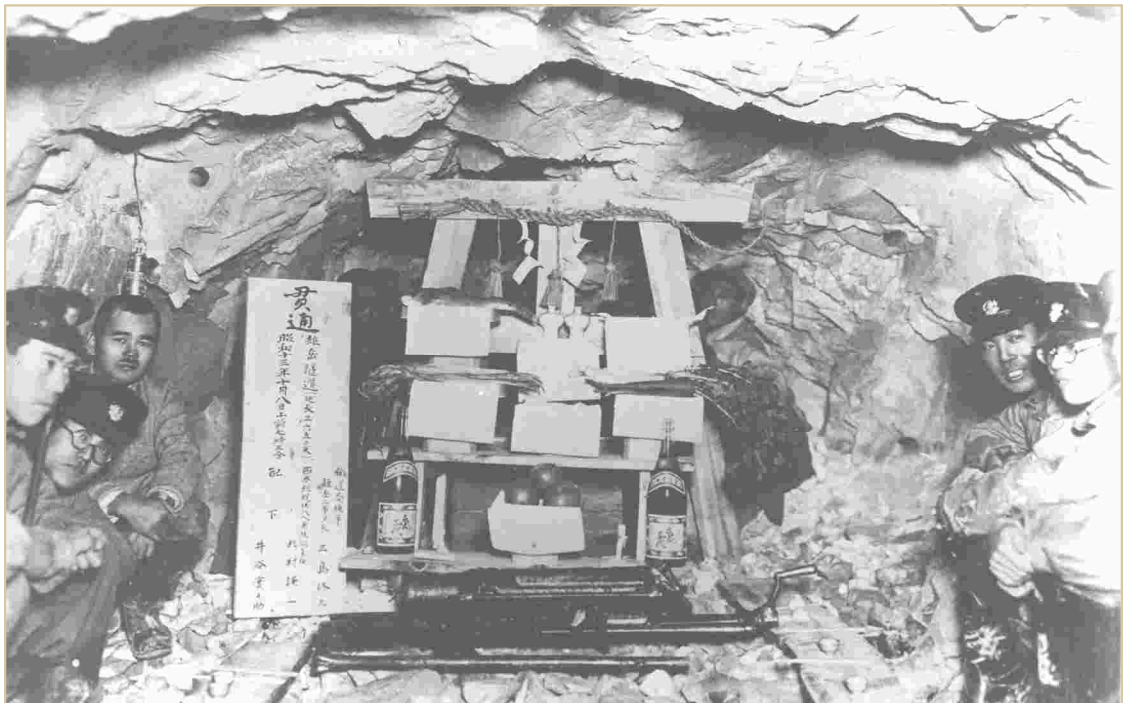
금대리 치악터널 굴착공사(2) ; 193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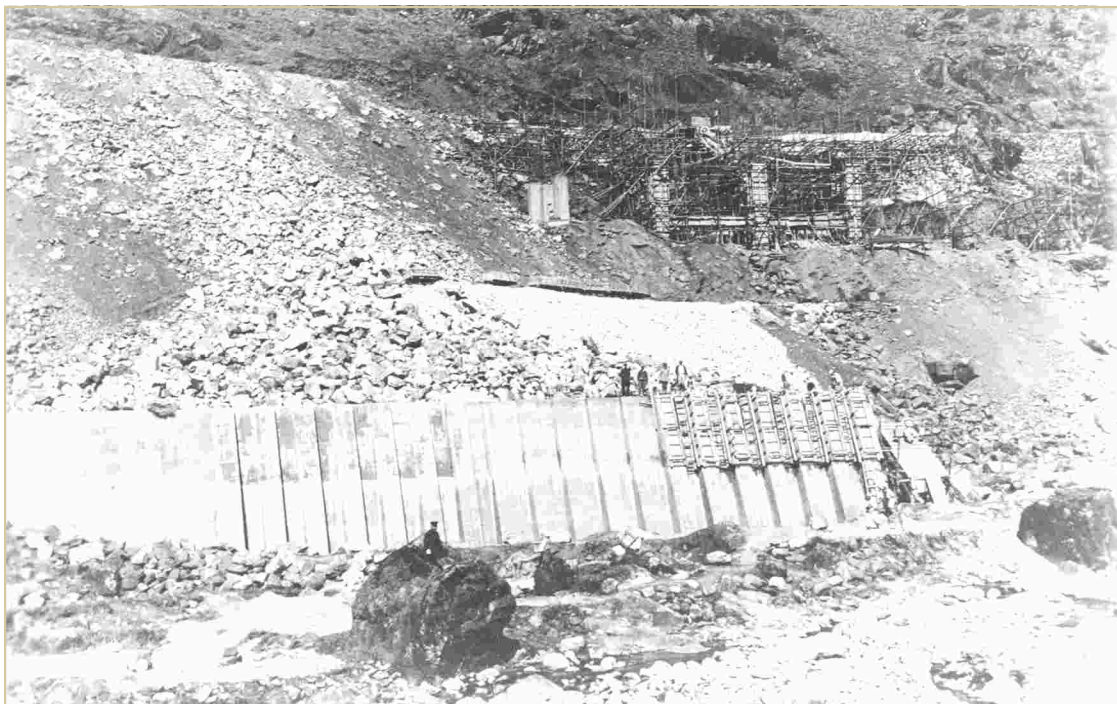




금대리 치악터널 굴착공사(3) 굴착기계 ; 193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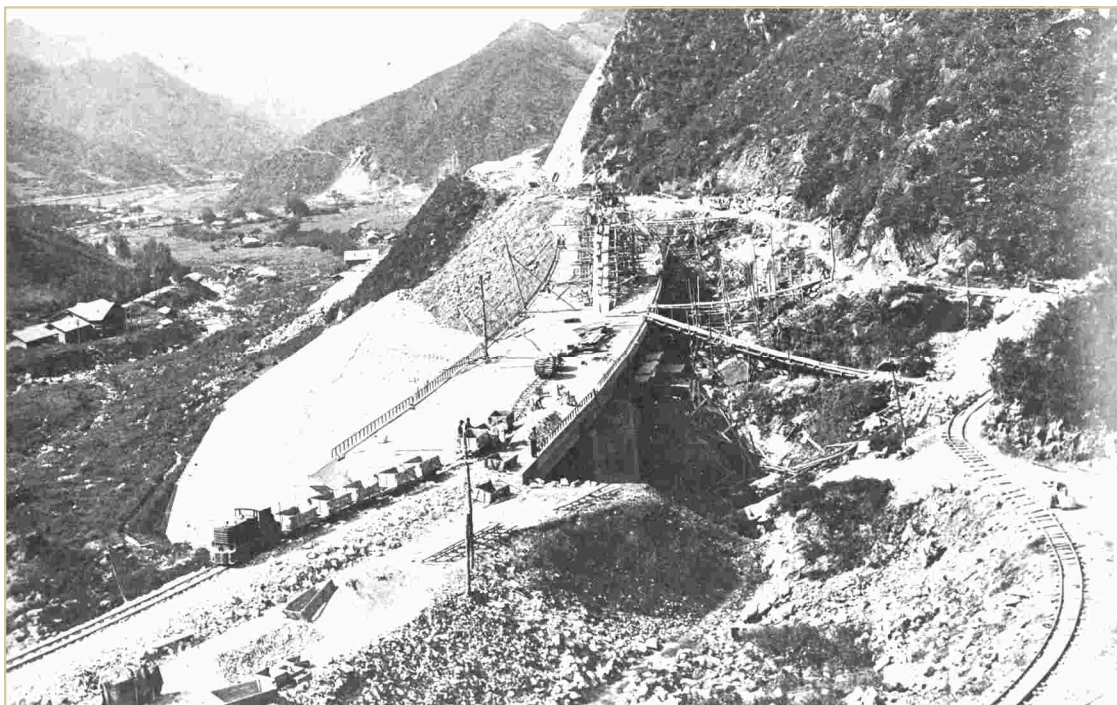
금대리 치악터널 굴착공사(4) 관통식 ; 1938년





금대리 철도교각 공사(1) ; 19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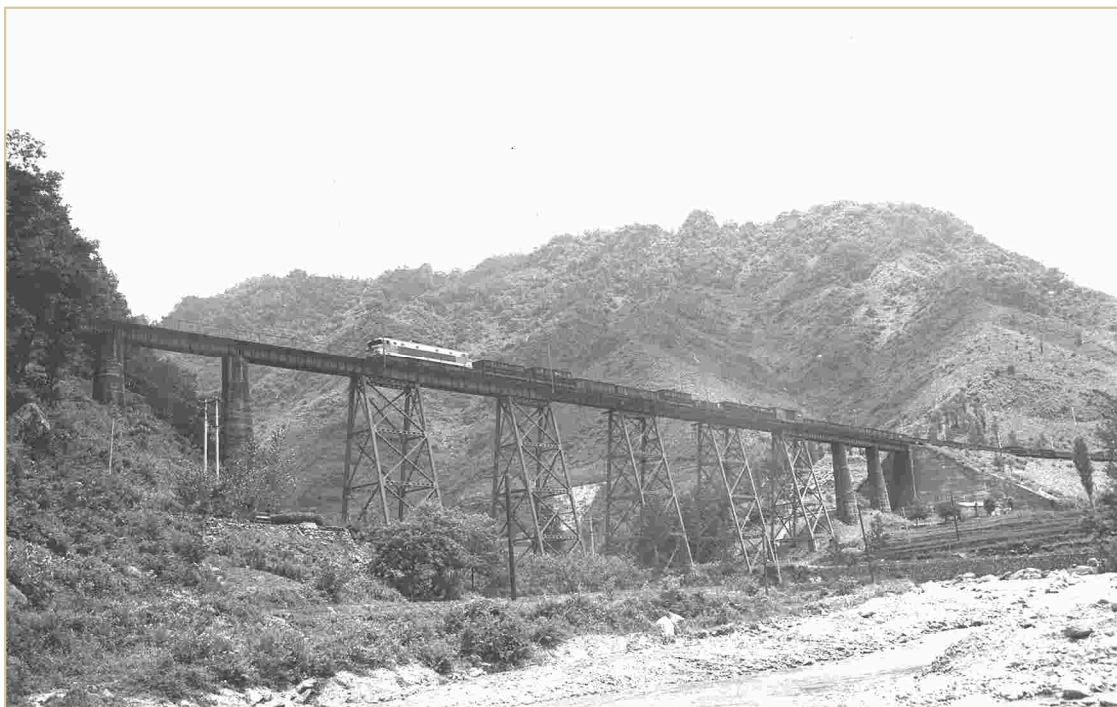
금대리 철도교각 공사(2) ; 19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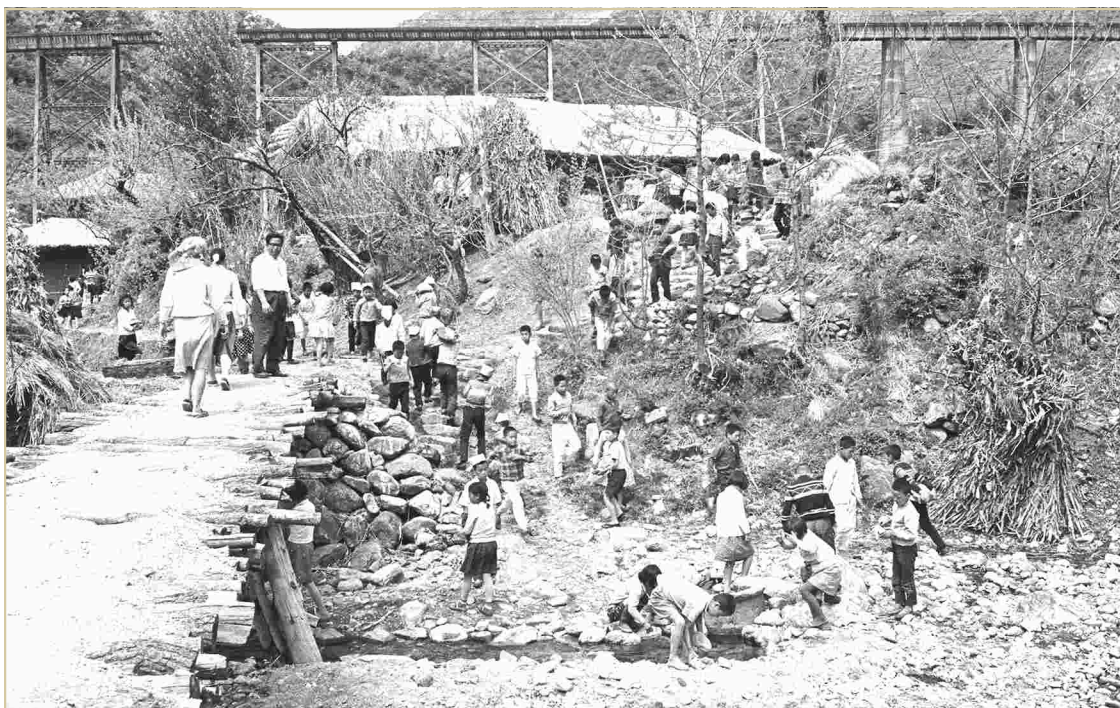




금대리 백척철교 ; 1951년

금대리 백척철교 ; 1973년





금대리 수해복구 ; 1968년

금대리 삼거리 ;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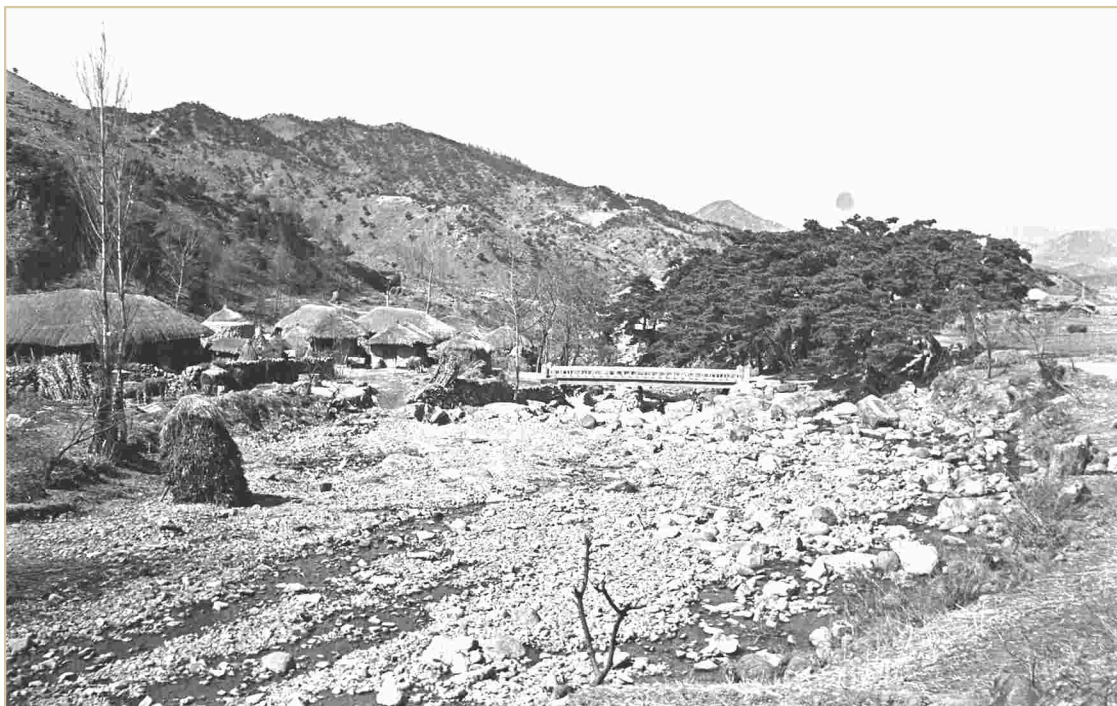




금대리 금대교 준공식 ; 1982년

서곡리 외남송회관 낙성식 ; 1963년





서곡리 용수골 ; 1965년

서곡리 도로확장공사 준공식 ; 1991년





신촌리 판부면 편입 환영식 ; 1983년

판부면 금대리 ; 2015년



금대리(金垆里)

[위치]

금대리는 판부면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황성군 강림면 부곡리, 서쪽으로는 신촌리, 남쪽으로는 신림면 금창리와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북쪽으로는 관설동과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 부흥사면(副興寺面)의 일리(一里)와 판제면(板梯面)의 본이리(本二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도사·한여·회론·원동·문현·일론을 병합하여 금대리(金垆里)라 하고 판부면에 편입하여 원주군 판부면 금대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면서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판부면 금대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가 되었다.

[유래]

‘금대(金垆)’ 지명은 ‘물’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물 옆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가에 마을이 있으므로 ‘못(물)+터>못터>무쇠터’인데 무쇠를 금(金)으로, 터를 대(垆)로 취하여 금대(金垆)가 되었다.

금대(金垆)를 뜻풀이하여 금항아리가 묻혀 있다는 유래담이 전한다.

[풀이]

‘금대(金垆)’는 물과 관련된 지명이다. ‘물’의 옛말 ‘못·못’이 개음절로 발음되면 ‘므스·무수’가 되어 ‘못막>무수막’, ‘못점>무쇠(수)점’, ‘못터>무쇠(수)터’가 된다. 이를 한자로 수철(水鐵), 금대(金垆)라 하였다. 한편 못막이 폐음절로 발음되면 ‘못막>문막’이 된다.

따라서 금대리는 ‘못(水)+터(垆)>못터>무수(쇠)터>금대(金垆)’가 된 것으로, 풀이하면 ‘물터’, ‘물가 마을’이라는 뜻이다.

가는골(1) [골]

[위치] 느릅실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57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는골(2) [골]

[위치] 한여 마을에서 서쪽으로, 66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는골(3) [골]

[위치] 영원사 위 송골 상류에서 남쪽으로, 90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깊은 골짜기를 말한다.

가래골 [골]

[위치] 치악산국립공원 금대분소를 지나 북서쪽 해미산성의 북편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 서쪽에 관설동 옥개골이 있다. ‘가랫골’이라고도 한다.

가래골 [마을]

[위치] 일론 북쪽, 가래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가랫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랫골’이라 하였다.

[풀이] 갈래를 뜻하는 ‘가래’와 ‘골’이 합쳐진 이름으로 ‘가래+골>가래골>가랫골’이 되었다. ‘골짜기’가 갈라진 곳, 또는 거기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가랫골 [골] [마을] → 가래골

가리파(加里坡) [마을] → 신림면 금창리 가리파

가리파고개 [고개] → 가리파재

가리파골 [골]

[위치] 금대리 원동에서 시작하여 신림면 금창동 둔창에 이르는 옛 중앙선 철로의 터널을 말한다. ‘치악골’, ‘십리굴’이라고도 하고, 신림 쪽에서는 ‘둔창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십리굴(가리파골)’이라 하였다.

[유래] 이 터널은 길이가 3,650m로, 약 10리가 되므로 ‘십리굴’이라고 하였다.

가리파성황당 [당]

[위치] 가리파재 고갯마루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옛날 가리파와 싸리치를 넘어 다니던 보부상들이 호랑이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달라며 고갯마루에 성황당을 짓고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1890년대에 성황계가 조직되어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를 올렸다. 새마을운동 때 없어졌다가 다시 복원하였다.

이곳에는 백운산신을 모시고 싸리치에는 치악산신을 모셨다. 싸리치 성황당과 함께 해마다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같은 날 제를 올리는데 싸리치에서 제사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가리파제에는 꼭 참석한다고 한다. 현재 고갯마루에 성황당이 있고 비에는 계원 40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가리파성황당 ; 2019년」

가리파재 [고개]

[위치] 판부면 금대리와 신림면 금창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약 450m이다. ‘가리파치’, ‘가리파고개’, ‘잿말랭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가리파지(加里坡峙)’라고 하였다.

[내용] 『여지도서』에 ‘가리파지(加里破峙)’라 하였고, 『강원도원주군읍지』에 ‘고을 동쪽 30리에 있다. 제천·주천(酒泉)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가리파지(加里坡峙)’, ‘가리파지(加里坡峙)’라 하였고 부흥사면(富興寺面) 1리 원동(院洞)에 있다고 하였다. 이 고개를 지나는 중

앙고속도로에 치악재라는 이름을 붙인 이후 현재는 ‘치악재’로 불리고 있다.



「가리파재 : 2020년」



「가리파재 표석 : 2020년」

가리파치(加里破峙) [고개] → 가리파재

강아지바우 [바위] → 복실이바우

개미목 [길]

[위치] 치악산 남대봉 북쪽 능선에 있는 V자 형의 좁은 바윗길을 말한다.

[유래] 바위 틈 사이로 나 있는 능선길이 V자로, 개미목과 같이 잘록하게 나 있으므로 개미목이라 하였다.

거북바우(1) [바위]

[위치] 양금대 금대초등학교 서쪽 거북바위집 식당 마당에 있는 크고 넓은 바위를 말한다.

[내용] 집 마당에 있는 큰 바위가 마치 거북이 엎드린 것 같으므로 거북바우라 한다. 옛날에는 바위 옆에 방앗간이 있었다.



「거북바우(1) : 2019년」

거북바우(2) [바위]

[위치] 치악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남쪽 산길 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마치 목을 낸 거북처럼 생겨서 거북바우라 한다.

고비장골 [골]

[위치] 양금대 금대골 중간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남쪽 고개 너머에 일론골이 있다.

고지골 [골]

[위치] 양금대들 중간에서 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공동미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 끝에 옛 중앙선 철로가 있다.

골박 [마을]

[위치] 회론 마을 중 회론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골 안에서 보아 바깥쪽, 골짜기 입구에 있으므로 ‘골박’이라고 부른다.

곰네미 [마을]

[위치] 대도사 마을 동쪽 원주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곰네미교 건너편에 있다.

곰네미골 [골]

[위치] 음금대 곰네미 마을 남쪽에서 남서쪽으로 39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대도사골 남쪽에 있다. 골 너머에 일론골이 있다.

[유래] 옛날에 곰이 넘어 다녔으므로 곰네미라 하

였다.

곰네미들 [들]

[위치] 음금대 곰네실 마을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곰네미보 [보]

[위치] 곰네미보들 상류, 무두러니 마을 앞에 있는 원주천의 보(狀)를 말한다. 곰네미보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곰네미보’라고 하였다.

곰네미보들 [들]

[위치] 대도사 남동쪽, 곰네미 마을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곰네미보에서 물을 끌어온다.

곰네실 [마을]

[위치] 음금대 마을 중 남쪽, 곰네미골과 우무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청심원식물원이 있는 마을이다.

곰바우(1) [바위]

[위치] 문현 북쪽, 함박골 남서쪽의 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곰바우(2) [바위]

[위치] 해미산성의 곰바우봉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곰바우봉 [산]

[위치] 솟둔봉 남쪽, 해미산성에 있는 629.7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치악산국립공원 금대분소의 북서쪽, 가래골의 서쪽에 있다. ‘곰바우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곰바우가 있으므로 곰바우봉이라 하였다. 또는 옛날 치악산에 사는 곰들이 무리지어 금대동 북쪽 산릉을 넘나들어서 곰바우봉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곰바우봉을 중심으로 하여 해미산성이 있고, 산성 안에 방석소나무가 있다.

곰바우산 [산] → 곰바우봉

곰동미골 [골]

[위치] 옥개울 남쪽, 양금대들 동쪽 편에서 동쪽 해

미산성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서 성골과 마주친다.

광암(廣岩) [마을]

[위치] 양금대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너령바우(廣岩)’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광암(廣岩)’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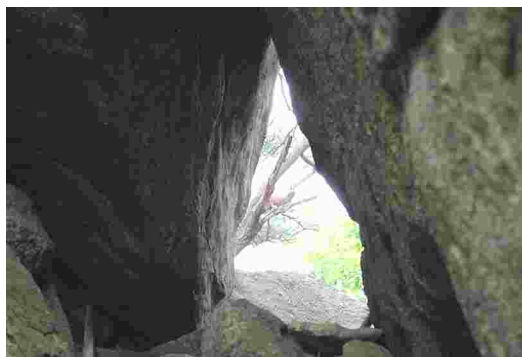
[유래] 마을에 넓은 바위가 있어서 너령바우라 하였다. 이를 한자로 광암(廣岩)이라 하였다.

구대울 [마을] → 금대리

구멍바우 [바위]

[위치] 벼락바우봉 동쪽 옆에 있는 좁은 구멍이 난 바위를 말한다. ‘해산굴’, ‘산파바우’, ‘산부인과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좁은 바위구멍으로, 마치 자궁과 같다고 하여 구멍바우, 해산굴, 산파바우, 산부인과바우라 부른다.



「구멍바우 ; 2018년」

굴바우골 [골]

[위치] 함박골 마을 위에서 북동쪽, 높이 811m의 수리봉(1)을 향하여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허궁다리골 북쪽 위에 있다. ‘큰바우골’이라고도 한다.

극나감골 [골]

[위치] 영원사 서쪽 아래에서 남동쪽으로, 942.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금교역(金交驛) [역]

[위치] 금대초등학교 동쪽 위, 느릅실 입구에 있는

옛 중앙선 신호장을 말한다.

[유래] 역이 위치한 지명인 ‘금대리’의 ‘금(金)’자와 교행의 ‘교(交)’자를 합쳐 금교역이라 하였다.

[내용]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의 선로용량 포화로 인하여 1977년에 신설되어 신호장으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1995년에 유인신호장으로 승격하였으며, 2005년 무인신호장으로 격하되었다. 역 남동쪽 치악역과의 사이에 백척철교와 또아리굴이 있다.

금대계곡 [골]

[위치] 금대리의 주된 계곡으로, 백척철교 북쪽으로 이어진 큰 골짜기를 말한다. ‘길아천계곡’, ‘치악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대개 금대리에서 치악산에 이르는 골짜기 전체를 치악골이라 통칭하고 금대리를 중심으로 한 남쪽 입구는 금대계곡으로 부른다. 한편 치악골은 영원사 입구에서 영원골, 길아치골로 갈라지고 길아치골은 다시 금두산성으로 난 금두계곡과 갈라진다.

금대곡(金垌谷) [마을] → 금대리

금대골(1) [골]

[위치] 금대리 전체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골짜기 이름이 마을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금대골’이라 하였다.

금대골(2) [골]

[위치] 양금대 금대초등학교 서쪽 원주천 건너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된양지 마을이 있고 마을 뒤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구디울(金垌谷)’이라고 하였다.

[내용] 골짜기 안에 쇠마답이 있다. 고개 서쪽 너머로 신촌리 큰범바우골을 지나 새말이 있다. 옛 날에는 신촌리 새말 학생들이 이 고개를 넘어서 금대초등학교를 다녔다.

금대들 [들]

[위치] 음금대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문앞보에서

물을 댈다. ‘금대평(金垌坪)’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금대평’이라 하였다.

금대들보 [보]

[위치] 음금대 앞 금대들에 있는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금디울보(金垌谷湫)’라고 하였다.

금대리소나무 [나무] → 방석소나무

금대봉(金臺峰) [산] → 보름가리봉

금대산성(金臺山城) [성] → 해미산성

금대성(金臺城) [성] → 해미산성

금대유원지 [유원지]

[위치] 금대계곡을 중심으로 한 유원지를 말한다. 계곡이 깊고 수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는다. 송어회와 민물고기 매운탕 등이 유명하다.

금대초등학교 애신분교 [학교]

[위치] 금대리 140-1, 반그려니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67년에 개교, 1984년에 금대초등학교에 통합되어 폐교되었다.



「금대초등학교 애신분교터 ; 2019년」

금대초등학교 일론분교 [학교]

[위치] 금대리 1312-3, 일론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67년에 개교, 1985년에 금대초등학교에 통합되어 폐교되었다.



「금대초등학교 일본분교터 : 2020년」

금대터널 [굴]

[위치] 세교터널 남쪽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터널을 말한다. 공동미골 위에 있다.

금대평(金垚坪) [들] → 금대들

금두계곡 [골]

[위치] 길아치 마을 앞에서 길아치골과 갈라져 북쪽 향로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서쪽 너머에 반곡동 한가터골이 있다.

[내용] 치악골은 영원사 앞에서 영원골과 길아치골로 갈라진다. 길아치 마을 아래에서는 길아치골에서 다시 금두계곡이 갈라져 나간다. 길아치골은 향로봉의 능선 남쪽 1,060m 봉우리를 향하고 금두계곡은 곧장 향로봉으로 향한다.

금두고원(金頭高原) [들]

[위치] 향로봉 남동쪽 아래의 비스듬한 버덩을 말한다. ‘치악평전’이라고도 한다. 금두산성이 있는 곳이다.

금두산성(金頭山城) [성] → 반곡리 금두산성

길아재 [고개] → 길아치

길아재봉 [산] → 길아치봉

길아천(吉峨川) [내]

[유래] 원주천의 상류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금대계곡이 길아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대계곡을 흐르는 원주천 상류를 ‘길아천’이라고도 부른다.

길아천계곡 [골] → 금대계곡, 치악골, 금두계곡

길아천철교 [다리] → 백적철교

길아치(吉峨峙)(1) [고개]

[위치] 일론에서 북서쪽으로, 반곡동 한가터로 넘어가는 긴 고개를 말한다. 솟둔골에서 솟둔재를 지나 북쪽으로 연결되는 고개이다. ‘길아재’, 질아재, ‘질아치’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650m이다.

[풀이] ‘길+(ㅈ)+재>길아재>질아재’, ‘길+(ㅈ)+치>길아치>질아치’가 되었다. ‘길’은 길다는 뜻이고 ‘재’와 ‘치’는 고개를 뜻하며 ‘ㅈ’는 매개모음이다. ‘갈>질’은 구개음화에 따른 변화이다.

길아치(吉峨峙)(2) [고개]

[위치] 일론에서 북쪽 골짜기를 따라 향로봉 능선 남쪽을 향하여 난 높이 1,036m의 고개를 말한다. 향로봉 능선의 남쪽을 넘어 황성군 강림면 부곡으로 가는 고갯길이다. ‘길아재’, ‘질아치’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길아치(吉峨峙)’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길아치(吉峨峙)’라 하였다.

길아치(吉峨峙) [마을]

[위치] 길아치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영원산성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길아치(吉峨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길아치(吉峨峙)’라 하였다.

길아치골 [골]

[위치] 영원골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1,06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치악골에서 영원골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향로봉 남쪽의 능선을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내용] 골 끝에 황성 강림으로 넘어가는 길아치(2)가 있고 골 안에 길아치 마을이 있다. 길아치 마을 아래에서 금두계곡이 다시 갈라져 나간다.

길아치봉 [산]

[위치] 금두계곡 서쪽, 큰솟둔재 북동쪽에 있는 높이 724.3m의 봉우리를 말한다. 봉우리 북서쪽 아래에 반곡동의 한가터가 있다. ‘길아재봉’이라고도

한다.

내원(內院) [마을]

[위치] 원동 내원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원골(院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내원(內院)’이라 하였다.

[유래] 원동 안쪽 골짜기, 내원골에 있는 마을이므로 내원이라 하였다.

내원골 [골]

[위치] 원동에서 북쪽으로, 내원 마을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원 마을에서 북나무골과 사시목재골로 갈라진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니원(內院)’이라고 하였다.

너령바우 [마을] → 광암

너령바우주막 [주막]

[위치] 광암 마을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너령바우주막(廣岩酒幕)’이라 하였다.

노고산성(老姑山城) [성] → 해미산성

노구산성(老嫗山城) [성] → 해미산성

녹수골 [골] → 한여골

높은다리골 [골]

[위치] 음금대 작은도새울골 터골(1) 위, 뒷들이골 중간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서쪽 너머에 신촌리 작은동막골과 동막골이 있다.

느릅실 [마을]

[위치] 양금대 마을 중 금대초등학교 동쪽의 큰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에 느릅실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느릅실’이라 하였다.

[유래] 느릅나무가 많으므로 느릅실이라고 하였다.

느릅실골 [골]

[위치] 양금대 느릅실에서 북동쪽으로, 해미산성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해미산성 남쪽을 지나 일론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 옛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고 골 중간에서 가는골

(1)이 갈라져 나간다.

[내용] 골짜기 안에 새번지 버덩, 물탕골, 가는골, 평풍바위 등이 있다.

달피바우 [바위]

[위치] 안다리실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달피바우골 [골]

[위치] 안다리실 달피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당거리 [마을]

[위치] 대도사 위 아흔아홉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골짜기 위 치마폭포에 이르기까지 화전민들이 살던 마을이다.

당건너골 [골]

[위치] 일론 당숲 맞은편에서 동쪽 589.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당들 [들]

[위치] 음금대 당숲 앞의 들을 말한다. 문앞보들과 새보들 사이에 있는 들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당들(堂坪)’이라고 하였다.

대도사(大道士) [마을]

[위치] 양금대 남동쪽, 아흔아홉골과 큰도새울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금대1터널과 치악4터널 사이,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대도사동’, ‘큰도새울’이라고도 한다. ‘큰도새울’을 한자로 적어 ‘대도사(大道士)’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도사동(大道士洞)’이라고 하였다.

대도사곡(大道士谷) [골] → 큰도새울

대도사골 [골] → 큰도새울

대도사동(大道士洞) [마을] → 대도사

대문바우 [바위]

[위치] 영원사 동쪽 아들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아들바우 동쪽 위 등산로에 있다.

[유래] 길 양옆에 바위가 거대한 문기둥처럼 서 있으므로 대문바우라 하였다.

대아옥골 [골] → 큰아옥실골

도독바우 [바위]

[위치] 가리파재 아래 반그리니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현 그린가든 식당 앞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옛날에 신림 사람들이 가리파재를 넘어 원주장에 갈 때 바위 뒤에 산적들이 숨어 있다가 소 또는 소 판 돈을 빼앗곤 하였으므로 도독바우라 하였다.



「도독바우 ; 2019년」

도라네미 [고개]

[위치] 도라네미골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남쪽에 찰방망이로 들어가는 반그리니가 있다. 고개 높이는 427m이다.

[유래] 골짜기 입구에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휘어 돌아 넘어가므로 '도라네미'라고 하였다.

[풀이] '돌+(아)+넘+이>돌아넘이>도라너미>도라네미'가 되었다. '아'는 매개모음, '이'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도라네미 [골]

[위치] 원동에서 내원으로 가는 내원골의 첫 번째 골짜기를 말한다. 내원골에서 동쪽으로 452m 봉우리와 455m 봉우리 사이로 난 골짜기이다.

도사골 [골] [마을] → 도새울

도사골고개 [고개] → 도새울고개

도사동(道士洞) [마을] → 도새울

도삿골 [골] [마을] → 도새울

도새울 [골]

[위치] 음금대 마을 남쪽에서 남서쪽으로 난 두 골

짜기로, '큰도새울'과 '작은도새울'을 총칭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도사골', '도새울골'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도사곡(道士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도삿골(도사동道士洞)'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돼지가 많았으므로 도새울, 도새울골이라 하였다.

[내용] 음금대 남쪽 소도사 마을이 있는 골짜기를 '작은도새울'이라고 하고 소도사 마을 남쪽 대도사 마을의 남쪽 골짜기를 '큰도새울'이라고 한다.

[풀이] 돼지의 옛말은 '돛, 돛, 돛'이다. '돛+울(골, 굴)>돛(ㄱ)울>도새울'이 되었다. '골, 굴, 울'은 골짜기 또는 골짜기에 들어선 마을을 뜻한다. 'ㄱ'는 매개모음이다.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도사곡(道士谷)', '도사동(道士洞)'이라 하였다.

도새울 [마을]

[위치] 음금대 남쪽에 있는 마을들을 말한다. '소도사'와 '대도사'가 있다. '도사골', '도사동'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삿골(도사동道士洞)'이라 하였다.

도새울고개 [고개]

[위치] 아흔아홉골 남쪽 끝, 빈대절터 남동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보름가리봉 서쪽, 중재 동쪽에 있다. 고개 높이는 810m이다. '도사골고개'라고도 한다.

도새울골 [골] → 도새울 [골]

독바우(1) [바위]

[위치] 일론 큰영아지골 입구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사람이 바위를 판 흔적이 있다.

독바우(2) [바위]

[위치] 내원골 안 독바우골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내용] 바위 안에서 물이 나오므로 한국전쟁 때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피난생활을 했다고 한다. 산사태가 나서 물이 끊어지고 난 후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

독바우골 [골] → 샘터골

[위치] 내원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샘터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독처럼 생긴 바위가 있으므로 독바우골이라고 하였다.

된양지 [마을]

[위치] 양금대 금대초등학교 남서쪽, 금대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둔창골 [골] → 가리파골

뒷골 [골]

[위치] 회론에서 남쪽 위로 벼락바우봉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는 ‘시내미골’, ‘물개비골’, ‘중고개골’, ‘배나무골’이 있다.

뒷골 [마을]

[위치] 회론 뒷골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뒷들 [들]

[위치] 회론 북서쪽, 한여 남동쪽 원주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백척철교의 남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뒷들보 [보]

[위치] 뒷들에 있는 원주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뒤뜰보(後坪洑)’라고 하였다.

뒷들이골 [골]

[위치] 작은도새울 안 터골(1)에서 일론골과 갈라져 남서쪽으로, 69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높은다리골이 서쪽으로, 신촌의 동막골을 향하여 다시 갈라져 나간다.

또아리굴 [굴]

[위치] 금대계곡 입구 백척철교 동쪽에 있는 옛 중앙선 철교의 터널을 말한다. ‘회전굴’, ‘회전터널’, ‘회론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회론굴(파리굴)’이라 하였다.

[유래] 기차 철로가 굴속에서 360도로 원을 그리며 고도를 높여서 나가므로 파리를 틀었다고 하여

또아리굴이라 하였다.

[내용] 또아리처럼 원형으로 한 바퀴 돌아 치악산을 뚫고 신림 방면으로 나간다. 또아리굴 속에는 종유석 동굴이 있는데 이 속에는 작은 연못과 종유석 및 넓은 광장이 있다. 한국전쟁 때는 국군 및 지역주민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굴의 길이는 1,970m이다.

뽕바우 [바위]

[위치] 음금대 마을 동쪽 원주천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작은도새울 북쪽 아래, 소도사 마을 북동쪽에 있던 바위이다. 현 장수춘식당의 동쪽 냇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유래] 옛날 이 바위에서 동쪽 건너편 산으로 건너뛰며 놀았으므로 뽕바우라 하였다.

마당바우골 [골]

[위치] 내원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마당박골 [골]

[위치] 아흔아홉골 안, 당거리 마을 남서쪽 골짜기의 서쪽으로, 69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치마폭포 북쪽 아래에 있다.

만경대(萬景臺) [바위]

[위치] 남대봉 북서쪽 능선 등산길에 있는 1,154m 높이의 암벽을 말한다. ‘망경대’, ‘만물상’이라고도 한다.

[유래] 바위에 서면 치악산 남서쪽의 전경이 한 눈에 모두 내려다보이므로 ‘만경대’, ‘망경대’라고 부른다.

만물상(萬物像) [바위] → 만경대

망경대(望景臺) [바위] → 만경대

매골 [골]

[위치] 음금대 남서쪽 우무골 바로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목너미골 [골]

[위치] 일론 큰응아지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창해지골 남쪽 맞은편에서 남쪽으로, 678m 높

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무두러니 [마을]

[위치] 금대삼거리 동쪽, 금대계곡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백척철교와 토아리굴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문두러니’, ‘문더러니’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문현(門懸)’이라고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문더러니(門懸)’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문현(門懸, 무두러니)’라 하였다.

[유래] 마을의 삼면을 물이 둘러싸고 있으므로 ‘물두러니>무두러니’라 하였다. 또는 치악골과 회론골의 입구가 되므로 문두러니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무두러니’는 현 치악로 금대삼거리 동쪽 아래, 옛 중앙선 철로의 백척철교와 토아리굴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북쪽에서 금대계곡의 길아천이 길아치와 일론을 거쳐 내려오고, 남동쪽에서는 가리파와 다리실에서 시작하여 반그러니를 거쳐 내려오는 물이 합치는 삼각지점에 마을이 있다. 마을의 남쪽과 북쪽, 서쪽 3면이 내로 둘러싸이고, 동쪽은 중앙선 철로의 토아리굴이 높이 있으므로 물로 둘러싸인 형국이다. 물로 둘러싸였으므로 ‘물두러니>무두러니’라 하였다.

[풀이] 마을 남쪽의 원주천과 북쪽의 금대계곡의 물이 합쳐지는 삼각지점에 있어 마을을 물이 둘러싸고 있으므로 ‘물두러니>무두러니, 문더러니’라고 하였다. ‘문현(門懸)’은 ‘무두러니’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무, 문’은 소리를 따라 ‘문(門)’으로 표기하였고 ‘두러니’를 ‘달다, 매달다’로 보아 ‘현(懸)’으로 적었다. ‘현(懸)’의 뜻은 ‘매달다’이다.



「무두러니 마을 : 2019년」

문더러니 [마을] → 무두러니

문두러니 [마을] → 무두러니

문바우 [바위]

[위치] 안다리실 안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문짝같이 생겨서 문바우라 한다.

문바우골 [골]

[위치] 안다리실의 문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문앞보 [보]

[위치] 문앞보들 앞에 있는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곰네미들에 물을 댄다.

문앞보들 [들]

[위치] 음금대 서쪽, 양금대 남쪽 원주천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새보의 물을 댄다.

문현(門懸) [마을] → 무두러니

물개비골 [골]

[위치] 회론 뒷골 상류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백운사가 있고 골 끝에 회론재가 있다. 회론재 너머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중산마을이 있다. ‘물구비골’이라고도 한다.

물구비 [골]

[위치] 아흔아홉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물구비골 [골] → 물개비골

물탕골 [골]

[위치] 느릅실골 중간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므로 물탕골이라고 한다.

미사리들 [들]

[위치] 옥개울 서쪽 내 건너, 현 산성교 서쪽 도로변의 들을 말한다.

미사리보 [보]

[위치] 미사리들에 있는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미사리보(美四里湫)’라 하였다.

바랑소 [소]

[위치] 영원사 밑에 있는 길아천의 소(沼)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마치 중이 지고 다니는 바랑 같다고 하여 바랑소라 하였다 한다. 지금은 거의 다 메워지고 흔적만 남아있다.

[풀이] ‘바랑’은 ‘벼랑’의 방언이다. 벼랑 아래에 소가 있으므로 바랑소라 하였다. 바랑소의 유래로는 거의가 바랑을 닮았다는 것으로 전한다.

반그려니 [골]

[위치] 원동 앞에서 남동쪽으로 가리파재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에 중앙고속도로 고가도로가 지나고 있다. ‘반그레’라고도 한다.

반그려니 [마을]

[위치] 원동 남동쪽 반그려니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애신분교가 있던 마을로, 현 마을 입구에 벨리모텔이 있고 마을 앞개울에 옛 반그레교가 남아있다. ‘반그레’라고도 한다.

[내용] 옛 금대초등학교 애신분교를 중심으로 하여 원동 위쪽에서 도둑바우가 있는 곳까지의 마을을 말한다. 화전민들이 약 60여 가구 살고 있었다. 마을에서 남쪽으로 예찬이골이 갈라져 나간다.



「반그레교 ; 2019년」

반그레 [골] [마을] → 반그려니

방석소나무 [나무]

[위치] 해미산성 안에 있는 수령 약 350년의 소나무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방석같이 생겨서 방석소나무라고 부른다.



「방석소나무 ; 1991년」

배나무골 [골]

[위치] 회론 뒷골 끝에서 중고개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고개골과 갈라져 마주보고 있다.

배나무쟁이 [들]

[위치] 곰네미 마을 남쪽, 곰네미보들 남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배나무쟁이보 [보]

[위치] 배나무쟁이들에 있는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백운산(白雲山) [산]

[위치] 아흔아홉골 남서쪽 큰마당박골 끝에 있는 높이 986m의 산을 말한다. 보름가리봉 서쪽, 백운산(1,087.1m)의 북동쪽 능선에 있다. 이 백운산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산을 ‘작은백운산’이라고 부른다.

백척철교(百尺鐵橋) [다리]

[위치] 금대리 계곡 입구, 함박골 앞에 있던 옛 중앙선 철로의 철교를 말한다. ‘길아천철교’, ‘빨간다리’라고도 한다.

[유래] 높이가 33m로 백척(1尺은 약 33cm)이 되므로 백척철교라 하였다. 길아천 위에 있으므로 원래의 정식명칭은 ‘길아천철교’이다. 다리의 철제 교

각을 빨간 페인트로 칠하였으므로 ‘빨간다리’라고도 하였다.

[내용] 1942년 중앙선 개통 때 준공된 철제 교각의 다리이다. 한국전쟁 때 파손된 것을 미군 공병대가 복구하였고,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옆에 새로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으면서 1996년에 철거되었다. 철제 교각을 세운 높이 33m, 길이 232m의 다리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다리였다. 옛 철교 옆에 콘크리트로 새로 만든 다리는 높이 27m, 길이 185m로, 이 다리도 국내에서 가장 높다.



「백척철교 ; 1969년」

벼락바우 [바위]

[위치] 벼락바우봉 동쪽 옆 849.9m 높이의 봉우리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벼락을 맞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으므로 벼락바우라 부른다.



「벼락바우 ; 2018년」

벼락바우봉 [산]

[위치] 금대리 회론 배나무골 남쪽 끝에 있는 높이 939m의 산을 말한다. 회론재 동쪽, 찰방매기 고개 서쪽에 있다. 판부면 금대리와 신림면 금창리, 제천시 백운면과 경계를 이룬다. 현 치악산자

연휴양림 남서쪽 뒤에 있는 산이다.

[유래] 산봉우리 동쪽에 벼락바우가 있으므로 벼락바우봉이라 부른다.

[내용]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와 신림면 금창리,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치악산자연휴양림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길에 ‘칠성바우’, ‘거북바우’ 등이 있고, 사람이 겨우 기어나갈 정도의 삼각형의 좁은 바위 구멍이 있는 ‘구멍바우(산파바우)’를 빠져나와 정상에 이른다.

보름가리봉 [산]

[위치] 한여에서 남쪽으로 난 녹수골 끝, 한여재 서쪽에 있는 높이 889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동쪽에 수리봉이 있고 서쪽에 작은백운산, 남서쪽 멀리 백운산이 있다. ‘금대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보름가리봉 북쪽 아래 아흔아홉골 당거리의 화전민들이 귀리, 조, 팥 등을 심기 위해 밭을 가는데 비탈인데다가 돌이 많아서 보름이나 걸려야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수 있었으므로 ‘보름같이>보름가리’라 하였다고 한다.

복실이바우 [바위]

[위치] 찰방망이고개 동쪽 능선, 찰방망이봉 앞에 있는 바위로 ‘강아지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바위의 모양이 복슬강아지를 닮아서 붙인 이름이다.

봉말림골 [골]

[위치] 양금대동 서쪽 내 건너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521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터골(2) 북쪽, 큰아옥실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복나무골 [골]

[위치] 내원에서 북쪽으로, 높이 811m의 수리봉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사시목재골이 갈라져 나간다.

불바우골 [골]

[위치] 함박골 마을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빈대절터 [터]

[위치] 아흔아홉골 끝, 중재 북쪽 아래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빨간다리 [다리] → 백척철교



「빨간다리 ; 1983년」

삿꼭소 [소]

[위치] 일론에 있는 길아천의 소(沼)를 말한다.

사시목재골 [골]

[위치] 내원 북쪽, 북나무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898.8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사천왕사터(四天王寺-) [터]

[위치] 내원골 입구, 원동 마을에 있는 옛 절의 터를 말한다.

[내용] 1989년 실시된 중앙고속도로 예정지 지표 조사에서 석탑재와 축대 및 기와편들이 출토되어 1991년에 발굴하였다.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 초기까지 있던 절로, 사천왕사터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옛 중앙선 철로 공사와 광복 후 도로개설 당시에 절터의 많은 유물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산부인과바우 [바위] → 구멍바우

산성사(山城寺) [절]

[위치] 영원산성 안에 있던 절을 말한다. 영원산성을 지키기 위한 절이었다고 하나 현 영원사를 의

미하는지 산성사라는 다른 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여지도서』에 산성사가 영원산성 안에 있다고 하고 영원사는 따로 기술하여 다른 절로 보았다.

산지당터 [터]

[위치] 아흔아홉골 안의 옛 산제당이 있던 터를 말한다. 빈대절터 아래, 치마폭포 위에 있다.

산파바우 [바위] → 구멍바우

삼거리 [길]

[위치] 한여 마을 앞의 세 갈래 길을 말한다.

[유래] 원주와 금대계곡, 가리파재로 가는 세 갈래 길이므로 삼거리라고 하였다.

삼거리봉 [산]

[위치] 보름가리봉 남동쪽에 바로 붙어있는 높이 880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동쪽 능선에 수리봉과 벼락바우봉이 있고 북쪽 능선에는 투구봉, 서쪽 능선에 작은백운산이 있어 세 갈래로 길이 갈라지므로 삼거리봉이라 하였다.

상보(上湫) [보]

[위치] 우무골 앞, 금대초등학교 바로 위쪽에 있는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양금대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보'라 하였다.

새들보 [보] → 새보

새목재 [고개]

[위치] 안다리실 최상류, 화채봉 밑에 있는 평평한 버덩으로 된 고개를 말한다.

[유래] 역새가 많으므로 새목재라고 하였다. 지금도 산나물이 많다고 한다.

새번지 [들]

[위치] 느릅실골 안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내용] 버덩 위에 큰 바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새보 [보]

[위치] 소도사 마을 앞에 있는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문앞보들에 물을 댈다. ‘새들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시드리보(新坪洑)’라 하였다.

새보들 [들]

[위치] 새보 남쪽, 음달말보 북쪽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음달말보에서 물을 댈다.

색시소 [소]

[위치] 솟둔재 남동쪽 아래, 치악골 길아천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샘터골 [골]

[위치] 내원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독바우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이 골짜기의 큰 돌 속에서 물이 나왔으므로 샘터골이라 하였다.

세교터널 [굴]

[위치] 옥개울 위에 있는 옛 중앙선 철로의 터널을 말한다.

세존대(世尊臺) [바위]

[위치] 남대봉 서쪽 바로 앞에 솟아 있는 바위기를 말한다. ‘엄지바우’, ‘아들바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세존디(世尊臺)’라고 하였다.

[유래] 바위가 마치 엄지손가락을 세운 것 같으므로 ‘엄지바우’, 거대한 남근처럼 생겼으므로 ‘아들바우’라고도 한다.



「세존대 ; 2018년」

소도사(小道士) [마을]

[위치] 음금대 남쪽, 대도사 북서쪽 아래, 작은도

새울 골짜기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작은도새울’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도사동(小道士洞)’이라 하였다.

소도사동(小道士洞) [마을] → 소도사

소아옥골 [골] → 작은아옥실골

소쩍새마을 [마을]

[위치] 예전 일론분교 자리에 있던 복지시설을 말한다.

[내용]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1985년에 설립하여 운영하던 시설이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송골 [골]

[위치] 영원골 아들바우 아래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1,111.1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상원골이 있다.

송장골 [골]

[위치] 원동 앞 향아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치악교회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십리굴이 시작되는 바로 위쪽에 있다.

[유래] 한국전쟁 때 이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송장골이라고 한다.

쇠마답 [들]

[위치] 음금대 뒀양지 금대골 안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서쪽 산 너머에 신촌 새말이 있다.

수리바우 [바위]

[위치] 수리봉(1)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여기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쳤으므로 수리바우라 하였다.

수리봉(1) [산]

[위치] 내원 북쪽, 일론의 동쪽에 있는 811m 높이의 산을 말한다. 금대계곡 동쪽을 막고 있는 산으로, 남쪽 원동에 이르기까지 험준한 산봉우리들로 이어져 있다.

[유래] 독수리가 새끼를 친 수리바우가 있으므로 수리봉이라고 부른다.



「수리봉(1) : 2018년」

수리봉(2) [산]

[위치] 회론재 북서쪽, 한여재 남동쪽 사이에 있는 높이 910m의 산을 말한다. 보름가리봉 동쪽, 벼락바우봉 서쪽에 있다.

[내용] 수리봉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능선 동쪽 아래에 회론이 있고 서쪽 아래에는 한여가 있다. 능선은 무두러니와 백척철교를 향하고 있고, 능선 끝에는 의사봉이 있다. 수리봉 남쪽 아래에는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중산 마을이 있다.

수평앞들 [들]

[위치] 한여 마을 앞에서 대도사 앞에 이르는 원주천 옆의 들을 말한다. 곰네미보들 남쪽 내 건너에 있다.

숫둔골 [골]

[위치] 영원산성 서쪽 아래 영원골 입구에서 북서쪽 길아치(1)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숫둔봉 [산]

[위치] 큰숫둔재 남쪽, 곰바우봉 북쪽에 있는 높이 744.9m의 산을 말한다. 길아재와 큰숫둔재, 곰바우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있다. 금대리와 관설동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숫둔재 [고개] → 큰숫둔재

시내미골 [골]

[위치] 회론 뒷골 중간에서 남서쪽으로, 690.3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시명봉(始明峰) [산]

[위치] 치악산 남대봉 남쪽, 가리파재 북쪽에 있는 높이 1,196m의 봉우리를 말한다. 금대리와 신림면 성남리, 금창리의 경계되는 산이다.

신선바우 [바위]

[위치] 안다리실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새목재 위, 화채봉 주능선에 있다.

십리굴(十里窟) [굴] → 가리파굴

아들바우(1) [바위]

[위치] 영원산성 남쪽 건너, 영원골 동쪽 아들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아들바우골에서 송골이 갈라져 나간 지점에 있다. 높이 610m로 우뚝 솟아있는 바위이다.

[유래] 이 바위에서 득남하기를 빌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아들바우라 한다.



「아들바우(1) : 2018년」

아들바우(2) [바위] → 세존대

아들바우골 [골]

[위치] 영원골 영원산성 남쪽 아래에서 동쪽으로, 아들바우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통칭하여 영원골로 부르기도 한다.

[내용] 아들바우골은 아들바우에서 다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남대봉 능선 북쪽에 있는 세존대 쪽으로 향한다. 아들바우 못 미쳐서 남동쪽으로 송골이 갈라져 나간다.

아래떡버덩 [들]

[위치] 회론 마을 안, 웃떡버덩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풀이] ‘떡’은 ‘덕’의 다른 말로, ‘언덕, 둔덕’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떡버덩’은 높은 버덩(들)이란 뜻이다. ‘덕’은 ‘덕가산’, ‘덕고산’처럼 대개 큰 산에 붙는 지명소이다. 소초면 평장리에 ‘떡섬배’가 있다.

아래일론 [마을]

[위치] 일론 마을 중 당숲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금대주차장 북쪽 위의 마을이다. ‘아랫담’이라고도 한다.

아래일론성황당 [당]

[위치] 현 금대주차장 위 금대1교 북서쪽 산기슭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2003년에 산신을 웃일론으로 옮기고 제사도 웃일론 마을에서 하기로 하였다. 느티나무를 당목으로 삼은 당집과 치악산신을 모신 위패와 제기가 남아있으나 오래 돌보지 않아 외벽은 허물어지고 폐허처럼 변하였다.

아랫담 [마을] → 아래일론

아옥실 [마을] → 아옥실

아옥실 [마을]

[위치] 옥개울에서 원주천 건너 남쪽, 큰아옥실골과 작은아옥실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실버요양원과 E1-LPG충전소가 있는 마을이다. 마을 서쪽 위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아옥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아옥실’이라 하였다.

아옥실골 [골]

[위치] 옥개울 남쪽 원주천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아옥실골’과 ‘작은아옥실골’이 있다. 현재 원주실버요양원이 있는 골짜기를 ‘큰아옥실골’, E1-LPG충전소가 있는 골짜기를 ‘작은아옥실골’이라 한다. 골짜기 중간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아흔아홉골 [골]

[위치] 대도사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작은백운산(986m) 줄기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아흔아홉골(九十九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이 아흔아홉 개나 될 만큼 크고 깊으므로 아흔아홉골이라고 한다.

[전설] 옛날에 포수가 곰을 쫓아 이 골짜기에 들어서니 갑자기 곰이 아흔아홉마리가 되어 올라가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는 예전 난리가 났을 때 101사람이 이곳에 있는 바위굴로 피난을 하였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를 끌고 나오자마자 굴이 무너져 두 사람만 살아남고 99명이 죽었으므로 아흔아홉골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안다리실 [마을]

[위치] 안다리실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가리파재 북쪽, 현 명경사가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다리실(내다리실內多里室)’이라 하였다.

[유래] 다리실 안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안다리실’이라 하였다.

안다리실골 [골]

[위치] 가리파재 서쪽 아래의 큰다리실골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시명봉 남쪽 줄기에 있는 1,100.1m, 1,079.1m 봉우리들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이다. 현 그린가든 북동쪽에 있다.

애신분교 [학교] → 금대초등학교 애신분교

양금대(陽金垔) [마을]

[위치] 금대 마을 중 원주천 동쪽, 현 금대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학교담’, ‘느릅실’, ‘중간말’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양금대(陽金垔)’라 하였다.

[유래] 금대 마을 중 산 남쪽 아래, 양지쪽에 있으므로 양금대라 하였다.

[내용] 마을 동쪽 산 중턱으로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마을 서쪽 원주천 건너에는 음금대가 있다.

양금대당숲 [숲]

[위치] 금대초등학교 동쪽 위, 중앙선 철로 아래에 있는 당숲을 말한다.

[내용] 당제가 없어진지는 오래 되었지만 당숲이 남아있다.

양금대들 [들]

[위치] 양금대에서 북서쪽 옥개울에 이르는 원주천 옆의 넓은 들을 말한다.

양금대보 [보]

[위치] 양금대들에 있는 원주천의 보(洑)를 말한다.

양금대성황당 [당] → 양금대당숲

[위치] 양금대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지금은 당숲만 남아있다.

양달말 [마을]

[위치] 원동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엄지바위 [바위] → 세존대

영어지 [마을]

[위치] 일론 북쪽, 큰영어지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영이지(靈愛地)’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어지’라 하였다.

[풀이] ‘영’은 ‘벼랑, 낭떠러지’의 방언이다. ‘영+(아)+지>영어지’가 되었다. ‘아’는 매개모음, ‘지’는 ‘장소, 곳’을 뜻하는 지명소이다.

여우바우 [바위]

[위치] 한여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여우가 드나들던 굴이 있으므로 여우바우라 하였다.

여우바우골 [골]

[위치] 한여 마을 뒷산, 여우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여찬이골 [골] → 예찬이골

연목소 [소]

[위치] 한여 방앗간 뒤쪽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인목소’라고도 한다.

[내용] 옛날에는 아주 깊었으나 지금은 모두 메워졌다.

연산둔지 [들]

[위치] 회론 안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영원(鵠院) [마을]

[위치] 영원골 영원사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치악골에서 영원골이 갈라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원(鵠院)’이라고 하였다.

영원골 [골]

[위치] 치악골에서 영원사가 있는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영원골(鵠驪洞)’이라고 하였다.

[내용] 영원골은 영원사에서 북동쪽으로, 영원산성을 향해 난 골짜기이다. 영원산성 안의 866.1m와 970.9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골짜기는 다시 갈라진다. 영원사에서 동쪽으로 남대봉과 상원사를 향하여 난 골짜기는 아들바우가 있어 ‘아들바우골’이라고도 하고 통칭하여 ‘영원골’로 부르기도 한다.

영원사(鵠原寺) [절]

[위치] 영원골 영원산성 아래에 있는 조계종 사찰을 말한다. 『여지도서』에 치악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고을 동쪽 30리 거리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영원사’라고 하였다.

[유래]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오랫동안 폐사되어 있다가 1964년 김병준에 의해 중건되었다. 창건될 당시의 유물은 없고 건물은 근년에 신축된 것이다. 『동국여지』에 영원사(鵠原寺)가 영원산성 안에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영원산성 안에 산성사(山城寺)가 있다고 하였고, 영원사(鵠原寺)는 따로 적었다. 현재의 영원사를 말하는지 다른 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내용] 영원사의 한자 표기는 ‘靈原’(『세종실록』

리지)), ‘鵠原’(『여지도서』), ‘鈴原’(『연려실기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원사 대웅전 ; 1973년」

영원사 능금나무 [나무]

[위치] 영원사 앞 정원에 있는 수령 약 250년의 능금나무를 말한다.

영원산성(鵠原山城) [성]

[위치] 영원골 영원사(鵠原寺) 위에 있는 산성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원산성(영원성)’이라고 하였다. 사적 제447호이다.

[내용] 『삼국사기』(1145)에 복원소경의 성을 신문왕(神文王) 5년(685)에 쌓았는데 둘레가 1,031보라 하였다. 『조선환여승람』(1937)에 신무왕(神武王) 1년(839)에 처음 쌓았다고 하였다. 대체로 각종 지리지에 나오는 영원산성의 규모가 1,031보, 쌓은 시기가 신문왕 때라고 하였으므로 영원산성이 곧 복원소경의 성임을 알 수 있다. 후삼국시대 양길이가 이 성을 거점으로 삼고 궁에는 석남사를 거점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고려사』(1454)에는 ‘치악성(雉嶽城)’이라 하였으나 다른 곳은 모두 ‘영원산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영원산석성(靈原山石城)’으로 표기하고 고을에서 동쪽 30리 거리이며 둘레는 646보, 창고 9칸이 있고 두 곳에 샘이 있어 사철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영원성(鵠原城)’으로 표기하고 석축 둘레가 3,749척으로, 1개의 우물과 5개의 샘이 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하

였다.

『동국여지지』(1660)에는 ‘영원성(鵠原城)’, ‘영원산성(鵠原山城)’이라 하고 석축 둘레가 1,031보이며 우물 한 곳과 샘 다섯 곳이 있는데, 신라 신문왕 때 쌓기 시작하여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수리하여 쌓았다고 하였다.

『여지도서』(1765)에는 ‘영원산성(鵠原山城)’으로 적고 석축 둘레가 3,749척(尺), 1개의 우물과 5개의 샘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대동지지』(1866)에 ‘영원산성(鵠原山城)’이라 하고 신라 신문왕 때 쌓았고 고려 때 다시 쌓았으며 조선 때도 고쳐 쌓았다고 하였다. 석축의 둘레가 1,031보이며 우물과 샘이 여러 곳이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영원산성은 신라시대에 축성하였고 고려와 조선에 걸쳐 계속적으로 수축하였으며, 1500년경인 조선 중기에 폐지되었다가 이후 임진왜란(1592) 때 다시 수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성에서 1592년 8월 원주목사 김제갑(金梯甲)이 왜병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1594년에 이 성을 다시 수축하였다고 하였는데 『여지도서』를 쓸 때인 1760년경에는 다시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영원산성은 원주의 중요한 방어시설로서 고려시대 충렬왕 17년(1291) 합단 침입 때 원총갑이 이 성에서 10여 차례나 적의 공략을 막았다. 성벽은 자연석으로 산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는데 붕괴된 곳이 있지만 대체로 잘 남아있는 편이며 여러 곳에 건물터가 남아있다.



「영원산성 ; 2010년」

영원폭포 [폭포]

[위치] 영원사에서 영원산성으로 가는 골짜기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예찬이골 [골]

[위치] 반그러니에서 남서쪽으로 벼락바위봉을 향하여 길게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찰방망이골이 갈라져 나간다. '여찬이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여찬니(余贊里)'라 하였다.

[유래] 고개 너머 남쪽에 금창리 예찬 마을이 있으므로 예찬이골이라 하였다.

우무골 [골]

[위치] 음금대 곰네실에서 남서쪽 일론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곰네미골 북쪽에 있는 골이다. 골 입구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웃담 [마을] → 웃일론

웃떡버덩 [들]

[위치] 회론 안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유래] 마을 위쪽에 버덩이 있으므로 '웃떡버덩' > '웃떡버덩'이라 하였다. '떡'은 언덕, 둔덕과 같이 높은 곳을 의미한다.

웃일론 [마을]

[위치] 일론 마을 중 당숲 위쪽의 마을을 말한다. 당숲과 성황당, 옛 일론분교터가 있는 곳이다. '웃담'이라고도 한다.

웃일론당숲 [숲] → 일론당숲

웃일론성황당 [당] → 일론성황당

원골 [마을] → 원동

원동(院洞) [마을]

[위치] 회론 남동쪽, 반그러니 북서쪽에 있는 내원골 입구의 마을을 말한다. '원골', '원터'라고도 한다. 마을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뒷골짜기를 '내원골'이라 하고, 내원골 안의 마을을 '내원(內院)'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에 '원골(院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원동(院洞, 원터)'이라

고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에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원집이 있었으므로 원동이라고 하였다.



「원동 마을 ; 2020년」

원수골 [골]

[위치] 함박골에서 동쪽으로, 높이 708.2m의 봉우리 능선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원충갑사(元冲甲祠) [당]

[위치] 『동국여지』에 나오는 사당 이름이다. 영원산성 안에 있던 원충갑의 사당으로 조선 선조 때 김제갑을 배향하였다고 한다.

원터 [마을] → 원동

윤팡골 [골]

[위치] 안다리실 안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은안장백이 [마을]

[위치] 금대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유래담] 은안장이 박힌 곳이란 뜻이다. 임진왜란 때 박종남이란 무사가 목욕을 하려고 말에서 은안장을 내렸다가 왜적의 공격을 받는 바람에 말안장을 가지고 가지 못하여 땅에 묻혔다는 설화가 전한다.

음금대(陰金垔) [마을]

[위치] 양금대에서 원주천 건너 남쪽, 대도사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한여(2)와 곰네실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음금대(陰金垔)'

라 하였다.

[유래] 남쪽이 산으로 막혀 응달이 지므로 양금대에 비하여 음금대라 하였다.

음금대당숲 [숲]

[위치] 양금대와 음금대 사이, 당들에 있는 수령 약 230년의 말채나무숲을 말한다.

[내용] 나무가 다섯 그루 있었으나 현재 세 그루만 남아있고 당집은 없어졌다.

음달말 [마을]

[위치] 내원골 내원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음달말보 [보]

[위치] 대도사 동쪽 건너에 있는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새보 남쪽 위, 곰네미보들 서쪽에 있다.

의사봉 [산]

[위치] 한여 동쪽, 회론 서쪽에 있는 408.3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수리봉(2)의 능선 끝에 있는 산으로 중살은골 위에 있다.

[내용] 의사봉에 구름이 돌면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비가 온다고 한다.

인목소 [소] → 연목소

일논 [마을] → 일론

일론(日論) [마을]

[위치] 금대계곡 안쪽, 함박골 마을과 길아치 마을 중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일론분교가 있던 마을이다. ‘웃일론’과 ‘아래일론’이 있다. ‘일논’, ‘일륜’, ‘흘론’, ‘흘른’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일논(日論)’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일론동(흘론)’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논이 있으므로 ‘실논>일론’이라 하였다.

[유래담] 임진왜란 때 김제갑 원주목사가 왜병을 크게 무찔렀는데 이때 계곡에 피가 많이 흘렀다고 하여 ‘흘론, 흘른’이라 부른다고 한다.

[풀이] 골짜기에 논이 있으므로 ‘실(谷)+논(畝)>실논>실론>일론’이 되었다. 별(들)에 논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 ‘별논>불논’과 비교되는 지명이다. ‘흘론’은 ‘흘+론>흘론’인데 ‘흘’은 고구려어에서 ‘忽’로 기록된 것으로서 골짜기, 또는 마을을 뜻하므로 ‘흘론’도 ‘실논’과 같이 ‘골짜기에 있는 논’이라는 뜻이다. 제주도에는 이 ‘忽’이 ‘흘’이라는 접미사로 남아 ‘대흘(大屹)·마흘(馬屹)·남흘(南屹)·조흘(鳥屹)’ 등의 마을 이름에 남아있다. ‘일론’을 ‘흘론’이라고도 하므로 여기에서는 골짜기를 뜻하는 ‘실’과 ‘忽’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론골 [골]

[위치] 소도사 작은도새울 서쪽, 터골(1) 위에서 뒷들이골과 갈라져 서쪽으로 51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 너머에 신촌리 동막골이 있다.

일론당숲 [숲]

[위치] 웃일론, 옛 일론분교터 앞에 있는 숲을 말한다. 박달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령은 약 200년 이상이다. 당집이 남아있다.

일론분교 [학교] → 금대초등학교 일론분교

일론성황당 [당]

[위치] 웃일론 당숲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약 200여 년 전부터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일론성황당 ; 2019년」

일륜 [마을] → 일론

작은골 [골] → 작은한여골

작은다리실 [마을] → 신림면 금창리 다리실

[위치] 가리파재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작은도새울 [골]

[위치] 음금대 남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뻗은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터골(1)이 이어지고 터골(1)에서 다시 뒷들이골과 일론골이 갈라져 나간다. 골짜기 입구에 소도사 마을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자근도시울(小道士谷)’이라고 하였다.

작은도새울 [마을] → 소도사

작은백운산 [산] → 백운산

작은아옥실골 [골]

[위치] 미사리들 남쪽에서 남서쪽으로, 488.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옥개울 마을에서 원주천 건너, 큰아옥실골과 뒷골 사이에 있다. 골짜기 입구에 E1-LPG충전소가 있고 골 중간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쇼아옥골(小牙玉谷)’이라고 하였다.

작은한여골 [골]

[위치] 한여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자근골(小谷)’이라고 하였다.

잣말랭이 [고개] → 가리파재

[위치] 반그러니에서 부르는 가리파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풀이] ‘재+말(<마루>+양이>재말양이>재말랑이>잣말랭이’가 되었다. ‘재’는 고개를 뜻하고 ‘말’은 ‘마루’, ‘양이’는 접미사이다. 고개 정상이라는 뜻이다.

절골 [골]

[위치] 원동 마을 서쪽, 옛 사천왕사가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절골(寺谷)’이라고 하였다.

제비바우골 [골]

[위치] 내원골 안, 마당바우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주고지골 [골] → 중고개골

중간말 [마을]

[위치] 양금대 마을 중 남쪽, 원주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금대초등학교 앞에 있는 마을이다.

중고개(1) [고개]

[위치] 회론골 안, 연산동지 위쪽 회론재 아래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중고개(2) [고개] → 중재

중고개골 [골]

[위치] 회론 뒷골 끝에서 배나무골과 갈라져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회론재가 있고 회론재 너머에는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중산 마을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주고지골(周告知谷)’이라고 하였다.

중산안골 [골] → 중살은골

중살은골 [골]

[위치] 한여 마을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의사봉을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산안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에 중이 살아서, 또는 중을 화장하던 곳 이어서 ‘중살은골’이라 하였다.

중재 [고개]

[위치] 아흔아홉골 골짜기 남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빈대절터 남서쪽 위, 도사골고개 서쪽에 있다. 고개 높이는 805m이다. ‘중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중고기(中峙)’라고 하였다.

지당골 [골]

[위치] 안다리실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산제당이 있으므로 지당골이라 하였다.

질아재 [고개] [마을] → 길아치

질아치 [고개] [마을] → 길아치

찰방망이 [마을]

[위치] 원동 남동쪽 위, 가리파재 북서쪽 아래 반그러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찰방목’, ‘찰방매기’, 이를 한자로 적어 ‘찰방항(察訪項)’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찰방목(찰방항察訪項)’이라

하였다.

[내용] 옛 금대초등학교 애신분교가 있던 곳으로 반그려니의 다른 이름이다.

찰방망이고개 [고개]

[위치] 금대리 찰방망이골 남쪽과 신림면 금창리의 찰방망이골 북쪽을 연결하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645m이다. ‘찰방목’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찰방목(찰방향察訪項)’이라 하였다.

[유래] 역골에 신림역이 있을 때 단구역을 관할하는 보안도 찰방이 이 고개로 넘어 다녔으므로 찰방망이라고 하였다. 또는 원주 원씨가 이곳에 묘를 쓴 후, 후손 중에 찰방이라는 관직이 나왔으므로 찰방망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찰방망이골 [골]

[위치] 반그려니 마을 남쪽 예찬이골에서 상류의 664.1m 봉우리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남쪽으로 신림면 금창리의 찰방망이골, 찰방망이 마을과 연결된다. 『조선지리지』에 ‘찰방목이(察訪項)’라고 하였다.

찰방망이봉 [산]

[위치] 찰방망이 고개 동쪽에 있는 796.1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봉우리 북쪽 아래에 치악산 자연휴양림과 반그려니가 있고 남동쪽 아래에는 신림면 금창리 동등이가 있다.

찰방매기 [마을] → 찰방망이

찰방목 [고개] [마을] → 찰방망이

찰방향(察訪項) [고개] [마을] → 찰방망이

찰뒹재 [고개] → 한여재

창해지골 [골]

[위치] 큰영아지 중간에서 북쪽으로, 663.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쪽에 ‘목너미골’이 있다.

[유래] 창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으므로 창해지골이라고 하였다.

쳐내울 [골]

[위치] 일론 마을 앞에 있는 길아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쳐내울’이라 하였다.

[유래담] 임진왜란 때 원주목사 김제갑이 이곳에서 왜병을 크게 무찔러 시체를 쳐냈다고 하여 ‘쳐내울’이라고 한다. 이때 피가 많이 흘렀으므로 마을 이름을 ‘흘른’, ‘흘론’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치마바우 [바위]

[위치] 치악산 능선의 개미목 북쪽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암벽등반을 하던 곳이다.

[유래] 모양이 치마를 펼쳐 놓은 듯 넓으므로 치마바우라 한다.



「치마바우 : 2018년」

치마폭포 [폭포]

[위치] 아흔아홉골 안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마당박골과 큰마당박골 사이에 있다.

[내용] 3단으로 된 폭포로 높이 10m, 폭 15m이다.

치악골 [골]

[위치] 금대리에서 북쪽으로, 일론을 거쳐 영원골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서 영원산성으로 가는 영원골과 길아치골이 갈라지고 길아치골은 길아치 마을 아래에서 금두계곡과 갈라진다. ‘금대계곡’이라고도 한다.

치악굴 [굴] → 가리파굴

치악역(雉岳驛) [역]

[위치] 포아리굴 동쪽, 수리봉 남쪽에 있는 옛 중

양선 철로의 역을 말한다.

[내용] 1956년 치악신호장으로 인가되어 1958년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1977년 여객취급을 중지하고 신호장으로 격하되었다. 1989년 현재의 역사를 준공하였고 2013년 간이역으로 격하되었다. 해발 470m에 위치하고 있다. 역 북서쪽에 백척철교와 또아리굴이 있다.

치악재 [고개] → 가리파재

치악평전(雉岳平田) [골] → 금두고원

칠성바우 [바위]

[위치] 벼락바우봉 북동쪽 아래 예찬이골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현 치악산자연휴양림 제2야영장에 있었으나 야영장을 만들면서 없어졌다.

큰다리실골 [골]

[위치] 가리파 서쪽 아래에서 북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위쪽에 안다리실이 있고 시명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1,079.1m, 1,101.1m의 봉우리에 닿는다. 현 그린가든 남동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큰도새울 [골]

[위치] 대도사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660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서쪽은 660m 봉우리에서 북쪽 투구봉까지 뻗은 산줄기로 막혀있다. ‘큰도새울골’, ‘대도사곡’이라고도 한다.

큰도새울 [마을] → 대도사

큰도새울골 [골] → 큰도새울

큰마당박골 [골]

[위치] 아흔아홉골 안쪽 위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986m 작은백운산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치마폭포 위에 있다.

큰바우골 [골] → 굴바우골

큰숫둔재 [고개]

[위치] 숫둔골 북서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633m이다. ‘숫둔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큰숫둔지(大炭屯嶺)’라고 하였다.

[내용] 고개 너머 서쪽에 관설동 큰숫둔골이 있다. 고개 북쪽 길아치고개로 이어져 반곡동 한가터로 넘어간다.

큰아옥실골 [골]

[위치] 옥개울 남쪽, 양금대들 서쪽 내 건너에서 남서쪽으로, 52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아옥실골 남쪽, 봉말림골 북쪽에 있다. 골 입구에 현 원주실버요양병원이 있고 골 중간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디아옥골(大牙玉谷)’이라고 하였다.

큰영아지골 [골]

[위치] 일론 북쪽 가래골 맞은편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682.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영아지 마을이 있었다.

큰한여골 [골]

[위치] 음금대 한여(2)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금대골과 우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큰골(大谷)’이라고 하였다.

터골(1) [골]

[위치] 작은도새울 안의 발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금대1터널과 금대2터널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끝은 뒷돌이골과 일론골로 갈라진다.

[유래] 골짜기 안에 발터가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터골(2) [골]

[위치] 뒷양지 금대골 입구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북쪽에 봉말림골이 있다.

토역골 [골] → 텃골

토지골 [골]

[위치] 내원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퇴골 [골] → 퇴골

퇴골 [골]

[위치] 미사리들 북서쪽, 관설동 퇴골들 남쪽에서 남서쪽으로 488.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아옥실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입구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퇴골’, ‘토역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토역골(土役谷)’이라 하였다.

퇴골보 [보]

[위치] 퇴골 앞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토역골보(土役谷湫)’라 하였다.

투구봉 [산]

[위치] 대도사 아흔아홉골 안 당거리 남동쪽에 있는 높이 525m의 산을 말한다.

[유래] 산 정상에 바위 모양이 투구처럼 생겨서 투구봉이라고 한다.

팔배나무골 [골]

[위치] 일론 당숲 당건너골 남쪽 아래에서 동쪽으로 589.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평풍바우 [바위]

[위치] 느릅실골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병풍처럼 바위가 서 있어서 평풍바우라 하였다.

평풍바우골 [골]

[위치] 평풍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피맥재 [고개] → 한여재

하미산성 [성] → 해미산성

하미산성(下尾山城) [성] → 해미산성

학교담 [마을]

[위치] 양금대 마을 중 금대초등학교 북쪽에 떨어져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가터봉 [산]

[위치] 금두계곡 서쪽에 있는 높이 704.4m의 봉우리를 말한다. 봉우리 남서쪽에 길아치가 있고 서쪽 아래에는 반곡동 한가터의 다락골이 있다.

한여(閑餘, 閑余)(1) [마을]

[위치] 금대삼거리 남쪽 녹수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남쪽 위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한여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한여골(한여, 한여동)’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임진왜란 때 주민들이 이곳에서 한없이 피난하였다고 하여 ‘한여’라 하였다고 한다.

한여(閑餘, 閑余)(2) [마을]

[위치] 음금대 마을 중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금대초등학교 서쪽 원주천 건너에 있는 마을로 큰한여골, 금대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서쪽 위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한여고개 [고개] → 한여재

한여골 [골]

[위치] 한여(1) 마을에서 남쪽으로 한여재에 이르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녹수골’이라고도 한다.

한여골 [마을] → 한여(1)

한여동(閑餘洞) [마을] → 한여(1)

한여들 [들]

[위치] 한여(1) 마을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여보 [보]

[위치] 한여(1) 마을 앞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현여보(閑余湫)’라고 하였다.

한여재 [고개]

[위치] 한여 남서쪽 한여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보름가리봉 남동쪽, 수리봉 북서쪽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높이는 740m이다. 고개 너머에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차도리 마을이 있다. ‘한여고개’, ‘피맥재’, ‘차도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한여지(閑余峙)’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한여고개’라고 하였다.

[내용] ‘피맥재’라고도 하고 한여 마을 뒤에 있으므로 ‘한여재’, 고개 너머에 제천의 차도리가 있으므로 ‘차뒤편’이라고도 한다.

한여골 [마을] → 한여(1)

함박골 [골]

[위치] 금대계곡 입구 백척철교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773.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함박골 [마을]

[위치] 함박골 입구에서 허궁다리골 앞, 현 금대리 주차장이 있는 곳까지의 마을을 말한다. 백척철교 북쪽, 일론 남쪽의 계곡에 있는 마을이다.

항아리골 [골]

[위치] 원동 앞, 내원골 남쪽 맞은편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치악교회 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입구는 좁은데 안은 항아리처럼 넓으므로 항아리골이라 하였다. 골 가운데로 중앙고속도로가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다.

해미산성(海美山城) [성]

[위치] 영원사 입구에 있는 치악산국립공원 금대분소 북서쪽 곰바위봉에 있는 옛 산성을 말한다. 해발 500~627m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해미산성(海美山城, 하미산성)’이라 하였다.

[유래] 원래 ‘큰 산의 성’이란 뜻으로 ‘한뫼산성’이라 하였는데, 한뫼산성>한메산성>할메산성>할미산성으로 음운 변천하여 할미의 뜻을 따라서 ‘노고산성(老姑山城)’, ‘노구산성(老嫗山城)’이라 하고, 소리를 적어서 ‘해미산성(海美山城)’, ‘하미산성(下尾山城)’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대동지지』에 ‘금대성(金臺城)’, 『여지도서』에 ‘금대산성(金臺山城)’이라 하고 고을 동쪽 30리 거리인 치악산 중턱에 있으며 석축 둘레가 6,060척(尺), 우물 세 곳이 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또 고려 고종(1192~1259) 때에 이 성에서 송필(宋

弼)이 반란하였으므로 원주가 일신현(一新縣)으로 강등된 사실을 적었다.

이 산성이 언제 축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시대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옛날 궁예가 이곳에 진을 쳤다고 하나 확인할 수는 없다. 성벽은 거의 무너졌으나 일부 구간에는 완전한 모습 남아있고 자연석을 쓰지 않고 인공적으로 쌓은 것이 영원산성이나 금두산성과 다른 점이다. 관설동 설재에 이 성과 관련하여 ‘성터·섭성터·성안·성내’ 등의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성의 주 출입로는 섭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풀이] 이 산성 이름은 향로봉 아래 ‘금두산성(金頭山城)’과 혼동되어 ‘해미산성(海美山城)·하미산성(下尾山城)·금후산성(金後山城)·금대산성(金臺山城)·노고산성(老姑山城)·노구산성(老嫗山城)’ 등으로 불리고 있다.

금두산성 ‘금두(金頭)’의 ‘두(頭)’는 ‘뒤’를 적은 것이므로 금후(金後)와 같다. 또한 이 성이 있는 치악평전을 금두고원으로 부르는 것, 성의 동쪽 아래에 횡성 강림의 금두골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향로봉에 있는 산성의 이름은 ‘금대·금두·금후’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성과 관련하여서는 ‘하미·해미·노고·노구’가 남는다. 이들 이름의 공통점은 할미(할머니)를 소리 또는 뜻으로 적은 것인데, 원래는 ‘한뫼’이던 것이 ‘한뫼>한메>할메>할미’로 음운 변천되고 이것이 해미산성으로 정착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할미’계열의 지명은 전국에 산재해 있다.

해미산성의 ‘해미·하미·할미’는 큰 산을 뜻하는 ‘한뫼’에서 나온 것으로, ‘크다’는 뜻의 ‘한’과 산의 뜻인 ‘뫼’가 결합하여 ‘한+뫼>한뫼>한메>할메>할미’로 변천한 것이다. ‘할미’를 뜻으로 적어 ‘노구(老嫗)·노고(老姑)’로 기록하였고 소리를 적어 ‘해미(海美)·하미(下尾)’로 적었다. 따라서 이 성의 다양한 이름들은 ‘한뫼산성’에서 파생된 것들로 ‘큰 산의 성’이란 뜻이다.



「해미산성」; 2019년

해산굴 [굴] → 구멍바우

행낭바우굴 [굴]

[위치] 반그리니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밸리모텔 남쪽 앞 골짜기를 말한다. ‘예찬이골’과 겹치는 이름이다.

허궁다리굴 [굴]

[위치] 함박골 마을에서 동쪽으로, 548.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금대주차장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돌이 쌓여 땅속이 비어 있으므로 ‘허궁다리>허궁다리’라 하였다.

[내용] 1964년 장마 때 이곳에 산사태가 나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다.

화채봉 [산]

[위치] 안다리실 동쪽, 새목재 위에 있는 677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금창리 바깥다리실 말뚝바우골과 막골 서쪽에 있다. 신림면 금창리와 경계가 되는 산줄기에 있다.

[유래] 봉우리의 모양이 둥그런 기차 화통 같으므로 화채봉이라 하였다.

회론(回論) [마을]

[위치] 한여 동쪽, 무두러니 남동쪽 내 건너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회론(回論)’이라 하였다.

[유래담] 마을 앞에 토아리굴이 있으므로 ‘회론(回論)’이라 하였다고 하나 이는 믿을 수 없다. 중앙선 철로가 개통된 1942년 이전 1910년대의 지도에 이미 마을 이름이 회론(回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풀이] ‘論’은 논(畚)을 음차한 한자어이다.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던 골짜기 논에 돌이 많았으므로 원래의 이름은 ‘돌이 많은 논>돌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돌(石)’을 ‘돌다(回)’로 보아 ‘회론(回論)’으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론굴 [굴]

[위치] 회론 마을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토아리굴 남쪽 무두러니에서 남쪽으로 회론재까지 길게 이어진 골짜기이다.

회론굴 [굴] → 토아리굴

회론당숲 [숲]

[위치] 회론에 있는 당숲을 말한다. 당집은 없고 당숲만 있다.

회론재 [고개]

[위치] 회론 마을 남쪽, 뒷골과 중고개골을 거쳐 골짜기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수리봉 남동쪽, 벼락바우봉 남서쪽 사이에 있다. 높이는 760m이다.

[내용] 금대리와 충북 제천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는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중산 마을이 있다.

회전굴 [굴] → 토아리굴

회전터널 [굴] → 토아리굴

흘론 [마을] → 일론

흘론 [마을] → 일론

서곡리(瑞谷里)

[위치]

서곡리는 판부면의 서쪽에 있다.

동쪽으로는 신촌리와 관설동, 서쪽으로는 무실동과 흥업면 흥업리·매지리, 남쪽으로는 백운산을 경계로 하여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북쪽으로는 명륜동·단구동과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판제면(板梯面) 분이리(分二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촌·외남송·내남송·마현·구역촌·외도매·내도매·백운정·동막·후리절·소용소·대용소를 병합하여 서곡리라 하고 판부면에 편입하여 원주군 판부면 서곡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면서 원성군 판부면 서곡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판부면 서곡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가 되었다.

[유래]

수리봉 아래의 골짜기에 마을이 들어섰으므로 ‘수리실>서리실’이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서곡리(瑞谷里)라 하였다. 즉 ‘수리실>서리실>서곡(瑞谷)’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리봉’을 ‘서곡산’이라 하여 ‘서곡’이 ‘수리’에서 나왔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풀이]

‘서리실>서곡’은 ‘수리봉(가섭재)’에서 나온 말이다.

‘수리봉’은 백운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중 제일 끝에 있는 봉우리이다. ‘수리’는 ‘높은 곳·꼭대기(頂)’를 뜻하는 옛말로 정수리·독수리·수릿날 등에 쓰인다. ‘가섭재’는 ‘가+섭+재>가섭재’인데 ‘가’는 가(邊)이며 ‘섭’은 숲, ‘재’는 산 또는 고개를 뜻한다. 그러므로 수리봉(가섭재)은 ‘백운산 줄기의 끝에 있는, 숲이 우거진 높은 봉우리’라는 뜻이다. 수리봉 아래의 골짜기에 마을이 섰으므로 ‘수리실’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서리실’로 음운 변천하였고 이를 한자로 적어 ‘서곡(瑞谷)’이라 하였다. 즉 ‘수리실>서리실>서곡’으로 변천하였다.

한편 옛 ‘후리절’의 ‘후리’도 ‘수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수리실에 절이 있으므로 ‘수리절>후리절’이라 하였고 이것을 ‘후리사, 서곡사’라 하였다. 서곡대사(瑞谷大師)가 유명하여 그 이름을 따서 마을을 서곡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거꾸로 된 설명으로 서곡리(<수리실)의 마을 이름을 따서 스님의 이름을 서곡대사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가는골 [골]

[위치] 큰용수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웃가는골’과 ‘아래가는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는골(細谷)’이라 하였다.

가래골 [골]

[위치] 대용수동 구진골에서 남서쪽 831.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마골 [골]

[위치] 덕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가마울 [마을] → 개마울

가마울들 [들] → 개마울들

가섭재 [산] → 수리봉, 서곡산

[위치] 내남송 남동쪽, 서곡저수지 북동쪽에 있는 높이 537.2m의 산을 말한다. ‘수리봉·서곡산·백운대·백운산·천지봉’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서곡산(瑞谷山)’이라 하였고 『여지도서』에 이를 ‘혹 백운대(白雲臺)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섭지(加薪山)’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섭재(수리봉)’라 하였다. **[유래]** 백운산 줄기의 끝자락에 있는 숲이 우거진 산이므로 ‘가섭재’, 산이 매우 높으므로 ‘수리봉’이라고 하였다. 수리봉에서 ‘수리실>서리실>서곡’이 되어 현 서곡리의 마을 이름이 되었다.

[풀이] ‘가+섭+재>가섭재’인데 ‘가’는 개(邊)의 뜻이고 ‘섭’은 숲, ‘재’는 고개 또는 산을 뜻한다. 백운산 큰 산줄기의 끝에 있는 숲이 우거진 산이라는 뜻이다.

가섭재골 [골]

[위치] 내동막에서 금성골과 도장골을 거쳐 북동쪽으로 수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섭지골(加薪山谷)’이라 하였다.

가섭재작은재 [고개]

[위치] 가섭재 큰재 서쪽 아래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가섭재큰재 [고개] → 큰재

가재골 [골]

[위치] 서곡저수지 남쪽 오리울들에서 남동쪽 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오리울들과 덕이들 사이에 있다.

[유래] 가재가 많으므로 가재골이라 하였다.

개마울 [마을]

[위치] 외남송 마을 중 앞말 동쪽, 남송천 북쪽에 붙어있는 마을을 말한다. ‘갯말’, ‘가마울’이라고도 한다.

개마울들 [들]

[위치] 개마울 앞 서곡천의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마울뜰(駕馬月坪)’이라고 하였다.

개비석들 [들]

[위치] 신흥동 북쪽, 쥐고개와 여우고개 남쪽 아래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개사리들 [들]

[위치] 마재 북쪽, 북거리골 남쪽의 들을 말한다. 현 선린교회 동쪽, LPG충전소 서쪽에 있는 들이다. 마을 남쪽 산지에 택지가 조성되고 있다.

갯말 [마을] → 개마울

건너말 [마을]

[위치] 외남송 마을 중 앞말에서 남쪽 남송천 건너의 마을을 말한다. 중간말의 남동쪽에 있다.

건너서평 [마을]

[위치] 서평 마을 동쪽 건너, 문수골 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건너중촌 [마을]

[위치] 서평에서 내남송으로 가는 덕고개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결몽재 [산]

[위치] 외동막 서쪽, 닭박골 서쪽에 있는 365.3m 높이의 산을 말한다. 흥업면 흥업리와 경계가 되

는 산이다. ‘길몽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걸몽재’라 하였다.

겹산 [산] → 백운산

경천원저수지 [못] → 외남송저수지

곰지기골 [골]

[위치] 작은용수골 사제울 마을 남쪽 위에서 남서쪽으로, 75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벼락바우골 남쪽 맞은편에 있다.

광암(廣岩) [마을] → 너러바우

광터 [들]

[위치] 아랫백운정 백운교 서쪽 건너에 있는 넓은 논자리를 말한다.

교룡담(交龍潭) [소] → 용소

[유래] 『관동지』에 두 마리 용이 서로 뛰어 오르며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교백골 [골]

[위치] 내남송 남동쪽, 가섭재 산줄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고비아골(高飛也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교백골’이라고 하였다.

구라우들 [들]

[위치] 구억말 소라우들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진 들을 말한다. 세집담들 동쪽에 붙어있는 들이다.

구억말 [마을]

[위치] 내도매에서 서곡천 건너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구억촌’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억촌(九億村)’이라 하였다.

[유래] 산 아래 구석진 곳에 마을이 있으므로 ‘구석말>구억말’이라 하였다.

[풀이] 구석에 마을이 있으므로 ‘구석+마을>구석말>구억말>구억말’이 되었다.

구억천(九億川) [내]

[위치] 구억 마을 동쪽의 산 밑을 지나는 내를 말한다.

구억촌(九億村) [마을] → 구억말

구진골 [골]

[위치] 대용수동에서 남쪽으로 오두봉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굴골 [골]

[위치] 대용수동 웃가는골 맞은편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침덕바우골과 아랫된데미골 사이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굴골(屈谷)’이라고 하였다.

귀박골 [골]

[위치] 가섭재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금대산(金垔山) [산] → 어깨봉

금성골 [골]

[위치] 서곡저수지 옆 내동막 음터골에서 동쪽으로 545m 매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서 부엉이골과 도장골로 갈라진다.

금성산 [산]

[위치] 도매촌저수지 서쪽에 있는 높이 221m의 산을 말한다. 흥업면 흥업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금송’, ‘금송산’이라고도 한다.

금송 [산] → 금성산

금송산 [산] → 금성산

기름고개 [고개]

[위치] 내남송 기름골 남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목골에서 산당골, 중촌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기름골 [골]

[위치] 내남송 목골담 마을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산당골이 있다.

길몽재 [산] → 걸몽재

깎은봉 [산]

[위치] 후리절 마을 서쪽에 있는 높이 370m의 산을 말한다. 서곡리와 매지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서쪽 너머에 매지리 분지울이 있고 산의 능

선 남쪽에 분지동고개, 북쪽에 분지울고개가 있다.
[유래] 산의 경사가 급하여 마치 깎은 것 같으므로 깎은봉이라 하였다.

나그골 [들]

[위치] 외남송 개마에서 동쪽으로 외남송저수지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을 중앙고속도로가 횡단하고 있다.

나그네거리 [길]

[위치] 내남송에서 북동쪽으로, 모래구덩이고개를 넘어 관설동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 길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나그네거리라고 하였다. 제천 쪽으로 가려면 이 길을 꼭 거쳐야만 되었다.

남송(南松) [마을]

[위치] 현 55번 중앙고속도로 남쪽, 가섭재 산줄기의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가섭재(수리봉)의 북쪽에서 발원한 남송천을 중심으로 남원로까지 이어지는 골짜기에 넓게 형성된 마을이다. '내남송'과 '외남송(벌남송)'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송(南松)'이라 하였다.

[유래담]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단종 때 남쪽으로 10리에 걸쳐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남송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었으나 남송은 이때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왜장 가등청정의 누이가 조선에 나가 싸우더라도 유(柳), 송(松)자 붙은 곳은 상대치 말라고 하였으므로 남송 마을은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전한다.

[내용] 남송천 동쪽 상류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내남송'이라 하고 남송천의 서쪽 남원로 주변의 넓은 들에 있는 마을을 '외남송(벌남송)'이라고 한다.

남송고개 [고개]

[위치] 단구동 귀론에서 서쪽으로, 외남송으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현재 그 고갯길에 중앙고

속도로가 나 있다. 《조선지리지》에 '남송고기(南松峴)'라고 하였다.

남송저수지 [못] → 내남송저수지

남송천(南松川) [내]

[위치] 매봉산 북쪽에서 시작하여 내남송저수지와 내남송, 외남송을 거쳐 변판서골, 둔전들을 지나 합포원에서 서곡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수량은 적지만 매우 긴 내이다.

내남송(內南松) [마을]

[위치] 남송 마을 중 남송천 상류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남송천을 따라 발달한 마을 중 가섭재(수리봉) 북서쪽 아래의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안에 '목골담', '무당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내남송(內南松)'이라 하였다.

[유래] 남송 마을 중 계곡 안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내남송이라 하였다.



「내남송 마을 : 2019년」

내남송골 [골]

[위치] 내남송저수지에서 남동쪽 위로, 가섭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남송성향당 [당]

[위치] 산당골 입구에 있던 성향당을 말한다.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다.

내남송저수지 [못]

[위치] 내남송 황문터들 남쪽, 내남송골 북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내남송골의 물을 모아 남송천으로 흘려보낸다. 저수지 북쪽 앞으로 19번

도로가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송저수지’라 하였다.



「내남송저수지 ; 2020년」

내도매(內桃梅) [마을]

[위치] 도매 마을 중 남동쪽 들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신흥동 남동쪽, 구역촌 남서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안도매’라고도 한다.

내동막(內東幕) [마을]

[위치] 서곡저수지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미락골과 음터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내동막(內東幕)’이라 하였다.

[유래] 동막 마을 중 골짜기 안쪽에 있으므로 내동막이라 하였다.

내치기들 [들]

[위치] 개사리들 동쪽, 변판서골 남서쪽 산 너머의 들을 말한다. 내치기들과 소시골에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섰다.

너더리 [들]

[위치] 너더리골에 있던 들을 말한다. 외남송에서 북쪽으로, 모래리촌 앞에 이르는 곳으로 현재 외남송에서 남송사거리에서 이르는 남원로가 나 있는 곳이다.

너더리고개 [고개]

[위치] 외남송 너더리에서 북동쪽으로, 원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모래리촌 남쪽 아래에 있던 고개로 현 남송사거리에서 천매사거리에 이르는 길이다. ‘널다리’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 ‘판

제현(板梯峴)’이라고 하였고 『조선지리지』에 ‘느더리고기(板梯峴)’라고 하였다.

[내용] 현 청구아파트 앞 천매사거리에 있던 고개로 ‘너더리’, ‘널다리’라 하였다. 현 판부면(板富面)의 이름은 옛 판제면(板梯面)과 부흥사면(富興寺面)이 합쳐지면서 각각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부흥사면은 부흥사(富興寺)라는 절에서 이름이 유래되었고 판제면은 이곳 ‘너더리’에서 유래하였다. 너더리를 ‘널(판자)+사다리’로 보아 ‘板’과 ‘梯’를 취하여 ‘판제(板梯)’라 하였다.

이 고개는 옛날 충주로 가는 길목으로서 강원감영에서 출발하여 너더리고개>매지리>양아치를 넘어서 충주로 가는 길목이었다.

[풀이] ‘너더리’는 ‘널(<넓>+달>널달(이))>널다리>너다리>너더리’로 되었다. ‘달’은 ‘높은 곳, 산’을 뜻하는 옛말이나 여기에서는 ‘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옛날에는 그 고개의 아래와 위가 모두 들이었기 때문에 ‘너더리’라 하였고 거기에 있는 고개를 ‘너더리고개’라 하였다.

너더리골 [골]

[위치] 외남송에서 북쪽으로, 모래리촌 앞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들이 형성되어 있던 곳으로, 현재 외남송에서 남송사거리에서 이르는 남원로가 나 있다.

너더바우골 [골] → 너러바우골

너러바우 [마을]

[위치] 너러바우골 남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너령바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너령바우(廣岩)’라고 하였다.

너러바우 [바위]

[위치] 내남송과 외남송 중간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도로공사로 해체되어 없어졌다. ‘너령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너러바우’라 하였다.

너러바우골 [골]

[위치] 외남송에서 남송천을 따라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너더바우골’, ‘너령바우골’이라고도 한다.

너령바우 [마을] [바위] → 너러바우

너령바우골 [골] → 너러바우골

너령바우주막 [주막]

[위치] 옛날 너러바우 마을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너령바우주막(廣岩酒幕)’이라고 하였다.

넘은댓골 [골]

[위치] 댓골에서 갈라져 북쪽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외남송저수지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귀론 뒷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내용] 골짜기 북쪽에 외남송저수지가 있다. 골짜기 옆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노라우 [바위] → 놀바우

[풀이] 놀바우의 다른 이름이다. ‘놀바우>놀박우>놀아우>노라우’로 음운 변천하였다.

노라우들 [들] → 놀바우들

놀바우 [바위]

[위치] 서평동과 구역촌 사이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도로를 내면서 해체되었다. ‘노라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놀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 위에 바위가 얹혀 있는데 건들면 흔들린다고 하여 ‘놀바우’라 하였다. 이 바위에 원주에 널리 분포된 ‘손님 많은 부잣집’ 전설이 전한다.

[전설] ①옛날 산당골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 귀찮아하였다. ②어느 날 중이 와서 시주를 청하니 안주인이 손님이 오지 않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③중은 시주를 받고 마을 어귀의 큰 바위를 깨라고 하였다. ④바위를 깨자 바위에서 붉은 피가 나오고 그 후로 손님은 끊어졌으나 가세가 기울어 망했다. 놀바우에는 당시에 바위를 깨기 위해 사용했던 정 자국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놀바우들 [들]

[위치] 놀바우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서곡저수지의 물을 댈다. ‘노라우들’, ‘느라우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노라우썰(遊岩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놀바우들’이라 하였다.

느라우들 [들] → 놀바우들

닭박골 [골]

[위치] 아랫백운정들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흥업리 밤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닭박골(楮田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에 닭을 서리해서 먹던 골짜기이므로 닭박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당재머리 [모퉁이]

[위치] 내동막 성황당 입구에 있는 길모퉁이를 말한다.

대곡(大谷) [골] → 댓골

대소(大沼) [소]

[위치] 두명소 위 대소폭포 아래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대소폭포 [폭포]

[위치] 옷백운정 다리 위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폭포 아래에 대소(大沼)가 있다.

대용동 [마을]

[위치] 저고리봉 남쪽 아래, 큰용수골과 작은용수골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백운산자연휴양림 매표소가 있는 곳이다.

대용소(大龍沼) [소] → 큰용소

대용소동(大龍沼洞) [마을]

[위치] 대용동 남쪽 위 큰용수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국립백운산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이다. ‘큰용수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큰용소골(대용소동)’이라 하였다.

대원 [마을]

[위치] 마재 북쪽, 변판서골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댓골 [골]

[위치] 외남송 중간말 남쪽 너러바우골에서 남동쪽으로 휘어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대곡’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디골(代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댓골’이라 하였다.

[내용] 골 북동쪽 너머에 넘은댓골이 있고 그 북쪽에 외남송저수지가 있다. 골 입구에 원주화교소 학교가 들어와 있고 새로 마을이 생겼다.

더덕골 [골]

[위치] 저고리봉에서 큰용수골로 가는 첫 번째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더덕골(加德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더덕이 많이 나므로 더덕골이라고 하였다.

덕고개 [고개]

[위치] 내남송과 서곡 중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덕고기(德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고개’라 하였다.

덕이들 [들]

[위치] 내동막 남쪽, 벌덕이들 남쪽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덕재 [산]

[위치] 대용소동과 소용소동 사이, 깎은봉 남쪽에 있는 높이 418m의 산을 말한다. 관리사무소와 야외무대 남동쪽에 붙어있다. ‘덕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덕재(덕치)’라 하였다.

덕치(德峙) [산] → 덕재

도덕봉(道德峰) [산] → 저고리봉

도매교(桃梅橋) [다리]

[위치] 외도매에 있던 옛 서곡천의 다리를 말한다. ‘좁은다리’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매교(좁은다리)’라 하였다.

도매둔지 [들] → 도매촌들

도매둔지보 [보]

[위치] 도매둔지에 있는 서곡천의 보(淤)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도마둔지보(刀馬屯之淤)’라고 하였다.

도매촌(桃梅村) [마을]

[위치] 마재 남동쪽, 구억촌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강릉원주대학 남동쪽으로 서곡천 옆 들판에 있는 마을이다. ‘내도매’와 ‘외도매’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매촌(桃梅村)’이라 하였다.

[유래] 봄이 되면 복숭아꽃이 많이 피므로 ‘도매촌’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지형이 매화가 떨어지는 형국이므로 ‘도매촌’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도매촌들 [들]

[위치] 도매촌저수지 북서쪽 아래에서 내도매와 외도매까지 뻗쳐 있는 들을 말한다. ‘도매둔지’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도마둔지들(刀馬屯之坪)’이라고 하였다.

도매촌보 [보]

[위치] 도매촌에 있는 보(淤)를 말한다. 오섭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매촌보’라 하였다.

도매촌서낭 [나무]

[위치] 내도매 마을 안, 서곡3리 노인회관 앞에 있는 소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300년으로 마을 당산목이다.

도매촌저수지 [못]

[위치] 도매촌 남쪽, 백운정 북서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안골의 물을 모아 도매촌들에 댄다.

도장골 [골]

[위치] 내동막 금성골 끝에서 동쪽 545m의 매봉산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도장골(道場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도장골’이라 하였다.

동막(東幕) [마을]

[위치] 서곡동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곡저수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내동막’과 ‘외동막’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막(東幕)’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동쪽이 가섭재산 줄기로 막혀 있으므로 동막이라고 하였다.

[내용] 서곡저수지 동쪽 위 골짜기의 마을을 ‘내동막’이라고 하고 저수지 서쪽 아래 들판 쪽의 마을을 ‘외동막’이라고 한다. 골짜기의 안팎으로 내·외가 구분되었다.

동백골 [골]

[위치] 대용수동에서 구진골과 갈라져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웃덴데미와 침덕바우골 사이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동백골(桐栢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동박나무가 많으므로 ‘동박골>동백골’이라고 하였다. 하늘다람쥐가 살고 있다고 한다.

된데미골 [골]

[위치] 큰용수골의 아래가는골 서쪽 맞은편에서 서쪽으로, 71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아랫된데미골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된절터 [터]

[위치] 된절터골에 있던 옛 절터를 말한다. 백운암터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된절터’라 하였다.

된절터골 [골]

[위치] 작은용수골 사제울 마을의 남쪽 위에서 동쪽 81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벼락바우골 남쪽, 곰지기골 남동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 동쪽 너머에 신촌리 흙저골이 있다.

두명소 [소]

[위치] 외동막과 웃백운정 사이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유래] 소가 마치 항아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두명소라고 하였다. 신작로에서 돌을 던져 소에 들어가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 소는 메워지고 흔적만 남아있다.

둔서덕골 [골]

[위치] 대용동에서 서곡천을 따라 남쪽 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골 [골]

[위치] 내남송 무당골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담 [마을]

[위치] 내남송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장(馬場) [마을] → 마장동

마장동(馬場洞) [마을]

[위치] 마재 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서곡삼거리 지역에 있는 마을로 무실동에 걸쳐 있다. ‘마재’, ‘마장(馬場)’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마지(馬峴)’라고 하였다.

마재 [고개]

[위치] 서곡천 옆 신흥동에서 북쪽으로 난 고개를 말한다. 현 거장아파트와 백옥식당 사이로 도로가 난 곳으로, 고개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고개 동쪽에 대규모 택지공사가 진행 중이다. ‘마재고개’, ‘마현(馬峴)’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마지고기(馬峴)’라고 하였다.



「마재 : 2020년」

마재 [마을] → 마장동

마재고개 [고개] → 마재

마현(馬峴) [고개] → 마재

마현(馬峴) [마을] → 마장동

막은골 [골]

[위치] 도매촌들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마근골(麻斤谷)’이라 하였다.

말발작거리 [길] → 말자국거리

말자국거리 [길]

[위치] 옷백운정에 있는 길을 말한다. ‘말발작거리’라고도 한다.

[유래담] 큰 바위에 말 발자국이 있으므로 이를 말자국이라 보아 말자국거리라 하였다. 이 자국은 바른골에서 날아온 용마가 뛰어내리며 바위에 부딪혀 난 자국이라고 한다.

매봉산 [산]

[위치] 내동막 동쪽에 있는 높이 545m의 산을 말한다. 가섭재 남쪽, 어깨봉 북쪽 능선에 있는 산이다. 『조선지리지』에 ‘마봉산(鷹峰山)’이라고 하였다.

[내용] 큰바람골산, 어깨봉, 매봉산, 가섭재를 잇는 산줄기가 신촌리와 경계를 이룬다.

모래구덩이고개 [고개] → 모래재

모래재 [고개]

[위치] 내남송에서 북동쪽으로, 단구동 귀론, 관설동 갈촌 모래구덩이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서곡길이 나 있다. 『조선지리지』에 ‘모리지(沙峴)’라고 하였다.

목골 [골]

[위치] 내남송 목골담에서 서쪽으로, 25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목골담 [마을]

[위치] 내남송 마을 중 목골 동쪽 아래, 기름골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목너머고개 [고개]

[위치] 내도매에서 서쪽으로, 도매촌들을 지나 흥업면 강릉원주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

한다.

무당골(1) [골]

[위치] 내남송 북서쪽 아래, 남송천에서 서쪽 246m 소시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여우고개골이 있다.

무당골(2) [골]

[위치] 내남송저수지 북쪽 아래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는 관설동 갈촌 구루니골이 있다. 골 입구에 19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무당골(3) [골]

[위치] 구역말에서 북쪽으로 소시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무당골(1)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무당골(巫堂谷)’이라 하였다.

무당골 [마을]

[위치] 내남송 마을 중 무당골(1)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내남송의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무당골(堂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에 무당이 살았으므로 무당골이라고 하였다.

무태골 [골]

[위치] 닭박골 남쪽 위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쪽으로 우무골과 만난다.

문서골 [골] → 문수골

문석골 [골] → 문수골

문수골 [골]

[위치] 서평 동쪽 들 건너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촌 남쪽에 있다. 현 문수사가 있는 골짜기이다. ‘문서골’, ‘문석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문서골(文書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문석골’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 안에 문수사가 있으므로 문수골이라 하였다.

문앞들 [들]

[위치] 내남송 목골담 북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남쪽으로 19번 도로가 나 있다.

물탕골 [골]

[위치] 문수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미락골 [골]

[위치] 서곡저수지에서 북동쪽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미락골 [마을]

[위치] 내동막 마을 중 미락골 골짜기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바람골 [골] → 바른골

바른골 [골]

[위치] 서곡저수지에서 남동쪽으로, 큰바람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사격장이 들어서 있다. ‘바람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바튼골(正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바른골’이라 하였다.

[유래] 동막에서 보아 오른쪽에 있으므로 바른골이라고 하였다.

바우모택이들 [들]

[위치] 마재 남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개비석들 서쪽, 쥐고개 남쪽에 있는 들이다.

밤나무골 [골]

[위치] 내남송과 외남송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너러바우 위쪽에 있다.

밤나무골 [마을]

[위치] 밤나무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밤나무정’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밤나무정(栗木亭)’라고 하였다.

밤나무정 [마을] → 밤나무골

밭도매 [마을] → 외도매

배나무골 [골]

[위치] 옷백운정 분지울골 남쪽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320.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뱀소 북쪽 아래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비나무골(梨木谷)’이라고 하였다.

백운늪시터 [못] → 외남송저수지

백운대(白雲臺) [산] → 가섭재, 서곡산, 수리봉

백운산(白雲山)(1) [산]

[위치] 서곡리 남쪽, 용수골 위에 있는 1,087.1m 높이의 큰 산을 말한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과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의 경계에 있다. ‘육산’, ‘겹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빅운산(白雲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늘 흰 구름이 끼어 있고 겨울에도 흰 눈이 쌓여 있다고 해서 백운산이라 하였다. 마치 고기를 겹겹이 쌓아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육산(肉山)’ 또는 ‘겹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용] 치악산의 서쪽 줄기가 가장 높게 솟은 봉우리가 백운산이다. 산줄기가 아주 넓게 뻗어 있어 북쪽으로는 무실리, 남쪽으로는 귀래까지 이른다. 주민들은 대체로 이 산줄기를 통칭하여 백운산으로 부르고 있어 백운산 이름의 산이 많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 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고 『여지도서』 『원주읍지』에는 이에 더하여 ‘꼭대기에 큰 우물이 있다.’고 하였다.

『광여도』 『여지도』 『1872년지방지도』 『해동지도』에 백운산이 표시되어 있고, 『조선지리지』에는 가리파면 1리 등 세 곳에 백운산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백운산의 주 계곡은 백운천(서곡천)이며, 산 북쪽 아래에 큰용수골과 작은용수골이 있고, 큰용수골에 용소폭포와 용소가 있다. 전설에, 정상에 큰 못이 있고 그 주변에 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 못을 ‘못재’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현재 못재는 ‘오두치’의 다른 이름으로 통하고 있다.

백운산(白雲山)(2) [산] → 가섭재, 수리봉

[위치] 백운정 동쪽에 있는 높이 537.2m의 산을 말한다. 관설동과 경계가 되는 산이다. ‘가섭재’, ‘수리봉’, ‘백운대’, ‘천지봉’이라고도 한다.

[내용] 주민들은 백운산 줄기에 있는 산을 대체로 백운산으로 부르는 수가 많다. 금대리 아흔아홉골에도 986m의 백운산(작은백운산)이 있고 귀래면 운계리에도 667m의 백운산이 있다. 즉 백운산은 이 지역의 백운산 산줄기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이다.

백운암터(白雲庵-) [터] → 된절터

백운정(白雲亭) [마을]

[위치] 용수골 북쪽 아래, 서곡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서곡천 옆의 마을을 말한다. ‘아랫백운정’과 ‘웃백운정’이 있다. ‘음달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백운정(白雲亭)’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백운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므로 마을 이름을 백운정이라 하였다.



「백운정 마을 ; 2019년」

백운정보(白雲亭湫) [보]

[위치] 백운정 마을에 있는 서곡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백운정보(白雲亭湫)’라 하였다.

백운천(白雲川) [내] → 서곡천

뱀소 [소]

[위치] 후리절 마을 아래에 있는 서곡천의 소(沼)를 말한다.

[유래] 소가 있는 곳의 냇물이 갑자기 꺾여 뱀처럼 휘어져 있으므로 뱀소라 하였다.

뱀소라 하였다.

뱀소등지들 [들]

[위치] 후리절 마을 서쪽 뱀소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배나무골 남쪽 위에 있는 들이다.

버덩들 [들]

[위치] 구억말 앞에서 서곡천을 따라 남쪽 백운정까지 이어진 들을 말한다. 들 중간에 19번 도로 서곡교차로가 가로질러 나 있고 들 남쪽에는 백운전 원마루가 들어섰다.

벌남송 [마을] → 외남송

벌덕이들 [들]

[위치] 서곡저수지 남쪽 위, 덕이들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벗나무배기 [터]

[위치] 내남송 황문터 앞에 있는 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아름드리 벗나무가 있었으므로 벗나무배기라고 하였다.

벼락바우골 [골]

[위치] 작은용수골 사제울 마을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부처골과 된절터골 사이에 있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신촌리 벼들바우골이 있다.

[유래] 벼락바우가 있어서 벼락바우골이라고 한다.

변판서골 [골]

[위치] 외남송 아랫거리들 남쪽 끝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중앙선 철로의 터널 입구이다.

[유래] 변판서의 묘소가 있으므로 변판서골이라 하였다.

보둔지들 [들]

[위치] 후리절 마을에서 서곡천을 따라 남쪽 위로 나 있는 좁은 들을 말한다. 저고리봉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부영이골 [골]

[위치] 내동막 금성골 끝에서 남동쪽으로, 가섭재

큰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부처골 [골] → 부처앉은골

부처바우골 [골]

[위치] 내남송 큰재 옆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부처가 있던 곳이므로 부처바우골이라 하였다. 옛날에 부처가 있어서 치성을 드렸는데 산 사태가 난 후 그 불상이 어디에 묻혔는지 모른다고 한다. 부처를 모셨던 흔적이 바닥에 남아있다고 전한다.

부처앉은골 [골]

[위치] 작은용수골 사제울 마을 북쪽 아래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자빠진골 남쪽, 벼락바우골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처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부치안지골(佛坐谷)’이라고 하였다.

분지동고개 [고개]

[위치] 후리절에서 서쪽으로, 매지리 분지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깎은봉 봉우리의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305m이다. 『조선지리지』에 ‘분지울고기(芬芝谷峴)’라고 하였다.

[내용] 『조선지리지』에는 분지동고개를 ‘분지울고개’라 하고, 분지울고개를 ‘아래분지고개’라 하였다.

분지울 [마을]

[위치] 옷백운정 서쪽 분지울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분터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분터골(分垆谷)’이라고 하였다.

[내용] 이곳 사람들은 흥업의 분지울을 분지동으로, 서곡의 마을을 분지울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분지울 고개를 넘으면 흥업면 매지리 분지울이 나온다.

분지울고개 [고개]

[위치] 분지울에서 흥업면 매지리 분지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분지울골 끝에 있다. 깎은봉

봉우리의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높이는 310m이다. 『조선지리지』에 ‘아리분지고기(下芬芝谷峴)’라고 하였다.

[내용] 『조선지리지』에서는 ‘분지동고개’를 ‘분지울고개’라 하고, ‘분지울고개’를 ‘아래분지고개’라 하였다.

분지울골 [골]

[위치] 옷백운정에서 남서쪽으로, 분지울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매지리 분지울 마을이 있다.

분터골 [마을] → 분지울

불당골 [골]

[위치] 부처앉은골 북쪽 바로 밑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비녀바우 [바위]

[위치] 마장동 동쪽 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비녀처럼 생겨서 비녀바우라 하였다. 또는 옛날 이 바위 위 느티나무에서 그네를 뛰던 처녀의 비녀가 빠졌으므로 비녀바우라고 하였다 한다.

사제울 [마을]

[위치] 작은용수골 남동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캄파슬로우가 있는 마을이다.

산당골 [골]

[위치] 중촌 놀바우들에서 북동쪽 기름고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을 따라 서곡길이 나 있고 골 중간을 19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골짜기 동쪽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다. 『조선지리지』에 ‘산당골(山堂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에 산제당이 있었다고 한다.

삼산데기 [들]

[위치] 백운정 닭박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삼성당골 [골]

[위치] 아랫백운정 서쪽 내 건너에서 남서쪽 닭박

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이곳에 산자리를 쓰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명당이 있다고 한다.

삼형제바우 [바위]

[위치] 변판서골 앞 개울가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유래] 큰 바위 세 개가 나란히 있으므로 삼형제 바우라고 하였다.

상재 [고개]

[위치] 큰용수골의 구진골에서 남쪽으로, 충북 제천시 백운면 상학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백운산과 오두봉 사이에 있다. 높이는 820m이다.

서곡 [마을] → 서곡리

서곡고개 [고개]

[위치] 옷백운정 분지울골 서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흥업리 서곡고개골, 밤골저수지가 있다. 고개 높이는 340m이다.

서곡들 [들]

[위치] 서곡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서곡리선사유적 [유적]

[위치] 서곡저수지 북쪽, 서곡초등학교 남동쪽 산 아래 구릉에 있는 유적지를 말한다.

[내용] 1973년에 고인돌 유물로 추정되는 간돌검, 간화살촉 등이 발견되었다.

서곡사터(瑞谷寺-) [터]

[위치] 옥녀봉 남서쪽, 후리절 마을 북서쪽, 탑거리 부근에 있던 옛 절터를 말한다. 옛 절의 이름은 ‘후리절’, ‘후리사(厚里寺)’라고 한다.

[내용] 절의 창건 및 폐사 연대는 알 수 없다. 절터는 현재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석탑재, 불좌대 등이 출토되었다. 민가에 있던 석탑재 등을 수습하여 마을의 송암정(松岩亭) 옆 소나무 숲에 모아놓았다. 탑은 양식으로 보아 고려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므로 절은 고려 초기부터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곡사터 ; 2020년」



「서곡사터 석조물 부재 ; 1991년」

서곡산(瑞谷山) [산] → 가섭재, 수리봉

[위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산 이름으로 가섭재(수리봉)의 다른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문에서 남쪽으로 20리에 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이를 ‘혹 백운대(白雲臺)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내용] 옛 지리지에 백운산을 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남쪽 20리에 있는 서곡산은 거리상으로 보아 서곡리의 537.2m 봉우리인 수리봉(가섭재)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리봉을 서곡산이라 하였으므로 ‘서곡’이 ‘수리’에서 나온 것임을 명확하게 해준다.

서곡저수지 [못]

[위치] 내동막과 외동막의 중간에 있는 큰 저수지를 말한다. 동쪽의 매봉산과 남동쪽의 큰바람골산, 남쪽의 옥녀봉과 저고리봉 등 넓은 골짜기의 물을 모은다. 1960년에 준공하였다.



「서곡저수지 ; 2019년」

서곡천(瑞谷川) [내]

[위치]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용수골을 거쳐 흥업리 잘개미 앞에서 매지천과 합류한 다음 사제리 봉헌 앞에서 대안천과 합류, 보통리를 굽이치며 지나 간현리와 동화리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하천을 말한다. 백운산에서 발원하므로 ‘백운천(白雲川)’이라고도 하고, 사제리 앞을 지나므로 ‘사제천(沙堤川)’, 합포원 앞을 지나므로 ‘합포천(合浦川)’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관동지』에 합포천(合浦川)이라 하였다.

[내용] 서곡천에는 작은용소, 큰용소, 후리절의 뱀소, 대소, 두명소, 코클소, 애기소 등의 많은 소(涚)가 있다. 유로 연장은 22.3km, 유역 면적은 113.5㎢이다.

서낭당거리들 [들]

[위치] 아랫백운정에서 서곡천의 백운교 건너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도매촌저수지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이다.

서리실 [마을] → 서곡리

서평(瑞坪) [마을]

[위치] 아랫백운정 동쪽, 현 서곡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서곡리 중 들에 있는 마을이므로 서평이라 하였다.

서평동(瑞坪洞) [마을] → 서평

서평들 [들]

[위치] 서평 남쪽, 서곡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는 들

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시국버당(瑞岩坪)’이라고 하였다.

서평성황당 [당]

[위치] 서평 마을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현 청솔보리밥식당 앞, 용수골길 옆에 있다.

[내용] 소나무 당숲에 당집이 있다. 백운산 성황부부신을 모시고 있고 동짓달 초하루에 제사를 지낸다. 당 제사를 지낸 뒤 장승에 제사를 지낸다.



「서평성황당 ; 2019년」

서평장승 [장승]

[위치] 서곡초등학교 북쪽 버덩 들길에 있는 장승을 말한다.

[내용] 소나무 숲이 있는 길 양옆에 장승 두 기가 서 있다. 해마다 동짓달 초하루에 성황당에 제사를 지낸 뒤 장승에 제사를 지낸다.

세집담들 [들]

[위치] 구억말 남동쪽에서 중촌 서쪽의 놀바우들까지 난 들을 말한다. 들 중간에 19번 도로가 나 있다.

소라우들 [들]

[위치] 구억말과 구억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소시고개 [고개]

[위치] 구억동에서 북쪽으로 소시골, 또는 변판서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여우고개 동쪽에 있다. ‘소썩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쇠썩고기(消息峴)’라고 하였다.

소시골 [골]

[위치] 마재 동쪽 내치기들 끝에서 남동쪽으로, 소시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소시고개가 있고 골 남쪽에는 여우고개가 있다. 현 내치기들과 소시골에 큰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소씩고개 [고개] → 소시고개

소용골 [골]

[위치] 작은용수골 입구, 소용소동 북쪽 아래에서 저고리봉 남동쪽 아래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끝에 708m 높이의 어깨봉이 있다.

소용소(小龍沼) [소] → 작은용소

소용소골성황당 [당]

[위치] 작은용수골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수백 년 된 소나무 두 그루를 당목으로 모시는 당집이 있었으나 수십 년 전에 불이 나 당목과 당집이 모두 다 소실되었다.

소용소동(小龍沼洞) [마을]

[위치] 작은용수골 북쪽 하류에 있는 마을이다.

소용수골 [골] → 작은용수골

송암정(松岩亭) [누정]

[위치] 용수골 후리절 마을 솔밭에 있는 정자를 말한다. 정자 옆에 후리절에서 출토된 석재들을 수습해 놓았다.

수리봉 [산] → 가섭재, 백운산(2)

[위치] 내남송 남동쪽, 서곡저수지 동쪽에 있는 높이 537.2m의 산을 말한다. ‘가섭재·서곡산(瑞谷山)·백운대(白雲臺)·백운산(白雲山)·천지봉’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서곡산(瑞谷山)’이라 하였고 『여지도서』에 이를 ‘혹 백운대(白雲臺)’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가섭지(加薪山)’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리봉(가섭재)’라 하였다.

[유래] ‘수리’는 ‘높은곳, 꼭대기(頂)’를 뜻하는 옛말로, 수리봉은 ‘높은 산봉우리’라는 뜻이다. 서곡

리의 이름이 수리봉·수리실에서 나왔다. 수리봉의 골짜기 수리실에 마을이 섰으므로 ‘수리실>서리실>서곡’이 되었다.

[풀이] 이 산을 ‘가섭재’라고도 하는데 ‘가섭재’의 ‘가’는 변(邊)의 뜻이고 ‘섭’은 숲, ‘재’는 고개 또는 산을 뜻한다. 즉, ‘수리봉’은 ‘높은 산봉우리’, ‘가섭재’는 ‘산줄기 끝에 있는 숲이 우거진 산’이라는 뜻이다. 수리봉 아래의 골짜기에 마을이 들어섰으므로 ‘수리실>서리실’이 되었고 이를 한자로 적어 ‘서곡(瑞谷)>서곡리(瑞谷里)’라 하였다. 반곡리의 ‘서리실’도 ‘수리실>서리실’이 된 예이다.

수리실 [마을] → 서곡리

수리조합보 [보]

[위치] 서곡저수지 서쪽 서곡천에 있는 보(洑)를 말한다.

신흥동(新興洞) [마을]

[위치] 마재 남동쪽, 외도매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서곡삼거리 남동쪽, 서곡천과 도로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새로 일군 마을이므로 신흥동이라 하였다.

아래가는골 [골]

[위치] 큰용수골의 뒤편에 맞은편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67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어둔서덕 위에 있다. 골 동쪽 너머에 작은용수골의 사제울 마을이 있다.

[유래] 웃가는골의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아래가는골이라 하였다.

아래분지고개 [고개] → 분지울고개

아랫거리 [마을]

[위치] 외남송 아랫거리들 남쪽, 편판서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도로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아랫거리들 [들]

[위치] 취실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도로를 따라 변

판서골 입구까지 뻗은 들을 말한다. 들 전체가 도로에 편입되었고 들 중앙을 새 중앙선 철로가 가로질러 지나고 있다.

아랫된데미골 [골]

[위치] 큰용수골 뒀데미골 남쪽, 웃가는골 서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전망대가 있는 골짜기이다.

아랫백운정 [마을]

[위치] 백운정 마을 중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서곡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백운정 마을 : 2020년」

아랫백운정들 [들]

[위치] 웃백운정 북쪽, 아랫백운정 남쪽 사이에 있는 서곡천 옆의 들을 말한다. 외동막 서쪽 내 건너에 있는 들이다.

안골 [골]

[위치] 아랫백운정 도매촌저수지에서 남서쪽으로, 울업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서쪽 너머에 흥업면 울업 재제기 마을이 있고, 골 북쪽 옆으로는 19번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골’이라 하였다.

안담 [마을]

[위치] 외남송 마을 중 서쪽의 마을을 말한다.

안도매 [마을] → 내도매

안보담골 [골]

[위치] 큰용수골 입구 대용동에서 남서쪽으로, 높

이 71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야외무대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안터 [마을]

[위치] 외남송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암불암 [골]

[위치] 큰용수골의 웃가는골과 아랫된데미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골의 형상이 삼태기 입구처럼 생겼다고 한다.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았으나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앞들 [들]

[위치] 외도매 마을 북동쪽 앞, 서곡천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압ضل(前坪)’이라 하였다.

앞말 [마을]

[위치] 외남송 마을 중 현 남원으로 서쪽, 중앙고속도로 남쪽에 붙어있는 마을을 말한다.

애기소 [소]

[위치] 웃백운정 서곡천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어깨봉 [산]

[위치] 저고리봉 동쪽, 큰바람골산 북서쪽에 붙어있는 높이 708m의 산을 말한다. ‘금대산(金垓山)’이라고도 한다.

어둔서덕 [골]

[위치] 큰용수골 입구 안보담골에서 더덕골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돌무더기가 많아 ‘서덕’, 골이 음침하므로 ‘어둔서덕’이라고 하였다.

[풀이] ‘(돌)서덕’은 ‘서덜’의 방언이다. 냇가에 돌이 많은 곳을 ‘서덜’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큰용수골의 돌이 많은 곳이므로 ‘서덕’이라고 하였고 골짜기가 어두우므로 ‘어둔서덕’이라고 하였다.

여수알골 [골]

[위치] 서평들에서 남동쪽으로, 내동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곡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여슈이골(餘水涯谷)’이라고 하였다.

여수알보 [보]

[위치] 여수알골에 있는 서곡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여수이보(餘水厓洑)’라 하였다.

여우고개 [고개]

[위치] 구역말 개비석들에서 여우고개골을 지나 북쪽 외남송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소시골과 내치기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여우고기(狐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여우고개’라고 하였다.

[유래] 여우가 많이 살았으므로 여우고개라 하였다. 옛날 원주에 장을 보러 다니던 고갯길이다.

여우고개골 [골]

[위치] 구역말 개비석들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여우고개가 있다.

열닷마지기골 [골]

[위치] 천매봉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개척동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매봉사거리 남쪽 파랑공원에서 남원주중학교에 이르는 지역으로 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오곡천 [내]

[위치] 백운산 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작은용수골을 거쳐 내려오는 내를 말한다. 대용동에서 서곡천에 합류한다.

오두봉(烏頭峰) [산]

[위치] 서곡리 대용소동 남쪽, 구진골 끝에 있는 높이 964.6m의 산을 말한다. 서곡리와 매지리, 충북 제천시 백운면과 경계가 되는 산이다. 북동쪽에 백운산이 있고 남서쪽에 오두치가 있다.

[유래] 까마귀가 머리를 들고 있는 형상이므로 오두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오두봉·오두치’는 ‘오두봉·조두봉·용수

봉·오두치·조두치·용두재’ 등으로도 불린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頭)’, ‘수(首)’로서 이는 산봉우리를 뜻한다. ‘조(鳥)’는 ‘오(鳥)’의 오기로 보이는데 ‘오(鳥)’는 ‘가막·가마귀’로서 ‘크다·신성하다’는 뜻을 지닌 ‘곰’계열의 ‘감·가마·검’을 한자로 표기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오두(烏頭)’는 우리말 ‘감마루, 가마마루(<곰마루)’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서 ‘크고 높은 봉우리’, 또는 ‘신성한 산봉우리’의 뜻으로 추정된다.

오리울들 [들]

[위치] 서곡저수지 남쪽 위, 옥녀봉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오섬들 [들] → 오성들

오섬들골 [골] → 오성들골

오섬마을 [마을] → 오성마을

오섬산 [산] → 오성산

오섬들 [들]

[위치] 도매촌저수지 동쪽 아래에서 서곡천까지 이어진 넓은 들을 말한다. 도매촌보의 물을 댈다. ‘오숫들’, ‘오쑤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오쑤들(梧藪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오숫들’이라 하였다.

오성들 [들]

[위치] 오성 마을에 있는 천수답 들을 말한다. ‘오섬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오섬들(烏島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오섬들’이라 하였다.

오성들골 [골]

[위치] 오성 마을 동쪽 아래에서 남서쪽 외남송저수지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오섬들골’이라고도 한다.

오성마을 [마을]

[위치] 단구동 구루니(귀론) 북서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옥녀봉 남쪽에 있다. ‘오섬마을’이라고도 한다.

오성산 [산]

[위치] 단구동 옥녀봉 남쪽, 오성 마을 서쪽에 있는 높이 216.2m의 산을 말한다. 현 남원주중사거리 남동쪽, 오성마을사거리 서쪽, 시청로 옆에 있는 산이다. 산 남쪽 아래에 외남송저수지가 있다. ‘오섬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오섬산’이라 하였다.

오숫들 [들] → 오섭들

오숲들 [들] → 오섭들

오습들 [들] → 오섭들

옥녀봉(玉女峰) [산]

[위치] 후리절 탐거리 동쪽 바로 앞에 있는 높이 265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옥니봉’, ‘옹리봉’이라고도 한다.

[내용] 무실동 배부른산에서 보면 옥녀봉에 명당이 있는데 막상 옥녀봉에 와서 보면 찾을 수 없다는 설이 있다.

옥니봉 [산] → 옥녀봉

옹리봉 [산] → 옥녀봉

외남송(外南松) [마을]

[위치] 남송 마을 중 서쪽 바깥 벌판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와 남원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에 ‘안터’, ‘앞말’, ‘중간말’, ‘개마을’, ‘건너말’이 있다. ‘별남송’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별남송(외남송)’이라 하였다.

[내용] 남송천을 따라 난 너러바우골 골짜기 안을 ‘내남송’, 골짜기 바깥 현 남원로 주변의 들에 형성된 마을을 ‘외남송’이라 한다. 계곡의 바깥쪽 벌(들), 버덩에 마을이 있으므로 ‘별남송’, 또는 ‘외남송’이라 하였다.



「외남송 마을 : 2019년」

외남송샘물 [샘]

[위치] 외남송 우무골에 있던 샘을 말한다.

외남송저수지 [못]

[위치] 오성산 남쪽, 오성 마을 남서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경천원저수지’라고도 한다. 현재는 ‘백운남시터’라고 한다.

외남송주막 [주막]

[위치] 외남송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외남송주막(外南松酒幕)’이라 하였다.

외도매(外桃梅) [마을]

[위치] 도매촌 마을 중 서쪽 토둔저수지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강릉원주대학교 동쪽, 신흥동 남서쪽에 있다. ‘밭도매(<박도매<바깥도매>’라고도 한다.

외동막(外東幕) [마을]

[위치] 서곡저수지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북쪽 아래 아랫백운정에 이르는 곳에 군부대가 들어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외동막(外東幕)’이라 하였다.

[유래] 동막 마을 중 골 바깥, 들에 있으므로 외동막이라고 한다.

외동막들 [들]

[위치] 외동막 남쪽, 서곡저수지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용소(龍沼) [소]

[위치] 용수골 용수폭포 아래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교룡담(交龍潭)’, ‘용수연(龍水淵)’이라고도 한다. 용수골의 이름이 이 소에서 유래하였다. 『한

국지명총람』에 ‘큰용소(대용소)’, ‘작은용소(소용소)’라 하였다.

[유래담] 보름날이 되면 옥황상제의 외동딸이 은하수를 타고 내려와 용수연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녀를 짝사랑하던 용이 함께 승천하려다 벌을 받고 이곳에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용소에 명주꾸리를 넣으면 다 풀려 제천 의림지에서 실 끝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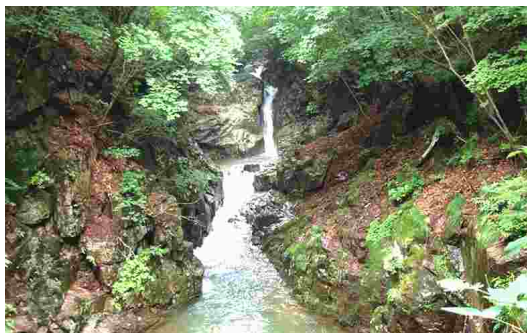
[내용] 가뭄이 오면 돼지를 잡아 이곳 바위에 피를 뿌리는데 이 피를 씻어내기 위해 비가 내린다고 전한다. 예전에는 가뭄이 심하면 강원감사가 이곳에 와서 기우제를 지냈다고도 한다. 기우제를 지내는 날은 비가 올 때까지 주민들이 교대로 쫓불을 켜놓고 밤을 샌다고 한다.



「용소 ; 2020년」

용소폭포 [폭포]

[위치] 용소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용소폭포 ; 2018년」

용수굴 [굴]

[위치] 후리절에서 남동쪽으로 백운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용수굴과 작은용수굴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용숫굴’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용소가 있으므로 ‘용소+굴>용소굴>용수굴’이라 하였다.

용수연(龍水淵) [소] → 용소

용흥사(龍興寺) [절]

[위치] 『원주읍지』에 나오는 옛 절 이름이다. ‘고을에서 남쪽 30리 거리인 백운산 속에 있다.’고 하였다. 용수굴에 있었다고 추정되나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우무굴 [굴]

[위치] 외남송 앞말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남송골프클럽이 들어서 있고 골짜기 위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우묵골 [굴] → 우물골

우물골 [굴]

[위치] 웃백운정에서 북서쪽으로, 높이 365.3m의 걸몽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우묵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우물골(井谷)’이라 하였다.

[유래] 좋은 샘이 있어서 우물골이라고 한다.

운향사(雲香寺) [절]

[위치] 외남송 취실골 안에 있는 태고종 사찰을 말한다.

[내용] 1960년대 말 큰 장마 때 판부면 서곡리 용수굴에서 발견된 석불좌상을 이 절에 모셨다.



「운향사 ; 2019년」



「운향사 석불 ; 2019년」

울업고개 [고개]

[위치] 아랫백운정에서 서쪽으로, 서낭당거리들과 안골을 지나 흥업면 울업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우업고기(蔚業峴)’라 하였다.

웃가는골 [골]

[위치] 큰용수골 안 아랫된데미골 동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남동쪽으로 높이 675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작은동백골 북쪽 아래에 있다.

웃백운정 [마을]

[위치] 백운정 마을 중 남쪽 위, 후리절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외동막 남서쪽, 서곡천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웃백운정들 [들]

[위치] 웃백운정 남동쪽에서 후리절 북쪽 아래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서곡천 동쪽, 탑거리 서쪽 사이에 있다.

웃백운정보 [보]

[위치] 웃백운정에 있는 서곡천의 보(洑)를 말한다.

원수골 [골]

[위치] 바른골과 저고리봉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원수골과 작은원수골이 있다.

[유래] 골짜기가 멀어 나무하러 다니기에 무척 힘이 들므로 원수골이라 하였다.

원호 묘소(元昊 墓所) [묘]

[위치] 내남송에 있는 생육신 원호(1396~1463)의 묘를 말한다.

[내용] 원주 출신으로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자는 자허(子虛), 호는 관란(觀瀾)·무향(霧巷)이다.



「원호 묘소 ; 2019년」

육산(肉山) [산] → 백운산

음달말 [마을] → 백운정

음터골 [골]

[위치] 내동막 마을 중 남쪽 산 밑, 금성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익고개 [고개]

[위치] 내남송과 중촌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임금바위 [바위]

[위치] 문수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임금의 모자처럼 생겼으므로 임금 바우라 하였다.

자빠진골 [골]

[위치] 작은용수골 안 팔배골 남쪽 위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팔배골 남쪽, 부처앉은골 북쪽 사이에 있다.

자주봉 [산]

[위치] 내남송과 외남송 사이, 밤나무골 위에 있는 산을 말한다.

작은동백골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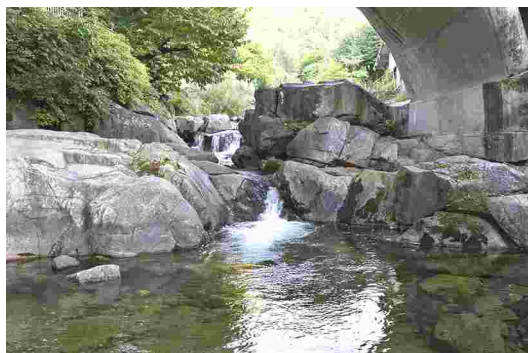
[위치] 대용소동 북쪽 아래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침덕바우골 동쪽 맞은편에 있는 골

짜기로, 웃가는골 남쪽 위에 있다.

작은용소 [소]

[위치] 후리절 마을 남쪽에 있는 작은 소를 말한다. ‘소용소(小龍沼)’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은용소(소용소, 小龍沼)’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가뭄이 들면 작은용소에서 개를 잡아 피를 뿌리고 기우제를 지냈다. 원주군수까지 와서 작은용소에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된절터까지 올라가 기우제를 지냈다 한다.



「작은용소 ; 2019년」

작은용수골 [골]

[위치] 저고리봉 남쪽 아래에서 남동쪽으로, 백운산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소용소동(小龍沼洞)과 사제울 마을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작은용소골(소용소동)’이라 하였다.

[내용] 골짜기 안에 ‘팔배골’, ‘자빠진골’, ‘부처앞은골’, ‘벼락바우골’, ‘된절터골’ 등이 있다.

작은용수골 [마을] → 소용소동

작은원수골 [골]

[위치] 서곡저수지 남쪽 원수골 중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장승 [장승] → 서평장승

장승거리 [마을]

[위치] 서평장승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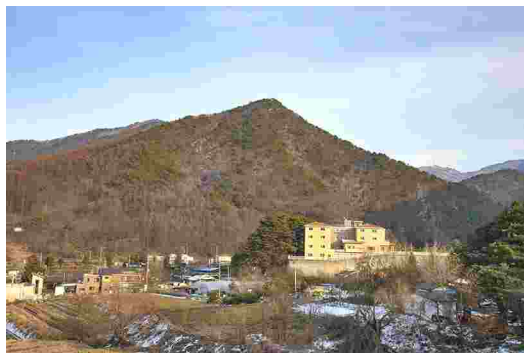
재골 [골]

[위치] 동막에서 동쪽 가섭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지골(峴谷)’이라 하였다.

저고리봉 [산]

[위치] 후리절 마을 남동쪽 앞에 있는 높이 467m의 산을 말한다. 산 남쪽 아래에서 큰용수골과 작은용수골이 갈라진다. ‘도덕봉’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덕봉’이라 하였다.

[유래담] 천지가 개벽할 때 이 봉우리의 모습이 저고리가 걸린 모습과 같았다고 하여 저고리봉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저고리봉의 샘물에서는 소 오줌 같은 물이 나온다 한다. 옛날 이 봉에 신선이 내려와 두던 장기판이 바위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저고리봉 ; 2020년」

절터골 [골]

[위치] 내남송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절터골(寺堡谷)’이라고 하였다.

[내용] 절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큰 연자방아들이 남아있다. 옷이 오르면 연자방아에 고인 물로 씻으면 나왔다고 한다.

정네미떨어진골 [골]

[위치] 큰용수골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좁은다리 [다리] → 도매교

[유래] 다리가 매우 좁았으므로 ‘좁은다리’라고 하였다.

중간말 [마을]

[위치] 외남송 마을 중 개마을 남쪽, 건너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원주화교소학교가 들어서 있다.

[유래] 개마을과 건너말 중간에 있다고 하여 중간말이라 한다.



「중간말 마을 ; 2020년」

중사린골 [골]

[위치] 소용소동에서 동쪽으로, 높이 737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중이 입적하면 화장을 하던 곳이므로 ‘중사룬골>중사린골’이라 하였다.

중촌(中村) [마을]

[위치] 서평 북동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놀바우들 동쪽에 있다.

[유래] 중이 살던 마을이라 중촌이라 하였다 한다.

쥐고개 [고개]

[위치] 신흥동에서 북쪽 외남송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내치기들이 있다.

쥐고개골 [골]

[위치] 내치기들에서 남쪽으로 쥐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짹박골 [골]

[위치] 내남송저수지에서 남동쪽으로, 가섭재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남송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천매봉골 [골]

[위치] 외남송 개마을에서 북쪽 천매봉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남쪽에 서부터 파랑어린이공원, 매봉사거리를 지나 천매봉에 이르는 지역이다. 골짜기 위, 천매봉 남쪽 아래에 경천원의 신촌동과 시은동이 있었다.

[내용] 현재 골짜기 입구에는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천매봉 앞까지 골짜기 전체에 주택 및 상가가 들어서 있다.

천지봉(天地峰) [산] → 가섭재, 백운산(2)

취실(翠室) [마을]

[위치] 외남송 취실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취실골 [골]

[위치] 외남송 아랫거리들에서 서쪽으로, 192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취실 마을이 있고 운향사가 있다. 골 남쪽 옆으로 중앙선 철로가 지난다. 『조선지리지』에 ‘취실골(翠室谷)’이라고 하였다.

취실성향당 [당]

[위치] 취실골 앞 남송천의 남송교 동쪽 건너에 있는 성향당을 말한다. 남송천 남송교 옆에 있다.



「취실성향당 ; 2019년」

치마바우 [바위]

[위치] 외남송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모양이 마치 치마를 펼친 것 같으므로 치마바우라 하였다.

치마바우골 [골]

[위치] 외남송 치마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침덕바우골 [골]

[위치] 대용소동 작은동백골 서쪽 맞은편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857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코클소 [소]

[위치] 옷백운정 애기소와 두명소 사이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큰고개 [고개] → 큰재

큰바람골산 [산]

[위치] 매봉산 남쪽, 어깨봉 남동쪽에 붙어있는 높이 713m의 산을 말한다. 소용소동 동쪽에 있다. 신촌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큰용소 [소]

[위치] 후리절 남동쪽에 있는 큰 소(沼)를 말한다. 용이 승천을 하고 나서 소가 많이 매워졌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큰용소(대용소)’라 하였다.

큰용수골 [골]

[위치] 후리절 저고리봉 아래에서 남쪽으로, 백운산과 오두봉 줄기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대용소동 마을이 있다.

큰용수골 [마을] → 대용소동

큰원수골 [골]

[위치] 서곡저수지 남쪽, 원수골 중 큰 골짜기를 말한다.

큰재 [고개]

[위치] 내동막에서 동쪽으로, 신촌 올미둑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금성골과 부영이골을 지나 매봉산 남쪽 능선을 넘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큰바람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520m이다. ‘가섭재큰재’, ‘큰고개’라고도 한다.

탑거리 [길]

[위치] 옥녀봉 남서쪽, 옷백운정들과 탑거리들 사

이의 길을 말한다.

[유래] 옛 절터에 탑이 있었으므로 탑거리라 하였다. 현재 절터는 들이 되어 있고 석탑 부재들은 후리절 마을 앞에 옮겨 놓았다.

탑거리들 [들]

[위치] 옥녀봉 서쪽, 옷백운정들 동쪽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탑거리들(塔巨里坪)’이라고 하였다.

터골 [골]

[위치] 작은용수골과 큰용수골이 만나는 곳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토골(土谷)’이라고 하였다.

토골 [골] → 터골

팔배골 [골]

[위치] 소용소동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737m의 봉우리를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동쪽 너머에 신촌리 버들바우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팻비골(豆梨谷)’이라고 하였다.

화약골 [골]

[위치] 큰용수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화전지골 [골]

[위치] 후리절에서 남서쪽으로, 분지동고개를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분지동고개 동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서곡전원마을이 들어서 있다.

황문터 [터]

[위치] 내남송 동쪽, 내남송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는 집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여기에 황문이라고 하는 중이 살았으므로 황문터라 하였다.

황문터들 [들]

[위치] 내남송에서 북동쪽으로, 모래재 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들 옆으로 서곡길이 나 있고 들 가운데로는 19번 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후리사(厚里寺) [마을] → 후리절

후리사공소 [성당]

[위치] 후리절 마을에 남아있는 옛 천주교 공소를 말한다.

[유래] 1880년경 설립된 매지리 분지동공소가 1890년경 용수골로 옮겨갔다가 1900년 초에 현 후리사공소로 옮겨왔다. 풍수원성당 소속에서 출발하여 1913년 원동성당, 1960년 단구동성당, 1998년 구곡성당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후리사공소 ; 2020년」

후리사들 [들]

[위치] 후리절 마을 북동쪽, 옥녀봉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후리사터 [터] → 서곡사터

후리절 [마을]

[위치] 윗백운정 남쪽, 용수골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후리사’라고도 한다. 현재는 용수골이란 이름이 피서지로 더 유명해져 ‘용수골’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후리절(후리사)’이라 하였다.

[유래] 후리절, 후리사라는 절 이름이 마을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풀이] ‘후리’는 ‘수리’에서 나온 것이다. 가섭재를 수리봉이라 하고 그 아래 골짜기를 수리실이라 하였다. ‘수리실>서리실>서곡’, ‘수리절>후리절(후리사)’이 되었다. 이를 한자로 적어 ‘서곡(瑞谷)’, ‘서곡사(瑞谷寺)’라 하였다.



「후리절 마을 ; 2020년」

후리절 소나무숲 [숲]

[위치] 후리절 마을에 있는 소나무 숲을 말한다. 용수골 입구 후리절교 옆에 있다.

[내용] 수령 150~200년생 소나무 2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숲에 송암정(松岩亭)이 있고, 후리사터의 탐재 등 유물을 모아두었다.



「후리절 소나무숲 ; 2019년」

후리절터 [터] → 서곡사터

흐르목 [골]

[위치] 큰용수골 안쪽 끝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신촌리(新村里)

[위치]

신촌리는 판부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금대리, 서쪽으로는 서곡리,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북쪽으로는 관설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판제면(板梯面) 본이리(本二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관설리(觀雪里) 소속으로 판부면(板富面)에 편입하여 원주군 판부면 관설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승격할 때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꾸면서 원성군 판부면 관설리가 되었다.

1973년 관설리가 원주시에 이관되면서 원주시 관설동이 되었다.

1983년 관설동에서 분리되어 판부면으로 재편입되면서 원성군 판부면 신촌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을 다시 원주군으로 바꾸면서 원주군 판부면 신촌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가 되었다.

[유래]

1983년 이전에는 판부면 관설리 또는 원주시 관설동으로 있다가 1983년 관설동에서 분리되어 판부면에 소속되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으로 신촌(新村)이라 하였다.

가는골 [골]

[위치] 새말 끝담에서 내 건너 남서쪽으로, 73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가는골 [마을]

[위치] 가는골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가섭재 [산] → 백운산, 수리봉

가정골 [골]

[위치] 큰골 상류 길은골 끝부분에서 남동쪽으로, 922.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곱장골(1) [골]

[위치] 둔덕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흠저골과 문전골 사이에 있다.

곱장골(2) [골]

[위치] 흠저골 안, 버들바우골 아래에서 서쪽으로, 737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공동묘지골 [골]

[위치] 늘개골 중간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으로는 행성바우골이 갈라진다. 봉우재 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풀무골 공동묘지가 있으므로 공동묘지골이라 하였다.

관설천(觀雪川) [내] → 신촌천

길은골 [골]

[위치] 큰골에서 이어져 남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가 길므로 길은골이라 하였다.

끝담 [마을]

[위치] 신촌 마을 중 북쪽 가장 아래쪽, 가는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논골 [골]

[위치] 삼밭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높은다리 [마을]

[위치] 높은다리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높은다리골 [골]

[위치] 덕거리에서 신촌천 건너 동쪽으로, 380m 봉우리를 향하여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늘개골 [골]

[위치] 신촌리 입구 내관설 아랫담에서 서쪽으로, 38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봉우재 북쪽 아래에 있다. 골짜기 중간에서 남쪽으로는 공동묘지골이 갈라지고 남서쪽으로는 행성바우골이 갈라진다. 관설동과 신촌리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대박골 [골]

[위치] 찬샘동지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덕거리 [마을]

[위치] 올미독삼거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봉우재들 남쪽 위, 올미독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둔덕 길에 마을이 섰으므로 덕거리라고 하였다.

[풀이] ‘덕+거리>덕거리’가 되었다. ‘덕’은 ‘언덕, 둔덕, 높은 곳’을 뜻하고 ‘거리’는 길, 또는 길의 마을에 붙는 지명소이다.



「덕거리 마을 : 2020년」

덕거리들 [들]

[위치] 덕거리 마을 주변의 작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더거리들(德街坪)’이라고 하였다.

덕거리보 [보]

[위치] 덕거리 마을 앞에 있는 신촌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덕거리보(德巨里洑)’라고 하였다.

덧재목 [고개]

[위치] 올미둑에서 말림골을 지나 서쪽으로 서곡리 동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덧지목이(加峴)’라고 하였다.

동막골(1) [골]

[위치] 끝담 북쪽 아래에서 북동쪽으로, 47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막골(1) 입구 ; 2020년」

동막골(2) [골]

[위치] 은행나무골(1) 끝에서 남쪽으로, 69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작은동막골이 갈라져 나간다.

둔덕 [마을]

[위치] 새말 서쪽, 신촌천 건너 언덕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흠저골, 곱장골, 문전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둔덕들 [들]

[위치] 둔덕 마을 남쪽의 흠저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말구랭이 [바위]

[위치] 옛 새말성향당 밑에 있는 절벽을 말한다.

[유래] 옛날 이곳에서 말이 굴러 떨어져 죽었으므로 말구랭이라 하였다.

[풀이] ‘말+구+ㄹ+엇+이>말구령이>말구랭이’이다. ‘엇’은 벼랑의 방언이고 ‘이’는 접미사이다.

말뚝바위 [바위]

[위치] 셋담부락 끝, 법인암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말림골(1) [골]

[위치] 둔덕들 남쪽 위, 곱장골(2) 북쪽 아래에서 서쪽으로 높이 737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말림골(2) [골]

[위치] 올미둑 안암박골에서 서쪽 545m 높이의 매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매봉산 [산]

[위치] 올미둑 삼거리 남서쪽에 있는 높이 545m의 산을 말한다. 가섭재 남쪽에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미봉산(鷹峰山)’이라 하였다.

[내용] 서곡리와 경계가 되는 백운산 줄기의 산이다. 산 서쪽 너머에 서곡리 내동막 도장골과 금성골, 서곡저수지가 있다. 산 정상 아래로 새 중앙선 철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문전골 [골]

[위치] 둔덕과 끝담 사이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는골 남쪽, 곱장골(1)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람골 [골]

[위치] 올미둑에서 앞구릉들과 번던들을 지나 남서쪽으로, 713m의 큰바람골산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큰바람골’이라고도 한다.

밤나무골 [골]

[위치] 길은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백운산(白雲山) [산]

[위치] 신촌리와 서곡리의 경계가 되는 537.2m 높이의 산을 말한다. 큰풀무골 서쪽 끝에 있다. ‘가섭재’, ‘수리봉’, ‘천지봉’이라고도 한다. 백운산과

매봉산 산줄기 아래로 새 중앙선 철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가섭지(加薪山)’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섭재(수리봉)’라 하였다.

[내용] 이 산을 ‘가섭재’, 또는 ‘백운산(白雲山)’이라고 하고 서곡리에서는 ‘수리봉’이라고도 한다. 가정골 끝 922.5m 봉우리 동쪽에 986m의 백운산(작은백운산)이 있고 귀래면에도 백운산이 있다. 따라서 백운산이라는 이름은 높이 1,087.1m의 백운산을 비롯해서 판부면에서 귀래면에 이르기까지 백운산 줄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버들바우골 [골]

[위치] 흙저골 상류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곱장골(2)의 남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버섯바우 [바위] → 석이바우

번던들 [들]

[위치] 올미둑 앞구렁들에서 남서쪽 위로 이어진 들을 말한다. 들 끝에 큰바람골과 켜기골이 있다. 군 사격장이 있다.



「번던들 ; 2020년」

범바우골 [골]

[위치] 신촌 새말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와 신촌 남쪽 새버덩 마을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들을 말한다. 각각 ‘큰범바우골’과 ‘작은범바우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범벽골(虎見谷)’이라고 하

였다.

[내용] 이곳에는 ‘범바우골’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에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각각 ‘큰범바우골’과 ‘작은범바우골’이 있어 네 개의 ‘범바우골’이 있다.

범뎃거리재 [고개]

[위치] 신촌 끝담과 셋담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호랑이 뎃을 놓던 곳이므로 범뎃거리라 하였다. 길을 넓히기 전 고개에 있던 바위에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길을 넓힌 후 바위도 없어지고 고개도 많이 낮아졌다.

범벽골 [골] → 범바우골

봉우재 [산]

[위치] 관설동 뱃벌논 서쪽, 신촌천 건너에 있는 높이 282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현 원주골프타운 남서쪽에 있는 산이다. 산줄기를 가로질러 중앙고속도로가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봉우재’라고 하였다.

[유래] 조선시대 봉화를 올리던 봉우리라 하여 봉우재라 하였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이후에 기우제를 지낸 산이라 한다.



「봉우재 ; 2020년」

봉우재골 [골]

[위치] 안벌논 아랫말에서 봉우재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봉자골’이라고도 한다.

봉우재들 [들]

[위치] 벌논에서 신촌으로 들어가는 신촌천 하류,

큰골 입구에서 덕거리마을까지 이어진 신촌천 옆의 들을 말한다. 안벌눈 서쪽 내 건너에 있다.

[유래] 봉우재 아래에 있으므로 봉우재들이라 하였다.

봉우재보 [보]

[위치] 봉우재들에 딸린 신촌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봉의현보(鳳儀峴湫)’라 하였다.

봉자골 [골] → 봉우재골

부항(阜項) [마을] → 올미дук

부항골 [골]

[위치] 덕거리 마을에서 남서쪽 올미дук 웃말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부항골 ; 2020년」

부항들 [들]

[위치] 올미дук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부항이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부항이들’이라 하였다.

부항삼거리 [길] → 올미дук삼거리

부항이들 [들] → 부항들

부항이들 [들] → 부항들

북정골 [골]

[위치] 새말 큰 골 앞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삼밭골 [골]

[위치] 작은범바우골(2) 남쪽 위, 은행나무골(2)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삼을 재배하였으므로 삼밭골이라 하였다.

새말(1) [마을] → 신촌

새말(2) [마을] → 새버덩

새말골 [골]

[위치] 관설동 벌눈에서 남쪽으로 신촌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과 지역이 겹친다.

새말보 [보]

[위치] 신촌 새말에 있는 신촌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시말보(新村湫)’라 하였다.

새말성황당 [당]

[위치] 새말 앞 신촌천 옆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마을 한 가운데 바위절벽의 소나무가 있는 곳이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내용] 신촌천 바위절벽의 소나무를 당목으로 삼아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성황제를 지냈다. 마을 위쪽으로 당을 옮겼다가 그 당도 폐지되었다.



「새말성황당터 ; 2020년」

새버덩 [마을]

[위치] 은행나무골(1) 앞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재림연수원 서쪽에 있다. 새말이라고도 한다.

[유래] 새로 마을이 들어서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들 [들] → 찬샘등지

셋담 [마을]

[위치] 신촌 끝담과 새말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

한다. 연자방아 터와 물레방아 터가 있었다.

[유래] 두 마을 사이에 있으므로 ‘사이+담>사잇담>셋담’이라 하였다.

석이바우 [바위]

[위치] 삼밭골 안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버섯 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석이버섯이 많이 나므로 석이바우, 버섯바우라고 하였다.

수리봉 [산] → 백운산

신배나무골 [골]

[위치] 밤나무골 앞. 북정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신촌(新村) [마을]

[위치] 신촌천 큰골의 상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덕거리, 올미дук 남쪽 위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에 ‘새말’, ‘둔덕’, ‘골담’, ‘셋담’, ‘새버덩’이 있다. ‘새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시말(新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촌(新村)’이라 하였다.

[유래] 올미дук 남쪽 골짜기에 새로 들어선 마을이므로 ‘새말’, 이를 한자로 ‘신촌(新村)’이라 하였다.



「신촌 마을 : 2020년」

신촌천(新村川) [내]

[위치] 신촌 남쪽 위 백운산 줄기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흐르면서 덕거리를 지나 관설동 안벌눈에서 원주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관설천(觀雪川)’이라고도 한다.



「신촌천 : 2019년」

쌔기골 [골]

[위치] 올미дук 변들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바람골 남동쪽에 있다.

아랫말 [마을]

[위치] 올미дук 마을 중 동쪽 아래, 신촌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안암박골 [골]

[위치] 올미дук에서 서쪽 545m의 매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함박골’이라고도 한다.

안함박골 [골] → 안암박골

얹구렁들 [들]

[위치] 올미дук 웃말 동쪽 아래, 신촌천 서쪽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약물탕 [샘] → 옷물

약수터 [샘] → 옷물

어깨봉 [산]

[위치] 매봉산 남쪽, 큰바람골산 북서쪽에 붙어있는 높이 708m의 산을 말한다.

오리목 [마을] → 올미дук

[유래] 지형이 오리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오리목이라 하였다고 한다.

올미동 [마을] → 올미дук

올미дук [마을]

[위치] 큰골 안, 덕거리의 올미дук삼거리에서 남서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올’을 ‘오리’로 보

아 ‘오리목’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부항(甓項)’이라고 하였다. ‘덕거리’, ‘웃말’, ‘아랫말’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오리목(부항, 올미дук)’이라 하였다.

[유래] 산으로 올라가는 덕 언덕에 마을이 섰으므로 올미дук이라 하였다. 또는 지형이 오리 목처럼 생겨서 오리목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올(<오르>+메+дук>올메дук>올미дук’이 되었다. ‘올미’란 지명은 우뚝하게 높은 산에 쓰는 지명으로 한자로는 ‘올산(兀山)’으로 쓴다. 다른 지역의 지명으로는 ‘올산(兀山)·올뫼·올미’ 등이 있다. ‘올’은 ‘오르대(登, 岳)’는 뜻으로 제주도의 ‘오름·오름’에 남아있는 옛말이며, ‘미’는 ‘뫼>메>미’로 산(山)을 뜻하고, ‘덕, 둑’은 ‘언덕, 둔덕, 높은 곳’을 뜻한다. 따라서 ‘올미дук’은 ‘오르막 언덕의 마을’이란 뜻이다.



「올미дук 마을 ; 2019년」

올미дук삼거리 [길]

[위치] 올미дук 덕거리에 있는 세 갈래의 길을 말한다.

웃물 [샘]

[위치] 봉우재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약물탕’이라고도 한다.

[유래] 웃 오른 사람이 이 물에 목을 축이면 나으므로 웃물이라고 하였다.

웃말 [마을]

[위치] 올미дук 마을 중 남서쪽 위에 있는 마을로, 바람골 입구, 번든들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은행나무골(1) [골]

[위치] 큰골 남쪽 끝에서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동막골(2)가 이어진다. 골 입구 남쪽 위에 재림연수원이 들어서 있다.

[유래] 큰 은행나무가 있으므로 은행나무골이라 하였다.



「은행나무골(1) ; 2020년」

은행나무골(2) [골]

[위치] 큰골 안, 삼밭골 남쪽 위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동막골 [골]

[위치] 동막골(2)에서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범바우골(1) [골]

[위치] 신촌 새말에서 남동쪽으로, 53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범바우골(1) 남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입구에 법인암이 있다.



「작은범바우골(1) ; 2020년」

작은범바우골(2) [골]

[위치] 큰골 안, 큰범바우골(2) 남쪽 위에서 남동쪽 69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삼밭골 남쪽 아래에 있다. 골짜기 입구에 재림연수원 기도원이 들어서 있다.

장자골 [골]

[위치] 올미дук 안암박골과 갈라져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장자곡(長子谷)’이라고 하였다.

장자터 [터]

[위치] 장자골에 있는 옛 집터를 말한다. 현재 과수원이 들어서 있다.

[유래] 옛날 큰 부자가 난 곳이라고 한다.

재령골 [골]

[위치] 삼밭골 입구 남쪽 위에서 남서쪽으로, 높이 840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절골 [골]

[위치] 덕거리 올미дук삼거리에서 서쪽으로, 매봉산 북쪽의 53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절골(寺谷)’이라 하였다.

절터 [터]

[위치] 흠저골 안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지금도 기왓장이 나온다고 한다.

찬샘등지 [들]

[위치] 큰골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샘들’, ‘참산 뜰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샘들’이라고 하였다.

[유래] 맑고 찬 물이 나오는 곳에 들이 있으므로 ‘샘들’, ‘찬샘등지’라고 하였다. 부정한 사람이 가면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참산뜸지 [들] → 찬샘등지

천지봉(天地峰) [산] → 백운산

큰골 [골]

[위치] 신촌천 하류 안벌눈에서 남쪽으로 백운산

줄기인 920.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신촌 마을이 있다. ‘새말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큰골(大谷)’이라고 하였다.

큰바람골 [골] → 바람골

[위치] 올미дук에서 앞구릉들과 번던들을 지나 남서쪽 큰바람골산으로 이어진 긴 골짜기를 말한다. ‘바람골’이라고도 한다.

큰바람골산 [산]

[위치] 서곡리 백운산(1,087.1m)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에 있는 높이 713m의 산을 말한다. 큰바람골 남서쪽 끝, 백운산(가십재, 537.2m) 남쪽에 있다. 서곡리와 신촌리의 경계가 되는 산으로 서쪽 너머에는 용수골, 후리절 마을이 있다.

큰범바우골(1) [골]

[위치] 새말에서 동쪽으로 52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헛가마골 남쪽, 작은범바우골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내용] 골짜기 동쪽 너머에 금대리 쇠마답이 있고 원주천 건너에 금대초등학교가 있다.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새말에서 이 골짜기를 넘어 금대초등학교에 다녔다. 학교로 가는 길은 새말>큰범바우골(1)>쇠마답(금대리)>금대골>된양지>금대초등학교로 이어졌다.



「큰범바우골(1) ; 2020년」

큰범바우골(2) [골]

[위치] 큰골 안, 은행나무골(1) 남쪽 위에서 남동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재림연수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은행나무골(1)과 작은범바우골(2) 사이에 있다.



「큰범바우골(2) ; 2020년」

큰풀무골 [골]

[위치] 올미дук 덕거리에서 서쪽으로, 백운산(가섭재, 537.2m)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쪽에 절골이 있고 북쪽에는 풀무골이 있다.

통가마골 [골]

[위치] 큰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옛날에 솔을 만들던 가마가 있었다고 한다.

통장골 [골]

[위치] 재령골과 신배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옛날에 한쪽 눈이 없는 애꾸가 살았다고 한다.

풀무골 [골]

[위치] 덕거리 아래 봉우재들에서 북서쪽으로 행상바우골 끝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서 큰풀무골이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품무골’, ‘품미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풀무골(冶谷)’이라고 하였다.

품무골 [골] → 풀무골

품미골 [골] → 풀무골

행상바우 [바위]

[위치] 행상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행상바우’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상여처럼 생겼으므로 행상바우라고 하였다.

행상바우골 [골]

[위치] 공동묘지골 입구에서 서쪽으로, 백운산(가섭재, 537.2m)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험적골 [골] → 흠저골

헛가마골 [골]

[위치] 신촌 새말과 끝담 중간에서 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문전골 동쪽 건너편, 큰범바우골(1) 북쪽 아래에 있다.

흠저골 [골]

[위치] 신촌 새말 법인암에서 남서쪽으로 81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위에 절터가 있다. ‘험적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흠적골(險谷)’이라고 하였다.

[내용] 흠저골 안에 ‘말림골’, ‘곱장골(1)’, ‘버들바우골’이 있다.



「흠저골 ; 2020년」

제10편

호저면(好楮面) 지명(地名)



호저면 소재지 ; 1974년

[위치]

호저면은 원주시의 북쪽에 위치하며 원주시청에서 약 10.5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소초면·태장동, 서쪽으로는 지정면과 횡성군 서원면, 남쪽으로는 흥업면, 북쪽으로는 횡성읍·횡성군 서원면과 각각 접하고 있다. 1973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만종리가 남쪽에 섬처럼 떨어져 있어 2개 지역으로 분단되어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호매곡면(好梅谷面)과 저전동면(楮田洞面)의 지역이었다.

1760년대 『여지도서』에 호매곡면에는 1리~5리의 5개 리가 있었고, 저전동면에는 1리·분1리·2리·3리의 4개 리가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호매곡면과 저전동면을 병합하면서 원주군 호저면(好楮面)으로 이름을 바꾸고 가현·우산·만종·사천·주산·고산·광격·대덕 8개 리를 관할하였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되면서 우산리·사천리(沙川里)를 원주시에 이관하였고,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꿈에 따라 원성군 호저면이 되었다.

1973년 가현리를 원주시에 이관하고 지정면 무장리를 편입하였다.

1983년 횡성군 서원면의 압곡리 일부(용곡리)와 산현리와 매호리를 병합하였다.

1989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원주군 호저면이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호저면이 되었다.

현재 고산리·광격리·대덕리·만종리·매호리·무장리·산현리·옥산리·용곡리·주산리 10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유래]

호저(好楮)라는 이름은 호매곡면(好梅谷面)과 저전동면(楮田洞面)을 합치면서 각각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호매곡면은 주산리 호매골에서 따온 이름이며, 저전동면은 일산동 다박골(<탑앞골)에서 나온 이름이다.



호저면사무소 ; 1979년

호저면 만종출장소 ; 1974년





호저면 보건지소 준공식 ; 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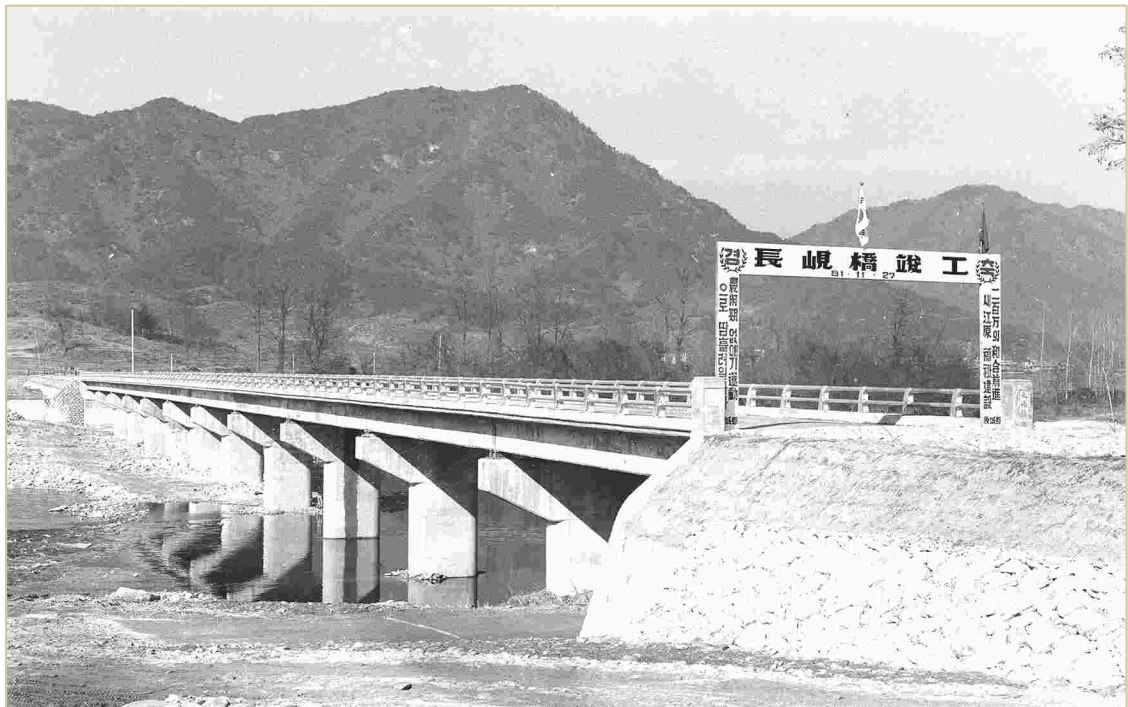
고산리 개전동~입암동 구간 시내버스 개통식 ; 1991년





무장리 장포지구 경지정리사업 기공식 ; 1987년

산현리 장현교 준공 ; 1981년





산현리·매호리·용곡리 호저면 편입 환영식 ; 1983년

산현리 산현보건진료소 준공 ; 1983년





산현리 칠봉유원지 ; 1996년

옥산리 옥산교 개통식 ; 1973년





옥산리 옥산강 ; 1988년

주산리 산누에 사육시험장 ; 1963년





주산리 주산교 준공식 ; 1977년

호저면 소재지 ; 2015년



고산리(高山里)

[위치]

고산리는 호저면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원주시 최북단의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광격리와 횡성읍 갈풍리, 서쪽으로는 용곡리와 횡성읍 금대리, 남쪽으로는 옥산리, 북쪽으로는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학곡리와 접해 있다.

[연혁]

원래 호매곡면의 삼리(三里)·사리(四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니골·개전동·송골·입암을 병합하여 고산리(高山里)라 하고, 호저면(好楮面)에 편입하여 원주군 호저면 고산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꿈에 따라 원성군 호저면 고산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원주군 호저면 고산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가 되었다.

[유래]

높은 산지에 마을이 있으므로 고산(高山)이라 하였다.

가달배이골 [골]

[위치] 고니골 위, 웅덩골과 화채봉골 사이에서 북서쪽 459.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아래쇠판이골 서쪽 맞은편에 있다.

[풀이] ‘가달배이’는 ‘가닥, 갈래’를 뜻하는 방언이다. 골 안에서 골짜기들이 또 갈라지므로 붙인 이름이다.

간촌(間村) [마을]

[위치] 송골과 고산 사이, 고산초등학교 서쪽으로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서쪽에 둔지뚝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간촌(間村)’이라 하였다.

개산이골 [골]

[위치] 진사골과 문바우골 사이 서쪽으로, 321.5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개송 [마을]

[위치] 개전과 송이골이 서로 가깝게 있으므로 두 마을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송이골은 현재 광격리에 속해 있다.

[유래] ‘개전’과 ‘송이골’의 앞 글자를 따서 개송이라 하였다.

개전(介田) [마을]

[위치] 고산 북쪽, 고산저수지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광격리 동막과 갈라지는 삼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넓은 들이 있다. ‘개송’, ‘개전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기전니(介田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개전이(介田-)’라 하였다.

[유래] 물가 옆에 들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유래담] 산이 개처럼 생겨서 개전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지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옛날에 이곳에 사는 한 사람이 개 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는데 어느 날 그 고양이가 자취를 감춘 후 호랑이가 들어와서 개를 물

어 죽이기 시작하였다. 개들은 떨고만 있다가 단합을 해서 그 호랑이를 죽였는데 죽이고 보니 호랑이는 바로 그 고양이였다고 한다.

[풀이] ‘개전’은 물가 옆에 논밭이 있으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횡성군 횡성면 개전리(介田里)는 전천(前川) 옆에 밭이 있으므로 생긴 이름인데, 이것은 개훗, 개와치로 실현되고 있다. 즉 원래 ‘개(물가) 옆에 있는 밭’의 뜻인 ‘개밭’이 ‘개밭>개밭>개왓>개훗, 개와치’로 음운 변천한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옥산천의 상류인 고산천 물가(개) 옆에 밭이 있으므로 ‘개+밭>개밭’, 이를 한자로 적어 ‘개전(介田)’이라 한 것이다. 이때 ‘개(介)’는 소리를 적은 것이고 ‘전(田)’은 뜻을 적은 것이다.



「개전 마을 ; 2020년」

개전동(介田洞) [마을] → 개전

개전들 [들]

[위치] 개전 마을 동쪽 앞, 고산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개전삼거리 [길]

[위치] 개전 앞의 세 갈래 길을 말한다. 옥산리, 광격리 동막, 고산리로 갈라지는 길이다.

개전성황당 [당]

[위치] 개전 아랫담, 병골 입구의 당숲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내용] 개전 마을과 광격리 송이동 주민들이 매년 음력 10월 7일에 제사를 지낸다.



「개전성황당」; 2019년

개전이 [마을] → 개전

개전이당앞 [들] → 당앞

개전이주막 [주막]

[위치] 개전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기전니주막(介田里酒幕)’이라고 하였다.

개전저수지 [못] → 고산저수지

검두재 [고개]

[위치] 진사골에서 북서쪽으로,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검두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400m이다. 『조선지리지』에 ‘검덕지(琴垞岨)’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검두재’라 하였다.

[유래] 고개 너머에 검두 마을이 있으므로 검두재라 하였다.

[내용] 1840년대 천주교인들이 횡성 풍수원을 거쳐 검두재를 넘어와 고니골에 정착하였다.

검심무덤이골 [골] → 점심무덤이골

고농골 [골] [마을] → 고니골

고니고개 [고개]

[위치] 고니골 서쪽 반삼밭골을 지나 반삼골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태미자골을 지나 검두 마을에 닿는다. 고개 높이는 438m이다.

[내용] 고니 마을 형성 초기에 고니골 천주교 신

자들이 횡성 서원면 금대리 검두로 예배를 보러 다니던 고개이다.

고니골 [골]

[위치] 현 고산저수지 북동쪽으로 나 있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동쪽과 서쪽, 북쪽이 모두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은 화채봉으로 막혀 있고 동쪽은 새질재와 쇠판이재가 횡성을 갈풍리와 학곡리의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고니고개, 검두재, 선바우재 등으로 이루어진 산줄기가 서원면 금대리, 압곡리와 경계를 이룬다. 고니골 안 동쪽과 서쪽에 많은 골짜기들이 있다.

고니골 [마을]

[위치] 고산리에서 최북단에 있는 마을로 진사골 북쪽, 하일재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우촌이다. ‘곤익골’, ‘곤이골’, ‘고농골’, ‘고무니골’, ‘고충골’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조선지리지』에 ‘곤의동(昆矣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곤이동’이라 하였다.

[유래] ‘고니골’의 정확한 어원은 밝히기 어렵다. 기해박해(1839)를 피하여 이곳에 정착한 세 가구가 천주교 신자로서 어려운 산골생활을 해왔는데, ‘곤란을 당했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충골’, ‘곤의골’이라 했다고 전한다.

[내용] 고니골 마을이 형성된 것은 1840년대 초쯤으로 추정된다. 기해박해(1839) 때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피신한 천주교 교우 세 가족이 삶의 근거지로 택한 곳으로, 이곳이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천주교 교우촌이다. 이들 세 가구는 경기도에서 풍수원과 횡성 검두를 거쳐 첩첩산중인 이곳에 정착하였다. 전에는 약 50가구가 살았으나 현재 7가구가 살고 있다. 천주교공소가 있다.

고니골공소 [성당]

[위치] 고니골 안, 반삼밭골 앞에 있는 천주교 교회를 말한다. ‘교회’라고도 한다.

[내용] 1840년대 초,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 골짜기에 세 가족이 정착하였는데 이것이 원주 지방의 가장 오랜 교우촌이라고 한다.



「고니골공소 ; 2019년」

고니골산 [산]

[위치] 고니골 북서쪽, 선바우골에 있는 307.2m 높이의 산을 말한다. ‘고무니골산’이라고도 한다.

고무니골산 [산] → 고니골산

고산(高山) [마을]

[위치] 송골 위, 광격 아래에 있는 마을로 현 고산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상고산’, ‘하고산’, ‘간촌’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고산(高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산리(高山里)’라 하였다.

[유래] 산이 높고 골이 깊으므로 ‘고산(高山)’이라고 하였다.

고산(高山) [산]

[위치] 고니골 남동쪽, 진사골 동쪽에 있는 426.1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내용] 고산리와 광격리, 황성을 갈풍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북쪽 아래에 새질재가 있고 남쪽에는 동막저수지와 동막 마을이 있다.

고산저수지 [못]

[위치] 개전 북쪽 위, 선바우 남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1980년에 완공하였다. ‘개전저수지’라고도 한다.



「고산저수지 ; 2019년」

고산천(高山川) [내] → 옥산천

[위치] ‘옥산천(玉山川)’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산천(高山川)’이라 하였다.

[유래] 옥산천 상류인 고산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 ‘고산천’으로 부른다.

고산초등학교 입암분교 [학교]

[위치] 문바우골 남쪽, 선녀골 입구에 있던 옛 입암분교를 말한다.

[내용] 1969년에 개교하였다가 1990년에 폐교되었다. 폐교 후, 학생수련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고산초등학교 입암분교터 ; 2019년」

고춤골 [골]

[위치] 된봉(고춤골산) 서쪽 아래의 골짜기를 말한다. 밤나무골 끝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된봉 아래로 난 골짜기이다. 남쪽으로는 텃골이 갈라져 나간다. 『조선지지자료』에 ‘고춤골(高品洞)’이라고 하였다.

고충골 [마을] → 고니골

고충골산 [산] → 된봉

곤의골(昆矣-) [마을] → 고니골

곤이골 [골] [마을] → 고니골

곤이동 [마을] → 고니골

광골 [골]

[위치] 고니골 마을 아래, 진사골 동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지형이 광처럼 생겼으므로 광골이라고 부른다.

교회 [성당] → 고니골공소

귀용골 [골]

[위치] 고니골 공소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반삼밭골 동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권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골짜기의 물이 좋아서 그 물로 밥을 짓기도 한다.

권골 [골] → 귀용골

기와집바우 [바위]

[위치] 고니골 뒤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기와집바우’라 하였다.

[유래] 생김새가 기와집처럼 생겨서 기와집바우라 한다.

기와집바우골 [골]

[위치] 기와집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기와집바우골’이라 하였다.

내곡(內谷) [마을] → 안골

농바우물 [샘]

[위치] 칠송정 들에 있던 샘을 말한다. 지금은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 ‘농바우물’이라 하였다.

[유래] 농 같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므로 농바우물이라 하였다.

다래골 [골]

[위치] 문바우골 안 애정골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단무곡(檀茂谷) [골] → 단무실

단무실(檀茂實) [골]

[위치] 고산저수지 중간에서 서쪽 화채봉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459m 높이의 화채봉이 있다. ‘단무곡’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단무실(檀茂實)’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단무실(단무곡)’이라 하였다.

[유래담] 뒤로는 더 이상 골짜기가 없다고 하여 단무실이라 하였다고 한다.

당앞 [들]

[위치] 개전성황당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개전이당앞’이라 하였다.

[유래] 성황당 앞에 있는 들이므로 당앞이라고 부른다.

도장골 [골]

[위치] 개전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장골’이라 하였다.

돌보 [보]

[위치] 무밀골 앞, 작은단무실골 아래에 있는 보(洑)를 말한다. 앞들에 물을 댄다.

동막산(東幕山) [산]

[위치] 고산저수지 점심무덤이골 동쪽에 있는 높이 333.3m의 산을 말한다.

[내용] 고산 남쪽 산줄기에 있는 봉우리로 고산리와 광격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남쪽 아래에 송이산이 있다.

돼지막골 [골]

[위치] 문바우 마을에서 북서쪽 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를 넘으면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에 닿는다. ‘회돌배기골’이라고도 한다.

된봉 [산]

[위치] 안골에서 서쪽으로 밤나무골과 고충골을 거

쳐, 서쪽 끝에 있는 높이 369.1m의 산을 말한다. 산 서쪽 너머는 용곡리이며 남동쪽 아래에 절재가 있다. ‘고충골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된봉산(고충골산)’이라 하였다.

[유래] 고개 두 개를 넘어야 갈 수 있으므로 고되고 힘이 든다고 해서 ‘고충골산’, ‘된봉’이라고 한다. 사람이 가기에는 먼 거리이며, 산태지가 많다고 한다.

두란지 [골]

[위치] 개전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두란지’라 하였다.

두무재 [고개]

[위치] 개전 북쪽, 고산저수지 남쪽 뒤밀골에서 서쪽 용곡리 뒤밀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308m이다. ‘두무치’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두밀지(杜蜜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두무재(두무치杜舞峙)’라 하였다.

[풀이] ‘두무재(두무치)’는 ‘두(뒤)+무(물)+재(고개)> 두무재’이다. ‘두’는 ‘금두’, ‘뚝내’처럼 ‘뒤(後)’의 뜻이고, ‘무’는 ‘물(水)’에서 리가 탈락한 것이며, ‘재(치)’는 고개이다. ‘뒤밀골, 두밀골’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 밀, 미~메’는 ‘물’의 옛말이므로 ‘두밀골, 뒤밀골’은 ‘마을 뒤에 물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따라서 ‘두무재, 두무치’는 ‘마을 뒤 물 골짜기의 고개’란 뜻이다.

두무치(杜舞峙) [고개] → 두무재

두밀골 [골] → 뒤밀골

둔지뚝 [들]

[위치] 고산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간촌 서쪽, 송골 북쪽에 있는 들이다. 『조선지지자료』에 ‘둔지들(屯地坪)’이라고 하였다.

뒤밀골 [골]

[위치] 고산저수지 아래 앞들에서 서쪽으로, 높이 284.9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단무실골 남쪽, 돌보 서쪽에 있다. 골짜기 끝에서 두무재를 지나 남서쪽으로 용곡리 뒤밀골과 이어진다. ‘두밀골’, ‘뒤밀골’, ‘무밀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뒤밀골’이라 하였다.

[풀이] ‘뒤(두)+밀+골>뒤밀골’이 되었다. ‘두(뒤)’는 ‘뒤(後)’의 뜻이고 ‘밀’은 ‘물’의 옛말이다. 마을 뒤의 물이 나오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뒤밀골 [골] → 뒤밀골

뒷골(1) [골]

[위치] 고니골공소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반삼발골 북쪽에서 서쪽으로, 429.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귀용골 맞은 편, 반삼발골과 웅덩골 사이에 있다.

뒷골(2) [골]

[위치] 진사동 아래뒷골에서 이어져 북서쪽 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딴봉 [산]

[위치] 고산초등학교 입암분교 북서쪽에 있는 높이 307m의 산을 말한다. 문바우골 남쪽, 선바우골 북쪽에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딴봉(獨高峰)’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딴봉’이라 하였다.

[유래] 북쪽에 문바우골, 남쪽에 선바우골, 서쪽은 낮은 지대여서 혼자만 외따로 떨어져 우뚝하게 솟아 있으므로 ‘딴봉’이라고 한다.

마산골 [골]

[위치] 고산저수지 상류 끝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선바우골 남쪽, 점심무덤이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상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마상골’이라 하였다.

마상골 [골] → 마산골

무밀골 [골] → 뒤밀골

문바우 [마을]

[위치] 문바우골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북서쪽으로 돼지막골이 이어진다. 현재 마을에 고

니골교육농장이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문암(門岩)’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문바우(문암門岩)’라고 하였다.

문바우 [바위]

[위치] 선바우 북쪽 골짜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현 고니골교육농장 서쪽 위 산길 입구에 있다. ‘문암’이라고도 한다.

[유래] 길 양쪽에 바위가 서 있으므로 이를 문으로 보고 ‘문바우’라 하였다.



「문바우 ; 2018년」

문바우골 [골]

[위치] 옛 고산초등학교 입암분교터 북쪽에서 북서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고니골농장, 문바우 마을이 있고 마을 북서쪽으로 돼지막골이 이어진다.

문바우재 [고개]

[위치] 문바우골에서 북서쪽으로, 횡성 서원면 금대리 검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315m이다.

문암(門岩) [바위] → 문바우

미락골 [골]

[위치] 개전 마을 남쪽 병골에서 북서쪽 242.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두무재가 있고 고개 너머 남서쪽에 용곡리 뒤 밀골이 있다.

반삼골 [골]

[위치] 고니골 마을에서 서쪽 반삼밭골 위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 골짜기 끝에는 480m 봉우리를 비롯하여 400m급 산들이 능선을 이루고 있다. 골 서쪽 너머에는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검두 마을이 있다. ‘밤산골’이라고도 한다.

반삼밭 [마을]

[위치] 고니골 공소 서쪽 위 반삼밭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귀용골 서쪽 맞은편에 있다. ‘청삼밭’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청삼밭’이라고 하였다.

[유래] 삼이 잘 되는 밭에 마을이 들어서서 반삼밭, 청삼밭이라 하였다.

밤나무골 [골]

[위치] 개전 남쪽 병골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병골 입구에서 미락골과 갈라져 남서쪽으로 나 있다. 골짜기 끝에서 남쪽으로 텃골이 이어진다.

밤산골 [골] → 반삼골

백하촌(柏下村) [마을] → 잣나무터

뱀골 [골]

[위치] 고산저수지 남쪽 독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병골 [골]

[위치] 개전 남쪽 안담에서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병골은 다시 미락골과 밤나무골, 병무안골로 갈라진다. 『조선지리지』에 ‘병골(飛來員)’이라고 하였다.

병골 [마을]

[위치] 개전 남쪽, 병골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병골’이라 하였다.

[유래] 지형이 병처럼 생겼으므로 병골이라고 하였다.

병무안골 [골]

[위치] 병골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중 가운

데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두무재로 연결된다.

병풍바우골 [골]

[위치] 고니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병풍바위골(屏岩谷)’이라고 하였다.

삼면봉(三面峰) [산]

[위치] 고니골 최상단, 화채봉골 끝에 있는 544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유래] 이 봉우리가 황성군 서원면, 황성읍, 원주시 3개 지역의 경계이므로 ‘삼면봉(三面峰)’이라 하였다. 원래 이름이 없었으나 백두대간 종주 등반인들이 최근에 붙인 이름이다.

[내용] 이 봉우리 바로 뒤에 545m, 557m 봉이 북쪽으로 연달아 이어지고 그 능선 아래에 평나무재가 있다. 557m 봉우리를 화채봉이라 부른다.

상고산(上高山) [마을]

[위치] 고산 마을 북서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개전 남쪽, 광격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웃고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고산(상고산上高山)’이라 하였다.

새들 [들]

[위치] 개전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들’이라 하였다.

새질재 [고개]

[위치] 새질재골 동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동쪽으로 황성읍 갈풍리 횡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370m이다.

[유래] 고개 북쪽 바로 위의 435.6m 봉우리에 헬기장을 닦으면서 길이 새로 난 골짜기이므로 ‘새길재>새질재’라 부른다.

새질재골 [골]

[위치] 진사골과 고니골 마을 가운데에서 동쪽으로, 새질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헬기장 남쪽, 고산(426.1m) 북쪽 능선에 있다.

[유래] 헬기장을 건설하면서 길이 새로 났으므로 ‘새질재골’이라 하였다.

서낭당숲 [숲]

[위치] 병골 입구에 있는 개전성황당의 당숲을 말한다.

서낭당재 [고개]

[위치] 개전 아랫담에서 응골입구를 지나 남동쪽 광격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서덕 [독]

[위치] 개전 앞에 있는 옥산천의 독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서독’이라 하였다.

[유래] 돌이 많으므로 ‘서독’이라 한다.

[풀이] 개울 옆에 돌이 많은 곳을 ‘서덜’, ‘서덕’이라고 하는데 이곳도 개울 옆에 돌이 많은 곳으로 ‘서덕>서독’이 되었다. 문막읍 궁촌리 서석(西石)은 ‘서덜, 서들, 서돌’을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어 적은 것이다.

석간수(石間水) [샘]

[위치] 잣나무터 뒤에 있는 샘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석간수(石間水)’라 하였다.

[유래] 돌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므로 석간수라 하였다.

선바우 [마을]

[위치] 고산저수지 위, 선바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고산초등학교 입암분교가 있던 마을이다. 입구에 선바위휴게소가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전바위(立岩)’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바우(입암立岩)’라 하였다.

선바우 [바위]

[위치] 고산저수지 북쪽 선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자로 ‘입석(立石)’, ‘입암(立岩)’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바우(입암立岩)’라고 하였다.

[유래] 큰 바위가 우뚝 서 있으므로 선바우라 하

였다.

[내용] 여섯 아름쯤 되는 커다란 바위로 남근 모양을 하고 나무처럼 우뚝 서 있다. 옛 입암분교에서 서쪽으로 약 1km 거리에 있다. 옛날 한 옹기장수가 이 바위 옆을 지나는데 바위가 자기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 빨리 지나치려다 발을 헛디더 옹기를 모두 깨뜨렸는데, 그때 깨어진 옹기조각이 지금도 나온다고 한다.



「선바우 : 2018년」

선바우골 [골]

[위치] 고산저수지 북쪽 위, 옛 고산초등학교 입암분교에서 서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횡성군 압곡리 물골로 넘어가는 선바우재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선바위골(立石谷)’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 안에 우뚝 선 바위가 있어 선바우골이라 하였다.

선바우약수 [샘]

[위치] 선바우 옆에 있는 약수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바우약수’라 하였다.

[내용] 위장병과 피부병, 풍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

다. 찾아가는 사람의 수만큼 먹을 양의 물이 나오는데 물은 솟는 게 아니라 똑똑 떨어진다고 한다.

선바우재 [고개]

[위치] 선바우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물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335m이다.

성골 [마을] → 송골

소금성산 [산]

[위치] 송골 서쪽, 절골 서쪽에 있는 349.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내용] 산 서쪽에 절재가 있고 북서쪽에는 된봉이 있다.

소금성약수터 [샘]

[위치] 송골에서 소금성산으로 가는 중턱에 있는 샘을 말한다.

송골 [마을]

[위치] 고산리의 가장 남쪽 마을로 고산초등학교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 앞에 넓은 들이 있고 옥산천 건너 영아지, 먼 동쪽에는 정골이 있다. ‘한일’, ‘일곡’이라고도 하고, 송골의 발음이 변하여 ‘성골’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적어 ‘송동(松洞)’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송골(松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송골(송동, 한일, 일곡)’이라고 하였다.

[유래] 소나무가 많아 송골이라고 하였다.

[풀이] 『한국지명총람』에 ‘한일, 일곡(一谷), 송골, 송동(松洞)’이라고 하였다. ‘송골’과 ‘송동(松洞)’은 소나무와 관련된 지명이고 ‘한일’은 ‘크고 넓은 골짜기’, 또는 ‘크고 넓은 골짜기의 마을’이란 뜻의 ‘한실’이 ‘한(大)+실(谷)>한실>한실>한일’로 음운 변천한 것이다. 이를 한자로 옮기면서 ‘한’을 하나로 보아 ‘일곡(一谷)’이라 하였다.

송골산 [산]

[위치] 송골 남서쪽에 있는 높이 292.5m의 산을 말한다. 절재에서 동쪽으로 소금성산, 해돋이봉을

거쳐 내려오는 능선에 있다.

송동(松洞) [마을] → 송골

송이동 [마을] → 광격리 송이골

송이산 [산]

[위치] 고산저수지 동쪽, 송이동 북쪽에 있는 높이 270.3m의 산을 말한다.

[유래] 송이동 마을 뒤에 있어 송이산이라 한다.

송장골 [골]

[위치] 문바우골과 개산이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높이 377.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쇠판이골 [골]

[위치] 하일재골과 아래쇠판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쇠판이재 능선 북쪽에서 횡성을 학곡리의 가마골, 쇠판이골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쇠판이재 [고개]

[위치] 고니골 아래쇠판이골 동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횡성을 학곡리 가마골, 쇠판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441m이다.

[유래] 고개 너머 횡성을 학곡리 쇠판이로 넘어가므로 ‘쇠판이재’라 하였다. 횡성 학곡리에 옛날 금광산과 철광산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횡성을 학곡리에 ‘쇠판이’, ‘금판동’이란 지명이 남아있다.

아래고산 [마을] → 하고산

아래뒷골 [골]

[위치] 진사동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새질재골과 광골 사이에서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골 북서쪽 위로 뒷골(3)이 이어진다.

아래뒷골 [마을]

[위치] 아래뒷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래쇠판이골 [골]

[위치] 고니골 가달배이골 동쪽 맞은편에서, 동쪽으로 쇠판이재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아랫담 [마을]

[위치] 개전 마을 중 남쪽, 병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안골 [골]

[위치] 현 고산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황새둥지들에서 서쪽으로 이어져 있는 골짜기이다.

[내용] 안골 동쪽은 둔지들, 황새둥지들, 칠송정들 등의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다.

안골 [마을]

[위치] 현 고산초등학교 서쪽, 안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내곡(內谷)’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안골(내곡內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골(내곡)’이라 하였다.

안골저수지 [못]

[위치] 안골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1960년에 준공하였으나 지금은 메꾸어져 논이 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골저수지’라 하였다.

앞개울 [내]

[위치] 고니골 마을 앞을 흐르는 내를 말한다. 고산천(옥산천)의 최상류이다.

앞들 [들]

[위치] 고산저수지 남쪽 앞에서 개전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돌보에서 물을 댄다.

애정골 [골]

[위치] 문바우골 안, 현 고니골농장 북쪽 기슭을 말한다. 골짜기 위로 다래골이 이어진다.

약물탕 [샘]

[위치] 문바우골에 있는 샘을 말한다.

언진발골 [골]

[위치] 고니골 공소 아래, 발에 큰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 입구 발에 큰 바위가 얹혀 있어서 언진발골이라 부른다.

[풀이] ‘엷은발+골>언즌발골>언진발골’이 되었다.

옥산천(玉山川) [내]

[위치] 고니골 북쪽의 화채봉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고니골과 고산저수지, 옥산리를 거쳐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고산천(高山川)'이라고도 한다.

웃고산 [마을] → 상고산

응덩골 [골]

[위치] 뒷골(2) 북쪽에서 북서쪽으로, 45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달배이골 남쪽, 뒷골(2)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원진녀 집터 [터]

[위치] 송골에 있는 원진녀가 살던 집터를 말한다.

[내용] 동학(東學)의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이 머물다가 1898년 4월 5일 체포된 집의 터로 집을 복원하여 놓았다. 원주 치악고미술동우회에서 1990년에 비석을 세웠다.



「원진녀 집터 ; 2019년」



「원진녀 집터 비석 ; 2019년」

응골 [골]

[위치] 개전 남쪽 아랫담에서 북동쪽으로, 183.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개전 성향당 동쪽, 옥산천 건너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응골(鷹洞)'이라고 하였다.

일곡(一谷) [마을] → 송골

입석(立石) [바위] → 선바우

입암(立岩) [골] [마을] → 선바우

입암분교 [학교] → 고산초등학교 입암분교

작은나무실골 [골] → 작은단무실골

작은단무실골 [골]

[위치] 고산저수지 아래에서 서쪽으로, 302.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뱀골 서쪽 맞은편에 있다. '작은나무실골'이라고도 한다.

жат나무터 [마을]

[위치] 문바우골 안 문바우 부근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백하촌(栢下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백하촌(栢下村, жат나무터)'이라 하였다.

[유래] 큰 жат나무가 있어서 жат나무터라 하였다.

전성무덤이골 [골] → 점심무덤이골

절개골 [골] → 절골

절골 [골]

[위치] 고산 안골에서 서쪽으로, 절재와 소금성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용화사가 있는 골짜기이다. 절골 끝에 절재가 있다. '절개골', '절재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절골(寺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절개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절이 있었으므로 절골이라 하였다.

절재 [고개]

[위치] 절골 서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밤나무골에서 이어진 뒷골 남쪽 끝에 있는 고개로, 된봉 남쪽, 소금성산 서쪽에 있다. 높이는 300m이다.

[내용] 고산리, 용곡리, 옥산리, 산현리 등 4개 마을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고개 남서쪽으로 산현리 너르니골, 남동쪽으로 옥산리 절터골을 거쳐 종포, 북서쪽으로 용곡리 아래뒤밀골이 이어진다.

절재골 [골] → 절골

절터 [터]

[위치] 절골 위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현 용화사와 절재 중간에 있다.

[내용] 절은 200여 년 전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절터에는 기와편과 자기편들이 산재하며, 축대 중 일부는 경작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일부는 남아있다. 탑재 일부와 맷돌은 현 용화사에 옮겨져 있다.

점심무덤이골 [골]

[위치] 고산저수지 북쪽 위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점심무덤이골’, ‘전성무덤이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점심무덤이(饅屯地)’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점심무덤이’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 농부가 점심을 묻어놓고 일을 하다가 죽어서 ‘점심무덤이’라 하였다고 한다.

제지밭골 [골]

[위치] 고니골 천주고 공소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미사를 드린 곳이므로 제지밭골이라 부른다.

진사골 [골]

[위치] 문바우와 고니골 마을 중간에서 북서쪽으로, 405.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개산이골과 아래뒷골 사이, 광골 서쪽 맞은편에 있다. ‘통통바우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골짜기 끝에 검두재가 있고 검두재를 넘어 황성군 서원면 금대리에 닿는다. 통통바우가 있으므로 통통바우골이라고도 한다.

진사골 [마을] → 진사동

진사동(進士洞) [마을]

[위치] 진사골 위, 아래뒷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진사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진사골’이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 진사가 난 마을이므로 진사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전설] 옛날 이곳에 정씨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부친상을 당하자 지관이 찾아와 뒷산에 산소 터를 잡아주면서 ‘이곳이 왕지혈이요 천하대지인데 지척이 조금 앞지만 그대로 쓰면 후손에 큰 벼슬할 사람이 나올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산소는 한 자 반밖에 못 파지만 그대로 하관하고 봉분은 판흙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묘 자리를 파보니 반자도 못 되어 바위가 나왔다. 지관이 잡아준 자리라 조금만 더 파자고 해서 바위를 깎는데 바위에서 큰 왕벌 한 마리가 나와서 하늘로 날아올랐다. 상제들은 바위를 더 깨지 못하고 시신을 묻었다. 한편 날아오른 벌이 지관을 뒤쫓아 가자 지관은 지나가던 옹기장수의 동이 하나를 잡어서 머리에 썼다. 왕벌이 동이를 그대로 들이받고 지관을 쏘니 동이는 깨지고 지관은 그 자리에서 툭툭 부어 쓰러져 죽었다.

그 후로 이곳 바위를 사람이 툭툭 부어서 죽었다고 해서 ‘툭툭바우’라 하고 이 골짜기를 ‘툭툭바우골’이라 하였다. 삼형제 중 두 사람은 이곳을 떠나고 한 사람이 여기에서 살았는데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더니 마침내 진사자리를 얻었다. 지관의 말을 따라 산소를 썼으면 큰 벼슬을 했을 텐데 더 땀다가 왕벌이 나간 관계로 진사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 산골에서 진사가 난 것도 처음이라 이 동네를 ‘진사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청삼밭 [마을] → 반삼밭

최보파리비 [비]

[위치] 송골 입구 호저로 도로변, 고산교 옆에 있는 최시형을 기리는 비석을 말한다.

[내용] 동학 교주 최시형을 기리는 비석으로, 최시형이 피체된 송골 마을 앞에 세운 비이다. 원주 치악고미술동우회에서 1990년에 비석을 세웠다.



「최보마리비」; 2019년

칠성정 [마을] → 칠송정

칠송정(七松亭) [마을]

[위치] 고산초등학교 북쪽, 간촌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칠성정’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칠송정’이라 하였다.

[유래] 소나무 정자가 있던 마을이므로 ‘칠송정’이라 부른다. 주민들은 ‘칠성정’이라 부르고 있다.

칠송정(七松亭) [누정]

[위치] 고산리 칠송정 마을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유래] 소나무 일곱 그루가 있어서 칠송정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는 횡성으로 가는 치루개재에 산적들이 있어 일곱 사람이 모여야 고개를 넘어갔으므로 유래한 이름이라고도 한다.

칠송정들 [들]

[위치] 하고산 북쪽, 칠송정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황새둥지들 남동쪽에 붙어있는 들이다. 『조선지리지』에 ‘칠송정이버덩(七松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칠송정들’이라 하였다.

칠송정서낭 [당]

[위치] 칠송정 길 건너편의 떡갈나무 부근에 있던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칠송정서낭’이라 하였다.

[내용] 『한국지명총람』에는 매년 정월과 가을에 치성을 드린다고 하였다. 당집터로 추정되는 장소는 떡갈나무 옆이지만 주민들은 처음부터 당집은 없었다고 한다.

칠송정주막 [주막]

[위치] 칠송정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칠송정주막(七松亭酒幕)’이라 하였다.

틔골 [골]

[위치] 밤나무골 끝에서 고충골과 갈라져 남쪽으로 다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된봉 서쪽 아래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틔골’이라 하였다.

[내용] 골짜기 끝은 절재인데 절제 아래에서 안골에서 올라오는 절골과 만난다. 절제의 남쪽 너머는 옥산리 절터골이며 북서쪽 너머는 용곡리 아래 뒤밀골, 남서쪽 너머는 산현리 너르니골이다.

통통바우 [바위]

[위치] 진사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담] 진사동 유래와 관련, 지관이 왕벌에 쏘여 통통 부어서 죽었다고 해서 통통바우라 한다. 또는 진사골의 진사가 바위에 활을 쏘았는데 통통 소리가 나므로 통통바우라 하였다고도 한다.

통통바우골 [골] → 진사골

[위치] 진사골의 다른 이름이다. 개산이골과 아래 뒷골 사이, 광골 서쪽 맞은편에 있다.

[유래] 통통바우가 있어 통통바우골이라 하였다.

하고산(下高山) [마을]

[위치] 현 고산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래고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하고산(下高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래고산(하고산)’이라 하였다.

[유래] 고산리의 아래쪽에 있으므로 아래고산, 하고산이라 부른다.

하일골 [마을]

[위치] 하일재 밑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

명총람』에 ‘하일골’이라 하였다.

하일재 [고개]

[위치] 고산골 끝 화채봉골 입구에서 북동쪽, 횡성읍 학곡리 하일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350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하일재’라고 하였다.

[유래] 고개 넘어 횡성읍 학곡리 하일 마을이 있으므로 하일재라 하였다.

[내용] 예전에 고산 사람들이 누에고치를 이고 이 고개를 넘어가 학곡리에서 수매했다고 한다.

하일재골 [골]

[위치] 고산골 끝 화채봉골 입구에서 동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하일재가 있다.

한일 [마을] → 송골

해돋이봉 [산]

[위치] 송골 서쪽, 소금성산 동쪽 능선 아래에 있는 높이 313.5m의 산을 말한다.

호돗바우 [바위]

[위치] 개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덧을 놓아 호랑이를 잡은 바위라서 호돗바우라 한다. 아주 이상하게 생겼다고 한다.

호랑이굴 [굴]

[위치] 개전 병골 안, 밤나무골 서쪽 위에 있는 굴을 말한다.

[유래] 옛날 호랑이가 살면서 새끼를 쳤으므로 호랑이굴이라 하였다.

화채봉 [산]

[위치] 고니골 최상단의 화채봉골 끝, 삼면봉 북쪽에 붙어있는 높이 557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행정상으로는 횡성 지역으로,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와 횡성읍 학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화채봉’이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 천지개벽 때 산이 물에 다 잠기고 화채(상여)만큼만 남았다 하여 화채봉이라 부른다.

[내용] 이 산을 동쪽 횡성읍 학곡리에서는 ‘화채봉’이라 부르고 산 서쪽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에서는 산 아래의 명천동이란 마을 이름을 따서 ‘명천봉’이라고 부른다. 고산에서는 이 산을 ‘화채봉’, 산 아래 골짜기를 ‘화채봉골’이라 부른다.

화채봉골 [골]

[위치] 고니골 최상단에서 북서쪽으로, 삼면봉 뒤 화채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화채봉골 입구 북동쪽에 하일재가 있다.

[내용] 삼면봉(544m)은 원래 이름이 없던 봉우리였고 그 바로 뒤 화채봉이 이미 있으므로 화채봉골이라 하였다.

황새둥지들 [들]

[위치] 고산 간촌 북쪽, 상고산 마을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칠송정들 서쪽, 안골 마을 동쪽에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황시둔지ضل(鶴地坪)’이라고 하였다.

회곡(回谷) [골] [마을] → 횡골

회돌배기골 [골] → 돼지막골

횡골 [골]

[위치] 선바우 아래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회곡’이라고도 한다.

[유래] 60년대까지 회광산이 있던 골짜기로 지금도 굴이 남아있다.

횡골 [마을]

[위치] 횡골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회곡(回谷)’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횡골(회곡回谷)’이라 하였다.

광격리(光格里)

[위치]

광격리는 호저면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횡성읍 갈풍리·반곡리·모평리·소초면 의관리·둔둔리, 서쪽으로는 고산리, 남쪽으로는 호암산 줄기를 경계로 하여 옥산리·대덕리, 북쪽으로는 고산리·횡성읍 갈풍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 호매곡면(好梅谷面)의 사리(四里)·분오리(分五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송이골·동막·수정동·샘골·영산을 병합하여 광격리(光格里)라 하고 호저면(好楮面)에 편입하여 원주군 호저면 광격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꿈에 따라 원성군 호저면 광격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다시 원주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원주군 호저면 광격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가 되었다.

가골 [골]

[위치] 송이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가내절골 [골]

[위치] 점말과 영산 사이 검성골논에서 남동쪽으로, 높이 218.1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 북쪽 맞은편에 검성골이 있다.

거친골 [골]

[위치] 가골 북동쪽, 점지골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송이산 남쪽 217.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유래] 골이 거칠다고 하여 거친골이라고 한다.

검성골 [골]

[위치] 점말에서 북동쪽 샘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 남쪽 맞은편에 가내절골이 있다. ‘검송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 안에 넓은 ‘너르반석’이 있으므로 이를 벼랑으로 인식하고 ‘검성골(劍星-)’이라 하였다.

검성골논 [들]

[위치] 검성골 입구에서 영산 마을 서쪽 아래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검송골논’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검송골논’이라 하였다.

검송골 [골] → 검성골

검송골논 [들] → 검성골논

고산(高山) [산]

[위치] 동막저수지 북쪽, 큰배나무실골 끝에 있는 높이 426.1m의 산을 말한다. 고니골 남동쪽, 진사골 동쪽에 있는 산이다.

[내용] 광격리와 고산리, 황성을 갈풍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북쪽 아래에 새질재가 있고 서쪽 아래에 진사골이 있다.

광격(光格) [마을]

[위치] 고산 북동쪽, 개전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아랫담’과 ‘웃담’, ‘높은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광격(光格)’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광격리(광격동, 광격, 사리)’라고 하였다.



「광격 마을 ; 2019년」

광격동(光格洞) [마을] → 광격

광격봉(光格峰) [산]

[위치] 개전 남동쪽, 광격 웃담 서쪽에 있는 높이 163.7m의 산을 말한다. 북쪽 아래에 서낭당재가 있다.

광격저수지 [못]

[위치] 광격 북동쪽, 샘골 북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치루개재 북서쪽 아래에 있다. ‘샘골저수지’, ‘치루개저수지’, ‘칠고개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칠고개저수지’라 하였다.



「광격저수지 ; 2019년」

광격주막 [주막]

[위치] 광격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광격주막(光格酒幕)’이라고 하였다.

굴바우 [바위]

[위치] 영산 마을 앞산에 있는 작은 굴이 있는 바위를 말한다.

길굴 [굴] → 질굴

너르반석 [바위]

[위치] 샘골 남쪽 검성굴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현재 디카팩(Dica Pac) 앞마당에 있다. ‘검성굴’이라는 지명이 이 바위에서 유래되었다.

[유래] 평평하고 넓은 반석처럼 생겼으므로 ‘너르반석’이라 하였다.

[내용] 들 한가운데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바위로, 농사철에 새참을 먹던 곳이다.



「너르반석 ; 2020년」

너리께 [마을] → 너릿개

너릿개 [마을]

[위치] 광격 동쪽, 샘골로 가는 길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너리께’, ‘노릿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너리께’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에는 이 마을 앞으로 넓은 시내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내가 넓은 곳에 마을이 섰으므로 ‘넓다’와 ‘개’가 결합하여 ‘널, 너리(늘, 노리)+개>너리(노리)개>너릿개(노릿개)’가 되었다.

노고성(老孤城) [산]

[위치] 『조선지리지』에 나오는 지명이다. ‘노고성(老孤城)’이라 하고, 5리 수정동(水晶洞)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노릿개 [마을] → 너릿개

농막골 [골]

[위치] 동막저수지 아래, 배나무실골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남서쪽 너머에 고산리 점심무덤이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농막골(農幕谷)’이라고 하였다.

높은골 [마을]

[위치] 광격 마을 중 아랫담과 웃담 사이 서쪽 산 밑에 있는 마을로, ‘본동’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높은골’이라 하였다.



「높은골 마을 ; 2020년」

돌고개 [고개]

[위치] 동막에서 이터골을 지나 북동쪽으로, 횡성군 횡성을 갈풍리 재삼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동막고개’라고도 한다. 높이는 200m이다. 『조선지리지』에 ‘돌고기(廻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돌고개’라 하였다.

[유래] 돌이 많아서 돌고개라 하였다. 또는 나그네들이 치루개재를 넘다가 숫자가 적어 위험을 느끼면 되돌아오는 고개라고 해서 돌고개라 하였다고도 한다.

동막(東幕) [마을]

[위치] 송이골 북동쪽, 동막저수지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동막(東幕)’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막(東幕)’이라 하였다.

[유래] 처음 마을을 일굴 때 막을 치고 살았으므로 동막이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개전 북동쪽, 동막골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광격저수지 북쪽 위에는 배나무실산이 있고 배나무실산 북쪽에는 높이 426.1m의 고산이 있다. 그 봉우리를 경계로 하여 고산리와 광격리, 횡성읍 갈풍리가 나뉘지는데 동막은 그 봉우리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북쪽과 서쪽이 큰 산맥으로 막혀 있고 동쪽은 산세가 약한 편이어서 송장고개, 돌고개, 치루개재 등을 통하여 횡성쪽으로 왕래가 많았다. 마을에 웃말, 양지담, 음지담이 있다.



「동막 마을 : 2019년」

동막고개 [고개] → 돌고개

[내용] 돌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고개 아래에 동막 마을이 있으므로 동막고개라고도 한다.

동막골 [골]

[위치] 송이골 앞 개전삼거리에서 북동쪽으로, 동막 마을에 이르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현 고산동막길이 지나가고 있다.

동막산(東幕山) [산]

[위치] 동막저수지 서쪽, 고산 점심무덤이골 동쪽에 있는 높이 333.3m의 산을 말한다.

[내용] 고산 남쪽 산줄기에 있는 봉우리로 광격리와 고산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동쪽 아래에 농막골이 있다.

동막저수지 [못]

[위치] 동막 마을 북쪽 위, 고산과 배나무실산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내용]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는 저수지이다. 1960년에 완공하였다.



「동막저수지 : 2019년」

동막 천제사터 [터]

[위치] 동막 북서쪽 높이 287.2m의 봉우리 동쪽 아래에 있는 천제를 지내는 터를 말한다.

[내용] 뒷산 정상에 소나무 6~7그루가 있는 자연제당이다. 매년 정월 초3일에 일반 유교식으로 천제사를 지낸다.

동심이 [골]

[위치] 샘골 북쪽 산 너머, 청저리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항상 풀이 무성해, 샘골 사람들이 풀을 뜯으러 다니던 곳이다.

뒷고개 [고개]

[위치] 광격에서 남동쪽 뒷고개골을 지나 옥산리 정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호암산의 서쪽 줄기에 있는 고개이다. 높이는 150m이다.

뒷고개골 [골]

[위치] 광격에서 남동쪽으로, 뒷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고개들 [들]

[위치] 뒷고개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마자리 [고개]

[위치] 샘골에서 북서쪽으로, 마자리골을 거쳐 동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광성목재 등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높이는 155m이다. ‘모아

자리', '모아저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모아자리'라 하였다.

마자리 [들]

[위치] 광격저수지 남쪽의 홀논이골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마자리골 입구에 있는 들이다. '모아자리', '모아저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모하자리(毛下坪)'라고 하였다.

[유래담] 근처에 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馬)에서 내렸으므로 '마자리'라 하였다 한다.

[풀이] '말+자리>말자리>마자리, 모아자리'가 되었다.

마자리골 [골]

[위치] 홀논이골 남쪽에서 북서쪽 179.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북서쪽 너머에 송이골 마을이 있다. '모아자리골'이라고도 한다.

매봉 [산]

[위치] 점말 남쪽, 옥산리 정골 북쪽에 있는 높이 191.1m의 산을 말한다. 호암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줄기로 뒷고개의 동쪽에 있는 산이다.

모아자리 [고개] [들] → 마자리

모아자리골 [골] → 마자리골

모아저리 [고개] [들] → 마자리

모하자리 [들] → 마자리

배나무실 [마을]

[위치] 동막 마을 북쪽 위, 동막저수지 아래, 배나무실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배나무실'이라 하였다.

[유래] 돌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실이라 하였다.

배나무실골 [골]

[위치] 배나무실 마을에서 북쪽으로 동막저수지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들이 형성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비나무골(梨實)'이라고 하였다.

배나무실산 [산]

[위치] 동막저수지 북쪽 위에 있는 높이 301.1m

의 산을 말한다. 고산[산] 남쪽 능선에 있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배나무실산'이라 하였다.

[내용] 산을 가운데에 두고 서쪽에 큰배나무실골, 동쪽에 작은배나무실골이 있다.



「배나무실산 ; 2020년」

보구터골 [골]

[위치] 동막 양지담 남쪽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동막천제사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본동(本洞) [마을] → 높은골

비봉산(飛鳳山) [산]

[위치] 『조선지리지』에 나오는 산 이름이다. 본4리 동막(東幕)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사리(四里) [마을] → 광격리

사태골 [골]

[위치] 영산 마을 동쪽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산사태가 난 곳이므로 사태골이라 한다.

산바래기 [산] → 삼바래기

산삼댕이 [골]

[위치] 동막 옷말에서 북서쪽으로 동막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삼동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이곳에서 산삼이 났으므로 산삼댕이, 산삼동골이라 하였다.

산삼동골 [골] → 산삼댕이

삼바래기 [산]

[위치] 샘골 북동쪽에 있는 높이 297.1m의 산을 말한다. ‘산바래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산바래기’라 하였다.

[내용] 치루개와 호암산을 잇는 산줄기에 있다. 횡성을 반곡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삼바래기골 [골]

[위치] 영산고개에서 북동쪽 삼바래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삼신물 [샘] → 샘골샘

샘골 [골]

[위치] 점말에서 남쪽으로, 높이 191.1m의 매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내절골과 뒷고개골 사이에 있다.

샘골 [마을]

[위치] 광격 북동쪽, 영산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지담’과 ‘속담’이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천동(泉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심골(泉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샘골(천동泉洞)’이라 하였다.

[유래] 좋은 샘이 있으므로 샘골이라고 하였다.



「샘골 마을 ; 2020년」

샘골샘 [샘]

[위치] 샘골 양지담 북쪽 산 밑에 있는 샘을 말한다. ‘삼신물’, ‘석천(石泉)’이라고도 한다. ‘샘골’, ‘천동(泉洞)’이란 마을 이름이 이 샘에서 유래하였다.

[유래] 산 밑 바위에서 샘물이 나온다. 옛날에는 ‘삼신물’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재도 사용 중이다.



「샘골샘 ; 2020년」

샘골저수지 [못] → 광격저수지

서낭당재 [고개]

[위치] 광격봉 북쪽 아래에 있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광격 웃담에서 북서쪽 개전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고개 서쪽 아래에 개전성황당이 있으므로 서낭당재라 하였다.



「서낭당재 ; 2020년」

석천(石泉) [샘] → 샘골샘

소위동 [마을] → 송이골

소이동 [마을] → 송이골

속담 [마을]

[위치] 샘골 마을 중 가운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다. 양지담 남쪽에 있는 샘골의 본 마을이다.

솔개 [고개]

[위치] 샘골에서 동쪽으로, 삼바래기를 지나 횡성읍 반곡리 사려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치루개재 남쪽 능선에 있는 고개이다.

솔아니 [마을]

[위치] 송이골 마을의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솔아니’라 하였다.

[유래] 송이골 마을 안쪽에 있으므로 ‘솔+안+이>솔안이>솔아니’라 하였다.

송이골 [골]

[위치] 개전 동쪽, 송이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송이골 [마을]

[위치] 개전 동쪽 맞은 편, 개전삼거리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동막골 입구에 있다. ‘소이동’, ‘소위동’, ‘송이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송이동(松茸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송이동(松茸洞)’이라 하였다.

[유래] 소나무 숲에서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마을이라 ‘송이(골)>소이(골), 소위(골)’이라 하였다.



「송이골 마을 : 2019년」

송이동(松茸洞) [마을] → 송이골

송이산 [산]

[위치] 송이골 마을 북쪽, 절골 북동쪽에 있는 높이 270.3m의 산을 말한다. 동막봉 남쪽 능선에 있

는 산으로 고산리와 경계가 된다.

[유래] 송이골 북쪽 뒤에 있으므로 송이산이라고 한다.

송장고개 [고개]

[위치] 동막에서 자월골을 거쳐 동쪽으로, 횡성읍 갈풍리 재삼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205m이다.

[유래담] 한국전쟁 때 이곳에 시체들이 많았으므로 송장고개라 하였다고 한다. 한편 횡성의 지명 유래에 따르면 옛날에 이 고개로 상여가 넘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수정골 [골]

[위치] 섬강 변 절골에서 북서쪽 수정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수정골 마을이 있다. ‘수청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시냇물이 수정처럼 깨끗하여 ‘수정골’, ‘수청골’이라고 한다.

수정골 [마을] → 수정동

수정골고개 [고개]

[위치] 영산 마을에서 동쪽 수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수정골산 남쪽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280m이다. ‘수청골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청골재’라 하였다.

수정골산 [산]

[위치] 영산 마을 북동쪽, 수정동 서쪽에 있는 높이 312.5m의 산을 말한다. 남쪽으로 수정골고개, 절골재를 지나 호암산에 닿는 능선에 있다. ‘수청골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청골산’이라 하였다.

수정동(水晶洞) [마을]

[위치] 호암산 북동쪽, 절골 북서쪽 위 수정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수정골산 동쪽 아래에 있다. ‘수정골’, ‘수청골’, ‘수청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슈청동(水晶洞)’이라고 하였다. 『한

국지명총람』에 ‘수청골(수정동)’이라 하였다.

수청골 [골] → 수정골

수청골 [마을] → 수정동

수청골산 [산] → 수정골산

수청골재 [고개] → 수정골고개

수청동(水淸洞) [마을] → 수정동

숫골 [골]

[위치] 너릿개에서 북동쪽으로, 샘골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숫골들 [들]

[위치] 숫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숫골’이라 하였다.

썰기골 [골]

[위치] 동막 앞 산삼당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아랫담(1) [마을]

[위치] 광격 마을 중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고산보건진료소와 영산성당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담(1) 마을 ; 2020년」

아랫담(2) [마을]

[위치] 영산 마을 중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질골재 서쪽 아래에 있다.

앞산 [산] → 호암산

양지담(1) [마을]

[위치] 동막 마을 중 서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마을 북서쪽이 산으로 막혀 있어 양지가 되므로 양지담이라 하였다.



「양지담(1) 마을 ; 2020년」

양지담(2) [마을]

[위치] 샘골 마을 북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지담(2) 마을 ; 2020년」

영산(靈山) [마을]

[위치] 호암산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샘말 남동쪽, 광격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웃담’과 ‘아랫담’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산(靈山)’이라 하였다.

[유래] 영산 아래에 있으므로 마을 이름도 영산이라 하였다.



「영산 마을 ; 2019년」

영산(靈山, 靈山) [산] → 호암산

[위치] 영산 마을 남동쪽에 있는 높이 311.1m의 호암산을 말한다. 영산 마을 사람들은 호암산을 ‘앞산’, ‘영산’, ‘회암산’ 등으로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영산(靈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영산(靈山)’이라 하였다.

[유래] 신령스러운 산이므로 영산(靈山)이라고 하였다.



「영산 ; 2020년」

영산고개 [고개]

[위치] 영산에서 북쪽으로, 샘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북동쪽으로 삼바래기골이 나 있다. 높이는 145m이다.

영산公所 [성당]

[위치] 영산 마을 안에 있는 천주교 교회를 말한다.

[유래] 1901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전쟁 후에 지은 강당이 퇴락하여 1998년 광격리 본동에 강당을 신

축하고 이전하였다.



「영산公所 ; 2019년」

영영골 [골]

[위치] 동막 옷말과 음지담 사이에서 북동쪽으로, 돌고개 북쪽의 229.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자월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영영꼬리 [들]

[위치] 영영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웃골 [골]

[위치] 샘골에서 동쪽으로, 삼바래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웃담(1) [마을]

[위치] 광격 마을 중 북쪽, 서낭당재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담(1) 마을 ; 2020년」

웃담(2) [마을]

[위치] 영산 마을 중 북쪽 위, 영산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담(2) 마을 ; 2020년」

웃말 [마을]

[위치] 동막 마을 중 북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자월골 입구에 있다.

음지담 [마을]

[위치] 동막 마을 동쪽, 이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남동쪽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응달이 지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음지담 마을 ; 2020년」

이터골 [골]

[위치] 동막 음지담에서 동쪽으로, 230.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이터골(李垌洞)’이라고 하였다.

자월골 [골]

[위치] 동막 웃말에서 북동쪽으로, 송장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배나무실골 [골]

[위치] 동막저수지 위에서 북동쪽으로, 426.1m의 고산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 동쪽 너머에 횡성읍 갈풍리 절골이 있다.

절골(1) [골] [마을] → 질골

절골(2) [골]

[위치] 송이골과 동막 사이에서 북쪽으로, 270.3m의 송이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절이 있었으므로 절골이라 한다.

절골재 [고개] → 질골재

점말 [마을]

[위치] 광격 남동쪽, 고산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점지골 [골]

[위치] 절골 입구에서 북서쪽으로, 송이산 옆 높이 266.5m의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지계터고개 [고개]

[위치] 동막에서 남동쪽으로, 샘골과 광격으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지계터골 북서쪽에 있다. 고개 서쪽에 현재 대규모로 건축회사들이 들어서 있다. 『조선지리지』에 ‘지기터고기(地界垌峴)’라고 하였다.

[유래] 도로가 나기 전에는 이 고개를 넘으면서 모두 지계를 내려놓고 쉬었으므로 지계터고개라고 하였다.

지계터골 [골]

[위치] 광격저수지 아래 흘논이골에서 북서쪽 지계터고개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동막이 있다. 지계터골과 큰터골 사이에 현재 포장재 공장이 들어서 있다.

지장골 [골]

[위치] 영산 마을 앞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질골 [골]

[위치] 섬강에서 서쪽으로, 질골재를 향하여 난 골

짜기를 말한다. 수정골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입구에 질골 마을이 있다. ‘길골’, ‘절골’, ‘큰절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길골’이라고 하였다.

[유래] 질골 마을에서 동쪽으로 질골재를 넘어 영산 마을에 이르는 골짜기가 길므로 ‘길골>질골’이라 한다. 또는 골 위에 큰 절터가 있어서 절골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풀이] 음운 변화에 의하여 ‘길골>질골’일 수도 있고 ‘절골>질골’일 수도 있다. 절터는 확인되지 않지만 ‘큰절골’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골>질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질골 [마을]

[위치] 호암산 북서쪽, 질골재 동쪽 아래 섬강 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수정골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절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질골’이라 하였다.

질골재 [고개]

[위치] 영산 마을에서 동쪽으로, 섬강 변의 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호암산 북쪽 능선에 있는 고개로, 높이는 240m이다. 횡성 사람들이 왕래하던 고개이다. ‘절골재’라고도 한다.

천동(泉洞) [마을] → 샘골

청저리 [들]

[위치] 청저리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청절이(靑麻田)’라고 하였다.

청저리고개 [고개]

[위치] 샘골에서 북쪽으로, 광격저수지 아래 청저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북동쪽으로 치루개재와 연결된다.

청저리골 [골]

[위치] 광격저수지에서 남동쪽으로, 삼바래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청저리고개와 치루개재 사이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최암산 [산] → 호암산

치루개성황당 [당]

[위치] 치루개재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다.

치루개재 [고개]

[위치] 광격에서 북동쪽으로, 흘논이골과 광격저수지를 지나 횡성을 반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가 광격저수지 옆을 지나 치루개재를 관통하고 있다. ‘칠개재’, ‘칠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칠고개’라 하였다.

[유래담] 고갯길에 산적들이 있어 일곱 사람은 되어야 넘어갔다고 해서 ‘칠고개’, ‘칠개재’라 하였다고 한다. 이 고개에 대한 횡성 쪽의 지명이 ‘무리개’, ‘칠우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곱 명쯤 무리를 지어야 넘는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치루개저수지 [못] → 광격저수지

[내용] 광격저수지의 다른 이름이다. 치루개재(칠고개)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칠개재 [고개] → 치루개재

칠고개 [고개] → 치루개재

칠고개저수지 [못] → 광격저수지

큰배나무실골 [골]

[위치] 동막저수지 북쪽 위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426.1m의 고산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배나무실 서쪽에 있다. 골짜기 서쪽 너머에 고산리 광골, 진사동이 있다.

큰여울 [내]

[위치] 치루개재에서 남서쪽으로 광격저수지를 지나 광격에 이르는 내를 말한다.

큰절골 [골] → 질골

큰터골 [골]

[위치] 광격저수지 위에서 북동쪽으로, 치루개 북

쪽에 있는 235.1m 봉을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현재 골 입구와 지게터골 사이, 광격저수지 서쪽에 포장재 공장이 들어서 있다.

큰터골 [들]

[위치] 큰터골에 있는 들판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큰터골’이라 하였다.

큰터골고개 [고개]

[위치] 광격저수지에서 북서쪽으로, 큰터골을 지나 동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동막과 광격, 샘골로 오가던 고갯길이다. 높이는 169m이다.

토우물 [샘]

[위치] 광격 마을 안에 있는 우물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토우물’이라 하였다.

호랑바우 [바위]

[위치] 치루개재 남쪽, 호암산 북쪽 능선 중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호암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호랑바우’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던 바위이므로 호랑 바우라고 한다. 호암산의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호암바우 [바위] → 호랑바우

호암산(虎岩山) [산]

[위치] 영산 남동쪽, 수정동 남쪽, 대덕리 뺑월 북쪽에 있는 높이 311.1m의 산을 말한다. ‘앞산’, ‘영산’, ‘최암산’, ‘회안봉’, ‘회암봉’, ‘회암산’, ‘휴암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영산(靈山)’, ‘호암산(虎岩山)’, ‘회안봉(回雁峰)’, ‘휴암산(鵞巖山)’으로 나온다. 『1917년지적도』에 ‘회암봉(回巖峰)’, 『한국지명총람』에 ‘호암산(虎岩山, 회암봉, 회암산)’, ‘영산(靈山)’이라 하였다.

[유래] 호랑이가 살았다는 호랑바우가 있어서 호암산이라 하였다.

[내용] 이 지역을 대표하는 높은 산으로 마을마다 발음이 비슷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동

서로 큰 산맥을 이루어 동쪽은 섬강에 닿아 있고 서쪽은 매봉, 뒷고개, 영아지로 능선이 이어진다. 이 산줄기를 중심으로 북쪽에 광격리, 남쪽에 대덕리와 옥산리가 있다. 큰 절터가 남아있다고 전한다.

혼인골 [골]

[위치] 송이골의 가골과 거친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담] 옛날 가골에 살던 총각과 거친골에 살던 처녀가 서로 좋아하여 중간 지점인 혼인골에서 만나곤 하였다. 이곳은 장소가 아늑해서 사랑을 나누기에 좋았다고 한다. 나중에 부모에게 들켰으나 다행히 혼인으로 이어져 ‘혼인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로는 혼인을 원하는 남녀들이 이 골짜기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흘논 [들]

[위치] 광격저수지 남쪽 아래 흘논이골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호읍노니(好音)’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훗논’이라 하였다.

흘논이개울 [내]

[위치] 광격저수지에서 남쪽으로, 흘논이골을 따라 흐르는 개울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훗논이개울’이라 하였다.

흘논이골 [골]

[위치] 광격에서 광격저수지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들이 형성되어 있고 골짜기를 따라 광학로가 나 있다.

회안봉(回雁峰) [산] → 호암산

회암봉(回岩峰) [산] → 호암산

회암산(回岩山) [산] → 호암산

휴암산(鵞巖山) [산] → 호암산

대덕리(大德里)

[위치]

대덕리는 호저면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섬강을 경계로 하여 소초면 의관리와 장양리, 서쪽으로는 호저면 옥산리·주산리, 남쪽으로는 태장동, 북쪽으로는 호저면 광격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호매곡면(好梅谷面)의 오리(五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노월·쇠절이·잣말·한터를 병합하여 대덕리(大德里)라 하고 호저면(好楮面)에 편입하여 원주군 호저면 대덕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꿈에 따라 원성군 호저면 대덕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다시 원주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원주군 호저면 대덕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가 되었다.

[유래]

이곳의 가장 큰 마을인 잣말(현촌峴村)이 쇠절이고개 밑에 있고 마을들이 모두 가장 높은 호암산 둔덕에 있으므로 큰 산, 큰 둔덕을 뜻하는 대덕리(大德里)라 하였다. 덕(德)은 큰 언덕, 또는 산을 지칭하는 지명소이다.

가는골 [골]

[위치] 대덕리 최남단 마을인 가래터에서 북쪽으로, 139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논골 남동쪽에 있다.

가래터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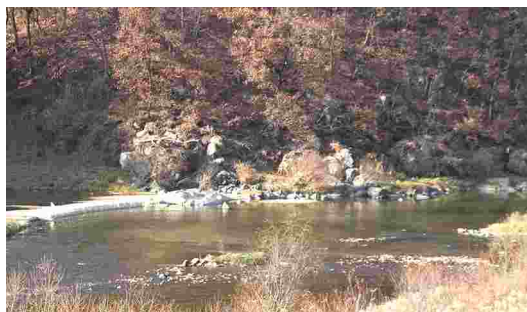
[위치] 대덕리 최남단 섬강 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강의 남동쪽 건너에 태장동 갈문이골과 태장농공단지가 있다.

가마소 [소] → 가매소

가마소들 [들] → 가매소들

가매소 [소]

[위치] 한터 마을 서쪽 섬강에 있는 쇠(沼)를 말한다. ‘가마소’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매소’라 하였다.



「가매소 ; 2018년」

가매소들 [들]

[위치] 한터 가매소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가마소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가마소들(澮沼坪)’이라고 하였다.

갑박골 [골]

[위치] 송골 남쪽, 정수리골 북쪽에 있는 섬강 변의 골짜기를 말한다. 동쪽 강 건너에는 소초면 장양리 대화지의 ‘목들’이 있다.

거북바우 [바위]

[위치] 붉은덕고개 남쪽 송골 섬강 가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뽕족바우’라고도 한다.

공말 [마을]

[위치] 한터 마을 중 남동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남동쪽 너머에 정수리골이 있다.

금사동(金寺洞) [마을] → 쇠절이

[위치] 쇠절이의 한자 이름이다. 쇠절이가 대덕리 전체를 대표함에 따라 대덕리를 행정명으로 ‘금사동’이라고도 한다.

[유래담] 옛날 ‘금사(金寺)’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절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금사동’, ‘쇠절이’라 했다고 한다.

[내용] 4백여 년 전 청풍군수로 있던 지손(池遜)이란 사람이 관직을 그만두고 여생을 보낼 곳을 찾다가 지형과 산수가 좋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 후손은 14대나 내려와서 금사동 53호 중 35호가 지씨 문중이고 기타 최씨와 조씨가 살고 있으나 거의가 지씨 문중과 인척이라고 한다.

[풀이] 위의 유래로 본다면 ‘金寺’라는 절 이름을 우리말로 풀어 써서 ‘쇠절이’가 나온 것이 된다. 즉 ‘金’을 ‘쇠’로, ‘寺’를 ‘절’로 옮겨 ‘金寺>쇠절, 쇠절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한자 지명이 먼저 있고 이를 다시 우리말로 풀어서 쓰는데는 드물다. 역으로 이곳에 ‘큰절’, ‘작은절’이라는 지명으로 보아 ‘작은절’이 ‘소(小)절>소절이>쇠절이’가 되고 이것을 한자의 뜻으로 옮겨서 ‘금사(金寺)’, ‘금사동(金寺洞)’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금사동 마을 ; 2019년」

노월(蘆月, 芦月) [마을] → 빨월

논골 [들]

[위치] 치락골의 남쪽, 가래터 마을 북서쪽의 섬강
변에 있는 들을 말한다.

대대(大垓) [마을] → 한터

대덕동(大德洞) [마을] → 대덕리

대덕분교 [학교] → 호저초등학교 대덕분교

대덕저수지 [못] → 뒯대저수지

대추나무골 [골]

[위치] 한터의 웃담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덕고개 [고개] → 붉은덕고개

도라골 [골]

[위치] 호암산 남동쪽 섬강 변에서 동쪽 빨월을 향
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 강 건너에 원
주비행장이 있다.

도롱소 [내] [소] → 소초면 장양리 도롱소

[위치] 뒯대저수지 동쪽 뒯버덩들의 끝, 섬강에 있
는 소(沼)를 말한다. 또는 소가 있는 섬강을 말하
기도 한다. ‘도롱수’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에 ‘도롱소’라 하였다.

도롱수 [내] → 도롱소

뒯골 [골]

[위치] 잣말 뒤, 쇠절이고개로 가는 골을 말한다.

뒯대저수지 [못]

[위치] 사근절골 동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
다. 저수지 아래 섬강 변에 뒯버덩이 있다. ‘대덕
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대덕저수
지’라 하였다.

[내용] 기록은 없으나 아주 오래된 저수지라고 한
다. 현 공군부대의 군사시설 부지로 편입되었다.

뒯버덩 [들]

[위치] 뒯대저수지 동쪽 아래 섬강을 따라 난 들
을 말한다. ‘버덩들’, ‘연모실들’이라고도 한다. 『조
선지리지』에 ‘연무실들(蓮茂實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연모실들(뒯버덩)’이라 하였다.

[유래] 동네에서 보아서 뒤에 있는 들이므로 ‘뒯버

덩’, 뒯대저수지 아래에 있는 들이므로 ‘연못()
들>연모시들>연모실들’이라고 하였다.

반송고개 [고개]

[위치] 잣말에서 남쪽으로, 한터로 넘어가는 고개
를 말한다.

배람발 [산]

[위치] 잣말 북서쪽, 옥산동대 동쪽에 있는 171.2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주산리 막골 북쪽 강 건너에
있는 산이다. ‘큰배람발’과 ‘작은배람발’이 있다.

[내용] 큰배람발산을 ‘배람발’이라고 한다. 이 산
은 북쪽에서 진고개, 우무개고개를 거쳐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섬강에 막힌 끝 봉우리로 암벽을 이
루고 있다. 이곳 바위에 신선발자국(장수발자국이
라고도 한다)이 있는데 다른 한 발자국은 서쪽에
있는 옥산동대에 있다고 한다. 바위는 도로를 확
장하면서 모두 없어졌다.

버덩들 [들] → 뒯버덩

봉재 [산]

[위치] 호암산 정상에 있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여기서 봉화불을 피웠다고 하여 봉
재, 봉재골이라 한다.

봉재골 [산] → 봉재

붉은덕고개 [고개]

[위치] 잣말에서 남동쪽으로, 송골 섬강 변으로 가
는 긴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20m이다. 『조선지
지자료』에 ‘덕고기(德谷)’라고 하였다.

빨월 [마을]

[위치] 호암산 남서쪽, 쇠절이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노월(蘆月, 芦月)’이라고도 한다. 『조선지
지자료』에 ‘빨월(蘆月)’이라 하였고 『1917년지적
도』에는 ‘蘆月’이라 기록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노월(芦月, 빨월)’이라고 하였다.

[유래] 지대가 높고 밝으므로 ‘밝+울>밝울>발울>
빨울>빨월’로 추정된다.

[유래담] 해와 달을 가장 빨리 보는 마을이라서 ‘빨

월'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는 갈대가 많으므로 '노월'이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내용] 호암산 밑이라 지대가 높아서 전망이 좋은 마을로 현재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청주 한씨 집성촌이다. 마을 사람들은 '빨월'보다는 '노월'이라는 이름을 선호하는데 이는 어감으로 '빨월'이 저속하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풀이] 빨월은 '밝다, 높다'는 뜻을 가진 '붉'계통의 '밝'과 마을을 뜻하는 '울'이 합쳐져 '밝+울>밭울>밭울>빨울>빨월'로 변천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지대가 높고 밝은 마을'이란 뜻이다. '노월(蘆月)'은 후대에 한자로 쓰면서 임의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는데 이 마을과 갈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빨월 마을 : 2019년」

빨월서낭 [당]

[위치] 빨월 마을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350년의 느티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매년 정월 보름에 치성을 드리고 있다.



「빨월서낭 : 2019년」

뽕죽바위 [바위] → 거북바위

사근절고개 [고개]

[위치] 쇠절이에서 북동쪽으로, 사근절골을 거쳐 뒷대저수지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 125m의 고개이다.

사근절골 [골]

[위치] 사근절터에서 동쪽으로, 뒷대저수지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서쪽에 쇠절이가 있다.

사근절터 [터]

[위치] 쇠절이 북서쪽, 절골 위, 서낭당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절터 남서쪽에 태봉(胎峰)이 있다.

[유래] 절이 삭아 없어지고 터만 남았다고 하여 '삭은절>사근절'이 되었다.

[내용] 마을 일대가 절터였던 것으로 전한다. 축대나 기타 유물은 보이지 않고 기와편과 자기편이 경작지에 많이 널려 있다. 절 이름이나 연혁은 알 수 없다.

삼상고개 [고개]

[위치] 잣말에서 북쪽 쇠절이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담] 삼이 많이 나서 삼상고개라 하였다 한다.

서낭당고개(1) [고개]

[위치] 빨월에서 남쪽 쇠절이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내용] 옛날에 서낭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고갯마루에 당목만 남아있다.

서낭당고개(2) [고개]

[위치] 잣말에서 동쪽 섬강 비행장 쪽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내용] 옛날에 서낭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당목인 참나무만 남아있다.

선녀바위 [바위]

[위치] 배람밭에 있던 높이 5척, 너비 4척의 넓적한 바위를 말한다. 바위 위에 선녀발자국이 있었

는데 도로 확장으로 바위는 모두 없어졌다.

[유래담] 선녀들이 내려와서 놀던 곳이므로 선녀바우라 하였다.

선녀발자국 [바위]

[위치] 배람발 선녀바우에 있던 발자국을 말한다. '신선발자국', '장수발자국'이라고도 한다.

[전설] 바위 한 복판에 길이 다섯 치 가량의 움푹한 사람 발자국과 함께 선녀바위 옆 다섯 길의 바위에는 사람의 주먹자국이 있었다. 발자국은 어린애가 맨발로 디딘 것 같은 모양인데 네 개의 발가락은 한 곳에 붙어있다. 이 발자국은 옛날 선녀들이 선녀바위 밑 옥수에서 목욕을 하고 올라가다가 선녀 중 하나가 무슨 표적이라도 남기고 싶어 왼발을 디더 자국을 남긴 것이라고 한다. 다른 발자국은 여기에서 서쪽으로 몇 백 미터 떨어진 옥산동대에 있다고 한다. 이 발자국을 신선발자국 또는 장수발자국이라고 하였다.

소저리 [마을] → 쇠절이

소절이 [마을] → 쇠절이

송골 [골]

[위치] 붉은덕고개 남쪽에 있는 섬강 변의 골짜기를 말한다. 갑박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쪽강 건너에 초초면 장양리 대화지의 '묵들'이 있다.

쇠절이 [마을]

[위치] 태봉 남동쪽, 잣말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충주 지씨 집성촌으로 지석영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소저리', '소절이', '금사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쇠저리(大德村)'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소저리'라 하였다.

[유래] 옛날 호암산에 '큰절'(광격리 절골>질골)이 있었고 이 마을에는 작은 절이 있었으므로 '소절이', '쇠절이'라 하였다.

[풀이] '소(小)+절+이>소절이>쇠절이'가 되었다. 한자로는 '금사동(金寺洞)'이라 하였는데 이는 '쇠절(<소절)'의 뜻을 적은 것이다.

쇠절이고개 [고개]

[위치] 쇠절이와 남쪽 잣말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50m이다.

쇠절이나드리 [나루]

[위치] 잣말 서쪽 앞 섬강에 있는 나루를 말한다. 잣말과 주산리 막골 사이에 있는 나루이다.

[내용] 주산리 막골에서는 이를 '막골나루'라고 부른다.

신선발자국 [바위] → 선녀발자국

아랫담 [마을]

[위치] 한터 마을 중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치락골 북쪽 옆에 있는 마을이다.

안산 [산]

[위치] 쇠절이 앞에 있는 125.5m의 산을 말한다.

애막골 [골]

[위치] 쇠절이에서 남동쪽으로, 섬강 옆 뒷버덩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약물단지 [샘]

[위치] 빨월 북서쪽, 호암산 아래에 있는 약수터를 말한다.

[내용] 물맛이 좋고 피부병에 효험이 있어 높은 사람들이 사룬거를 타고 찾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어영골 [골]

[위치] 잣말 입구에서 북쪽으로, 쇠절이 마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연모실들 [들] → 뒷버덩

오리(五里) [마을] → 대덕리

옥소(玉沼) [소]

[위치] 선녀바우 밑에 있는 섬강의 소(沼)를 말한다.

[내용] 선녀들이 목욕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옥수(玉水) [내]

[위치]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옥소가 있는 강이므로 옥수라고 불렀다.

우무개고개 [고개]

[위치] 태봉에서 서쪽으로, 옥산리 종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서쪽에 옥산리 황새등지(현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원주휴게소)가 있고 고개 남서쪽 아래에는 옥산리 우무개 마을이 있다. 높이는 130m이다.

웃담 [마을]

[위치] 한터 마을 중 북쪽, 대추나무골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작은배람발 [산] → 옥산리 작은배람발

장군수(將軍水) [샘]

[위치] 쇠절이 마을 앞 들 한가운데 있는 샘을 말한다. 지금은 빨래터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장군수’라 하였다.

[유래담] 마을 사람들이 이 물을 먹어왔는데 이 마을에서 힘을 쓰는 장수가 많이 나와서 장군수라 불렀다. 임진왜란 때 왜병들이 다니는 장수가 나지 말라고 우물 속에 쇠말뚝과 엄나무말뚝을 박아혈을 질러 놓았는데 그 후로 이 마을에서 장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내용] 일제강점기에 수질검사까지 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에 샘을 치면서 확인해 보니 나무말뚝 두 개가 나오고 쇠말뚝은 없었다고 한다. 물의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한다.

장도리고개 [고개]

[위치] 잣말에서 남쪽으로, 한터로 넘어가는 긴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10m이다.

[유래] 고갯길이 잘록해서 마치 장도리처럼 생겼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장수발자국 [바위] → 선녀발자국

잣말 [마을]

[위치] 한터와 쇠절이 사이, 대덕리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마을로 영월 신씨 집성촌이다. 호저초등학교 대덕분교(현 심향육아원)가 있던 마을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현촌(峴村)’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전말(峴村)’이라고 하였다. 『한국

지명총람』에 ‘잣말(현촌峴村)’이라 하였다.

[유래] 쇠절이 고개 밑에 있으므로 잣말이라 한다.

[풀이] 북쪽에 쇠절이고개가 있어 고개 밑의 마을이므로 ‘재(고개)+말>재말>잣말’이 되었다. 이를 한자로 적어 현촌(峴村)이라 하였다.



「잣말 마을 ; 2019년」

절터 [터] → 사근절터

절터골 [골] → 광격리 절골

[위치] 호암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호암산 북쪽 광격리의 절골(<절골)을 가리킨다. 거기에 있는 절터가 ‘큰절’, 호암산 남쪽의 쇠절이에 있는 절을 ‘소절(소절이>쇠절이)’이라 하였다. 두 마을은 행정단위가 다를 뿐 호암산을 중심으로 한 동일 생활권이었다.

정수리골 [골]

[위치] 섬강에서 북서쪽, 한터 마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갑박골 남쪽 섬강 변에 있다. 북서쪽 너머에 공말을 거쳐 한터가 있고 동쪽 강 건너에는 소초면 장양리 대화지가 있다.

정수리들 [들]

[위치] 정수리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정수리들(正述坪)’이라고 하였다.

중간담 [마을]

[위치] 한터 마을 중 가운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진고개 [고개]

[위치] 빨월에서 서쪽 옥산리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진고개를 넘고 진고개의 남서쪽 돌

개재를 넘어 옥산리 종포에 닿는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진고기(泥峴)’라고 하였다.

[유래] 땅이 질어서 진고개라 하였다.

치락골 [골]

[위치] 한터 아랫담에서 남동쪽 13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치악골’이라고도 한다.

치마바우 [바위]

[위치] 호암산 정상 부근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넓적하고 네모난 바위가 마치 치마를 두른 듯하여 치마바우라 한다.

치악골 [들] → 치락골

큰배람발 [산] → 배람발

큰절터 [터] → 광격리 절골

탑골 [골]

[위치] 쇠절이에서 북서쪽 사근절터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예전 탑이 많았던 곳으로, 지금도 밭에서 석탑재가 발견된다고 한다.

태봉(胎峰) [산]

[위치] 쇠절이 북서쪽, 우무개고개 남동쪽에 있는 높이 135.8m, 137.9m의 작은 산봉우리 두 개를 말한다.

[유래] 왕자의 태를 묻었으므로 태봉이라 부른다.

[내용] 주인공이 확실하지 않으나 1494년 출생한 연산군의 첫째왕자로 추정되고 있다. 비석이 2개로 파손된 채 쓰러져 있다.



「태봉」; 2018년



「태봉 태실비」; 2020년

태봉골 [들]

[위치] 태봉에서 북동쪽, 호암산 아래 빨월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들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유래] 태봉 옆으로 들이 넓게 펼쳐져 있으므로 태봉골이라고 하였다.

한대골 [들]

[위치] 잣말 남서쪽, 한터 북쪽 사이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섬강 변에서 동쪽으로 장도리고개에 이르는 넓은 들이다.

[풀이] ‘넓은 터’를 뜻하는 ‘한터’와 한자 지명 ‘대대(大垓)’가 혼용되어 ‘한대(한대)’가 되었다.

한터 [마을]

[위치] 잣말 남서쪽 섬강 옆에 있는 큰 마을을 말한다. 원주 이씨 집성촌으로 ‘웃담’, ‘중간담’, ‘아랫담’, ‘공말’이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대대(大垓)’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한터(大垓)’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한터(대대大垓)’라 하였다.

[유래] 터가 넓어서 ‘한+타>한터’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옮겨서 ‘대대(大垓)’라고 하였다. 이때 ‘대(大)’는 ‘한(넓다, 크다)’을 뜻으로 옮긴 것이다.



「한터 마을」; 2020년

한터나루 [나루]

[위치] 한터 아랫담 앞에 있던 섬강의 나루를 말한다. 서쪽 강 건너 주산리 막골고개를 오가던 나루였다.

한터서낭 [당]

[위치] 한터 아랫담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강둑 옆에 수령 약 300년의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마을 당산목이다.



「한터서낭 ; 2019년」

현촌(峴村) [마을] → 잣말

호암산(虎岩山) [산]

[위치] 빨월 북동쪽에 있는 높이 311.1m의 산을 말한다. 광격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앞산’, ‘영산’, ‘최암산’, ‘회안봉’, ‘회암봉’, ‘회암산’, ‘휴암산(鵠巖山)’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호암산(虎岩山)’, ‘회안봉(回雁峰)’, 휴암산(鵠巖山)으로 나온다. 『1917년 지적도』에 ‘회암봉(回巖峰)’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호암산(회암봉, 회암산)’, ‘영산’이라 하였다.

[유래] 호랑이가 살았다는 호랑바우가 있어서 호암산이라고 한다.

[내용]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산이다. 마을마다 발음이 비슷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호암산 ; 2019년」

호저초등학교 대덕분교 [학교]

[위치] 대덕리 647, 잣말 동쪽에 있던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70년에 개교, 1984년에 폐교되어 호저초등학교에 통합되었다. 그 자리에 현재 심향육아원이 들어서 있다.



「호저초등학교 대덕분교터 ; 2019년」

환덕산(還德山) [산]

[위치] 『조선지리지』에 나오는 산 이름이다. ‘화덕산(還德山)’이라고 하고 잣말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회안봉(回雁峰) [산] → 호암산

회암봉(回岩峰) [산] → 호암산

회암산(回岩山) [산] → 호암산

휴암산(鵠巖山) [산] → 호암산

만종리(萬鍾里)

[위치]

만종리는 호저면 소속으로, 면에서 분리되어 남쪽에 섬처럼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덩바우산을 경계로 우산동과, 봉화산을 경계로 단계동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지정면 보통리와 신평리, 남쪽으로는 무실동·흥업면 사제리, 북쪽으로는 가현동·지정면 신평리와 접해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저전동면(楮田洞面)의 삼리(三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굴미실·남오동·박달미·생양동·중부를 병합하여 만종리(萬鍾里)라 하고 호저면(好楮面)에 편입하여 원주군 호저면 만종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꿈에 따라 원성군 호저면 만종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다시 원주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원주군 호저면 만종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가 되었다.

[유래]

마을에서 치악산 비로봉이 멀리 바라다 보이므로 ‘망종(望宗, 望鐘)’이라 하였는데 후대에 ‘만종(萬鍾)’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망종이(望宗里)’라 하였고, 『한국지명총람』에 ‘만종리(萬鍾里, 망종望宗, 일리)’라 하였다.

[풀이]

‘종(宗)’은 ‘으뜸, 마루,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이다. 멀리 치악산이 바라다 보이므로 치악산을 ‘종(宗)’으로 인식하여 ‘망종(望宗)’이라 하다가 ‘망(亡)’이 연상되어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소리가 비슷한 ‘만종(萬鍾)’으로 하여 정착되었다.

가래울 [골]

[위치] 안골 끝에서 북서쪽으로, 25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깃대봉 동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골 서쪽 너머에 신평리 가래울골이 있다.

가마바우 [바위] → 감바우

가마바우산 [산] → 감박산

감바우 [바위]

[위치] 감박산 정상에서 서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가마바우’, ‘거북바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감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가 크고 우람하게 생겼으므로 감바우, 가마바우라고 하였다.

[유래담] 모양이 가마처럼 생겼다고 하여 ‘가마바우>감바우’, 또는 모양이 거북이를 닮아서 ‘거북바우’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거북바우에 얽힌 전설이 있다.

[풀이] ‘감, 가마’는 ‘곰’계통의 언어로서 ‘감·가마, 곰·고모’ 등으로 분화하여 ‘크다, 높다, 신성하다’, 또는 ‘신(神)’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마바우, 감바우는 ‘크고 높은 바위’, ‘신성한 바위’라는 뜻이다. 큰 바위가 크고 우람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감바우 ; 2018년」

감바우산 [산] → 감박산

감박산 [마을] → 감박산골

감박산 [산]

[위치] 무실동과 경계가 되는 산으로 봉화산 남쪽, 중부 동쪽에 있는 높이 313.5m의 산을 말한다. 봉화산과 배부른산 줄기에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만종터널 남서쪽 바로 위에 있다. 동쪽 산 너머에 무실동 돌터뿌리골을 지나 만대저수지가 있다. ‘가마바우산’, ‘감바우산’, ‘매봉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감박산(輪岩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감박산’이라 하였다.

[유래] 정상 부근에 가마바우가 있어 ‘감(가마)바우산>감박산’이라고 한다.

[유래담] ‘가마’라는 이름에서 유추하여, 옛날 여왕의 가마가 쉬어간 곳이라고 해서 ‘가마바우산’, ‘감박산’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전설] 감바우에서 마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산에 소나무가 우거지면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는 말이 전하고 있다.

감박산골 [골]

[위치] 남오동 새담골 끝에서 동쪽으로 감박산과 봉화산 사이로 이어지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을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감박산골 [마을]

[위치] 감박산 밑, 감박산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나구루도리’, ‘나무골짜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감박산’이라 하였다.

감박산재 [고개]

[위치] 감박산골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만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감박산 북쪽, 현 중앙고속도로의 만종터널 위를 지난다. 높이는 250m이다. ‘감박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감박지(甘朴岨)’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감박산재’라 하였다.

[유래] 감박산 옆을 지나므로 감박산재라 하였다.

감박재 [고개] → 감박산재

감박천 [내]

[위치] 감박산과 봉화산 줄기에서 시작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며 감박산골과 새담골을 거치고 남오동에서 만종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감자골재 [고개]

[위치] 생양골 안 천등바우에서 동쪽으로, 칠성당골을 거쳐 굴미실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생양골 마을에서 굴미실로 가는 지름길이다.

거북바우 [바위] → 감바우

[전설] 옛날에 몇날 며칠 동안 비가 억수로 내려 거북이가 이 산으로 피신을 와서 알을 낳았는데, 물에 떠내려 갈까봐 알을 등에 지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지쳐 돌이 되었다고 한다.

고려장터 [터]

[위치] 재내이골 남쪽에 있는 옛 고려장 묘터를 말한다.

곳집골 [골]

[위치] 사제사거리와 남오동 중간에서 서쪽으로, 높이 166.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만종가구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구름실 [마을] → 굴미실

굴다리들 [들]

[위치] 강릉선 철로 만종터널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아랫말미들 동쪽으로 붙어있는 들이다.

[유래] 철길 밑으로 우산동 우무개로 가는 굴다리가 있으므로 ‘굴다리들’이라 하였다.

굴미실 [마을]

[위치] 영산 남동쪽 기슭, 새 만종역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으로는 서울~강릉간 KTX 철로가 지나고 있고 마을 뒤로는 영동고속도로가 나 있어서 철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다. ‘구름실’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적어 ‘운동(雲洞)’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굴미실(雲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굴미실(구름실, 운동雲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움푹하게 낮은 산골짜기이므로 ‘굴미실>구루미실>구름실’이라 하였다.

[유래담] 마을 뒤에 있는 영산이 높아서 항상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하여 ‘구름실’이라 하였다 한다.

[풀이] ‘굴, 구루’는 움푹한 낮은 곳을 나타내는 지명소이며 ‘미(<매<외>’는 산(山), ‘실’은 골짜기(谷)이다. ‘굴+미+실>굴미실>구루미실>구름실, 구름실’이 되었다. 한자 지명 ‘운동(雲洞)’은 ‘구름실’을 뜻으로 적은 것이다.



「굴미실 마을 : 2020년」

굴미실들 [들]

[위치] 굴미실 마을 앞 남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재 새 만종역사가 들어서 있다. 『조선지리지』에 ‘굴머실들(雲洞坪)’이라고 하였다.

금송골 [골]

[위치] 안골저수지 북쪽, 큰골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는 지정면 신평리 웃물지울(상무곡) 서마지기골이 있다.

깃대봉 [산]

[위치] 안골저수지 서쪽, 매봉재 북쪽에 있는 높이 253.2m의 봉우리를 말한다.

나구루도리 [마을] → 감박산골

나무골짜기 [마을] → 감박산골

남오동(南五洞) [마을]

[위치] 만종 남쪽에 있는 마을로 현 만종의 중심 마을이다. 만종초등학교 남쪽에 있다. ‘남오리(南五里)’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남오리(南

五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남오리(南五里)’라 하였다.

[유래] 옛 만종리의 중심지였던 만종 본동에서 남쪽으로 5리가 되는 곳에 마을이 섰으므로 ‘남오리(南五里)’라고 하였다.



「남오동 마을 : 2020년」

남오동들 [들]

[위치] 남오동 마을 남쪽에 있는 들이다. 『조선지리지』에 ‘남오리ضل(南五里坪)’이라고 하였다.

남오리(南五里) [마을] → 남오동

남오리재 [고개]

[위치] 남오동에서 감박산골을 지나 동쪽으로, 단계동 백간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봉화산 북쪽, 상봉 남쪽 능선을 지나는 고개이다. 고개 높이는 290m이다. 『조선지리지』에 ‘남오리지(南五里峴)’라고 하였다.

남오리주막 [주막]

[위치] 남오리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남오리주막(南五里酒幕)’이라 하였다.

담바우산 [산] → 덩바우산

덩바우산 [산]

[위치] 장구봉과 재내재 남동쪽 줄기에 있는 높이 262.6m의 바위산을 말한다. 현 상지대학교 북서쪽 영동고속도로 건너에 있는 산으로 만종리와 우산동, 가현동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담바우산’, ‘덩부우산’, ‘말미’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덩부우산’이라 하였다.

[유래] 바위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 덩바우가 있으므로 ‘덩바우산’, 큰 산이므로 ‘말미’라 하였다.

[내용] 북동쪽 아래로 여우바우골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박달미까지 말미골과 말미들이 이어진다. 북서쪽 줄기에 말미고개, 재내재, 장구봉, 저고무지고개, 할미바우산, 군두봉이 이어져 있다.

덩부우산 [산] → 덩바우산

대명원(大明園) [마을]

[위치] 박달미 남쪽, 상봉 북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성락원(星樂園)’, ‘수용소’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수용소’라 하였다.

[유래] 1955년에 1군사령관 백선엽 장군이 나병을 앓는 제대군인들에게 정착자금을 주어 형성된 마을로 ‘성락원(星樂園)’이라 하다가 1967년에 ‘대명원’으로 확장되었다. 140여 세대가 양돈과 양계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철거 중이다.



「대명원 마을 : 1979년」



「대명원 마을 : 1983년」

대미기들 [들]

[위치] 만종 남서쪽, 대미기저수지 남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강릉선 철길을 지나 대명원 앞 만종천으로 펼쳐진 들이다.

대미기저수지 [못]

[위치] 만종 서쪽, 대미기들 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 영동고속도로 남쪽 아래에 있다. ‘상만종저수지’라고도 한다.



「대미기저수지 ; 2018년」

도당골 [골]

[위치] 중부 음달담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산골 위, 현 원주운전시험장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끝에서 북쪽으로 용골이 이어진다.

된머루골 [골]

[위치] 대명원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된머루들에서 도로 건너 남쪽으로 구 명신분교(현 원주장례예식장)로 이어지는 골짜기이다. 들 옆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된머루들 [들]

[위치] 된머루골 북쪽 아래에 펼쳐진 들을 말한다. 만종천을 따라 도로 옆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들이다. 골 입구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둔덕말 [마을]

[위치] 만종 마을에서 본동의 남쪽 아래, 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강릉선 철로 굴다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산(馬山) [산] → 말미 [산]

만대골고개 [고개]

[위치] 중부에서 남동쪽 만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감박산 남쪽을 지난다. 『조선지리지』에 ‘만다솔고기(萬垆峴)’라고 하였다.

만종(萬鍾) [마을]

[위치] 만종리에서 대명원 북쪽, 장구봉과 덩바우산 아래 산기슭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마을을 가로질러 지나고 마을 앞으로는 강릉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웃담’과 ‘본동’, ‘둔덕말’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망종이(望宗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만종(望宗)’이라 하였다.

[유래] 치악산 비로봉이 바라보이므로 망종(望宗, 望鐘)이라 하였는데, 현대에 와서 만종(萬鍾)으로 정착되었다. 종(宗)은 산마루, 또는 우두머리를 뜻한다.

[내용] 처음 만종리가 형성된 곳은 현 강릉선 철로 북쪽, 산 아래에 있는 ‘본동골’로, 옛날 강원감영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던 마을이다. 이후 남오동과 대명원 쪽의 하만종이 형성되었다. 남오동(南五洞)은 본동에서 남쪽 5리 거리에 새로 생긴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는 남오동이 만종리의 중심지이다.

만종들 [들]

[위치] 만종 둔덕말 남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강릉선 철로 굴다리 옆에 있는 들이다.

만종리(萬鍾里) [마을] → 만종

만종리주막 [주막]

[위치] 만종리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망종이주막(望宗里酒幕)’이라 하였다.

만종역(萬鍾驛) [역]

[위치] 만종 남서쪽, 굴미실 앞에 있는 강릉선 철로의 새 정거장을 말한다. 옛 만종역은 만종초등

학교 서쪽, 현 만종역 북동쪽에 있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만종역’이라 하였다.

[내용] 중앙선의 옛 만종역은 1942년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1964년에 청사를 신축하고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2007년에 여객취급을 중단하였다가 2017년 무궁화호 정차를 재개하였다. 2017년 새 만종역사를 굴미실 앞으로 옮겨지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선 KTX 운행을 개시하였다. 서원주역에서 갈라진 강릉선 철로가 현 만종역을 지난다.



「만종역 ; 2016년」

만종저수지 [못]

[위치] 만종 남서쪽, 쉬고개 남동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 만종C 남동쪽 아래에 있다. ‘쉬개저수지’라고도 한다.

[유래] 만종리에 있으므로 ‘만종저수지’, 쉬고개 아래에 있으므로 ‘쉬개저수지’라고도 한다.



「만종저수지 ; 2018년」

만종천(萬鍾川) [내]

[위치] 장구봉과 덩바우산에서 시작하여 박달미와 만종초등학교를 지나 사제사거리 중부들 앞에서 서곡천으로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석바탕개울’이라고도 한다.

만종초등학교 명신분교 [학교]

[위치] 대명원 남서쪽, 된머루골 남쪽 위에 있던 학교의 터를 말한다. 만종초등학교 동쪽 산 너머에 있다.

[내용] 1964년에 개교, 1988년에 폐교되어 만종초등학교에 통합되었다. 학교 자리에는 원주장례예식장이 있었다.



「만종초등학교 명신분교터 ; 2020년」

말미 [산] → 덩바우산

[위치] 덩바우산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말미(馬山)’라고 하였다.

[풀이] ‘말+뫼>말뫼>말메>말미’로 변하였다. ‘말’은 ‘크다’는 뜻이고 ‘뫼>메>미’는 ‘산’의 뜻이다. 덩바우산이 크고 우뚝하게 높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말미고개 [고개]

[위치] 말미골(1)에서 덩바우산 북쪽을 넘어 동쪽으로 여우바우골, 자은향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230m이다.

말미골(1) [골]

[위치] 박달미에서 북동쪽으로, 말미들을 지나 장구봉 줄기 덩바우산을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앙을 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 철로가 가로질러 지나고 있다.

말미골(2) [골]

[위치] 말미들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대안사가 있는 골짜기이다.

말미들 [들]

[위치] 박달미 북쪽의 말미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웃말미들’과 ‘아랫말미들’이 있다. 말미골(1)과 말미들 사이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웃말미들과 아랫말미들 사이로는 강릉선 철길이 나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말미뜰(馬山坪)’이라고 하였다.

망종(望宗, 望鐘) [마을] → 만종

매봉산 [산]

[위치] 만종 북서쪽, 쉬고개 북쪽 능선에 있는 높이 251m의 산을 말한다. 산 남서쪽에 상봉(2)가 바로 붙어있다. 깃대봉과 매봉산, 쉬고개로 이어지는 능선이 지정면 신평리와 경계를 이룬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응솔(鷹谷)’이라 하였다.

[유래담] 매를 놓아 꿩 사냥을 하던 곳이어서 매봉산이라 한다.

매봉재 [고개]

[위치] 중부 마을에서 동쪽 무실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감박산 남쪽을 지나 무실동 만대에 닿는다. 고개를 넘으면 중앙고속도로 만종터널 입구가 나오고 그 아래에 만대저수지가 있다. 높이는 273m이다.

[유래] 감박산을 매봉재라고도 부르므로 감박산 옆을 지나는 이 고개를 매봉재라 하였다.

매봉재(1) [산]

[위치] 굴미실 서쪽, 지정면 보통리 광터고개골 북동쪽에 있는 높이 237.5m의 산을 말한다. 산 북서쪽 아래로 샘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미봉재(鷹峰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매봉재’라 하였다.

[내용] 영산(325m)에서 남쪽으로 곧게 뻗어 내려온 산줄기의 남쪽 마지막 봉우리이다. 산줄기 동

쪽에는 생양골이 길게 이어져 있고 서쪽에는 샘골이 길게 이어져 있다.

매봉재(2) [산] → 감박산

명신분교 [학교] → 만종초등학교 명신분교

바우배기들 [들]

[위치] 박달미 북서쪽에서 옛 중앙선 철로까지 이어진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바우배기’라 하였다.

[유래] 바위가 많이 박혀 있으므로 ‘바우배기들’이라고 하였다.

박달미 [마을]

[위치] 대명원 북쪽 건너편, 만종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박달산’, ‘박달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박달산(朴達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박달이’라 하였다.

[유래담] 박씨가 많이 살아서 박달미라고 하였다고 한다.

박달미 [산]

[위치] 박달미 마을 동쪽, 무상골 북서쪽 위에 있는 높이 210.5m의 산을 말한다. 단계동, 우산동과 경계가 되는 산이다. 남쪽에 단계동 매봉산이 있고 무상골로 넘어가는 비독재가 있다. ‘박달산’이라고도 한다.

[내용] 주민들은 이 산을 고개 이름인 ‘비독재’, ‘비독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 남쪽의 매봉산과 구분하지 않고 ‘매봉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고갯길의 기능은 없어지고 마을 등산로로만 이용되고 있는 작은 산이어서 굳이 구별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름이 통칭되며 단순화되는 과정에 있다.

[풀이] ‘박+달+미>박달미’가 되었다. ‘박’은 ‘붉’계통의 언어로 ‘밝다,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달’은 ‘높은 곳, 산’의 뜻을 가진 옛말이며 ‘미’는 ‘와>매>미’로서 산을 뜻한다. 따라서 박달미는 ‘우뚝하게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박달산(朴達山) [마을] [산] → 박달미

박달이 [마을] → 박달미

밤골 [골] → 밤나무골

밤나무골 [골]

[위치] 남오동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상류에서 상봉골과 밤나무우리골로 갈라진다. ‘밤골’, ‘방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방골(方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밤나무가 많으므로 밤나무골이라 하였다.

밤나무골 [마을]

[위치] 남오동 동쪽의 밤나무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밤나무우리골 [골]

[위치] 밤나무골 마을에서 상봉골과 갈라져 동쪽 단계동 바우골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뱃나물 [마을]

[위치] 현 만종대보아파트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뱃나물(뱃남오리)’라 하였다.

[유래] 남오리 마을 중 바깥 들판 쪽에 있으므로 ‘뱃남오리>뱃남오리>뱃남울>뱃나물>뱃나물’이 되었다.

뱃남오리(-南五里) [마을] → 뱃나물

방골 [골] → 밤나무골

배부른산 [산] → 무실동 배부른산

배암벼루 [바위]

[위치] 현 사제사거리와 사제교 북서쪽에 있는 벼랑을 말한다. 바위로 된 낭떠러지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원래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으나 흔적은 남아있다.

[풀이] 뱃나루 뒤에 있던 벼랑으로서 ‘뱃나루>뱃나루>뱃나루’로 ‘뱃’이 ‘뱀’으로 정착되면서 ‘뱀벼루, 배암벼루’가 되었다. ‘배암’, ‘비암’은 ‘뱀’의 방언

이며, ‘벼루’, ‘베루’는 ‘벼랑’의 방언이다.



「배암벼루 ; 2020년」

배암벼루보 [보]

[위치] 뱃나루 아래에 있는 서곡천의 보(洑)를 말한다. 요동 앞들에 물을 댄다. 『조선지리지』에 ‘비암베루보(蛇硯洑)’라 하였다.

뱃나루 [나루]

[위치] 만종과 남쪽 사제리 요동 마을을 잇던 서곡천의 나루를 말한다. 현 사제사거리의 사제교가 있는 곳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사진(蛇津)’이라 하였다.

[유래] 배가 드나들던 나루가 있던 곳이어서 뱃나루라 하였는데 ‘뱃나루>뱃나루>뱃나루’가 되었다.

뱃나루 [마을]

[위치] 뱃나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사제사거리 부근에 있던 마을이다.

뱃나루주막 [주막]

[위치] 뱃나루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현 사제사거리 부근에 있던 주막이다. 『조선지리지』에 ‘사진주막(蛇津酒幕)’이라 하였다.

뱃머리 [나루]

[위치] 뱃나루가 있던 곳을 말한다.

[유래] 배를 돌리던 곳이므로 ‘뱃머리’라 하였는데 ‘뱃머리>뱃머리>뱃머리’가 되었다.

뱃나루 [나루] → 뱃나루

뱃머리 [나루] → 뱀머리

버덩말 [마을]

[위치] 남오동 남쪽, 중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사제사거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덩말’이라 하였다.

[유래] 평평한 들에 마을이 있으므로 버덩말이라 하였다.

보들 [들]

[위치] 박달미 서쪽, 바우배기들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서원대로와 강릉선 철로 사이에 있는 들이다.

복계들 [들]

[위치] 중부 남서쪽, 안산골 서쪽 아래 서곡천에 있는 좁은 들을 말한다. 현 원주운전면허시험장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본동(本洞) [마을]

[위치] 만종 마을 중 가운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만종의 중심 마을이었다.



「본동 마을 : 2020년」

본동골 [골]

[위치] 만종 본동에서 상만종을 거쳐 북쪽 장구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본토골’이라고도 한다.

본토골 [골] → 본동골

봉우재 [산] → 단계동 봉화산

봉화산(烽火山) [산] → 단계동 봉화산

부들골 [골]

[위치] 절터골 안, 현 보현사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비득재 [고개]

[위치] 만종리와 단계동 무상골로 이어지는 고개를 말한다. 박달미와 매봉산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비득재’, ‘비들재’라고도 한다.

[유래] 비둘기가 많이 살았으므로 ‘비둘재>비득재, 비득재’라 하였다.

[풀이] 비둘기는 옛말에 ‘비두루기, 비둘기, 비둘기, 비두리, 비들기’로 나온다. ‘닭’처럼 ‘둘’이 어원이다. ‘닭>닥, 달기, 달구’와 같이 ‘비둘>비득, 비두루기, 비들기’로, ‘비둘재>비득재(비득재), 비들재(비들재)’로 실현되었다.

비득재 [고개] → 비득재

비들재 [고개] → 비득재

사진(蛇津) [나루] → 뱀나루

산골고개 [고개]

[위치] 만종에서 동쪽 우무개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말한다. 현재 우무개로가 나 있다. 서낭고개와 붙어있다. 『조선지리지』에 ‘암현치(奄峴峙)’라 하였다.

[유래] 땅에서 산골을 캐던 곳이라 산골고개라 부른다. 서낭고개 옆, 현 롯데푸드 부근에서 산골을 캐으나 도로가 나면서 모두 묻혔다.

삼리(三里) [마을] → 만종리

상만종(上萬鍾) [마을]

[위치] 만종천의 상류에 있는 마을로 만종 웃담 북쪽 위, 본동골에 있는 마을들을 말한다. 남오리를 중심으로 한 아래만종과 구분하여 부른 이름이다. ‘웃만종’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만종’이라 하였다.

상만종들 [들]

[위치] 만종 웃담에서 북쪽 본동골로 나 있는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상만중저수지 [못] → 대미기저수지

상봉(上峰) [마을]

[위치] 상봉(1) 산 서쪽 아래, 상봉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봉’이라 하였다.

상봉(上峰)(1) [산]

[위치] 봉화산 북쪽 능선에 있는 높이 269.5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상봉산(上峰山)’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상봉(上峰)’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봉(上峰), 상봉산’이라 하였다.

[유래] 산이 매우 높다고 해서 상봉이라고 하였다. 옛날에 봉화를 피웠다는 설이 있다.

[내용] 현 만종터널 북쪽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북동쪽의 상봉골 끝에 있는 산으로 단계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상봉 북쪽 능선에 대명원이 있고 북동쪽 아래에 바우골이 있다. 배부른산, 감박산, 봉화산, 상봉이 남에서 북으로 능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상봉은 그 중 제일 북쪽 봉우리이다.

상봉(上峰)(2) [산]

[위치] 매봉산 남쪽, 쉬고개 북쪽에 있는 250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매봉산 남서쪽에 바로 붙어있는 봉우리이다.

상봉골 [골]

[위치] 밤나무골에서 동쪽으로, 상봉(1)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만종터널 북쪽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에서 상봉(1)을 향하여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산기슭에는 물이 찬 샘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상봉골’이라 하였다.

상봉산(上峰山) [산] → 상봉(1)

상봉천(上峰川) [내]

[위치] 봉화산에서 시작하여 상봉골, 밤나무골을 따

라 북서쪽으로 흘러 만종초등학교 앞에서 만종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새담골 [골]

[위치] 남오동에서 남동쪽으로, 감박천을 따라 감박산골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생골 [골] [마을] → 생양골

생양골 [골]

[위치] 생양골 마을에서 북쪽으로 영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생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침양골(斜陽谷)’이라 하였다.

생양골(生陽-) [마을]

[위치] 굴미실 북서쪽, 영산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쪽 고개 너머에는 샘골이 있다. ‘생골’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생양동(生陽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시양동(生陽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생골(생양골, 생양동)’이라 하였다.

[유래] 좋은 샘이 있어 샘골이라 하였는데 ‘샘골>생골, 생양골’이 되었다.

[내용] 예전에는 10여 가구가 살았으나 지금은 두 가구가 살고 있다.

생양골성향당 [당]

[위치] 생양골 마을 입구 산기슭에 있는 성향당을 말한다.

[내용] 마을에 남은 두 가구가 기독교를 믿으므로 폐지되었다. 허물어진 당집이 남아있다.

생양동(生陽洞) [마을] → 생양골

서곡천(瑞谷川) [내] → 판부면 서곡리 서곡천

서낭고개 [고개]

[위치] 만종에서 동쪽 우무개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우산동과 만종리의 경계되는 고개로 산골고개 서쪽에 붙어있다. 현재 우무개로가 나 있다.

[유래] 큰 참나무 당목에 치성을 드리던 곳이라 서낭고개라 부른다.

[내용] 원래 당집은 없었고 큰 참나무를 당목으로 삼았는데 도로가 나면서 자리를 옮겼고, 지금도 무속인들이 치성을 드린다.

석바탕 [마을] → 석밭

석바탕개울 [내]

[위치] 만종천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석바탕개울’이라 하였다.

[유래] 석밭 앞에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석바탕개울’이라고 부른다.

석바탕다리 [다리]

[위치] 석밭 앞에 있던 만종천의 옛 나무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석바탕다리’라 하였다.

석바탕이 [마을] → 석밭

석밭 [마을]

[위치] 현 만종초등학교와 동쪽 산기슭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석바탕’, ‘석바탕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석전(石田)’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석바탕’이라 하였다.

석전(石田) [마을] → 석밭

성락원(星樂園) [마을] → 대명원

속담 [마을]

[위치] 굴미실 마을 중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속담들 [들]

[위치] 굴미실 속담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의 대부분이 새 만종역사에 편입되었다.

숫을묘 [묘]

[위치] 쉬고개의 동쪽 아래에 있는 원경눌(元景訥, 1553~1640)의 묘를 말한다.

[유래] 묘가 자주 솟아 커진다고 해서 숫을묘라 부른다. 같이 있는 세 기의 묘소 중에 이 묘소가 자주 솟으며 커졌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관헌들이 산에 혈을 지른 다음부터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고 한다.

수용소 [마을] → 대명원

쉬개 [고개] → 쉬고개

쉬개고개 [고개] → 쉬고개

쉬개들 [들]

[위치] 만종저수지(쉬개저수지) 남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강릉선 철로 북쪽, 만종JC 동쪽 사이에 있다.

쉬개저수지 [못] → 만종저수지

쉬고개 [고개]

[위치] 만종 서쪽 매봉산 남쪽 줄기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채미니에서 만종과 원주를 오가던 주고갯길로 만종리와 신평리의 경계에 있다. 원래는 간현유격장으로 가는 군사도로였다고 한다. ‘쉬개’, ‘쉬개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슈유고기(茱萸峴)’라고 하였다.

[풀이] ‘쉬고개’의 ‘쉬’는 ‘수레너미, 수리봉’처럼 ‘으뜸, 높은’의 뜻을 가진 ‘술, 수리’가 ‘술>수리>수아>쉬’로 음운 변천한 것이다. ‘쉬개’는 ‘쉬+개>쉬개’로, ‘쉬고개’의 준말이며, ‘쉬개고개’는 ‘쉬+개(고개)+고개’의 형태로 ‘고개’가 중복된 것이다. 따라서 쉬고개는 ‘높은 산을 넘어가는 고개’란 뜻이다. ‘쉬’는 제주도의 ‘다랑쉬오름(월랑봉)’에 남아있는 옛말이다.

승지골 [골]

[위치] 재내이골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아래만종 [마을]

[위치] 만종리 중 남오리를 중심으로 하여 늦게 형성된 마을로 석밭과 남오동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내용] 원래 만종은 장구봉과 덩바우산 아래 산기슭에 있던 본동으로, 그 이후에 현 남오리를 중심으로 하여 본동의 아래쪽에 새로 마을이 들어섰으므로 본동을 ‘웃만종’, 아래쪽에 새로 생긴 마을을

‘아래만종’이라 하였다.

아래만종들 [들]

[위치] 아래만종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만종초등학교와 만종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들이다. 『조선지지자료』에 ‘아리망종ضل(下望宗坪)’이라 하였다.

아래말미들 [들]

[위치] 박달미 북쪽, 말미들 중 강릉선 철로 남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굴다리들 동쪽에 있다.

안골(1) [골]

[위치] 만종 웃담에서 북서쪽으로, 매봉산(251.0m)과 매봉산 북쪽 깃대봉(253.2m)을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중간에서 안골저수지가 있는 큰골과 갈라진다. 『조선지지자료』에 ‘안솔(內谷)’이라고 하였다.

[내용] 현재 안골에 군부대가 들어서서 골짜기 전체가 통제되었다.

안골(2) [골]

[위치] 안골(1)에서 큰골과 갈라져 북동쪽 깃대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원수골’이라고도 한다.

안골저수지 [못]

[위치] 만종 웃담 안골(1)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저수지 위로 큰골이 이어진다. ‘큰골저수지’라고도 한다.

[내용] 안골의 저수지 바로 아래까지가 군부대 부지여서 부대에서는 벗어나 있다. 1960년에 준공하였다.

안만종 [마을]

[위치] 만종 마을 중 안쪽에 있는 마을로, 굴다리 윗쪽 마을을 말한다. ‘안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만종(안말)’이라 하였다.

안말 [마을] → 안만종

안산골 [골]

[위치] 중부 음달담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도당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 원주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 있다.

양지담(1) [마을]

[위치] 굴미실 마을 중 북동쪽에 떨어져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영동고속도로 바로 밑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양지담(2) [마을]

[위치] 중부 마을 중 북쪽 산 아래에 붙어있는 마을을 말한다.

여우방골 [골]

[위치] 절터골 현 보현사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여장군바위 [바위]

[위치] 중부 동쪽, 감박산 서쪽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내용] 중부 마을에는 유독 노총각이 많았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여장군의 기를 꺾기 위해 이 바위 정수리 부분에 쇠말뚝을 박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1년 마을청년회에서 쇠말뚝을 제거하였다.

역전동(驛前洞) [마을]

[위치] 옛 만종역이 있던 마을을 말한다. ‘정거장담’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정거장담’이라 하였다.

연낭골 [골]

[위치] 중부들에서 동쪽으로, 봉화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서 감박산골과 만난다. 『조선지지자료』에 ‘연낭골(鍊浪谷)’이라고 하였다.

영산(靈山) [산]

[위치] 굴미실 북쪽, 생양골 끝에 있는 324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만종리와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보통리 등 4개 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오소리골 [골]

[위치] 절터골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용고개 [고개]

[위치] 버덩말에서 북동쪽으로, 상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용고개’라고 하였다.

용골 [골]

[위치] 중부 도당골 끝에서 동쪽으로, 매봉재 남쪽 28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운동(雲洞) [마을] → 굴미실

운동들 [들]

[위치] 역전동 앞, 학거리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의 대부분이 현 409번 신무로에 편입되었다.

웃담 [마을]

[위치] 만종 본동 북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본동 위, 안골 아래에 있는 마을로, 본동과의 사이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안골의 입구이므로 군부대에 편입,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웃만종 [마을] → 상만종

웃말미들 [들]

[위치] 말미들 중 강릉선 철로 북쪽, 굴다리들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원수골 [골] → 안골(2)

음달담 [마을]

[위치] 중부 마을 중 남쪽, 도당골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응골 [골] → 매봉산

잔양이 [고개] → 재내이

잘록뱅이 [고개] → 재내이

[위치] 재내이 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고개 능선이 개미허리처럼 잘록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장고봉 [산] → 장구봉

장구봉 [산]

[위치] 만종리의 최북단, 절골 북쪽 끝에 있는 높

이 346.3m의 산을 말한다. 만종리와 가현동, 지정면 신평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장고봉’, ‘저고무지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저고무지산(擊鼓舞地山)’이라고 하였다.

[유래담] 산모양이 장구처럼 생겼다 하여 장구봉이라고 한다.

재내이 [고개]

[위치] 상만종 북동쪽, 재내이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덩바우산 북쪽, 장구봉 남쪽 능선에 있는 고개로, 재내재 바로 옆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넘어 가현동 윗골 또는 자은향에 닿는다. 고개 높이는 295m이다. ‘잔양이’, ‘잘록뱅이’라고도 한다.

재내이골 [골]

[위치] 상만종에서 북동쪽으로, 재내이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재내이재 [산] → 재내재

재내재 [산]

[위치] 덩바우산 북서쪽, 장구봉 남동쪽 능선에 있는 높이 301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봉우리 북쪽 바로 옆에 재내이가 있다. ‘재내이재’라고도 한다.

저고무지산 [산] → 장구봉

절터 [터]

[위치] 장구봉 남쪽 아래 절터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현 보현사가 있는 자리이다.

[유래] 옛날에 절이 있다가 폐사되어 절터라 하였다. 옛 절의 연혁이나 절 이름은 알 수 없다. 옛 절터에는 좋은 우물이 있어서 나무꾼들이 이용하였다고 전한다. 절터에 보현사를 현대에 지었다.

절터골 [골]

[위치] 상만종 본동골 북쪽 위, 현 보현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장구봉 남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 절이 있었으므로 절터골이라 한다.

정거장담 [마을] → 역전동

조가마골 [골]

[위치] 가래울골 맞은편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보(中湫) [마을] → 중부

중부(中浮, 中孚, 中斧, 中府) [마을]

[위치] 감박산 서쪽 아래, 남오동 남쪽 서곡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에 ‘양지담’과 ‘음달담’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중부(中孚)’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부(中浮, 중보)’라 하였다.

[유래] 마을 앞 서곡천에 상·중·하 세 개의 보(湫)가 있는데 중간의 보가 있는 곳이므로 ‘중보>중부’라 하였다.



「중부 마을 : 2020년」

중부개울 [내] → 중부천

중부들 [들]

[위치] 중부 마을 앞에서 서곡천을 따라 북쪽 남오동에 이르는 넓은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중부뜰(中孚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부들’이라 하였다.

중부보 [보]

[위치] 중부 앞에 있는 서곡천의 보(湫)를 말한다. 중부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부보’라 하였다.

중부천(中浮川, 中府川) [내] → 판부면 서곡리 서곡천

[위치] 서곡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중부기울(中斧川, 中府川)’이라고 하였다.

[유래] 서곡천이 중부 마을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 서는 ‘중부천’, ‘중부개울’이라고 불렀다.

천둥머리 [모퉁이]

[위치] 생양골로 들어가는 입구, 천둥바위가 있는 길모퉁이를 말한다.

천둥바위 [바위]

[위치] 천둥머리 길모퉁이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길바닥까지 연결된 바위가 쿵쿵 울려 천둥 소리가 나므로 천둥바위라 하였다. 또는 산 위 강원감사를 지낸 안씨 산소에 후손들이 제를 지내러 오는데 천둥이 울었으므로 천둥바위라 하였다고도 한다.

칠성당골 [골]

[위치] 굴미실 양지담에서 영동고속도로 건너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서쪽 너머에 생양골 마을이 있다.

[유래] 옛날 이 골에 신당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오래 전에 없어졌다.

큰골 [골]

[위치] 안골 중간에서 북서쪽으로, 장구봉 서쪽 능선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서 금송골이 갈라져 나간다.

큰골저수지 [못] → 안골저수지

학거리 [마을]

[위치] 운동들 중앙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만종초등학교와 옛 만종역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학거리들 [들]

[위치] 학거리 마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들을 말한다. 현 만종초등학교 서쪽 내 건너에 있는 들이다. 운동들과 함께 넓은 지역이 신무로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학거리뜰(鶴巨里坪)’이라고 하였다.

매호리(梅湖里)

[위치]

매호리는 호저면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산현리, 서쪽으로는 횡성군 서원면, 남쪽으로는 무장리와 지정면 월송리, 북쪽으로는 산현리와 접하고 있다. 남동에서 남서로 섬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소군산 줄기가 크게 가로막으며 횡성군 서원면과 접하여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고모곡면(古毛谷面)의 지역이었는데, 고종 32년(1895년)에 고모곡면이 횡성군(橫城郡)으로 이관되어 횡성군 고모곡면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상촌·새매기·물구리·향미를 병합하여 횡성군 고모곡면 분일리(分一里)라 하였다.

1937년 매호리(梅湖里)로 고치고 고모곡면도 서원면(書院面)으로 바꾸어 횡성군 서원면 매호리가 되었다.

198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같은 횡성군 서원면 소속이던 산현리·압곡리 일부(용곡리)와 함께 원성군 호저면(好楮面)에 편입되어 원성군 호저면 매호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원주군 호저면 매호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가 되었다.

[유래]

‘물골·물굴’의 뜻을 가진 마을 이름 ‘물구리’를 한자로 옮겨 ‘매호(梅湖)’라고 하였다.

[풀이]

1911년의 『조선지리지』에는 매호리란 지명이 나오지 않고 시목니(鳥項里)·상촌(上村)·향미(香山)·물구리(水洞) 등 각 마을 이름만 적었다. 『1917년지적도』에는 ‘수동(水洞)’으로 표기하였다. 매호리가 현재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1937년으로, 이는 한자로 기록하면서 새로 지은 이름이다.

매호리와 관계되는 이 지역의 지명은 ‘물구리’로서 이를 ‘수동(水洞)’이라 하였다. ‘물구리’는 ‘물+굴+이>물굴이>물구리’가 된 것으로 물굴, 즉 물이 많은 낮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수동(水洞)’은 ‘물구리(<물골, 물굴)’의 뜻을 적은 것이고 ‘매호(梅湖)’는 이 ‘水洞’을 달리 적은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물’을 ‘매(買)’, ‘굴(굴)’을 ‘홀(忽)’이라 하였다. 경기도 ‘수원(水原, 水城)’의 옛 이름은 ‘매홀(買忽)’로서, 이를 현대어로 옮기면 ‘물골, 물굴(물구리)’이다. 즉 ‘매홀=물골(물굴, 물구리)=水原, 水城’으로서, 이는 ‘물구리=水洞’과 같다. 따라서 매호리는 ‘매홀>물구리(물골, 물굴)>수동>매호리’로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매호리(梅湖里)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지역(영천 매호리, 상주 매호리 등)도 모두 물

가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수원과 매호리는 고대에 ‘매홀, 매골, 매굴’ 정도로 불리다가 ‘물골, 물굴, 물구리’가 되었으며 이를 한자로 ‘水原(水城), 水洞’이라 적은 것이다. ‘물구리’는 한자로 ‘수동(水洞)’이라 하다가 다시 ‘매호리(梅湖里)’라 하였는데 이는 고대어 ‘매홀’과 소리가 같아 오래 전의 옛 지명을 되살린 것이 되었다. 이때 ‘매(梅)’는 물을 뜻하는 ‘매’의 소리를 적은 것이며 ‘호(湖)’는 ‘물’의 뜻을 따르면서 ‘홀’의 소리까지 반영된 것이다.

지금은 이 ‘매(梅)’를 살려 매화나무를 심고 마을에서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원주에서 물의 옛말 ‘매’를 ‘매(梅)’로 기록한 예는 ‘호매(好梅)’와 흥업면 매지리의 ‘매남이(梅南-)’가 있다.



「섬강·매호리 ; 2019년」

고노니고개 [고개] → 고논고개

고논고개 [고개]

[위치] 물구리에서 지정면 월송리로 가기 위해 섬강까지 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노니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고노니고개’라 하였다.

고논골 [들]

[위치] 섬강에서 북쪽으로 물구리까지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에 들이 형성되어 있다. ‘골논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에 논이 있으므로 ‘골논>고논’이라 하였다.

[풀이] 골+논>골논>고논이 되었다. 물구리 골짜기에 논이 있으므로 생긴 이름이다. ‘고논고개’, ‘고논골’, ‘고치고개(골치고개)’ 등은 모두 물구리 골짜기와 연관된 지명들이다.



「고논골 ; 2020년」

고치고개 [고개]

[위치] 물구리에서 북쪽 상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골치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치고개’라 하였다.

[유래] 물구리 골짜기 위에 고개가 있으므로 ‘골+치>골치, 고치’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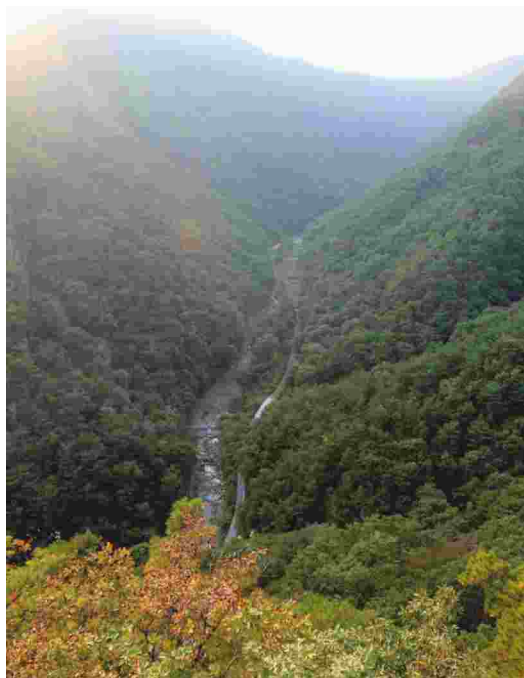
골논골 [골] → 고논골

골치고개 [고개] → 고치고개

공사골 [골]

[위치] 물구리 마을 남서쪽 끝 섬강에서 시작하여

물구리를 지나고 북쪽 둔지봉과 소군산 사이로 뻗어 있는 긴 골짜기를 말한다. 매호리 전체를 가로질러 내려오는 큰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공사골’이라 하였다.



「공사골 ; 2018년」

공사골들 [들]

[위치] 공사골 입구에서 물구리까지 이어진 들을 말한다. 들 앞으로 매호리가 나 있다.

공사골천 [내]

[위치] 소군산 서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매호리 전체를 관통하며 길게 흐르는 내를 말한다. 마을 남쪽에서 횡성군 서원면에서 흘러내려오는 이리천과 함께 섬강으로 들어간다. 이 내로 하여 ‘물구리’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고 섬강 주변으로 넓은 들이 발달하였다.

공사골 [골] → 공사골

너다리 [들]

[위치] 향미 동쪽에서 북쪽 상촌까지 이어진 들을 말한다. ‘너다리들’이라고도 한다.

[풀이] ‘너다리’는 ‘넙+달>넙달(ㄴ) >넙다리>너다리’로 음운 변천하였다. ‘넙’은 ‘넙다’는 뜻이고 ‘달’은 여기서는 ‘들’의 뜻이다. 즉 ‘넙은 들’이란 뜻의 ‘너다리’에 ‘들’이 다시 첨가되어 ‘너다리들’이 되었다. 귀래면 운남리의 ‘너더리’, 단구동의 ‘너더리’와 같은 지명이다.



「너다리 ;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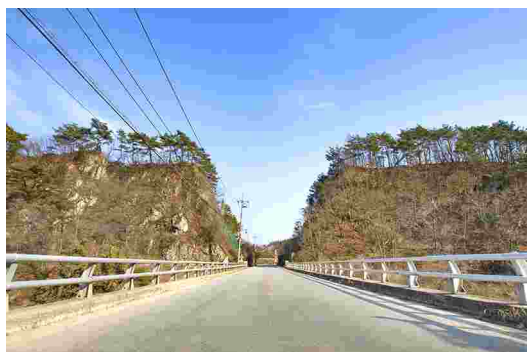
너다리들 [들] → 너다리

당고개 [고개] → 안골고개

대산고개 [고개]

[위치] 물구리에서 서쪽으로, 옥계리 대산(大山)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100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대산고개’라 하였다.

[내용] 물구리에서 황성군 서원면 옥계리로 가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공사골천을 건너고 대산고개를 넘어 다시 이리천을 건너야 한다. 현재 매호로가 넓게 나 있어서 고개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대산고개 ; 2020년」

도금물고개 [고개]

[위치] 상촌에서 동쪽 무장리 장포로 가기 위하여 섬강쪽으로 넘는 얇은 고개를 말한다. 현 매호상촌길이 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도금물고개’라 하였다.



「도금물고개 ; 2020년」

도금물골 [골]

[위치] 새매기들 중간, 현 팔각정이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상촌 마을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들이 형성되어 있다.



「도금물골 ; 2020년」

돌보 [보]

[위치] 장현교 남쪽, 실미골 동쪽에 있는 보(淤)를 말한다.

둔지봉 [산]

[위치] 공사골 서쪽 끝에 있는 높이 442.5m의 산을 말한다. 문바우봉 줄기로 호도봉 바로 북쪽에 있다. 산 서쪽 너머에는 호저면 옥계리의 둔지봉

골과 점말골이 있다. ‘둔치봉’이라고도 한다.

둔치봉 [산] → 둔지봉

매호리 [마을] → 매호리

매호리서낭 [당]

[위치] 새매기 마을 동쪽에 있는 두 그루의 느티 나무를 말한다.

[내용] 도로변에 있는 느티나무로 수령 약 400년, 나무 높이 17m의 마을 당산목이다.



「매호리서낭 ; 2019년」

매호리선사유적 [유적]

[위치] 향미 남쪽 섬강 변 버덩밭들 일대를 말한다. 들의 넓은 지역에서 청동기와 철기시대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물굴 [마을] → 물구리

물구리 [마을]

[위치] 매호리 가운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상촌 남쪽, 새매기 서쪽에 있다. 마을 이름 물구리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 매호리가 되었다. ‘물굴’, ‘물굴’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수동(水洞)’이라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물구리(水洞)’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물구리(수동)’라 하였다.

[유래] 우묵하게 낮은 곳에 물이 많으므로 ‘물굴(물골)>물구리’라 하였다.

[풀이] ‘물+굴+(이)>물굴이>물구리’이다. ‘물구리’

는 고구려어의 ‘매홀(買忽)’과 같은 것으로서 ‘매(買)’는 물(水)의 옛말이고, ‘홀(忽)’은 ‘골, 굴’로서 골짜기, 마을을 뜻한다.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매호(梅湖)’라고 하였다.



「물구리 마을 ; 2018년」

물굴 [마을] → 물구리

버덩밭들 [들]

[위치] 향미 남쪽, 섬강을 끼고 발달한 넓은 들을 말한다.

베틀바우 [바위]

[위치] 공사골 안, 송운봉 남서쪽 줄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베틀바우’라고 하였다.

[유래담] 바위에 큰 굴이 있는데 옛날 전란 때 한 처녀가 이 굴로 피란하여 살면서 베틀을 놓고 베를 짰다고 하여 ‘베틀바우’라 부른다고 한다.

베틀바우굴 [굴]

[위치] 공사골 안, 베틀바우에 있는 굴을 말한다.

분일리(分一里) [마을] → 매호리

3·1만세운동기념비 [비]

[위치] 산현리에서 매호리로 들어가는 새매기마을 입구에 있는 비를 말한다.

[내용] 1919년 3월 12일, 13일 양일간 만세운동을 하였는데 이를 기념하여 1989년 3월 1일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3·1만세운동기념비 제막식 : 1989년」



「3·1만세운동기념비 : 2019년」

상촌(上村) [마을]

[위치] 물구리 북동쪽, 산현리 미재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물구리 위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상촌(上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촌(上村)’이라 하였다.



「상촌 마을 : 2018년」

새매기 [마을]

[위치] 물구리 동쪽, 향미 북쪽 섬강 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새목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조

항(鳥項)’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새목니(鳥項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매기(조항鳥項)’라 하였다.

[유래] 마을 뒷산 줄기가 새의 목처럼 생겨서 새 목이, 새매기라고 한다.



「새매기 마을 : 2020년」

새매기들 [들]

[위치] 새매기 앞 섬강 변에 있는 긴 들을 말한다. 새매기 북동쪽 장현교에서 남서쪽 버덩밭들에 이르는 긴 들이다.

새목이 [마을] → 새매기

선녀바우 [바위]

[위치] 송운봉(松雲峰)과 평장바우 능선 중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송운당(松雲堂)’이라고도 한다.

선녀바우샘 [샘]

[위치] 선녀바우에 있는 샘을 말한다. 자주 말라 있어 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소군산(召君山, 昭君山) [산]

[위치] 매호리 최북단, 공사골의 끝에 있는 474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산현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여지도서』에 관문에서 북쪽으로 35리에 있다고 하고 동남쪽 기슭에 칠봉과 칠봉서원이 있다 하였다.

[내용] 이 산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소군산봉수대 [터] → 소군산

송운당(松雲堂) [바위] → 선녀바우

송운대(松雲臺) [산] → 송운봉

송운봉(松雲峰) [산]

[위치] 소군산 남서쪽 능선에 있는 높이 427.5m의 봉우리를 말한다. 산현리와 경계에 있다. ‘송운대(松雲臺)’라고도 한다.

수동(水洞) [마을] → 물구리

실미 [마을]

[위치] 실미골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실미’라 하였다.

실미고개 [고개]

[위치] 실미골 끝에서 서쪽 상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실미고개’라고 하였다.

실미골 [들]

[위치] 장현교 서쪽, 새매기들 위에서 서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돌보 서쪽에 있다.



「실미골 ; 2020년」

안골고개 [고개]

[위치] 상촌에서 북동쪽으로, 산현리 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당나무가 있으므로 ‘당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골고개’라고 하였다.

앞보들 [들]

[위치] 새매기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앞보들’이라 하였다.

여우골 [골]

[위치] 상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여우골’이라 하였다.

우렁골 [골]

[위치] 상촌에서 북쪽으로, 선녀바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우렁골’이라 하였다.

조항(鳥項) [마을] → 새매기

줄골고개 [고개]

[위치] 상촌에서 북동쪽으로, 산현리 미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줄골이 있다.

청룡고개 [고개]

[위치] 상촌에서 남동쪽으로, 새매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청룡고개’라고 하였다.

큰골 [골]

[위치] 상촌 북쪽, 우렁골 아래에 있는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골’이라 하였다.

평장바우 [바위]

[위치] 평장바우골 북쪽 위, 높이 284.5m의 봉우리 남쪽, 큰 굴이 있는 바위를 말한다.



「평장바우 ; 2018년」

평장바우골 [골]

[위치] 상촌에서 북서쪽으로, 284.5m 봉우리를 향

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평장박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평장박골’이라 하였다.

[유래] 골 서쪽 능선에 평장바우가 있으므로 평장바우골이라고 한다.

평장바우골 [골]

[위치] 평장바우에 있는 깊이 5~6m의 골을 말한다.



「평장바우골 : 2018년」

평장박골 [골] → 평장바우골

평장폭포 [폭포]

[위치] 상촌 위, 평장바우골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향미 [마을]

[위치] 물구리 남동쪽, 새매기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 섬강 변으로 버덩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향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향미(香山)’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향미(향산香山)’라고 하였다.



「향미 마을 : 2020년」

향산(香山) → 향미

호뎃봉 [산]

[위치] 소군산 정상 북서쪽에 붙어있는 452.5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호랑이를 잡는 뎃을 놓았으므로 호뎃봉이라 하였다.

호도봉 [산]

[위치] 공사골 북서쪽, 둔지봉 남쪽 능선에 있는 높이 443.5m의 산을 말한다. 산 북쪽 바로 옆에 둔지봉이 있다. 산 서쪽 너머에는 호저면 옥계리의 둔지봉골, 석화천 및 웃버덩들이 있다.

호랑바우 [바위]

[위치] 공사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호랑바우’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호랑이가 여기서 새끼를 쳤으므로 호랑바우라 한다.

무장리(茂長里)

[위치]

무장리는 호저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주산리, 서쪽으로는 매호리, 남쪽으로는 지정면과 가현동, 북쪽으로는 산현리와 접하고 있다.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섬강이 흐르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정지안면(正之安面)의 본일리(생장리) · 분일리(무장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상장포 · 하장포 · 생담 · 고려대 · 송정 · 간무곡을 병합하여 무장리(茂長里)라 하고 지정면(地正面)에 편입되어 원주군 지정면 무장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꿈에 따라 원성군 지정면 무장리가 되었다.

197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호저면(好楮面)으로 이관되어 원성군 호저면 무장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다시 원주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원주군 호저면 무장리가 되었다.

1995년 시 · 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가 되었다.

[유래]

1914년에 간무곡(間茂谷)과 장포(長浦)의 이름을 따서 무장리(茂長里)라고 하였다.

가매소 [소]

[위치] 생담 북쪽 장개들 서쪽, 매호리 새매기 동쪽에 있는 섬강의 큰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매소’라 하였다.

[유래담] 모양이 가마처럼 생겨서 ‘가마소>가매소’라 부른다고 한다.

간무곡(間茂谷) [마을] → 셋물지울

갯지 [들]

[위치] 아래물지울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첫다리들 북쪽 아래, 갯지내치기골 동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갯지’라 하였다.

[유래] 개울 옆에 있으므로 갯지들이라 하였다.

[풀이] ‘개(浦)+지(只·地)>갯지>갯지’가 되었다. ‘개(浦)’는 ‘물, 물가’를 뜻하는 지명소이고, ‘지(只·地)’는 ‘곳, 장소’를 뜻하는 지명소이다. ‘강, 또는 개울 옆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갯지내치기골 [골]

[위치] 아래물지울 서쪽, 갯지에서 남서쪽 136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거미논거리들 [들]

[위치] 사갑들 북쪽 아래, 고여대 북서쪽 아래에 있는 넓은 들로, ‘거미논거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미논거리들’이라 하였다.

[유래] 큰 논들이 있어서 거미논이라고 한다.

[풀이] 크다는 뜻을 가진 ‘굶’계통의 지명으로 ‘굶+논>검(ㄱ)논>거미논>거미논’으로 음운 변천하였다.

거미논거리 [들] → 거미논거리들

건너말 [마을] → 음달말

고려대 [마을] → 고여대

고여대(古呂岱) [마을]

[위치] 생담 남쪽, 아래물지울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고려대’, ‘교려대’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고려대(高呂岱)’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교려대(고려대古呂岱)’라 하였다.

[유래담] 여씨(呂氏)가 마을을 일구었다고 하여 고

여대라 하였다고 전한다. 또는 고려시대에 군사들이 주둔하였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고여대 마을 : 2020년」

고여대저수지 [못] → 신평저수지

고인골 [골]

[위치] 고여대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숲고개골이 있다.

고천 [내]

[위치] 고여대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의 내를 말한다. 숲고개골, 고인골을 거쳐 내려오는 내이다.

교려대 [마을] → 고여대

굴앞 [산] → 굴앞산

굴앞산 [산]

[위치] 셋물지울 음달말 동쪽, 덩바우골 위에 있는 높이 246.2m 산을 말한다. 산 동쪽 너머에 웃물지울 저고무지 마을이 있다. ‘굴앞’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신제를 지내는 바위에 굴이 있으므로 ‘굴앞’, ‘굴앞산’이라 하였다.

금발골 [골]

[위치] 생담뒷골에서 남동쪽으로, 군두봉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남쪽 고개 너머에는 지정면 신평리 웃물지울 저고무지 마을이 있다.

금발골 [마을]

[위치] 금발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절고개 위의 267m 봉우리 남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금발골’이라 하였다.

낭골 [골]

[위치] 생담저수지에서 남동쪽 위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서 큰너분터골과 작은너분터골이 다시 갈라진다.

[유래] 골짜기에 낭떠러지 벼랑이 있으므로 낭골이라 하였다.

[풀이] ‘낭+골>낭골’이 되었다. ‘낭’은 ‘낭떠러지’로, ‘벼랑’의 방언이다.



‘낭골’ ; 2018년

너분터 [골]

[위치] 낭골 위, 절골 북쪽 아래에 있는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큰너분터골’과 ‘작은너분터골’이 있다. ‘너분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너분터골(廣垆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너분터’라 하였다.

너분터고개 [고개]

[위치] 작은너분터골에서 동쪽으로, 묘지골을 지나 주산리 잔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215m이다. 『조선지리지』에 ‘너분터고기(廣垆峴)’라고 하였다.

너분터 [골] → 너분터

높은절터 [터]

[위치] 유봉산 남서쪽, 송정고개 아래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고여대 남서쪽 앞산, 절고개 아래에 있다. ‘무장리절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높은절터’라 하였다.

[내용] 절터는 약 2,000여 평의 논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기와와 자기편이 흩어져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금불상을 도굴, 반출하였다고 한다.

능골 [골]

[위치] 장포저수지 남쪽 위로 나 있는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하우고개 남쪽 능선의 서쪽 아래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동쪽에 하우고개, 스무산, 해우절봉으로 이어지는 산 능선이 이어진다. 『조선지리지』에 ‘능골(陵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능처럼 커다란 묘가 있었으므로 능골이라 하였다.

능골 [마을]

[위치] 능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능골’이라 하였다.

대룡골에 [골]

[위치] 하장포 매봉재와 봉사치 중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대술고개 [고개]

[위치] 셋물지울 대술골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북쪽 아래 아래물지울, 고여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150m이다.

대술골 [골]

[위치] 셋물지울 양지말 솟고개골 북쪽 옆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위에 대술고개가 있다.

대추나무골 [골]

[위치] 상장포 장개들 아래에서 북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도동막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옆에 도솔참숯공장이 들어서 있다.

덤바우골 [골]

[위치] 셋물지울 음달말에서 동쪽으로, 246.2m 굴 앞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 남

동쪽 아래에 웃물지을 저고무지 마을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덤바위골(加巖谷)’이라고 하였다.

도독재 [고개] [마을] → 도동막재

도동막재 [고개]

[위치] 상장포 장개들 중간에서 북쪽으로, 살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도독재’라고도 한다.

도동막재 [마을]

[위치] 장포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도독재’라고도 한다. 마을과 골짜기에 현재 대창농산이 들어서 있다.

도산이고개 [고개]

[위치] 송정에서 북서쪽 월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부길산 북쪽 바로 아래에 있다. 높이는 120m이다. 현재 신평석화로가 지나고 있다.

동산머리 [마을]

[위치] 고여대 북쪽, 새막골 입구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두명소 [소]

[위치] 장포 앞 섬강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두명소’라 하였다.

[유래] 모양이 물두멍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떼소 [소]

[위치] 유봉산 북쪽, 동서울레스피아유스호텔 동쪽 아래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행평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유봉들 앞에 있는 소이다. ‘피소’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피소’라 하였다.

[유래] 옛날 산에서 벤 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이소에서 띄웠으므로 떼소라 하였다.

피소 [소] → 떼소

마당바우 [바위]

[위치] 장개나루 위 섬강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일리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마당바우’라 하였다.

[유래] 강 안에 있는 바위가 마당처럼 넓으므로 마

당바우라 하였다. 덕고산 줄기의 뿌리이다.



「마당바우 ; 2018년」

말등바우 [바위]

[위치] 고여대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말등바우’라 하였다.

매봉재 [산]

[위치] 하장포 마을 동쪽 뒤에 있는 높이 141.1m의 산을 말한다. 봉사치 서쪽에 붙어있다.

묘지골 [골]

[위치] 작은너분터골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동쪽 산너머 주산리 호매동 사람들의 공동 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곡(茂谷) [골] → 물지을

무장들 [들]

[위치] 생담 남서쪽, 섬강을 따라 형성된 넓은 들을 말한다. 장계들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들이다. 들 동쪽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무장리유적 [유적]

[위치] 생담 남쪽, 무장들에 있는 유적지를 말한다.

[내용]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앞선 문화유적 지표 조사에서 조선시대 주거지로 백자류, 토기류, 토제품 등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섬강 건너의 월송리 유적, 매호리 향미 유적지와 가까운 곳이다.

무장리절터 [터] → 높은절터

무장저수지 [못] → 신평저수지

무태골 [골]

[위치] 송정저수지에서 남쪽 창대고개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풀이] ‘무태’는 물과 관련된 지명으로 ‘물터’라는 뜻이다. ‘물’의 옛말 ‘뭇’이 ‘뭇+터>뭇터>뭇태>무태’로 되었다. 가곡리의 ‘뭇윗골>모태윗골’과 같은 이치이다.

물지울 [골] [마을] → 지정면 신평리 물지울

[위치] 무장리와 신평리 사이에 있는 여러 골짜기를 말한다. ‘물지울’, ‘무곡(茂谷)’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물지울(무곡茂谷)’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물이 많아서 ‘뭇지울’, ‘물지울’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무곡(茂谷)’이라 하였다.

[내용] 웃물지울과 셋물지울, 아래물지울이 있다. 골짜기의 물이 신평저수지에 모여서 고여대 앞을 지나 섬강으로 들어간다.

버덩담 [마을]

[위치] 송정 마을 중 동쪽, 송정고개 서쪽 아래 언덕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남쪽에 우물골이 있다.

버치고개 [고개]

[위치] 셋물지울에서 아래물지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버치고개’라 하였다.

본일리(本一里) [마을] → 생장리

봉사치 [산]

[위치] 하장포 마을 동쪽에 있는 높이 172.1m의 산을 말한다. 매봉재 동쪽에 붙어있다.

부길산 [산]

[위치] 송정 서쪽에 있는 높이 165.8m의 산을 말한다. 지정면 월송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산줄기 남쪽에 창대고개가 있고 북쪽 바로 아래에는 도산이고개가 있다.

분일리(分一里) [마을] → 무장리

사갑들 [들]

[위치] 첫다리들 북쪽 아래, 고여대 서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사갑들(四甲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갑들’이라 하였다.

[유래] 땅이 걸어서 탄 들보다 수확량이 네 갑절이나 되므로 ‘사갑들’이라 하였다.

산지당 [당]

[위치] 셋물지울 동쪽 굴앞산에 있던 산제당을 말한다.

[내용] 산 정상에 굴이 있는 큰 바위 아래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산지당굴 [굴]

[위치] 셋물지울 동쪽 굴앞산 바위에 있는 굴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산지당굴’이라 하였다.

살미 [마을]

[위치] 장현교 북동쪽, 상장포의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앞 섬강 쪽으로 살미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쌀미’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살미’라 하였다.

[유래] ‘미’는 들을 뜻하는데 ‘살’의 어원은 확인하기 어렵다.

[풀이] ‘살미’라는 지명은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유래는 각각 다르다. ‘살+미>살미’인데 ‘살’은 ‘수리·화살·살다(生)·쌀(米)’ 중의 하나이며, ‘미’는 ‘뫼(山)>메>미’, 중세국어 ‘미(野)>미’, ‘물(水)>므>미’, 고구려어 ‘매(水)>미’ 중의 하나이다.

즉 ‘살’을 화살로 보아 ‘전산(箭山), 시산(矢山)’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살다’로 보아 ‘생산(生山), 활산(活山), 거산(居山)’으로 표기하기도 하며, 쌀이 많아서 ‘쌀미>살미, 미산(米山)’으로 보기도 한다. 또는 수리뫼가 ‘수리뫼>술뫼>술미>살미’로 된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한자표기가 전하지 않아서 ‘살’과 ‘미’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미’는 ‘들

(野)’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귀래면 용암리의 ‘살미’와 마찬가지로 논농사를 하는 강 옆의 넓은 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곳 ‘살미’는 ‘쌀농사를 짓는 들’이란 뜻으로 추정되거나 단언하기는 어렵다.

살미들 [들]

[위치] 살미 마을 서쪽 섬강 변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상장포(上長浦) [마을]

[위치] 장포 마을 중 북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장현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다. ‘옷장개’라고도 한다.



「상장포 마을 ; 2020년」

상장포주막 [주막] → 옷장개주막

새막골 [골]

[위치] 고여대 동산머리에서 북동쪽으로, 237.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시막골(鳥幕洞)’이라고 하였다.

새보 [보]

[위치] 고여대 앞 행평천에 있는 보(洑)를 말한다.

[유래] 새로 만든 보라고 해서 새보라 하였다.

샘골 [골]

[위치] 생담뒷골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금밭골 서쪽 아래에 있다.

샛물지울 [마을]

[위치] 물지울 중 가운데 마을을 말한다. 신평저수

지 못둑 동쪽에 있는 마을로 고여대, 아랫물지울 남쪽 위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마을 서쪽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양지말’과 ‘음달말’이 있다. 한자로 ‘간무곡(間茂谷)’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신헌지울(間茂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샛물지울(간무곡)’이라 하였다.

[유래] 웃물지울(상무곡)과 아래물지울(하무곡) 사이에 있다고 하여 ‘샛물지울(간무곡)’이라 한다. 예전에 30여 호가 살았으나 지금은 10여 호가 남아 있다.

생담(笙潭) [마을]

[위치] 하장포와 고여대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생담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싱담이(笙潭)’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생담(笙潭)’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뒤에 큰 못이 있으므로 ‘생담(笙潭)’이라 하였다.

생담돌담 [담]

[위치] 생담 마을에 있던 돌담을 말한다. 지금은 생담교회 앞에 흔적만 남아있다.

[유래] 임진왜란 때 쌓았다고 하는 돌담이다. 경지정리로 거의 다 없어지고 흔적만 조금 남아있다.

생담뒷골 [골]

[위치] 큰너분터골에서 동쪽 절고개로 올라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호매에서 절고개(1)을 지나 숲고개와 샛물지울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유래] 먼 남쪽 아래 생담저수지에서 낭골을 거쳐 올라온 끝이므로 ‘생담뒤’라고 하였다.

생담들 [들]

[위치] 생담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생담저수지의 물을 댈다. 『조선지리지』에 ‘싱담들(笙潭坪)’이라 하였다.

생담저수지 [못]

[위치] 생담 동쪽 산 너머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낭골의 물을 모은다. ‘생담지’라고도 한다.

생담지(笙潭池) [못] → 생담저수지

생담이 [마을] → 생담

생장리(笙長里) [마을]

[위치] 생담(笙潭)과 장포(長浦)를 합쳐서 부르던 이름이다.

[내용] 옛 정지안면(正之安面)일 때 생담과 장포를 합하여 생장(笙長)이라 하고 본일리(本一里)라 하였다.

서낭들 [들]

[위치] 유봉산 서쪽, 송정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남쪽 위로 앞들이 연결되어 있다.

[유래] 들 옆 산모퉁이에 서낭이 있었으므로 서낭들이라 하였다.

솔경지 [마을] → 송정

솔공지 [마을] → 송정

송정(松亭) [마을]

[위치] 고여대 남서쪽, 유봉산 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송정저수지 북서쪽 아래에 있다. ‘솔경지’, ‘솔공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솔경지(송정松亭)’라 하였다.

[유래] 소나무가 울창하였으므로 솔경지라 하였다.

송정고개 [고개]

[위치] 아래물지울에서 서쪽으로, 의병골을 지나 송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25m이다. ‘절고개’라고도 한다.

송정서낭 [당]

[위치] 서낭들 서쪽 아래 산모퉁이에 있던 서낭을 말한다.

송정저수지 [못]

[위치] 창대고개 북동쪽 아래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저수지 위는 무태골이고 저수지 아래는 창대골이다.

[내용] 1973년에 준공한 저수지로 현 원주기업도시에 편입되었다. 저수지 북쪽 아래로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송정저수지 ; 2020년」

송정천(松亭川) [내]

[위치] 창대고개에서 시작하여 북동쪽으로, 무태골과 송정저수지, 창대골과 송정 마을 앞을 지나 유봉들에서 섬강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숯고개 [고개]

[위치] 샛물지울 양지담 숯고개골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200m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탄치(炭峙)’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숯고개(탄치炭峙)’라 하였다.

[내용] 고개 너머에 낭골 위의 큰너분터골이 있다. 고개를 넘어 큰너분터골에서 북서쪽으로 낭골을 거쳐 생담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절고개(1)을 넘어서 호매로 간다. 샛물지울에서 숯고개골, 숯고개, 절고개(1)을 넘어 주산리 호매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숯고개골 [골]

[위치] 샛물지울 양지담에서 북동쪽으로, 숯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숯고개골, 숯고개, 절고개(1)을 넘어 주산리 호매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유래] 옛날에 이 골짜기에서 숯을 구웠으므로 숯고개골이라 하였다.

신선바우 [바위]

[위치] 솟고개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선바우’라 하였다.

[유래담] 신선들이 내려와 놀던 곳이라 하여 신선바우라 한다.

신선바우골 [골]

[위치] 신선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선바우골’이라 하였다.

신평무장저수지 [못] → 신평저수지

신평저수지 [못]

[위치] 셋물지울 앞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내용] 폭 높이 11m, 길이 115m로 1945년에 준공되었다. 신평리와 무장리에 걸쳐져 있어서 ‘신평저수지’라고도 하고 ‘무장저수지’라고도 하며 ‘고여대저수지’, ‘신평무장저수지’라고도 한다.

쌀미 [마을] → 살미

아래물지울 [마을]

[위치] 고여대 남쪽 위, 신평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하무곡(下茂谷)’이라고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아리못지울(下茂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래물지울(하무곡下茂谷)’이라 하였다.

[유래] 물지울 마을 중 섬강 쪽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므로 아래물지울이라고 한다.



‘아래물지울 마을 : 2020년’

아래장개 [마을] → 하장포

아래장개주막 [주막]

[위치] 하장포마을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아리장기주막(下長浦酒幕)’이라고 하였다.

안가래들 [들]

[위치] 송정 마을 양지담 동쪽, 음달담 서쪽의 중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송정 마을 위, 창대골 아래에 있는 들이다. 안가래들과 창대골 사이로 현재 신평석화로가 지나가고 있다.

앞들 [들]

[위치] 송정 마을 북쪽 아래로 난 들을 말한다. 들 북쪽 아래로 서낭들이 이어진다.

양심정(養心亭) [누정]

[위치] 『원주읍지』에서 무장리에 있다고 한 누각을 말한다. 현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조선 후기에 윤달영·윤조영 형제가 독서하던 곳으로, 팔경이 있다고 하였다.

양지담 [마을]

[위치] 송정 마을 중 남서쪽, 부길산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동쪽으로 안가래들을 사이에 두고 음달담과 마주보고 있다.

양지말 [마을]

[위치] 셋물지울 마을 중 북쪽 대솔고개 아래, 대솔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음달말에 비해 산 아래 양지쪽에 있으므로 양지말이라 하였다.

언고개 [고개] → 엄고개

엄고개 [고개]

[위치] 셋물지울에서 남쪽으로, 신평리 누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언고개’, ‘원고개’, ‘엄나무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음고지(欒峴)’라고 하였고, 『한국지명총람』에는 ‘원고개’라 하였다.

[유래담] 엄나무가 있고 서낭당이 있으므로 엄고개라고 하였다. 또는 옛날 원님이 넘었으므로 원

고개라 하였다고도 한다.

엄나무고개 [고개] → 엄고개

엄나무골 [골]

[위치] 절고개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오애미골 [골]

[위치] 신평저수지 독 위에서 남동쪽으로, 샛물지울 덩바우골을 향하여 난 구령을 말한다. 현재 신티무로가 지나가고 있다.

와우고개 [고개] → 하우고개

우물골 [골]

[위치] 송정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큰안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음달담 동쪽에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우물골(井谷)’이라고 하였다.

웃섬강 [강]

[위치] 무장리에서 부르는 섬강의 이름이다. 무장리 장개나루쪽을 ‘웃섬강’, 지정면 월호나루 쪽을 ‘아래섬강’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웃섬강(上蟪江)’이라 하였다.

웃장개 [마을] → 상장포

웃장개주막 [주막]

[위치] 상장포 마을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웃장기주막(上長浦酒幕)’이라고 하였다.

원고개 [고개] → 엄고개

유봉들 [들]

[위치] 유봉산 북쪽 아래에서 섬강까지 난 들을 말한다. 행평천 서쪽에 있는 들이다.

유봉산 [산]

[위치] 송정 북서쪽, 고여대 서쪽 건너에 있는 높이 143.5m의 산을 말한다.

음고개 [고개] → 엄고개

음달담 [마을]

[위치] 송정 마을 중 남동쪽, 큰안산 북서쪽 아래

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쪽으로 안가래들을 사이에 두고 양지담과 마주보고 있다.

음달말 [마을]

[위치] 샛물지울 마을 중 원고개 동쪽, 덩바우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건너말’이라고도 한다.

[유래] 샛물지울 양지말에 비해 마을 남쪽이 산으로 막혀 응달이 지므로 음달말, 양지말에서 내 건너에 있으므로 건너말이라고도 한다.

의병골 [골]

[위치] 의병들에서 남서쪽으로, 유봉산과 송정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의병들 [들]

[위치] 아래물지울과 고여대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갯지와 사갑들 사이에 있는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의병들’이라 하였다.

[유래] 고종 33년(1896)에 의암 유인석이 국모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의병을 일으켜 이곳에서 왜병과 접전하였다고 하여 의병들이라 부른다.

이담거리들 [들]

[위치] 동산머리 서쪽 아래, 유봉들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거문논들 북쪽 아래로 이어져 있다.

작은너분터골 [골]

[위치] 너분터에서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에 묘지골이 이어진다.

[내용] 생담저수지 남동쪽 길고 먼 냇골 끝에 있는 너분터에는 ‘작은너분터골’과 ‘묘지골’, ‘큰너분터골’, 절고개 아래의 ‘생담뒀골’ 등이 있다. 그 중 동쪽으로 갈라진 골짜기가 ‘작은너분터골’이다.

[유래] 골짜기 안의 터가 매우 넓으므로 너분터골, 그 중에서도 큰너분터골보다는 작으므로 작은너분터골이라 하였다.

잔두둑 [들]

[위치] 섬강 가 사갑들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잔두둑’이라 하였다.

장개 [마을] → 장포

장개나루 [나루]

[위치] 장개 마을과 산현리 미재를 연결하던 나루를 말한다. 현재 장현교가 서 있는 곳이다. ‘장지개’라고도 한다. 산현리에서는 ‘산현나루’라고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장기나루(長浦津)’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갯나루’라 하였다.

장개들 [들]

[위치] 하장포 마을을 중심으로 남쪽과 남서쪽, 북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장현교 동쪽과 남쪽에 있는 들이다. ‘장포들’이라고도 한다.

장갯나루 [나루] → 장개나루

장지개 [나루] → 장개나루

장포(長浦) [마을]

[위치] 일리천과 섬강이 합류하는 지역 남쪽에 발달한 들을 중심으로, 현 장현교와 장현교 남쪽에 형성된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상장포’와 ‘하장포’가 있다. ‘장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장기(長浦)’라고 하였고 『1917년지적도』에는 ‘상장포(上長浦)’, ‘하장포(下長浦)’로 기록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장개(장포長浦)’라 하였다.

[유래] 강 옆에 마을이 길게 늘어져 있으므로 장개, 장포(長浦)라 하였다.

[풀이] ‘장(長)’은 길다는 뜻이고 ‘개’는 물가를 뜻한다. 물가에 마을이 길게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장개’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장포(長浦)’라 하였다.

장포들 [들] → 장개들

장포서낭 [당]

[위치] 하장포 동쪽 산 아래 방석소나무 앞에 있던 사방오리나무를 말한다. 당집은 없이 치성을 드리던 곳이다.

장포숲 [숲]

[위치] 장포 마을 강변의 숲을 말한다.

[내용] 강을 따라 긴 숲이 있어 범람을 막아주던

숲이다. 제방 및 도로 공사 등으로 없어지고 마을에 일부가 남아있다.



「장포숲 ; 2020년」

장포저수지 [못]

[위치] 하우고개 서쪽 아래, 능골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서쪽 아래에 있는 상장포의 장개들에 물을 댄다. 저수지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재넘머리 [고개]

[위치] 샛물지울 덩바우골에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서쪽 하류 향평, 또는 동쪽 상류 저고무지로 가는 고갯길이다. 고개 높이는 175m이다.

절고개(1) [고개]

[위치] 고여대에서 동쪽으로, 숲고개골과 숲고개를 지나 주산리 호매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205m이다. ‘절재’, ‘해우절고개’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해우절이 있었으므로 절고개라고 하였다.

[내용] 무장리와 주산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로, 고개 북쪽 하우고개에서 남쪽으로 해우절봉, 군두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있다. 샛물지울에서 숲고개골, 숲고개, 절고개를 넘어 주산리 호매동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절고개(2) [고개] → 송정고개

[위치] 송정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유봉산과 송정고개 사이에 ‘높은절터’가 있었으므로 절고개라고 한다.

절재 [고개] → 절고개(1)

지산서재(芝山書齋) [학교]

[위치] 샛물지울 양지담에 있는 옛 서당을 말한다.

[내용] 연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약 20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주변의 학동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지산서재 : 2020년』

질골 [골]

[위치] 상장포 장개들 위쪽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224.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도동막재 동쪽, 봉사치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창당이재(蒼唐峴) [고개] → 창대고개

창대고개(蒼臺--) [고개]

[위치] 송정과 지정면 신평리 가곡의 도오개를 잇는 고개를 말한다. 창대골과 송정저수지를 지나 무태골 위에 있는 고개이다. 원주기업도시에 편입되어 창대고개생태통로가 나 있다. 높이는 155m이다. 『조선지리지』에 ‘창당이지(蒼唐峴)’라고 하였다.

[풀이] 『조선지리지』에 ‘창터골(蒼臺谷)’이라 하였으므로 창대(蒼臺)는 창터를 한자로 옮겨서 생긴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이름 ‘창터’의 어원은 알 수 없으나, 한자로 ‘蒼’이라고 하였으므로 숲

이 우거진 골짜기, 고개였던 것으로 보인다.

창대골 [골]

[위치] 송정에서 남서쪽으로 송정저수지까지의 골짜기를 말한다. 창대골 위 송정저수지 아래에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안가래들과 창대골 사이로는 신평석화리가 지나가고 있다. ‘창터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창터골(蒼臺谷)’이라 하였다.

[유래] 숲이 우거진 골짜기이므로 ‘창터골(蒼--)’이라고 하다가 이를 한자로 적어 ‘창대골(蒼臺谷)’이라 하였다. ‘창(蒼)’은 숲이 울창하다는 뜻이다.

창터골 [골] → 창대골

첫다리들 [들]

[위치] 신평저수지 독 바로 아래, 아래물지울 서쪽 앞에 있는 들이다. 들 북쪽 아래에 갯지가 있다.

큰너분터골 [골]

[위치] 생담저수지 남쪽 남골 위에서 남쪽으로 다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절고개 북서쪽 아래, 작은너분터골 남서쪽에 있다. 골짜기 끝에서 남서쪽으로 숲고개가 있고 동쪽으로는 생담뒀골을 지나 절고개(1)이 있다.

[유래] 골짜기 안의 터가 매우 넓으므로 너분터골, 그 중에서도 큰 터이므로 큰너분터골이라 하였다.

큰안산 [산]

[위치] 신평저수지 서쪽 바로 위에 있는 185.7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무장리와 신평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탄치(炭峙) [고개] → 숲고개

하무곡(下茂谷) [마을] → 아래물지울

하우고개 [고개]

[위치] 장포저수지에서 동쪽 주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와우고개’, ‘혈떡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하우고기(下午峴)’라 하였고 『한국지명총람』에 ‘하우고개’라 하였다. 『원주원성향

토지』에는 ‘와우고개’라고 하였다.

[유래] 짐을 지고 이 고개를 넘으면서 큰 숨을 몰아쉬므로 의성어를 따라 ‘하우고개’라 하였다. 또는 옛날 우산동에 살던 이씨가 소를 잃어버려 찾아다녔는데, 이곳으로 소가 내려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내용] 고개 동쪽 주산리와 고개 서쪽 무장리 및 산현리를 잇는 높은 고갯길이었다. 현재 칠봉로가 넓게 나면서 고개가 많이 넓고 낮아졌다. 이 고개는 남쪽으로 200m급의 봉우리들로 산줄기를 형성하면서 주산리 잔골(자은동)의 해우절봉(298.1m)으로 연결된다. 이 고개가 동쪽인 주산리 쪽과 서쪽인 산현리 무장리 쪽을 높게 가로막고 있어서 지리적, 심리적으로 큰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풀이] ‘하우고개’, ‘하오고개’ 등, 이와 유사한 지명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원주에도 이곳 외에 태장동 ‘소일’에서 ‘흥양리’로 넘어가는 고개, 즉 현 강원과학고 앞에서 ‘유새’로 넘어가는 고개가 하우고개이며 횡성과 춘천에도 같은 이름의 고개가 있다. 이 이름을 가진 지명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지명유래를 가지고 있다.

①이 고개에서 소를 찾아서 ②소가 드러누운 형상이어서 와우고개>하우고개 ③‘학고개’란 이름이 변해서 ④싸움 끝에 송사를 하러 가다가 여기서 하우(和解)해서 ⑤숨이 차서 헉헉대다가 휴우~ 한숨을 쉬며 쉬어가는 곳 등이다.

① ②의 경우는 대체로 ‘하우’의 ‘우’를 ‘牛’로 적으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③ ④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거론되므로 예외적인 것인데 이 중에 ⑤의 유래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우고개는 대체로 고개가 높고 험한 곳이라는 점, 구술자들이 옛날 짐을 지고 이 고개를 넘을 때 이 고갯마루에서는 모두들 쉬어갔다고 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우고개’의 다른 이름인 ‘혈떡고개’는 이 고개가 그만큼 험하고 힘이 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우고개 ; 2019년」

하장포(下長浦) [마을]

[위치] 장포 마을 중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생담 북쪽, 장현교 남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회관이 있다. ‘아래장개’라고도 한다.



「하장포 마을 ; 2020년」

하장포주막 [주막] → 아래장개주막

해우절고개 [고개] → 절고개

행평천(杏坪川) [내]

[위치] 신평저수지에서 북쪽 아래로 흘러 유봉들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혈떡고개 [고개] → 하우고개

산현리(山峴里)

[위치]

산현리는 호저면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옥산리, 서쪽으로는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남쪽으로는 매호리, 북쪽으로는 용곡리와 접하고 있다. 용곡에서 내려오는 일리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고모곡면(古毛谷面)의 지역이었는데, 고종 32년(1895년)에 고모곡면을 횡성으로 이관하여 횡성군(橫城郡) 고모곡면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미재와 칠봉을 병합하여 횡성군 고모곡면 일리(一里)라 하였다.

1937년에 산현리(山峴里)로 이름을 고치고 고모곡면도 서원면(書院面)으로 이름을 바꾸어 횡성군 서원면 산현리가 되었다.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같은 횡성군 서원면 소속이던 매호리·압곡리 일부(용곡리)와 함께 호저면(好楮面)에 편입되어 원성군 호저면 산현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원주군 호저면 산현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가 되었다.

[유래]

마을이 ‘하우고개’, ‘칠봉’, ‘신봉’, ‘소군산’ 등 큰 산으로 싸여있고, 크고 작은 고개 아래에 있으므로 ‘뫼(산)+재(고개)>뫼재>메재>미재’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옮겨 ‘산점(山岾)’, ‘산현(山峴)’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미재’는 ‘산고개’, ‘산고개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여지도서』를 비롯한 옛 지리지에 일리천(용곡천)을 ‘산점천(山岾川)’이라 하고 북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점(岾)’과 ‘현(峴)’은 다 같이 고개라는 뜻이므로 ‘미재’를 옛날에는 ‘산점(山岾)’이라 하였고, 1937년에 ‘산현(山峴)’으로 새로 고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는골 [골]

[위치] 어윗골 안, 가래골 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가래골과 큰뱅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래골 [골]

[위치] 어윗골 안, 중방골 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가는골과 중방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건네 [산]

[위치] 칠봉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보이는 345.9m 높이의 봉을 말한다. 문바우봉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진 산줄기에 있다.

[유래] 칠봉에서 보아 저 건너 보인다고 해서 ‘건네’라 하였다.

고들 [골] → 고틀

고들골 [골] → 고틀

고틀 [골]

[위치] 칠봉 서쪽에서 갈라진 두 골짜기 중 문바우봉을 향해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들’, ‘고들골’, ‘고틀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고들’이라 하였다.

[유래] 골이 꺾 곧았으므로 ‘곧을>고들>고틀’이라 하였다.

[내용] ‘소군산’과 문바우봉 줄기 ‘건네’ 사이에서 골짜기가 크게 갈라지는데 북서쪽 문바우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고틀’,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어윗골’이라고 한다.

고틀골 [골] → 고틀

너르니골 [골]

[위치] 산현들 북동쪽 건너, 탄봉 북쪽 아래에서 북동쪽으로, 절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너러니골’이라 하였다.

[내용] 골 안에서 천둥막골이 갈라져 나가고 작은 댕박골, 큰댕박골이 차례로 갈라져 나가며 골 끝

에서는 논골, 붙박골, 참나무골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골의 끝에 해당하는 논골 위에 절재가 있다.

너르니보 [보]

[위치] 너르니골 앞에 있는 일리천의 보(洑)를 말한다. 버덩말 앞 미재들에 물을 댈다.

논골 [골]

[위치] 너르니골 끝에서 동쪽으로, 216.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북쪽 위에 절재가 있다.

[유래] 골짜기에 논이 있으므로 논골이라 하였다.

당고개 [고개] → 안골고개

[위치] 안골에서 서쪽으로, 매호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우령골을 지나 상촌에 닿는다. 높이는 145m이다. ‘안골고개’라고도 한다.

[유래] 고개에 치성을 드리는 당산목이 있어서 당고개라 하였다.

덕거리들 [들]

[위치] 칠봉교 남쪽에서 열녀암이 있는 산현교 북쪽까지, 일리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덕고산 [산]

[위치] 미재 북동쪽, 절재 남쪽 줄기에 있는 높이 336.8m의 산을 말한다. 산현리와 옥산리의 경계가 되는 산줄기의 중심에 있는 산이다. 산 북쪽 능선에 절재가 있고 남쪽 끝에는 코바우가 있다.

두순머리숲 [숲]

[위치] 칠봉 마을 동쪽, 칠봉산의 북쪽 아래 일리천 옆에 있는 숲을 말한다.

[내용] 숲의 일부에 그린애캠핑장이 들어서 있다.

뒷골 [골]

[위치] 칠봉 마을 뒤쪽 절골에서 서쪽으로, 건네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탄봉 [산]

[위치] 미재 북동쪽 일리천 건너, 신봉 북쪽에 있는 높이 187m의 산을 말한다. 북쪽 아래에 ‘너르

니골', '천동막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탄봉'이라 하였다.

[유래] 봉 주위가 낮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 다른 산들과 따로 떨어져 솟아 보이므로 '탄봉'이라 하였다.



「탄봉 ; 2020년」

외재 [마을] → 미재

묘재 [마을] → 미재

묘재뫼들 [들] → 미재들

문바우 [바위]

[위치] 칠봉 마을 북서쪽, 고틀 북쪽, 문바우봉 능선 남동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산길 양쪽에 바위가 있어 마치 문을 지나 가는 것 같으므로 문바우라 부른다.

문바우등 [바위]

[위치] 문바우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진 암벽 능선을 말한다.

[유래] 문바우로 올라가는 암벽 능선이므로 문바우등이라 한다.

문바우봉 [산]

[위치] 칠봉 마을 북서쪽, 용곡리 서쪽에 있는 높이 596.8m의 산을 말한다. 산현리와 용곡리,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바우봉', '큰문바우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정상 남서쪽에 문바우가 있으므로 산봉우리를 '문바우봉', 작은문바우봉과 구분하기 위하여 '큰문바우봉'이라고도 한다.

미재 [마을]

[위치] 산현리의 남쪽, 산현나루(장개나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산현초등학교와 산현마을회관이 있는 곳이다. 마을 안에 '안말', '버덩말', '웃말'이 있다. '묘재', '외재', '산현(山峴)', '산점(山岾)'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미지(山峴洞)'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묘재'라 하였다.

[유래] 줄곧고개, 안골고개 등의 고개들이 있어 산(山)의 고개(峴)란 뜻으로 '외(묘)재>메재>미재'가 되었다. 이를 한자로 '산현(山峴)', 또는 '산점(山岾)'이라 하였다.



「미재 마을 ; 2019년」

미재들 [들]

[위치] 미재 마을 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일리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들로서 남쪽으로 장현교가 있는 곳까지 펼쳐진 넓은 들이다. 들 남쪽 끝에는 매호리 새매기들이 이어진다. '묘재뫼들', '미재뫼들', '산현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미지들(山峴坪)'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묘재뫼들'이라 하였다.

미재뫼들 [들] → 미재들

바우봉 [산] → 문바우봉

방가지등 [산]

[위치] 소군산에서 북동쪽으로, 칠봉 서쪽, 칠봉수양관 쪽으로 내려오는 바위능선을 말한다.

버덩말 [마을]

[위치] 미재 마을 중 넓은 버덩에 있는 마을을 말

한다. 현 산현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버덩말’이라 하였다.

베틀굴 [굴]

[위치] 열녀암 북서쪽, 일리천 옆에 있는 굴을 말한다.

[유래담]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이 굴에서 벼를 설치하고 벼를 찌며 살았다고 하여 벼틀굴이라고 한다.



「베틀굴 ; 2018년」

봉수대터 [터] → 소군산

불박굴 [굴]

[위치] 너르니골 끝 참나무박굴 맞은편에서 북동쪽으로, 높이 338.2m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비녀골 [골]

[위치] 코바우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비득재 [고개]

[위치] 고들 서쪽 끝에서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사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420m이다.

산장골 [골]

[위치] 칠봉수양관에서 남서쪽으로, 소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점천(山岾川) [내] → 일리천

[위치] 일리천의 다른 이름이다. 『여지도서』 『관동지』에 ‘산점천(山岾川)’이라 하였다.

[내용] 옛 지리지에는 일리천을 산점천이라고 하고 강원감영에서 북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산점(山岾)은 산현(山峴)과 같은 뜻으로 ‘미재’를 달

리 적은 것이다.

[유래] 산점(미재) 앞을 흐르므로 산점천(山岾川)이라 하였다.

산지당골 [골]

[위치] 칠봉 마을 절골에서 북쪽 징검산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신당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옛날 산제당이 있었으므로 산지당골이라 하였다.

산지당골재 [고개]

[위치] 칠봉 마을 절골 위에 있는 징검산 서쪽 옆으로 난 고개를 말한다. 북쪽 하용곡으로 가는 고개이다. ‘신당골재’라고도 한다. 높이는 170m이다.

산현나무 [나무]

[위치] 산현리에서 무장리로 건너는 섬강의 나무를 말한다. 지금의 장현교가 있는 자리이다. ‘장지개’, ‘장개나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산현나무터’라 하였다.

[내용] 이 나무를 산현리에서는 산현나무, 무장리 장포에서는 장지개, 장개나무라고 부른다.

산현들 [들] → 미재들

산현서낭 [당]

[위치] 태실 동쪽 아래 도로변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350년, 나무 높이 15m로 마을 당 산목이다.



「산현서낭 ; 2019년」

산현천(山峴川) [내] → 일리천

산현태실(山峴胎室) [유적]

[위치] 미재 마을과 열녀암 중간 지점, 산현들 서쪽 작은 봉우리인 태봉산에 있는 태실을 말한다.

[내용] 1994년 조사 당시 태실비는 쓰러져 있고 도굴된 상태로 태실함과 덮개가 노출되어 있었다. 현재 태실비는 원형대로 복원되었다. 태실의 주인공은 선조의 왕자 경평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현태실 ; 2016년」

상현사(尙賢祠) [당]

[위치] 칠봉서원 안에 있던 사당을 말한다.

[내용] 『동국여지지』에 원전석을 향사하였다가 뒤에 한백겸을 배향한다고 하였다.

새보 [보]

[위치] 버덩말에서 현 산현체육공원 쪽을 잇는 일리천의 보(洑)를 말한다. 아랫말들에 물을 댈다.

샘골 [골]

[위치] 미재 웃말에서 북서쪽으로, 소군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오얏골 북쪽에 있다.

서원터(書院-) [터] → 칠봉서원터

성주사터(聖住寺-) [터]

[위치] 칠봉 북쪽의 절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여지도서』에 16칸으로 고을 북쪽 35리 소군산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연혁은 알 수 없으나 빈대가 많아 불태워 폐사되었다고 전한다. 절의 흔적으로 동남향의 석축이 남아있다.

소군산(昭君山) [산]

[위치] 칠봉 남서쪽, 산현 북서쪽에 있는 474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매호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봉수대터’라고도 한다. 『여지도서』에 관문에서 북쪽으로 35리에 있다고 하고 동남쪽 기슭에 칠봉과 칠봉서원이 있다고 하였다.

[내용] 이 산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나 확인된 것은 없다.



「소군산 ; 2020년」

송운대(松雲臺) [산] → 송운봉

송운봉(松雲峰) [산]

[위치] 소군산 남서쪽 능선에 있는 높이 427.5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매호리와 경계에 있다. ‘송운대’라고도 한다.

신당골 [골] → 산지당골

신당골재 [고개] → 산지당골재

신봉(神峰) [산]

[위치] 미재 마을 북동쪽, 일리천 건너에 있는 높이 226.7m의 산을 말한다. 북쪽 아래에 천동막골이 있고 북동쪽에 탄봉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신봉’이라 하였다.

[유래] 신령이 깃든 영험한 산이므로 ‘신봉’이라 부른다.

[내용] 신봉에서 돌이 구르면 마을에 초상이 나는데, 초상을 치를 때는 신봉에서 나무를 잘라 와서 황덕불을 피워 초상을 알렸다. 일리천에서 빨래할 때 신의 모습이 개울에 비치곤 하였다고 전한다.



「신봉 ; 2020년」

신봉밑 [골]

[위치] 신봉 서쪽 아래 일리천 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심막골 [골]

[위치] 고들 중간에서 북쪽으로, 문바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아랫말 [마을]

[위치] 미재 마을 중 남쪽, 현 산현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랫말 마을 ; 2020년」

아랫말들 [들]

[위치] 미재들 중 아랫말 앞의 들을 말한다.

아랫보 [보]

[위치] 미재 마을 앞, 새보 위에 있는 일리천의 보(洑)를 말한다. 미재들에 물을 댄다.

안골 [골]

[위치] 산현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안골고개, 당고개를 넘어 매호리 우렁골을 거쳐 상촌에 닿는다.

안골 [마을] → 안말

안골고개 [고개]

[위치] 안골 골 끝에서 남쪽으로, 매호리 상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당나무가 있으므로 ‘당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골고개’라 하였다.

안골광산 [광산]

[위치] 안골에 있는 옛 금광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골광산’이라 하였다.

안골말 [마을] → 안말

안말 [마을]

[위치] 미재 안골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안골’, ‘안골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안골(內谷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골’이라 하였다.

[유래] 미재의 안쪽 골짜기에 마을이 있으므로 ‘안골’, ‘안말’이라 하였다.



「안말 마을 ; 2020년」

암봉(岩峰) [산] → 작은문바우봉

애기소 [소]

[위치] 칠봉 뒤 하용곡 앞에 있는 일리천의 소(沼)를 말한다.

어릿골 [골]

[위치] 칠봉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중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의일’, ‘우일’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일’이라 하였다.

[내용] 칠봉 서쪽의 골짜기가 건네 남쪽 아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북서쪽 문바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고틀’,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어윳골’이라 한다.

어윳골 [마을]

[위치] 어윳골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열녀보(烈女湫) [보]

[위치] 열녀암 동쪽 아래에 있는 일리천의 보(湫)를 말한다. 웃말 앞의 미재들에 물을 낸다. 『조선지리지』에 ‘열여바우보(烈女岩湫)’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열녀보’라 하였다.

[유래] 열녀암 옆에 있으므로 열녀보라 한다.

열녀소(烈女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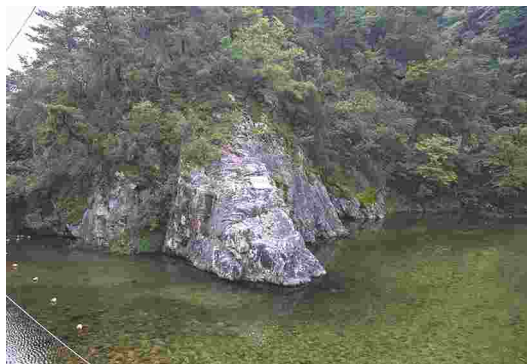
[위치] 열녀암 아래에 있는 일리천의 소(沼)를 말한다.

열녀암(烈女岩) [바위]

[위치] 덕거리들 남쪽, 미재들 북쪽, 산현교 서쪽 옆에 있는 일리천의 바위를 말한다.

[유래] 열녀가 투신한 바위이므로 열녀암이라고 하였다.

[내용] 옛날 이애신의 처 김씨가 도둑에게 욕을 당하자 ‘이미 더럽혀진 몸으로 어찌 남편을 대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며 이 바위 위에서 붓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바위벽에 ‘烈女岩’이라고 새겨 있고, 오른쪽에는 ‘李愛信妻金氏’ 좌측에는 ‘□死處’라고 새겨져 있다.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열녀암 ; 2019년」



「열녀암 각자 ; 2019년」

영봉 [산]

[위치] 칠봉 동쪽에 있는 높이 221.3m의 봉우리를 말한다.

오른들안재골 [골]

[위치] 어윳골 최상류에서 북쪽으로, 50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 오른쪽에 있으므로 오른들얏은재라고 한다. 맞은편에 있는 왼들안재골의 상대 개념이다.

오얏골 [골]

[위치] 미재 버덩말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는 중간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소군산을 향한다.

용곡천(龍谷川) [내] → 일리천

왼들얏은재 [골]

[위치] 어윳골 최상류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 왼쪽에 있다고 해서 왼들얏은재라고 한다. 맞은편에 있는 오른들안재골의 상대 개념이다.

우일 [골] → 어윳골

운곡서원터(耘谷書院-) [터] → 칠봉서원터

웃말 [마을]

[위치] 미재의 버덩말 위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말’이라 하였다.

의일 [골] → 어윳골

일리(一里) [마을] → 산현리

일리천(一里川) [내]

[위치] 횡성군 금물산과 성지봉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흘러 앵당산과 화채봉 사이를 지나 다시 남쪽으로 행가리와 용곡리를 거쳐 산현리 앞에서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용곡천’, ‘산현천’, ‘산점천’이라고도 한다. 옛 지리지에 ‘산점천(山岾川)’이라 하고 북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유래] 1914년 행정구역울 개편하면서 미재, 칠봉을 ‘일리’라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일리천’이라고 하였다. 용곡리를 지나오므로 ‘용곡천’이라고도 하고 산현 앞을 흐르므로 ‘산현천’, 산현의 옛 이름이 산점이므로 ‘산점천’이라고도 한다.

한편 용곡리 서쪽, 횡성군 서원면 대산계곡을 흘러 섬강에 들어가는 내는 ‘이리천(二里川)’이라고 한다.

작은땃박골 [골]

[위치] 너르니골 안에서 남동쪽으로, 269.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두 번째 골짜기를 말한다. 큰땃박골과 천둥막골 사이에 있다.

작은문바우골 [골]

[위치] 고를 중간에서 작은문바우봉을 향하여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문바우봉 [산]

[위치] 문바우 남서쪽, 문바우등에 있는 480.2m 높이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암봉’이라고도 한다.

작은뱅이골 [골]

[위치] 어윳골 안, 큰뱅이골 위에서 서쪽으로, 높이 505.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원들안재골과 큰뱅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개나루 [나루] → 산현나루

장지개 [나루] → 산현나루

절골 [골]

[위치] 칠봉 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골을 말한다.

[유래] 옛 성주사 절이 있던 골짜기이므로 절골이라 한다.

절재 [고개]

[위치] 너르니골 끝, 논골 북동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300m이다.

[내용] 이 고개에서 남동쪽으로는 옥산리 절터골을 거쳐 종포, 동쪽으로는 고산리 절골과 안골, 북서쪽으로는 용곡리 아래뒤밀골이 이어진다. 고산리, 산현리, 옥산리, 용곡리 등 4개 마을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줄골 [골]

[위치] 미재들 가운데에서 남서쪽으로, 매호리 상촌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현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내용] 현재 골 안에 제삼플라스틱 공장 등이 들어서 있다.

줄골고개 [고개]

[위치] 미재 줄골에서 남서쪽 매호리 상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140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줄골고개’라 하였다.

[내용] 옛날 미재에서 남서쪽 상촌과 물구리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고갯길이었다.

중방골 [골]

[위치] 어윳골 안, 지차골 서쪽 위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래골과 지차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르네미 [고개]

[위치] 칠봉 동쪽, 영봉 서쪽 사이의 고개를 말한다. 두순머리숲에서 남쪽 미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165m이다.

[유래] 칠봉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질러 넘는 가까운 고갯길이므로 ‘지르+넘+이>지르넘이>지러넘미>지르네미’라고 부른다. ‘이’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지차골 [골]

[위치] 어릿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호뎃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어릿골에서 처음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이다.

징갑산 [산]

[위치] 칠봉 절골 북쪽 위, 하용곡리 앞 징갑들 남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높이는 198.7m이다. 봉우리 서쪽 옆에 산지당골재가 있다.

참나무박골 [골]

[위치] 너르니골 끝에서 남쪽으로, 덕고산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큰뎃박골 북동쪽 위에 있다.

천등막골 [골]

[위치] 너르니골 안에서 남동쪽으로 난 첫 번째 골짜기를 말한다. 탄봉의 북동쪽 아래에서 동쪽으로 269.1m 봉우리를 향해 나 있다.

칠봉(七峰) [마을]

[위치] 칠봉 북쪽 일리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칠봉서원이 있던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칠봉(七峰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칠봉(七峰)’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남쪽에 칠봉산이 있으므로 마을 이름을 칠봉이라 하였다.



「칠봉 마을 : 2019년」

칠봉(七峰) [산]

[위치] 미재 북쪽, 소군산 북동쪽에 있는 216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이 산 이름이 곧 칠봉 마을의 이름이 되었다. ‘칠봉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칠봉산(七峰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

명총람』에 ‘칠봉(七峰)’이라 하였다.

[유래] 산봉우리가 일곱 개이므로 칠봉이라 하였다.

[유래담] 전하는 이야기로는 옛날 일곱 명의 장수가 산에 올라 장검으로 내리쳐 일곱 봉우리가 되었다고 하고 일곱 개의 봉우리가 일곱 선비의 행차를 닮았다고 해서 칠봉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칠봉 : 2015년」

칠봉산(七峰山) [산] → 칠봉

칠봉서원터(七峰書院-) [터]

[위치] 칠봉 마을 서쪽, 칠봉산 북쪽에 있던 옛 서원의 터를 말한다. ‘서원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서원터’라 하였다.

[내용] 광해군 4년(1612)에 세우고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을 봉안하여 운곡서원(耘谷書院)이라 하다가 후에 원호(元昊)·정종영(鄭宗榮)·한백겸(韓百謙)을 배향하면서 칠봉서원이라 하였다. 흥선대원군 때 폐지되었다. 축대가 남아있고 터 앞에는 수령 350년의 느티나무들이 있으며 주변에는 노송들이 우거져 있다. 『동국여지』에 서원 안에 상현사(尙賢祠)가 있다고 하였다.



「칠봉서원터 : 2015년」

칠봉숲 [숲]

[위치] 칠봉 마을 남쪽, 칠봉산 서쪽 아래에 있는 소나무 숲을 말한다. 야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큰땃박골 [골]

[위치] 너르니골 안에서 남동쪽으로, 덕고산을 향하여 난 세 번째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땃박골과 참나무박골 사이에 있다.

큰문바우봉 [산] → 문바우봉

큰뱅이골 [골]

[위치] 어윗골 안, 가는골 위에서 서쪽으로, 높이 505.2m 봉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가는골과 작은뱅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태봉산(胎峰山) [산] → 산현태실

[위치] 웃말 북쪽 태실이 있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산 동쪽 아래에 산현서낭 느티나무가 있다.

[유래] 태실이 있으므로 태봉산이라고 한다.



「태봉산 ; 2019년」

태실 [유적] → 산현태실

폭포수 [폭포]

[위치] 소군산 북동쪽, 칠봉산 서쪽에 있는 일리천 옆의 폭포를 말한다.

[유래] 비가 오면 바위절벽에서 폭포가 쏟아지므로 폭포수라고 한다.

하마비(下馬碑) [비]

[위치] 산현초등학교 교문 안 담장에 있는 하마비를 말한다.

[내용] 칠봉서원터에 있던 것을 1980년대에 이곳으로 옮겼다.



「하마비 ; 2019년」

호땃봉 [산]

[위치] 소군산 정상 북서쪽에 붙어있는 452.5m 높이의 봉우리를 말한다.

[유래] 옛날에 호랑이를 잡는 땃을 놓았으므로 호땃봉이라 하였다.

호랑이굴 [굴]

[위치] 어윗골 남쪽, 호땃봉 북쪽 아래에 있는 굴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이 굴에서 호랑이가 살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옥산리(玉山里)

[위치]

옥산리는 호저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대덕리, 서쪽으로는 산현리, 남쪽으로는 주산리, 북쪽으로는 고산리·광격리와 접하고 있다. 마을 중앙에 남북으로 옥산천과 중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남쪽에는 섬강을 경계로 주산리와 마주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 호매곡면(好梅谷面)의 삼리(三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우무개·정골·지촌·종포를 병합하여 옥산리(玉山里)라 하고 호저면(好楮面)에 편입하여 원주군 호저면 옥산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꿈에 따라 원성군 호저면 옥산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다시 원주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원주군 호저면 옥산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가 되었다.

[유래]

종포나루에 옥산(玉山)이 있으므로 마을 이름도 옥산이라 하였다. 종포나루는 이 지역의 남북을 잇는 교통요지였고 옥산동대(玉山東臺)가 예부터 유명하였다.

격동(格洞) [마을] → 정골

교바우 [바위] → 코바우

구석애 [마을]

[위치] 마근거리 북쪽, 돌개재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지촌의 버덩말 동쪽 산 아래에 있다.

[유래] 구석에 있는 마을이라서 구석애라고 하였다.

덕고산 [산]

[위치] 옥산 동쪽, 절재 남쪽 줄기에 있는 336.8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산현리와 옥산리의 경계가 되는 산줄기의 중심에 있는 산이다. 산 북쪽 능선에 절재가 있고 남쪽 끝에는 코바우가 있다.

도선장(渡船場) → 옥산나루

돌개재 [고개]

[위치] 지촌의 북동쪽, 우무개고개 북동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마근거리의 북쪽, 구석애 동쪽 뒤에 있는 고개이다. 지촌이나 버덩말 등에서 돌개재와 북동쪽의 진고개를 넘어 빨월에 닿는다. 고개 높이는 140m이다.

돌모루 [마을]

[위치] 종포 마을 남서쪽 동산 모퉁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옥산교에서 종포로 가는 길옆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돌모루’라 하였다.

[유래] 돌비석이 땅에 묻혀 머리 부분만 보여서 돌모루라 하였다고 한다. 돌이 많고 도깨비가 출현했다고 해서 돌모루라 하였다고도 하고 또는 초계 정씨들이 상석을 배로 실어 왔는데, 무거워서 더는 가져갈 수가 없어서 거기 그냥 두었으므로 돌모루라 하였다고도 한다.

동대(東臺) [누정] → 옥산동대

뒷고개 [고개]

[위치] 정골에서 북쪽으로 광격리 광격, 고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호암산의 서쪽 줄기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는 광격리 뒷고개골이 있다. 높이는 150m이다. ‘뒷골고개’라고도 한다.

뒷골 [골]

[위치] 지촌 마을 중 동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뒤골(後洞)’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뒤쪽이 되므로 뒷골이라 하였다.

뒷골고개 [고개] → 뒷고개

마근거리 [마을]

[위치] 황새동지 북동쪽, 우무개고개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돌개재 남쪽에 있다. 이를 한자로 ‘색가(塞街)’, 또는 ‘마근촌(麻斤村)’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마근거리(麻斤村)’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마근거리’라 하였다.

[유래] 산이 마을을 둘러싸서 마치 산으로 막은 것처럼 되어서 ‘막은거리>마근거리’라 하였다.

[풀이] ‘막은+거리(터.장소)>막은거리>마근거리’가 되었다. ‘색가(塞街)’의 ‘塞’은 ‘막다’라는 뜻을, ‘街’는 ‘거리’라는 뜻을 적은 것이고 ‘마근촌(麻斤村)’의 ‘麻斤’은 ‘막은’의 소리를 적은 것이다.



「마근거리 마을 : 2020년」

말구리바우 [바위]

[위치] 퍼내골과 우번이골 사이에 있는 섬강 변의 벼랑을 말한다. 원주천과 섬강이 합류하는 곳의 북쪽에 있다. ‘말굴이바우’라고도 한다.

말굴이바우 [바위] → 말구리바우

매봉 [산]

[위치] 정골 북동쪽에 있는 높이 191.1m의 산을 말한다. 호암산의 서쪽 능선에 있는 산이다. 산 서

쪽 아래에 뒛고개가 있다.

매봉재 [고개]

[위치] 영산 마을에서 남쪽으로, 빨월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호암산과 매봉 사이에 있다. 높이는 210m이다.

매봉재골 [골]

[위치] 정골에서 북동쪽, 매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미봉씨골(鷹峰峴)’이라고 하였다.

무논골 [골]

[위치] 정골 마을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진고개를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유래] 물이 많은 논이 있어서 ‘물논>무논, 무논골’이라고 한다.

버덩말 [마을]

[위치] 지촌 마을 중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원주휴게소 북쪽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마을 서쪽 앞에 지촌들이 있다.



「버덩말 마을 : 2020년」

봉미산(鳳尾山) [산]

[위치] 지촌 서쪽에 있는 높이 183.5m의 산을 말한다. 송골 마을 남쪽, 송골산 동쪽 능선에 있는 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봉미산(鳳尾山)’이라 하였다.

[유래] 지형이 봉의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

진 이름이다.

삼리(三里) [마을] → 옥산리

색가(塞街) [마을] → 마근거리

소금성산 [산]

[위치] 종포 피내골 북쪽 끝에 있는 349.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산 서쪽에 절재가 있고 동쪽 아래에는 해돋이봉이 있다.

송골산 [산]

[위치] 종포 북서쪽, 옥산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능선에 있는 높이 292.5m의 산을 말한다. 절재에서 동쪽으로 소금성산, 해돋이봉을 거쳐 내려오는 능선에 있다.

[내용] 절재에서 동쪽으로 소금성산, 해돋이봉, 송골산, 봉미산 줄기가 고산리와 옥산리의 경계이다.

승방곡(僧房谷) [마을] → 심방골

승방골 [마을] → 심방골

신방골 [마을] → 심방골

신배나무골 [골]

[위치] 심방골 입구에서 북서쪽으로, 송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심방(尋訪) [마을] → 심방골

심방곡(尋訪谷) [마을] → 심방골

심방골 [마을]

[위치] 종포 북쪽 바로 위, 산 밑에 붙어있는 마을을 말한다. ‘승방곡’, ‘승방골’, ‘신방골’, ‘심방’, ‘심방곡’이라고도 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원주휴게소의 서쪽 산 밑에 있다. 한자로 옮겨 ‘승방곡(僧房谷)’, ‘심방곡(尋訪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심병(深峰)’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신방골(심방곡尋訪谷)’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이곳에 승방이 있었으므로 ‘승방골>심방골, 심방골’이라 한다.

[내용] 절터(僧房)에 선 마을이므로 이곳에서는 자

손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심방골보 [보]

[위치] 지촌 앞말 앞, 심배나무골 위에 있는 옥산 천의 보(洑)를 말한다.

암현(庵峴) [마을] → 우무개

압읍늬 [들] → 옥산들

앞말 [마을]

[위치] 지촌 마을 중 북서쪽 낮은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서쪽 앞에 지촌들이 있다.

[유래] 지촌 마을 앞에 있으므로 앞말이라 한다.



「앞말 마을 : 2020년」

영어지 [마을]

[위치] 고산초등학교에서 남동쪽으로 내 건너,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앙고속도로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영화지(靈和知)’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 북쪽, 칠송정 동쪽 내 건너의 산이 옥산으로 된 낭떠러지 급경사이므로 ‘영어지’라 하였다. 중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산의 많은 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풀이] ‘영’은 ‘벼랑, 낭떠러지’를 뜻하는 방언이다. ‘영+지>영어지>영(아)지>영어지’로 되었다. ‘영’은 ‘벼랑’, ‘지’는 ‘곳(장소)’, ‘아’는 매개모음이다. 원주에서 ‘영’으로 된 지명은 금대리 일련의 ‘영어지’, 용곡리의 ‘앵당산<영(양)당산’, ‘행가리<영(양)가리’ 등이다.

영어지들 [들]

[위치] 고산초등학교 동쪽 내 건너, 영어지 마을에서 북쪽 산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영화지(靈和知) → 영어지

옥녀봉(玉女峰) [산] → 옥산

옥산(玉山) [마을] → 옥산리

[위치] 『조선지리지』에 ‘옥산(玉山)’이라 하였다.

옥산(玉山) [산]

[위치] 종포 북서쪽에 있는 높이 239m의 산을 말한다. 북쪽으로 능선이 이어져 송골산, 해돋이봉, 소금성산에 이어 절재와 된봉에 이른다. 이 산 이름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 『여지도서』에 관문에서 북쪽으로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옥녀봉(玉女峰)’이라 하였다.

[내용] 능선에는 이보다 높은 봉우리들이 있지만 주민들은 종포 바로 뒤의 이 봉우리를 옥녀봉, 또는 옥산이라 부른다.



「옥산 : 2020년」

옥산강(玉山江) [내]

[위치]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옥산리를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옥산강이라 부른다.

옥산나루 [나루]

[위치] 옥산 남쪽 섬강에 있는 나루터를 말한다. 종포와 퍼내를 연결하는 나루이다. ‘도선장’, ‘옥산도선장’이라고도 한다. 주산리에서는 ‘퍼내나루’라

고 한다. 나루터 자리에 옥산교가 세워져 있다.

옥산도선장 [나루] → 옥산나루

옥산동(玉山洞) [마을] → 옥산리

옥산동대(玉山東臺) [바위]

[위치] 종포 남동쪽, 주산리 막골의 북서쪽 강 건너 벼랑을 말한다. 현 동쪽 옆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동대(東臺)’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옥산동대’라 하였다.

[유래] 옥산 동쪽에 있으므로 옥산동대라 하였다.

[내용] 섬강 강변 절벽으로 이루어진 동산에 노송이 우거진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정자가 있다. 동산의 북동쪽은 옥산이고 남서쪽은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그 절벽 밑으로 섬강의 깊은 소(沼)가 있다. 대덕리로 들어가는 대덕길과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옥산동대 : 2019년」

옥산들 [들]

[위치] 종포 앞에 있는 옥산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들을 말한다. ‘압읍늪’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압읍늪(玉山坪)’이라고 하였다.

옥산리유적 [유적]

[위치] 지촌 서쪽, 버덩말 부근에 있는 유적지를 말한다.

[내용] 발굴 결과 조선시대의 주거지로 보고되었다. 대부분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옥산유원지 [유원지]

[위치] 옥산 주변 유원지를 말한다. 1994년 3월에 유원지로 지정되었다.

옥산주막 [주막]

[위치] 옥산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옥산주막(玉山酒幕)’이라고 하였다.

옥산천(玉山川) [내]

[위치] 고니골에서 고산리와 옥산리를 거쳐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옛 지리지에는 ‘포통천(浦通川)’이라고 하였다.

우무개 [마을]

[위치] 우무개고개 남쪽, 황새동지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옥산동대의 동쪽에 있다. 한자로 적어 ‘암현(庵峴)’, ‘엄현(奄峴)’, ‘음현(陰峴)’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음우기(奄峴)’라고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는 ‘奄峴’으로 표기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우무개(암현庵峴, 음현庵峴)’라고 하였다.

[유래] 고개 밑이어서 지형이 우묵하므로 우무개라 부른다.



「우무개 마을 : 2020년」

우무개고개 [고개]

[위치] 종포에서 황새동지를 지나 동쪽 대덕리 쇠절이나 빨월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우무개 마을 북동쪽, 마근거리 남동쪽에 있다. 높이는 130m이다. 『조선지리지』에 ‘음우기(大峴)’라 하였다.

우무개골 [골]

[위치] 우무개에서 북쪽으로, 우무개고개로 난 골

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음골(庵谷)’이라고 하였다.

우변이골 [골]

[위치] 섬강에서 북쪽으로, 306m 봉우리를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퍼내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서쪽 너머에 산현리 미재의 신봉과 탄봉이 있고 골짜기 앞 산자락에는 코바우가 있다.

음골 [골] → 우무개골

음현(陰峴) [마을] → 우무개

자지고개 [고개]

[위치] 지촌(芝村)에서 북동쪽 정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자지기(紫芝峴)’라 하였다.

작은배람발 [산]

[위치] 큰배람발 서쪽, 옥산동대 북동쪽에 있는 높이 122.5m의 산을 말한다. 황새동지 남쪽, 우무개 서쪽에 있다.

[내용] 중앙고속도로가 나면서 산 서쪽이 잘려나가고 옥산동대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보고 있다.

절재 [고개]

[위치] 종포 북쪽 퍼내골에서 절터골을 거쳐 북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300m이다.

[내용] 이 고개는 남서쪽으로 산현리 너르니골, 동쪽으로는 고산리 절골, 북서쪽으로는 용곡리 아래 뒤밀골이 이어진다. 산현리, 고산리, 용곡리, 옥산리 등 4개 마을의 경계되는 고개이다.

절터골 [골]

[위치] 퍼내골 끝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북쪽 끝에 절재가 있다.

점골 [마을] → 정골

점골고개 [고개] → 정골고개

점골서낭당 [당] → 정골성황당

정골 [마을]

[위치] 송골 동쪽, 지촌 북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호암산 서쪽 아래, 뒷고개 남동쪽에 있다. ‘점골’, ‘지음골’, ‘지음동(知音洞)’, ‘증골’, 또는 ‘격동(格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증골(格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증골(점골, 격동格洞, 지음동)’이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그릇을 구웠으므로 ‘점골(지음골)>정골, 증골’이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 원주의 정씨가 명당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이곳 서낭나무 위에서 까마귀 소리를 듣고 명당을 잡았다 하여 ‘지음동(知音洞)’, ‘격동(格洞)’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정윤겸(1463~1536)의 묘소와 연관된 유래담으로 보인다.

[풀이] 마을의 이름이 ‘점골’, ‘지음골’, ‘증골’, ‘격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음(知音)’은 점골의 ‘점’을 음차하여 적은 결과이며 ‘정’은 ‘점’이 음운 변화한 결과로 보인다. 즉 ‘점골’에서 ‘지음골’, ‘정골’ 등의 이름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주민들은 ‘정골’로 부르고 있다.



「정골 마을 ; 2020년」

정골고개 [고개]

[위치] 정골에서 북동쪽으로, 광격리 영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205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점골고개’라 하였다.

정골성황당 [당]

[위치] 정골고개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연 2회

제사를 올렸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점골서낭당’이라 하였다.

종정개 [마을] → 종포

종종개 [마을] → 종포

종포(鐘浦) [마을]

[위치] 옥산의 남동쪽, 옥산교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옥산리의 최남단 마을로 섬강과 옥산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다. ‘종정개’, ‘종종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동정기(鐘浦)’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종정개(종포鐘浦)’라 하였다.

[유래] 나루터 뒤에 있는 옥산이 종처럼 생겼으므로 종포라 하였다. 또는 배가 섬강으로 올라와 여기에 머문 종점이므로 종포라 하였다고도 한다.



「종포 마을 ; 2020년」

증골 [마을] → 정골

지음곡(知音谷) [골] → 정골

지음골 [골] → 정골

지음동(知音洞) [마을] → 정골

지찬이 [마을] → 지촌

지찬이보 [보] → 지촌상보, 지촌하보

[위치] 지촌 마을 앞에 있는 보(淤)를 말한다. ‘상보’, ‘하보’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지찬니보(芝村淤)’라고 하였다.

지찬이주막 [주막]

[위치] 지촌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

자료』에 ‘지찬니주막(芝村酒幕)’이라고 하였다.

지촌(芝村) [마을]

[위치] 종포 북동쪽, 송골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버덩말’, ‘앞말’, ‘뒷골’이 있다. 현 중앙고속도로가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 ‘지찬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지차니(芝村)’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지찬이(지촌芝村)’라 하였다.

[유래] 지초가 많은 들판에 마을이 있으므로 지촌이라 하였다.

[내용] 조선 중기에 이극신(李克臣, 1569~?)이 이곳에서 벼를 모아 즐겁게 놀았다고 전한다. 마을 가운데를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마을의 많은 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었고 뒷골은 마을과 분리되었다.

지촌들 [들]

[위치] 지촌 마을의 앞말과 버덩말 서쪽 앞, 옥산천을 따라 난 넓은 들을 말한다.

지촌상보(芝村上淤) [보]

[위치] 송골 동쪽, 엉아지 앞에 있는 보(淤)를 말한다. 송골 앞들에 물을 댄다.

지촌서낭 [당]

[위치] 지촌을 지나는 중앙고속도로 옆에 있는 은행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700년, 나무 높이 25m의 마을 당산목이다. 열매가 많이 맺는 해에는 풍년, 적게 맺는 해에는 흉년이 든다고 한다. 마른가지가 부러지는 해에는 재앙이 있다고 전한다.

지촌하보(芝村下淤) [보]

[위치] 지촌 앞말 북서쪽 위에 있는 보(淤)를 말한다. 지촌들에 물을 댄다.

진고개 [고개]

[위치] 지촌에서 동쪽으로, 대덕리 빨월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지촌과 마근거리에서 동쪽으로 돌개재를 넘고 다시 진고개를 넘어 빨월에 닿는다.

고개 높이는 140m이다. 『조선지리지』에 ‘진고기(泥岬)’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진고개’라 하였다.

[유래] 땅이 질어서 진고개라 하였다. 사람이 없어 무인지경이었다고 한다.

코바우 [바위]

[위치] 우변이골 남쪽 입구, 섬강변 산자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고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산 중턱에 길게 생긴 바위 모양이 코끼리 처럼 큰 코를 닮아서 고바우, 코바우라고 한다.



「코바우 : 2018년」

큰골 [골]

[위치] 정골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218.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퍼내골 [골]

[위치] 섬강에서 북쪽으로, 옥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우변이골의 동쪽에 있다. 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한내미골이 갈라져 나가고 그 위에서 절터골이 다시 갈라진다. 골 끝에 절재가 있다. ‘피내골’이라고도 한다.

[내용] 골 입구 섬강 변에 말구리바우가 있고 골 안에 호랑이굴이 있다.

퍼내골 [마을]

[위치] 퍼내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피내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퍼넛골(평천동평川洞)’이라 하였다.

[유래답] 임진왜란 때 사람이 많이 죽어서 피가 내를 이루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포통천(浦通川) [내] → 옥산천

[위치] 옥산천의 옛 이름이다. 『여지도서』 『관동지』에 ‘포통천(浦通川)’이라고 하였다.

[내용] 옛 지리지에 ‘포통천(浦通川)’이라 하고 감영에서 북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옥산도 북쪽 25리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포통천(浦通川)’의 이름은 ‘종포(鐘浦)’에서 따온 것으로 현 ‘옥산천’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내골 [골] [마을] → 퍼내골

한내미골 [골]

[위치] 퍼내골 중간에서 북동쪽으로, 해돋이봉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산 너머에는 고산리 절골이 있다.

해돋이봉 [산]

[위치] 종포 한내미골 북쪽 끝에 있는 313.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호랑이굴 [굴]

[위치] 퍼내골에 있는 굴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호랑이가 살던 굴이다. 한국전쟁 때 이 굴로 마을 사람들이 피난하였다고 한다.

황새등지 [산]

[위치] 종포 북동쪽, 우무개고개 서쪽에 있던 높이 139.2m의 산을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원주휴게소 자리이다.

[유래] 산의 모습이 새등지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황새등지라고 하였다. 주산리의 구슬뿔처럼 혼자 떨어져 동그란 모습의 작은 동산으로, 마치 황새등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황새등지라 하였는데 그 자리에 휴게소가 들어서서 사람들이 쉬어가므로 지명의 뜻이 현실과 부합되었다고들 말한다.

용곡리(龍谷里)

[위치]

용곡리는 호저면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고산리, 서쪽으로는 산현리와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남쪽으로는 산현리, 북쪽으로는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고모곡면(古毛谷面)의 지역이었는데, 고종 32년(1895년)에 고모곡면을 횡성으로 이관하여 횡성군(橫城郡) 고모곡면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물골과 동당미를 병합하여 횡성군 고모곡면 사리(四里)라 하였다.

1937년에 사리(四里)를 압곡리(鴨谷里)로 이름을 고치고 고모곡면도 서원면(書院面)으로 이름을 바꾸어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가 되었다.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압곡리의 일부를 용곡리(龍谷里)라 하고, 같은 횡성군 서원면 소속이던 매호리, 산현리와 함께 호저면(好楮面)에 편입하여 원성군(原城郡) 호저면 용곡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원주군(原州郡) 호저면 용곡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原州市) 호저면 용곡리가 되었다.

[유래]

앵당산 동쪽 협곡을 흐르는 일리천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며 승천하는 것처럼 심하게 곡류하므로 ‘용골’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적어 ‘용곡(龍谷)’이라고 하였다. 또는 마을이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용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옛날에 이 지역은 이씨촌이었다고 하며 백석(百石) 부자가 3~4집이 있었다고 한다.

가는골 [골]

[위치] 하용곡 북쪽, 돌보들 서쪽 끝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남산 서쪽 아래의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가 가늘다 하여 ‘가는골’이라 하였다.

가는골산 [산]

[위치] 하용곡 북쪽, 가는골 위에 있는 243.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가래등이 [산]

[위치] 줄바우골과 다라두니 사이의 가파른 능선을 말한다. 경사가 급하고 산줄기가 뚜렷한 능선이다.

[유래] 이 능선을 기점으로 줄바우골, 다라두니, 산뒷골이 있는 골짜기가 크게 갈라지므로 ‘가래(<갈>+등+이>가래등이’라 하였다.

개미재 [고개]

[위치] 봉바우 북동쪽 능선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용곡교에서 남동쪽으로, 뒤밀골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산마루의 가운데가 개미허리처럼 잘록하므로 개미재라 하였다.

[내용] 고개 넘어 뒤밀골과 절재를 거쳐 고산 또는 옥산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개미재들 [들]

[위치] 개미재 북쪽 아래, 상용곡교에서 남쪽 용곡교에 이르는 일리천 옆의 들을 말한다.

개미재보 [보]

[위치] 상용곡교 위에 있는 보(洑)를 말한다. 남쪽 개미재들에 물을 댈다.

고사리골 [골]

[위치] 하용곡 서쪽 징검들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베루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까막재산 [산]

[위치] 하용곡리 북쪽, 만덕골 남쪽 끝에 있는 높이 243.5m의 뾰족한 산을 말한다. 봉바우가 있는 산이다. ‘뒤신봉’, ‘봉바우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이 까맣게 보이므로 ‘까막재산’, 하용곡 마을 뒤에 있으므로 ‘뒤신봉’, 봉바우가 있는 산이므로 ‘봉바우산’이라고 부른다.

남산(南山) [산]

[위치] 상용곡 남쪽 앞에 있는 높이 248.7m의 산을 말한다. 중순나다리 서쪽, 봉바우 북쪽에 있는 산이다.

[유래] 동네 앞 남쪽에 있으므로 남산이라 하였다.

넘은뒷골 [골]

[위치] 상용곡 앞들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뒷골에서 보아 남쪽 능선 너머에 있으므로 ‘넘은뒷골’이라 하였다.

[풀이] 마을 서쪽의 ‘작은용곡골’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뒷골’이 기준이 되어 북쪽의 골짜기를 ‘산뒷골’, 남쪽의 골짜기를 ‘넘은뒷골’이라고 불렀다.

다라두니 [골]

[위치] 큰용곡골 서쪽 끝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이 버덩으로 되어있다.

[풀이] ‘달(山, 高)+둔(버덩)+이>달둔이>달(ㅏ)둔이>다라두니’가 되었다. ‘산’에 있는 둔덕, 버덩이란 뜻이다. ‘ㅏ’는 매개모음, ‘이’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다둔’과 같은 뜻의 지명이다.

당부리산 [산]

[위치] 상용곡 남동쪽, 용곡사터 남동쪽, 마을 입구의 서남이 있는 산을 말한다.

[유래]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당이 있었으므로 당부리산이라 하였다.

대바우골 [골]

[위치] 먼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신머루골 남동쪽 아래, 윗지창골 북서쪽 위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 안에 큰 바위가 있어서 대바우골이라고 한다.

대재보 [보]

[위치] 개미재들 서쪽에 있는 일리천의 보(淤)를 말한다. 오채들에 물을 댄다. 용곡교와 상용곡교 가운데에 있다.

대현(大峴) [고개] → 큰고개

독바우 [바위]

[위치] 산뿔골 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바위 밑 벼랑에 석이버섯이 난다.

[유래] 밑은 넓적하고 위에는 쭈뼛 서 있는 큰 바위가 마치 독처럼 생겼으므로 독바우라 하였다. 이는 마고할머니가 가져다 둔 물레돌이라 전한다.

돌보 [보]

[위치] 봉바우 서쪽 아래, 현 봉바위캠핑장에 있는 일리천의 보(淤)를 말한다.

돌보들 [들]

[위치] 개미재들 남서쪽, 봉바우 북쪽 아래 일리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돌보의 물을 대므로 돌보들이라고 하였다.

된양지골 [골]

[위치] 행가리들에서 북쪽으로 화재봉을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남쪽 아래에는 행가리들이 있다.

[유래] 아주 따뜻한 양지여서 사람이 살만하므로 된양지라 하였다.

두무재 [고개]

[위치] 뒤밀골 북동쪽 골짜기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고산리 개전, 고산저수지가 있다. 높이는 308m이다. ‘두무치(杜舞峙)’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두밀지(杜蜜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두무재(두무치杜舞峙)’라 하였다.

[풀이] ‘두무재(두무치)’는 ‘두(뒤)+무(물)+재(고개)>두무재’이다. ‘두’는 ‘금두’, ‘뚫내’처럼 ‘뒤(後)’의 뜻이고, ‘무’는 ‘물(水)’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며, ‘재(치)’는 고개이다. ‘뒤밀골, 두밀골’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의 옛말은 ‘믈>밀’ 또는 ‘메>미’이므로 ‘두밀골, 뒤밀골’은 마을 뒤에 물이 있는 골짜기라

는 뜻이다. 따라서 ‘두무재, 두무치’는 ‘마을 뒤 물이 나오는 골짜기의 고개’이다.

두무치(杜舞峙) → 두무재

두밀골 [골] → 뒤밀골

두밀재 [고개] → 두무재

뒤밀골 [골]

[위치] 하용곡들과 아차울들 사이에서 북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협곡을 지나 긴 골 끝에는 ‘두무재’가 있다. 두무재 너머에는 고산리 고산저수지와 개전이 있다. ‘두밀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뒤밀골’이라 하였다.

[풀이] ‘두(뒤)+밀+골>두(뒤)밀골’이 되었다. ‘두’는 뒤(後)의 뜻이고 ‘밀’은 ‘물’의 옛말이다. 마을 뒤의 물이 나오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뒤밀골 [골] → 뒤밀골

뒤신봉 [산] → 까막재산

[유래] 마을 뒤에 있는 산이므로 ‘뒤신봉’이라 하였다.

뿔골 [골]

[위치] 작은용곡골 끝에서 서쪽으로, 먼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떨깽바우 [바위]

[위치] 행가리들 동쪽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벼랑으로 된 급경사 계곡에 촛대처럼 혼자 우뚝 서 있는 큰 사각기둥 바위이다.

[유래] 이 바위만 혼자서 생뚱맞게 서 있으므로 ‘떨깽바우’라 하였다고 한다.



「떨깽바우」; 2018년

만덕골 [골] → 만타골

만타골 [골]

[위치] 상용곡교에서 서쪽으로, 374.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는 좁지만 안은 넓게 펼쳐져 상용곡 마을과 앞들이 함께 붙어있다. ‘만덕골’, ‘만택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넓은 집터가 있다고 해서 만덕골, 만타골, 만택골이라 하였다 한다. 넓은 버덩으로 된 골짜기에 농장들이 들어서 있다.

[풀이] ‘만덕(萬德), 만대(萬臺, 晩臺), 만택(萬宅)’ 등은 넓은 터에 붙는 지명으로 집을 만 채나 지을 정도로 넓다고 풀이한다. 이를 한자로 만대(晩臺)라고도 하는데, 이는 서쪽이 높은 산으로 막혀 있어서 날이 일찍 저물므로 붙여진 것이다. 대체로 이 지명을 가진 지형은 서쪽이 높은 산으로 막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 원주시청이 있는 무실동의 ‘만대(晩臺, 萬臺)’도 같은 이치이다.

만택골(萬宅-) [골] → 만타골

말바우등 [산]

[위치] 화채봉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화채능선의 가파른 산등성이를 말한다.

[유래] 능선이 마치 말등처럼 생겨서 말바우등이라고 한다.

먼골 [골]

[위치] 하용곡에서 북서쪽으로, 먼골산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문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가 길어 마을에서 아주 멀리 있으므로 ‘먼골’이라고 한다. 또는 골짜기 서쪽에 문바우가 있으므로 ‘문골’이라고도 한다.

먼골산 [산]

[위치] 하용곡에서 북서쪽으로 난 먼골 끝, 상용곡의 작은용곡골 서쪽 끝에 있는 높이 587.5m의 산을 말한다. 용곡리와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문골 [골] → 먼골

문골산 [산] → 먼골산

문바우 [바위]

[위치] 문바우봉 능선의 남쪽, 문바우등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높이 550m 지점 능선에 있다.

[유래] 길 양 옆에 바위가 서 있어서 문을 지나가는 것 같으므로 문바우라 부른다.



「문바우 ; 2018년」

문바우등 [바위]

[위치] 문바우에서 남동쪽 칠봉 쪽으로 내려오는 바위 능선을 말한다. 높이 550m를 중심으로 한 능선이다.

문바우봉 [산]

[위치] 먼골 서쪽, 먼골산 남서쪽에 있는 596.8m 높이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산현리와 용곡리,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 산 아래 능선에 문바우가 있어 문바우봉이라 부른다.

문앞들 [들]

[위치] 상용곡교 북동쪽에 있는 일리천 옆의 들을 말한다. 당부리산 남쪽, 만타골 동쪽의 들이다.

버덩마을 [마을]

[위치] 상용곡 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내용] 길을 넓힐 때 이곳에서 가마터 자리와 구들 흔적이 나와서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옛 용곡리는 현 용곡사 절터 아래인 이곳 버덩마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베루골 [골]

[위치] 하용곡 서쪽 일리천 건너의 징검대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하용곡성향당 서쪽 일리천 건너에서, 418.5m 봉우리와 480.2m 봉우리 사이로 나 있는 골짜기로 먼골 남쪽, 고사리골 북쪽 사이에 있다.

[유래] 골짜기에 바위벼랑이 많으므로 베루골이라고 하였다.

[풀이] ‘베루’는 벼랑의 영서방언이다.

봉바우 [바위]

[위치] 돌보들 남쪽 일리천 건너 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바위 아래의 일리천 옆에 봉바위캠핑장이 있다. 겨울에는 빙벽 등반을 하는 곳이다.

[유래] 산봉우리가 봉긋하게 솟아있으므로 봉바우라 부른다고 한다.



「봉바우 ; 2019년」

봉바우산 [산] → 까막재산

사리(四里) [마을] → 용곡리

산땃골 [골]

[위치] 큰용곡골 끝에서 다라두니와 갈라져 남서쪽 먼골산을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다라두니 남쪽에 있다. ‘손두골’, ‘순땃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땃골에서 보아 북쪽 뒤에 있으므로 산땃골이라 하였다.

[내용] 골짜기 안에 독바우가 있다.

산지당골재 [고개]

[위치] 상용곡에서 징검산을 거쳐 칠봉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징검산 서쪽 옆에 붙어있다. 고개 남쪽에 절골이 있다.

상용곡(上龍谷) [마을]

[위치] 용곡리 중 북쪽 상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앵당산 서쪽, 큰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웃용곡’, ‘웃용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웃용골(上龍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웃용골(상용곡上龍谷)’이라 하였다.

[내용] 큰고개를 두고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용곡사터에 석탑과 불상이 남아있다.

상용곡서낭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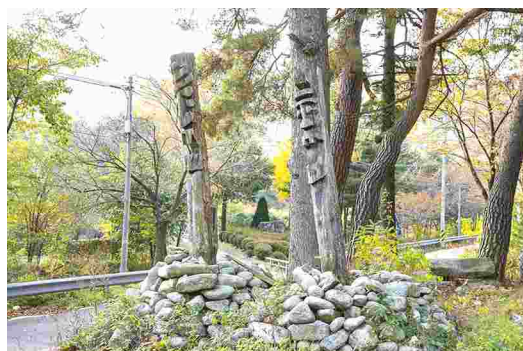
[위치] 상용곡 마을 입구 장승이 있는 곳의 당산목을 말한다.

[내용] 큰 전나무와 소나무 세 그루가 당숲을 이루고 있다.

상용곡장승 [장승]

[위치] 상용곡 마을 입구, 길옆에 있는 장승을 말한다. 작은용곡골 앞들 동쪽, 현재 소나무와 전나무가 있는 곳이다.

[내용] 장승은 1985년까지 있다가 그 뒤에 없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세웠다. 새 길이 당산목 옆으로 났으므로 당숲 지역은 길옆에 보존되어 있다.



「상용곡장승 ; 2019년」

손두골 [골] → 산땃골

수무동골 [골]

[위치] 개미재들 북쪽 끝에서 북동쪽으로, 284.9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순땃골 [골] → 산땃골

승수교(僧水橋) [다리] → 중순나다리

신머루골 [골]

[위치] 면골 끝의 원골 남동쪽 아래, 대바우골 북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흰머루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신 머루가 많이 나므로 신머루골이라고 부른다.

아래뒤밀골 [골]

[위치] 하용곡들과 아차울들 사이에서 북동쪽 두 무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가 뒤밀골이다. 뒤밀골 중간 279.1m 봉우리 뒤에서 남동쪽으로, 절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에 고산리 ‘된봉(369.1m)’이 있고 골 서쪽에는 ‘흰바위봉(309.2m)’이 있다.

아래용곡 [마을] → 하용곡

아래용골 [마을] → 하용곡

아래지찾골 [골]

[위치] 면골 안, 잊지찾골 남동쪽 아래, 통골 북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으로 문바우등을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아차울 [골]

[위치] 뒤밀골 남쪽에 있는 아차울들에서 북동쪽으로, 흰바위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아차월’이라고도 한다.

아차울들 [들]

[위치] 뒤밀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일리천 옆으로 나 있는 들을 말한다. 두순머리숲 북동쪽, 외기들 동쪽 건너편에 있다. 여름에 야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차월들’이라고도 한다.

아차울보 [보]

[위치] 뒤밀골 입구에 있는 보(湫)를 말한다. 아차울들에 물을 댄다.

아차월 [골] → 아차울

아차월들 [들] → 아차울들

아차월보 [보] → 아차울보

암봉(岩峰) [산] → 작은문바우봉

압곡(鴨谷) [마을] → 압곡리

압곡리(鴨谷里) [마을]

[위치] 앵당산 북쪽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를 말한다. ‘압실’, ‘사리(四里)’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압곡리(압곡, 압실, 사리)’라 하였다.

[유래담] 지형이 오리의 형국이라 압곡리(鴨谷里)라 하였다 한다.

[내용] 1914년 이전은 현 용곡리가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압곡리 소속이었다. 1983년에 압곡리의 일부를 떼어 용곡리라 하여 원성군 호저면 용곡리가 되었다.

압실 [마을] → 압곡리

양가리 [마을] → 행가리

앵당산 [산] → 앵당산

앞들 [들]

[위치] 상용곡 마을의 남쪽 앞, 작은용곡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장승이 있는 서쪽 맞은편의 들이다.

앵가리 [마을] → 행가리

앵당산(鸞堂山) [산]

[위치] 상용곡 북동쪽, 큰고개 동쪽 능선에 있는 높이 369.8m의 산을 말한다. ‘앵당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세가 험준한 벼랑으로 되어 있으므로 ‘영(양)당산>앵당산’이라 하였다. 또는 앵무새 집이 있었으므로 앵당산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내용] 동쪽에 화채봉이 있고, 앵당산과 화채봉의 사이 계곡에 행가리가 있으며 산 서쪽에는 큰고개가 있다.

[풀이] 일리천이 흐르는 행가리 계곡은 사방이 모두 험한 바위벼랑으로 되어있다. ‘영(양)’은 벼랑의 방언이다. 바위벼랑으로 된 산에 당집이 있었으므로 ‘영(양)+당+산>영(양)당산>앵당산’으로 음

운 변천한 것이다. 이곳 마을 행가리는 ‘영(양)>앵>행’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서 어원은 ‘영’으로 같다. 앵무새 유래담은 현재 널리 유포되어 있으나 이는 ‘앵당산’ 이름에서 유추하여 지은 것으로 근거 없는 것이다. 원주 지역의 ‘영’ 관련 지명으로는 옥산리의 ‘영아지[마을]’, 판부면 금대리 일론의 ‘영아지[마을]’가 있다.

오용골 [골]

[위치] 큰용곡골 느티나무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고개 서쪽에 붙어있는 골짜기이다.

[풀이] ‘어영, 어용, 오용’ 등은 길이 험한 곳에 붙는 지명소이다. 골짜기가 험하다는 뜻이다.

오채 [들]

[위치] 중순나다리 남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개미재들 남쪽, 돌보들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왕등재 [고개] → 큰고개

외기들 [들]

[위치] 칠봉 마을 동쪽, 아차울들에서 일리천 서쪽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두순머리숲 북쪽에 있는 들이다.

용곡(龍谷) [골] [마을] → 용골, 용곡리

용곡리(龍谷里) [마을] → 용곡리

용곡사터(龍曲寺-) [터]

[위치] 상용곡 마을 동쪽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용운사터(용운사지)’라 하였다.

[유래] 옛 절 이름은 ‘용운사(龍雲寺)’라고 알려져 왔으나 2019년에 발굴하면서 ‘용곡사(龍曲寺)’라 적혀 있는 기와조각이 출토되어 ‘용곡사’로 확인되었다.

[내용] 삼층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3호), 비로자나불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2호)이 남아있다. 마을 동쪽 경작지 일대, 현 느티나무가 있는 곳 등이 옛 절터로 추정된다. 고려 말 큰 수해로

절이 유실되고 탑과 석불이 토사에 묻힌 뒤 각종 괴질과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부처님의 계시로 석불을 흙 속에서 꺼내자 괴질과 재앙이 없어져 큰 전란에도 마을이 안전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탑의 양식으로 보아 절은 늦어도 고려 초기에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곡사터 : 1989년」



「용곡사터 : 2019년」



「용곡사 명문 기와 : 2019년」

용곡재 [고개] → 큰고개

용곡천(龍谷川) [내] → 일리천

용골 [골]

[위치] 큰고개 북동쪽, 앵당산 동쪽 아래를 흐르는 일리천의 골짜기를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용곡(龍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용골(용곡龍谷)’이라 하였다.

[유래] 횡성에서 내려오는 일리천이 앵당산의 협곡 사이를 심하게 곡류하며 마치 용트림처럼 굽이치므로 용골이라고 하였다. 또는 이 골짜기에서 용이 승천했다고도 하고,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므로 용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용골 [마을] → 용곡리

용운사터(龍雲寺-) [터] → 용곡사터

웃용곡 [마을] → 상용곡

웃용골 [마을] → 상용골

원골 [골]

[위치] 먼골산 남동쪽 아래의 골짜기를 말한다. 먼골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가장 멀리 있는 골짜기이므로 원골이라 하였다.

윗지חת골 [골]

[위치] 먼골 안, 대바우골 남동쪽 아래, 아래지חת골 북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 문바우를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일리천(一里川) [내]

[위치] 횡성군 금물산과 성지봉에서 발원하여 앵당산 동쪽의 행가리를 거치고 용곡리, 산현리를 지나 섬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용곡천’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관동지』에 ‘산점천(山岾川)’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 이 지역이 압곡 1리였으므로 ‘일리천(一里川)’이라고 하였다. 내가 용곡리를 거쳐 가므로 ‘용곡천’이라고도 한다. 산점(미재) 앞을 흐르

므로 산점천(山岾川)이라고도 하였다. 산점(山岾)은 산현(山峴)과 같은 뜻으로 ‘미재’를 달리 적은 것이다. 한편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를 흐르는 내는 옛 압곡 2리에 있으므로 ‘이리천(二里川)’이라고 한다.

작은먼골 [골]

[위치] 통골 남동쪽, 베루골 북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먼골에 있는 골짜기들 중 지חת골보다 작으므로 작은먼골이라 한다.

작은문바우봉 [산]

[위치] 문바우 남서쪽, 문바우등에 있는 480.2m 높이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암봉’이라고도 한다.

작은용곡골 [골]

[위치] 상용골 앞들에서 서쪽으로, 먼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용곡골 남쪽에 있다.

작은행가리들 [들]

[위치] 행가리골 입구, 행가리들 남쪽 너머에 있는 작은 들을 말한다. 수무동골 북쪽 산 너머 일리천 옆에 있다. 현 물가에오토캠핑장이 들어서 있다.

절재 [고개]

[위치] 아래뒤밀골 남동쪽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300m이다.

[내용] 이 고개는 남서쪽으로 산현리 너르니골, 남동쪽으로 옥산리 절터골을 거쳐 종포, 동쪽으로는 고산리 절골이 이어지는 곳으로 4개 마을의 경계가 된다.

줄바우 [바위]

[위치] 상용골, 큰용곡골 북쪽 줄바우골에 있는 바위들을 말한다.

[유래] 산 능선에서 계곡으로 바위들이 줄지어 있으므로 줄바우라 한다.

줄바우골 [골]

[위치] 큰용곡골 중간에서 북서쪽으로 갈라져 나

간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 안에 줄바우가 있으므로 줄바우골이라 부른다.

중순나다리 [다리]

[위치] 봉바우 북쪽, 남산 동쪽 아래에 있던 다리를 말한다. 현 용곡교 자리에 있던 다리이다. ‘승수교(僧水橋)’라고도 하였다.

[유래담] 옛날에 중이 앓은 채 수도를 하다가 떨어져 물에 빠져 죽었으므로 중순나다리라고 했는데 이후 한자로 ‘승수교(僧水橋)’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나다리’는 ‘너덜’에서 온 말이다. ‘너덜’은 ‘너더리’로 ‘넓은 들’을 뜻하는데 이를 널판자를 걸친 다리로 보아 ‘판교(板橋)’로 옮기기도 한다. 다리 건너편에 ‘개미재들’과 ‘오채들’이 있으므로 원래는 ‘넓은 들’의 뜻인 ‘너덜’이었다가 ‘너덜>너더리>나다리’가 되었고, 그 들에 다리가 생기면서 ‘나다리’는 다리 이름으로 불렸다.

진급들 [들] → 징갑들

진급보 [보] → 징갑보

진급산 [산] → 징갑산

징갑들 [들]

[위치] 하용곡리 남쪽 일리천 건너, 징갑산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진급들’, ‘천급들’이라고도 한다.

징갑보 [보]

[위치] 하용곡 서쪽 일리천 건너, 먼골 앞에 있는 보(洑)를 말한다. 징갑들에 물을 댈다.

징갑산 [산]

[위치] 하용곡리 앞 징갑들 남쪽, 칠봉 절골 북쪽 위에 있는 산을 말한다. 높이는 198.7m이다. 봉우리 서쪽 옆에 산지당골재가 있다. ‘진급산’, ‘천급산’이라고도 한다.

쪽도리바우 [바위]

[위치] 행거리 골짜기 일리천 한가운데 있는 바위

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쪽도리와 같이 생겼으므로 쪽도리바우라 하였다.



「쪽도리바우 : 2018년」

천급들 [들] → 징갑들

천급보 [보] → 징갑보

천급산 [산] → 징갑산

큰고개 [고개]

[위치] 상용곡에서 북쪽으로 황성군 서원면 압곡리 동당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자로 ‘대현(大峴)’이라고도 한다.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고개 높이는 250m이다. 황성 주민들은 이를 ‘왕등재’, ‘용곡재’라 부른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고개(대현)’라 하였다.

[유래] 고개가 길므로 큰고개라 하였다.

큰용곡골 [골]

[위치] 상용곡 마을 위에서 북서쪽으로, 560.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고개 남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통골 [골]

[위치] 먼골 안, 아래지찰골 남동쪽 아래, 작은먼골 북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하용곡(下龍谷) [마을]

[위치] 용곡리 중 상용곡 남쪽 아래, 칠봉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래용골’이라고도 한다. 『조

선지지자료』에 ‘아리용골(下龍谷)’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래용골(하용곡下龍谷)’이라고 하였다.



「하용곡 마을 : 2020년」

하용곡들 [들]

[위치] 하용곡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난 뒤밀골 입구까지의 들을 말한다. 들 남쪽으로 아차울들이 이어진다.

하용곡성황당 [당]

[위치] 하용곡 마을 도로 옆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당집은 없이 자연적으로 반달 모양의 울타리를 쌓고 당산목 앞에 검은 돌비석을 세웠다.

[내용] 매년 정월 초순에 택일하여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마을 뒷산 중턱 소나무에 산신제를 먼저 올린 후 성황당에 지낸다.



「하용곡성황당 : 2019년」

행가리 [골]

[위치] 앵당산 동쪽 아래, 화채봉 남서쪽 아래에 있

는 일리천의 골짜기를 말한다.

행가리 [마을]

[위치] 행가리 골짜기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앵가리’라고도 한다. 원래 앵가리라 불렀는데 행가리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풀이] 이 지역은 사방이 험한 바위벼랑으로 된 협곡으로 일리천이 심하게 곡류하며 흐르므로 마치 용이 용트림을 하는 것으로 보아 ‘용골’로 불렸다. ‘앵당산(<양당산)’, ‘행가리(<앵가리)’는 모두 ‘벼랑, 낭떠러지’를 뜻하는 방언 ‘영(양)’에서 파생된 것이다. 원주에서 ‘영’이 들어가는 지명으로는 옥산리의 ‘영아지[마을]’, 판부면 금대리 일론의 ‘영아지[마을]’, 귀래면 주포리의 ‘은포(<은개<영개)[마을]’가 있다.

앵당산이 ‘영(양)당산>앵당산’으로 바뀐 것과 같은 이치로 행가리는 ‘영(양)>앵>행’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서, ‘앵(영)+아(가)+리>앵(영)가리>앵가리>행가리’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앵가리>행가리’는 한자 표기 과정에서 생긴 이름으로, 무실동의 행가리는 ‘行街里, 行佳里’로 표기하였다.

행가리들 [들]

[위치] 된양지골 입구 일리천 옆에 있는 좁은 들을 말한다. 212.4m 봉우리 남쪽에 있는 들이다.

화채능선 [산]

[위치] 화채봉에서 남쪽으로, 물가애캠핑장에 이르는 바위능선을 말한다.

화채봉 [산]

[위치] 행가리 북동쪽에 있는 높이 459.1m의 산을 말한다.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와 고산리, 용곡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유래담] 산모양이 화채(상여)처럼 생겨서 화채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흰머루골 [골] → 신머루골

주산리(珠山里)

[위치]

주산리는 호저면 소재지로 호저면의 남쪽에 있다.

동쪽으로는 대덕리와 태장동, 서쪽으로는 무장리, 남쪽으로는 가현동과 지정면 신평리, 북쪽으로는 옥산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호매곡면(好梅谷面) 1리(호매곡리)·2리(주산리)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곡·막골·잔골·중방·작골·퍼내·호매를 병합하여 주산리(珠山里)라 하고 호저면(好楮面)에 편입하여 원주군 호저면 주산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原州邑)이 원주시(原州市)로 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原城郡)으로 바꿈에 따라 원성군 호저면 주산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다시 원주군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원주군 호저면 주산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가 되었다.

[유래]

면소재지에 있는 작은 동산이 구슬을 닮았으므로 이를 구슬뫼, 또는 구실미, 한자로 주산(珠山)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마을 이름으로 확장되어 주산리라 하였다.

가마소 [소] → 가매소

가매소 [소]

[위치] 막골 남동쪽, 대덕리 잣말 마을 서쪽 섬강에 있는 쇠(沼)를 말한다. ‘가마소’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매소’라 하였다.

가문터고개 [고개]

[위치] 퍼내 마을에서 동쪽 막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돌뱅이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갓고지 [들]

[위치] 현 중앙고속도로 호저대교의 북쪽 아래, 관어대 동쪽 강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옛날에 마늘이 있었다.

[유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원주천을 끼고 꽃으로 형성된 들이므로 ‘갓꽃>갓고지’라 하였다.

[풀이] 갓고지는 ‘갓+꽃>갓꽃>갓꽃+()>갓꽃아>갓고지’로 풀이된다. ‘갓’은 가(邊)이고 ‘꽃’은 串을 의미한다. 이곳 갓고지고개 서쪽 아래 지형이 원주천으로 빠죽하게 돌출되어 꽃으로 되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갓고지고개 [고개]

[위치] 현 호저중학교, 주산교차로에서 서쪽 원주천의 갓고지에 이르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고갯길을 따라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호저대교와 복원주IC 사이의 고속도로가 난 고갯길이다.

[유래] 갓고지 위쪽에 있는 고개이므로 갓고지고개라 하였다.

강정 [마을]

[위치] 퍼내저수지 북동쪽, 돌뱅이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복원주TG가 있는 자리이다.

거산(擧山) [산] → 들미

고재미고개 [고개] → 고지미고개

고지미고개 [고개]

[위치] 살감에서 동쪽 섬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재미고개’라고도 한다. ‘두벌고지미고개’와 ‘세벌고지미고개’가 있다.

[유래] ‘고재미’, ‘고지미’는 ‘높은 곳의 산’이라는 뜻이다.

[풀이] ‘고(高)+재(峙)+미(<메<뫼)>고재미, 고지미’, 또는 ‘고(高)+지(地·只)+미(<메<뫼)>고지미’이다. ‘지(地·只)’는 ‘장소, 곳’을 의미하는 지명소이다. 같은 지명으로 흥업면 대안리에 ‘고재미’가 있다.

골새터골 [골]

[위치] 통거리들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신타골(新岱谷)’이라고 하였다.

[풀이] 골짜기에 새로 닦은 터란 뜻이다.

골안 [골]

[위치] 자은동에서 남서쪽으로 난 뒷골 안의 골짜기를 말한다. ‘골안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짜기의 안에, 또 골짜기가 있으므로 ‘골안’, ‘골안골’이라고 하였다.

골안골 [골] → 골안

곰너미재 [고개]

[위치] 작골에서 마을 뒤 섬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곰너미지(熊峴)’라고 하였다.

[풀이] 지명에서 ‘곰’은 뒤(後)라는 뜻이므로 ‘마을 뒤로 넘어가는 고개’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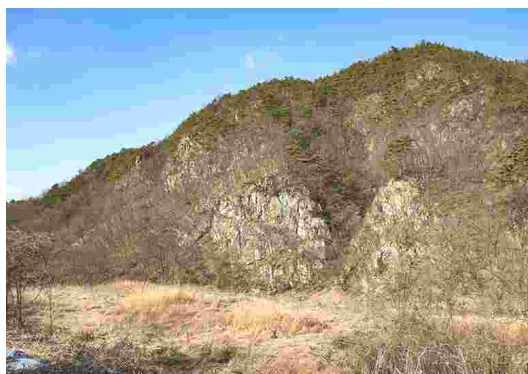
「곰너미재·작골 마을 ; 2020년」

관어대(觀魚臺) [바위]

[위치] 하우고개 북동쪽 아래, 현 중앙고속도로 호저대교의 북쪽, 갓고지 서쪽 강 건너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여지도서』에 고을 북쪽 20리 거리 도곡리(道谷里)에 있고, 관어대 아래에 ‘주산정(珠山亭)’이 있다고 하였다. 『대동지지』에 ‘한강대(寒江臺)’라고도 하며 북쪽 30리 냇가에 있다고 하였다.

[유래] 절벽 아래로 원주천의 물고기들이 노는 것이 잘 보이므로 관어대라 하였다.

[내용] 옛날 시인 묵객들이 물고기 노니는 것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고 시를 읊고 즐기던 곳이라 한다. 관어대 바로 아래에는 ‘주산정(珠山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하고 일설에는 이곳에 ‘관어사(觀魚寺)’라는 절이 있었다고도 한다.



「관어대·갓고지 ; 2020년」

관어사(觀魚寺) [절]

[위치] 관어대에 있었다고 전하는 옛 절을 말한다.

구슬뫼 [마을]

[위치] 구슬뫼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호저면 소재지로 호저초등학교, 호저면사무소 등이 있다. ‘구슬뫼’, ‘구슬미’, ‘구실미’, ‘주산리’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주산(珠山)’이라고 하였다. 주민들은 ‘구실미’라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구실미(珠山)’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주산리(구실미, 주산)’라 하였다.

[풀이] ‘구슬+뫼>구슬뫼>구슬메>구실미’가 되었다.



「구슬뫼 마을 ; 2015년」

구슬뫼 [산]

[위치] 주산리 면소재지에 있는 높이 120.8m의 산을 말한다. 현 호저초등학교, 호저면사무소의 북쪽에 있는 동산이다. ‘구실미’라고도 한다.

[유래] 혼자 떨어져 있는 작은 산이 마치 동그란 구슬 같으므로 ‘구슬뫼>구실미’라 하였고, 이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



「구슬뫼 ; 2015년」

구슬뫼앞 [들]

[위치] 구슬뫼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새들’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구실미앞’이라 하였다.

구슬미 [마을] → 구슬뫼

구실미 [마을] → 구슬뫼

군두봉(群頭峰) [산]

[위치] 호매 남서쪽에 있는 높이 333m의 산을 말한다. 남쪽 능선에는 저고무지고개와 장구봉이 있

고 북쪽 능선에는 절고개, 해우절봉이 있다. 지정면 신평리, 호저면 주산리, 무장리, 가현동의 경계 되는 산이다. 『조선지리지』에 ‘군두산(群頭山)’이라 하였다.

[내용] 저고무지고개를 비롯한 이 산줄기에서 한국전쟁 때 전투가 치열하여 산 위에 시체와 철모가 많이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군두산(群頭山) [산] → 군두봉

까치물골 [들]

[위치] 새들에서 동쪽으로, 도일 남쪽으로 난 들을 말한다. 현 원주교회 남쪽에 있는 들이다.

너분터 [골] → 너분터골

너분터고개 [고개]

[위치] 너분터골에서 서쪽 무장리 생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 무장리의 묘지골과 작은너분터골을 지나 생담에 닿는다. 무장리와 경계가 되는 고개로, 높이는 220m이다.

너분터골 [골]

[위치] 골안골 끝에서 북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헛가마골 동쪽에 있다. ‘너분터’, ‘너분터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너분터’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 안의 터가 넓으므로 너분터골, 너분터골이라 하였다.

너분터골 [골] → 너분터골

넘말(1) [마을]

[위치] 구슬뫼 북쪽, 도일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오양고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오양고개 너머에 있으므로 넘말이라고 하였다.

넘말(2) [마을]

[위치] 퍼내 마을 중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도곡(道谷) [마을] → 도일

도깨비골 [골]

[위치] 구슬뫼와 산지당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호저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막골고개로 가는 농로가 나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담] 옛날에 도깨비가 있었다고 전한다.

도일 [마을]

[위치] 구슬뫼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호저문화마을 중 호저문화1길이 있는 마을이다. ‘도곡(道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도일(道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도일(도곡道谷)’이라 하였다.

[풀이] 한자로 ‘도곡(道谷)’이라 하였다. ‘도곡’이란 지명은 대체로 ①옹기, 도자기와 관련된 경우, ②돌(石)과 관련된 경우, ③돌다(回)와 관련된 경우, ④복숭아(桃)와 관련된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도일’은 마을 북쪽 너머에 있는 ‘돌뱅이골, 돌뱅이고개, 돌밤, 돌밤골’ 등과 연결된 지명이다. ‘도일’을 ‘도곡(道谷)’이라 하였으므로 이때 ‘일’은 ‘실(谷)>실>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일로 가는 고갯길이 돌이나 바위가 많아 험한 곳에 붙는 이름인 ‘오양고개’인 것으로 보아 도일은 길이 험하고 돌이 많은 골짜기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도일’은 ‘돌실>돌실>돌일>도일’의 음운 변화를 거친 지명으로, ‘돌이 많은 골짜기’의 뜻으로 풀이된다.

도일주막 [주막]

[위치] 도일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도일주막(道谷酒幕)’이라고 하였다.

돌밤 [마을]

[위치] 퍼내저수지 동쪽, 돌뱅이고개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돌뱅이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현 중앙고속도로 복원주TG로 둘러싸여 있다.

돌밤골 [골]

[위치] 퍼내저수지 동쪽 돌밤에서 서쪽 퍼내저수지로 난 골짜기로, 저수지 동쪽 옆에 붙어있다.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돌뱅이고개 [고개]

[위치] 막골에서 남서쪽으로, 강정. 돌밭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돌밭 북동쪽, 막골저수지 서쪽에 있다. 현재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돌뱅이골 [골]

[위치] 돌밭에서 남동쪽 막골고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두발고지미고개 [고개] → 두벌고지미고개

두벌고지미고개 [고개]

[위치] 산지당산 남동쪽, 세벌고지미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두발고지미고개’라고도 한다.

뒷골 [골]

[위치] 자은동에서 서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골안골’, ‘헛가마골’, ‘너분터골’ 등이 있다.

뒷골들 [들]

[위치] 자은동 뒷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뒤골뜰(後洞坪)’이라고 하였다.

들미 [산]

[위치] [여지도서]에 관문에서 북쪽으로 20리에 있다고 하였다. [관동지]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들미(거산(擧山))’라 하고 2리 유원(由原)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내용] ‘들뫼>들메>들미’로 변천하였다. 옥산리의 옥산(玉山)을 북쪽 25리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북쪽 20리는 구슬뫼 또는 그 주변의 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자로 적어 ‘거산(擧山)’이라고 하였는데 ‘들미’는 ‘들(野)에 있는 산’을 뜻하였을 수도 있다.

마고할매바우 [바위]

[위치] 주산리 작골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뾰족한 기둥 모양의 바위를 말한다.

[내용] 높이 약 70cm의 삼각뿔 모양의 바위와 그

옆 40cm 정도의 바위가 있다. 큰 바위는 마고할매, 작은 것은 마고할매가 짊고 다니던 지팡이라 한다. 마고할미의 뒷면은 사람의 엉덩이 모양인데 엉덩이가 마을을 향해야 마을이 부유해진다는 속설에 따라 마을 도로를 정비할 때 마고할미의 엉덩이를 마을 쪽으로 돌려놓았다.

마당밭골 [골]

[위치] 자은동 서쪽 해우절봉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안에 마당처럼 큰 반석바위가 있으므로 마당밭골이라 하였다.

막골 [골]

[위치] 구슬뫼 북쪽 섬강변 막골 마을에서 남쪽으로 막골고개까지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 막골저수지가 있다. 현재 중앙고속도로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막골 [마을]

[위치] 구슬뫼 북쪽, 퍼내 동쪽 섬강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중앙고속도로가 마을 옆을 지나가고 있다. 송씨 집성촌으로 마을 안에 ‘웃담’과 ‘아랫담’이 있다. ‘맛골’, ‘백골’, ‘백동(伯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막골(伯洞)’이라고 하였고 [1917년지적도]에 ‘伯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맛골(백골, 백동)’이라 하였다.

[유래] 퍼내에서 섬강에 막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이므로 막골이라고 하였다. 또는 막다른 곳이므로 조선시대 귀양 보내던 곳이라고도 하고, 임진왜란 때 백씨 형제가 피난한 곳이라고도 한다.

[풀이] 강에 막히는 막다른 곳이므로 ‘막골’이라 하였는데 이 이름이 저속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맏’으로 미화하여 ‘백동(伯洞)’, ‘백골’이라 하였고 여기에 백씨 형제 이야기가 결부되었다.

막골고개 [고개]

[위치] 구슬뫼 북쪽 섬강 변에서 남쪽으로 막골을 지나 도일, 넘말, 구슬뫼로 넘어가는 긴 고개를 말

한다. ‘막골재’, ‘백골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맛골고개’, ‘백골재’라 하였다.

막골구렁이 [들]

[위치] 막골 마을 주변, 섬강 옆에 발달한 들을 말한다.

막골나루 [나루]

[위치] 막골 앞에 있던 섬강의 나루를 말한다. 막골과 대덕리 잣말을 잇던 나루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맛골나루’라 하였다.

막골재 [고개] → 막골고개

막골저수지 [못]

[위치] 막골 마을 남서쪽 뒤, 막골 골짜기 중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재 중앙고속도로가 저수지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맛골 [마을] → 막골

매랑정(梅浪亭) [누정]

[위치] 관어대와 마주보고 있었다고 하는 옛 정자를 말한다. 현재 위치는 중앙고속도로 호저대교 북쪽 아래, 갓고지 남쪽 벼랑으로 추정된다. 『조선환여승람』에 ‘매산정(昧山亭)’이라 하였다.



「매랑정터 : 2018년」

매산정(昧山亭) [누정] → 매랑정

모새둔지 [들]

[위치] 주원들 남쪽에서 구슬뫼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유래] 모래 있는 둔덕이므로 모새둔지라 하였다.

[풀이] ‘모새+둔+지>모새둔지’가 되었다. ‘모새’는 모래를 뜻하는 영서방언이며 ‘둔’은 ‘덕(언덕)’처럼 두둑하게 높은 버덩을 뜻한다. ‘지(只·地)’는 ‘가둔지, 당둔지’처럼 ‘땅’ 또는 ‘곳(장소)’을 뜻하는 지명소이다. ‘모래가 있는 둔덕’이라는 뜻이다.

못마구니고개 [고개]

[위치] 작골 남쪽 중보들에서 동쪽 태장동의 못마구니(택동)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에 영동고속도로와 강릉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유래] 태장동 못마구니로 넘어가므로 못마구니고개라 한다.

백골 [마을] → 막골

백골재 [고개] → 막골고개

백동(伯洞) [마을] → 막골

봉장들 [들]

[위치] 원주시 가현동 봉장 마을에서 중방에 이르는 원주천의 들을 말한다.

북덕재 [산] → 붉은덕고개

붉은덕고개 [고개]

[위치] 도일과 넘말에서 동남쪽으로, 섬강 변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북덕재’라고 하였다.

[유래] 붉은 황토흙 고개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덕’은 옛말 ‘닥(高)’에서 나온 말로 ‘높다’는 뜻을 나타낸다. 북덕재는 ‘붉덕재>북덕재’로, ‘붉>북’은 ‘붉다’에서 온 말이고 ‘덕’은 옛말의 ‘닥(高)’에서 나온 말로 ‘높다’는 뜻으로 언덕, 둔덕 또는 ‘덕가산’, ‘덕고산’처럼 큰 산을 뜻하기도 한다.

빙모탕이 [모롱이]

[위치] 살감 남쪽, 작골 북서쪽에 있는 길모퉁이를 말한다. 현재 호저교차로가 있는 곳이다.

[유래] 빙(벼랑) 아래에 있는 길모퉁이이므로 빙모탕이라고 하였다.

[풀이] ‘빈, 빙’은 벼랑의 방언이다. 이와 같은 지명으로는 지정면 간현리의 ‘해빙골(희빈골)’, 귀래면 용암리의 ‘빈재’, 태백산의 ‘빈재’, 춘천 천전리와 지리산의 ‘빙소’ 등이 있다.

빙모탕이 연못 [못]

[위치] 빙모탕이 서쪽 아래에 있던 깊은 연못을 말한다. 마을에서 신성시하던 연못이다.

[내용] 원주천 옛 샛강에서 형성된 깊은 못이었다. 마을에서 신성시하여 큰 메기가 많이 살았지만 잡지 않았다고 한다.

빙밀방천 [독]

[위치] 작골 서쪽, 현 호저교차로 서쪽 산 벼랑 아래에 있는 원주천의 독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빙밀방천(氷下泫)’이라고 하고, 척동(尺洞, 작골)에 있다고 하였다.

[유래] 벼랑으로 된 산 아래에 독을 쌓았으므로 ‘빙밀방천’이라고 하였다.

사갑 [마을] → 살갑

사남(沙南) [마을] → 살감

사슴바우 [바위]

[위치] 작골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사십바외(鹿巖山)’라고 하였다.

사태골 [골]

[위치] 중방골 끝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 가현동 점실이 있다.

산지당 [당]

[위치] 산지당산에 있던 당집을 말한다. ‘천제당’이라고도 한다.

산지당산 [산]

[위치] 구슬뫼 동쪽, 막골고개 남쪽, 현 호저면 소재지의 동쪽에 있는 높이 203m의 산을 말한다. 산 북쪽에 ‘붉은덕고개’, 남쪽에 ‘고재미고개’가 있다.

[유래] 산에 산제당이 있었으므로 산지당산이라 하였다.

살감 [마을]

[위치] 구슬뫼 동쪽 도깨비골에서 남쪽 작골 사이에 걸쳐있는 마을을 말한다. ‘사남(沙南)’, ‘사갑’, ‘살갑’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살갑(沙南)’이라 하였다.

[풀이] 『조선지리지』에 마을 이름은 ‘살갑(沙南)’, 들 이름은 ‘살감뜰(沙南坪)’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살감’, ‘살갑’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 것으로 보인다. 한글 이름은 다양하나 한자로는 모두 ‘사남(沙南)’이라 하였는데 ‘사(沙)’를 ‘모래내’처럼 ‘물(山)’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산의 남쪽’, 즉 산지당산의 남쪽이어서 생긴 이름으로 추정되거나 구체적인 어원을 찾기 어렵다.

살감들 [들]

[위치] 살감 마을 앞의 들을 말한다. 북쪽으로 새들과 붙어있다. 『조선지리지』에 ‘살감뜰(沙南坪)’이라고 하였다.

살갑 [마을] → 살감

삼산골 [골]

[위치] 중방에서 서쪽으로, 20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상보들 [들]

[위치] 작골 남쪽, 새들(2) 동쪽에 이어진 들을 말한다. 가현동 봉장들에서 강건너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새들(1) [들]

[위치] 구슬뫼 남쪽, 살감 남서쪽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현 호저면사무소 남서쪽에 있는 들이다. 남쪽으로 살감들과 연결되어 있고 북서쪽으로는 주원들과 연결되어 있다. 구슬뫼 앞에 있으므로 ‘구슬뫼앞’이라고도 한다.

새들(2) [들]

[위치] 작골 상보들 남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중방들 강 건너 맞은편에 있는 들이다.

새들보 [보]

[위치] 새들(1) 앞 원주천에 있는 보(洑)를 말한다.

새터골 [골] → 사태골

세발고지미고개 [고개] → 세벌고지미고개

세벌고지미고개 [고개]

[위치] 고지미고개의 동쪽끝, 섬강 변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두벌고지미고개의 남쪽에 있다.

수무산 [산] → 스무산

스무산 [산]

[위치] 자은동 북서쪽에 있는 높이 243.5m의 산을 말한다. ‘수무산’, ‘시무산’, ‘심우산’이라고도 한다. ‘큰스무산’, ‘작은스무산’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무산’이라 하였다.

[내용] 스무산 동쪽에 해우절봉이 있고 스무산골 북쪽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큰 목장이 있다.

스무산골 [골]

[위치] 주산리 새들에서 남쪽 원주천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원주천에서 남쪽으로 스무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시무산 [산] → 스무산

심우산(尋牛山) [산] → 스무산

아랫담 [마을]

[위치] 막골 마을 중 북쪽 아래로 섬강 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재의 막골마을이다.

아랫말 [마을]

[위치] 호매 마을 중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안구슬뒀 [마을]

[위치] 구슬뒀 마을 중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구실미’라 하였다.

안구실미 [마을] → 안구슬뒀

애기소 [소]

[위치] 원주천에 있는 큰 소(沼)를 말한다. 현 산

림청 원주산림항공관리소 동쪽 아래에 있던 소이다. 지금은 메워져 없어졌다.

엄나무골 [골]

[위치] 호매 큰항골 중간에서 군두봉과 절고개 사이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옛개골 [골]

[위치] 골안골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황골천 상류로 호매 서쪽에 있다. 남쪽 위로 작은항골과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큰항골을 지나 절고개로 이어진다.

오양고개 [고개]

[위치] 구슬뒀에서 북쪽으로, 도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호저교회와 호저생협이 있는 고개이다.

[풀이] ‘어영, 오양, 오용’ 등은 바위나 돌이 많은 험한 골짜기에 붙는 지명소이다.

와우고개 [고개] → 하우고개

용바우 [마을]

[위치] 막골 중앙고속도로 서쪽 섬강 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예수사관학교 남쪽 강 건너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들이 되었다.

[유래] 마을 앞 강가에 용바우가 있었으므로 마을 이름도 용바우라 하였다.

용바우 [바위]

[위치] 가문터고개 북쪽 아래 섬강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현 중앙고속도로 서쪽, 예수사관학교 남쪽 강 건너에 있던 바위이다.

[유래] 바위의 모습이 용을 닮았다고 하여 용바우라 하였다.

용소(龍沼) [소]

[위치] 용바우 밑에 있던 섬강의 깊은 소(沼)를 말한다.

[내용] 태(胎)를 용왕에게 바치면 용왕이 그 아이를 보살펴 준다고 믿어, 막골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를 바치던 곳이다. 지금은 메워져 없어졌다.

웃담(1) [마을]

[위치] 도일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호저중학교 남동쪽, 현 호저문화2길이 있는 마을이다.

웃담(2) [마을]

[위치] 막골 마을 가운데 남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말 [마을]

[위치] 호매 마을 가운데 서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원암정(圓巖亭) [누정]

[위치] 주산리에 있었다고 하는 옛 정자를 말한다. 『관동지』에 고을 북쪽 30리에 있고 앞에는 큰 냇가 있어서 경치가 뛰어나데 터만 남아있다고 하였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원진목 [마을]

[위치] 막골고개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재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율목정들(栗木亭-) [들] → 주산들

[위치] 작골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주산들의 일부이다. 『조선지리지』에 ‘율목정들(栗木亭坪)’이라고 하고 작골에 있다고 하였다.

[내용] 작골 앞에 율목정(栗木亭)이라는 정자가 있었고 그 정자 주변의 들을 지칭한 것이다.

으늑바우 [바위]

[위치] 잔골 뒤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으늑바우’라 하였다.

자은동(紫隱洞) [마을]

[위치] 중방 북서쪽 아래, 주산들 서쪽 원주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잔골’, ‘찬골’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자은동(紫隱洞)’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잔골(紫隱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잔골(자은동紫隱洞)’이라 하였다.

[풀이] 잔골(<작은골>의 ‘잔’을 한자의 소리를 적어 ‘자은(紫隱)’으로 표기했고 ‘골’은 골짜기, 또는 골짜기의 마을을 뜻하므로 ‘洞’으로 표기하였다.



「자은동 마을 : 2020년」

작골 [마을]

[위치] 구실미 남동쪽, 중방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곰너미재 밑에 있는 마을이다. ‘작골’, ‘척동(尺洞)’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자솔(尺洞)’이라고 하였고 『1917년지적도』에 ‘尺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작골(척동尺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이 고개(재) 밑에 있으므로 ‘작골(잣골)’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작골’로 부르고 있다.

[풀이] ‘자, 재’는 고개를 뜻하므로 곰너미재 밑에 있는 마을, ‘작골’이라 하였다. 이때 ‘자’를 길이를 재는 ‘자’로 보아 한자로 ‘척동(尺洞)’이라고 하였다. 현재 주민들은 ‘작골’이라 부른다.



「작골 마을 : 2020년」

작골앞들 [들] → 주산들

[위치] 작골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주산들의 다른 이름이다.

작은항골 [골]

[위치] 큰항골 아래에서 남쪽으로, 항골고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군두봉 동쪽의 항골고개 너머로 가현동 웃골마을 작은항골로 이어진다.

잔골 [골]

[위치] 자은동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20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가 작다고 하여 잔골이라 하였다.

[풀이] ‘작은+골>작은골>잔골’이 되었다. ‘자은(紫隱)’은 ‘잔’의 소리를 따라 적은 것이다. 골짜기가 작지 않은데도 ‘잔골’이라 한 것은 바로 옆의 호매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잔골 [마을] → 자은동

잔골제 [둑]

[위치] 중방 앞에서 잔골 앞으로 이어진 원주천의 둑을 말한다.

잔골주막 [주막]

[위치] 잔골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장골주막(紫隱洞酒幕)’이라고 하였다.

작골 [마을] → 작골

장고개들 [들]

[위치] 호매 동쪽, 통거리들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장수바위 [바위]

[위치] 막골 앞 섬강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지금은 묻혀져 없어졌다.

[유래] 바위에 큰 발자국이 3~4개나 있었는데 이는 장수가 밟고 지나간 자국이라 하였다.

절고개 [고개]

[위치] 호매에서 서쪽으로 무장리 샛물지울, 고여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군두봉의 북쪽 아래, 해우절봉의 남쪽 사이에 있다. ‘절재’, ‘해우절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해우절고개’라 하였다.

[유래] 고개 북동쪽 아래에 해우절이 있었으므로 절재, 절고개라 하였다.

절재 [고개] → 절고개

주산(珠山) [마을] → 구슬뫼

주산들 [들]

[위치] 작골 앞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작골앞들’이라고도 한다.

주산리유적 [유적]

[위치] 퍼내저수지 북쪽 아래, 현 북원주TG 서쪽에 있는 유적을 말한다.

[내용] 중앙고속도로 지표조사에서 조선시대의 백자, 질그릇 등이 발견되었다. 질그릇 1점은 큰 질그릇의 손잡이로 보이는데, 안쪽에 만든 사람이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과 지문이 남아있다.

주산정(珠山亭) [누정]

[위치] 관어대 아래에 있었다는 정자를 말한다.

주원들 [들]

[위치] 도일 서쪽 원주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남쪽으로 새들과 이어진다. 주산리에서 가장 넓은 들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듀원들(周原坪)’이라고 하였다.

주원보 [보]

[위치] 새들 남동쪽에 있는 원주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쥬원보(周原湫)’라고 하였다.

중말 [마을]

[위치] 호매 마을 중 웃말과 아랫말의 중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방(中方) [마을]

[위치] 구슬뫼 남쪽, 원주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호매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중방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둥바이(中方)’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방이(中方-)’라 하였다.



「중방 마을 : 1987년」



「중방 마을 : 2020년」

중방골 [골]

[위치] 중방에서 중방천을 따라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중방들 [들]

[위치] 중방 마을 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중방앞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방앞들’이라 하였다.

중방성황당 [당]

[위치] 중방 북쪽, 현 중방교 북서쪽 탄봉산 기슭에 있던 당집을 말한다.

[내용] 정초에 홀수날을 정해서 당고사를 지냈다. 당고사는 산신제를 먼저 지낸 후 성황당에서 당고사를 지냈다. 지금은 폐지되어 없어졌다.

중방앞들 [들] → 중방들

중방이 [마을] → 중방

중방천(中方川) [내]

[위치] 중방 남쪽 사태골에서 중방골을 거쳐 중방 앞에서 원주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중보들 [들]

[위치] 상보들 남쪽, 새들(2) 남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봉장들 강 건너편에 있는 들이다.

찬골 [마을] → 자은동

척동(尺洞) [마을] → 작골

천제당(天祭堂) [당]

[위치] 구슬뿔 동쪽, 막골고개 남쪽의 산지당산에 있던 당을 말한다. ‘산지당’이라고도 한다.

[내용] 하늘에 천제를 지내는 당이었다고 전한다.

큰항골 [골]

[위치] 호매에서 서쪽 절고개로 이어지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통거리 [들] → 통거리들

통거리들 [들]

[위치] 호매동 남동쪽, 중방골 남서쪽 너머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통거리(通巨里)’라고 하였다.

퍼내 [강]

[위치] 섬강의 다른 이름이다. 주산리 퍼내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퍼내’, ‘퍼내강’이라고 하였다. 『관동지』에 ‘평천(平川)’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퍼니강(平川)’이라 하였다.

퍼내 [들]

[위치] 퍼내저수지에서 북서쪽으로, 원주천과 섬강이 합류하는 곳을 향하여 발달한 들을 말한다.

퍼내 [마을]

[위치] 구슬뿔 북쪽, 옥산교를 건너기 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원주천과 섬강이 만나는 합수지점에 들이 발달한 곳에 있는 마을이다. ‘퍼내골’, ‘피내’, ‘피내울’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평천(平川)’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퍼니(平川)’라

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퍼내(평천平川)’이라고 하였다.

[유래] 원주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있으므로 ‘강이 넓게 펼쳐지는 곳’이란 뜻으로 ‘퍼내’라 하였다. 한편 ‘내’는 옛말에서 ‘들(土, 壤)’을 뜻하기도 하였으므로 ‘들이 넓게 펼쳐지는 곳’으로 볼 수도 있다.

[유래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주민을 많이 죽여 섬강이 피로 물들었다고 해서 ‘피내’, ‘피내울’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원주천이 섬강에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강이 넓게 펼쳐지는 곳’이란 뜻으로 ‘퍼+내>퍼내>피내’로 되었다. 한자로는 ‘퍼다’를 ‘넓다’는 뜻으로 보아 ‘평(平)’을 취하고 ‘내’를 강으로 보아 ‘천(川)’을 취하여 ‘평천(平川)’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옛 고구려어에서 ‘나, 내’는 ‘들(野)’, 또는 ‘땅(土, 壤)’을 뜻하였으므로 ‘퍼내’는 ‘들이 펼쳐지는 곳’으로 볼 수도 있다. ‘내’를 모두 ‘강(川)’으로 보아 ‘천(川)’으로 정착되었지만 ‘들(野, 壤)’로도 볼 수 있는 예로는 원주시 단계동 ‘모래내(沙川)’, 행구동 ‘너르내(廣川)’, 문막읍 ‘너그내(寬川)’ 등이 있다. ‘피내울(<퍼내울>’의 ‘울’은 마을을 뜻한다.

퍼내강 [강] → 퍼내

퍼내골 [마을] → 퍼내, 피내울

퍼내구렁골 [들]

[위치] 섬강과 원주천이 합류하는 곳에서 남동쪽 위로, 퍼내저수지까지 이어지는 들을 말한다.

퍼내나루 [나루]

[위치] 주산리 퍼내와 옥산리 종포를 연결하는 섬강의 나루를 말한다. 그 자리에 현 옥산교가 세워져 있다. 옥산리에서는 이를 ‘옥산나루’라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퍼나나루(平川津)’라 하였다.

퍼내저수지 [못]

[위치] 퍼내 마을 남쪽 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 북원주IC 바로 북쪽에 있다. 현재 호저남 시터로 운영되고 있다. ‘평촌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퍼내저수지’라 하였다.



「퍼내저수지 ; 2019년」

평천(平川) [강] [마을] → 퍼내

평촌저수지 [못] → 퍼내저수지

피내 [마을] → 퍼내

피내울 [마을] → 퍼내

[풀이] ‘울’은 ‘골, 굴’에서 파생된 말로 마을을 뜻하므로 ‘피내울’은 ‘퍼내에 있는 마을’을 뜻한다. 『조선지리지』에 ‘퍼니골(平川谷)’이라 하였다.

하우고개 [고개] → 무장리 하우고개

한강대(寒江臺) [바위] → 관어대

한터나루 [나루]

[위치] 막골고개 동쪽 산너머 섬강에 있던 나루를 말한다. 강 건너 대덕리 한터 마을로 건너던 나루였다.

[유래] 대덕리 한터로 가는 나루이므로 한터나루라 하였다.

해우절 [산] → 해우절봉

해우절 [절]

[위치] 해우절봉 남동쪽, 절고개 북동쪽 아래, 너분터골에 있던 옛 절을 말한다.

[유래] 절터가 남아 있고 ‘해우절’이란 이름은 전 하나 절에 대한 내력은 알 수 없다. 이곳에 나타나는 ‘해우’계 지명은 모두 ‘하우고개’에서 파생된 것이다.

해우절고개 [고개] → 절고개

해우절봉 [산]

[위치] 호매 북서쪽, 절고개 북쪽에 있는 298.1m 높이의 산을 말한다. 군두봉에서 북쪽 하우고개로 이어진 능선에 있다. 호저면 주산리와 지정면 무장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해우절’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히우절봉(海牛寺峰)’이라고 하였다.

혈떡고개 [고개] → 무장리 하우고개

헛가마골 [골]

[위치] 골안골 끝에서 북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호매(好梅) [마을] → 호매동

호매동(好梅洞) [마을]

[위치] 중방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호매’, ‘호밀’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호밀(內好梅)’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호매동(호밀)’이라 하였다.

[유래] 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안에 마을이 섰으므로 ‘호매, 호밀’이라 하였다.

[내용] 호매(好梅)는 ‘호매’를 음차하여 적은 것이고, 호매곡(好梅谷)은 ‘호매’에서 골짜기의 뜻을 가진 ‘곡(谷)’을 덧붙인 것으로, ‘호매곡면(好梅谷面)’은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현 호저면(好楮面)은 호매곡면과 저전동면(楮田洞面)의 앞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풀이] ‘호매’와 ‘호밀’이 동시에 실현되므로 ‘매·밀’은 대응된다. 따라서 ‘매·밀’은 물(水)을 뜻하는 고구려어 ‘매~밀’로 추정된다. ‘물(水)’의 고구려어 ‘매’는 한자로 정착될 때 매호리(梅湖里), 매남(梅南)처럼 대개 ‘梅’를 취한다. ‘호’는 ‘골·마을’을 뜻하는 고구려어 ‘굴~구루’(忽)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호매·호밀’은 ‘냇물이 흐르는 골짜기의 마을’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호매동 마을 : 2020년」

호매들 [들]

[위치] 호매동 남쪽, 통거리들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호밀 [마을] → 호매동

항골 [골]

[위치] 자은동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에 군두봉에서 북쪽으로 작은항골, 옛개골, 골안골을 흐르는 항골천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항골’이라 하였다.

[풀이] ‘크다’는 뜻의 ‘한’과 ‘골’이 결합되어 ‘한골>항골>항골’이 되었다.

항골고개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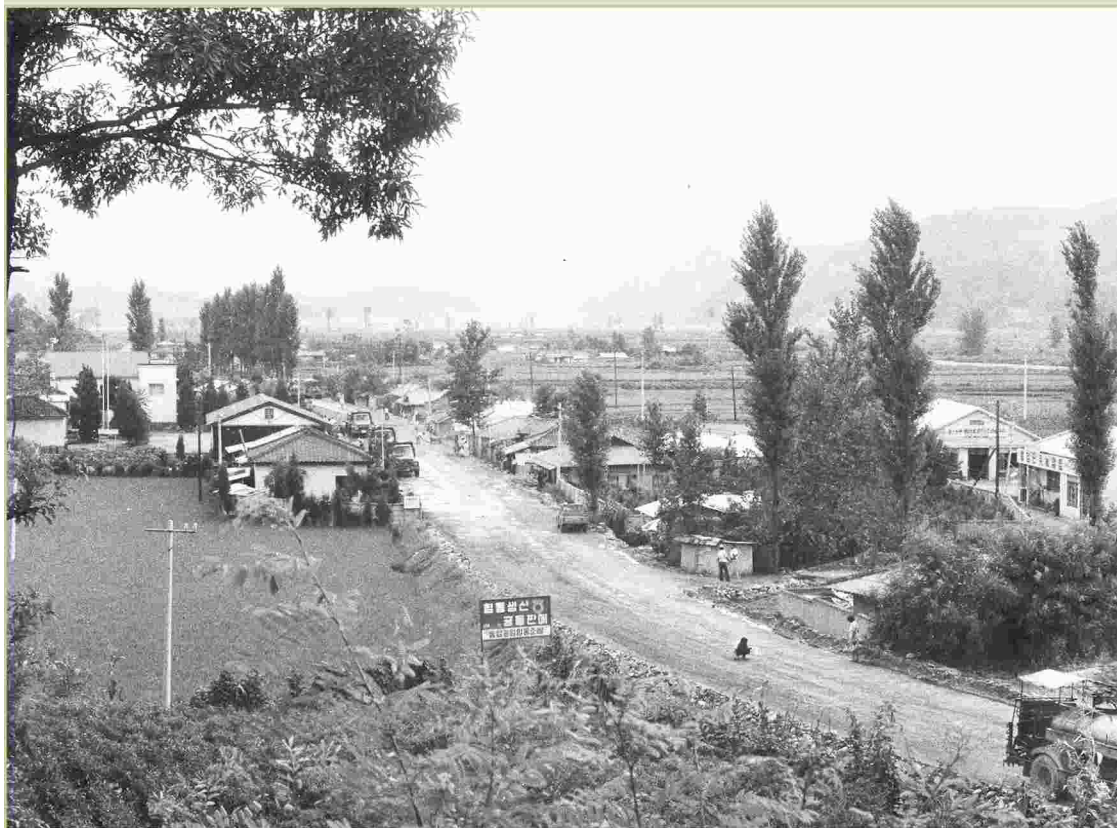
[위치] 호매 작은항골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고개를 말한다. 군두봉 동쪽에 있는 고개로, 고개 너머 가현동 웃골 작은항골로 이어진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항골고기(項谷峴)’라 하였다.

항골천 [내]

[위치] 군두봉에서 시작하여 호매 서쪽의 작은항골, 옛개골, 골안골, 잔골을 거쳐 북동쪽으로 흘러 원주천에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제11편

흥업면(興業面) 지명(地名)



흥업면 소재지 ; 1974년

[위치]

흥업면은 원주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시청에서 약 5.5km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무실동과 판부면, 서쪽으로는 문막읍, 남쪽으로는 귀래면과 충북 제천시, 북쪽으로는 호저면 만종리·지정면 보통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흥업면(興業面)에 해당하는 지역은 옛 원주군(原州郡)의 금물산면(今勿山面)과 사제면(沙堤面)이다.

1760년대의 『여지도서』에서부터 이 두 지역명이 등장하여 1912년까지 유지되다가 1914년에 두 면을 금물산면으로 통합하였고, 1917년에 면의 이름을 흥업면(興業面)으로 바꾸었다.

1912년의 경우 금물산면은 현재의 대안리(초1리)·매지리(2리, 분4리)·흥업리(분1리, 분5리) 지역이었고, 사제면은 현재의 반계리(분1리, 분2리)·취병리(분2리, 분3리)·동화리(분5리, 분6리)·사제리(분7리, 분8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물산면에 사제면의 사제리(분7리, 분8리)·판제면(板梯面)의 무실리(분3리, 분3리)를 병합하여 대안·매지·흥업·무실·사제로 개편하여 관할하였다.

1917년 면 이름을 금물산면에서 흥업면으로 바꾸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으로 이름을 바꾸어 원성군 흥업면이 되었다.

1973년 무실리가 원주시로 편입되어 감으로써 대안·매지·흥업·사제 4개 리로 개편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이름을 다시 바꿈에 따라 원주군 흥업면이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원주시 흥업면이 되었다.

[유래]

금물산면(今勿山面)은 대안리에 있는 거무산을 음차한 것이고, 사제면(沙堤面)은 현 사제리의 원래 이름 사제울에서 나온 것이다. 1917년에 흥대동(興垔洞)과 울업동(蔚業洞)의 이름을 따서 흥업면(興業面)으로 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홍업면사무소 ; 1985년

홍업면사무소 ; 1992년





흥업면 복지회관 ; 1987년

대안리 도로개통식 ; 1964년





대안리 전화사업 점화식 ; 1975년

대안리 시내버스 개통식 ;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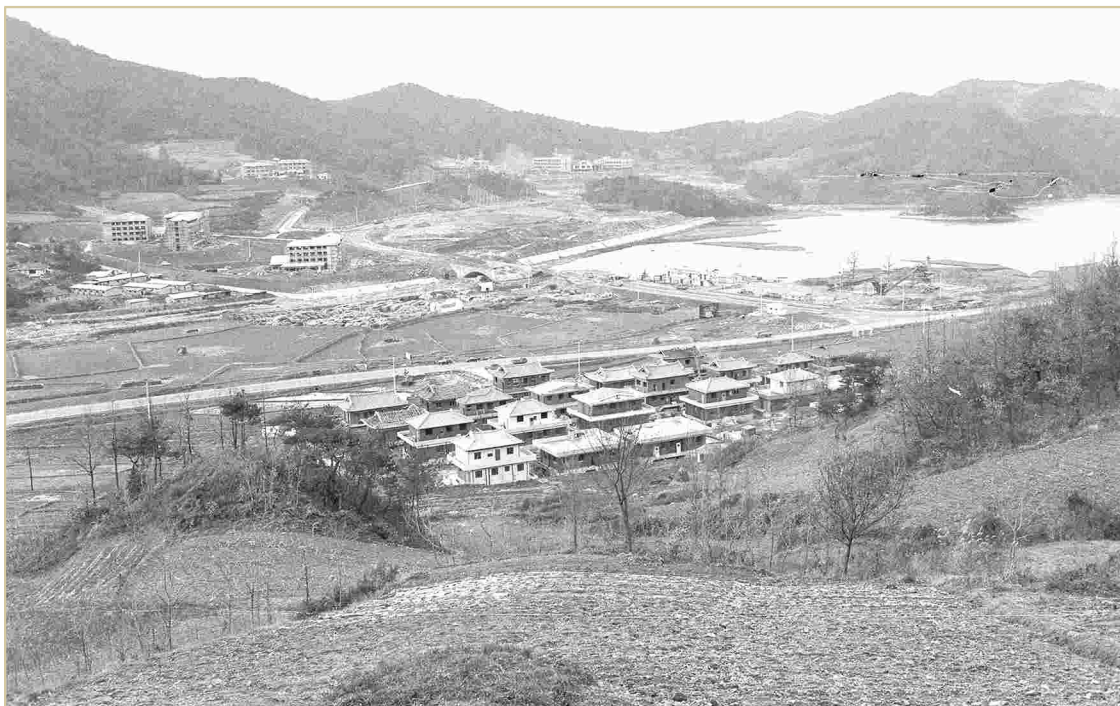




대안리 오지도로 준공식 ;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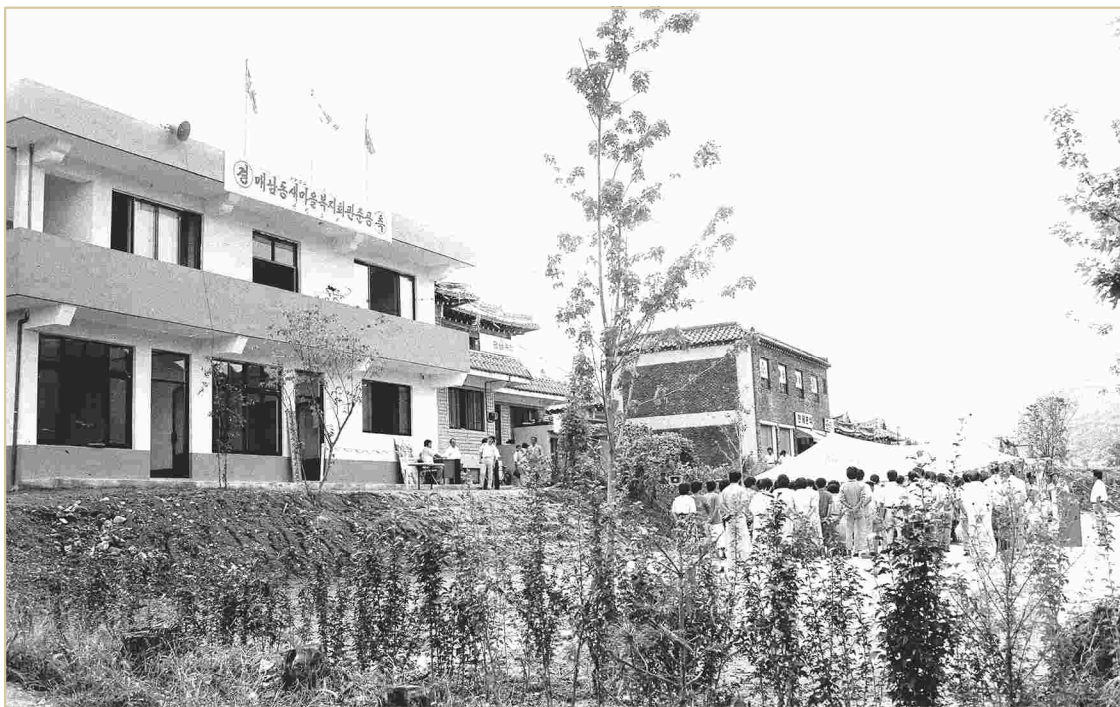
매지리 개건너 마을 교량 준공식 ; 1977년





매지리 연세대학교 ; 1983년

매지리 매남동 새마을복지회관 준공식 ; 1985년





매지리 분지동 마을회관 준공식 ; 1997년

흥업리 흥대 마을 진입로포장 준공식 ; 1986년





흥업리 면소재지 ; 1993년

흥업면 소재지 ; 2015년



대안리(大安里)

[위치]

대안리는 흥업면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매지리와 흥업리, 서쪽으로는 문막읍 건등리와 궁촌리, 남쪽으로는 문막읍 비두리, 북쪽으로는 사제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금물산면(今勿山面)의 초일리(初一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승안동·해삼터·본금물산·은행정·술산·대송동을 병합하여 대안리(大安里)라 하여 원주군 금물산면 대안리가 되었다.

1917년 면 이름을 금물산면에서 흥업면으로 바꾸어 원주군 흥업면 대안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으로 이름을 바꾸어 원성군 흥업면 대안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이름을 다시 바꿈에 따라 원주군 흥업면 대안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가 되었다.

[유래]

대송동(大松洞)의 ‘大’와 승안동(升安洞)의 ‘安’자를 따서 대안리(大安里)라 하였다.

‘대송(大松)’은 대수리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대수리’는 대(大)수리, 즉 큰 수리란 뜻인데, 수리는 ‘수릿날, 정수리’처럼 ‘가장 높은’의 뜻이다. 즉 대수리는 술미 마을 중 가장 큰 마을이란 뜻이며, ‘술미’는 ‘수리+미(<매<되>)>수리미, 술미’로서 가장 높은 산의 뜻이다. 이때 ‘술’을 ‘솔’로 보아 송(松)을 취하였다.

승안동(升安洞)은 지형이 되처럼 생긴 안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되안이>돼니’인데 ‘되(升)+안(安)’으로 뜻과 소리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가래터골 [골]

[위치] 거무산 오금정골 동쪽 맞은편 쑥뱅이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쑥뱅이골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이다.

가마터 [터]

[위치] 술미 뒷골(1), 술미도요지에 있는 가마터를 말한다.

[유래] 옛날 옹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으므로 가마터라 하였다.

가막골 [골]

[위치] 대수리 고재미앞들 맞은편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논골이 있다.

갈거리 [골]

[위치] 갈거리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360.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갈거리 마을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갈거리(葛德里)’라고 하였다.

갈거리 [마을]

[위치] 술미 동쪽 대안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대안저수지 북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대안저수지를 사이에 두고 남동쪽으로는 덕재를 넘어 매지리 개건너로 길이 나 있고 남서쪽으로는 노루재를 넘어 문막읍 비두리, 궁촌리로 향하는 길이 갈라지는 곳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풀이] ‘갈+거리>갈거리’가 되었다. ‘갈’은 ‘가르다’에서 나온 말이며 ‘거리’는 길, 또는 ‘장소·터’를 뜻한다. 길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갈거리재 [고개]

[위치] 갈거리 동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매지리 매남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개강지들 [들]

[위치] 하해삼터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들의 위쪽 부분이 42번 도로에 편입되

었다.

개강지보 [보]

[위치] 개강지들에 있는 대안천의 보(淤)를 말한다.

개건너골 [골]

[위치] 돼니천이 대안천에 합류하는 신촌들 남쪽 끝에서 남동쪽 200.9m 봉우리를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 너머에 다리골이 있다. 골짜기 전체를 42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거무산 [마을]

[위치] 은행정 북쪽, 술미 북쪽, 거무산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금물산면(今勿山面)의 본 마을이다. ‘검산’, ‘금산’, ‘금물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변거무산(本今勿山)’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무산(금산, 금물산, 본금물산)’이라 하였다.

[유래] 거무산 아래에 마을이 있으므로 산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도 거무산이라 하였다. 옛 금물산면의 본 마을이다. 금물산(今勿山)은 산 이름 ‘거무산’을 음차하여 적은 것이다.

거무산 [산]

[위치] 은행정 서쪽, 거무산 마을 북서쪽에 있는 높이 500.2m의 산을 말한다. 명봉산 동쪽 줄기에 있는 산이다. 조선시대에 이 산의 이름을 따서 면 이름을 ‘금물산면(今勿山面)’이라 하였다.

[유래] 거무산은 ‘높고 큰, 신성한 산’의 뜻이다. 또는 산의 모양이 거무(거미)처럼 생겼으므로 거무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거무’는 ‘금’계통의 언어로 ‘높고 큰,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금’에서 ‘감·가마, 곰·고모, 검·거무’ 등이 파생되어 널리 분포되었다. 따라서 ‘거무산’은 ‘높고 큰, 신성한 산’이라는 뜻이다.

거무산서낭 [당]

[위치] 거무산 마을 오금장골 입구의 선왕동 마을에 있는 소나무를 말한다. 당목인 이 소나무를 방

석소나무라고 부른다.

[내용] 수령 600년 이상인 방석소나무를 당목으로 삼고 매년 음력 정월에 택일하여 당고사를 지낸다. 서낭당 북쪽에는 수령 4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279호 느티나무가 있다.

거무산재 [고개]

[위치] 은행정에서 남쪽 거무산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건너담 [마을]

[위치] 상해삼터 마을의 남쪽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건넌들 [들]

[위치] 술미 마을 남쪽 술미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건넌들(巨隱里坪)’이라고 하였다.

건넌들보 [보]

[위치] 건넌들에 있던 술미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거넌들보(巨隱洑)’라고 하였다.

검산 [마을] → 거무산

고디기재 [고개] → 대수리고개

[위치] 대수리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대수리 고재미 마을 남서쪽 뒤에서 서쪽으로, 문막읍 비두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고개가 곧게 뻗어있는데 높고 험하여서 힘이 들어 고되므로 고디기재라 하였다.

고재미 [마을]

[위치] 대수리 마을 남쪽 계곡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흔집자리들 남서쪽 위에 있는 마을이다. ‘고지래미’라고도 한다.

[유래] 높은 고지대에 마을이 있으므로 고재미, 고지래미라고 한다.

[풀이] ‘고(高)+재(峙)+미(<매<미>)>고재미’, ‘고(高)+지(地·只)+넘(躑)+이>고지너미>고지네미>고지래미’이다. ‘고지’의 ‘지(地·只)’는 ‘장소, 곳’을 의미하는 지명소이다.

고재미앞들 [들]

[위치] 고재미 마을 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아흔집자리들 남쪽 위에 붙어있는 들이다.

고지래미 [마을] → 고재미

골밭골 [골]

[위치] 대안저수지 위 보들 중간에서 북서쪽으로 이그터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잔대골 서쪽 맞은편에 있다.

공알바우 [바위]

[위치] 돼니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여자의 성기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 아래 부분에 구멍이 있어 나무막대로 이 구멍을 비벼대면 여자가 도망을 간다는 전설이 있다.

구룡바우 [바위]

[위치] 술미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마치 오래된 용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큰 바위가 있으므로 구룡바우라 하였다.

구룡바우골 [골]

[위치] 구룡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구진머리논 [들]

[위치] 술미 마을 입구에 있는 긴 논을 말한다.

금물산 [마을] [산] → 거무산

금산 [마을] [산] → 거무산

꽃밭재 [고개]

[위치] 덕재에서 남동쪽 매지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매지저수지 서쪽의 큰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425m이다.

[유래] 높은 산등성이에 진달래와 철쭉이 많이 있으므로 꽃밭재라 하였다.

노루재 [고개]

[위치] 대수리에서 남쪽 문막읍 비두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덕가산 북서쪽, 대수리고개 남동쪽에 있다. 현 대안로가 나 있고 고개 정상에 회사가 들어서 있다. ‘장치(獐峙)’라고도 한다. 『조선

지지자료』에 ‘노루치지(獐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노루재(장치)’라 하였다.

[유래] 지형이 노루처럼 생겨서 노루재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예전에 노루가 많이 살았으므로 노루재라 하였다고 한다.



「노루재 ; 2020년」

노루치복골 [골]

[위치] 태봉앞골 남쪽에서 노루재를 향하여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에 대안로가 나 있다.

노쪽골 [골]

[위치] 상송안동 새말저수지에서 남서쪽 거무산을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놋저골’이라고도 한다.

논골 [골]

[위치] 대수리 가막골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서 ‘작은논골’이 이어진다.

놋저골 [골] → 노쪽골

느라골 [골]

[위치] 송안동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갯버들이 우거진 골짜기이다.

늪새골 [골]

[위치] 돼니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수새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새골(늪새)’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늪이 있으므로 늪새골이라고 하였다.

다리골 [골]

[위치] 삼성동 앞 신촌골에서 남동쪽 237.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 다리골저수지가 있고 그 위에 현 흥업자동차운전학원이 들어서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다리골(橋洞)’이라고 하였다.

대송(大松) [마을] → 대수리

대송동(大松洞) [마을] → 대수리

대송산(大松山) [산] → 덕가산

대수리 [마을]

[위치] 술미 남쪽, 대안저수지 남쪽 위에 있는 큰 마을을 말한다. 이 골짜기에서 가장 남쪽 위에 있는 마을로 마을 남쪽 끝에 노루재가 있다. 마을 안에 ‘타거리’, ‘앞말’, ‘백간말’이 있다. 한자로 ‘대송(大松)’, ‘대송동(大松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디슈리(大松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수리(대송大松, 대송리)’라 하였다.

[유래] ‘수리’는 높다는 뜻이므로 ‘대수리’는 ‘높은 곳에 있는 큰 마을’이란 뜻이다. 또는 큰 소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으므로 대송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술미 마을의 어원이 ‘수리(술)+미>술미’로 ‘미(<매<뫼)’는 산이므로 수리 마을 중 가장 큰 마을이라 ‘큰수리>대(大)수리’라 하였다. ‘수리’는 ‘수릿날’, ‘정수리’처럼 가장 높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한자로 ‘대송(大松)’이라 한 것은 ‘수리·술’을 음이 비슷한 ‘솔’로 본 결과이다.



「대수리 마을 ; 2019년」

대수리고개 [고개] → 고디기재

[위치] 고재미에서 서쪽으로 문막읍 비두리, 궁촌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디기재’, ‘태봉재’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475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태봉재(胎峯峙)’라 하였다.

[유래] 대수리 서쪽 뒤에 있으므로 ‘대수리고개’, 고재미 마을 위에 있으므로 ‘고디기재’, 태봉 서쪽 위에 있으므로 ‘태봉재’라고도 한다.

대수리재 [고개] → 동막재

[위치] 대수리 타거리에서 동쪽으로, 동막골을 지나 매지리 동막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동막재’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395m이다.

대수리주막 [주막]

[위치] 대수리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디슈리주막(大松里酒幕)’이라 하였다.

대안리공소 [성당]

[위치] 동돌미 남동쪽, 상승안동 마을에 있는 천주교 공소를 말한다.

[유래] 1892년에 개소한 천주교 공소이다. 건물은 1900~1906년에 초가로 지었으나 1970년대에 기와를 얹었다. 한국전쟁 때는 인민군 막사로, 전쟁 후에는 미군 구호물자 배급처로 이용되기도 했다. 현 건물은 1986년에 크게 보수를 하였다. 1900년대의 목조 한옥성당으로는 원주에서 유일한 곳으로, 등록문화재 제140호로 지정되었다.



「대안리공소 ; 2019년」

대안리도요지 [터] → 술미도요지

대안저수지 [못]

[위치] 술미 남쪽 위, 대수리 북쪽 아래에 있는 저

수지를 말한다. 저수지 동쪽의 덕가산 줄기와 저수지 서쪽의 명봉산, 거무산, 술미산 줄기의 물을 모은다. 남쪽 위에 노루재가 있다. 술미 마을 위에 있으므로 ‘술미저수지’, 술미에 점촌이 있었으므로 ‘점촌저수지’라고도 한다.

[내용] 1962년에 준공하였다.



「대안저수지 ; 2019년」

대안천(大安川) [내]

[위치] 덕가산과 명봉산 사이의 노루재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흘러 대안저수지에 머물다가 대안리 중심부를 지나 사제리 사제울 앞 신촌에서 서곡천으로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대안천(大安川)’이라 하였다.

[유래] 대안리를 관통하므로 대안천이라 하였다.

대안초등학교 [학교]

[위치] 대안리 1072, 은행정 마을 입구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63년에 대안국민학교로 개교하였고, 1995년 흥업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폐교되었다. 현재 원주푸드종합센터가 들어서 있다.



「대안초등학교터 ; 2019년」

대장간모퉁이 [모퉁이]

[위치] 대수리 마을 아래쪽에 있는 길모퉁이를 말한다.

[유래] 전에 대장간이 있던 곳이므로 대장간모퉁이라 하였다.

덕가동(德加洞) [마을]

[위치] 노루치북골 남동쪽, 덕가산 북서쪽 아래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덕가동(德加洞)’이라고 하였다.

덕가동들 [들]

[위치] 덕가동에 있는 들을 말한다. 노루치북골에서 남동쪽으로, 덕가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에 있는 들이다.

덕가산(德加山) [산]

[위치] 대안리와 매지리 사이 남쪽, 대송리 뒤에 있다. ‘대송산’, ‘덕봉산’, ‘영산(靈山)’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덕가산(德加山)’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가산(德加山)’이라 하였다.

[내용] 화전민들이 정착하여 산을 개간하여 살던 곳이다. 한국전쟁 때 국군과 미군, 인민군과 중공군 사이에 77번이나 교전을 할 정도로 전투가 치열하였다 한다. 결국 아군이 이겼으므로 ‘덕을 본 산>덕본산>덕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덕고개 [고개] → 덕재

덕고개골(1) [골] → 덕재골

덕고개골(2) [골]

[위치] 상해삼터에서 남동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는 매지리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와 매지저수지가 있다.

덕봉산(德峰山) [산] → 덕가산

덕재 [고개]

[위치] 술미에서 남동쪽 매지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매지리 동막골이 있다. 고개 높이는 265m이다. ‘덕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덕고기(德峴)’라고 하였다. 『한국지

명총람』에 ‘덕재’라 하였다.

덕재골 [골]

[위치] 술미에서 남동쪽으로, 덕고개로 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덕고개골’이라고도 한다.

도야니 [마을] → 돼니

도야니치 [고개] → 돼니고개

도야니현(都也尼峴) [고개] → 돼니고개

돌골 [골]

[위치] 돼니 남쪽, 수평들에서 남서쪽 237.2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돌미 [마을]

[위치] 돼니 마을 동쪽 승안천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동돌미(東堧村)’라고 하였다.

[유래] 등돌(혼자서 등에 질 수 있는 크기의 돌)이 있는 산마을이란 뜻에서 유래하였다.

[풀이] ‘등+돌+미(산)>등돌마>동(東)+돌(石)+미(山)>동돌미’가 되었다. 기록된 한자로 보면 돼니 마을에서 보아 동쪽에 있는 돌산 마을이란 뜻이다. 그러나 돌을 등으로 졌다는 마을 유래에서 보면 돌을 지는 등의 윗부분인 ‘등덜미’, ‘등돌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돌미 마을 : 2019년’

동돌미들 [들]

[위치] 동돌미 마을 앞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동돌미보 [보]

[위치] 동돌미들에 있는 승안천의 보(洑)를 말한다.

동막골 [골]

[위치] 대수리 타거리 마을 동쪽 내 건너에서 동쪽으로, 대수리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잔대골 남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너머에 매지리 동막골이 있다.

동막재 [고개]

[위치] 동막골 동쪽을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매지리 동막골이 있다. ‘대수리재’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395m이다.

동화산(桐華山) [산] → 문막읍 동화리 동화산

[위치] 돼니골에서 문막읍 동화리 사이에 있는 마을 뒷산을 말한다.

돼니 [마을]

[위치] 거무산 북쪽 아래, 사제울 남서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되안이’, ‘승안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되야니(升安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되안이(승내升內·승안升安·승안동升安洞)’라고 하였다.

[유래] 지형이 되처럼 생긴 안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되안이>돼니’라 하였다.

[내용] 마을 지형이 되처럼 생겼는데 마을이 그 안쪽에 있다고 하여 ‘도야니·되안이·돼니’ 등으로 불렸고 이를 한자로 ‘승내(升內)·승안(升安)’이라 하였다.

[풀이] 되의 안쪽이라고 하여 ‘되(升)+안(內)+아>되안이>돼니’가 되었다. ‘이’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승안(升安)·승내(升內)’의 ‘승(升)’은 ‘되’의 뜻을 적은 것이다. 여기서 ‘승안(升安)’의 ‘안(安)’은 ‘되안’의 ‘안’을 소리로 적은 것이고, ‘승내(升內)’의 ‘내(內)’는 ‘되안’의 ‘안’을 뜻으로 적은 것이다.



「돼니 마을 : 2019년」

돼니고개 [고개]

[위치] 돼니에서 서쪽으로 문막 동화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도야니현’, ‘도야니치’, ‘돼뒷골’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되야니지(升安里峴)’, ‘되안니고개(升安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되니고개(도야니현)’라 하였다.

[내용] 문막읍 동화리와 흥업면 대안리를 잇는 고개로, 현재 임도가 나 있다. 고갯마루 정상에 돼니서낭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고개 밑 골짜기는 ‘돼뒷골’이라고 부른다.

돼니고개는 원주 강원감영에서 서울로 가던 고개로, 1700년 이후 이 길이 폐쇄되고 질마재를 이용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도야니현(都也尼峴)으로 ‘고을 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에 같은 이름으로 고을 남쪽 20리로 기록하였고 『여지도서』에 도야니치(道也尼峙)라고 하여 ‘흥원으로 향하는 길이지만 지금은 없어지고 안현(鞍峴; 질마재)으로 다닌다.’라고 하였다. 『원주읍지』에는 ‘고을 서쪽 20리에 있으며 흥원(興原)으로 가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져 안치(鞍峙; 질마재)로 옮겼다.’고 하였다. 『1872년지방지도』에 도야니치가 표시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되야니’ ‘升安里’로, 『한국지명총람』에 ‘되니고개(도야니현)’라고 하였다.

감영에서 흥원창으로 가는 옛길은 ‘감영>너더리>범파정>돼니고개>좁은목>물구비>모산고개>노림>흥원’ 길이었다. 『동국여지』(1656)에 이 길이 나오고 『여지도서』(1765)에 이 길을 폐쇄하고 질마재로 다닌다고 하였으므로 이 길은 1700년 전후에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길이 폐쇄된 후에 흥원으로 가는 길은 ‘감영>만종>질마재>마라우>안창앞>등안고개>물구비>모산고개>노림>흥원창’ 노선이었다.

돼니골 [골]

[위치] 돼니마을에서 돼니천을 따라 북서쪽 돼니고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마을 뒤에 있으므로

‘돼뒷골’이라고도 한다.

돼니성황당 [당]

[위치] 돼니고개 고갯마루에 있던 성황당을 말한다. 지금은 없어지고 돌무덤의 흔적만 남아있다.

돼니장승 [장승]

[위치] 돼니 마을 입구에 있는 돌장승을 말한다.

[내용] 당집은 없이 숲에 지하대장군이란 돌비석을 모시고 있다. 격년으로 음력 3월 3일에 장승제를 지낸다. 원래 새 나무를 깎아 장승과 솟대를 세웠으나 1950년대부터 돌로 장승의 비석을 세웠다. 천하대장군은 돼니천 오소리방골 앞에 있다.



「돼니장승(지하대장군) : 2019년」



「돼니장승(천하대장군) : 2019년」

돼니저수지 [못]

[위치] 돼니 북서쪽, 돼니골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현재 승안남시터로 운용되고 있다.

돼니주막 [주막] → 주막거리

[위치] 돼니 마을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

지리지』에 ‘되안니주막(升安里酒幕)’이라 하였다.

돼니천 [내]

[위치] 돼니고개에서 동남쪽으로, 돼니골을 지나 대안천으로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돼뒷골 [골] → 돼니골

되니고개 [고개] → 돼니고개

되안이 [마을] → 돼니

되안이고개 [고개] → 돼니고개

등지골 [골]

[위치] 석장골 남쪽 위에서 동쪽으로, 277.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범송골 서쪽 맞은편에 있다. 골 입구에 현재 원주제재소가 들어서 있다.

뒷골(1) [골]

[위치] 술미 마을 술미재골에서 갈라져 북서쪽의 35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빠른 재골 북쪽, 사방터골 남쪽 사이에 있다. 골 입구에 대안리도요지가 있다.

뒷골(2) [골]

[위치] 거무산 마을 서쪽 뒤, 오금정골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뒷자지봉 [산]

[위치] 중해삼터 동쪽, 자지봉 서쪽에 있는 285.3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동쪽에 자지봉이 있다.

[유래] 흥대에서 보아 자지봉의 뒤쪽에 있으므로 뒷자지봉이라 한다.

말임골 [골]

[위치] 대수리 아흔집자리들 동쪽 건너편에서 남동쪽으로, 상사나무골을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매남골 [골]

[위치] 은행정 동쪽 신촌에서 남동쪽 263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매지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매지저수지가

있다. 긴 골짜기에 들어 형성되어 있다. 『조선지
지자료』에 ‘미남골(梅南谷)’이라고 하였다.

매둥지 [들]

[위치] 술미 마을 앞에 있는 밭을 말한다. ‘매둥지’
라고도 한다.

[유래] 밭 모양이 매의 둥지처럼 둥그렇게 생겨서
매둥지라고 부른다고 한다.

매둥지 [들] → 매둥지

머루니 [들]

[위치] 하해삼터에서 사제리로 가는 길 북쪽에 있
는 논을 말한다.

[유래] 논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머루
니라고 하였다.

[풀이] ‘멀(遠)+논(畝)+이>멀논이>멀논이>멀룬이>멀
루니>머루니’가 되었다. 여기서 ‘이’는 명사형성 접
미사이다.

명남터골 [골]

[위치] 갈거리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우일E.R.S가 들어서 있다.

명마바우 [바위]

[위치] 술미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훌륭한 명마처럼 잘 생겼으므로 명
마바우라 하였다.

명봉산(鳴鳳山) [산]

[위치] 거무산 서쪽, 대안리와 문막읍과의 경계에
있는 높이 598.7m, 또는 그 북동쪽의 614.5m 산
을 말한다. 대안리와 문막읍 건등리, 궁촌리와 경
계를 이루는 산이다. ‘성판봉’이라고도 한다. 『신
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의 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명봉산(鳴鳳山)’이라 하
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명봉산(메나산)’이라고 하
였다.

[유래] 봉황이 깃들어 온 산이라고 하여 명봉산이
라고 하였다 한다. 또는 마을에 큰 일이 생기면 부

영이가 밤에 찾아와서 마을을 향해 울기 때문에 명
봉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백운산을 모산으로 한다. 치악산 남대봉에
서 남쪽으로 뺀은 능선이 서쪽으로 휘어져 백운산
을 이루고, 여맥이 북쪽으로 이어져 명봉산에서 솟
았다. 명봉산 정상에 대한 고증은 엇갈린다. 『1917
년지적도』에는 615m 봉우리라고 하였고 국토지
리원에서는 615m 봉의 남서쪽 599m 봉우리를 명
봉산으로 표기하였다. 현재 등산객들은 598.7m를
명봉산 주봉(主峰), 614.5m 봉을 명봉산 상봉(上
峰)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1872년지방지도』에 명봉산이 표시되어 있다. 『신
증동국여지승람』에 ‘고을의 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여지도서』 『강원도원주군읍지』에 ‘고
을의 서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지리지
자료』에 ‘금물산면 초일리(初一里)와 며내면 4리
와 7리에 있다.’고 하였다.

모래장골 [골]

[위치] 대수리 타거리 내건너에서 남동쪽으로, 높
이 45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문지방골 [골] → 방지방골

물레방아터 [터]

[위치] 갈거리 앞개울의 물레방아가 있던 자리를
말한다.

바랑산 [산]

[위치] 박달봉 남쪽, 동화산 북쪽 사이에 있는 높
이 324m의 산을 말한다. 돼니고개 고갯마루 바로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대안리와 사제리, 문
막읍 동화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풀이] ‘바랑’은 ‘벼랑’의 방언이다. 산에 벼랑이 있
으므로 바랑산이라 하였다.

박달나무골 [골]

[위치] 대수리 고재미앞들 건너편에서 남동쪽으로
56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가 가막골, 상사나무골 등 골짜기들의 입구로,

큰 들이 형성되어 있다.

[유래] 박달나무가 많아 박달나무굴이라 하였다.

방석소나무 [나무]

[위치] 거무산 마을 선왕동 마을에 있는 거무산서양의 소나무를 말한다.

[유래] 방석처럼 둥글고 넓적한 모양이므로 방석소나무라고 한다. 수령은 약 600년이다.

방지방굴 [굴]

[위치] 대안저수지 독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술미재골 남쪽에 붙어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문지방굴’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 입구에 방의 문지방 같은 턱이 있으므로 방지방굴, 문지방굴이라 하였다.

백간말 [마을]

[위치] 대수리 마을 중 남쪽 불당골 앞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 앞에 술경지들이 있다.

백두고개 [고개] → 백토고개

백토고개 [고개]

[위치] 은행정에서 북쪽 승안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백두고개’라고도 한다.

[유래] 도자기를 굽는 백토가 많이 나므로 백토고개라 하였다.

버덩들 [들]

[위치] 갈거리에서 북쪽으로 내를 따라 길게 나 있는 들을 말한다. 명남터골과 범송골 입구로 이어져 있다.

범바우 [바위]

[위치] 술미에서 남쪽 대수리로 가는 산중턱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호랑바우’라고도 한다.

범바우골 [골]

[위치] 노루치북골 북쪽 아래에서 남동쪽 덕가산 줄기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큰 골짜기를 말한다. 영산재골 동쪽, 작은논골 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범송골 [골]

[위치] 갈거리 북쪽 아래 버덩들에서 남동쪽으로, 34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등지골 동쪽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보들(1) [들]

[위치] 은행정들 동쪽 맞은편에 있는 들을 말한다. 신촌 마을, 매남골 입구에 있는 들이다. 이육고개 아래에 있다.

보들(2) [들]

[위치] 대안저수지 남쪽 위로 좁게 난 들을 말한다. 타거리 마을까지 이어진 골짜기로, 대안로를 따라 동쪽 아래로 난 들이다.

봇들 [들]

[위치] 동돌미 동쪽 대안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승안천과 대안천, 돼니천이 만나는 곳에 발달한 들이다.

본금물산(本今勿山) [마을]

[위치] 거무산 마을을 말한다. 금물산면 당시에 이 마을을 ‘본금물산’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번거무산(本今勿山)’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거무산(본금물산)’이라 하였다.

부채바우 [바위]

[위치] 거무산 마을 뒤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의 모양이 부채를 펼친 것 같으므로 부채바우라 하였다.

불당골 [골]

[위치] 대수리 백간말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서 아흔집자리들을 만나 터득골로 이어진다.

비룡산(飛龍山) [산] → 빠론재

[유래] 빠론재의 다른 이름이다. ‘빠론’을 음차하여 ‘비룡’이라 하였다.

비석거리 [길]

[위치] 돼니 마을 입구의 비석이 있는 길을 말한다.

다. 옛 주막거리의 다른 이름이다.

[유래] 일제강점기 권재식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쌀과 돈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산모, 병자, 효자 등에게 선덕(善德)을 베풀었다는 공덕비를 세웠으므로 1970년대 이후 비석거리라 부른다.

삐론재 [고개] [산] → **삐론재**

뽕론재 [고개] [산] → **삐론재**

삐론재 [고개]

[위치] 삐론재 산 남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술미에서 남서쪽으로, 문막읍 궁촌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센츄리21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고개 높이는 480m이다.

[내용] 문막읍 궁촌리 사람들이 원주장을 보기 위하여 넘어 다니던 지름길이다. 문막읍 궁촌리 주민들은 ‘뽕론재’라고 부른다.

삐론재 [산]

[위치] 술미 서쪽, 명봉산 남쪽 능선에 있는 높이 486m의 산을 말한다. 대안저수지 서쪽 삐론재 골짜기 끝에 있는 산이다. ‘뽕론재’, ‘뽕론재’, 이를 음차하여 ‘비룡산’이라고도 한다. 산 남쪽에 삐론재 고개가 있다.

[유래] 산봉우리가 무척 뽕족하므로 ‘뽕론재>뽕론재, 삐론재’라고 하였다.

삐론재골 [골]

[위치] 술미의 술미재골에서 서쪽 삐론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술미 마을에서 가장 큰 골짜기이다. 골 안이 넓어 갈라져나간 골짜기가 많다. 가장 긴 골짜기는 남서쪽 645m 술미산을 향하고 있고 나머지도 모두 400~500m의 산줄기에 닿아 있다. 골 끝 삐론재 산 너머에는 명봉산 아래 궁말천, 센츄리21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사방터 [마을]

[위치] 사방터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지

자료]에 ‘사바터(四方堡)’라고 하였다.

사방터골 [골]

[위치] 술미 웃담에서 북서쪽 463.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술미의 큰 세 골짜기 중 가장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방터골 위에 ‘웃사방터’가 있고, 술미 마을 북쪽 아래에 ‘큰사방터골’과 ‘작은사방터골’이 있다.

사부랑양지 [마을]

[위치] 술미와 점촌 사이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유래] 사기를 굽던 마을로 양지쪽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사부랑양지라고 하였다.

사시나무골 [골]

[위치] 돼니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사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므로 사시나무골이라 하였다.

산시골 [골]

[위치] 대수리 앞말에서 서쪽으로, 554.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지박골 [골]

[위치] 대수리 앞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산지박 나무가 자라고 있으므로 산지박골이라 하였다.

삼막골 [골]

[위치] 노루재 북쪽 아래, 노루치북골 서쪽에서 북서쪽 469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물류단지와 엔투하이텍 등의 회사들이 들어서 있다.

삼재골 [골]

[위치] 타거리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막골 남쪽 바로 위에 있다.

상사나무골 [골]

[위치] 대수리 고재미앞들 동쪽, 박달나무골 입구에서 동쪽으로, 371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상사나무가 자라므로 상사나무골이라 하였다.

상승안동(上升安洞) [마을]

[위치] 동돌미 남서쪽 승안천 위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상승안동(上升安洞)’이라 하였다.

상해삼대(上海三垓) [마을] → 상해삼터

상해삼터 [마을]

[위치] 해삼터 마을 중 골짜기의 남쪽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남동쪽으로 이어진 덕고개골 너머에 매지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있다. ‘웃해삼터’, ‘상해삼대’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웃히삼터(上海三垓)’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상해삼대(上海三垓)’라 하였다.



「상해삼터 마을 ; 2020년」

상해삼터주막 [주막]

[위치] 웃해삼터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웃히삼터주막(上海三垓酒幕)’이라고 하였다.

새끼동막골 [골]

[위치] 술미 건너편 동막골 입구의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새말 [마을] → 신촌

새말들 [들]

[위치] 신촌 마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새말버덩 [들]

[위치] 신촌 새말들 위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새말보 [보]

[위치] 새말 앞에 있는 대안천의 보(洑)를 말한다.

새말저수지 [못]

[위치] 상승안동 남쪽 위에 있는 오래된 저수지를 말한다. 큰골과 노쪽골의 물을 모아 논에 물을 대고 북동쪽 승안천으로 흐른다. ‘승안저수지’라고도 한다.

서낭당고개 [고개]

[위치] 대수리에서 남쪽 비두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고개 중간에 서낭당이 있으므로 서낭당고개라고 하였다.

석애골 [골]

[위치] 거무산 서쪽 오금정골에서 갈라지는 세 골짜기 중 북쪽 44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에 채석장이 들어서 있다.

[유래] 석이버섯이 많이 나므로 석애골이라고 하였다.

석이바우 [바위]

[위치] 석애골에 있는 석이버섯이 나는 바위를 말한다.

석장골 [골]

[위치] 거무산 선왕동 남쪽, 오금정골 입구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등지골 북쪽 아래에 있다.

선왕동 [마을]

[위치] 거무산 마을 중 남쪽, 서낭당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오금정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서낭당이 있는 마을이므로 ‘서낭동>선왕동’이라 하였다.

설통바우 [바위]

[위치] 거무산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모양이 마치 벌통과 같으므로 설통바우라 하였다.

설통바우골 [골]

[위치] 거무산 마을 서쪽, 설통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술가지골 [골]

[위치] 대안저수지 남쪽 상류에서 서쪽으로, 64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술경지 [들] → 솔콩지

솔콩지 [들]

[위치] 대수리 앞에 있는 논을 말한다. ‘술경지’라고도 한다.

송이골 [골]

[위치] 대수리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송이버섯이 많이 나므로 송이골이라 하였다.

송이밭 [산]

[위치] 송이골이 있는 산을 말한다. 송이가 많이 나므로 가을에는 사람이 지키는 곳이다.

수두령골(1) [골]

[위치] 돼니 남쪽, 수두령골천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수두령골(2) [골]

[위치] 하해삼터 동쪽 개강지들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대안교차로가 있는 곳이다.

수두령골(3) [골]

[위치] 수두령골(2)에서 북쪽으로, 원수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대안로가 나 있다.

수두령골천 [내]

[위치] 돼니 마을 남서쪽, 거무산 북쪽에서 시작하여 북동쪽으로 흐르며 돼니마을 앞에서 돼니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수두령배미 [들]

[위치] 해삼터 뒤 수리동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논에 물자리가 있으므로 수두령배미라고 하였다.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수리동(水里洞) [골]

[위치] 상해삼터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고래실 자리가 많다. 『조선지리지』에 ‘수리동골(水裏洞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리동(水里洞)’이라 하였다.

수새골 [골] → 늪새골

수평들 [들]

[위치] 돼니 마을 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돼니천과 승안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다.

술미 [마을]

[위치] 거무산 남쪽 위, 대수리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술미산 북서쪽 밑, 대안저수지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에 ‘웃담’, ‘아랫담’, ‘중간담’이 있다. ‘술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술미(述山)’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술미(술산述山)’라고 하였다.

[유래] 높은 산 아래에 마을이 있으므로 술미라 하였다.

[풀이] 이 지역의 산들이 500~600m급으로 매우 높고 험하기 때문에 ‘높고 신성한’ 의미로 ‘거무산’, ‘술미’ 등의 지명이 생겼다. 이 지역 지명에 ‘술·수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술미·대수리(<대술)·술미천·술미산·술미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한자로 적는 과정에서 ‘술’을 ‘술’로 보아 ‘대송(大松)처럼 ‘松’으로 뜻을 적거나 ‘술미(述山)처럼 소리를 따라 ‘술(述)’로도 적었다.

‘수리(술)’는 ‘높은, 신성한’ 등의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정수리·수레너미·수리봉’ 등으로 쓰였다. 이 중 수리봉은 ‘매봉·응봉’ 등으로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술미’는 ‘술(수리)+미(<메<뫼>)술미’로 ‘높고 신성한 산’의 뜻이다.



「술미 마을 ; 2020년」

술미골 [골]

[위치] 대안저수지 남쪽 상류에서 남동쪽 33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매지리 동막골이 있다.

술미공소 [성당]

[위치] 대수리 타거리에 있는 옛 천주교 성당을 말한다.

[내용] 1956년에 설립되었다. 2001년에 부부의원 광병은 원장의 사재출연으로 갈거리에 신축하여 옮겼다.



「술미공소 ; 2020년」

술미도요지 [터]

[위치] 술미 웃담 서쪽 뒷골(1)에 있는 옛 도요지를 말한다. ‘대안리도요지’라고도 한다.

[내용] 현재 밭으로 경작중이다. 분청사기, 백자편, 도지미 등이 산재해 있다.

술미산 [산]

[위치] 술미 마을 남서쪽에 있는 높이 645m의 산을 말한다. 명봉산과 거무산 남쪽 줄기에 있다. 궁촌리에서는 이를 ‘오복동’이라고 부른다. 『한국지명총람』에 ‘술미(술산述山)’라고 하였다.

[유래] ‘높고 신성한 산’의 뜻인 ‘술미’에 산이 중복되어 술미산이 되었다. 또는 산모양이 영특하여 수리처럼 생겼으므로 술미산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술+미+산>술미산’이 되었다. ‘술(수리)’은 ‘크고 높은, 신성하다’는 뜻의 순우리말이며 ‘미’는 ‘되>매>미’로서 산을 뜻한다. ‘미’와 ‘산’은 같은 뜻이 중복된 것이다. 원래 산의 의미를 가진 ‘술미’가 마을 이름으로 정착되어 산의 의미를 상실하자 원래의 산인 ‘술미’는 ‘술미산’으로 하여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

술미성황당 [당]

[위치] 술미 웃담 북쪽 산 아래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10여 그루의 소나무 당숲 안에 성황당이 있다.

[내용]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당고사를 올리고 그 다음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양달편과 응달편으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였다. 1970년대 이후 폐지되었다.

술미앞들 [들]

[위치] 술미 마을 앞, 대안저수지 독 북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술미재 [고개]

[위치] 거무산 마을에서 서쪽으로, 술미천을 지나 문막읍 궁촌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명봉산 상봉 능선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센츄리21 골프장이 있다. 높이는 505m이다. ‘중고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술미지(述山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술미재’라 하였다.

술미재골 [골]

[위치] 술미 중간담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위쪽으로 뻗은재골과 이어진다. 고개 끝에 술미재가 있다.

술미저수지 [못] → 대안저수지

술미주막 [주막]

[**위치**] 술미 마을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 지리지자료』에 ‘술미주막(述山酒幕)’이라 하였다.

술미천(1) [내]

[**위치**] 술미 마을 서쪽 술미산 줄기에서 뿜온재골과 사방터골의 물이 모여 서쪽 술미 마을 앞을 지나 대안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술산천’이라고도 한다.

술미천(2) [내]

[**위치**] 거무산 마을 서쪽 거무산 산줄기의 큰골과 절터골의 물이 모여 서쪽으로 흐르며 거무산 마을 앞을 지나 대안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술산(述山) [마을] → 술미

술산천(述山川) [내] → 술미천

숯가마골 [골] → 쑥뱅이골

숯방골 [골] → 쑥뱅이골

승내(升內) [마을] → 돼니

승안(升安) [마을] → 돼니

승안늪시터 [못] → 돼니저수지

승안동(升安洞) [마을] → 돼니

승안저수지 [못] → 새말저수지

승안천 [내]

[**위치**] 거무산에서 북동쪽으로, 새말저수지, 상승안동을 지나 동돌미 앞 수평들에서 돼니천과 합류한 뒤, 대안천에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승지골 [골]

[**위치**] 승안동 윗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정낭골’이라고도 한다.

[**유래**] 도승지 벼슬을 한 사람의 묘가 있으므로 승지골이라 하였다.

시멘트골 [골]

[**위치**] 거무산 마을 뒤 오금정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석회석 광산이 있으므로 시멘트골이라 하였다.

신답골(新畓-) [골]

[**위치**] 대수리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새로 생긴 논자리가 있으므로 신답골이라 하였다.

신배나무골 [골]

[**위치**] 승안동과 은행정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신배나무가 자라므로 신배나무골이라 하였다.

신촌(新村) [마을]

[**위치**] 은행정 동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새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시말(新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신촌(新村)’이라 하였다.

[**유래**] 돼니 다음에 새로 생긴 마을이므로 새말이라 하였다.

심막골 [골]

[**위치**] 거무산 쑥뱅이골 중간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 북쪽 아래에 있다.

쑥대골 [골] → 쑥뱅이골

쑥배골 [골] → 쑥뱅이골

쑥뱅이골 [골]

[**위치**] 거무산에서 남동쪽 대안천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거무산 마을 동쪽에서 남동쪽, 높이 328m 봉과 36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이다. ‘숯가마골’, ‘탄방골’, ‘쑥대골’, ‘쑥배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숯방골(한방곡 漢方谷)’이라 하였다.

[**유래**] 숯을 굽던 가마가 있었으므로 ‘숯가마골·탄방골’이라 하였다. 또는 큰 쑥대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쑥대골·쑥배골·쑥뱅이골’이라 하였다.

[내용] 골 입구에서 가래터골이 갈라져 나가고 골 중간에서 심막골과 큰골이 다시 갈라져 나간다. 골 남동쪽 너머에 매지리 쑥뱅이골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있다.

아랫담 [마을]

[위치] 술미 마을 중 동쪽 대안천 가까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대안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다.

아랫마을 [마을]

[위치] 은행정 마을 중 북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하해삼터 서쪽 건너에 있다.

아흔집자리 [들]

[위치] 대수리 백간말 남쪽 위, 고재미 북쪽 아래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들 끝에서 불당골과 만나 터득골로 이어진다.

[유래] 밭이 커서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면 지게로 아흔 집이나 나오므로 아흔집자리라 하였다.

안말우물 [샘]

[위치] 대수리 마을에 있는 우물을 말한다.

안방바우 [바위]

[위치] 술미 마을 동쪽 건너편 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옛날 두 남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방과 같이 넓적한 바위 위에서 오줌 멀리누기 시합을 했는데 여자가 이겼다. 이후 여자가 앉았던 바위를 '안방바우'라고 하고, 남자가 앉았던 바위를 '웃방바우'라 불렀다.

앞들 [들]

[위치] 거무산 마을 북동쪽 앞, 대안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앞말 [마을]

[위치] 대수리 마을 중 산시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앞자리들 [들]

[위치] 대수리 앞말 동쪽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대수리경로당 남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약물탕 [샘]

[위치] 술미 마을 뒷산 범바우 밑에 있는 샘을 말한다.

[유래] 범바우 밑에 두 갈래로 갈라진 바위 틈 사이에서 샘물이 솟는다. 옛날 앓은뱅이가 와서 이 샘물을 먹고 병이 나아서 걸어 나갔다고 전한다.

약사암터(藥師庵-) [터]

[위치] 상승안동 새말저수지 남서쪽, 큰골(2)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거무산 북쪽 아래에 있다.

[내용] 새말저수지 남서쪽 위에 새로 들어선 펜션 마을과 거무산 사이 계곡의 중간에 있다. 석축이 남아있고 탑재와 불상 조각이 남아있다. 기록이 없어 창건 및 폐사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석탑재의 양식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 또는 고려 초기의 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약사암터 석탑 부재 : 1912년」



「약사암터 석축 및 석탑 부재 : 2014년」

약지장골 [골]

[위치] 상승안동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양반묘골 [골]

[위치] 대수리 뒷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안에 양반의 묘가 있으므로 양반묘 골이라 하였다.

여우박골 [골]

[위치] 술미 앞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여우가 자주 나왔다고 한다.

영산(靈山) [산] → 덕가산

[유래] 덕가산의 다른 이름이다. 영험하고 신령스런 신이 나타난다고 하여 영산이라고도 한다.

영산재(靈山-) [고개]

[위치] 대수리 남쪽 영산재골에서 덕가산 능선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덕가산을 넘어 양아치에 닿는다.

영산재골 [골]

[위치] 운산태실이 있는 태봉재에서 남동쪽으로, 덕가산 줄기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범바우골 서쪽에 있다.

오금정골 [골]

[위치] 거무산 마을에서 서쪽 거무산 산줄기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큰골, 절터골, 석애골이 갈라져 나간다. 『조선지리지』에 ‘오금정골(烏金井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옛날부터 이곳에 다섯 군데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오금정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오금정터 [터]

[위치] 오금정골에 있는 다섯 군데의 명당터를 말한다.

오복동 [산] → 술미산

오소리방골 [골]

[위치] 돼니골 입구 천하대장군장승이 있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수두령골천 북쪽에 있다.

웃물 [샘]

[위치] 상해삼터 마을에 있는 샘을 말한다.

[유래] 웃나무 뿌리에서 샘물이 나오므로 웃물이라 하였다.

왓둔지골 [들]

[위치] 동돌미 봇들에서 남서쪽 새말저수지를 향하여 난 들을 말한다. 동돌미 마을 남쪽에 있는 넓은 들이다.

[풀이] ‘왓+둔자+골>왓둔지골’이 되었다. ‘왓’은 ‘밭>밭>왓, 왓’으로 제주도에 많이 남아있는 지명소인데 원주에는 소초면의 ‘평장왓’에 남아있다. ‘왓둔지골’은 밭이 있는 언덕의 골짜기라는 뜻이다.

운산태실(雲山胎室) [유적]

[위치] 노루재 북쪽 아래 태봉재에 있는 태실을 말한다.

[내용] 쌍둥이 공주로 보이는 조선 효종 4년 숙휘(淑徽)와 5년 숙정(淑靜) 공주의 태를 안치한 곳이다. 이들 공주는 인조 20년(1642)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효종의 비 인선왕후 장씨이다. 태실비는 현종 3년(1662) 11월 25일 사시에 세웠다. 비가 파손되고 태실이 훼손된 것을 1993년에 복원하였다.



「운산태실 : 1994년」

웃담 [마을]

[위치] 사방터골 입구, 술미 마을 서쪽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뒷산에 당집이 있다.

웃목골 [골]

[위치] 은행정들에서 서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웃방바우 [바위] → 안방바우

웃봇들 [들]

[위치] 대안천 봇들 상류, 하해삼터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웃사방터 [마을]

[위치] 술미 사방터 마을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해삼터 [마을] → 상해삼터

웃해삼터주막 [주막] → 상해삼터주막

원수고개 [고개]

[위치] 흥업리 합포, 범파정에서 남서쪽 대안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풍년고개’라고도 한다.

[유래] 해삼터의 부자인 해삼이의 아내가 사람들의 발길을 끊기 위해서 남편 몰래 사람을 시켜서 고개의 혈을 끊으려고 땅을 파보니 피와 같은 물이 나오고, 그 후로 해삼이네 가문이 몰락하여 거지가 되었으며, 그의 아내는 연못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그 뒤에 이 고개를 원수고개라 하였는데, 지금은 해마다 풍년이 들고 모두 잘 사는 마을이 되기 위한 뜻으로 이름을 풍년고개로 고쳤다.

위더버더골 [골]

[위치] 가막골과 태봉앞골 사이에서 남쪽 노루치 북골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은행정(銀杏亭) [마을]

[위치] 거무산 마을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대안초등학교가 있던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은능정이(銀杏亭)’라고 하였다. 『1917년지적도』에 ‘은행촌(銀杏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은행정(銀杏亭)’이라 하였다.

[유래] 옛 대안초등학교 터 옆, 마을 한가운데에 수령 약 300년의 은행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어서 마을 이름이 되었다.

은행정들 [들]

[위치] 은행정 북동쪽 옆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옛 대안초등학교 북쪽 옆에 있다.

은행정서낭 [당]

[위치] 은행정 마을 안에 있는 은행나무를 말한다.

[내용] 수령 약 300년으로 마을 당산목이다. 은행정이라는 마을 이름이 이 나무에서 유래하였다.

이그터골 [골]

[위치] 대안저수지 남쪽 위에서 남서쪽 554.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술가지골 남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육고개 [고개]

[위치] 중해삼터에서 서쪽 은행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이 고개에 이끼(苔)가 많이 자라므로 이육고개라 하였다.

작은논골 [골]

[위치] 대수리 남동쪽, 논골 남쪽 위에서 남동쪽의 39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범바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늪새골 [골]

[위치] 하해삼대 북쪽 아래, 봇들과 웃봇들 사이에서 남서쪽으로, 195.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왓둔지골 남쪽, 큰늪새골 북쪽 사이에 있다. 골 서쪽 너머에 새말저수지가 있고, 골 입구에 새로 마을이 들어섰다.

작은사방터골 [골]

[위치] 술미 북쪽, 갈거리 서쪽 내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큰 사방터골에서 갈라져 남서쪽 사방터골 중간으로 향하는 골짜기이다.

작은청동막골 [골]

[위치] 은행정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청동막골(靑栗幕洞)’이라고 하였다.

잔대골 [골]

[위치] 대수리 타거리 마을 항골 동쪽 건너편에서 430m 봉우리를 향하여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동막골 북쪽 아래에 있다. 골짜기 너머에 매 지리 동막골이 있다.

잘개미봉 [산]

[위치] 수두령골 동쪽, 원수고개 남동쪽에 있는 높이 259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잘개미봉’이라 하였다.

[내용] 『한국지명총람』에 봉우리가 수려하다고 하였다.

장군터 [터]

[위치] 돼니에 있는 연개소문의 출생지를 말한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유래] 고구려 대장군 막리지 연개소문이 태어난 곳이라고 한다. 그는 대막리지가 되어 몸에는 항상 다섯 자루의 칼을 차고 다녔다고 전한다.

장수발자국 [터]

[위치] 작은늪새 냇가 큰 바위에 있던 길이 30cm 정도의 발자국 세 개를 말한다. 비석거리에서 해삼터 방향으로 400m 지점에 있다. ‘장수발짝개’라고도 한다.

[내용] 이 발자국은 고구려의 막리지 연개소문의 것이라고 전한다. 1999년 경지정리를 하면서 땅속에 묻혔다. 바위가 있던 자리에 ‘장수발자국’이라는 비석을 세웠다.



「장수발자국 표석 : 2019년」

장수발짝개 [터] → 장수발자국

장치(獐峙) [고개] → 노루재

전진바우(前進--) [바위]

[위치] 해삼터 동쪽 뒷자지봉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전진바우’라 하였다.

[유래] 한국전쟁 때 아군이 진을 치고 있었으므로 전진바우라 하였다.

절골 [골]

[위치] 돼니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오소리방골과 돌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옛날에 절이 있었으므로 절골이라 하였다.

절터 [터]

[위치] 돼니 마을 절골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내용] 지금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기와와 도자기, 백자 파편이 발견되고 있다. 절의 내력은 알 수 없다.

절터골 [골]

[위치] 거무산 서쪽 오금정골에서 갈라지는 세 골짜기 중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북서쪽 거무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절터골(寺坌谷)’이라고 하였다.

점말 [마을] → 점촌

점촌(店村) [마을]

[위치] 술미 마을 서쪽, 가마터가 있는 뒷골의 마을을 말한다. 지금은 없어졌다. 『조선지리지』에 ‘증말(店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점촌(店村)’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용기를 굽던 마을이므로 점촌이라 하였다.

점촌저수지 [못] → 대안저수지

정낭골 [골] → 승지골

주막거리 [마을]

[위치] 돼니와 동돌미로 갈라지는 곳, 현 버스정류

장 주변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내용] 돼니고개를 넘어 서울로 가던 길목에 있던 마을이다. 옛날에는 왕래가 많았으므로 주막이 일곱 채가 있었고 마방이 있었으며 해마다 음력 7월 7일에는 여기에서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1970년대 이후 비석거리로 불리고 있다.

중간담 [마을]

[위치] 술미 마을 중 웃담과 아랫담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술미재골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중고개 [고개] → 술미재

중해삼대(中海三岱) [마을] → 중해삼터

중해삼터 [마을]

[위치] 해삼터 마을 중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중해삼대’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중히삼터(中海三岱)’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중해삼대(中海三岱)’라 하였다.



「중해삼터 마을 ; 2020년」

집뒤골 [골]

[위치] 대수리 타거리에서 남서쪽으로, 앞말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대수리경로당 서쪽에 있는 들이다.

초당건너마을 [마을]

[위치] 해삼터 건너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옛날 글을 가르치던 서당이 있던 마을이다. 풀로 지붕을 이고 서생들을 가르쳤으므로 초당이라 하였다.

출령개 [들] → 충령개들

충령개내 [내]

[위치] 대안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충양기니(忠良浦溪)’라고 하였다.

[유래] 충령개들 옆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충령개내라고 하였다.

충령개들 [들]

[위치] 해삼터에서 은행정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충성개’, ‘출령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충양기뜰(忠良浦坪)’라고 하였다.

[유래] 충성스럽게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개 무덤이 있던 들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풀이] ‘충령, 출령’의 어원을 밝히기 어려우나 ‘개’를 포(浦)라 한 것으로 보아 개(犬)가 아니라 내(川)와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개 무덤 이야기는 후에 지어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충령개보 [보]

[위치] 충령개들에 있는 대안천의 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충양기보(忠良浦湫)’라고 하였다.

충성개 [들] → 충령개들

큰골(1) [골]

[위치] 거무산 마을 서쪽 오금정골에서 절터골, 석애골과 갈라져 북서쪽 명봉산 상봉(614.5m)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명봉산 상봉(614.5m)은 주봉(598.7m) 북동쪽 옆, 거무산의 서쪽에 있는 산이다. 봉우리의 전망이 좋지 않으므로 현재는 주봉이 명봉산으로 불려지고 있다. 지금은 614.5m 봉을 명봉산 ‘상봉’, 598.7m 봉을 명봉산 ‘주봉’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큰골(2) [골]

[위치] 상송안동 새말저수지에서 남서쪽, 500.2m 거무산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약지장골과 노쪽골 중간에 있다. 골짜기 안에 약사암터가 있다.

큰골(3) [골]

[위치] 거무산 쑥뱅이골 중간에서 남쪽으로, 362m 봉우리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큰논자리들 [들]

[위치] 대수리 고재미 마을 남쪽, 고재미앞들에 붙어있는 들을 말한다. 고디기재 동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큰늪새골 [들]

[위치] 동돌미 봇들과 웃봇들 사이에서 남서쪽으로, 은행정 마을 뒤까지 난 긴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골 서쪽 옆에 작은늪새골이 붙어있다.

큰사방터골 [골]

[위치] 솔미 갈거리마을 서쪽 내 건너에서 북서쪽으로, 31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서 작은사방터골이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큰청동막골 [골]

[위치] 거무산 마을 느티나무에서 서쪽으로, 거무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청동막골(靑栗幕洞)’이라고 하였다.

타거리 [마을]

[위치] 대수리 마을 중 북쪽 아래, 황골 앞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탄방골 [골] → 쑥뱅이골재

태봉(胎峰) [산]

[위치] 대수리 노루재 북쪽 아래, 현 대안로 서쪽 옆에 있는 오뚝한 산봉우리를 말한다. 삼막골 북쪽 아래, 큰논자리들 남쪽 위에 있다.

[유래] 운산태실(雲山胎室)이 있으므로 ‘태봉’이라고 하였다.

태봉산(胎封山) [산]

[위치] 태봉 서쪽에 있는 높이 469m의 산을 말한다. 대수리고개(태봉재) 남쪽 능선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태봉산(胎封山)’이라고 하였다.

태봉앞골 [골]

[위치] 대수리 큰논자리들에서 노루재를 향하여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남쪽 입구에서 가막골이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간다. 골짜기를 따라 대안로가 나 있다.

[유래] 뒤에 운산태실(雲山胎室)이 있는 태봉이 있으므로 태봉앞골이라 하였다.

태봉재 [고개] → 대수리고개

통우물 [샘]

[위치] 거무산 마을에 있는 샘을 말한다.

[유래] 우물의 생김새가 통나무로 된 벌통같이 생겼으므로 통우물이라 하였다.

[내용] 우물 속에 둥근 구멍이 나있어 그 안쪽에서 샘이 솟아나고 있다. 가뭄에도 시원한 물이 줄지 않고 나오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풍년고개 [고개] → 원수고개

풍년약수 [샘]

[위치] 원수고개 아래에 있는 샘을 말한다.

하삼터 [마을] → 해삼터

하승안동(下升安洞) [마을]

[위치] 승안동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승안천 상류에 있는 마을을 ‘상승안동’, 하류에 있는 동돌미를 ‘하승안동’이라 부른다. 『한국지명총람』에 ‘하승안동(下升安洞)’이라 하였다.



「하승안동 마을 ; 2020년」

하해삼대(下海三垞) [마을] → 하해삼터

하해삼터 [마을]

[위치] 해삼터 세 마을 중 북쪽 제일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하해삼대’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아리히삼터(下海三垓)’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하해삼대(下海三垓)’라 하였다.



「하해삼터 마을 ; 2020년」

한방곡(漢方谷) [골] → 쑥뱅이골

해너미골 [골]

[위치] 술미 마을 서쪽, 뽕론재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저녁에 해가 질 때 이 골짜기 등성으로 해가 넘어가므로 해너미골이라 하였다.

해삼대(海三垓) → 해삼터

해삼터 [마을]

[위치] 은행정 아랫마을 동쪽 건너편 골짜기에 있는 마을들을 말한다. ‘상해삼터’, ‘중해삼터’, ‘하해삼터’가 있다. ‘하삼터’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해삼대海三垓’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이 마을에 해삼(海三)이란 부자가 살았는데 글을 잘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다. 해삼의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해삼터’라고 하였다 한다. 원주 전역에 분포하는 ‘손님 많은 부잣집’ 설화가 여기에서도 전하고 있다.

[내용] 해삼이 살던 마을을 ‘해삼터’로 부르다가, 지금은 ‘하삼터’로 부르고 있다. 2015년부터 피가

흘렀다는 그 고갯길에서 ‘해삼제’를 지낸다.

[전설] ①옛날에 이곳에 큰 부자이면서 글 잘하는 해삼이라는 선비가 살았다. 시문을 좋아하며 널리 벼를 사귀니 손님이 그칠 날이 없었다. ②힘든 아내는 스님에게 처방을 구하니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저 언덕을 끊으라 하였다. ③사람들이 언덕잔등을 파니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왔다. ④손님은 그쳤지만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여, 일 년이 못가서 망하였다. 해삼의 아내는 집 앞 큰 연못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헛가마골 [골]

[위치] 돼니골 안, 돼니저수지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사제리 가마골이 있다.

호랑바우 [바위] → 범바우

화양정들 [들]

[위치] 은행정 신촌에서 남동쪽으로 난 매남골의 들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화양정이들(華陽亭坪)’이라 하였다.

화양정보 [보]

[위치] 화양정들에 있는 보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화양정보(華陽亭淤)’라 하였다.

황골 [골]

[위치] 대수리 타거리 마을에서 서쪽으로, 554.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황토고개 [고개]

[위치] 술미 마을에서 대수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고개가 황토길이므로 황토고개라 하였다.

매지리(梅芝里)

[위치]

매지리는 흥업면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판부면 서곡리, 서쪽으로는 대안리, 남쪽으로는 귀래면 귀래리, 북쪽으로는 흥업리와 각각 접해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금물산면(今勿山面)의 이리(二里)·분사리(分四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무수막·세동·매남동·한촌·미촌·회촌·분지곡을 병합하여 매지리(梅芝里)라 하여 원주군 금물산면 매지리가 되었다.

1917년 면 이름을 금물산면에서 흥업면으로 바꾸어 원주군 흥업면 매지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으로 이름을 바꾸어 원성군 흥업면 매지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이름을 다시 바꿈에 따라 원주군 흥업면 매지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가 되었다.

[유래]

매남동(梅南洞)의 ‘매(梅)’자와 분지울(芬芝谷)의 ‘지(芝)’자를 따서 매지리(梅芝里)라 하였다.

가는골(1) [골]

[위치] 옛 석동거리와 앞골(2) 사이에서 동쪽으로 나 있던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현대아파트 105동과 106동 남쪽에 붙어있던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가 아주 작고 가늘므로 가는골이라 하였다.

[풀이] ‘가늘다’의 관형형 ‘가는’과 ‘골’이 결합하여 ‘가는+골>가는골’이 되었다.

가는골(2) [골]

[위치] 매지저수지 북쪽 둑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어둔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는골 [마을] → 세동

[위치] 가는골(1) 앞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재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다. 『조선지리지』에 ‘가근골(細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는골(세동·석동·석동거리)’이라 하였다.

[유래] 마을 뒷산에 가느다랗고 긴 골짜기가 있으므로 가는골이라 하였다. 가는골과 석동거리가 합쳐져 세동이 되었다.



「가는골 마을 ; 2020년」

가는골고개 [고개]

[위치] 세동에서 북쪽 무수막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가는골내 [내]

[위치] 가는골(1)에 있는 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세곡니(細谷溪)’라 하였다.

가다맛골 [골]

[위치] 분지울에서 남쪽으로, 백운산 줄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가담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다맛골’이라 하였다.

가담골 [골] → 가다맛골

가덕동(加德洞) [마을] → 더덕골

가리골 [골] → 흥업리 가리골

가리골재 [고개]

[위치] 가는골(세동)에서 북동쪽으로, 흥업리 가리골저수지 위 웃가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가리골로 넘어가므로 가리골재라고 하였다.

가맛골 [골]

[위치] 분지울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숲을 굽는 가마가 있었으므로 ‘가마골>가맛골’이라 하였다.

가재미골 [골]

[위치] 분지울 남동쪽, 구진골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가재가 많이 살고 있으므로 가재미골이라 하였다.

갈거리재 [고개]

[위치] 매남 쑥뱅이골에서 서쪽으로, 대안리 갈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305m이다.

갈미봉 [산]

[위치] 한촌 남서쪽, 매지천 건너에 있는 358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송이산 남서쪽에 있는 산이다.

[유래] 봉우리가 칼처럼 뾰족하게 생겼으므로 갈미봉이라 하였다.

[풀이] ‘갈+미+봉>갈미봉’이 되었다. ‘갈’은 ‘칼’의 옛말이며 ‘미’는 ‘뫼>메>미’로, ‘미’와 ‘봉’은 다 같이 ‘산’을 뜻한다.

갈미봉골 [골]

[위치] 송이산 북쪽, 동막골 남쪽의 사이에서 남서쪽 갈미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수자리

들 서쪽 내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감나무골 [골]

[위치] 현 연세대학교 기숙사 자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감나무가 있던 곳이므로 감나무골이라고 하였다.

[내용] 예부터 이곳에 명당이 있다고 하여 묘가 많이 들어섰다. 대부분 학교에 편입되었다.

갯골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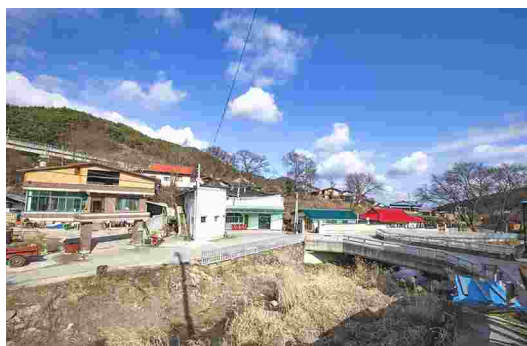
[위치] 본지울 남쪽의 맨 끝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가에 있다고 하여 갯골이라 하였다. ‘가(邊)+골>가골>갯골’이 되었다.

개건너 [마을]

[위치] 미촌 남쪽 매지천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서쪽 산 중턱으로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개건네’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개건네’라 하였다.

[유래] ‘개’는 물가를 뜻한다.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개건너 마을 : 2020년」

개건너들 [들]

[위치] 개건너 마을 동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개건너서낭 [당]

[위치] 개건너 마을 가운데 있는 서낭을 말한다.

[내용] 느티나무 네 그루 중 오래된 두 그루를 당

목으로 모시고 있다. 느티나무의 수령은 약 250년이다.



「개건너서낭 : 2020년」

개건네 [마을] → 개건너

거북바우 [바위]

[위치] 본지울 서쪽 골짜기 구진골과 용수골 사이의 중턱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모양이 거북처럼 생겼으므로 거북바우라 하였다. 거북이 머리를 제천 쪽으로 두면 제천이 부자가 되고 원주 쪽으로 두면 원주가 부자가 된다고 한다.

거북섬 [섬]

[위치] 매지저수지에 있는 섬을 말한다. 원래 벌매남 끝자락의 작은 동산이었는데 저수지가 생기면서 섬이 되었다.

[유래] 세동에서 보면 마치 거북이가 헤엄을 치는 모습이므로 거북섬이라 하였다. 섬 가운데 매지리 석조보살입상이 있다.



「거북섬 : 2019년」

걸몽재 [고개]

[위치] 분지울 웃담에서 북쪽으로, 은타니골을 지나 흥업리 밤골과 당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295m이다.

고사리골(1) [골]

[위치] 미촌에서 남동쪽으로 시루봉 줄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사리골(2) [골]

[위치] 개건너에서 북서쪽으로 대수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턱으로 임도가 나 있다.
[내용] 골짜기에서 채취한 광석에서 금 함량을 시험하던 작은 물레방아 금방앗간이 있었다.

고사리골 [마을] → 미촌

[위치] 한촌 남쪽, 회촌 북서쪽 아래, 고사리골(1)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미촌(薇村)이라 하였다.

고사리골내 [내]

[위치] 개건너 남서쪽, 고사리골(2)에서 남동쪽으로 흘러 매지천에 들어가는 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고사리골니(薇村溪)’라고 하였다.

고사리골주막 [주막]

[위치] 미촌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고사리골주막(薇村酒幕)’이라고 하였다.

골말 [마을] → 골매남

골매남 [마을]

[위치] 매남 마을 중 북쪽 골짜기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연세대학교 도서관, 학생회관, 학습관이 있는 자리이다. ‘골말’, ‘내매지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골미남이(谷梅南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골매남’이라 하였다.
[유래] 매남 중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므로 바깥 들판에 있는 ‘별매남(버덩매남)’과 구분하여 ‘골매남’이라 하였다.

곰골 [골]

[위치] 회촌 음지말에서 남쪽으로, 상바위를 지나 705.8m 봉우리를 향하여 길게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고개 너머 남쪽에 귀래면 귀래리 천은사가 있다. ‘곰골’, ‘움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공췌(孔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곰이 살았으므로 곰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지형이 우묵하게 파여 사방이 막힌 골이므로 ‘곰골’, ‘움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곳집거리 [마을]

[위치] 버덩매남 남쪽 동막골 입구, 곳집터가 있던 곳의 마을을 말한다.

공골 [골] → 곰골

공동묘지재 [고개]

[위치] 동막골에서 남쪽 잇고사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공동묘지가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광산골 [골]

[위치] 더덕골 남쪽에서 밤나무골 마을 남쪽 위로, 광산촌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광산촌(鑛山村) [마을]

[위치] 큰양아치 북쪽 아래 광산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재 복원로와 19번 충원대로가 지나가고 있다.

[내용] 일제강점기 도장골과 막골의 금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살던 마을이다. 20가구 이상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고 한다.

구렁덩이골 [골]

[위치] 분지울 배나무골에서 남동쪽으로, 분지울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웃담 동쪽, 분지울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렁자리들 [들]

[위치] 미촌 서쪽, 복원로 서쪽 옆에 있던 들을 말한다. 매지천과 복원로 사이에 있었으나 19번 충

원대로에 거의 다 편입되었다.

구억대(舊億臺) [산]

[위치] 거북섬 북동쪽, 가는골 북서쪽에 있는 높이 213m의 산을 말한다. 현 호수집 뒷산으로,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다. 산 서쪽 아래에 두텁바우가 있다.



「구억대 ; 2020년」

구전골 [골] → 구진골

구전골산 [산] → 구진골산

구진골(1) [골]

[위치] 무수막 도룡소에서 남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구전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구진골(九鎭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짜기가 항상 날이 꺾으므로 ‘꺾은골>구즌골>구진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예전에 이곳에서 전쟁이 아홉 번 일어났으므로 ‘구전골(九戰-)’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구진골(2) [골]

[위치] 세동에서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연세대삼거리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땅이 항상 질기 때문에 ‘꺾은골>구즌골>구진골’이라 하였다.

구진골보 [보]

[위치] 구진골(1)에 있는 분지천의 보(湫)를 말한다.

구진골산 [산]

[위치] 무수막 도룡소 남동쪽, 구진골(1) 끝에 있

는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구전골산(九戰--)’이라 하였다.

금광터 [터]

[위치] 큰양아치 북쪽 아래, 광산촌에 있던 광산을 말한다. 일제강점기에 금광이 있던 곳이다. 도장골과 막골을 중심으로 하여 금광이 약 열 군데 있었다고 한다.

금방앗간 [터]

[위치] 큰양아치 아래 광산촌에 있던 물레방아 금방앗간을 말한다.

[내용] 도장골과 막골의 금광에서 채굴한 광석을 빻던 곳이다. 공이가 열 개가 넘을 정도로 큰 방앗간이었다고 전한다.

깎은대이 [들] → 깎은데밭

깎은데밭 [들]

[위치] 고사리골 동쪽에 있는 밭을 말한다. ‘깎은대이’라고도 한다.

[유래] 화전을 하며 산을 깎아서 만든 밭이므로 ‘깎은데밭’이라 하였다.

꽃밭재 [고개]

[위치] 큰골 북서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대안리 덕재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 아래에 대안리 술미와 갈거리가 있다. 높이는 425m이다.

[유래] 높은 산등성이에 진달래와 철쭉이 많이 있으므로 꽃밭재라 하였다.

날근터 [마을]

[위치] 새동막골 입구, 날근터들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날근터(舊堡)’라고 하였다.

날근터들 [들]

[위치] 새동막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산밑밭들에 이르는 매지천 서쪽 옆의 밭을 말한다.

[유래] 전에는 못 쓰는 땅이었는데 개간하여 밭을 일구었다.

날근터보 [보]

[위치] 날근터들에 있는 매지천의 보(洑)를 말한다.

남근바우 [바위]

[위치] 큰양아치에서 덕가산으로 가는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마치 남근처럼 생겼으므로 남근석이라 하였다.

남산골 [골]

[위치] 분지울 중안담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원정버덩들이 있다.

내매지동(內梅地洞) [마을] → 골매남

[위치] 매남 마을 중 골매남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내매지동(內梅地洞)’이라 하였다.

너봉바우 [바위]

[위치] 분지울 북쪽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마치 넓은 지붕처럼 생겼으므로 너봉바우라 하였다. ‘넓은>너븐>너봉’으로 음운 변화하였다.

누운바우 [바위]

[위치] 큰양아치에서 덕가산으로 가는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비스듬하게 누워있으므로 누운바우라 하였다.

다래봉 [산]

[위치] 세동 동쪽 뒤에 있는 산을 말한다.

[유래] 산에 다래덩굴이 많으므로 다래봉이라 하였다.

당이골 [골] → 당재골

당재골 [골]

[위치] 회춘 읍지말에서 동쪽으로, 85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당이골(堂里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골 입구에 회춘성황당이 있으므로 당재골

이라 하였다.

대송산(大松山) [산] → 덕가산

대수리재 [고개] → 동막재

[위치] 매남 동막골에서 서쪽으로, 대안리 대수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대수리 타거리마을의 동막골이 있다. ‘동막재’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395m이다.

대안리고개 [고개]

[위치] 개건너에서 북서쪽으로, 고사리골을 넘어 대안리 대수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높이는 390m이다.

댕기골 [골]

[위치] 동막골 중간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간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모양이 댕기머리처럼 길게 생겼으므로 댕기골이라 하였다.

더덕골 [골]

[위치] 개건너에서 남쪽으로 큰양아치를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복원로와 19번 충원대로 동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더덕이 많이 나는 골짜기이므로 더덕골이라 하였다.

더덕골 [마을]

[위치] 개건너 남쪽 더덕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래더덕골’과 ‘웃더덕골’이 있다. 한자로는 ‘가덕동(加德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더덕골(가덕동加德洞)’이라 하였다.

덕가산(德加山) [산]

[위치] 큰양아치 서쪽, 도장골 남서쪽에 있는 높이 700.5m의 산을 말한다. 매지리와 비두리, 귀래면 귀래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대송산’, ‘덕봉산’, ‘덕화산’, ‘영산(靈山)’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덕가산(德加山)’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가산(德加山)’이라 하였다.

[내용] 화전민들이 정착하여 산을 개간하여 살던 곳이다. 한국전쟁 때 국군과 미군, 인민군과 중공군 사이에 77번이나 교전을 할 정도로 전투가 치열하였다 한다. 결국 아군이 이겼으므로 ‘덕을 본 산>덕본산>덕봉산’이라고도 한다.

[풀이] ‘덕’은 덕가산, 덕고산(소초면 교항리), 불은덕이(태장동, 가현동), 덕고개(태장동, 호저면 대덕리) 등으로 많이 나타나는 지명소이다. ‘덕장, 덕대(선반, 시령), 언덕·둔덕’처럼 ‘덕’의 어원적 의미는 ‘높은 곳’이다. ‘덕’자가 들어간 산들은 크고 우람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한자로는 대개 ‘德’으로 표기하였다.

‘덕+(ㅏ)+산>덕아산>덕가산, 덕화산’이다. ‘ㅏ’는 매개모음이며, ‘화’는 ‘가’의 음운이 강화된 것이다. ‘덕고산’의 ‘고’는 ‘ㅏ’음이 음운 변화된 것이다. ‘덕’에도 ‘높은, 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덕봉산(<덕+봉+산>)’은 ‘봉산되’처럼 같은 의미가 세 번 중첩된 것이다.

덕가산재 [고개]

[위치] 덕덕골에서 도장골을 거쳐 서쪽으로, 덕가산 북쪽 능선을 넘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는 문막읍 비두리 선돌마을이 있다. 고개 높이는 630m이다.

덕거리 [들]

[위치] 무수막 서쪽 앞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덕거리들’, ‘아래덕거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덕거리들(德巨里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거리’라 하였다.

덕거리들 [들] → 덕거리

덕거리보 [보]

[위치] 덕거리에 있는 분지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덕거리보(德巨里洑)’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거리보’라 하였다.

덕고개 [고개]

[위치] 골매남에서 북쪽으로, 덕고개골을 거쳐 흥업리 덕고개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대안리 해삼터 마을이 있다. 높이는 265m이다. ‘덕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덕고기(德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덕재’라고 하였다.

덕고개골 [골]

[위치] 골매남 모야내골에서 북쪽으로, 263m 봉우리를 향하여 이어진 골짜기를 말한다. 현 연세대학교 창조관과 학군단이 있는 골짜기이다.

덕봉산(德峰山) [산] → 덕가산

[유래] 한국전쟁 때 아군이 이겼으므로 ‘덕을 본 산>덕본산>덕봉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덕(德), 봉(峰), 산(山)이 모두 ‘높은 곳’, ‘산’을 뜻하는 지명소이다. ‘봉산되’처럼 동일한 의미가 세 번 중첩되었다.

덕재 [고개] → 덕고개

덕재산 [산]

[위치] 골매남 북쪽, 어둔골산 남쪽에 있는 298.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덕고개 동쪽 옆에 있는 산이다. 『조선지리지』에 ‘덕지산(德在谷)’이라고 하였다.

덕화산 [산] → 덕가산

덤바우 [바위]

[위치] 개건너 남서쪽 고사리골 입구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덤바위집 식당 앞에 있다.

[유래] 큰 바위들이 무덤처럼 포개어져 있으므로 덤바우라 하였다.

[내용] 옛 국도변에 있던 높고 큰 바위였으나 새 도로가 나면서 거의 다 해체되었고 골짜기는 메워져 바위 형태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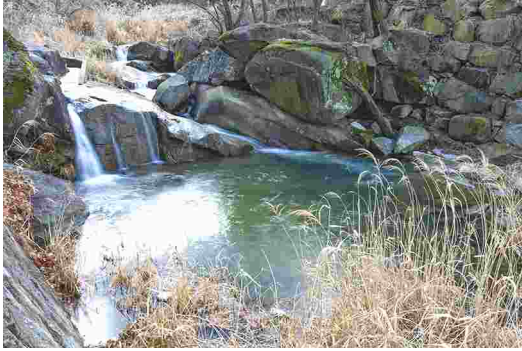
도룡소 [소] → 도룡소

도룡소 [소]

[위치] 무수막 남동쪽 위, 보맥이골 아래 분지천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도룡소’라 하였다.

[유래] 소에서 물이 돌아나가므로 도룡소라 하였다. 또는 용이 승천한 곳이어서 도룡소라 하였다 고도 한다.



「도룡소 ; 2020년」

도룡소바위 [바위]

[위치] 무수막 도룡소가 있는 곳의 큰 바위를 말한다.

도룡소보 [보]

[위치] 도룡소에 있는 분지천의 보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도룡소보(都龍沼淤)’라고 하였다.

도장골 [골]

[위치] 개건너에서 더덕골과 갈라져 남서쪽 덕가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19번 복원로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유래] 사방으로 둘러싸인 안방같이 아늑한 골짜기이므로 도장골이라 하였다.

[내용] 일제강점기에 이 골짜기에만 금광이 네 군데 있었다고 한다.

도장골천 [내]

[위치] 덕가산에서 북동쪽으로 도장골을 따라 개건너 앞으로 흐르는 내를 말한다.

독재골 [골]

[위치] 무수막 독재저수지 남동쪽 위의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군 사격장이 있다.

독재저수지 [못]

[위치] 무수막 웃덕거리골 위, 독재골 아래에 있던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지금은 메워져 없어졌다.

돌부처 [불상] →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동과나무골 [골]

[위치] 분지울 중안담 앞논들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은타니골이 있다.

[유래] 동과나무(동배나무)가 많이 자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동막골 [골]

[위치] 매남동 남쪽, 수자리들 서쪽 건너편에서 남서쪽으로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큰동막골 남쪽에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동막골(東幕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동막골(동막곡)’이라고 하였다.

[내용] 골짜기 끝에 동막재가 있다. 대안리로 넘어다니던 골짜기이다. 골 안에 동막골 마을이 있고, 동막재 너머에는 대안리 대수리 동막골이 있다.

동막골 [마을]

[위치] 동막골 안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동막재 [고개]

[위치] 매남 동막골에서 서쪽으로, 대안리 대수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너머에 대수리 타거리마을의 동막골이 있다. ‘대수리재’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395m이다.

동우정고개 [고개]

[위치] 매지리에서 판부면 서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동우정 암자가 있던 고개이다.

동우정터 [터]

[위치] 분지울 동쪽, 동우정 암자가 있던 터를 말한다.

두란지 [골]

[위치] 구진골(1) 끝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산목련이 자라는 골짜기이다.

[유래] 골짜기가 돌아앉아 있으므로 두란지라 하

었다.

[풀이] ‘돌아얏은(골)>돌안존(골)>도란지(골)>두란지(골)’이 되었다.

두레우물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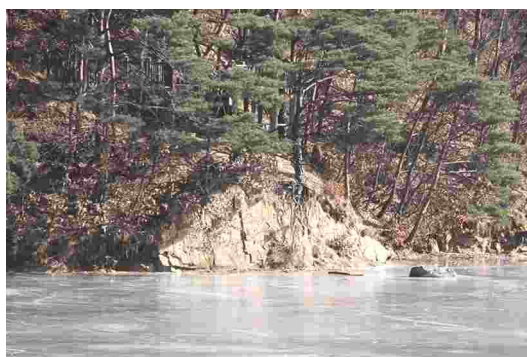
[위치] 주막거리와 안담 사이 마을 가운데 있던 우물을 말한다.

[내용] 초여름 우물을 청소하고 하룻밤을 재운 후 제를 지냈다.

두텁바우 [바위]

[위치] 거북섬 북동쪽, 구억대 서쪽 아래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매지천 옆에 있던 큰 바위였으나 지금은 저수지 안에 있다.

[유래] 둥그렇고 두꺼운 모양이 두꺼비를 닮았으므로 두텁바우라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자손을 낳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던 바위이다.



「두텁바우 : 2018년」

두텁바우내 [내]

[위치] 매지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두터바위니(蟪岩溪)’라고 하였다.

[유래] 거북섬 옆 개울에 두텁바우가 있었으므로 두텁바우내라고 하였다.

둔덕이골 [골]

[위치] 분지울에서 남동쪽으로, 원정버덩들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뒷골 [골]

[위치] 매남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연

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본관 등이 있는 골짜기이다. 논이 많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뒤숯(後谷)’이라고 하였다.

드랭이 [마을]

[위치] 회촌 남동쪽, 큰드령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큰드령’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드랭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 높은 곳에 논밭다랭이가 많아 ‘다랑이>다랭이>드랭이, 드랭이’라 하였다.

드령골 [골]

[위치] 회촌에서 남동쪽으로 오두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드령골’과 구분하여 드령골을 ‘작은드령골’이라고도 한다. ‘통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통골(通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논밭다랭이가 많은 곳이어서 ‘드령골’, 골짜기가 벌통처럼 둥글고 길게 뻗어 있으므로 ‘통골’이라고 하였다.

막골 [골]

[위치] 큰양아치 광산촌에서 서쪽으로, 덕가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일제강점기, 이 골짜기에 금광이 세 군데 있었다고 전한다.

매남골 [골]

[위치] 덕고개 남쪽, 매지저수지 서쪽, 매남동이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들어선 곳이다.

매남골 [마을] → 매남동

매남골큰밭 [들]

[위치] 매남골 뒤에 있던 큰 밭을 말한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편입되었다.

매남동(梅南洞) [마을]

[위치] 세동 서쪽 매지천 건너 둔덕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마을이 있던 곳에 현 연세대학교가 자리잡고 있고 마을의 26가구가 세동 남쪽 배나무

들로 이전하여 ‘새 매남동’이라 하였다. ‘매남골’, ‘매남이’, ‘매내미’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미남리(梅南里)’, ‘며닛둔지(彌乃屯地)’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매나미(매낫둔지, 매남동)’라고 하였다.

[유래] ‘매(<미>’는 옛말에 ‘내(川)’ 또는 ‘물(水)’을 뜻한다. 옛 중심 마을인 세동에서 보아 개울 건너에 있으므로 ‘매남이>매너미’라 하였고, 이를 한자로 ‘매남(梅南)’이라 하였다. 또는 현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매화낙지형의 명당이 있으므로 매남이라 하였고도 한다.

[풀이] ‘매남’의 유래는 분지울 매산의 남쪽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으나 ‘매산’은 이곳의 고유지명이 아니고, 분지울에서 보면 마을은 서쪽에 있으므로 맞지 않다.

‘매남, 매내미’의 ‘매’는 ①‘뢰(山)’ ②‘매(<미, 水>’, ③‘미(野)’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①의 경우 ‘산 너머’, 또는 ‘산 남쪽’은 마을의 위치나 지형으로 보아 합당하지 않고, ③의 경우도 들이 크게 발달한 곳이 아니므로 근거가 약하다. 따라서 ‘매남이’는 ②의 경우에 해당하여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조선지리지』의 ‘미남리(梅南里)’, ‘며닛둔지(彌乃屯地)’에서 ‘미(梅)’, ‘며닛(彌乃)’은 이것이 산이 아니라 물을 뜻하는 ‘미~매~미’였음을 보여준다. 옛날 이 지역의 중심 마을이었던 석동거리(세동)에서 보아 매지천 건너에 마을이 섰기 때문에 ‘미+넙+이>미넙이>매너미(매나미, 매내미)’가 되었다. 이를 한자로 적어 ‘梅南里’로 하였다. ‘매(<미>’가 ‘물’을 뜻하는 것은 ‘매홀:수원(水原)’, 호저면의 ‘물구리(<물굴):매호리(梅湖里)’, ‘호매(好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을 뜻하는 ‘매’는 대개 ‘梅’로 기록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매남이 [마을] → 매남동

매낫둔지 [마을] → 매남동

매내미 [마을] → 매남동

매내미개울 [내] → 매지천

[위치] 매지천의 다른 이름이다. 매내미 앞을 흐르므로 매내미개울이라고 하였다.

매봉재골 [골]

[위치] 분지울 웃담에서 남쪽으로, 500.1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매산(梅山) [산]

[위치] 분지울 남동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산매화가 많이 자라고 있다.

[유래] 원래 산 이름이 없었는데 매산사당이 들어오면서 산 이름을 매산이라 하였다. 또는 옛날에 한 나무꾼이 도끼로 매를 잡았다는데서 연유하였다고도 한다.

매산사(梅山祠) [당]

[위치] 분지동 매산 입구에 세워진 사당을 말한다.

[내용] 여주 이씨 매산공파인 이하진과 그의 후대를 모신 곳이다.



「매산사 ; 2020년」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불상]

[위치] 매지저수지 안 거북섬에 있는 불상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돌부처’, ‘미륵’이라 하였다. 원래는 저수지의 상류 논둑에 있었다고 한다. 먼 옛날에 장마로 떠내려 와 산266번지에서 발굴된 후 그 자리에 있다가 저수지를 만들며 물에 잠기게 되자 현 위치인 거북섬으로 이전하였다.

[내용] 화강암으로 된 높이 2.5m의 불상으로 강원

도 유형문화재 제120호이다. 고려시대 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당시 영서지방 불상의 특징을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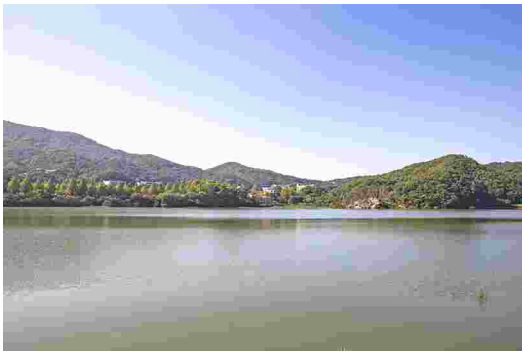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 1986년」

매지저수지 [못]

[위치] 무수막과 골매남 사이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동쪽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매지저수지’라 하였다.

[내용] 1962년에 막은 큰 저수지이다. 저수지 안에 거북섬과 두텁바우가 있고 섬 안에 불상이 있다. 못 둘레는 약 4km이다.



「매지저수지 ; 2019년」

매지천(梅芝川) [내]

[위치] 백운산 줄기인 오두치와, 덕가산 동쪽 양아치에서 발원하여, 매지리를 지나 북쪽으로 흘러 매지저수지에 머문 다음 흥업리 자감촌 앞에서 서곡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회춘 앞을 지나므로

‘회춘천’이라고도 하고 매남 앞을 흐르므로 ‘매내미개울’이라고도 한다. 길이는 10.7km이다.

명석바우 [바위]

[위치] 매남동 앞 매지천에 있던 바위를 말한다.

[유래] 크고 넓적한 바위로 명석을 펼쳐놓은 모양이므로 명석바우라 하였다.

메리돈 [마을]

[위치] 개건너 북쪽, 미촌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현 19번 복원로 미촌교 북쪽에 붙어 있는 마을이다.

모야내골 [골]

[위치] 매지저수지 거북섬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연세대 미래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야내밭 [들]

[위치] 모야내골 위 산 높은 곳에 있는 밭을 말한다. 현 연세대학교 미래관 북쪽에 있다.

못난이바우 [바위]

[위치] 큰양아치에서 덕가산으로 가는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선돌이 마치 돌고래처럼 못 생긴 얼굴 모습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못재 [고개] → 오두치

무수막(無愁幕) [마을]

[위치] 매지저수지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무수막삼거리가 있는 곳의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무수막(無愁幕)’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무수막(無愁幕)’이라 하였다.

[유래] 조선 말기 천주교 박해 때 신도들이 숨어들어와 물가에 막을 짓고 살았으므로 무수막이라 하였다. 또는 물이 많고 들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마을이라서 무수막(無愁幕)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무수막’은 물과 관련된 지명이다. ‘물’의 옛말 ‘못·뭇’이 ‘집·마을’을 뜻하는 ‘막’과 결합하

여 ‘뭇(ㅄ)+막>무수막’이 되었다. 이를 소리로 적어 ‘無愁幕’이라 하였다. 이 한자를 다시 풀이하여 ‘근심 걱정 없는’이라는 유래담이 생겼다.



「무수막 마을 ; 2019년」

물레방아터(1) [터]

[위치] 매지저수지 북쪽 독 아래에 있던 옛 물레방아가 있던 자리를 말한다. 무수막 서쪽, 아래덕 거리들 옆에 있었다.

물레방아터(2) [터]

[위치] 고사리골(2)에 있던 물레방아터를 말한다.

[내용] 덕가산 골짜기에서 채굴한 광석의 금 함량을 실험하던 작은 방앗간이었다.

미륵 [불상] →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미륵바위 [바위]

[위치] 큰양아치에서 덕가산으로 올라가는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모습이 마치 미륵이 서있는 모습이므로 미륵바우라 하였다.

미륵자리 [터]

[위치] 골매남의 냇가에 미륵이 묻혀 있던 곳을 말한다.

[내용] 미륵불상은 원래 거북섬 북쪽의 매지리 산 266번지에 있었으나 저수지 공사 때 마을사람들이 현재 자리로 옮겼다.

미촌(薇村) [마을]

[위치] 한촌 남쪽, 회촌 북서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고사리골’이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미촌(薇村)’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고사리골(薇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고사리골(미촌薇村)’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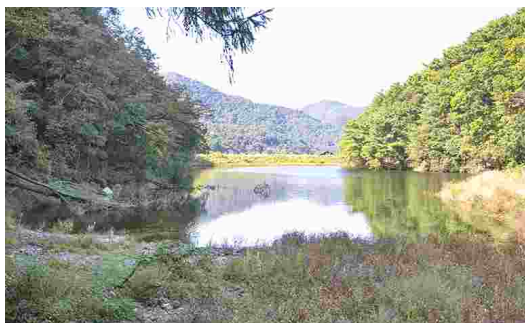
[유래] 고사리가 많이 나므로 고사리골이라 하였다. 지금도 잇고사리골에는 고사리가 많이 난다고 한다.



「미촌 마을 ; 2019년」

미촌저수지 [못]

[위치] 미촌 남쪽, 개건너 동쪽 아래에 있는 매지천의 저수지를 말한다. 회촌에서 내려오는 회촌천의 물을 모은다. ‘회촌저수지’라고도 한다.



「미촌저수지 ; 2019년」

바른골 [골]

[위치] 무수막 독재골에서 남쪽으로 이어져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오른쪽으로 난 골짜기이므로 바른골이라고 하였다.

반장이들 [들] → 반쟁이들

반장이보 [보] → 반쟁이보

반쟁이들 [들]

[위치] 미촌에서 북쪽으로, 복원로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북쪽에 ‘부자터들’이 이어진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반장이들(半場里坪)’이라고 하였다.

반쟁이보 [보]

[위치] 반쟁이들에 있는 매지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반장이보(半場員湫)’라 하였다.

밤나무고개 [고개] → 밤나무재

밤나무골 [마을]

[위치] 더덕골 마을 남쪽 위, 광산골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밤나무재 [고개]

[위치] 벌매남에서 골매남으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본부 앞,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길에 있던 고개이다. ‘밤나무고개’라고도 한다.

[유래] 밤나무가 많았던 곳이므로 밤나무재, 밤나무고개라 하였다.

밤나무재골 [골]

[위치] 밤나무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매지저수지에서 연세대학교 종합운동장, 대학본부로 올라가는 길에 있던 골짜기이다.

방구바우 [바위]

[위치] 버덩매남 동쪽 매지천에 있던 큰 바위를 말한다. 현 연세대학교 정문의 연지고 밑에 있던 바위로, 제방에 묻혀 없어졌다.

[유래] 이 바위에서 놀다보면 자주 방귀가 나오므로 방구바우라 하였다. 바위를 두드리면 북소리가 났는데 이는 마을의 도깨비터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도깨비 덕에 잘 살게 된 마을 부자가 있었는데 난리 통에 도깨비가 사라지고 부자도 망하였다고 전한다.

방석소나무 [나무]

[위치] 진파배기에 있던 소나무를 말한다.

[내용] 원래 있던 소나무 당목과 서낭당은 한국전쟁 때 불에 타 없어지고 아들 소나무인 이 소나무가 당목이 되었다. 잘 생긴 소나무였으나 택지개발로 놀이터로 옮겨졌다가 이후 고사하였다.

배나무골(1) [골]

[위치] 세동 남쪽 배나무들에서 남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매남동이 이전하여오면서 주택단지로 개발되었다.

[유래] 배나무가 있었으므로 배나무골이라 하였는데 택지가 개발되면서 없어졌다.

배나무골(2) [골]

[위치] 분지울 중안담 앞논들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배나무골’이라 하였다.

배나무들 [들]

[위치] 세동 남쪽, 한촌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배나무골(1) 앞, 버덩이들 동쪽에 있던 들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비나무들(梨坪)’이라고 하였다.

[유래] 배나무가 있던 배나무골 앞이므로 배나무들이라 하였다.

[내용] 옛 매남동 주민 26가구가 이전하면서 주택단지로 개발되었다. 새로운 마을 이름을 매남동이라고 하였다.

백운산(白雲山) [산] → 판부면 서곡리 백운산

백운천(白雲川) [내] → 서곡천

[위치] 서곡천의 다른 이름이다. 백운산에서 발원하므로 ‘백운천’이라고도 한다.

버덩매남 [마을] → 벌매남

버덩이들 [들]

[위치] 버덩매남 남동쪽, 매지저수지 상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연세대학교 첨단의료기기에테크노타워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벌매남 [마을]

[위치] 매남 마을 중 매지저수지 상류에 있던 마

을을 말한다. 현 연세대학교 기숙사, 종합운동장이 있는 자리이다. ‘웃담’과 ‘아랫담’이 있었다. ‘버덩매남’. ‘외매지동’이라고도 한다.

[유래] 골 바깥, 벌(들판)에 있던 마을이므로 골매남과 구분하여 ‘벌매남’, ‘버덩매남’이라 하였다.

범바우 [바위]

[위치] 범바우골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모습이 마치 범처럼 생겼으므로 범바우라 하였다.

범바우골 [골]

[위치] 한촌 남서쪽 매지천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송이재들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베틀바우 [바위]

[위치] 분지울 구진골(1) 안에 있는 낮은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옛날 전쟁 때 마을 사람들이 숨어살면서 베틀을 놓고 베를 짜서 입은 곳이라고 전한다. 실제로는 아주 낮아서 유래와는 다르다고 한다.

벼락바우 [바위]

[위치] 미촌 남서쪽, 시루봉 남쪽 산 중턱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벼락을 맞은 바위이므로 벼락바우라 하였다. 큰 바위 3개가 높게 포개어져 있었는데 벼락을 맞아 두 개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벼락바우골 [골]

[위치] 시루봉 서쪽, 벼락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벚섬바우 [바위] → 섬바우

병풍바우 [바위]

[위치] 매남골 서쪽, 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모양이 마치 병풍을 둘러놓은 것 같으므로 병풍바우라 하였다.

보들 [들]

[위치] 분지울 입구에 있는 작은 들을 말한다. 분지천 북쪽 산 아래에 있는 들이다.

보들논들 [들]

[위치] 분지울 보들 동쪽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중안담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보리수골 [골]

[위치] 매남동 마을 서쪽 뒷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보리수나무가 많이 자라므로 보리수골이라 하였다.

보맥이골 [골]

[위치] 무수막 웃덕거리골과 분지천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사격장이 있다.

복골 [골]

[위치] 회촌 양지말에서 북동쪽 59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복골(伏谷)’이라고 하였다.

[풀이] 보(淤)가 있는 골짜기이므로 ‘보+골>보골>복골’이 되었다.

붓도랑논 [들]

[위치] 한촌 서쪽 아래에 있는 논을 말한다.

[유래] 도랑에서 붓물을 대어 농사를 지으므로 붓도랑논이라 하였다.

붓들 [들]

[위치] 송이재들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매지천의 붓물을 대서 농사를 지으므로 붓들이라 하였다.

부라우들 [들]

[위치] 벌매남 동쪽 아래에 있던 들을 말한다. 매지저수지에 편입되어 물에 잠겼다.

부엉바우 [바위]

[위치] 매남동 서쪽 뒷산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밤이 되면 부엉이가 와서 울므로 부엉바우

라 하였다.

부자터들 [들]

[위치] 반쟁이들 북쪽, 한촌 서낭터들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분지동(芬芝洞) [마을] → 분지울

분지동고개 [고개]

[위치] 분지울에서 동쪽으로, 웃담을 지나 판부면 서곡리 후리절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후리절로 넘어가므로 ‘후리절고개’라고도 한다. 고개 높이는 305m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분지울고기(芬芝谷峴)’라고 하였다.

[내용] 『조선지리지자료』에는 ‘분지동고개’를 ‘분지울고개’라 하고, ‘분지울고개’를 ‘아래분지고개’라 하였다.

분지동공소 [성당]

[위치] 현 매산 이하진의 묘소 유역에 있던 옛 천주교 공소를 말한다.

[유래] 1880년경 덕가산에 살던 교우들에 의해 설립된 공소이다. 풍수원성당 소속으로, 원주교구에서 오래된 공소 중의 하나이다. 1890년경 용수골로 옮겼다가 교세가 확장되면서 1900년 초에 다시 후리사공소로 옮겼다.

분지울 [마을]

[위치] 무수막 남동쪽 분지천 중류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담’과 ‘중안담’이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분지동(芬芝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분지울(芬芝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분지동(芬芝洞)’이라 하였다.

[유래] 지초(芝草)가 많았으므로 분지울이라 하였다고 한다. ‘울’은 마을을 뜻한다.

분지울고개 [고개]

[위치] 분지울에서 배나무골을 지나 북동쪽으로, 서곡리 분지울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370m 북우리의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높이는 310m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아리분지고기(下芬芝谷峴)’라고

하였다.

[내용] 『조선지리지자료』에는 ‘분지동고개’를 ‘분지울고개’라 하고, ‘분지울고개’를 ‘아래분지고개’라 하였다.

분지천(芬芝川) [내]

[위치] 무수막 남동쪽 분지동고개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분지울, 무수막을 거쳐 매지저수지 북쪽 아래에서 매지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유래] 분지울에서 내려오므로 분지천이라 하였다.

불당재 [고개]

[위치] 매남동 서쪽 쑥골 중턱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전에 절이 있었으므로 불당재라 하였다. 지네가 많아서 스님들이 무서워하다가 절은 결국 망했다고 한다.

빨래도랑 [개울]

[위치] 세동 마을 앞에 있던 작은 도랑을 말한다. ‘옛날도랑’, ‘이장개울’이라고도 한다.

[유래]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흘러 사람들이 늘 빨래를 하던 곳이어서 빨래도랑이라고 하였다.

뽕코바우 [바위]

[위치] 큰양아치에서 덕가산으로 올라가는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모습이 코가 비뚤어진 얼굴 모습이어서 뽕코바우라 하였다.

사각모바우 [바위]

[위치] 고사리골 서쪽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마치 학사모처럼 사각으로 생겼으므로 사각모바우라 하였다.

사흘같이 [들]

[위치] 분지동 중안담에서 동쪽으로 웃담에 이르는 골짜기의 들을 말한다. ‘사흘거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사겸이들(四兼里坪)’이라고 하였다.

[유래] 밭이 커서 소로 사흘을 갈아야 하므로 사

흘갈이라 하였다.

사흘거리 [들] → 사흘갈이

산밑밭들 [들]

[위치] 구령자리 서쪽 매지천 건너 산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산지당골 [골]

[위치] 세동에서 남동쪽으로, 516.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입구에 현 원주 매지청솔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조선지리지』에 ‘산제당골(山祭堂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제당이 있던 곳이므로 ‘산제당골>산지당골’이라 하였다.

살구나무들 [들]

[위치] 무수막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들 한 가운데에 오래된 살구나무가 있었으므로 살구나무들이라 하였다.

삼밭골 [골]

[위치] 분지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삼농사를 짓던 골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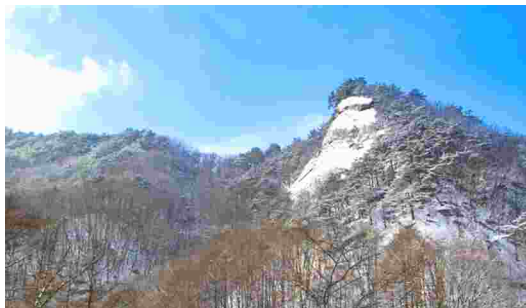
삼형제바위 [바위]

[위치] 덕가산 북쪽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가 세 개가 모여 있으므로 삼형제 바위라 하였다.

상바우 [바위]

[위치] 큰양아치 동쪽, 회촌 곰골 남쪽 끝에 있는 높이 625m의 바위봉우리를 말한다. 암벽의 수직 높이는 80m로 암벽 등반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상바우」; 2020년

새동막골 [골]

[위치] 산밑밭들에서 서쪽으로, 414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날근터 마을과 날근터들이 있다.

새말 [마을]

[위치] 회촌 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을 말한다. 현 토지문화관이 들어서 있다.

새매기 [들]

[위치] 분지울 앞 샘둔지에 있는 논을 말한다. 샘이 있어 물이 마르지 않는 고래실논이다.

샘골 [골]

[위치] 옷샘이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샘둔지 [들]

[위치] 분지울 앞에 있는 논을 말한다.

[유래] 샘이 있는 논이므로 샘둔지라고 하였다.

샘바우 [바위]

[위치] 미촌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 아래에 샘이 있으므로 샘바우라 하였다.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샘물을 퍼내면 비가 온다고 한다.

생강들 [들] → 생장어들

생장어들 [들]

[위치] 회촌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생강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침장이들(生場里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생장어들’이라 하였다.

[유래] 들 앞의 개울에서 뱀장어가 많이 잡히므로 생장어들이라 하였다.

생장어보 [보]

[위치] 생장어들에 있는 회촌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침장이보(生場員洑)’라고 하였다.

서곡천(瑞谷川) [내] → 판부면 서곡리 서곡천

서낭당골 [골]

[위치] 한촌 남쪽, 현 매지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선낭당이 골(仙娘堂谷)’이라 하였다.

서낭터들 [들]

[위치] 한촌 남쪽 서낭당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복원로 동쪽에 붙어 있는 들이다. 들 남쪽에 부자터들이 이어진다. ‘선양대들’이라고도 한다.

서리재 [고개] → 소리재

석동(石洞) [마을] → 세동

석동거리 [마을] → 세동

[위치] 가는골 마을 남쪽에 붙어있던 마을을 말한다. 현 연세대학교 정문, 매지청솔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석동’, ‘주막거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석동거리(石洞巨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는골(세동·석동·석동거리)’라 하였다.

[유래] 이곳에서 가는골, 매남, 한촌 세 마을로 길이 갈라지므로 석동거리라 하였다. ‘가는골’ 마을과 ‘석동거리’ 마을이 합쳐져 ‘세동(細洞)’이 되었다.



「석동거리 마을 ; 2020년」

석동거리주막 [주막]

[위치] 석동거리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주막이 네 채나 있었다고 전한다. 『조선지리지』에 ‘석동거리주막(石洞巨里酒幕)’이라고 하였다.

선바우 [바위]

[위치] 큰양아치에서 덕가산으로 올라가는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내용] 이 능선에는 선바위들이 많으므로 정확하게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선양대들 [들] → 서낭터들

섬바우 [바위]

[위치] 불당재 위, 현 연세대 매지캠퍼스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뱃섬바우라고도 한다.

[유래] 바위 모양이 마치 뱃섬을 쌓아놓은 것 같으므로 섬바우, 뱃섬바우라 하였다.

세곡내 [내] → 가는골내

세동(細洞) [마을]

[위치] 매지저수지 동쪽, 매지리에서 가장 큰 마을을 말한다. ‘가는골’과 ‘석동거리’가 합쳐져 이루어진 마을이다. 현재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다. ‘가는골’, ‘석동(石洞)’, ‘석동거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가근골(細洞)’이라고 하였다.

[유래] 뒷산으로 가는 가느다란 길이 있으므로 ‘가는골’, 한자로 ‘세동(細洞)’이라 하였다. 후에 ‘석동거리’와 마을이 합쳐지면서 ‘세동(細洞)’으로 정착되었다.

소가맛골 [골]

[위치] 분지울 남쪽 백운산 줄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소가맛골’이라 하였다.

소리재 [고개]

[위치] 무수막에서 세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현 호수집 동쪽, 현대아파트 북서쪽으로, 복원로가 나면서 고개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서리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소리기고기(鳶峴)’라고 하였다.

송이산 [산] → 송이재

송이재 [산]

[위치] 한촌 서쪽 맞은 편, 매지천 건너에 있는 높이 246m의 산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송이산(松蕒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산 모양이 마치 송이버섯처럼 생겼으므로

송이재라 하였다.

송이재들 [들]

[위치] 송이재 동쪽 아래, 매지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과 마을 사이로 충원로가 지나고 있다.

[유래] 전에 큰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송이재들이라 하였다. 개간을 하면서 모두 없어졌다.

송이재보 [보]

[위치] 한촌 앞, 송이재 동쪽 아래에 있는 매지천의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송이재보’라고 하였다.

송지골 [골]

[위치] 본지울 사흘갈이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매봉재골 동쪽 아래에 있는 골이다.

수자리 [들]

[위치] 한촌 북서쪽, 매지천과 충원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남쪽에 송이재들이 있고 북쪽에 버덩이들이 있다. 들의 대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었다. 『조선지지자료』에 ‘슈자리뜰(水自里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수자리’라 하였다.

[유래] 논에 수렁이 많이 있으므로 수자리라고 하였다.

수자리들 [들] → 수자리

수자리보 [보]

[위치] 수자리에 있는 매지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슈자리보(水自里洑)’라 하였다.

숯골 [골]

[위치] 매남동 마을 서쪽 뒷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숯을 굽던 곳이므로 숯골이라 하였다. 숲이 우거지고 골이 깊다.

시루메 [산] → 시루봉

시루메골 [골]

[위치] 한촌에서 남동쪽으로 시루봉을 향하여 난 큰 골짜기를 말한다.

시루메논 [들]

[위치] 한촌 마을의 시루메골 입구에 있는 논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시루되들(甌亩坪)’이라고 하였다.

[유래] 물이 많고 시루봉 밑에 있으므로 시루메논이라고 한다.

시루봉 [산]

[위치] 한촌 남동쪽, 시루메골에 있는 높이 590m의 산을 말한다. ‘시루메’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시루되(甌亩)’라 하였다. ‘되, 메, 미, 봉’은 모두 산을 뜻한다.

신작로갓골 [골]

[위치] 광산촌에서 남쪽으로 큰양아치에 이르는 골짜기를 말한다. 복원로 동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신작로 옆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신작로갓골이라 하였다.

쌍소나무터 [터]

[위치] 무수막 마을 입구,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 곳을 말한다. 그네를 매어놓고 놀이터로 쓰던 곳이다.

썰기골 [골]

[위치] 매남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참나무와 깨금나무에 썰기가 많이 살고 있으므로 썰기골이라 하였다.

쑥골 [골]

[위치] 매남동 버덩매남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현 연세대학교 세연1, 3학사와 매지3학사가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쑥골(蓬谷)’이라고 하였다.

쑥배골 [골] → 쑥뱅이골

쑥뱅이골 [골]

[위치] 덕고개골 입구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현 연세대학교 백운

관이 있다. 골짜기 서쪽 너머에 대안리 쑥뱅이골이 있다. ‘쑥배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숯방이골(炭幕谷)’이라고 하였다.

아가바우 [바위]

[위치] 동막골 입구 서쪽 능선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내용] 소리를 치면 아가바우에서 메아리가 크게 울려 나온다고 한다.

아래더덕골 [골]

[위치] 더덕골 중 북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아리더덕골(下加德洞)’이라고 하였다.

아래더덕골 [마을]

[위치] 개건너 남쪽 더덕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아리더덕골(下德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아랫더덕골’이라 하였다.

[유래] 더덕이 많이 자라므로 더덕골이라 하였고 더덕골 중 북쪽 아래에 있으므로 아래더덕골이라고 하였다. 남동쪽 위에 있는 마을은 웃더덕골이라 한다.



「아래더덕골 마을 : 2020년」

아래덕거리 [들] → 덕거리

아래덕거리논 [들]

[위치] 무수막 서쪽 버덩으로 덕거리 아래에 있는 논을 말한다. 무수막삼거리 서쪽에 있는 들이다.

아랫담(1) [마을]

[위치] 골매남에서 아래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아랫담(2) [마을]

[위치] 벌매남 중 동쪽 아래, 매지천 옆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내용] 저수지를 막으면서 웃담으로 마을을 옮겼다.

아홉마지기골 [골]

[위치] 더덕골 마을에서 남동쪽 웃더덕골 마을로 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아홉마지기구렁 [들]

[위치] 아홉마지기골에 있는 논을 말한다.

[유래] 아홉마지기나 되는 큰 논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안담 [마을]

[위치] 주막거리 동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앞골(1) [골]

[위치] 무수막에서 분지천을 따라 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앞골(2) [골]

[위치] 매지저수지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로, 가는골 북쪽에 붙어있다. 골짜기 끝에 독재골과 바른골이 있다. 현 현대아파트 입구 길에서 101동, 102동이 있는 곳이다.

앞논들 [들]

[위치] 분지울 중안담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서쪽 아래에 보들논들이 있고 동쪽 위에 배나무골이 있다.

애막골 [골]

[위치] 골말 안쪽의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어린 아이들을 묻은 골짜기이므로 애막골이라 하였다.

양아치 [고개] → 귀래면 귀래리 양아치

[위치] 매지리에서 귀래면 양아치로 가는 긴 고개를 말한다. ‘큰양아치’와 ‘작은양아치’가 있다. 매

지리 쪽에는 큰양아치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양아치재’라 하였다.

양지말 [마을]

[위치] 회촌 마을 중 북동쪽, 북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지말 마을 : 2020년」

어둔골산 [산]

[위치] 골매남 가는골 북쪽 끝에 있는 높이 326m의 산을 말한다. 산 너머에 흥업리 흥대가 있다.

[유래] 흥대의 어둔골 끝에 있는 산이므로 ‘어둔골산’이라 하였다.

여우고개 [고개]

[위치] 미촌에서 남동쪽 회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여우가 자주 나타났으므로 여우고개라 하였다.

열두마지기들 [들]

[위치] 매남동 뒷골 아래에 있는 넓은 논을 말한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편입되었다.

영사나무골 [골]

[위치] 한촌 앞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영사나무가 자라는 골짜기이다.

옛고사리골 [골] [마을] → 잇고사리골

옛날도랑 [도랑] → 빨래도랑

오두봉(烏頭峰) [산]

[위치] 회촌 동쪽에 있는 높이 964.6m의 산봉우리를 말한다. 북동쪽에 백운산이 있고 남서쪽에 오두치가 있다. 매지리와 서곡리, 충북 제천시 백운면과 경계가 되는 산이다. ‘조두봉’, ‘용수봉’이라고도 한다.

[유래] 까마귀가 머리를 들고 있는 형상이므로 오두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오두봉과 오두치를 이르는 이름들은 ‘오두봉·조두봉·용수봉·오두치·조두치·용두재’ 등이다. 이 이름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頭, 수(首))’로서 이는 곧 ‘머리’의 의미를 지닌 말로 ‘산봉우리’를 뜻한다. 조(鳥)는 오(烏)의 오기로 보이는데 ‘오(烏)’는 ‘가막, 가마귀’의 의미로서 ‘크다, 신성하다’는 뜻을 지닌 ‘곰’계열의 ‘감·가마·검’을 한자로 표기할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오두(烏頭)’는 우리말 이름 ‘감마루·가마마루’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크고 높은 봉우리’, 또는 ‘신성한 산봉우리’의 뜻으로 풀이된다.

오두재 [고개] → 오두치

오두재 [산]

[위치] 오두치 남서쪽에 있는 높이 868.5m의 산을 말한다.

오두치(烏頭峙) [고개]

[위치] 회촌 남동쪽, 큰드령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오두재·오두티·오두치고개·용두재·조두치·못재’라고도 한다. 높이는 710m이다. 『조선지리지』에 ‘오두지(鰲頭峙)’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오두재(오두치)’라고 하였다.

[유래] 오두봉 남서쪽 능선에 있으므로 오두치라 하였다.

[내용] 회촌에서 충북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제천시 백운면 오두재골이 있다.

오두치고개 [고개] → 오두치

오두티 [고개] → 오두치

오리나무골 [골]

[위치] 분지울 배나무골 끝에서 북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옥담 [마을]

[위치] 개건너 동쪽, 미촌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을 말한다.

웃나무골 [골]

[위치] 매남동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웃나무가 많으므로 웃나무골이라 하였다.

웃샘 [샘]

[위치] 세동 남쪽 배나무들에 있던 샘을 말한다. 새매남동의 택지개발로 없어졌다.

[내용] 큰 웃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샘물로 여름에도 차고 속병에도 효험이 있었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웃샘뜰 [뜰]

[위치] 웃샘 아래에 있던 뜰을 말한다.

와둔지들 [들]

[위치] 무수막 북서쪽, 북원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왓둔지’, ‘왜둔지들’, ‘왜똥지들’이라고도 한다.

[유래] 전에 기와를 굽던 자리가 있으므로 와둔지라 하였다.

왓둔지 [들] → 와둔지들

왜둔지들 [들] → 와둔지들

왜똥지들 [들] → 와둔지들

외매지동(外梅地洞) [마을] → 버덩매남

[위치] 매남둔지 바깥, 개울쪽 들판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용골 [골]

[위치] 분지울 원정버덩들에서 남동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용두재 [고개] → 오두치

용수봉(龍首峰) [산] → 오두봉

우재나무골 [골] → 은재나무골

음골 [골] → 곰골

웃담(1) [마을]

[위치] 분지울 마을 중 동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분지울고개 아래에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웃분지울(上芬芝谷)’이라 하였다.

웃담(2) [마을]

[위치] 별매남 중 윗쪽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웃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웃말(上村)’이라고 하였다.

[내용] 매지저수지를 막으면서 매지천쪽 별매남의 아랫담(2) 사람들이 위쪽으로 옮겨오면서 생긴 마을이었다.

웃더덕골 [골]

[위치] 더덕골에서 남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웃더덕골(上加德洞)’이라고 하였다.

웃더덕골 [마을]

[위치] 더덕골 마을에서 남동쪽 웃더덕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웃더덕골(上德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더덕골’이라 하였다.



「웃더덕골 마을 : 2020년」

웃덕거리골 [들]

[위치] 무수막 덕거리에서 동쪽 위로, 독재저수지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웃덕거리골’이라고도 한다.

웃말 [마을] → 웃담(2)

웃원정버덩들 [들]

[위치] 분지울 매산 묘원 동쪽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원정버덩들 [들]

[위치] 분지울 둔덕이골 동쪽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중안담 남쪽에 있다. 현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다.

윗고사리골 [골] [마을] → 잇고사리골

유덕거리골 [골] → 웃덕거리골

은골 [골] → 은타니골

은재나무골 [골]

[위치] 분지울 봇들 북쪽 위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우재나무골’이라고도 한다.

은타니골 [골]

[위치] 분지울 배나무골 중간에서 북쪽으로, 분지울고개(2)를 향해 난 골짜기를 말한다. ‘은골’, ‘은타이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은골(隱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전에 은광산이 있던 골짜기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은타이골 [골] → 은타니골

음개미골 [골] → 응개미골

음지말 [마을]

[위치] 회촌 마을 중 남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남쪽에 산이 있어 음지가 되므로 음지말이라 하였다.

응개미 [들]

[위치] 응개미골 안에 있는 좁은 논을 말한다.

[유래] 지형이 개미 가슴과 같아서 응개미라고 하였다.

응개미골 [골]

[위치] 매지저수지 북쪽 아래 아래덕거리들에서 북서쪽으로, 326m의 어둔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서쪽에 가는골(2)가 있다. ‘음개미골’이라고도 한다.

응개미재 [고개]

[위치] 응개미골에서 북쪽으로, 흥업리 현터(흥대)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이리(二里) [마을] → 매지리

이장개울 [내] → 빨래도랑

[위치] ‘빨래도랑’의 다른 이름이다. ‘예전개울’이 변해서 된 이름이라고 한다.

[풀이] ‘예전개울>이전개울>이장개울’로 음운 변천하였다. ‘예>이’의 현상은 ‘옛터골>이터골’, ‘옛고사리골>잇고사리골’ 등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잇고사리골 [골]

[위치] 미촌 남쪽에서 동쪽으로, 시루봉 줄기인 높이 581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옛고사리골(舊薇谷)’이라고 하였다.

[풀이] ‘옛고사리골>잇고사리골’이 되었다. ‘옛터골>이터골’과 같은 이치이다.

잇고사리골 [마을]

[위치] 미촌 마을 중 남쪽 위, 잇고사리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잇고사리골’이라 하였다.

작은골 [골]

[위치] 골매남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작은드령골 [골] → 드령골

[위치] 큰드령골 중간에서 오두봉을 향하여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큰드령골에 비

하여 작은 골짜기이므로 ‘작은드렁골’, ‘작은통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자근드렁이쑈(小坪谷)’이라고 하였다.

작은통골 [골] → 작은드렁골

재장골 [골]

[위치] 분지울 구진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재장골’이라 하였다.

[유래] 긴 고개를 넘어가는 곳에 있으므로 재장골이라 하였다.

쟁강이들 [들]

[위치] 회촌 남서쪽 아래, 미촌저수지 동쪽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저수지아래논 [들]

[위치] 매지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는 논을 말한다.

전나무밭 [들]

[위치] 매남동 마을 서쪽 뒷산 언덕에 있던 밭을 말한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편입되었다.

[유래] 밭 옆에 수령 200년이 넘는 큰 전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당자리라고 하였다.

전어치 [마을] → 회촌

전어치서낭당 [당] → 회촌성황당

전엇 [마을] → 회촌

조두봉(鳥頭峰) [산] → 오두봉

조두치(鳥頭峙) [고개] → 오두치

조서낭대이 [들]

[위치] 회촌과 더덕골 사이의 밭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조서낭당골(造城皇堂谷)’이라 하였다.

[유래담] 옛날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날이 무척 더워서 바지가랑이를 걸어 올리고 밭을 매고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던 스님이 이 광경을 뒤에서 보고 젊은 아낙네인줄 알고 수작을 걸었다. 이에 화가 난 조서방이 갑자기 핵 돌아서서 큰 소리를 치자 스님은 기겁을 하여 바랭이를 내던지고 줄행랑

을 쳤다. 조서방은 그 바랭이에 있는 시주받은 금덩어리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주막거리 [마을] → 석동거리

[내용] 주막거리에는 주막이 네 곳이나 있을 정도로 번성하였는데, 저수지가 생기면서 없어졌다.

중고개 [고개]

[위치] 구진골(1)에서 남쪽으로, 시루봉을 넘어 회촌으로 가는 긴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중고기(中峯)’라고 하였다.

중고개 [마을]

[위치] 회촌 마을 중 북동쪽 언덕배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중고개’라 하였다.

[유래] 중고개 아래에 있으므로 중고개라 하였다.

중고개버덩 [들]

[위치] 중고개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중사리골 [골]

[위치] 분지울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옛날 이곳에 중이 혼자 살며 도를 닦았으므로 중사리골이라 하였다.

중섬치들 [들]

[위치] 미촌 남쪽, 개건너 동쪽의 들을 말한다.

중안담 [마을]

[위치] 분지울 마을 중 웃담 서쪽 아래, 골짜기 중앙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진따배기 [들]

[위치] 옛 석동거리와 가는골 사이에 있던 들을 말한다. 현 매지청솔아파트와 복원로 사이에 있던 들이다. 지금은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유래] 예전에 이곳에서 진을 치고 싸웠다는 진따배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라 이곳의 밭을 진따배기로 불렀다고 전한다.

[풀이] ‘진따배기’는 전국에 분포하는 지명이다. ‘진을 치고 싸웠던 곳’, 또는 땅이 질어서 ‘진땅밭이’가 음운 변천하였다는 설, 바닷가 풍요제인 진포

배기라는 설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마을 입구 서낭당과 당목이 있었으므로 '짐대+박이>짐대박이>짐대배기>진따배기'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짐대'는 당간지주, 또는 마을 입구에 세우던 솥대를 말한다.

진밭 [들]

[위치] 한촌 마을 동쪽 위에 있는 밭을 말한다.

[유래] 부부가 밭을 매다가 마누라가 도망가도 모를 만큼 밭이 길므로 '진밭>진밭'이라 하였다. '간>진'은 구개음화에 따른 변화이다.

진배미 [들]

[위치] 분지울 아래에 있는 논을 말한다.

[유래] 항상 물이 고여 논이 질척하므로 진배미라 하였다.

차돌바위 [바위]

[위치] 미촌 마을 동쪽의 산등성이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오두치 산마루에 서 있는 바위로 차돌처럼 흰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행기를 타고 보면 잘 보인다고 한다.

참나무동오리 [산]

[위치] 별매남과 골매남 사이에 있는 산을 말한다. 참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한다.

청소(靑沼) [소]

[위치] 거북섬 아래에 있던 매지천의 소(沼)를 말한다. '청수'라고도 한다.

[유래] 병창 밑 냇물이 소용돌이치던 곳으로, 이곳에 사람이 빠지면 살아 나오지 못하였다고 한다. 시퍼런 물이 깊어 장마 때에는 귀신 소리가 났다고 한다.

청수 [소] → 청소

큰골 [골]

[위치] 매지저수지 서쪽, 현 연세대 종합운동장에서 남서쪽으로, 꽃밭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

한다. 『조선지리지』에 '쓴골(大谷)'이라 하였다.

큰동막골 [골]

[위치] 매남동에서 남서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서쪽 너머에 대수리가 있다. 골 입구에 연세대학교 청연학사가 있다.

큰드령 [들]

[위치] 큰드령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큰드령 [마을] → 드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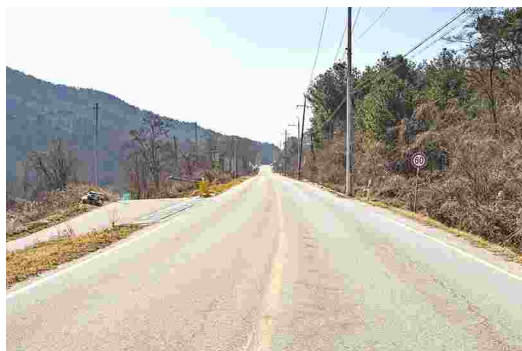
[위치] 큰드령골 중간에서 드령골과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드랭이'라고도 한다.

큰드령골 [골]

[위치] 회촌에서 회춘천을 따라 남동쪽으로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 오두치가 있다. '큰통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쓴드령이 썰(大坪谷)'이라고 하였다.

큰양아치 [고개] → 귀래면 귀래리 양아치

[위치] 양아치 고개 중 매지리와 귀래리의 경계가 되는 큰 고개를 말한다. 현 북원로의 매지파크 휴게소가 있고 19번 충원대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큰양아치지(大兩鞍峙)'라고 하였다.



「큰양아치 ; 2020년」

큰통골 [골] → 큰드령골

터논골 [골]

[위치] 분지울 마을 앞 보들에서 남서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통골 [골] → 드령골

팔배나무골 [골]

[위치] 미촌 서쪽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팔배나무가 많이 자라므로 팔배 나무골이라 하였다.

풍고개 [골]

[위치] 구진골 동쪽 백운산 줄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풍고개’라 하였다.

[유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므로 풍고개라고 하였다.

풍물자리 [터]

[위치] 회촌 마을 가운데 있는 터를 말한다.

[유래] 회촌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물을 치던 곳이다. 회촌은 예부터 농악이 유명하였다.

한어리 [마을] → 한촌

한어리보 [보]

[위치] 한촌 앞에 있는 매지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한느리보(汗村湫)’라고 하였다.

한촌(漢村, 汗村) [마을]

[위치] 세동 남쪽, 미촌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매지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이다. ‘한어리’, ‘한허리’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漢村’, ‘汗村’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한느리(汗村)’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한어리(한촌漢村)’라 하였다.

[유래] 산허리에 해당하는 중턱 양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한허리>한어리’라 하였다. 또는 마을 뒤 시루메골이 넓고 깊어 산허리처럼 잘록해 보이므로 한허리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한’은 ‘크다(大), 많다(多)’의 뜻으로, ‘큰 허리(大腰)’란 의미의 ‘한허리’가 ‘한허리>한어리’로 불리고 이를 한자로 적어 ‘한촌(漢村, 汗村)’이라 하였다. 한촌의 ‘漢·汗’은 원래 뜻과는 상관없이 소리를 적은 것이다. 산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턱에 마을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한촌 마을 ; 2019년」

한촌서낭 [당]

[위치] 한촌 마을 가운데에 있는 수령 약 430년의 느티나무를 말한다. 마을 당산목이다.



「한촌서낭 ; 2020년」

한허리 [마을] → 한촌

행성바우 [바위]

[위치] 매남동 서쪽 솟골 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거대한 모양이 마치 행상(상여)을 메고 가는 것 같으므로 행성바우라 하였다.

홀거리들 [들]

[위치] 분지울 배나무골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웃담 서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화전댕이 [들]

[위치] 회촌 남쪽의 산기슭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유래] 1960년대 산에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던 곳이므로 화전댕이라 하였다.

황새둔지 [들]

[위치] 골매남 북쪽에 있던 밭을 말한다. 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편입되었다.

[유래] 황새가 날아와 집을 짓고 사는 큰 나무가 있는 텃밭이므로 황새둔지라고 하였다.

황터고개 [고개]

[위치] 회촌 마을에서 서쪽 더덕골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회촌(檜村) [마을]

[위치] 미촌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양지말’과 ‘음지말’이 있다. ‘전엇’, ‘전어치’라고도 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회촌(檜村)’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즌넛(檜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전엇치(회촌檜村)’라고 하였다.

[유래] 전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으므로 ‘전엇·전어치’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적어 ‘회촌(檜村)’이라고 하여 정착되었다.



「회촌 마을 : 198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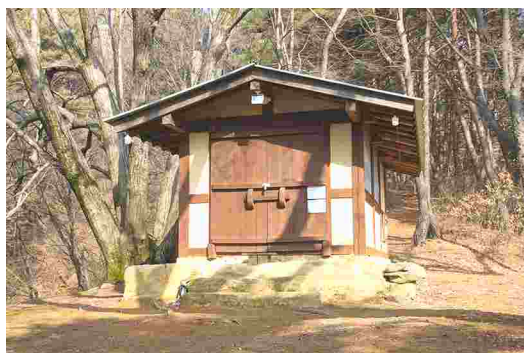


「회촌 마을 : 2020년」

회촌성황당 [당]

[위치] 회촌 마을 동쪽 산기슭에 있는 성황당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전어치서낭당’이라고 하였다.

[내용] 백운산신을 모시고 매년 음력 5월 5일에 당고사를 지낸다. 이곳 산신제는 일제강점기까지는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5~6명의 무당이 당굿을 한 큰 제사였다고 한다. 당 안에는 부부신을 그린 탕화를 모시고 남신은 위엄이 있는 젊은 신으로 호랑이를 잡고 있다. 당목은 피나무이다.



「회촌성황당 : 2020년」

회촌저수지 [못] → 미촌저수지

회춘천(檜村川) [내]

[위치] 매지천의 다른 이름이다. 회촌 남동쪽 오두봉에서 시작하여 회촌 앞을 지나 개건너에서 매지천에 합류하는 내를 말한다.

[유래] 회촌 앞을 지나므로 회춘천이라고 한다.

후리절고개 [고개] → 분지동고개

사제리(沙堤里)

[위치]

사제리는 흥업면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배부른산을 경계로 하여 무실동, 서쪽으로는 박달봉을 경계로 문막읍 동화리, 남쪽으로는 대안리, 북쪽으로는 서곡천을 경계로 하여 호저면 만종리·지정면 보통리와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사제면(沙堤面)의 분7리(分七里)·분8리(分八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등골·북거리동·봉현·삼성동·광터·무내·뒷골·봉미동·요골·복시울을 병합하여 사제리(沙堤里)라 하고 금물산면(今勿山面)에 편입하여 원주군 금물산면 사제리가 되었다.

1917년 금물산면에서 흥업면(興業面)으로 면 이름을 바꾸어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으로 이름을 바꾸어 원성군 흥업면 사제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이름을 다시 바꿈에 따라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가 되었다.

[유래]

예부터 서곡천에 긴 제방이 있었으므로 ‘사제(沙堤)+울>사제울’이라 하였다. ‘울’은 ‘골·굴’ 등과 같은 계열의 언어로 ‘마을’을 뜻한다. 하천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모래가 많고 예부터 사금이 나오는 곳이었다고 한다.

가랑배미 [들]

[위치] 뒷골 마을 앞에 있는 논자리를 말한다.

[유래] 논이 모양이 바지가랑이처럼 생겼으므로 가랑배미라 하였다.

가마골 [골]

[위치] 수루니에서 남동쪽으로, 292.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원주시생활환경사업소가 들어서 있다. 골 동쪽 너머에는 삼성동이 있고 남쪽 너머에는 대안리 돼니골이 있다. ‘가막골’, ‘가맛골’, ‘녹매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맛골(녹매골)’이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 지형이 가마솥처럼 생겼으므로 가마골이라 하였다.

가막골 [골] → 가마골

가맛골 [골] → 가마골

간촌(間村) [마을] → 샛담

감투바위 [바위]

[위치] 머내 앞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감투바위’라 하였다.

[유래] 큰 바위 위에 또 다른 바위가 얹혀 있어서 감투를 쓴 것처럼 보이므로 감투바위라 하였다.

개경지(開鏡地) [들]

[위치] 신촌 남서쪽, 대안천 옆의 들을 말한다. 대안천과 서곡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신촌과 들 사이로 새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개경지(開鏡地)’라 하였다.

[유래] 홍수가 난 벌판을 새로 일구었으므로 개경지라 하였다.



「개경지 ; 2020년」

개경지보 [보]

[위치] 개경지에 있는 대안천의 보(淤)를 말한다.

개경지학교터 [터]

[위치] 신촌 남쪽 개경지에 있는 옛 육민관학교의 터를 말한다.

[내용] 홍범희 선생이 1946년 육민관학교를 처음 세워 농촌의 젊은이들을 가르쳤던 옛 학교의 터이다. 학교 이름은 처음 ‘민육관’이라 하였는데 ‘육민관’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학교터 옆으로 새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학교터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개바우 [바위]

[위치] 복거리 마을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옛날 주인이 밤길에 늑대한테 홀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기르던 개가 나타나 주인을 구하고 죽었다 한다. 마을에서 비석을 세워주었다고 한다.

고래실골 [골]

[위치] 봉미앞들에서 북쪽 무봉산을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아랫담’, ‘중간담’, ‘웃담’이 있다.

골말 [마을]

[위치] 아랫광터 안골의 남동쪽, 요동의 남쪽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모다아울렛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골말’이라고 하였다.

[유래] 안골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므로 ‘골마을>골말’이라 한다.

골말저수지 [못]

[위치] 골말 마을 앞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현 모다아울렛 남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골말저수지’라 하였다.

곰네미재 [고개]

[위치] 머내에서 남서쪽으로, 수루니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광대(光垔) [마을] → 광터

광터 [마을]

[위치] 호저면 만종리 남오동 서쪽, 질마재고개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만종천과 서곡천이 합류하는 배암나루(현 사제교) 서쪽에 있는 마을로 서곡천을 경계로 하여 웃광터와 아랫광터로 나뉜다. ‘광대’, ‘평장골’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광대(光垓)’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광터(光垓)’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광터(광대光垓)’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군사들의 군량미를 쌓아둔 광이 있었다 하여 광터라 하였다고 한다. 또는 약 300년 전에 광산 김씨가 마을을 이루었다 하여 광터라 하였다고도 한다.

[내용] 남오동 서쪽으로 흐르는 서곡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마을이다. 서곡천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마을이 들어서고 이를 통칭하여 ‘광터’라고 한다. 북쪽 마을은 질마재 남동쪽 아래 산 밑에 있고 남쪽은 넓은 들 가운데 있다. 1700년대 이후 한양으로 가는 길은 감영에서 만종, 질마재를 거쳐므로 질마재 입구인 웃광터가 먼저 생겨 교통로 역할을 하였는데 후에 들판을 중심으로 한 아랫광터가 중심 마을이 되었다. 북쪽 웃광터에는 ‘웃거리’, ‘평장골’, ‘새담’ 마을이 있고 남쪽 아랫광터에는 ‘큰담’과 ‘작은담’이 있다. 웃광터 북쪽 뒤로는 옛 중앙선 철로와 현 강릉선 철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아랫광터 남쪽으로는 42번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서곡천을 경계로 하여 웃광터는 현재 지정면 보통리에, 아랫광터는 흥업면 사제리에 소속되어 있다.

[풀이] ‘광대’라는 지명은 ‘너분터’를 한자로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땅이 넓은 경우 ‘너분터(<넓은터)’, ‘한터(큰터)’라고 하고 이것이 ‘광대(廣垓)’, 또는 호저면 대곡리처럼 ‘일대(一垓)’, ‘대대(大垓)’, 반곡동처럼 ‘한가터’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이곳도 넓은 들을 끼고 발달한 마을이므로 ‘너분터’, 즉 광대(廣垓)로 보이는데 한자로는 광대(光垓)라고 하였다.

광터들 [들]

[위치] 아랫광터 큰담 마을과 북쪽 서곡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동쪽으로 요골들까지 이어지는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광터들’이라 하였다.

광터보 [보]

[위치] 요골 북쪽, 서곡천에 있는 보(洑)를 말한다. 광터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광터보’라 하였다.

광터저수지 [못]

[위치] 아랫광터 마을 남쪽 집골 위에 있던 저수지를 말한다. 위치는 현 광터교차로 남쪽, 덕고개 북쪽 아래이다. 지금은 메워져 없어졌다. 『한국지명총람』에 ‘광터저수지’라 하였다.

구정가래 [들]

[위치] 복거리 마을 앞에 있는 논을 말한다.

[유래] 가래질을 많이 해야 될 정도로 큰 논이므로 구정가래라 하였다.

금송골 [골]

[위치] 오작골 위에서 남동쪽으로, 배부른산을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날근터 [들] → 낯은터들

낯은터 [들] → 낯은터들

낯은터골 [골]

[위치] 요동 마을에서 남쪽 156.7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앙을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낯은터들 [들]

[위치] 낯은터골 동쪽, 중부들 서쪽 강 건너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현 사제사거리 남쪽에 있는 들이다. ‘낯은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날근터들(舊垓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날근터’라 하였다.

녹매골 [골] → 가마골

다락논들 [들]

[위치] 삼성동 동쪽, 신촌들 동쪽 신촌골에 있는 계단식 논을 말한다.

[유래] 높은 곳에 논이 있으므로 다락논들이라 하였다.

다랑백이골 [골]

[위치] 남은터들 남쪽에서 서쪽으로, 157m 높이의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골말, 골말저수지가 있다.

다리골 [골]

[위치] 신촌들 남쪽 끝에서 남동쪽으로, 187.8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중간에 다리골저수지가 있고 그 위에 흥업자동차운전학원이 들어서 있다. 골 남동쪽 끝에 원수고개가 있다.

다리골저수지 [못]

[위치] 다리골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다리골 위에 흥업자동차운전학원이 있다.

대사제(大沙堤) [마을] → 사제울

대사제들 [들] → 사제울들

대사제보 [보] → 사제울보

덕고개 [고개]

[위치] 마내에서 남동쪽으로, 사제울 뒷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옛 광터길이 나 있고 현 42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서낭당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덕고개’, ‘서낭당고개’라 하였다.

[내용] 무봉산에서 남서쪽 매봉산을 거쳐 서쪽 청룡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있는 고개이다.



「덕고개 : 2020년」

덕고개골 [골]

[위치] 광터저수지에서 남쪽으로, 덕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재 42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동골 [마을]

[위치] 사제울 마을 중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 사제초등학교가 있던 마을이다. 마을 남쪽 위로 새 중앙선 철도가 지난다. ‘뒬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동골(뒬골)’이라 하였다.

뒬골 [마을] → 동골

뒬골 [골]

[위치] 복거리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화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뒬골 [마을]

[위치] 사제울 북쪽, 덕고개 남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거장아파트, 파랑새모텔이 있는 마을이다. 이를 한자로 적어 ‘후동(後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뒬골(後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뒬골(후동)’이라 하였다.



「뒬골 마을 : 2019년」

뒬들 [들]

[위치] 봉미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뒬들보 [보]

[위치] 봉미뒬들에 있는 보(淤)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뒬들보(後坪淤)’라고 하였다.

등곡(燈谷) [마을] → 등골

등골 [마을]

[위치] 봉헌 남쪽, 화봉산 서쪽 아래 절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를 한자로 적어 ‘등곡(燈谷)’이라고 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상하등골(上下登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등골(등곡燈谷)’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이 마을에 흥판서가 살았는데 밤에도 늘 불을 환히 켜서 밤을 낮처럼 밝게 살았으므로 등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내용] 등골의 위, 아래 마을을 구분하기 위하여 절골에 있는 마을을 ‘웃등골’, 그 아래에 있는 등골을 ‘아랫등골’이라고 한다.



「등골 마을 : 2020년」

등골고개 [고개]

[위치] 등골에서 동쪽으로 웃등골(절골)을 지나 무실동 행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화봉산 북쪽 바로 아래에 있는 고개이다. 높이는 270m이다. 『조선지지자료』에 ‘등골고기(登谷峴)’라 하였다.

등골뒗산 [산]

[위치] 등골 마을 북동쪽 뒤에 있는 309m의 산을 말한다. 배부른산 서쪽 능선에 있는 봉우리이다.

땀띠물 [샘]

[위치] 샘고개에 있는 샘을 말한다. ‘웃물’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물(땀띠물)’이라 하였다.

매봉산(梅峰山) [산]

[위치] 봉미 북서쪽, 뒷골 북동쪽에 있는 245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무봉산 능선 남서쪽에 있는 산

이다. 산 남서쪽에 덕고개(서낭당고개)가 있다. ‘미봉산’이라고도 한다.

[유래] 산의 모습이 매처럼 생겼으므로 매봉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내용] 이 산과 동쪽의 높이 205.6m 무봉산(舞鳳山)이 혼동되어 불리고 있다.

맹상모롱이 [모롱이]

[위치] 팔포천 상류에 있는 길모퉁이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맹상모롱이’라 하였다.

머내 [마을]

[위치] 보통리 복금동 동쪽, 아랫광터 남쪽 산 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무내’, ‘오천(梧川)’, ‘팔포’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므니(八浦)’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머내(무내, 팔포, 오천)’라고 하였다.

[유래1] 마을 강 옆에 머귀나무가 있었으므로, ‘머귀+내>머귀내>머그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머내’, ‘무내’, 또는 한자로 적어 ‘오천(梧川)’이라 하였다.

[유래2] 마을의 앞을 흐르는 서곡천이 ‘ㄱ’자로 꺾여 흐르므로 ‘八’자와 같다 하여 ‘팔포’라 하였다.

[풀이] ‘머귀+내>머귀내>머그내>머내, 무내’로 변하였다. 머귀나무는 산초나무의 일종으로 오동나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머귀를 오동나무의 옛 이름이라 하고 이를 ‘오동(梧桐)’이라 하였다. ‘머귀내>머내’를 ‘오천(梧川)’이라 한 것은 이를 오동나무로 보았기 때문이다.

머내골 [골]

[위치] 복금들 강 건너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팔포길 남쪽을 따라 난 골짜기로, 머내 마을 남쪽 아래에 붙어있다.

멍석바우 [바위]

[위치] 봉미 앞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멍석바우’라 하였다.

[유래] 바위가 마치 편편한 멍석처럼 생겼으므로 멍석바우라 하였다.

멍에배미 [들]

[위치] 뒷골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논이 생김새가 마치 소의 멍에 같으므로 멍에배미라 하였다. ‘배미’는 논배미를 말한다.

메우리들 [들]

[위치] 삼성동 마을 앞의 들을 말한다.

모래장터 [터]

[위치] 사제울 앞 동쪽에 있는 넓은 터를 말한다. 현 사제울앞들을 말한다.

[유래] 1919년 4월 9일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사제리, 매지리, 대안리 세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던 곳이다. 원래는 모래밭이었으나 지금은 논이 되었다.

무내 [마을] → 머내, 팔포

무내골 [골] → 머내골

무봉산(舞鳳山) [산]

[위치] 봉미 북쪽에 있는 높이 205.6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매봉산(무봉산舞鳳山)’이라 하였다.

[유래담] 봉황이 내려와 춤을 추는 모습이라고 하여 무봉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봉우리가 수려하다고 하였다.

[내용] 이 산과 남서쪽의 높이 245m 매봉산이 서로 혼동되어 불리고 있다.

무봉암터 [터]

[위치] 무봉산 중턱에 있는 옛 절터를 말한다. 그 자리에 현 부천사를 세웠다.

[유래] 원래의 절은 신라 경순왕 때 백운선사가 세운 것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전한다.

문화재집 [건물]

[위치] 사제리 674, 봉현 마을에 있는 시인, 작사가 박건호의 집을 말한다.

[내용] 박종옥 씨의 전통가옥이었다.

미봉산 [산] → 매봉산

바랑산 [산]

[위치] 박달봉 남쪽, 동화산 북쪽 사이에 있는 높이가 324m의 산을 말한다. 돼니고개 고갯마루 바로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사제리와 대안리, 문막읍 동화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풀이] ‘바랑’은 ‘벼랑’의 방언이다. 산에 벼랑이 있으므로 바랑산이라 하였다.

박달봉 [산]

[위치] 수루니 남서쪽에 있는 높이 329.9m의 산을 말한다. 문막읍 동화리와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산 너머는 동화골과 호적골이 있다.

[유래] 박달나무가 많이 자라므로 박달봉이라 하였다고 한다.

[풀이] ‘박+달+봉>박달봉’이다. ‘박’은 옛말 ‘뵤’에서 파생된 것으로 ‘높다, 밝다, 신성하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달’과 ‘봉’은 모두 ‘산’의 뜻으로서 ‘봉+산+뵤>봉산뵤>봉살미’처럼 같은 의미가 중첩되어 쓰인 것이다. 따라서 박달봉은 ‘높고 밝은 산’이라는 뜻이다.

배부른산 [산] → 무실동 배부른산

[위치] 사제리와 무실동 사이에 있는 419.3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배부른산’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포복산(胞腹山)’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비부른산(飽腹山)’이라고 하였다.

[유래] 멀리서 보면 마치 배가 부른 임산부처럼 보이므로 배부른산이라 하였다. 또는 옛날 홍수가 나면 원주에서 이 산에 올라가 문막 쪽의 배를 불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배부른산 [산] → 배부른산

배암벼루 [바위]

[위치] 현 사제사거리와 사제교 북서쪽에 있는 벼랑을 말한다. 산자락이 바위벼랑으로 되어 있었으나 도로를 확장하면서 원래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풀이] 뱃나루 뒤에 있던 벼랑으로서 ‘뱃나루>뱃나루’로 ‘뱃’이 ‘뱀’으로 정착되면서 ‘뱀벼루>배암벼루’로 되었다.

루'가 되었다. '배암·비암'은 '뱀'의 방언이다.

배암벼루보 [보]

[위치] 뱀나루 아래에 있는 서곡천의 보(湫)를 말한다. 요동 앞들에 물을 댄다. 『조선지리지』에 '비암벼루보(蛇硯湫)'라 하였다.

뱀나루 [나루]

[위치] 요동과 만종을 잇던 서곡천의 나루를 말한다. 현 사제사거리의 사제교가 있는 곳이다.

[유래] 나루가 있던 곳이어서 뱀나루라 하였는데 '뱃나루>뱀나루'가 되었다.

뱀머리 [나루]

[위치] 뱀나루가 있던 곳을 말한다.

[유래] 뱀나루에서 배를 돌리던 곳이므로 '뱃머리>뱀머리'라 하였다.

뱃나루 [나루] → 뱀나루

뱃머리 [나루] → 뱀머리

버선배미 [들]

[위치] 뒷골 마을 앞에 있는 논자리를 말한다.

[유래] 논이 모양이 버선 같이 생겼으므로 버선배미라 하였다고 한다.

범파정들 [들]

[위치] 북거리동, 북거리들 남쪽 서곡천 건너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범파정사거리 북서쪽에 있다. 매지천이 서곡천에 합류하는 지점으로, 북거리동에서 흥업리의 범파정 마을에 이르는 넓은 들이다. '범파지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범파정들(泛波亭坪)'이라고 하였다.

범파지들 [들] → 범파정들

병거지배미 [들]

[위치] 뒷골 마을 옆에 있는 논자리를 말한다.

[유래] 논이 모양이 마치 병거지처럼 생겼으므로 병거지배미라 하였다고 한다.

뱃나무고개 [고개]

[위치] 복술에서 남쪽으로, 수루니로 넘어가는 고

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뱃나무고개'라고 하였다.

[유래] 고개에 큰 뱃나무가 있어 봄이 되면 화사한 꽃이 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벼락바우 [바위]

[위치] 광터와 머내 사이 서곡천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벼락바우'라 하였다.

[유래] 깎아지른 벼랑이 벼락을 맞은 듯 서있으므로 벼락바우라 하였다.

병풍바우골 [골]

[위치] 머내 마을 남쪽, 병풍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보거리 [마을] → 북거리

보들 [들]

[위치] 봉미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보를 막아 물을 댔으므로 보들이라 하였다.

북거리 [마을]

[위치] 배부른산 남서쪽 아래, 범파정들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보거리', '북거리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보거리(湫巨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북거리(보거리湫巨里)'라 하였다.

[유래] 마을 앞에 보가 있으므로 보거리, 북거리라 하였다. 또는 주민들이 북이 있어 잘 살므로 북거리라 하였다고도 한다.

[풀이] 보가 있는 마을이란 뜻의 '보+거리>보거리'가 '보거리>북거리>북거리'로 되고 이에 따라 북이 있어 잘 산다는 유래담이 생겼다.



「북거리 마을 : 2020년」

북거리동 [마을] → 북거리

북거리들 [들]

[위치] 북거리 마을 남쪽 서곡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 앞으로 새 중앙선 철로가 지나고 있다.

복술 [마을] → 복술

복수동(福壽洞) [마을] → 복술

복술 [마을]

[위치] 보통리 복금동 남쪽 내 건너, 보통동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복술’, ‘복시울’, ‘복수동’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복술(복수동福壽洞, 복시울)’이라 하였다.

[내용] 한산 이씨가 살면서 복수동(福壽洞)으로 마을 이름을 고쳐지었다고 한다.

복술골 [골]

[위치] 보통리 복금동 남쪽 내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복술 마을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남쪽 너머에 수루니골이 있다.

복시울 [마을] → 복술

봉미(鳳尾) [마을]

[위치] 사제울 뒷골 북동쪽, 무봉산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안에 ‘웃담’, ‘중간담’, ‘아랫담’이 있다. 마을 위에 부천사가 있고 마을 동쪽에 하늘원장례식장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봉미(鳳尾)’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봉미(鳳尾)’라 하였다.

[유래] 무봉산 남쪽 끝자락에 있으므로 봉미라 하였다.



「봉미 마을 ; 2019년」

봉미들 [들]

[위치] 사제울 봉미 마을 앞, 서곡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앞들’, ‘봉현앞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봉미들(五作坪)’이라고 하였다.

봉미보 [보]

[위치] 사제울 봉미 마을 앞에 있는 보(沓)를 말한다. ‘앞들보’, ‘봉현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앞들보(前坪沓)’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봉미보’라 하였다.

봉미서낭 [당]

[위치] 봉미 마을 앞 들판에 있는 느티나무를 말한다. 수령 약 250년, 나무 높이 20m의 마을 당산목이다.



「봉미서낭 ; 2019년」

봉현(鳳峴) [마을]

[위치] 사제울 남동쪽 서곡천 건너, 배부른산 서쪽 기슭에 있는 큰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봉현(鳳峴)’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봉현(鳳峴)’이라 하였다.



「봉현 마을 ; 2019년」

봉헌골 [골]

[위치] 봉헌들에서 동쪽 242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봉미 마을 남동쪽의 내 건너에 있다.

봉헌내 [내] → 서곡천

[위치] 서곡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봉헌니(鳳峴川)’라고 하였다.

[내용] 봉헌 마을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봉헌 내라고 불렀다.

봉헌들 [들]

[위치] 봉헌 마을 봉헌앞들에서 이어져 서곡천을 따라 북쪽 봉미 마을 앞까지 난 긴 들을 말한다.

봉헌보 [보] → 봉미보

봉헌앞들 [들] → 봉미들

부천사(阜川寺, 富泉寺) [절]

[위치] 무봉산 중턱 봉미 뒤, 옛 무봉암터에 있는 태고종 절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부천사(阜川寺)’라 하였다.

[내용] 무봉암은 신라 말 경순왕 때 백운선사가 창건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에 중건하였는데 이때 금불상 2좌와 ‘阜川寺’라고 쓴 청기와가 발굴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 말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의 큰 장마로 발견된 석불좌상이 옮겨져 있다. 이 불상은 머리와 몸을 따로 만든 특이한 양식을 하고 있다.



「부천사 ; 2019년」



「부천사 석불 ; 2019년」

비아산 [산]

[위치] 등골 남쪽, 신촌 남동쪽에 있는 201.9m 높이의 산을 말한다.

사제리수용소 [터]

[위치] 사제울 동쪽, 현 사제울앞들과 개경지에 있던 옛 수용소 터를 말한다. 지금은 들이 되었다.

[내용] 한국전쟁 때 난민을 수용하여 배급하고 교육하던 곳으로, 1951년 9월 유엔 제2임시수용소로 건립되었다.

사제분교 [학교] → 흥업초등학교 사제분교

사제울(沙堤-) [마을]

[위치] 사제리의 중심 되는 마을을 말한다. 배부른 산 서쪽, 무봉산 남쪽, 옛 사제초등학교(현 무릉박물관)가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안에 ‘동굴’과 ‘셋담’이 있다. ‘대사제(大沙堤)’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디사제(大沙堤)’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대사제(大沙堤)’라 하였다.

[유래] 옛날부터 서곡천을 막는 긴 제방이 있었으므로 ‘사제(沙堤)+울>사제울’이라 하였다. ‘울’은 마을을 뜻한다. 이곳 제방은 1765년의 『여지도서』에 이미 나오는 것으로 그 역사가 오래이다. 한편, 옛 사제면일 때 현 문막읍 동화리의 사제말도 같은 사제면 소속이었으므로 동화리 ‘사제말’과 구분하기 위해 면소재지가 있는 이곳은 ‘대사제(大沙堤)’라 하였다.

[내용] 대안천이 서곡천에 합류하는 곳으로 마을 앞에는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서쪽 뒤로

42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마을 남쪽으로는 새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사제울 마을 : 2019년」

사제울들 [들]

[위치] 사제울 마을 앞 동쪽에 있는 서곡천 옆의 넓은 들을 말한다. ‘대사제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큰사제들(大沙堤坪)’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사제울들’이라 하였다.

사제울보 [보]

[위치] 사제울 동쪽 서곡천에 있는 보(湫)를 말한다. 사제울들에 물을 댄다. ‘대사제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대사제보’라 하였다.

사제제방 [둑]

[위치] 사제울 앞 사제천(서곡천)에 길게 쌓은 둑을 말한다. 역사가 오랜 둑이다. 『여지도서』에 ‘사제제언(沙堤堤堰)’이라 하였다.

[내용] 『여지도서』에 고을에서 서쪽 30리에 있는데 둘레 588척, 길이 311척, 너비는 89척이라 하였다. 1687년의 큰 홍수로 훼손되었는데 수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었다.



「사제제방 : 2019년」

사제제언(沙堤堤堰) [둑] → 사제제방

사제천(沙堤川) [내] → 서곡천

[위치] 서곡천의 다른 이름이다. 사제리를 지나므로 이곳에서는 사제천이라 부른다.

삼밭골 [마을]

[위치] 머내 어영골에서 남동쪽 216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산 너머에 사제울 작은 고래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삼밭골’이라고 하였다.

삼새 [마을] → 삼성동

삼새벌판 [들]

[위치] 삼성동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삼새이 [마을] → 삼성동

삼성동(三省洞, 三星洞) [마을]

[위치] 사제울 남쪽, 대안리 동돌미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삼성이’, ‘삼새’, ‘삼새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삼성이(三星)’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삼성이(삼성三省, 三星)’라 하였다.

[유래] 마을 앞에 있는 세 개의 언덕을 삼태성(三臺星)으로 보아 삼성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는 신라 말, 도선국사가 이곳 명당자리라 세 번이나 돌아보고 갔으므로 ‘삼성동(三省洞)’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원래 ‘三省洞’으로 썼으나 조선 영조 때 광명사상의 영향으로 ‘三星洞’으로 바뀌었다고 전한다.



「삼성동 마을 : 2020년」

삼성앞들 [들]

[위치] 삼성동 마을 서쪽 앞 대안천 옆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들 한가운데를 42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삼성이 [마을] → 삼성동

상등곡(上燈谷) [마을] → 웃등골

상석배미 [들]

[위치] 뒷골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유래] 벼가 잘 자라는 상석 논자리이므로 상석배미라 하였다.

새마을 [마을] → 신촌

새마을들 [들] → 신촌들

새이말 [마을] → 샛담

샘고개 [고개]

[위치] 머내에서 샘골을 따라 북동쪽 광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샘고개’라 하였다.

[유래] 골짜기에 땀띠샘이 있으므로 샘고개라고 하였다.

샘골 [골]

[위치] 머내골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광터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전체를 현재 42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샛담 [마을]

[위치] 사제울 큰고래골 앞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사이말>새이말’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간촌(間村)’이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사이말(間村)’이라고 하였다.

서곡천(瑞谷川) [내] → 판부면 서곡리 서곡천

서낭당고개 [고개] → 덕고개

[유래] 산마루에 서낭당이 있었으므로 서낭당고개라 하였다.

선바우 [바위]

[위치] 복술 뒤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선바우’라 하였다.

송아골 [골]

[위치] 사제울 동골, 옛 사제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송아재가 있고 서쪽 너머에 수루니골이 있다.

송아재 [고개]

[위치] 사제울 동골 서쪽, 송아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수루니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180m이다.

쇠고개 [고개]

[위치] 요동 마을 뒤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고개에 쇠막대를 박아놓았다 하여 쇠고개라 하였다.

수루니 [마을]

[위치] 수루니골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자로 ‘수운동(水雲洞)’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수루니(수운동水雲洞)’라 하였다.

[유래] 물이 좋고 늘 안개가 끼어있으므로 수루니, 수운동이라 하였다.

수루니골 [골]

[위치] 보통동 남쪽 서곡천 건너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동쪽 끝에서 작은고래골과 만나고 사제울 서쪽에 있는 송아재에 닿는다.

[내용] 골짜기 중간에서 남쪽으로 가마골이 갈라지고 가마골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큰골이 갈라져 나간다. 큰골 서쪽에는 동화리와 경계가 되는 높이 329.9m의 박달봉이 있다. 골짜기 안 가마골과 큰골 사이에 원주시 생활환경사업소와 대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 있다. 수루니골 전체에 새 중앙선 철로의 터널이 지나간다.

수루니보 [보]

[위치] 수루니골에 있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수루니보(水雲谷洑)’라 하였다.

수운동(水雲洞) [마을] → 수루니

수캐울 [내] → 대안천

[위치] 대안천의 다른 이름이다.

[내용] 대안리에서 내려오는 대안천을 ‘수캐울’이라 하고 매지리에서 내려오는 매지천을 ‘암캐울’이라 부른다. 매지천은 흥업 남여산 앞에서 서곡천에 합류하고 대안천은 그 하류에 있는 사제울에서 서곡천에 합류한다.

신촌(新村) [마을]

[위치] 사제울 남동쪽, 대안천과 서곡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새마을’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마을(신촌新村)’이라 하였다.

[유래] 한국전쟁 후 피난민들이 새로 만든 마을이므로 새마을, 신촌이라 하였다.

신촌골 [골]

[위치] 삼성동 동쪽 앞, 신촌들 한가운데에서 동쪽으로 난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안에 계단식 ‘다락논들’이 있다.

신촌들 [들]

[위치] 신촌 남쪽으로 대안천을 따라 난 넓은 들을 말한다. ‘새마을들’이라고도 한다.

아랫광터 [마을]

[위치] 광터 마을 중 서곡천 남쪽의 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에 ‘큰담’과 ‘작은담’이 있다. ‘하광터동’이라고도 한다. 서곡천 북쪽 웃광터는 지정면 보통리 소속이다.



「아랫광터 마을 ; 2020년」

아랫담 [마을]

[위치] 사제울 봉미 마을 중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랫등골 [마을] → 등골

[위치] 등골 마을을 말한다. 웃등골과 구분하기 위하여 ‘등골’을 ‘아랫등골’이라 하였다. 한자로 ‘하등곡(下燈谷)’이라고도 한다.

안골(1) [골]

[위치] 아랫광터의 광터들에서 남동쪽으로, 무봉산을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재 모다아울렛 서쪽, C대한통운택배강원지사 동쪽 사이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안골’이라 하였다.

안골(2) [골]

[위치] 사제울 봉미 고래실골 끝에서 무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골(3) [골]

[위치] 머내골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덕고개 남쪽, 현 팔포길 남쪽 나노인택이 들어선 곳이다.

앞들 [들] → 봉미들

앞들보 [보] → 봉미보

앞보 [보]

[위치] 아랫광터 앞 서곡천에 있는 보(洑)를 말한다.

앞보들 [들]

[위치] 아랫광터 작은담 북쪽 아래 서곡천 옆에 있는 들을 말한다.

약과배미 [들]

[위치] 뒷골 앞에 있는 논을 말한다.

[유래] 논이 모양이 약과 모양으로 생겨서 약과배미라 하였다.

어영골 [골]

[위치] 복금들 남쪽 서곡천 건너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머내골 남쪽에 있다. 골 끝

에서 삼밭골이 이어진다.

[풀이] ‘어영, 어용, 오용’ 등은 길이 험한 곳에 붙는 지명소이다. 골짜기가 험하다는 뜻이다.

어영골 [마을]

[위치] 어영골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머내 남쪽, 청룡산 북쪽 아래에 있다. ‘오룡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오룡골’이라 하였다.

오룡골 [마을] → 어영골

오작골 [골]

[위치] 사제울 동쪽 강 건너 봉현들에서 동쪽으로, 배부른산 능선 북쪽을 향하여 난 긴 골짜기를 말한다. 골 입구에 현 연우I&S가 들어서 있다.

오천(梧川) [마을] → 머내

웃물 [샘] → 땀따물

악새울 [골]

[위치] 광터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악새풀이 많이 자라므로 ‘악새골>악새울’이라고 하였다.

요골 [골]

[위치] 요골들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요동 마을이 있는 곳이다. ‘웃골’이라고도 한다.

요골 [마을] → 요동

요골들 [들]

[위치] 요동 마을 북쪽, 서곡천 옆으로 길게 나 있는 들을 말한다.

요골보 [보]

[위치] 요동 앞 요골들에 있는 서곡천의 보(湫)를 말한다.

요동(要洞) [마을]

[위치] 아랫광터 동쪽, 웃광터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남쪽으로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요골’, ‘웃골’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요동(要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웃골(요동要洞)’이라 하였다.



「요동 마을 ; 2020년」

웃골 [골] → 요골

웃골 [마을] → 요동

웃담 [마을]

[위치] 사제울 봉미 마을 중 안골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웃등골 [마을]

[위치] 등골 마을 중 동쪽 위, 현 절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 위에 등골고개가 있다. 한자로 ‘상등곡(上燈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웃등골(상등곡上燈谷)’이라 하였다.

원터버덩 [들]

[위치] 복수동 앞에 있는 서곡천 옆의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원터버덩’이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원(院)이 있던 곳이므로 원터버덩이라고 하였다.

작백이골 [골]

[위치] 아랫광터 집골과 안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고 CJ대한통운택배강원지사가 있는 곳이다.

작은고래골 [골]

[위치] 사제울 큰고래골 끝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끝에서 수루니골과 만난다. 골 끝 아래에 새 중앙선 철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작은담 [마을]

[위치] 아랫광터 마을 중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작은담 마을 ; 2020년」

절골(1) [골]

[위치] 등골에서 동쪽으로 화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 화봉암이 있다.

절골(2) [골]

[위치] 머내 남쪽, 청룡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절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에 절이 있었으므로 절골이라 하였다.

정상앗고개 [고개]

[위치] 아랫광터에서 남동쪽 골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현 아랫광터에서 남동쪽으로 CJ택배를 지나 모다아울렛 앞 골말에 이르는 길로, 현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높이는 약 100m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정상앗고개’라 하였다.

[유래] 고갯마루에 밭이 있었으므로 ‘정상앗고개’라 하였다.

[풀이] ‘앗’은 밭의 방언으로 ‘밭>밭>왓>앗’으로 음운 변천하였다. 소초면 평장리가 ‘평장앗’이었고 제주도 지명에 ‘왓’이 많이 남아있다.

중간담 [마을]

[위치] 사제울 봉미 마을 중 중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서쪽에 부천사가 있다.

중부보 [보]

[위치] 요동과 호저면 만종리 중부 사이에 있는 서

곡천의 보(洑)를 말한다.

지루매기 [들]

[위치] 머내 마을 남쪽에 있는 밭을 말한다.

[유래] 밭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밭을 맬 때 지루하므로 지루매기라 하였다.

진골 [골]

[위치] 뒷골 앞 후동들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덕고개 남쪽에 있다.

집골 [골]

[위치] 아랫광터에서 남쪽 위로, 덕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위에 광터저수지가 있었다. 골 서쪽으로 88번과 44번 도로가 나 있고 광터교차로가 있으며 골 허리부분으로 42번 원문로가 지나가고 있다.

청룡산(靑龍山) [산]

[위치] 머내 남서쪽에 있는 높이 243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청룡산’이라 하였다.

[유래] 비가 쏟아지고 개일 때면 산의 형상이 마치 청룡이 하늘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므로 청룡산이라 하였다.

초당고개 [고개]

[위치] 머내에서 서쪽으로, 복술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초당고개’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초당이 있었으므로 초당고개라 하였다.

칠성당 [당]

[위치] 무봉산 중턱에 있던 당집을 말한다. 현재 칠성각 자리이다.

칠성당샘 [샘]

[위치] 무봉산 중턱 칠성당 서쪽에 있는 우물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칠성당우물’이라 하였다.

[유래] 칠성께 기도를 올릴 때 이 샘물을 이용하므로 칠성당샘이라 하였다.

코바우 [바위]

[위치] 요동 앞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코바우’라 하였다.

[유래] 사람의 코처럼 생겼으므로 코바우라 하였다. 아들을 원하는 아낙네들이 코를 만지거나 바위를 갈아서 가지고 가면 소원대로 된다는 속설이 있다.

코밭등이 [들]

[위치] 코바우가 있는 밭을 말한다.

큰고래골 [골]

[위치] 사제울 샛담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큰골(1) [골]

[위치] 봉미에서 동쪽으로, 무실동으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감박산 남쪽 능선을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한국지명총람』에 ‘큰골’이라 하였다.

큰골(2) [골]

[위치] 수루니에서 가마골과 갈라져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원주시 생활환경사업소가 들어서 있다.

큰담 [마을]

[위치] 광터의 큰 마을을 말한다.



「큰담 마을 : 2020년」

터논골 [골]

[위치] 광터 골말에서 남동쪽 무봉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팔포(八浦) [마을] → 머내

[위치] 보통리 복금이 남동쪽, 아랫광터 남서쪽 산너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광터교차로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머내’, ‘무내’라고도 하고 이를 한자로 적어 ‘오천(梧川)’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는 ‘므니(八浦)’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팔포(八浦)’라 하였다.

[유래1] 마을 강 옆에 머귀나무가 있었으므로, ‘머귀내>머그내’라 하던 것이 ‘머내’, ‘무내’, 또는 한자어로 적어서 ‘오천’이라 하였다.

[유래2] 마을의 앞을 흐르는 서곡천이 ‘ㄱ’자로 꺾여 흐르므로 ‘八’자와 같다 하여 팔포라 하였다.



「팔포 마을 : 2019년」

팔포들 [들]

[위치] 머내 마을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팔포ضل(八浦坪)’이라고 하였다.

팔포자각학교 [학교]

[위치] 요동에 있던 중학교 과정의 학교를 말한다.

[내용] 1960년대 원유손과 이병은이 설립하여 1969년에 요동에 학교를 지었다. 각 단위별로 중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1973년에 폐교하였다.



「팔포자각학교 낙성식 : 1969년」

하광터동 [마을] → 아랫광터

한개울 [내] → 대안천

[위치] 사제울에서 부르는 대안천의 다른 이름이다.

[풀이] ‘한’은 ‘크다’는 뜻이므로 ‘큰 내’라는 의미이다.

한개울골 [골]

[위치] 개경지에서 내 건너 북서쪽으로, 송아재 옆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너머에 수루니골이 있다.

행가리재 [고개]

[위치] 북거리에서 동쪽으로, 무실동 행가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행금나들이 [들]

[위치] 보통동 남동쪽, 수루니 골 입구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행금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행금나들이’라 하였다.

[유래] 예부터 이곳에 사금이 나고, 큰 살구나무가 있었으므로 ‘행금(杏金)들’이라 부른다고 한다.

행금들 [들] → 행금나들이

홍두깨골 [골]

[위치] 머내 마을 남동쪽 청룡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 모양이 홍두깨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홍두깨골이라 하였다.

화봉산(華鳳山) [산]

[위치] 북거리 북동쪽, 행가리 서쪽에 있는 288.1m 높이의 산을 말한다. 배부른산 남쪽 줄기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화봉산(華鳳山)’이라 하였다.

화봉암(華鳳庵) [절]

[위치] 화봉산 등골고개 서쪽 아래에 있는 절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화봉암(華鳳庵)’이라고 하였다.

후동(後洞) [마을] → 뒷골

후동들 [들]

[위치] 사제울 뒷골 남동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재 거장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흥업초등학교 사제분교 [학교]

[위치] 사제리 534, 사제울에 있던 옛 초등학교를 말한다.

[내용] 1960년 흥업국민학교 사제분실로 인가되어 1962년에 사제분교장으로 승격하였다. 1962년 흥업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가 1999년 흥업초등학교 사제분교장으로 격하하였으며 2000년에 흥업초등학교에 통합되어 폐교되었다. 현재 무릉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흥업초등학교 사제분교터 ; 2019년」

흥업리(興業里)

[위치]

흥업리(興業里)는 흥업면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판부면 서곡리, 서쪽으로는 대안리와 사제리, 남쪽으로는 매지리, 북쪽으로는 무실동과 접하고 있다.

[연혁]

원래 원주군(原州郡) 금물산면(今勿山面)의 분일리(分一里)·분오리(分五里)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울업·밤골·잘개미·범파정·흥대를 병합하여 흥업리(興業里)라 하여 원주군 금물산면 흥업리가 되었다.

1917년 면 이름을 금물산면에서 흥업면으로 바꾸어 원주군 흥업면 흥업리가 되었다.

1955년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하면서 원주군을 원성군으로 이름을 바꾸어 원성군 흥업면 흥업리가 되었다.

1989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이름을 다시 바꿈에 따라 원주군 흥업면 흥업리가 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가 되었다.

[유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흥대동(興垔洞)의 ‘흥(興)’과 울업동(蔚業洞)의 ‘업(業)’을 따서 이름을 ‘흥업(興業)’이라 하였다.

가래나무골 [골]

[위치] 밤골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크고 오래된 가래나무가 많으므로 '가래나무골'이라 하였다.

가리골 [골]

[위치] 무수막 북쪽, 현 북원로에서 남동쪽으로 가리골저수지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외동지들에서 도로 건너 동쪽에 있는 들이다. 저수지 위는 '웃가리골'이라고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가리골(加里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리골'이라 하였다.

가리골답 [들]

[위치] 가리골저수지 아래, 가리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가래골ضل(加里谷坪)'이라고 하였다.

가리골재 [고개]

[위치] 웃가리골에서 남서쪽으로, 가는골(세동)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가리골저수지 [못]

[위치] 가리골 동남쪽 위, 무수막 동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가리골답과 외동지들에 물을 댄다. 『한국지명총람』에 '가리골저수지'라 하였다.



「가리골저수지 : 2020년」

거래 [마을] → 울업

거문바우 [바위]

[위치] 자감촌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의 모양이 거문고처럼 생겼으므로 거문바우라 하였다.

걸몽재 [고개]

[위치] 걸몽재산 남서쪽 아래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울업 밤골에서 남동쪽으로, 매지리 분지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는 295m이다.

걸몽재 [산]

[위치] 울업 남쪽, 밤골 동쪽에 있는 높이 365.3m의 산을 말한다. '길몽재'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걸몽재'라 하였다.

고래실골 [골]

[위치] 흥대들 동쪽, 매지천에서 동쪽으로 당골을 향하여 난 넓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과 마을 사이에 북원로가 나 있고 골 남쪽으로는 외곽순환도로가 나 있다.

고래실구렁 [들]

[위치] 고래실골 입구에 있는 매지천 옆의 논을 말한다.

[유래]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으므로 고래실이라 하였다.

곰골 [골]

[위치] 자감촌에서 남서쪽 자지봉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웅골'이라고도 한다.

곰말 [마을]

[위치] 곰골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한라대학교 캠퍼스에 편입되었다.

[유래] 옛날에 이곳에 곰이 자주 나타나 나무꾼에게 겁을 주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므로 곰말이라 하였다.

곳집거리 [터]

[위치] 흥대와 자감촌 사이 곳집이 있던 터를 말한다.

구지박골 [골] → 후지박골

곰들 [들]

[위치] 울업 북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자감교 사거리 매지천 옆의 들이다. ‘꿈들’이라고도 한다.

굼들 [마을]

[위치] 굼들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굼들이’, ‘꿈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군두리(郡刀里)’라 하였다.

[풀이] ‘굼·구무’는 낮고 움푹한 지형에 붙는 지명소이다. 매지천 옆, 지형이 낮은 곳에 논이 있으므로 ‘굼들’, ‘굼들이’, ‘꿈들’이라고 하였다. ‘굼들>꿈들’은 경음화 현상이다. ‘굼들+이>굼들이’의 ‘이’는 명사형성 접미사이다.

굼들보 [보]

[위치] 굼들에 있는 매지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군두리보(郡刀里洑)’라고 하였다.

굼들이 [마을] → 굼들

금광굴 [굴]

[위치] 자감촌 서쪽 자지봉 남동쪽 아래에 있던 옛 금광굴을 말한다. 현 한라대학교 정문에서 경비실에 이르는 곳을 중심으로 금광굴이 몇 개 있었다.

[내용] 일제강점기에 이 마을에 살던 노광주 씨가 돼지와 금수돗이 노는 꿈을 꾸고 놀던 자리를 파니 금광석이 노다지로 나왔다고 한다. 금광이 마치 이불 모양으로 깔려 있어서 수백 명의 광부가 몰려들어 마을이 흥성했었다고 전한다. 폐광된 이후 그 자리에 한라대학교가 들어섰다.

금방아터 [터]

[위치] 자감촌 앞 매지천에 있던 방앗간터를 말한다. 현 자감교가 있는 곳이다.

[유래] 금광의 금을 모아 찼던 금방앗간이 있던 자리이다.

[내용] 자감촌에서 채석한 광석을 뺏아서 금을 분리하던 방앗간이었다. 경지 정리가 되면서 새밭들에 편입되었다.

금성골(1) [골]

[위치] 자재기저수지에서 남동쪽으로, 걸몽재를 향

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내용] 금성골과 자재기 저수지 사이에 19번 외곽 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골짜기에 넓은 공원이 들어서 있다.

금성골(2) [골]

[위치] 밤골저수지 남쪽 산너머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금청골’이라고도 한다.

금성산 [산]

[위치] 자재기저수지 동쪽에 있는 높이 221m의 산을 말한다. 판부면 서곡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금송’, ‘금송산’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 지역에 ‘금성’과 ‘금송’, ‘금청’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금송 [산] → 금성산

금송산 [산] → 금성산

금청골 [골] → 금성골(2)

걸몽재 [산] → 걸몽재

꽃동네 [마을]

[위치] 울업 동쪽, 요동으로 가는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래] 1980년대 아파트 단지와 연립주택이 들어선 마을에 새로 지은 이름이다.

굼들 [들] → 굼들

굼들이 [마을] → 굼들이

나귀동들 [들] → 낙수동들

낙수동들 [들]

[위치] 굼들 밑에 있는 들을 말한다. ‘나귀동들’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낙수동들’이라고 하였다.

[유래] 예전에 나귀가 빠져죽었으므로 나귀동들이라 하였는데, 후에 낙수동들이라 하였다고 한다.

낙수둔지 [들]

[위치] 낙수동들에 있는 논을 말한다.

노송나무배기들 [들]

[위치] 울업에 있는 들을 말한다. 지금은 모두 주택지가 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노송나무배기들’이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들 주변에 노송이 많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골 [골]

[위치] 사제리 범파지들에서 남쪽으로, 원수고개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서쪽 산 너머에 대안리 다리골과 다리골저수지가 있다. 사제리와 경계가 되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다리골(橋洞)’이라고 하였다.

당골 [골]

[위치] 현 흥대교차로 남쪽, 두산위브아파트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예전에 불당이 있었으므로 당골이라고 하였다.

당골 [마을]

[위치] 울업 남쪽, 밤골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자재기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북쪽에는 흥대교차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19번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조선지리지』에 ‘당골(唐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당골(당곡堂谷)’이라 하였다.



「당골 마을 ; 2020년」

당골고개 [고개]

[위치] 당골에서 동쪽 서곡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대추나무골 [골]

[위치] 벌말 북서쪽, 밤골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현 흥업교차로 동쪽, 진광자동차정비공장이 있는 골짜기이다.

독밭들 [들]

[위치] 자감촌 마을 북쪽으로 매지천을 향하여 펼쳐진 들을 말한다. 들 동쪽에 새봇들이 있고 서쪽에 마리골들이 있다.

뒷밭들 [들]

[위치] 자재기 마을 동쪽 위, 자재기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마리골들 [들] → 머리골들

마중고개 [고개]

[위치] 밤골 동쪽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을 마중하는 곳이므로 마중고개라 하였다.

만세터 [터]

[위치] 자감촌 뒷산 자지봉을 말한다.

[유래] 3·1운동 때 흥업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던 곳이다.

머리골들 [들]

[위치] 자감촌 웃말 북쪽, 범파지들 남동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매지천이 서곡천에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들로 현 흥업초등학교 바로 동쪽 옆에 있는 들이다. ‘마리골들’이라고도 한다.

문필봉(文筆峰) [산] → 자지봉

밤골 [마을]

[위치] 울업 남쪽, 벌말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남원주두산위브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다. ‘안밤골’과 ‘벌밤골’이 있다. 이를 한자로 적어 ‘율동(栗洞)’이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에 ‘밤골(栗洞)’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밤골(율동栗洞)’이라 하였다.

[유래] 예부터 밤나무가 많은 곳이므로 밤골이라

고 하였다. 원래부터 이 마을에는 밤나무가 많아
서 가을이 되면 많은 수확을 하였다고 한다.



「밤골 마을 ; 2020년」

밤골고개 [고개]

[위치] 밤골 동쪽 산 위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자
재기와 당골에서 남동쪽으로 매지리 분지울로 넘
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고갯길이 밤골 동쪽 산위로 지나므로 밤골
고개라 하였다.

밤골들 [들]

[위치] 밤골 마을 서쪽, 밤골과 매지천 사이에 있
는 들을 말한다. 현 흥업교차로와 두산위브아파트
서쪽 사이에 있는 들이다. ‘별밤골앞들’, ‘쇠둔지’
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별밤골앞들(쇠둔
지)’라 하였다.

밤골셋도랑 [내]

[위치] 밤골 동쪽 걸몽재와 서곡고개골에서 서쪽
으로, 안골과 당골저수지, 배나무둔지골을 거쳐 매
지천에 들어가는 작은 내를 말한다.

밤골저수지 [못]

[위치] 밤골 남동쪽, 안밤골에 있던 작은 저수지를
말한다. 지금은 메워져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다.
‘안밤골저수지’라고도 한다.

밤나무밭 [들]

[위치] 밤골 입구에 있던 큰 밭을 말한다. 밭 주위

에 밤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

밤나무버덩 [들]

[위치] 밤골셋도랑 옆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두산
위브아파트에 대부분 편입되었다.

밤나무수용소 [마을]

[위치] 흥대 동쪽 흥대들 한 가운데에 있는 마을
을 말한다. 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서 있는 곳
이다. ‘수용소’, ‘밤들수용소’라고도 한다.

[유래] 현 ‘흥대들’은 원래 밤나무가 많던 버덩으
로 한국전쟁 때 북쪽의 피난민들이 모여 피난생활
을 하던 수용소 자리이다. 버덩에 밤나무가 많았
으므로 ‘밤나무수용소’라 하였다.

[내용] 주로 양구와 인제, 철원, 화천 주민들이 수
용생활을 하였다. 매일 장이 열릴 정도로 큰 마을
을 형성하여 학생 800명의 흥일국민학교까지 있
었다. 휴전 이후 수용소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
나 약 50가구가 1960년대 중반까지 마을에 남았
다. 1984년 경지 정리를 하면서 농토가 되어 흔
적이 모두 사라졌다.



「밤나무수용소터 ; 2019년」

밤들 [들] → 흥대들

[위치] 현 흥대들의 다른 이름이다. 논으로 개간되
기 전 밤나무가 많은 버덩이었으므로 밤들이라고
하였다. ‘흥대버덩’이라고도 한다.

밤들수용소 [터] → 밤나무수용소

배나무둔지 [들]

[위치] 밤골 앞 배나무둔지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두산위브아파트 북동쪽에 붙어 있는 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배나무둔지’라 하였다.

[유래] 큰 배나무가 서 있었으므로 배나무둔지라 하였다.

배나무둔지골 [골]

[위치] 매지천에서 동쪽, 밤골저수지를 향하여 밤골도랑천을 따라 난 골짜기를 말한다. 현 남원주 두산위브아파트와 19번 외곽순환도로 사이 안밤골길이 나 있는 골짜기이다.

뱀골 [골]

[위치] 자감촌 남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뱀처럼 길게 생긴 골짜기이므로 뱀골이라 하였다.

벌말 [마을]

[위치] 밤골 남쪽, 무수막 북동쪽에 있는 산 아래의 마을을 말한다. 현 흥업교차로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벌말(坪村)’이라고 하였다.



「벌말 마을 ; 2020년」

벌말들 [들]

[위치] 벌말 마을 서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새개미들에서 동쪽으로 벌말을 향하여 난 들로 현 흥업교차로 남동쪽에 붙어있는 들이다.

벌밤골 [마을]

[위치] 밤골 남쪽 앞 들판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복원로 옆에 있던 마을로 남원주두산위브아파트 단지에 대부분이 편입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벌밤골’이라 하였다.

벌밤골앞들 [들] → 밤골들

범파정(泛坡亭) [마을]

[위치] 흥업초등학교 북쪽, 합포원 남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원수고개 북동쪽 아래 범파정사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에 ‘범파정(泛波亭)’이라고 하였다.



「범파정 마을 ; 2020년」

범파정들 [들]

[위치] 범파정 마을 남동쪽에서 북서쪽 사제리의 북거리동에 이르기까지 서곡천 옆에 발달한 들을 말한다. 범파정사거리 북서쪽, 매지천이 서곡천에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범파지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범파정들(泛波亭坪)’이라고 하였다.

범파정보 [보]

[위치] 범파정 남동쪽, 범파정들에 있는 매지천의 보(淤)를 말한다. 범파정보 서쪽 옆에서 서곡천과 매지천이 합류한다. ‘범파지보’라고도 한다.

범파지들 [들] → 범파정들

범파지보 [보] → 범파정보

벼박골 [골]

[위치] 벌말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위에서 동쪽으로 안골이 갈라져 나간다. 골 남쪽 너머에 장구맥이골이 있다.

보거리 [마을] → 보촌

보둔지 [마을] → 보촌

보뚝지 [마을] → 보촌

보촌(湫村) [마을]

[위치] 울읍 남서쪽, 자재기 북서쪽, 매지천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흥대교차로 북쪽에 붙어 있는 마을로 울읍에 연결되었다. ‘보거리’, ‘북거리’, ‘보둔지’, ‘보뚝지’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북거리(湫巨里)’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보뚝지’라 하였다.

[유래] 보가 있는 둔덕에 마을이 섰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보촌 마을 ; 2020년」

북거리 [마을] → 보촌

보뚝지 [마을] → 보촌

보뚝지보 [보]

[위치] 보촌에 있는 매지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보뚝지보(湫屯地湫)’라고 하였다.

보뚝지표송 [나무]

[위치] 자재기와 보뚝지 사이 산 끝자락에 서 있는 큰 소나무를 말한다.

분지울고개골 [골]

[위치] 안골에서 남동쪽으로 걸몽재고개를 향하여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매지리 분지울이 있다.

[유래] 고개 너머 분지울 마을이 있으므로 분지울

고개골이라 하였다.

불무골 [골]

[위치] 밤골 앞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불무골’이라 하였다.

[유래] 예전에 대장간이 있었으므로 ‘풀무골>불무골’이라 하였다.

사다리바위 [바위]

[위치] 자감촌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유래] 바위의 모습이 사다리처럼 길게 마디가 있으므로 사다리바위라 하였다.

산막골 [골]

[위치] 흥대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앞에 연자방아와 서낭당이 있었다.

새개미들 [들]

[위치] 벌말들 서쪽, 현 흥대교차로 남서쪽 매지천에 있는 넓은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새개미들’이라 하였다.

[유래] 전에는 버덩이었는데, 논으로 만든 뒤 새개미들이라 하였다.

새들 [들]

[위치] 범파정에서 북쪽 서곡천 건너에 있는 들을 말한다. 무실동의 양지말들 서쪽에 있는 들이다. 들 북쪽 위로 새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다.

새말 [마을]

[위치] 자감촌 북서쪽, 범파정 남동쪽에 새로 생긴 마을을 말한다. ‘신촌’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시말(新村)’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새말(신촌新村)’이라 하였다.

새말보 [보]

[위치] 새말 앞 범파정들에 있는 서곡천의 보(湫)를 말한다.

새뚝들 [들]

[위치] 자감촌 동쪽, 자감촌과 매지천 사이에 있는 들을 말한다.

샛담 [마을]

[위치] 울업 마을 중 남동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곡고개 [고개]

[위치] 서곡고개골 끝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 동쪽 너머에 판부면 서곡리 옷백운정 마을이 있다. 높이는 340m이다.

[유래] 판부면 서곡리로 넘어가므로 서곡고개라고 한다.

서곡고개골 [골]

[위치] 밤골저수지에서 안골(2)를 지나 남동쪽으로, 350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 끝에 서곡고개가 있다.

서답바위 [바위]

[위치] 육민관 북쪽 구역천이 서곡천에 합류하는 곳의 개울 옆 바위를 말한다.

[유래] 옛날 서곡천 물에 빨래를 하던 바위이므로 서답바위라고 하였다.

쇠둔지 [들] → 밤골들

[위치] 벌방골 앞에 있던 밭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벌방골앞들(쇠둔지)’라 하였다.

[유래] 옛날 대장간이 있던 곳이므로 쇠둔지라고 하였다.

수용소 [터] → 밤들수용소

수용소버딩 [들]

[위치] 밤들수용소 앞의 넓은 들을 말한다. 현 흥대들을 가리킨다.

시무골 [골]

[위치] 울업에서 북동쪽으로, 185.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시뒤흔(侍墓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시무골’이라 하였다.

[유래] 옛날 어떤 효자가 이곳에서 시묘를 살았으므로 ‘시묘골>시무골’이라 하였다.

시무골들 [들]

[위치] 시무골 입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지금은 주택들이 들어섰다. 『한국지명총람』에 ‘시무골들’이라 하였다.

신선바우골 [골]

[위치] 밤골저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골 안에 신선바위가 있다.

신촌(新村) [마을] → 새말

아가바우골 [골]

[위치] 밤골저수지에서 남동쪽 352.5m 봉우리를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매지리 분지울이 있다.

[유래] 옛날 한 아이가 산에 버찌를 따먹으러 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이곳 바위 근처에 가면 그때의 혼이 나타나서 메아리로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아랫담 [마을]

[위치] 흥대 마을 중 북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랫말 [마을]

[위치] 자감촌 마을 중 남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아랫밤골 [골]

[위치] 안밤골에서 북동쪽 금성골(1)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아랫밤골 [마을]

[위치] 아랫밤골 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아뤼밤골(下栗洞)’이라고 하였다.

안골(1) [골]

[위치] 흥대들 북쪽, 현 한라대 남쪽에서 서쪽 잘개미봉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안골(安谷)’이라고 하였다.

안골(2) [골]

[위치] 밤골저수지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

한다. 골짜기 끝에 서곡고개골과 분지울고개골이 갈라져 나간다.

안골(3) [골]

[위치] 벌말 벼박골 중간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말 [마을]

[위치] 울업 동쪽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안밤골 [마을]

[위치] 밤골 마을 중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남원주두산위브아파트 북동쪽에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밤골’이라 하였다.

안밤골저수지 [못] → 밤골저수지

양조장터 [터]

[위치] 울업 남쪽 보촌에 있던 옛 양조장의 터를 말한다.

[내용] 1980년대까지 흥업에서 가장 큰 양조장이 있던 곳이다.

어둔골 [골]

[위치] 흥대에서 남서쪽으로, 어둔골산을 향하여 난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가 깊어 어두우므로 어둔골이라 하였다.

어둔골 [마을]

[위치] 흥대 남서쪽, 어둔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어둔골산 [산]

[위치] 흥대 남서쪽, 어둔골 끝에 있는 높이 326m의 산을 말한다. 골짜기 너머에 골매남이 있다.

[유래] 어둔골에 있는 산이므로 어둔골산이라고 하였다. 이곳에서 장수가 난다고 하여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산의 혈을 끊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다고 전한다.

오리나무골 [골]

[위치] 자감촌 서쪽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골짜기에 큰 오리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곳 집터에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 사람들이 집을 헐어버리고 난 뒤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옷나무배기 [들]

[위치] 자재기 마을 앞에 있는 논을 말한다.

[유래] 논 주위에 큰 옷나무가 있었으므로 옷나무배기라고 하였다.

외아들등 [들]

[위치] 자감촌에서 흥대로 가는 언덕 위에 있던 밭을 말한다. 현 한라대학교 자리이다.

[유래] 밭의 임자가 외아들로 혼자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므로 외아들등이라 하였다.

요골 [골]

[위치] 울업에서 북동쪽으로, 서곡리 도매둔지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새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뇨골(蓼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욯골’이라 하였다.

요동 [마을]

[위치] 요골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우무거리 [터]

[위치] 흥대 마을의 서쪽, 우물이 있던 자리를 말한다.

우무골 [골]

[위치] 흥대 마을 서쪽, 우무거리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울업(蔚業) [마을]

[위치] 흥업리의 중심 마을로, 흥업사거리에서 흥업교차로에 이르는 마을이다. ‘거래’, ‘위업동’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울업(蔚業)’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울업(울업동蔚業洞)’이라 하였다.

울업거리 [마을]

[위치] 울업의 중심지로 현 흥업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말한다. 흥업면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우체국, 상가들이 있다.



「울업거리 마을 ; 2020년」

울업고개 [고개]

[위치] 울업에서 남동쪽으로, 서곡리 아랫백운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우업고기(蔚業峴)’라고 하였다.

울업고래실골 [들]

[위치] 울업들에서 남서쪽으로 자재기들을 향하여 난 들을 말한다. 자재기저수지의 물을 댔다. 현재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울업내 [내]

[위치] 매지천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우렵니(蔚業溪)’라고 하였다.

[내용] 매지천이 울업 앞을 흐르므로 이곳에서는 울업내라 하였다.

울업들 [들]

[위치] 울업동 남서쪽, 매지천 옆으로 보춘에 이르는 들을 말한다. 현 상가와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들의 반 정도가 남아있다.

울업제방 [둑]

[위치] 울업 앞에 있는 매지천의 둑을 말한다.

울업주막 [주막]

[위치] 울업에 있던 옛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우렵주막(蔚業酒幕)’이라고 하였다.

웃가리골 [골]

[위치] 가리골 중 가리골저수지 위의 골짜기를 말한다. 가리골저수지에서 남동쪽 위로 나 있는 골짜기이다.

웃담 [마을]

[위치] 흥대 마을 중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 동쪽에 옛 밤나무수용소가 있었다.

웃동재 [골]

[위치] 흥대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어둔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 너머에 대안리 상해삼터가 있다. 골 중간에 흥업티널이 나 있다. ‘웃동재골’이라고도 한다.

웃동재골 [골] → 웃동재

웃말 [마을]

[위치] 자감촌 마을 중 북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한라대학교 북쪽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웅골 [골] → 곰골

원수고개 [고개] → 대안리 원수고개

[위치] 합포원, 범파정에서 남서쪽 대안리 하해삼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높이는 200m이다. ‘풍년고개’라고도 한다.



「원수고개 ; 2020년」

원수골 [골]

[위치] 범파정 아랫말에서 남서쪽 원수고개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를 따라 현 대안로가 나 있다. 사제리와 경계가 되는 골짜기로, 골 끝에 원

수고개(풍년고개)가 있다.

위업동 [마을] → 울업

울동(栗洞) [마을] → 밤골

응개미재 [고개]

[위치] 흥대 어둔골에서 남쪽으로, 매지리 응개미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일우지(逸遇池) [못]

[위치] 육민관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인공연못을 말한다.

자감촌(自甘村) [마을]

[위치] 울업 흥업초등학교 남쪽, 한라대학교 동쪽 앞의 마을을 말한다. 자지봉 동쪽 밑에 있는 마을이다. ‘웃말’과 ‘아랫말’이 있다. ‘잔개미’, ‘잘개미’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잘기미(自甘村)’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잘개미(자감촌自甘村)’라 하였다.

[유래담] 자지봉과 건너편 동산 사이의 능선이 개미혈처럼 생겼으므로 잔개미, 잘개미라 하였다 한다. 이를 한자로 적으면서 자감촌(自甘村)으로 정착되었다.

[내용] 일제강점기에 이 마을은 대규모 금광으로 유명하여 부근에서 이 마을의 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현 한라대학교 부근에 몇 군데의 금광이 있었고 앞 개울 서곡천에는 금방앗간도 있었다고 전한다.



「자감촌 마을 : 2019년」

자자기 [마을] → 자재기

자재기 [마을]

[위치] 당골 북쪽, 울업 보촌 남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현 흥대교차로 동쪽에 붙어있는 마을이다. ‘자자기’, ‘재재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자작이(自作里)’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자자기’라 하였다.

자재기도랑 [내]

[위치] 자재기 동쪽에서 서쪽 마을 앞으로 흐르는 내를 말한다.

자재기들 [들]

[위치] 자재기 마을 북동쪽, 자재기저수지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자재기저수지 [못]

[위치] 자재기 동쪽 산 밑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남쪽 금성골(1)의 물을 모아 북쪽 자재기들에 물을 댄다. 못 남쪽 위로 19번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자주봉 [산] → 자지봉

자주봉산 [산] → 자지봉

자지봉(紫芝峰) [산]

[위치] 자감촌 서쪽에 있는 높이 279.1m의 산을 말한다. 현 한라대학교 북서쪽에 붙어있는 뾰족한 산으로 대안리와 경계를 이룬다. ‘자주봉’, ‘자주봉산’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자지봉(紫芝峰)’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자지봉’이라 하였다.

[유래] 산의 모양이 남자의 자지처럼 생겼다고 하여 자지봉이라 하였다. 자지봉 서쪽 대안리에는 뒷자지봉이 있다. 최근에 이름이 흉하다고 하여 ‘문필봉(文筆峰)’으로 이름을 고쳤다.

[내용] 고종이 서거하였을 때 망곡례(望哭禮)를 올렸던 산이다. 3·1운동 때는 주민들이 이 산에 올

라 만세를 불렀다. 주민들이 4월 9일 낮에는 사제리 백사장 모래장터에서, 밤에는 자지봉에서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자지봉 ; 2018년」

잔개미 [마을] → 자감촌

잘개미 [마을] → 자감촌

잘개미보 [보]

[위치] 자감촌 앞 북동쪽에 있는 매지천의 보(湫)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잘기미보(自甘村湫)’라고 하였다.

잘개미봉 [산]

[위치] 한라대학교 남서쪽, 흥대 북서쪽에 있는 높이 259m의 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잘개미봉’이라 하였다.

[내용] 『한국지명총람』에 봉우리가 수려하다고 하였다.

장구맥이골 [골]

[위치] 가리골저수지에서 웃가리골과 갈라져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자재기 [마을] → 자재기

절골 [골] → 절터골

절터 [터]

[위치] 자재기 마을 동쪽 금성산 줄기에 있었다고 하는 옛 절터를 말한다. 현재 위치는 알 수 없다.

절터골 [골]

[위치] 자재기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에 ‘절설(寺谷)’이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절터골’이라 하였다.

절터골들 [들]

[위치] 자재기 동쪽, 절터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절터골들’이라 하였다.

제방둑 [둑]

[위치] 흥대들에 있는 매지천의 둑을 말한다.

중보(中湫) [보]

[위치] 자감촌 앞 매지천의 가운데 있는 보(湫)를 말한다.

초당고개 [고개]

[위치] 밤골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유래] 옛날 고갯길에 풀로 지붕을 이어 겨우 햇빛만 가린 한문을 가르치던 서당이 있었으므로 초당고개라 하였다.

터둔들 [들] → 토둔버덩

터둔버덩 [들] → 토둔버덩

터둔벌 [들] → 토둔버덩

토둔들 [들] → 토둔버덩

토둔버덩 [들]

[위치] 강릉원주대학교 서쪽, 육민관고등학교와 그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현 자감교사거리 북동쪽에 붙어있다. ‘토둔들’, ‘터둔들’, ‘터둔벌’, ‘터둔버덩’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토둔버덩’이라 하였다.

[유래] 황토로 된 버덩이므로 토둔버덩이라고 하였다.

토둔저수지 [못]

[위치] 토둔들 동쪽 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판부면 서곡리 외도매 서쪽, 마장동 남쪽 내 건너에 있는 저수지로, 현 강릉원주대학교 대운동장 북쪽에 있다.

풍년고개 [고개] → 원수고개

헌터 [마을] → 흥대

헌터보 [보]

[위치] 흥대에 있는 매지천의 보(洑)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헌터보(興垆洑)’라고 하였다.

험한골 [골]

[위치] 헌터 웃동재 중간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골짜기를 말한다. 북쪽 산 너머에 대안리 수두령골이 있다.

흥골 [골]

[위치] 흥대 아랫담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를 말한다. 안골 남쪽, 험한골 북쪽 사이에 있다.

황새머리 [들]

[위치] 울업 앞 낙수동들에 있는 논을 말한다.

[유래] 황새들이 찾아와 사는 논자리이므로 황새머리라 하였다.

후지박골 [골]

[위치] 자감촌 마을 서쪽 뒤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구지박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구제바위골(九祭岩谷)’이라고 하였다.

[유래]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후지박골이라 하였다.

흥대(興垆) [마을]

[위치] 자감촌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헌터’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헌터(興垆)’라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흥대(흥대동, 헌터)’라고 하였다.

[유래] 처음에는 쓰지 못하는 헌터였는데 마을이 점점 커지자 다시 일어나서 마을이 번창하라는 뜻으로 ‘헌’을 ‘흥(興)’으로 미화하여 고쳤다. ‘흥(興)’은 ‘헌’의 소리를 미화하여 적은 것이며 ‘대(垆)’는 ‘터’의 뜻을 적은 것이다.

[내용] ‘헌터>흥대(興垆)’의 ‘흥(興)’과 ‘울업(蔚業)’의 ‘업(業)’을 합쳐서 ‘흥업(興業)’이란 이름을 만

들었다.



「흥대 마을 ; 2020년」

흥대들 [들]

[위치] 흥대 동쪽, 한라대학교 남동쪽에 펼쳐진 매지천 옆의 넓은 들을 말한다. ‘밤들’, ‘흥대버덩’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에 ‘흥대버덩’이라고 하였다.

[내용] 원래 밤나무가 있던 버덩이었으므로 밤들이라고도 하였다. 밤들수용소가 있던 곳이다.

흥대버덩 [들] → 흥대들

흥대서낭당 [당]

[위치] 산막골 앞에 있던 서낭당을 말한다.

[내용] 해마다 늦가을에 서낭당에서 제를 지내고 마을 입구에 장승을 깎아 세우고 제를 지냈다. 1970년대 이후 폐지되었다.

흥업리선사유적 [유적]

[위치] 현 육민관고등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내용] 간돌검 등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었다. 이 지역은 서곡천과 매지천이 합류하는 구릉 지역으로 들이 넓고 하천이 발달한 곳이므로 청동기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높다.

흥일국민학교 [학교]

[위치] 밤나무수용소에 있던 국민학교를 말한다.

[내용] 1951년에 설립되어 휴전 후, 1953년에 흥업국민학교로 통합되었다. 학생 수가 8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한다.

행 정 지 원

- 박종수 : 원주시역사박물관 관장
- 금은숙 : 원주시역사박물관 행정관리팀장
- 김연진 : 원주시역사박물관 주무관

책 자 편 찬

- 김성찬 : 원주시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장
-

원주시명총람(하)

발행일

2020년 4월 10일

발행

원주시역사박물관

기획 · 편찬

김성찬(학예연구팀장)

원주시 2020

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봉산동)

원주시역사박물관 (033)737-4372